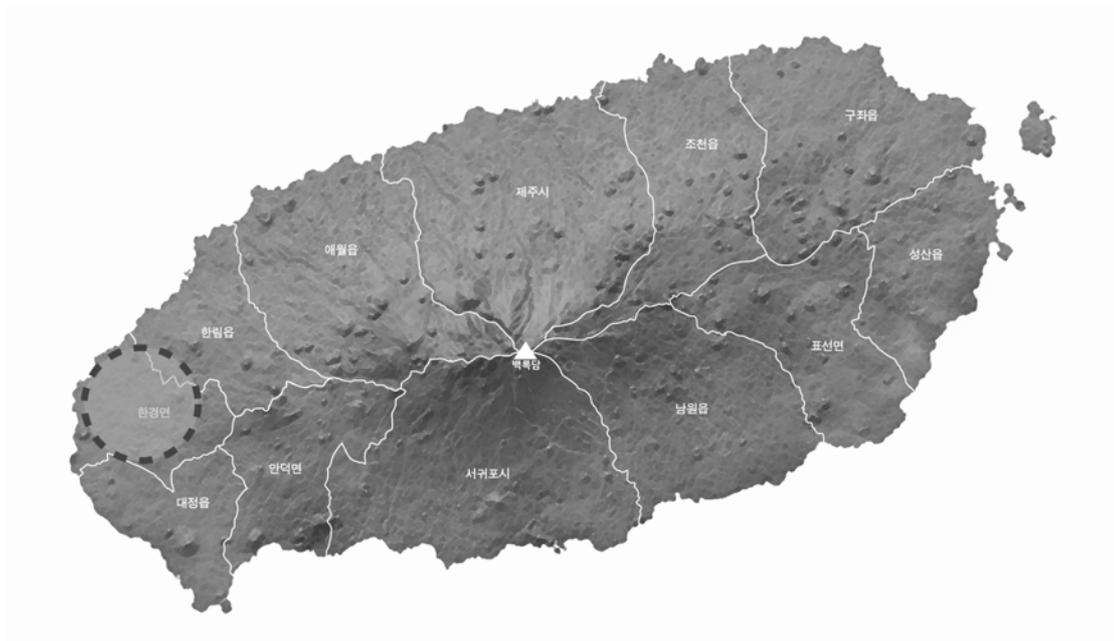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63-01

#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보향  
조사지점: 한경면신창리

# 34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4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환경면 신창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4	2. 제보자 일생 .....	24
3. 밭일 .....	46	4. 들일 .....	79
5. 바다일 .....	94	6. 의생활 .....	116
7. 식생활 .....	139	8. 주생활 .....	214
9. 신앙 .....	245	10. 세시풍속 .....	253
11. 놀이 .....	274	12. 통화의례 .....	284

제2절 어휘

1. 인체 .....	344	2. 육아 .....	350
3. 친족 .....	357	4. 의복 .....	361
5. 음식 .....	366	6. 가옥 .....	375
7. 생업 .....	380	8. 수와 단위 .....	392
9. 민속 .....	395	10. 신앙 .....	398
11. 자연 .....	399	12. 동물 .....	406
13. 식물.....	416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한경면 신창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진인중(여, 1935년생)  
 이순녀(여, 1936년생)  
 고숙자(여, 1934년생)  
 고영려(여, 1930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의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진인중	00:19:59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진인중	00:51:38	○
3. 밭일	구술 3. 밭일 1	진인중	00:41:17	○
	구술 3. 밭일 2	진인중	00:31:09	○
4. 들일	구술 4. 들일	진인중	00:36:43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진인중	00:54:13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진인중	00:52:29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이순녀	01:19:09	○
	구술 7. 식생활 2	이순녀	01:12:03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이순녀	01:00:29	○
9. 신앙	구술 9. 신앙	이순녀	00:17:02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이순녀	00:40:16	○
11. 놀이	구술 11. 놀이	이순녀	00:20:34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진인중	02:00:0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진인중	00:33:34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진인중	00:25:04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고숙자	00:39:22	○
	어휘 1. 인체 2	고숙자	00:31:44	○
2. 육아	어휘 2. 육아 1	고숙자	00:22:36	○
	어휘 2. 육아 2	이순녀	00:28:58	○
3. 친족	어휘 3. 친족	고영려	00:35:06	○
4. 의복	어휘 4. 의복	고영려	00:38:44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진인중	00:14:25	○
	어휘 5. 음식 2	진인중	01:28:12	○
6. 가옥	어휘 6. 가옥 1	이순녀	00:57:02	○
7. 생업	어휘 7. 생업 1	이순녀	00:47:47	○
	어휘 7. 생업 2	진인중	01:024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9. 민속	어휘 9. 민속	이순녀	00:13:53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이순녀	00:07:25	○
11. 자연	어휘 11. 자연	진인중	00:48:17	○
12. 동물	어휘 12. 동물	진인중	01:32:19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진인중	00:23:53	○
	어휘 13. 식물 2	이순녀	00:29:26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김보향, #1: 진인중, #2: 이순녀)

#### 1. 조사 마을

101001 @ 삼촌 이 신창 마을을 잘 알 거 아니. 죽장 여기난예?

101001 #1 으.

101001 @ 이 바고 옆이서 태어난 여기로 시집온 거예?

101001 #1 으.

101001 @ 계난 이 신창 마을이 언제 생겼수과? 원래는 두모였던 거 아니?

101001 #1 두모.

101001 @ 원래는예?

101001 #1 두모. 두모라도 갈랏젠 험다.

101001 @ 계니까. 두모에서 갈른 거 신창이.

101001 #1 갈른 것이 우리 아버지네 시대난예.

101001 @ 예.

101001 #1 난 말만 들엇주게.

101001 @ 예, 예.

101001 #1 견디 우린 두모, 이견, 이견, 이견 골메. 우리는 이디 두모 살고 바로 이디 골메 부쩍.

101001 @ 으.

101001 #1 이디는 또 신창. 경허연 우리 집으로 갈라낫주게.

101001 @ 아, 삼촌네 집으로.

101001 #1 으, 으.

101001 @ 두모랑 신창이랑 갈런?

101001 #1 으. 경험 갈란에 험디 우리 아버지네 시대에도 더 으라 해 똬서.

101001 @ 계난 영 물어보난, 두모 갔을 때 물어보난 노인훤장 말로는 혼 구십년 똬젠 험디다.

101001 101001 #1 구십년 더 똬져.

101001 @ 더 똬서?

101001 #1 구십년 아이고 우리가 이제 칠십, 팔십돌 아이가게.

101001 @ 예, 예.

101001 #1 팔십돌인디 우리 아버지네 시대에 전이 갈랏젠 허는 디.

101001 @ 아버지 시대 전이?

101001 #1 으. 경헌디 이제 우리 아버지네가, 아이구 백 해도 더 뻗저. 백 혼 몇 십년 뻗주.

101001 @ 계민 원래는 두모가 뻗디 신창으로 갈린 거.

101001 #1 갈린 것이 혼 우리 아버지네 흐끔 젊은 때 허난. 우리 태어남도 이거 팔십 두 해고 그 전이 허여도 혼 백오십 헨 넘었저.

101001 @ 음. 이컨 다른 어른안티도 한 번 더 물어보쿠다.

101001 #1 으, 더 물어보라.

101002 @ 이 신창 동네에는 무슨 성씨가 많우과?

101002 #1 고씨가 하지 안 허카?

101002 @ 고씨가?

101002 #1 고씨.

101002 @ 고씨가 동네에 하예?

101002 #1 으, 으. 고씨, 김씨.

101002 @ 아, 고씨, 김씨. 여기 한 멧 가구 뉘는지 모르지예?

101002 #1 이젠 멧 가구산디 옛날은 삼백 혼 이십 가호쯤.

101002 @ 아, 옛날에 삼백이십 가구. 옛날이 언제쯤이라?

101002 #1 옛날이. 혼 십 년 전이꺼진 삼백 헌디 이젠 육지서덜 하간 사람이 다 와 농난 호수가 몰르지.

101002 @ 아, 계민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구나?

101002 #1 늘어났주게.

101002 @ 사람덜 더 많아진 거예?

101002 #1 으.

101002 @ 아, 계민 여기 신창이 두모보단 크다예?

101002 #1 널르주게게.

101002 @ 여기가 널러예.

101002 #1 두몬 멧 호나 뉘는고 몰라.

101002 @ 한 백오십 호 정도 뉘텐 험니다.

101002 #1 경헌디 그디 가갓바우 허고 신창로 얼마 쉴고 신창이 널르주게. 이디 상동, 신흥동 허고 허민 오죽 하나게.

101002 @ 계민 신창이 여기 동이 뉘 뉘 잇수과? 상동?

101002 #1 이봐이 신창리엔 허연이.

101002 @ 으.

101002 #1 저 신흥동, 이제 상동.

101002 @ 으.

101002 #1 중동, 하동.

101002 @ 중동, 하동. 허민 네 개동으로 나눈 거.

101002 #1 응.

101002 @ 신흥동도 잇고 상동, 중동, 하동. 네 개동으로 나눈 거. 경험 삼백이십 가구. 많은 건 고씨.

101002 #1 김씨.

101003 @ 김씨. 여기 신창 사름덜 주로 무슨 일 험니까?

101003 #1 농사일게.

101003 @ 농사일.

101003 #1 다 이디 사름덜 뵈 허느니.

101003 @ 그니까.

101003 #1 바당에 허고.

101003 @ 바당일 허당.

101003 #1 바당에 보제기덜은 꿩기 나끄레 가고.

101003 @ 음.

101003 #1 이제 여저덜은 물질허고 농사짓고.

101003 @ 농사짓고. 신창엔 주로 어떤 농사덜 지엄신고예?

101003 #1 이젠 스못 콜레비로 부루코로 나 일름도 다 몰라.

101003 @ 몰라, 하하하.

101003 #1 아이고 돈 버는 거 보민 쪽파로 양파로.

101003 @ 예.

101003 #1 돈이 일 년이민 일억도 더 벌엄세게.

101003 @ 그런 콜라비 같은 거 허는 사름덜예?

101003 #1 어게. 비니루 하우스 헤여 놓고 냉동기 다 짓어 놓고게.

101003 @ 그거 젊은 사름덜 아니?

101003 #1 다 젊은 사름이주.

101003 @ 젊은 사름덜.

101003 #1 젊은 사름이난이주 농서 뭐여 우리 거튼 거 농서 다 설러벤게.

101003 @ 으. 경험 벌어들이는 거라. 옛날에 이 신창에는 어떤 농서덜 지었수과?

101003 #1 옛날은게 보리, 감제, 조베끼 더 잇어사, 돈 나는 게. 절간감제 허고 생채 풀 땀 생채 강 감저 풀고 거 뿐이랏주게.

101003 @ 음. 겐디 이젠 막 콜라비도 허고 브로커리도 허고 경 험서예?

101003 #1 보리거튼 건 안 허고게.

101003 @ 보리 거튼 건 안 허고.

101003 #1 보리, 감제 거튼 거 안 허고 이젠 콜레비, 뭐 허어나민 지장덜 갈양 돈 벌고. 건 굴루이덜.

101003 @ 지장?

101003 #1 으.

101003 @ 굴루이가 뭐?

101003 #1 건 이, 저 농서도 저 농서도 안 허영 놀 때에.  
101003 @ 아.  
101003 #1 흔 너 해 허는 거난. 멧 개월 오래 안 허는 거난.  
101003 @ 으.  
101003 #1 이, 삼월에 다마네기 뽑앙 허어나민 이제 오월덜 나민 지장 장만허는 거난. 곧 헤영 건 곧 고고리 낭.  
101003 @ 거 금방 크는구나?  
101003 #1 금방 킨 금방 허는 거난.  
101003 @ 으.  
101003 #1 그런 거 굴루이 허곡게 오죽 헨 별엄사게.  
101004 @ 여기에 신창에 오름이 뭐 잇수과?  
101004 #1 이디 신창 오름이 엇어.  
101004 @ 엇어. 아, 아까, 아까 농사는 경허고 이디 바닷일도 허잖아예. 아까 보 제기는 퀘기 나끄고?  
101004 #1 으. 구물덜도 허곡게.  
101004 @ 뭐, 뭐 그물도 허고? 해녀덜은 강 뭐 잡읍니까?  
101004 #1 이젠 금치주게. 오월로 시월까진 금치 기간이라이.  
101004 @ 예, 예.  
101004 #1 경헌디 성기, 구제기, 즈복도 그 기간엔 못 허곡게. 이 해삼 그건 거 주게.  
101004 @ 그런 거 헐 거예?  
101004 #1 으. 천초.  
101004 @ 천초. 삼춘 우미엔 안 험수다예?  
101004 #1 천초. 우미엔도 천초엔. 옛날 할망이 우미, 우미 헛주게. 요샌 천초.  
101004 @ 천초렌 허고예. 그거 헛던 거고. 여기에 신창엔 오름은 엇고.  
101004 #1 오름 엇어.  
101004 @ 내창은?  
101004 #1 내창도 엇어.  
101004 @ 여기 큰 바위, 일름 잇는 바위덜 뭐 잇수과? 어디 지경 얘기헐 때 무슨 무슨 바위? 큰돌?  
101004 #1 큰돌은 아녀고. 이 마리여코지.  
101004 @ 마리여코지?  
101004 #1 으.  
101004 @ 거기는 뭐?  
101004 #1 영 내앗은 디주게. 딱로 영 강 내앗은 디난 마리여코지.  
101004 @ 계민 바닷가과?  
101004 #1 으, 바닷가게.

101004 @ 게니까 코지난 영 돌은 딴게예.  
101004 #1 어.  
101004 @ 다시 한 번 말해 줘서.  
101004 #1 마리어코지. 이딴 옛날은 신창 상코지, 마리어코지 헤낫주게. 건디 상코지는 이제 축항해영 오꼴 헤여부난 상코진 엇어지고.  
101004 @ 게민 여기가 바로 상코지 자린게예.  
101004 #1 어. 경허난에 저 시에 강 사는 이제 향우회선 옛날 상코지엔 현 거세기가 엇어지난 잘도 뵈 허다고 허는다.  
101004 @ 으.  
101004 #1 이젠 마리어코지 하나. 그딴 안 허난에 이젠 그디 드리, 드리 낱 영 건너민 그디 가지는디.  
101004 @ 음.  
101004 #1 이젠 바당으로 드리 낱주게. 바당 우이로 건너. 막 겨난 관광객덜 하영 와.  
101004 @ 음, 나중에 강 사진 찍으쿠다.  
101004 #1 으.  
101004 @ 굴도 엇수과 이 동네?  
101004 #1 이 동넨 성굴왓 굴 .  
101004 @ 성굴왓 굴.  
101004 #1 신흥동 굴.  
101004 @ 신흥동 굴. 두 군데?  
101004 #1 하나 하나.  
101004 @ 아, 성굴왓 이랑 신흥동 굴이 ㄴ튼 굴?  
101004 #1 ㄴ튼 ㄴ을이주게. ㄴ튼 부락이주게. 성굴왓이엔 허고 옛날은 성굴왓이엔 헤낫주게. 경헌디 이젠 신흥동이엔 허여.  
101004 @ 아, 아 이제 신흥동이엔 불러.  
101004 #1 으.  
101004 @ 여기 신창은 옛날 불러난 일름이 엇수과?  
101004 #1 어, 신창.  
101004 @ 그냥 신창? 옛날 일름 들어난 거 엇인가?  
101004 #1 엇언게. 이디 우인 옷가름이엔 헤낫주게. 상동은. 옷가름이엔 헤난디 이젠 상동이엔 곱아.  
101004 @ 여기는 어느 동이과?  
101004 #1 이건 중동.  
101004 @ 중동. 옛날에는?  
101004 #1 옛날엔 그자.  
101004 @ 엇어난 거?

101004 #1 엇어난디 동으로 갈르난 이거 중동, 하동.

101005 @ 하동 웬 거예? 그럼 여기에 무슨 기관. 학교나 병원이나 신창에 소속  
웬 거? 학교는 잇잖아예?

101005 #1 아이고. 학교는 옛날로부터 일등, 제주도엔 일등 가난 학교주게.

101005 @ 으.

101005 #1 경치 좋고.

101005 @ 으.

101005 #1 이디 우리 성할아버지네 마당 내놓고 우리 큰시아방이 집 짓는 터  
내놓고 허여 짓으난 이제 비석도 다 세와전 잇주게. 땅은 우리 하르방이 하영 내여  
논디 우리 큰시아방이 집 땅 지 내놓켄 헨 설리 허여부난 비석은 땅 족게 내 놔도  
일본으로 세와서.

101005 @ 하하하.

101005 #1 그다음은 우리 하르방.

101005 @ 계민 하르방이랑 시, 시택에 누구, 누구?

101005 #1 큰시아방.

101005 @ 큰시아방. 계난 두 집이서가 다, 두 집이서가 다 헤신게. 경헨 신창  
중학교예?

101005 #1 아니. 국민혹교.

101005 @ 신창국민학교.

101005 #1 중학콘 허단 이디 폐지 뒤연 이제 잇고게.

101005 @ 이제 잇고. 으, 이제 중학교 엇수과? 잇지예?

101005 #1 이제 중혹교 셔도 학교 하나에서 다 짓언 험세. 메왕.

101005 @ 예. 메왕.

101005 #1 경허난 저건 교육청에서 산 아메도 저딘이 저 무시걸로 헌덴 허는디  
몰라.

101005 @ 아.

101005 #1 저이, 것ㄴ라 뭐고? 이디 왕 하간 거, 아이고 이젠 곧젠 헤도 잇어벤.

101005 @ 잇어 불엇저. 튼내지걸랑 곱읍서, 예. 겨난 이디가 원래 국민학교 자  
리라난?

101005 #1 으.

101005 @ 중학교는 다른 디 잇어난?

101005 #1 우리 시집 간 후체 저거 다 매립헨 짓은 집이주게.

101005 @ 중학교 어디과?

101005 #1 흐뎡, 흐뎡 더 가민 이디 셔. 일로도 가민 뒤에 가져. 뒷질 가져. 이  
올레로 가민.

101005 @ 예, 계민 여기 중학교 잇고. 여기 국민학교 잇고 헌 거라예?

101005 #1 으, 경헌디 이젠 메와젓주게.

101005 @ 여기는 이제 뭐 허는지 모르고?  
101005 #1 어. 경헌디 그건 서울서여 어디서여 왕근에 그 무시거 허는 거엔 헤라만은 오꼴 잊어벤 나가.  
101005 @ 교육허는 디 만는거예.  
101005 #1 으, 경헐 거엔.  
101005 @ 헐 거엔 아직 안 허고?  
101005 #1 으, 아직은 안 허고. 이제 그 무슨 교육관에서, 하여튼 무시거 헌덴 우리 족은아덜 말이 그런 거 허게 텔 거우다. 골안게.  
101005 @ 계민 여기 문 단안, 오랫동안 문 단안난 것과?  
101005 #1 아니, 어떤 사름사 왕 살암신지 흐끔 살기덜은 사용햄서 이제.  
101005 @ 으, 예. 병원은 잇수과 신창리에?  
101005 #1 병원은 스몏 한의원이여 병원이여 이디게. 끈어져 보지 안 허여, 이딘. 옛날로부터.  
101005 @ 아, 옛날로부터?  
101005 #1 어.  
101005 @ 무슨 병원이 잇수과 여기?  
101005 #1 전이 하르방덜 시대엔 흥이생, 이젠 한의원은 문약국.  
101005 @ 음.  
101005 #1 경허고 약방도 셔난디. 약방도 두 밧디, 경헌디 이젠 글후젠 저디 고의원 저쪽에 병원 셔나고, 견디 고의원 이젠 저 보건소에도 고의원 셔나고 경헤난디 이젠 병원덜이 막 생겨. 이디 병원 허고 저디 한의원 허고 허난.  
101005 @ 음.  
101005 #1 어디 가지덜 안 허여.  
101005 @ 다 이 동네에서.  
101005 #1 으, 해녀덜이고 무시거고.  
101005 @ 이디 보건소도 잇수과?  
101005 #1 보건소 잇주게.  
101005 @ 으, 보건소도 잇고 허니까. 또 은행도 잇고. 여기 농협 잇고.  
101005 #1 은행 잇고 수협 잇고.  
101005 @ 으, 두 군데 잇고. 우체국 잇수과?  
101005 #1 우체국은 옛날 우리 하르방네 시대 때 고산 가는 우체국 싸우멍 들리멍 헤낫주게.  
101005 @ 하하하.  
101005 #1 고산광은 막 대립헤낫저게.  
101005 @ 이 신창이.  
101005 #1 경 헤난난 영 등 허영 그 체육관도 그디 끌어가부난 우리 데모허멍 막 헐 이젠 좋도록 허영 화해허연. 옛날론 적이랏주게.

101005 @ 계난.

101005 #1 하르방덜 다 보리낭눌 소곱에 곱앙 느시 먼 운동 헤낫어.

101005 @ 계난 이 신창 마을이 한경면에서는 잘도 큰 믱을이구나.

101005 #1 큰 믱을이주게. 한경 신창이엔 허민 스몛.

101005 @ 아, 기구나. 우린 한경하면은 한경면하면은 아멩헤도 고산을 먼저 뭐 허는디 신창 큰 마을인게.

101005 #1 계난 우린 이제덜이나 허고 땅이 넓은 디난 허고 우리 땅이 넓지 안 허고 허고 신창이 막 유지자덜이 췌여낫주게.

101005 @ 으.

101005 #1 옛날 그 하르방덜이 다 죽어부난 험주만은.

101005 @ 기라예. 옛날에 마을에 접, 접들이 잇어낫수과?

101005 #1 접들이 뭐고?

101006 @ 계, 계. 마을계? 예를 들면 뭐 바당일 허젠 허민 무슨 접 행?

101006 #1 아니, 아니.

101006 @ 아니면 뭐 추렴허젠 허민 무슨 접?

101006 #1 아니.

101006 @ 그런 접 잇어낫수과?

101006 #1 그런 거 잇어난.

101006 @ 잇어난? 이디 신창에 무슨 풍습 같은 거 잇수과?

101006 #1 풍습은 뭐. 이딘 옛날도 할망당이엔 현 디덜 막 텅겨난디이.

101006 @ 으, 으.

101006 #1 할망당도 이딘 안 현다. 그런 마귀 그런 건 위허질 안 허여, 이딘. 이 동넨.

101006 @ 이쪽이 아멩헤도 천.

101006 #1 이 제 지내거나 그런 것도 잇고.

101006 @ 마을제도 잇고?

101006 #1 잇고. 이 신창더레 두모러렌 다 성당만 줌 허주.

101006 @ 계난예. 여긴 천주교가 빨리 들어온 거 같애예.

101006 #1 막 깨끗허여 이딘.

101006 @ 계난.

101006 #1 심방 거튼 것도 허는 사름 잇고.

101006 @ 아, 그런 것도 잇고.

101006 #1 으, 심방 헤나민 막 웃주게게.

101006 @ 계민 옛날부터 삼춘 당 다니고 안 헤낫수과?

101006 #1 당 다닌 뭐고?

101006 @ 당. 당, 할망당 같은 데 다녀나고 안 헤난?

101006 #1 아, 할망당 헐 때 나 아기 키울 때 혼 멧 번 가왓주 안 가완.

101006 @ 아. 기민 당은 잇긴 잇어났수다예?

101006 #1 당 셔난디 그 예배당 믿는 저 두모. 그디서가 다 부수와벤.

101006 @ 음. 하하하.

101006 #1 다 부수와불고 다 멜라도 심방덜이 강 앓아나긴 허영 저 거 이디 저 디도 아이 밍곡 현 사름은 어떻 허단 그디 가긴 허여난 쟁이라.

101006 @ 어느 쪽에 잇어난지는 알아지지 안 허여?

101006 #1 이제 이디 가민 일로 내려가민 우체국 골목으로 영 내려가민 그디 퀘기 질루는 디 셔.

101006 @ 으.

101006 #1 퀘기 질루는 디 흐뎀 저펜이. 돌, 돌 영 다곡계. 가민 물색 험벽 찢르 곡 허영 텅이는 사름 텅이곡 허여도.

101006 @ 아직도 자리는 있는 거구나예.

101006 #1 자리는 잇는 거주계. 부수와베도 새로 영 허영계 셔도 아니 다녀. 거 도 옛날은 이 당이 쟈여 놓난 이 두미 신창 영장 그런 거 올르지도 안 현덴 허주 계. 깨끗허연.

101006 @ 음. 바다에서 누구 빠정 뭐 헤도 올르지 안 헤?

101006 #1 으, 올르지 안 허영.

101006 @ 그 당 일름을 뒤편 글아났수과?

101006 #1 할망당이엔 허주.

101006 @ 할망당예.

101006 #1 으.

101006 @ 거기 한 곳밖에 엇수과?

101006 #1 한 곳베끼 엇어예.

101006 @ 계난 이 동네에서는 곳도 경 베랑 안 헤 닛구나.

101006 #1 아이고 곳 안 허여.

101006 @ 안 헤나고? 그럼 성당 텅기는 사름덜은 하과?

101006 #1 거저주계.

101006 @ 아, 거저 다 성당 다녀?

101006 #1 으, 여기 흔 멧 집 기자.

101006 @ 절간은 안 다녀?

101006 #1 여긴 절도 엇어. 고산은 절 셔도? 고산은 절 멧 개씩 셔도.

101006 @ 기민 절간 다니는 사람도 베랑 엇겿다예?

101006 #1 으, 게도 흔, 흔 동네 영 도나리에 흔 두 사름씩은 싣주계.

101006 @ 아, 경해도 거의 성당예?

101006 #1 으.

101006 @ 삼춘도 성당 다넘수과?

101006 #1 나 성당에 전이 견진꺼지 다 받았주계.

101006 @ 으.

101006 #1 경허단에 중간에 놀앙 이제도록 놀암주게. 하르방은 쪽 뎅기고.

101006 @ 하하하.

101006 #1 하르방은 일 성당식으로 다 허고 저기 예수님도 저디 성모님도 다 허고.

101006 @ 예. 이신게. 저도 놀암수다.

101006 #1 경허난에 나도 뎅기단 아니 허긴 허여도 나도게 정신은게.

101006 @ 그게 근본예. 천주교가예.

101006 #1 예, 맞수다. 맞수다. 메뉴리덜도 다 성당 뎅기고.

101006 @ 아.

101006 #1 우리 족은메누리 하나 법당.

101006 @ 아, 게민 법당 다니는 거 뉘렌은 안 곧고예, 시어머니가?

101006 #1 아이고 그거 다 자기에 따랑게 가고 싶은 디 가사주.

101006 @ 계난 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 다 성당에서 일?

101006 #1 우리 하르방은 병원에서 들안 돌아간에 시건 완 성당에서 다 허여.

101006 @ 아, 성당에서 다 일 치룬 거.

101006 #1 으.

101008 @ 여기 신창에 특산물이 뭐 잇수과?

101008 #1 뭐 특산물 무시거?

101008 @ 아까 뭐 여기 바다에서 나는 거 좋덴 허난 톳도?

101008 #1 으, 톳 천초가 아메도 이디가 해주게.

101008 @ 으. 바당이 좋으난 하영 나는 거예?

101008 #1 하영 나주게. 널름도 허고. 천초는 질 많이 날 거라 이 서촌에선. 동촌엔 우미가 멧 구부리씩 헌덴 헤도 이 서쪽으로는 시로 이꺼지 왕은 신창만이 천초 하영 나는 디 엇실거라.

101008 @ 계난 삼춘도 열 구부리?

101008 #1 너미 허연.

101008 @ 너미 헤연예?

101008 #1 으.

101008 @ 열 구부리엔 허는 게?

101008 #1 마다리, 마다리. 마대.

101008 @ 아, 마대?

101008 #1 으.

101008 @ 마대를 구부리엔 헌 거?

101008 #1 으.

101008 @ 그럼 여기에 무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1008 #1 삼십 키로씩게.

101008 @ 아.

101008 #1 전이 오십 키로씩 헤난디 무거웁 담양 데이지 못헤노난 삼십 키로로 줄연.

101008 @ 삼십 키로 이거 열 개를 헛던 거?

101008 #1 으, 우리 전인 오십 키로짜리 으덥 개도 허고 열 개도 허곡 헤낫주 게.

101008 @ 삼십 키로짜리 열 개 헛덴 허난 삼백 키로를 헨 거라예. 들린 거?

101008 #1 어, 어.

101008 @ 신창 자랑거리엔 허민 뭐가 잇이컨고예?

101008 #1 뭐 자랑거리 신창 뭐 자랑거리 헐 거 시니게.

101009 @ 경해도 우리 동네 신창은 자랑헐 게 잇어야주.

101009 #1 자랑헐 거 뭐 잇어.

101009 @ 자랑헐 거 뭐 잇어?

101009 #1 나 늙은 거 뭐 자랑헐 거 시니?

101009 @ 이 마을?

101009 #1 이 마을에 농서, 늙 농서 짓는 거 나 알아지느냐?

101009 @ 하하하. 신창 마을에 대해서 더 덧붙일 건 없지예?

101009 #1 으, 엇다.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우선은 낱고 자란 이야기를 물어보쿠다예. 삼촌 영 커난 이야기. 어디 서 낱 몇 형제 중에서 자랐수과?

102001 #1 나?

102001 @ 예.

102001 #1 어디서 난?

102001 @ 이 두모 알가름서.

102001 #1 알가름서.

102001 @ 겐 형제는?

102001 #1 형젠 우리 어무니 낱 죽어불고 낱 죽어불고 중간에 하나씩 살안. 게 난 우리 형제간이 다섯 살 몫이라. 오빠도 다섯 설, 언니광 두 새에. 언니광 나도 다섯 설. 이제 우리 동생광도 다섯 설.

102001 @ 음. 삼촌이 몇 번째가 돼는 것과?

102001 #1 나 산 건 시 번째.

102002 @ 시 번째.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두모 분이시과 두분 다?

102003 #1 우리 어머니 낱 우리 어머니도 두모서 컷주만은 친정 아방네 신창 집

짓언 살아났저게 옛날. 옛날도 좋게 집 짓어근에 저쪽에.

102002 @ 그럼 아버지넨?

102002 #1 아버지 원래 두모서. 두모서 낳고 두모서 크고.

102003 @ 계민 어머니가 신창이고 아버지가 두모구나?

102003 #1 으. 경혜연 시집, 그디 가난 우리 어머니 님 두모 살았주.

102003 @ 어쨌든 두모랑 신창이랑은 옛날에 혼 동네였던 거잖아예?

102003 #1 으, 혼 동네.

102003 @ 멀지 안 혼 동네 아니?

102003 #1 으, 멀지 않은 동네.

102003 @ 경혜 두모서 살단 여기 신창으로 시집온 거?

102003 #1 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신디 두모서 시집을 ㄹ튼 동네에서 간 후제 우리 웨하르방네가 저디 집 짓언 간 거 님아.

102003 @ 으, 두모서.

102003 #1 으. 요디 농협 거 뒤에.

102002 @ 아버지, 어무닌 옛날에 무슨 농사 짓어났수과?

102002 #1 그냥 우리 므녀 곤듯 혼 조, 보리계. 경 어무니네 허난 나가 잘 알암 주.

102002 @ 어무니 바당일도 헤나고?

102002 #1 우리 어무니 바당에 물질도 헤나고.

102002 @ 물질도 허고.

102002 #1 우리 죽은 어멍네도 다 그땐 물질 못 허는 사름이 엇어났저게. 물질 잘 헤사 세월 나게 시집도 이 해변가에서 메누리 헤 가고 헛주게.

102004 @ 물질 잘헤사 하하하. 계난 어렸을 때 뭐 허멍 놀았수과, 학교는 다니 고.

102004 #1 우리 국민학콘 허곡계.

102004 @ 국민학콘 졸업허고. 놀아난 건?

102004 #1 어렸을 때 소꿉장난계.

102004 @ 계난 벗이영 동생이영 놀아난 거 곁아줍서. 뭐 허멍 놀아서?

102004 #1 동생덜광은 업게허엇주게. 아기 들양. 흥글어 주고 업영 텅기곡 경혀 여근에 허곡 경 놀 어간이 어디 시니? 혼 일곱 설, 으둑 설엔 소꿉장난.

102004 @ 음.

102004 #1 풀각시 허여단 낭자 체왕 그거 빗지멍 그런 거 멘들고 이제 전북꺽 줄, 소라꺽줄 허여당 솟 앓정 밥 허는디 우리 살렘을 다 살았주게.

102004 @ 어렸을 때예, 벗들이영예.

102004 #1 아이구, 경혀단에 나 그건 거 ㄹ지레 담 넘어근에 ㄹ지레 간 나오단에 담 돌아전이 나 이 풀도이 복삭 꺼꺽. 더강이에 돌도 이만이 혼 거 지더전 더강 이에 까지고 경혀난에 나영 혼디, 조케별이라 나영 혼 설 알이라도. 아이고 우리 할

망 강 드러다 도라. 우리 어머니 밧 저 보리 검질 메레 가부난. 우리 할머니 드러다 도라. 드러다도라 허난에 할망은 엇고 고모 셔렌. 고몬 막 막습주게 훈텡이 허고 허 카부덴. 우리 고모 ㄱ랑 근지 말렌 헤도 아이 곶앙 전딜 수가 엇주게. 돌 지둘라져 놓고 이 풀은 흥글락. 경허난에 눈은 딱 감고 핀 도레기 나고 돌은 앗아불고 우이 른 판쩍헤도 이디가 복삭허난 (기침) 풀이 엇인 거라.

102004 @ 음.

102004 #1 겨난 아이고 나 풀 어디 가시니, 나 풀 좇아도라, 나 풀 좇아도라. 경 헤져난 쟁이라 나가.

102004 @ 음.

102004 #1 경허난에 동넛할망이 이디 나 풀 좇아도렌 현 아윈 어느 것고?

102004 @ 경 놀리멘? 하하하

102004 #1 경허연에 그거 그때도 이사신디 돌아당이 버드나무, 물가에 버드나무, 늘어진 버드나무 싶지 안 허느냐게. 그거 끈어당 다 예견, 예견 이디 데며권이 ㄱ만이 움직이지 말앙 누렌 현 나 혼 들동안 ㄱ만이 뉘만 살아났저. 경허연 허난 이거 부편. 잘 부편.

102004 @ 음.

102004 #1 경 안 허시민 뵈 허컬.

102004 @ 풀이 아예 빠져분 거, 뼈가 부러진 거?

102004 #1 뼈가 부러져변게 복삭. 이디 가죽은 동의어도게.

102004 @ 아.

102004 #1 겨난 영 등기난게 뵈 엇어라게. 경허난 눈 딱 감아둬서 나 풀 좇아도라, 나 풀 좇아도라.

@ 하하하. 거 뵈 살 때과?

102004 #1 것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내년은 들어갈 겨난 올리 허여부난 나 학교 못 들어갓주게. 봄에.

102004 @ 예.

102004 #1 학교 들어가는 봄에 경헤여비난 난 혼 해 늦어줬주. 난 일본 시대에 허난 시험 판 나가 뵈주기게.

102004 @ 그뵈 시험 뵈수과 학교 들어가젠 허난?

102004 #1 일본 글로 시험 봐사게.

102004 @ 예.

102004 #1 이제 물으민 이름 물으민 대답허고이.

102004 @ 예.

102004 #1 나이 설 다 대답허고 이제 주소 이녁 주소 일본 글로 다 말헤사 합 격허연. 일본말로 이제 아버지 이름은 뵈고, 뵈고 다 듣고 경허난에, 경허난 뵈연. 뵈 디 나 이 더강이 까지고 풀 꺼꺼지난, 아고 어멍아, 입학 못 허연에 요디 내선이 죽은 딸 나 대신 들어갓젠 현다.

102004 @ 아, 대신 들어간?  
102004 #1 어.  
102004 @ 학생 수.  
102004 #1 이 학생 수경이 몇 명 허난.  
102004 @ 으.  
102004 #1 에취. 아메도 보결로. 다음에 뵈 아의게. 나 엇어부난 아메도 놔실 테 주.  
102004 @ 아, 경헨 들어갓구나. 삼춘 경헨 그거 다 나시난 다음해에 들어 간 거?  
102004 #1 난 뒷해에 들어갓주.  
102004 @ 뒷해에 들어간예. 뒷해에 들어간 거.  
102004 #1 으.  
102004 @ 학교 다녀난 얘기, 학교 강 뭐 공부허고 뭐 허멍 놀앗수과?  
102004 #1 일본 글게. 일본 글로 이학년 일학기꺼지 헛주게.  
102004 @ 음.  
102004 #1 경허연에 이학기 뵈젠 험 때 전쟁 일어났주게.  
102004 @ 음. 이학기 뵈젠 험 때?  
102004 #1 으.  
102004 @ 삼춘이 몇 년생인 것과?  
102004 @ 지금 팔십이 세면은 몇 년도에 태어난 거?  
102004 #1 몰라.  
102004 @ 팔십이니까. 게난 이학년 때 전쟁난 거라예?  
102004 #1 으, 해방.  
102004 @ 이학년 때 해방뵈 거. 사십, 그때가 사십오 년이 뵈 거난 예. 게민 학교 다니멍 이학년 때까지는 일본글을 배운 거?  
102004 #1 으.  
102004 @ 글후제는?  
102004 #1 글후젠 한글게.  
102004 @ 학교 다닐 때 아이덜은 몇 명이랏수과?  
102004 #1 아이덜은 몇 명산디 그때 우리 학급이 삼 학급, 이 학급 해났저.  
102004 @ 한 학년에?  
102004 #1 으.  
102004 @ 아이덜 잘도 많았다예.  
102004 #1 으. 그뵈 막 학생덜도 훑고. 우리 선배덜 육학년 난 학생덜은 막 처 녀 님아났저.  
102004 @ 아이고 경 학생덜도 많고 어른덜이고 경헛던 거라?  
102004 #1 으.

102004 @ 경험 학교 가민 뭘 허멍 놀아서? 공부 험난 것도 기억나고? 놀아난 것도 기억나고?

102004 #1 공부 허꼭게. 놀은 경 일허고 학교 강 왕 놀 시간 시느냐?

102004 @ 으.

102004 #1 학교 강 오민 책보 놔 덩 밧디 가고 놀지 못 헛주게.

102004 @ 학교 끝나민 밧디 간 거라?

102004 #1 게게.

102004 @ 저기 학교 갈 때 뺨또는 쌍 갓수과?

102004 #1 학교 갈 때?

102004 @ 으, 그때 어떻 험신고?

102004 #1 그때 우린 저 소풍갈 때, 소풍 갈 때만 뺨또 쌍 가고.

102004 @ 예.

102004 #1 운동험 때만 뺨또덜 쌍 가고. 우린 집 ㅼ디난 집이 왕 밥 먹영 갈 때 도 싣고.

102004 @ 예.

102004 #1 게난 그뻤 판포, 한원리 먼 디 아이덜 다 이디 와낫주게 이 학교에.

102004 @ 예.

102004 #1 경허난 그런 아이덜은 뺨또 쌍 오고. 운동날도 다 뺨또 쌍 이 뒷산에 덜 와근에 막 하나고. 옛날이 운동회 허민 재미젓주기게.

102004 @ 운동험 때 뭘 헛어?

102004 #1 달리기 잡아뎡기는 뭘, 이제 허는 거 다 허여.

102004 @ 이제 허는 거 다 허여.

102004 #1 무용허믄 이 손에, 이젠 경 안 험게.

102004 @ 아.

102004 #1 종이, 창호지 닙은 종이로이 꽃 멘들양 이 손에 끼왕 스몫.

102004 @ 아, 삼춘도 경 험나고?

102004 #1 경험낫주게. 무용반은 무용반대로 허고. 멧 학년 스오륙 흑년이민 스오륙 학년 여학생 허연 험디 배우고. 경헛주게.

102004 @ 경험 학교 다니멍 기억 나는 일이 엇수과? 재미져난 일?

102004 #1 이거 밧 무경 들을락 허고. 경허단 푸더지고. 경험낫주.

102004 @ 음.

102004 #1 난이 달리기 어린 때이 이 몸도 약허고 허난이. 막 죽자살자 들앗자 사등베끼 못 허여.

102004 @ 아고게 일등을 못 험낫구나게.

102004 #1 으. 일등 못 허여. 우리집이 큰 아덜은은 스몫 달리기 허영 선수로 나가고 잘 험도 난 원 들지를 못 허여. 우리 셋아덜이 날 닙아 꼭 스흑년, 스등만 허연 연필 험 자루를 안 타서라게.

102004 @ 계난 학교 가는 게 지미집디가, 집이서 벗들이랑 노는 게 재미집디가?

102004 #1 학교 가사게 벗도 싯고 공부도 헛주게. 집이선 밧디 오라 아기 달라. 어이구. 옛날 학교 허민 일 못 시킨텐 학교를 줄바로 시켜사게.

102004 @ 음.

102004 #1 난 학교 반은 가곡 반은 스몫 일헤세.

102004 @ 반은 가곡 반은 일헤고.

102004 #1 경허영 메칠 놀당 가민 다 베와불고 잘 알아지느냐?

102004 @ 으.

102004 #1 공불 꾸준히 허고 강 왕 연습도 허고 어뎡 가사 헐 건디. 경헛저.

102004 @ 계난 바쁠 때는 학교 가지 말렌 헛구나 집이서.

102004 #1 어게.

102004 @ 어, 가지말렌.

102004 #1 경허민 난 막 놉 빌영 허렌 어명신디 놉 빌영 허지 안 허영 다 학교 가근에 다 베와불민 잘 몰르지 안 헛니켄 허명 막 헤낫주게.

102004 @ 으.

102004 #1 곳새 우리 언니도 학교 공부허켄 허난 저 큰뜰이오 허난 가불민게 아기도 봐살 거 일도 못 허연게 아니 학꼐 디물리난 우리 언니 베설이 바락 허난 보시, 반찬 그릇 와썩 마당더레 데견 벌러낫젠.

102004 @ 하하하. 학교 가지 말앙 밧디 걸렌 허난.

102004 #1 학교 허지 말렌. 진 학교 들어, 입학허연 허켄 허난 학교 허지 말렌 헤부난.

102004 @ 경헛 학교는 헛수과?

102004 #1 안 헛주게. 밤 야간만 허연.

102004 @ 야간 헛.

102004 #1 경헛도 한글은 잘 알아.

102004 @ 으. 기민 삼춘이 이학년 때 해방이 웅 거난 그 전까지는 일본.

102004 #1 일본글 헛주.

102005 @ 글 헛잖아예. 그 때 일본 군인 들어왕 이실 때 막 공출허고 헤난 거 기억잇수과?

102005 #1 일본 군인덜이 군밤을, 어린 때 알아져. 군밤을 타근에 일본 군인덜. 일로 시작허민 저 한원리 새에영 가명 막 보민 우리 아주망이 저 한원리 어른이난 그 우리 오빠 일본 시대에 군인 가젠 허난 가민 죽으카부덴만 헛주게. 그뎡 쉐바리 범헤치 허영 멩지 허영 저 실 모작 지우는 거 멩 번씩 헤렌 헛 그거 허레 멩기곡 우리 어뎡 헛디 우리 어머니도 저 아덜 가민 죽으카부덴 스몫 탁 낙심헛주게. 건디 우리 고모부도 가난 우리 고모님이영 헛디 그 쉐넨바리엔 헛 거 멩지로 모작 지우는 거 범띠 좇앙 강 모작지워도렌 허고 막 헛주게. 경허연 헛디 우리 고모분 마녀

간 오뎀 줄어불고게.

102005 @ 해방 돼기 전에?

102005 #1 으, 해방 돼기 전이 전쟁 허멍게 그 나가멍 새에 배에서 죽엇젠 현디. 우리 오뎀 흥뎀 말째라.

102005 @ 으.

102005 #1 보름만이 살안 완게. 해방 돼연.

102005 @ 아.

102005 #1 경허난 나 밤이 뉘 자단 보난 마당에서 스뎀 장구덜 두들멍 막 놀안. 이거 무사 영 험신고 허연 보난 우리 오뎀 해방 돼난 시에 완 푸난 그뎀 차도 배랑 엇고.

102005 @ 예.

102005 #1 이 동무럽 터진 스뎀 그 군인 일본 군인 이디 영 뵈라진 거 입는 거 입곡 험 걸언 와서라게.

102005 @ 아. 제주시서.

102005 #1 걸언 오난에 그뎀 동네 사름덜 스뎀 지꺼정 해방 뵈젠 잔치허멍 북 두드리멍 놀아난 거 알아진다.

102005 @ 아.

102005 #1 우리 오라방 죽으카부덴 헤시네게. 그뎀 일본 군인덜 팡팡험 때 가난 산 사름이 배랑 엇엇주게.

102005 @ 으.

102005 #1 일본 군인.

102005 @ 경험 그 시절에 막 공출험난 것덜 알아지쿠과?

102005 #1 공출 오랑 허민 그뎀 어린 때난게 가메니로 헤영덜 내여 노멍덜 험주게. 반으로 헤영.

102005 @ 뵈 내 뵈나서?

102005 #1 보리거튼 거게. 별민 얼메게. 이제 얼메 별민 얼메 허랑 허듯이게.

102005 @ 으.

102005 #1 경헤연 내 뵈낫주.

102005 @ 계난 공출 헤 가부난 막 어려워나고 헤 낫구나.

102005 #1 계게. 경허난 공출 좋게 허젠게 뵈 에쟁인 다 허민 쎡수 널렁 공출 하영 바치렌 허카부덴 뵈 돌르멍 실 경지만 올려낫주게.

102005 @ 그 올릴 때덜은 돌아다니멍 조사허는 사름덜이 볼 거 아니라?

102005 #1 어떻사 헤신지 보게 안 허영 다 돌르멍 다 서류상으로 허여부난 이제 임안 임야대로 뵈고 갈아먹는 건 갈아먹는 것대로 뵈고 험주.

102005 @ 계난 삼춘은 학교 다니멍 경 공출험 때 저기 학교에서 뵈 받아오라, 뵈 가져오라 그런 건 엇어낫수과?

102005 #1 그런 건 엇고 그 일본 시대에 그 가반 거튼 거이 그런 건 제비 뵈앙

나와라. 나오민 제비 뽑양 나도 그 군인덜 지는 거 닳은거게 친거리 주랑주랑 가반. 가반 나완에 나도 타났저.

102005 @ 아, 그거 나눠줘난.

102005 #1 으, 그런 것도 나와라. 우리 학교 텅길 때.

102005 @ 학교 텅길 때 나눠 준 거구나.

102005 #1 으.

102006 @ 계남 사십오년도에 국민학교 때 경험 험방 툐 거라예. 경험 그 이후에 몇 년 지남 제주도예 또 전쟁 잇어났잖아예? 사삼사건.

102006 102006 #1 건 스삼사건. 그때엔 우리 처녀 툐 때주게.

102006 @ 계남 어떻험난 것과 영 기억나는 거 잇이민 곶아줍서. 그때예.

102006 #1 처녀 똥난이 그때이 시집간 사름은 지켜지 안 허고 시집 안 간 처녀덜 지켜렌 험가난 막 시집 장게 가불젠도 험나세. 우리보단 우잇 사름덜.

102006 @ 예.

102006 #1 경헌디 한원리꺼지 막 폭도덜 완게 저 지켜는 거 죽장으로 찢러부난 막 죽으멍 험세.

102006 @ 음.

102006 #1 건디 이 신창은 안 들어와뵈주기게. 경헌디 우린 난 친정이 이디 성도 쌓나세 쪽허게 들어오지 못허게.

102006 @ 예.

102006 #1 경헌디 귀역이 두모라부난 귀역이 두모라부난 밤이 즈냐 먹으민 담요덜 들고 이 지켜레 가 우리도. 죽창덜 다 그디 세왕 그거 들르고.

102006 @ 음.

102006 #1 경허영 허민 그디 가민 얼지 안 허느냐 겨울 때 경허민 낭 2정 강 그디 강 케왕 잉경 행덜 허고 지켜여. 경허영 오줌 누레 영 가민 순찰도 오고게. 지서에서 순찰도 땡긴다. 지컴사 아이 지컴사.

102006 @ 음.

102006 #1 경허명 돌곡 허영 우리 메칠에 흔 번씩 경 지켜났저. 뵈동산.

102006 @ 뵈동산에 가가지고.

102006 #1 으, 지서 앞이 뵈동산이렌 싯주게.

102006 @ 예, 지금 어느 지경이 뵈 것과?

102006 #1 두모.

102006 @ 두모 지경에 뵈동산이 이서.

102006 #1 으. 우훤도로 영 헌디.

102006 @ 그 거기에 성 쌓은 거, 뵈동산에?

102006 #1 그디 성 쌓은디 이제.

102006 @ 엇어전?

102006 #1 엇어진 거 답아.

102006 @ 예. 성 쌓으레도 삼춘 다니고 헛수과?  
102006 #1 성 쌓으레 남저덜 땡겨주게. 우리 여저사 가지느냐, 월령으로.  
102006 @ 으.  
102006 #1 우리 어리고 허난.  
102006 @ 어린난 직허레만 다닌 거?  
102006 #1 으, 우린 직허레만 땡겨.  
102006 @ 이 신창 동네 그때 막 사름덜 죽고 허는 피해가 하영 엇엇구나?  
102006 #1 엇어낫주기게. 제일 이디가 깨끗허덴 헤낫주기게. 두모, 신창.  
102006 @ 아, 두모, 신창이. 사름덜 별로 안 죽엇구나.  
102006 #1 경헌디 췌 엇인 사름덜 멧 사름 죽엇젠 현다.  
102006 @ 어디 강 죽은 거라?  
102006 #1 지서에서 그 불런 오렌 허난에 저 성굴왓 우리 췌당도게 췌기 바당  
에 간 완에 췌기국 끌런 그 췌기국을 먹영 가시민 죽질 안 혈 건디 강 왕 먹켄 허  
명 자게 지서에서 불르난 자게 오난 시에서 그 차가, 지서에 올레에 곧 가난 차가  
완 대난 올르렌 헨 모실포 굴에 담아 난 죽어벤. 윈 메깁엇이게.  
102006 @ 그민 그 삼춘만 돌아가신 것과 이 동네에서?  
102006 #1 그 경허고 이제 저 전이 일본서 오난에 \*\*밧디 돌아당 죽이젠 허난  
그 사름이 난 일본서 완 살앗주기게. 경허난 난 아무 죄도 엇고 허난 날 흐뎡만 죽  
이지 말렌 허난에 죽이지 안 허영 흐뎡 시난 그땐 대한독립만세, 만세 시 번 불런  
죽이렌 허난 그때 죽이지 안 헛젠 허여.  
102006 @ 아.  
102006 #1 멀쩡한 사름덜 췌 엇이 죽은 사름덜이 셔.  
102006 @ 예, 예. 그 그렇게 죽은 사름덜이 신창은 많은 거 같진 안 허우다예.  
두모랑 신창은예.  
102006 #1 으, 한원리도 멧 사름.  
102006 @ 한원리도 멧 사름.  
102006 #1 조수레 저 수릉리 우리 췌당덜도 다 으라 사름 죽엇저.  
102006 @ 아. 건디 여기 먹을 거는 왕 아저 가불고는 안 헨?  
102006 #1 한원리꺼진 정 헛주기게.  
102006 @ 한원리꺼지는 산에서 온 사름덜이.  
102006 #1 응. 이딘 내려오지 못허난.  
102007 @ 계난 결혼은 중매과 연애과?  
102007 #1 우리 중매허연게.  
102007 @ 예. 누게가 중매를 현 거라?  
102007 #1 중맨게 나 어제 안 곶아냐게.  
102007 @ 예.  
102007 #1 우리 시아방이 시아방 친구 하르방신디 우리 친정아바지신디 말 허

난게 대답해연.

102007 @ 계난 그 전에 삼춘은 남저 어른 몰라난 거지예?

102007 #1 뭇을 몰라?

102007 @ 계니까 같은 동네여도.

102007 #1 사름도게 이발허게 요디 이발서 시난 이발허게 완 보고 허난 우리 하르방도 대답헛주게.

102007 @ 아. 얼굴은 알아나고.

102007 #1 알안게 우리집이 아방이 저 친정 아방이 이발허레 왕 보고게 선생 텡겸젠 허고 다 알앙 우리 친정아방은 대답헛주게.

102007 @ 근디 삼춘은 무사 막 마음에 안 들엉 시집 안 가켤 헛수과?

102007 #1 아이고 그땐 원 뭇 사는 거 어떻헌 것도 분시 몰르고게.

102007 @ 으.

102007 #1 열아홉에 허고 허난.

102007 @ 열아홉에 시집 가난. 하하.

102007 #1 이제 처녀들은 막 옥아근에 부끄럽지도 안 허고 해도 막 부끄러와근 에 무사 시집 갈 말 글암신고 헤져라.

102008 @ 아. 부끄러왕. 겐 사주는 다 본 것과?

102008 #1 어게. 겨난 좋다 허연에게 막펜지꺼지 오난게.

102009 @ 으. 계난 혼수헛던 거 삼춘 글앗수다만은 혼수품 뭇 뭇 헤낫수과? 다 시 한 번 글아줍서. 혼수, 시집올 때.

102009 #1 시집올 때게 이불 다섯 허고게 퀘 허고 화로 허고 이불상 허곡게.

102009 @ 으.

102009 #1 솟도 아레미솟 그땐 저 선물로 시집갈 때 다 허여주는 사름 시난 그 런 거영.

102009 @ 아고게. 계난 솟도 행 오고.

102009 #1 솟도 요만이 현 거 두 개산디 선물 들어온 거 그냥 왓주게.

102009 @ 계난 계난.

102009 #1 찬장 새끼 하나 허고.

102009 @ 잘 출런 와신게.

102009 #1 잘 출런 왓주게.

102009 @ 경 그때 헐 때 결혼 반지나 결혼 예물은 헤젓수과?

102009 #1 어. 금반지.

102009 @ 그 시대에 금반지 헤서.

102009 #1 으, 우리집이 아방이 허여쥬.

102009 @ 아. 잘 헤신게. 잘 사는 집이라신게.

102009 #1 우린 시계 해주고.

102009 @ 시계 해주고.

102009 #1 으.

102009 @ 아고, 다른 어른덜신디 물어보민 그때 그런 거 잇어난 집이 엇수다게.

102009 #1 으, 우리 금반지 받아난.

102010 @ 아이고 결혼 반지로 금반지 받아난. 시계해주고. 게민 결혼할 때 사진은 칩엇수과?

102010 #1 사진 찍언.

102010 @ 그 사진 잇수과?

102010 #1 몰라 신디 엇인디.

102010 @ 오늘 밤이랑 좇아봅서예.

102010 #1 몰라 어디사 들어신디.

102010 @ 몇 년 똬수과, 그 사진 열아홉 살 때민. 그런 사진 엇수다게.

102010 #1 열아홉 설에 약혼허연.

102010 @ 음.

102010 #1 스물에, 스물하나에 결혼허연.

102010 @ 아, 약혼 먼저 헛 거?

102010 #1 으, 약혼허연 헛 일 년 똬연게. 경허연 시집간.

102010 @ 예.

102010 #1 경허연 스물하나에 아기 배연.

102010 @ 예.

102012 #1 경허연 스물들에 낳고 넷에 낳고 으덱에 낳고, 으섯에 낳고 으덱에 낳고 헤연 니 개 낳주. 나 우리 죽은아덜 스물 으덱에 난 아덜.

102012 @ 스물 으덱에 난 아덜.

102012 #1 이제 늙은 시집도 안 간 낫설 아이가.

102012 @ 하하하.

102012 #1 겨난 보라 오죽 어린 문 알아지커가. 이켓 아이덜로 허민.

102012 @ 아. 게난 스물으덱이 맨 마지막인 거라?

102012 #1 으. 막둥이 으덱에 저 낳주기게.

102013 @ 예, 예. 거민 시집강 살아난 얘기를 쪽 곱아봅서. 게난 시집가난.

102013 #1 시집 간 산 거 곱음은 무시거게. 살럼 살앗주게.

102013 @ 하하. 경 결혼헛 신랑 보난 신랑은 마음에 듬디과?

102013 #1 엇날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부모덜 살럼 허민 살앗주게. 무신 경 막음에 딱 맞앙 허는 디가 어디 시니.

102013 @ 게도게 안 가켄 허단 시집가신디 어평.

102013 #1 어평사 헛 살아져신디.

102013 @ 기억나는 일 엇수과?

102013 #1 무신 기억을 나게. ㄱ치 살명게 이제도록 살아와주게.

102013 @ 사이는 좋앗수과?

102013 #1 사이는 곳은 펜은 아니주게. 보통게.

102010 @ 결혼식은 집이서 헨 거잖아예?

102010 #1 요디 요디 창고 님은 디서 헨.

102010 @ 어디 창고 님은 디서?

102010 #1 요디 거세기 노인회관 짓지 안 헤시냐?

102010 @ 예, 예.

102010 #1 그 자리에 농협 집 창고가 큰집 셔 님주게.

102010 @ 아, 게민 그디가 결혼식 허는 장소랏수과?

102010 #1 아니, 우리가 빌언 헤연 우리 시아방네가.

102010 @ 빌언 헤연.

102010 #1 으. 학교 허젠 허난 학교도 아니 뤼고 허난 이디서 빌언.

102010 @ 게난 동네서 잘 사는 사람이랏수과 시아방네도?

102010 #1 어. 못 살진 안 헛주게. 보통.

102010 @ 게난 삼촌네도 잘 사는 집이였고.

102010 #1 으. 우리 소문 낭 이제라도 그 부제 할망네 손지엔 허멍은에. 우리 성하르방 나 아이 굴암사. 옛날 한림면은 일등으로 살앗젠. 이제 손지덜은 잘 아이 뤼도.

102010 @ 아. 게난 집이서도 안 헛 결혼헛 때 빌렁. 그 시대에게.

102010 #1 으. 늙은 다 집이서 허영 마당에서 다 사진 칙고 헤나세.

102010 @ 예, 예.

102010 #1 견디 경 안 허영 요디 강. 한림 그 멘장은 우리 시아방 스촌 누이 남 펜이난 그 어른 주레 사고.

102010 @ 예, 예.

102010 #1 멘장 헤여난 사름. 그때 멘장이랏주게. 한림 멘장. 그 어른 주레헤연 에.

102010 @ 그럼 한복 입영 헛수과, 드레스 입영 헛수과?

102010 #1 한복게 그뻐 드레스가 엇엇주게.

102010 @ 엇엇. 한복 입영 우에는?

102010 #1 면사포.

102010 @ 면사포.

102010 #1 족두리 써는 사름도 셋주만은 우린 면사포 써연.

102010 @ 면사포 쓰는 사름도 싣고예.

102010 #1 으, 우인 흰 양단에 아랜 흰 유동치메.

102010 @ 그거는 누게가 헤 준 거라.

102010 #1 건 우리 시집가젠 허민 허여사주.

102010 @ 의. 거 입어가지고

102010 #1 거 허영 벗어 불민 이젠 시집이 거 입영 가민 밥상 받아나민 이제

시집이서 비로도 치메나 아무 거나 주민 그거 입는 거주게.

102010 @ 아, 밥상 받아나민 시집이서 준 거로 갈아입는 거?

102010 #1 으.

102010 @ 그거는 시어머니가.

102010 #1 시어명네.

102010 @ 해주는 거예?

102010 #1 으.

102011 @ 신혼 살림은 어디서 차린 것과? 신혼 살림.

102011 #1 우리 이디서 시집가고 장계 간에 저 중학교 앞이. 스몫 히여뜩헌 집 이 현 거 우리 짓다시피 돌 다완 쓰레트 더경 집 멘들양 살았저. 우리대로 벌영.

102011 @ 이디 살단.

102011 #1 이디 시어명네영 오고 가고 히여 살단 시아방네 그디 살림 살리난.

102011 @ 예.

102011 #1 기자 곧 짓이만 행 조그만 현 거 히여 주난 우리 벌명 쓰레트 다 올리고 바우에 다 담 들로 다 다고 밧거리 집 잇고 히연 우리 살단 우리 시어명 죽어 불고 이제 우리 시아방 죽어비난 이 집은 문 헐고 그딘 원 펜안을 안 히연게. 우리 가.

102011 @ 으.

102011 #1 늑도록 그 집이 살 수도 엇고. 경혜연 이거 짓영 왓주게.

102011 @ 아.

102011 #1 이것도 곧 짓을 맨 최고로 좋게 짓엇저만은 이젠 목다 집 웨연.

102011 @ 몇 년 웬 집이과 계난?

102011 #1 이거 멧 십년 텃주.

102011 @ 멧 십년 웨연. 아이 몇 살 때 온 거라?

102011 #1 이것이 현 스십 년도 더 웬 거 닻다.

102011 @ 아, 사십 년도 더 웬 거예. 큰아덜이 지금 멧 살이과?

102011 #1 이제 씬아흡.

102011 @ 씬아흡. 그럼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102011 #1 고등학교 멧길 때 짓언.

102011 @ 고등학교 멧길 때 짓언. 그럼 한 사십 년.

102011 #1 중학교 삼학년 때 짓어져신가?

102011 @ 예, 그럼 사십오 년 오십 년 가까이 웬는 거라예.

102011 #1 으.

102011 @ 그 집이, 중학교 옆이 집이서도 한 이십 년은 산 견게예?

102011 #1 응게.

102011 @ 결혼행 그디 강 산 거난.

102011 #1 응.

102011 @ 그럼 시어명이랑 ㄱ치 옆이 산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구나?  
102011 #1 시어명도 제기 돌아가불고. 우리 고산도 강 글후젠 살고.  
102011 @ 고산은 얼마나 살았수과?  
102011 #1 고산도 한 오 년은 살아져실 거라.  
102011 @ 계난 고산 간 거는 학교 거기로.  
102011 #1 학교로 가난.  
102011 @ 가난.  
102011 #1 집 빌언 나, 우리 큰아덜 나고 셋아덜도 그디서 나고 허연 나왔주게.  
102011 @ 큰아덜도 그디서 나고?  
102011 #1 아니 큰아덜은 이디서 난.  
102011 @ 으.  
102011 #1 셋아덜은 그디서 난 허연 왔주기게.  
102011 @ 계민 삼춘 어디 어디 강 살아난 거라? 고산도 가고.  
102011 #1 저청도 가고.  
102011 @ 저청도 오래 살안마씨?  
102011 #1 아니 저청은 혼 일 년. 가명 오명 차도 엇고게. 나 우리 셋아덜 배고  
큰아덜 걸루고 허멍 땡것저.  
102011 @ 하하하. 그럼 저청 먼저 간 고산?  
102011 #1 아니 고산이 모녀 간.  
102011 @ 예. 고산이 모녀 간? 고산 간 셋아덜 난 건디?  
102011 #1 으, 셋아덜 나도 저 글후제도 배연, 배연 그디 갖주게. 배연 난 저청  
도 혼 번 간 왕 고산은 두 번 가 왔주게. 두 번.  
102011 @ 아, 경헨 다 행 오 년 되는 거라.  
102011 #1 으.  
102014 @ 경헨 거기 강도 살아나고. 계난 자식덜은 지금 다덜 결혼 시켰고예?  
셋아덜이 나중에 돌아가신 것과? 돌아가시고. 어제 영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작은아덜인 거?  
102014 #1 작은 아덜.  
102014 @ 시에서 살멍.  
102014 #1 시엔 각시 살고게.  
102014 @ 으.  
102014 #1 이디 살아사 이디. 각시영 아덜이영 살고. 딸 성젠 서울 강 살고.  
102013 @ 계난 삼춘 시집살이는 안 헤신게.  
102013 #1 나 시어명이영 혼 일 년쯤 살아져신가?  
102013 @ 계난.  
102013 #1 가명 오명.  
102013 @ 가명 오명.

102013 #1 으.

102013 @ 시집살이 전혀 안 헛수다. 복이랏수다.

102013 #1 아방 밥 헤 주젠 허난 트로 갓주게. 우리 시어명이 우리 집이 아방 막둥이주게. 게난 이른일곱에 돌아간.

102013 @ 아.

102013 #1 견디 암 걸런 돌아간게. 급성.

102013 @ 게난 결혼헤 가지고 막 오래 잇당 아니고 얼마 엇인 후제?

102013 #1 우리 죽은 아덜꺼지 난 때.

102013 @ 죽은 아덜꺼지 난 때.

102013 #1 으, 우리 죽은 아덜 혼 네 설썸에.

102013 @ 삼춘이 스물여덜에 죽은아덜 나시난 한 서른두 살썸 돌아가져신게. 돌아가신지 한 오십 년이 돼신게예?

102013 #1 으, 경 똬주.

102013 @ 게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난 시어머닌.

102013 #1 시어명이 모녀 돌아간.

102013 @ 게난 시아버지는 한 몇 년?

102013 #1 글후제 혼 오 년 나영 살앙 돌아갓주게.

102013 @ 그럼 삼춘이 들어왕 시아버지를 모신 거라?

102013 #1 으, 저 우리 사는 디, 이 집 빌려된 나가 모션 살앗주기게.

102013 @ 저디서? 그럼 이 집은 늬 빌려줘불고?

102013 #1 으. 경허연에 이제 하르방도 돌아가고 허난 이거 이젠 튼영 짓영 들 어완.

102013 @ 으.

102013 #1 우리가 그때에이 저 앞더레랑 가지 말고 이 동더레만 오랜 헌디 저 앞이레 간 게, 우리 하르방 그런 생각도 그런 거 아이 받. 그디 가난이 잘도 아판 게.

102013 @ 누게가?

102013 #1 식구가 다 웬안허지 못 허연.

102013 @ 아, 거기서?

102013 #1 경허연에 이 집 짓영 이디 온 후젠 막 잘도 웬안히 살암주. W」

102013 @ 여기와 가지고.

102013 #1 그뎨 그디 집터도 좋지 안 허고 그레 가민 막은이에 막은 디 가지 말랜 허는디 하르방 그레 보내난 헛주.

102013 @ 경헨 이디 오난 웬안헛수과?

102013 #1 으.

102013 @ 결혼헨 살명 막 힘들어난 일도 이실 거 아니?

102013 #1 결혼허연 힘들영 어뎡 허진 안 허고.

102013 @ 힘들진 안 허고.

102013 #1 으, 농서영 하간 거 짓곡게 허젠 허난 그만이 고생 안 허영 살아지느냐?

102013 @ 계난 농서는 저, 남저 어른 학교 가불민.

102013 #1 가불어도 이젠 나가 지엿주기게.

102013 @ 으.

102013 #1 우리 시아방네 쉼 질루민 그 쉼 주민 그 사름이 다 밧 갈아주는 사름 장남 시난 밧도 하나 주고. 경허민 우리 밧 갈켜 허민 어게라 지네 거 아니라도 갈아주고. 경허난 헛주게.

102013 @ 으, 거기서가 갈아주고.

102013 #1 으.

102013 @ 갈아주고. 들일 때는?

102013 #1 들일 때는 우리가 뉘 빌영이라도. 거두와 들이고.

102013 @ 남저 어른도 학교 안 가는 날은 ㄴ치.

102013 #1 ㄴ치 헤사주게.

102013 @ 으, ㄴ치 허고.

102013 #1 공일날은 아칙 일칙 일어난 강 보리도 무끄곡게. ㄴ치 헤사주 ㄴ치 안 헤영.

102013 @ 하하. 아이덜도 막 일 시켰수과, 밧디 갈 때 데령?

102013 #1 밧디 드랑, 어느제랑 공일 돌아오코 헤연 공일 돌아오민 비오고.

102013 @ 하하하.

102013 #1 우리집이 큰아덜은 담 우이만 앓젠 허고.

102013 @ 어디 우이만?

102013 #1 담 우이.

102013 @ 무사.

102013 #1 밧 담 우이게. 건덤고 쉬영 허켄게.

102013 @ 아, 하하.

102013 #1 경허고 저 우리 셋아덜은 제기 헤딩 집이 가젠 안 허영 쉬젠만 험젠 성신디 드리 허고 죽은 건 아예 안 허젠만 허고.

102013 @ 아예 안 허젠만 허고.

102013 #1 경헨게 원 농서 짓는 건 안 허젠 허여 우리집은.

102013 @ 아.

102013 #1 원 밧디 가젠 안 헨다게.

102013 @ 아.

102013 #1 어떻허연 나 작년꺼진 고치영 흐끔씩 허난에 허여도렌 허민 강 허여 주는디 원 허젠 안 허여.

102013 @ 그때부터 경 헤신게. 그때부터.

102013 #1 겨난 이 어린 때 크는 거 보민 알아져 이 아기덜은.  
102012 @ 으, 딸은 엇구나 삼춘예?  
102012 #1 나 보지도 안 헨게.  
102012 @ 섭섭허다.  
102012 #1 경허난게 딸덜 낭 헨 사름덜은 펜안히 살고 아덜 난 사름덜은게. 옛날은 아덜 낳젠 허민 잘 낳젠 헤라만은 이젠 딸덜이 펜안허고, 딸 난 사름이 펜안허고 아덜 난 사름은 뤼. 겨난 키와본 사름덜 말이 딸이 딸이우덴. 다 어명신디 속말 허꼭게.  
102012 @ 하하.  
102012 #1 어명도 딸신디 경허고. 딸도 어명신디 허고. 매날 전화 오는 것도 틀린덴.  
102012 @ 으.  
102012 #1 우린 경 전화 오나 안 오나 이녁만 펜안허영 이녁만 속 안 썩영 살민 말주 무신.  
102012 @ 음, 게도 멧 번이라도 딸이 더 올 거 아니? 먹을 거라도 사 들렁게.  
102015 #1 우리 메뉴리덜 막 바쁘게.  
102015 @ 일 헙니까?  
102015 #1 다 일 땡겨주게. 셋 메뉴리린 남편 경 허여도 어린이집에 땡기난.  
102015 @ 아, 선생님이구나.  
102015 #1 으, 그거 그디 허영 허여불고. 족은메누린 또 족은메누리대로 일 땡겨사 살주 일 아이 땡겨 살아져게.  
102015 @ 으.  
102015 #1 게고 큰메누린 식당 허고.  
102015 @ 아, 식당 운영허고?  
102015 #1 으. 운영허고.  
102015 @ 바쁜큰게게.  
102015 #1 게 바빠비난 이디 움이영 제서 때덜은 시 동세가 어 내명덜 시간 나는 양 허꼭 현다.  
102015 @ 게민 서로덜 다 연락허멍 지내는 거?  
102015 #1 다 연락허주게 연락 안 헿 지내느냐. 메덜에 다 돈덜 모당 헿 거 허고. 경허는 거 닐아.  
102015 @ 예, 경허는 거 닐아예.  
102015 #1 으.  
102015 @ 그럼 다 시에 사는 것과?  
102015 #1 다 시에.  
102015 @ 예, 예. 식게 때도 삼춘이 걱정 안 헿 큰메누리가 동서덜 연락허멍 허는 거라?

102015 #1 다 큰메누리영 다 갈랑 메끼난게.  
102015 @ 아, 뭐는 어디.  
102015 #1 으, 갈라 메끼난 다 이녀, 다 연락덜 허멍 다 헨다. 정월맹질은 큰메 누리.  
102015 @ 예.  
102015 #1 팔월은 셋메누리 경허고 제서도게 다 갈라 마트멍.  
102015 @ 갈아 마트멍. 삼춘도 가지예. 그때는예?  
102015 #1 난 다 허여 낡 즈낙이 저 아덜 가가민 혼디 강.  
102015 @ 하하.  
102015 #1 그디 강 쇼파에 뉘 허당 출려주민 먹영 와뵤주.  
102015 @ 하하.  
102015 #1 뭐 으든둘 난 사름이. 나 젊을 땐 다 그르쳐 쫓저게. 난 적갈도 허민 막 예쁘게 콤콤허게 허는 따문. 나 혼 해 일본 가낫주게.  
102015 @ 예.  
102015 #1 겨난 우리집이 아방이 메누리덜신디 시어멍만이 적갈 곱게 허지 안 햐젠 헤렌.  
102016 @ 언제 일본 갔수과?  
102016 #1 아이고 일본 거 멧에사 가져신지. 저 족은아덜 곧 풀아된.  
102016 @ 아, 다 나이 먹영?  
102016 #1 응게. 풀아된에 스춘, 우리 고모 아덜이 누님 일본 혼 번 구경 읍서. 저 구경혈만 험니다 일본. 저 어떻허연 사는 것도. 이디션 하도 일본, 일본 허민이 일본은 강 돈 당그네로 굽는 거 만이 안 허느냐. 전기 제품이영. 경허난 우리 스춘 오래비가 누님 혼 번 왕 나 불러주크메 구경 혼 번 험서 허난 난 족은아덜 풀아된 간 구경헛주게.  
102016 @ 겐 일년이나 잇엇던 거?  
102016 #1 아니게 그땐 두 덜 반씩 저 증명헤 줄 때난.  
102016 @ 예.  
102016 #1 두덜반 뉘난 또 연기허젠 허난 우리 하르방이 느시 못허게 헨. 연기 허여 낡 와베세.  
102016 @ 기민 두달 반.  
102016 #1 으, 살안 와 뵤주.  
102016 @ 하하하.  
102016 #1 막.  
102016 @ 더 잇고 싶어신디?  
102016 #1 어. 간 짐에게 흐뵤 범도 허고이. 경허난 그땐이 이디 전기 제품 엇 인 때난 난 전기제품 욱심헿 갖주게.  
102016 @ 음.

102016 #1 경허난 사진기도 아덜, 메뉴리덜 거 시 개 사고.

102016 @ 아이고.

102016 #1 전기 밥솥덜 후라이팬덜 다 행 오난 그때 저디 봉옥이 아주방이 세관장신디 말허난 처음엔 막 클런에 처음 가방에 건 막 조사행 간게 그 사름이 완뫼이엔 곶으난 내벼된 학 제기 가정 갑서 헨 왓주.

102016 @ 하하. 막 바리바리 상 왓수과, 계난 경 하영?

102016 #1 경허난 나 밥통 하난 내베던 왓주게. 스춘 7라 올 때랑 거쳐다도렌 행. 경허난 전기후라이팬, 카메라도 세 개 밥솥게 다 후라이팬 행 가정 와가난게. 전기 아이론 허는 건 다 가져 왓주게.

102016 @ 으.

102016 #1 일본 가가지고 사촌 오래비 집이서 일도 허고?

102016 @ 일 허엿주게.

102016 #1 스춘 오래비네 집인 가는 날 하루만 살안.

102016 @ 음.

102016 #1 집 빌언에. 그디 아라카와귀약소 이디 멘사무소 닳아 디라라게.

102016 @ 예.

102016 #1 겨난 그디 그 공공 근로자로 아척이 다 풀 뽑고.

102016 @ 예.

102016 #1 멧이.

102016 @ 예.

102016 #1 경허고 낮이 뻘또 쌍 강 밥 먹고 밥 먹으민 또 오래 쉬여. 경헨 마또 메 헐 거 가정 강 앓아근에 밥 먹는 식탁 우이서덜 흐뫼 허단.

102016 @ 예.

102016 #1 경허단 또시 풀 강 흐뫼 잡아 텅기단 일이 일 아니랏주게.

102016 @ 하하. 계난 이디서 허는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

102016 #1 아무 것도 아니주게.

102016 @ 예.

102016 #1 경허연에 허단 완.

102016 @ 계난 강 일헌 거는 어디 공장 강 일 헌게 아니고 그런 디 강 일헌 거?

102016 #1 으. 난 그디 강 그 일 허단 와벳져게. 집인 오민 마도메 허고 밤이 줍자기 전이.

102016 @ 마도메 허고?

102016 #1 어. 그 식당에 가근에이 허젠 헛자 나 못 허크라라. 설거지 허고 요리 행 내놓고 그디 스나쿠엔 헌 디 가민 안주도 확 자게 허고 누르미 지정 내놓고 나 경 못 허여.

102016 @ 아.

102016 #1 돈 월급 하영 주는 딴 그런 디 강 허민 월급 하크라라게.

102016 @ 어. 근데 그, 그 거기 아라카와 구약소 그디 아무안테나 일본 국적 엇어도 시켜 줘디가?

102016 #1 저 이디서 거트민이 이디 반장 허영 일허레 텅가지 안 허느냐게.

102016 @ 예.

102016 #1 겨난 일본이 경 험서라게.

102016 @ 응.

102016 #1 이디 한국에서도 프는 거 상점에 강 흐뎀 허엿주. 그때 강 보난 일본도 이처록 마트가 셔라게. 경허민 메역, 웬장 마트 출록 빈죽 농민 이녀 살 거 ㄹ정왕 황계허영 나오곡 경허영 이디가 다 일본식이라.

102016 @ 지금 온 게예.

102016 #1 으, 살아온 것이.

102016 @ 맞수다, 맞수다.

102016 #1 그땐 일본이나베끼 경 일본 가난 나도 그런 거 봤주기게. 경허민 일본 것사 우리 다 일본글로 해석허고 거 허영 ㄹ정 나왕 허젠 허난.

102016 @ 으.

102016 #1 그 먹는 것도 잘 모르주게. 경헤영 이디 멧 헤 뉘여가난 이디도 마트도 생기고 헤여 가난 아 이거 일본이나 이디나 똑ㄹ트구나.

102016 @ 게난 일본 간 거는.

102016 #1 구경허게 가완게.

102016 #1 어. 아라카와 귀약소엔 현 디 그 옆에 우리 사촌 오래비네가 집 시난.

102016 @ 예.

102016 #1 경 허난에 그디 소지허는 거 사장.

102016 @ 예.

102016 #1 그 사름신디 말허민 그 사름이 멧 멧 태왕 모집허영 어디 청소허는 디 보내고.

102016 @ 으.

102016 #1 새집 짓영 아파트 허는 디 이제 지방 홈에 구뎀덜이여 뵈이여, 다 짓어 논 디 이사가젠 허민 안 허느냐.

102016 @ 으.

102016 #1 경허민 그런 거 허여도렌 허민 그거 반 저 사장이 다 어디 멧 명 어디 멧 명 헤라. 경허난 우리도 경현 디도 텅기고.

102016 @ 으. 게난 용역 일을 현 건게예. 그런 디 일당 받았 강.

102016 #1 일당 받았. 일본은 다 경험주게 일덜. 그때도 중국 사름덜도 하영 가셔라. 중국 이야덜도.

102016 @ 일허레.

102016 #1 으, 일허레.

102016 @ 계난 삼춘 일본말 몰라도 강 지내는 데 불편헌 거 엇고?

102016 #1 다게 한국 사름덜이고 아라카와 구약소에 강 청소허는 것도 이녁 헐 것만 허민게. 대강 곤는 건 알아먹어져도 곤진 못허고.

102016 @ 곤진 못허고 으.

102016 #1 경헌디 게 저 일본 시대에게 일학년 헐 이학년 곧 올라가난 허난 헌 디 흥 번은 그 일 허는 달 이젠 가게 뉘서. 가난이 확 탄 게 꺼꼴로 가는 그 전철 은 나가 타전게.

102016 @ 으.

102016 #1 아라카와 구약소엔 헌 디 올만은 허다만은. 일 강 오단.

102016 @ 으.

102016 #1 것도 이상허다 무사 아라카와 구약소를 아이 불림신고 경허단 이젠 아라카와 구약소 이제 어디 가느닌 청허난 그 일본 사름이 날ㄴ라 아이고 오바상 한따이노데스요.

102016 @ 아이고 삼춘 일본말 잘 험수다.

102016 #1 계난 흥꿈 알아먹긴 허주게. 한따이노데스요. 허난에 아이고 이젠 어 명 이 찰 세와도렌 나가 바들랑바들랑 헤져.

102016 @ 하하하.

102016 #1 경허난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강 내령 한따이노 강 아라카와 구약소마 데 멧 정거장 가건 내리렌. 겨난 이제 활딱 내렸어. 계난 막 으라 정거장 가져서라 게.

102016 @ 으.

102016 #1 겨난 이젠.

<중략>

102016 @ 경헌 아라카와 구약소에 가전?

102016 #1 경허난 이젠 흥동안 방송 안 헐. 아라카와 구약소마데 얼마 남아시니 허난 이제 두 정거장만 돌아가민 기엔.

102016 @ 으.

102016 #1 경허연 이제 그디 오난 이제 아라카와 구약소 거느리난 이제 내런 헌 디 캄캄허연이 낮이는 헌 디 밤이라 비난 불도 하나 엇고 정거장에 내런. 켜 제 우제우 좃안.

102016 @ 음.

102016 #1 집이션 경 어둑도록 안 와가난게 질 여베시카부텐 오죽 허느냐게. 경 헐 집이 좃안 가시난 아이고 누이ㄴ라 날ㄴ라 잘 좃앗젠.

102016 @ 음.

102016 #1 우리 고모도 그디서 질 일후완 스몯.

102016 @ 음.

102016 #1 허어나고렌 스몛 굴아라게. 게 일본말 흐뵁 엄불리난게 좃아왔주게.

102016 @ 계난 계난 그거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알안 가난 씨 먹고.

102016 #1 일본말게 들곡게 허난 무신 말은 어떻헌 거 알아먹엇주게. 경허난게 아라카와 구약소마데 도꼬니.

102016 @ 지금도 기억험수다예.

102016 #1 으, 경허난에 한따이노테스요 허난 이제 거꾸로 와젓구나 험 스몛 부랴부랴 해연 가낫주게.

102016 @ 계난 어린 때 배웠던 말도 다 기억하고게.

102016 #1 어린 때, 거 어린 때 거 일본글이난 기억험주이.

102015 @ 계난. 기억하고 있어. 메누리덜은 영 살갑게 굽니까 삼춘안티?

102015 #1 오게 난 메누리신디 욱도 한 번 안 헤 보고 무사 경 험딘도 한 번 안 헤 봤저. 늬의 아기 돌아다 낡. 돌아오민 기자 이녁 가족인가 아긴가 허여 헤사 주이. 경허고 흐디 경 살아보지도 안 허고게.

102015 @ 음.

102015 #1 나가 허멍 다 보내주고 다 허염주게.

102015 @ 계난 김치도 다 행 보내주고.

102015 #1 김치도 허염 보내 주고 나가. 지름도 빵 뉘나마나 먹을 거 흐 뉘씩이라도 다 주곡.

102015 @ 음.

102015 #1 고춧ㄱ룬 고춧ㄱ루 다. 부모덜은 아기 신더레 베풀젠 허주만은 아기 덜은 어떻 생각 험시민 효도 아이뉘 아이가 엇일 거여.

102015 @ 계난예. 예, 맞수다.

102015 #1 어떻덜은게 시어멍이고 아무 거고 이제 막. 몰라 시어멍덜 어떤 사름 덜은 굶는 거 보민 싸윳젠덜 옛날은 헤도 우린.

102015 @ 으.

102015 #1 나도 우리 시어멍광 드타보지 안 허고. 나 우리 시어멍 나신더레 욱 헤 난 건 나 이제도 딱 기억헤진다게. 우리집이 큰아덜이난이 도글도글 곁을 때라.

102015 @ 으.

102015 #1 그뻘 오일장 막 살 때주게. 경허난 즐 비레 가젠 허난이 조쿠루에 발 잘 찢루주게.

102015 @ 예.

102015 #1 비영 영 허민 코쟁이추룩 헤영 겨난 아긴 돌아가사 험 거고 겨난 장 이 경 제기 사느냐게. 장 산에 그 신 신경게 오토바도 엇고 차도 엇영 곁연 가가난 거자 낫 때 뉘 간 거 아니.

102015 @ 예.

102015 #1 경험 가신디 계난 우리 시어멍이 막 나신디 욱 허곡이.

102015 @ 이제사 왓텐?

102015 #1 으, 늦언 왓덴 막. 경허연 난 거 하난 딱 기억이 나.

102015 @ 예.

102015 #1 경허난 나도 경 곁안게 저 아기 조쿠루에 발 찢루카부덴 나 신 상  
신정 오젠 허난에 경 늦입디겐게. 나 경 행 곁아낫주게.

102015 @ 예.

102015 #1 경베긴 나 안 헤 봤저. 우리 시어명도 경허고. 기고제고. 경허난 선허  
게 알아져.

102015 @ 예.

### 3. 밭일

103001 @ 여기 신창에서는 밭일 옛날에 어떤 일들을 해놨수과?

103001 #1 밭일게 낫새 곤듯이.

103001 @ 그니까 보리 농사도 허고 또 보리랑.

103001 #1 조랑.

103001 @ 조 또?

103001 #1 콩.

103001 @ 콩. 그런 농서덜 지어난예?

103001 #1 으, 감제 허고.

103001 @ 감제 허고예.

103001 #1 옛날은 그거베끼 안 헛주게.

103001 @ 기민.

103001 #1 꿰 허고.

103001 @ 으, 꿰 허고 기민 저기 보리, 보리 농사. 농사렌 헛수과 용시렌 헛수  
과?

103001 #1 농사, 농사.

103001 @ 용시렌 안 곤고?

103001 #1 아, 용시엔도 허꼭게.

#### 보리농사

103002 @ 기민 보리 용시 짓어난 거 곁아줍서.

103002 #1 계난 보리 용시 헛 때 낫새추록.

103002 @ 으.

103002 #1 걸름 내영 통세 도새기 질랑.

103002 @ 아, 계민 준비를 허는 거라예.

103003 #1 으, 그 걸름을 이제 내영 이제 씨 뿌렁 그 보리쌀 그 걸름더레. 그

밧디 헐 만이.

103003 @ 예.

103003 #1 경헐 뿌려근에 이젠 쉼로 막 불러. 경헐영 혼쪽에 데명 놔뒀단 듯넛 날은 멩텅이 요만씩 현 멩텅이에 담으멍 쉼에영 물에영 시꺼. 우리도 지꼭 허멍 밧디 가민 이레 방 벌여 가지고 나뉘.

103003 @ 나뉘.

103003 #1 경허영 헤원 시꺼다 낱 듯넛날은 여저덜은 그 보리 사이만씩.

103003 @ 예.

103002 #1 어느 정도민 보리가 드물지도 앓고 좃지도 안 헐 거다 영 착착 걸름을 다 뿌려. 경 다 뿌리민 남저 어른은 쉼 허영 잠대 허영 그 걸름을 묻어지게 밧을 갈아.

103002 @ 음.

103002 #1 경허민 내중에 그걸 씨 낭 오줌도 저당 더끄고 몸도 허여 오는 사름은 몸도 헤당 더끄고 헤여근에 보릴 비영 장만 헛주기게.

103002 @ 음.

103002 #1 보리 비영, 비영 이젠.

103002 @ 보리 비는 건 이땅 물어보고예, 아까 걸름 내는 거는 보리 갈젠 허믄 며칠 전이나 경 걸름을 냅니까? 돛걸름을?

103002 #1 돛걸름은 혼 열흘 안에게.

103002 @ 아, 열흘 안에.

103002 #1 건 출려지민 밧디 강 낱 허는 거난.

103002 @ 그럼 걸름 내난 다음 다음날 영 씨 뿌리는 거라, 거기 걸름에?

103002 #1 걸름에 아니. 내는 날.

103002 @ 내는 날.

103002 #1 내는 날 다 내여 낱, 놉 빌영 다 내여 낱 보리썰 그 밧디 헐 만이 그 걸름더레 다 빼영.

103002 @ 아.

103002 #1 이젠 쉼로 불러. 경헐영 이젠 데며근에 시경 그 밧디 그 걸름을 낱 헤낫주게.

103002 @ 음.

103002 #1 이걸로 놓민 어느 밧 어느 밧까지 갈 거다. 씨를 너미 하, 이제 걸름이 족으민 썰 많이 놓고 걸름이 항 썰 요 밧디 헐 거다 허민 씨를 흐꿈 족게 놓곡 허영 다 마런 허영 농사 지어.

103002 @ 아, 그건 다 예상허연 이 걸름 정도면 어느 밧디 허겠다.

103002 #1 으.

103002 @ 계민 돛걸름은 일 년에 몇 번이나 냅니까?

103002 #1 혼 번 내여. 음력 시월에.

103002 @ 음력 시월에. 게민 항상 돛걸름은 그 보리 농사 짓기 전이 내는 거라?

103004 #1 으, 내여 낱 보리씨 서경 보리 시월달에 갈주게.

103004 @ 보리 시월달에 가는 거예?

103004 #1 으.

103004 @ 예.

103004 #1 경허민 여저덜은 그 걸름 부수데기명 착착 놓젠 허민 허리도 아프곡게 손에도 경헤영 어디 물이 셔게. 테역더레 손 영 영 헤 똥 자리젓에 밥덜도 먹고.

103004 @ 먹고. 하하. 게민 여저덜은.

103004 #1 경허여도 식중독도 안 걸려.

103004 @ 안 걸렸잖아예. 여저덜은 경허영 걸름을 좁아 논 거라예. 게민 남저덜은 뭐 허고?

103004 #1 남잔 밧 갈고게게. 경허영 병뎡이이 이만이 나민 우린 곰베허영 그 걸. 곰베엔 현 건 낭토막 헤영 그디 영 그 병뎡일 풀어야 그것이 나게 똥난 우린 병뎡일 다 갈아가민. 그거 다 놔 똥 밧 갈아가민 병뎡이 풀고.

103004 @ 으. 그럼 보리 걸름 영 영 짹아 놓는 게 먼저다예?

103004 #1 으.

103004 @ 밧디 다 정 다니명 짹아 낱.

103004 #1 으게.

103004 @ 그 다음 남자가, 장남이엔 급니까?

103004 #1 어게. 아방, 아방도 허곡게.

103004 @ 아방이?

103004 #1 늣 빌영 허는 사름은 장남 빌영도 허고.

103004 @ 장남이 빌영 허고.

103004 #1 장남이 밧을 갈민 여저덜은 곰베 허영 툯툯 그걸 그 걸름 난 것도 영 물어주곡.

103004 @으.

103004 #1 팡팡 병뎡이 이만씩 현 것 튀어나민 패영 그 흑을 부쉬와사 그 종자가 잘 사주게.

103004 @ 경헨 영 밧 간 다음에 섬비질을 따로 안 허여?

103004 #1 섬비질은 조 불릴 때.

103004 @ 아, 보리헨 때는 안 허여?

103004 #1 보리헨 뎡 엇어.

103004 @ 보리헨 때는 곰베질만 허민 똥는 거?

103004 #1 어. 췌 갈 때에 이제 조 헨 때에 섬비질 허영 불리고 췌 섬비질만 헤영 내불고.

103005 @ 음. 보리씨는 밧디 강 뿌리는 건 아니다예. 거름에 영 뿌리는 거다예.

103005 #1 옛날엔 경 헛주게.  
103005 @ 보리씨 거름에 뿌릴 때 어떻 뿌립니까?  
103005 #1 어떻 뿌려 그냥 콕콕.  
103005 @ 경헌 다음.  
103007 #1 쉼로 불러.  
103006 @ 예, 예.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3006 #1 슬오리.  
103006 @ 슬오리.  
103006 #1 어.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  
103006 #1 어.  
103006 @ 슬보리렌 안 헨 슬오리렌 헤?  
103006 #1 어. 슬오리.  
103007 @ 아. 보리밭 갈아낱 보리밭 불르지 안 허여?  
103007 #1 보리 갈아 낱 혼 정월쯤 나가민 허는 밧덜은 싯고.  
103007 @ 으.  
103007 #1 굽벙이 싯 밧덜은 헤도 경 안 헨다.  
103007 @ 거기 불르는 밧덜은 무사 불르는 거라?  
103007 #1 이디 굽벙이나 싯가, 그 보리가 어떻 뵈 험가민 블라쥬.  
103007 @ 보리 영 붉는 건 보리가 영 난.  
103007 #1 음게.  
103007 @ 후제?  
103007 #1 음게. 그거 영 들러전 잘 허난 그걸 제깍허게 정월나민 블라쥬. 경허  
민 그것이 거렁 좋나 거.  
103007 @ 아. 기민 정월나민 보리가 이만큰 나실 거 아니?  
103007 #1 으, 약간 약간 난다게. 시월에 갈민 뵈 푸기 안 앓앙.  
103007 @ 아. 기민 그걸 사람이 밟는 거?  
103007 #1 으, 경허민 그걸 이월 나가민 푸기 앓앙.  
103007 @ 푸기 앓앙이 무싯 말?  
103007 #1 보리가 영 게느다랗던 것이 폭폭 멧 개로 거러. 푸기 앓나 헨 것이.  
103007 @ 아, 그걸 푸기 앓는덴 험니까?  
103007 #1 으.  
103007 @ 그럼 보리를 밟아 주는 거, 그 옆을 밟아 주는 거?  
103007 #1 보리 우이라고 불른다.  
103007 @ 그럼 그 보리 우이를 불른 때.  
103007 #1 어떻 안 허여.  
103007 @ 사람만 불르는 거라예?

103007 #1 아니게. 사름으로 어땡 들성들성 저 물로도 불러 낫저만은. 옛날은 경 불리당 안 불려서.

103008 @ 예. 보리밭디 검질 메지예?

103008 #1 검질 메주게.

103008 @ 예.

103008 #1 무신 약 혼 번 셔사게.

103008 @ 예. 보리밭디 검질 멧 번이나 뻬니까?

103008 #1 보리밭딘 혼불베끼 못 메여. 농사 하영 짓고 손으로 언제랑 그밭 메고 저밭 메고 허여. 허단 보민 두불 메져. 보린 커 불고.

103008 @ 어. 게민.

103008 #1 경허민 보리밭디 누게네 밧디 아이고 검질이 스못 보리 우이 올라서라. 대우리가 올라서라 허멍 소문덜 나고.

103008 @ 게민 보리는 아까 시월에 갈았잖아예. 그리고 나서 정월 뉘민 뵘앗잖아예.

103008 #1 어.

103008 @ 검질은 언제 뻬니까?

103008 #1 이월에.

103008 @ 이월에, 음력 이월에?

103008 #1 으, 이월 말일꺼지 삼월 말일꺼지 검질 메여.

103009 @ 봄나민 검질 메염구나예. 게민 보리밭디 어떤 검질덜이 납니까?

103009 #1 진풀도 나고 고시락풀고 나곡게. 그 밧에 따랑게. 경허민 굴쟁이로게. 겨민 옛날 할망덜은 스못 건 것만 메라 허주게.

103009 @ 으.

103009 #1 그거 다 일일이 즘진 거 메젠 허민 이 작산 밧 어땡허연 메느니 행 우리 할망네도 “야 건 거 메영 가달만 넘기라, 가달만 넘기라.” 허여낫주게.

103009 @ 무사 가달만 넘기라. 무슨 말.

103009 #1 빨리, 빨리 멩 제기 나오렌. 허고 조도, 조도 으름에 행 불리민 조도 스파취사 훑어.

103009 @ 음.

103009 #1 경허난에 빨리 빨리 다른 것도 즐리느난 다른 것도 다 허여 취살 거난 대강대강 허연 제기 나오라.

103009 @ 하하. 대강대강 허연.

103009 #1 조팍, 조팍은 검질 세 번씩 메여.

103009 @ 조팍은 이땅 물어보쿠다예. 아까 보리밭에 나는 풀이?

103009 #1 진풀.

103009 @ 진풀.

103009 #1 고시락풀.

103009 @ 고시락풀. 아까 대우, 대우리?  
103009 #1 대우리.  
103009 @ 대우리. 그 정도 낮었던 거?  
103009 #1 으.  
103009 @ 해 봐야 한 번정도예?  
103009 #1 으.  
103009 @ 삼월 돼영 보리 검질도 다 뗏수과 이젠, 이젠 보리가 익어서예. 언제  
면은?  
103009 #1 오월달에.  
103009 @ 오월달에. 음력 오월이과?  
103009 #1 으.  
103009 @ 음력 오월이민 우리 지금 유월달이다예. 음력 오월에 보리를?  
103010 #1 저 보리할 때는이 이제 저 현충일 날이 망중이라. 아무 제도 그건.  
그걸 여산혜영 그때에 한창 비우고 무끄고 장만할 때.  
103010 @ 아, 보리 장만할 때. 예. 보리 다 익었수다. 보리 비영 장만허는 거 굴  
아줍서.  
103010 #1 보리 비영.  
103010 @ 뭐로 비여?  
103010 #1 호미 허영게 호미 굴멍, 신돌에 굴멍.  
103010 @ 으.  
103010 #1 놉 빌영 그거 비영 이제 다 무꺼.  
103010 @ 그냥 비는 족족 묶는 거 아니잖아예?  
103010 #1 다 비어 낱.  
103010 @ 영 널어 놓는 거예?  
103010 #1 으, 경허민.  
103010 @ 비멍 뒤에 츠츠츠츠.  
103010 #1 초근초근 농민 이젠 그것 다 비민 걸 묶어 흔 못씩.  
103010 @ 메칠이나 경 비어 낱 물립니까?  
103010 #1 그 밧디 다 비어지민 일 출리젠 허민 제게 무끄고.  
103010 @ 게민 전날 빈 것도 그 다음날 묶어져?  
103010 #1 묶어지주기게. 복삭 익영 스못 \*\* 돋은 디가 한다. 씨려정. 경허민 묶  
영 비 왓직 허민 늘 늘고 데미고. 경헨 느람쥐 허당 더끄곡.  
103010 @ 으.  
103011 #1 경허연 이제 시꺼당 홀타.  
103011 @ 뭐로. 뭐로 홀타?  
103011 #1 나룩클 허는 쉼 영 영 헤진 거 시민 그걸 이레 허영.  
103011 @ 그걸 뭐렌 허여?

103011 #1 보리클게.  
 103011 @ 보리클.  
 103011 #1 경허영 박박. 혼 사람 영 췌여주민 영 심영 잡아챙기고 잡아챙기고 허영 그거 다 홀트민 이젠 옛날은 므쉬로도 뽀아났저. 몰로나 췌로나 그거 불량 그 ㄱ시락 다 삭아지고 허도록 허영 그거 불리고 산태로 들러 가명.  
 103011 @ 으.  
 103011 #1 경허여 난디 이제 글후젠 메타기 나난 메타기로 홀타만 놓민 장만헛 주게.  
 103011 @ 음. 메타기 나기 전에.  
 103011 #1 나기 전인게 우리 췌로 불리곡게 도께로도 두드리고게.  
 103011 @ 기지예, 도께로도 두드리고?  
 103011 #1 어, 허여근에 저 불리당 뽀뽀이나 췌뽀 썩민 그거 스뽀 치우고.  
 103011 @ 하하하.  
 103011 #1 다 허영 그거 멩텅이에 담아 가명 이 집 안이선 뽀 불리민 질레에 강 불리멍 해서 브름 맞칭.  
 103011 @ 그민 보리 그거 비여 논 거 뽀은 거 뽀디서 타작 안 허고 집이 다 시 켜 오는 것과?  
 103011 #1 다 시꺼오주기에. 시꺼당 집이서 홀탯주게.  
 103011 @ 아.  
 103011 #1 둘러레도 옛날은 그 보리클 안 난 뽀 둘러레 두드렷젠 헨다 테작.  
 103011 @ 아. 도께질 안 헤영.  
 103011 #1 둘러레 와작작 와작작 옛날은 헤 난디 글후제 할망덜 우리 어린 뽀 엔 그 보리클 낱 보리 췌여내 가민 무사 경 조랍느니게.  
 103011 @ 하하하. 삼춘도 어린 뽀 경허멍 췌아났수과?  
 103011 #1 예구 겨민 보리짬으로 우터레 느 어디 잠시 허멍 탁허게 두드리고. 영 행 홀트민 그 보리짬을 이젠 올리고.  
 103011 @ 뽀영, 뽀영 올리는 거?  
 103011 #1 아니, 그냥 배 영 헤영 두 개 행 배 놓고 일론 웨로 낱 보리 이레 앓 아놓민 이층꺼지 놀 우터레 혹 데끼민 이제 이걸 잡아챙기민 놀 우이 올라가. 경허 민 그 우이선 영영 영영 차곡 차곡 차곡 허영 보리낱놀을 다 출리민 아이고 저 집 인 보릿낱놀 다 출리고 일 다 허엿저. 영 허주기에.  
 103011 @ 아니 보리 영 홀타난 다음에.  
 103014 #1 보리짬을. 걸로 불 슝고게.  
 103014 @ 보리짬 뽀지 앓고?  
 103014 #1 오, 그냥 그냥.  
 103014 @ 놀어져?  
 103014 #1 경허민 밥 허젠 허민 그 보리낱을 빠당 우리 밥 허여났저게.

103014 @ 아. 보리낭 빠당 그걸로 불 습아.  
 103014 #1 이제 우리 아덜이 곧나 큰아덜이.  
 103014 @ 음.  
 103014 #1 아이고 어무니 나도 옛날 나서양. 보리낭불 뺨에 저 밥 허멍 보리쌀  
 곱아온 즈베기 허영 스몫 불 드물리저 즈베기 끈영 놓저 야겐 막 메옹 고녕이 돼고  
 헤여 나서양 허멍 옛말 곧나, 옛날.  
 103014 @ 그 큰 아이가 지금 멧 설이과?  
 103014 #1 이제 오십아홉게. 육십.  
 103014 @ 아이고 경 곱을만 허우다.  
 103014 #1 견디 어린 때부터 가이 밥을 잘 헤라게. 밧디 가불민.  
 103014 @ 딸이과 아덜이과?  
 103014 #1 아덜이라도.  
 103014 @ 하하하.  
 103014 #1 가이 으섯설에부터 밥을 헤라게.  
 103014 @ 아고게.  
 103014 #1 착허여.  
 103014 @ 게민 이제 그렇게 홀텃수다예, 타작은 다 헛수다예. 보리쩍은 놀 다  
 놀영 장만허고.  
 103014 #1 으.  
 103012 @ 이제 보리, 보리쌀 장만헤야 할 거 아니 보리쌀?  
 103012 #1 으, 보리쌀은 장만허젠 허민이 방엿돌 신디 강 쉼 동주리나 당그네나  
 이젠 츠레로 다 낱 와. 경헨 낱 모녀 방에 참여 헤지민 이젠 보리 놓고 물 흐끔 낱  
 거 북닥 뱃겨지게. 경허영 물 놓멍 자꾸 쉼로 멧 시간 헤가민 초불, 이젠 물류민 그  
 거 이제 또시 허영 물류왕 불려. 또 두불 따끄주גיע.  
 103012 @ 음.  
 103012 #1 두불도 경헤영 다강허민 옛날 ㄴ레에 곱아. 달달 하영 들이치민 그거  
 반, 반 조가기씩. .  
 103012 @ 음.  
 103012 #1 벌리지민 밥 허영 먹엇주게.  
 103012 @ 음, ㄴ레에 곱앙 반조각 나민.  
 103012 #1 으. 이젠 통보리 행 기계에 다끄난 헤도 그뻬게 보리 경 다까시냐.  
 방엿들로 쉼 물앙 헤 보라 얼마나 다까지느니.  
 103012 @ 아.  
 103012 #1 경허민 ㄴ레에 곱민게 그 체도 털어지고게 것도 벌리지민게 이젠 밥  
 허영.  
 103012 @ 게민 삼춘네 한 번 강 방에에 강 ㄴ레들에 강 장만허젠 허민 멧 말이  
 나 강 흐 번에 장만 헤낫수과?

103012 #1 흔 섬이나 놔사주게. 열댓말.  
103012 @ 흔 섬.  
103012 #1 우리 살림 산 후젠 기계로 다끄난 헌디 우리 어린 때에 허여난 거주  
계.  
103012 @ 예, 어린 때 그거 묻는 거마씨. 경허민 방에는 동네 사름덜이 다 흔디  
쓰는 거 아니?  
103012 #1 아니, 딱로딱로 그 쉼에 이런 디 띠 돌렁 방에 짓는 그런 동줄 거튼  
거 당그네 갖다 놓는 사름. 경허영 츠레베기 행 나 이녁만씩.  
103012 @ 게니까 내 거 이거 갖다 낱 츠레베기 허는 거예?  
103012 #1 으.  
103012 @ 게민 나는 이 사람 끝나민 나 츠레가 되는 거라예.  
103012 #1 으, 츠레로.  
103012 @ 게민 쉼로 영 돌렛수과 사람으로 영 돌렛수과?  
103012 #1 사름으론 못 돌리주게.  
103012 @ 못 돌려.  
103012 #1 쉼로 돌렁 조름에 막탱이 행 쉼 몰고 앞인 그 방엿들에 그 방에 짜  
진 망에 돌아메영 빙빙 그디 돌앗주게. 사람이 못 허여.  
103012 @ 으.  
103012 #1 옛날은 좁쌀 헤영 커근에 대소상 허젠 허민 그 좁쌀도 컷당 그것에  
굴양 치명 떡 허연 문 놔세계.  
103012 @ 보리쌀 경 허영 쉼로 갈앙 와수다예. 갈 때는 보리쌀에 물 무치명.  
103012 #1 으, 물 무침 저사.  
103012 @ 무사 물 무치는 것과?  
103012 #1 거 보리 껍데기 물 놀영 뱃겨지렌.  
103012 @ 아, 뱃겨지렌. 게민 거 다 담양 올 거 아니?  
103012 #1 으.  
103012 @ 올리명 거 쓸어 올리명 몇 번 헌 다음에.  
103012 #1 멧 번이 아니주기게.  
103012 @ 몇 번이 아니라. 얼마냐?  
103012 #1 막 오래주게. 흔 두어시간게.  
103012 @ 아.  
103012 #1 경혜사 거 벗어지주, 거 멧 번 헤영 거 벗어지느냐.  
103012 @ 흔 섬을 흔꺼번에 담읍니까?  
103012 #1 으, 흔 번에 낱.  
103012 @ 한 번에 짝 비어 낱.  
103012 #1 으, 경허영 안내 거 이레 내치고 이디 거 올리곡 허명 멧 번을 돌아.  
103012 @ 그럼 그거 허젠 허민 집이서 갈 때 뭐 뭐 가정 갑니까?

103012 #1 뭣게, 당그네 이녀 당그네 허곡게.  
103012 @ 당그네.  
103012 #1 물게 혈 만이.  
103012 @ 물 혈 만이 가정 가고.  
103012 #1 경헛주게.  
103012 @ 당그네만? 솔박 같은 거?  
103012 #1 건 담젠 허민 솔박은 들어도 담아 옴 안 허민 솔박 들지 안 허주.  
103012 @ 어, 어. 담젠 허민이고, 예. 경헛 거기서 갈앙 왕 집이 왕 물려살 거 아니?  
103012 #1 또시 어. 경혜영 불령 물령 경혜영 또시 두불 강 다까당.  
103012 @ 또 가?  
103012 #1 어, 또 그거 물류왕 또 두불 다강 이젠 두불 다까사 고와. 경혜연 이젠 방엿돌에 곶앙.  
103012 @ 물방에에 강 두불을 곶앙 왕 또 집이서 방엿돌에 곶아.  
103012 #1 으. 물류왕. 경허민 반씩 쪼개지멍 바르르 허민 이젠 체로 치멍 허영 밥 혜영 먹주.  
103012 @ 으, 경혜영 밥 혜영 먹을 거예. 게민 보리쌀 경헛 장만 헛수다예.  
103012 #1 으.  
103013 @ 보리쌀로는 뭐 행 먹읍니까?  
103013 #1 보리쌀 곶앙 옛날은 즈베기도 허영 먹고 췌기떡도 허영 먹곡게.  
103013 @ 췌기떡.  
103013 #1 쉰다리 헤여 낱 그것에 찌영게 ㄱ를 곶아당, 보리쌀 곶아당 경도 행 먹고.  
103013 @ 경도 행 먹고.  
103013 #1 밥도 행 먹고게.  
103013 @ 밥도 헤 먹고. 쉰다리 헤 먹고 ㄱ레 곶아당.  
103013 #1 즈베기도 헤 먹고.  
103013 @ 즈베기 헤 먹고.  
103013 #1 그 즈베기 잘 행 먹어서게 아이고. 그때는 스몫 조체도 다 보깡 범벅 혜영 먹엄저 소문 나 낫저.  
103013 @ 먹을 거 엇이난.  
103013 #1 먹을 거 엇어 놓난. 우린 아버지네 잘 사난에 친구네 집 강 보민 좁 썰에이 감저 빼떼기 막 부수운 거 그거 놓민 아이고 밥 현 거 저거나 혼 번 먹어봐 시민 맛 좋겠.  
103013 @ 보리쌀에 감저 빼떼기 낱 현 거?  
103013 #1 어.  
103013 @ 그거 먹어서민 좋을 건디?

103013 #1 경허명 허여 낫저만은 이젠 침.  
103013 @ 그런 것도 안 먹고예.  
103013 #1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먹어봤주게.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림면, 이디 한경면 엇인 때 한림면에서 일등 부제라낫주게.  
103013 @ 아.  
103013 #1 옛날에 우리 말젯아버지네 셋아버지네 그때 시절에 저 인천 공장 짓언 그 가방 멘드는 공장 허연 망허연 다 헤나고.  
103013 @ 음.  
103013 #1 경허연 우린 논도 막 하낫고 허난.  
103013 @ 음.  
103013 #1 글후제 손지덜 대에 나가난 엇어졌주. 고모덜이고 우리 아버지네 혼대여섯 오누이라도 딸 아덜 엇이 제산을 다 그치 물러줘낫주게.  
103013 @ 그 시절에?  
103013 #1 그 시절에. 딸덜도 밧덜도 다 물리고. 그릇알라 다, 쫓 기려진 그릇사단 다 물러준 거 나도 알아져.  
103013 @ 그 보리썰말고 보리로도 뭐 헤 먹잖아예. 보깡.  
103013 #1 게역게.  
103013 @ 게역 만드는 거.  
103013 #1 비 와가민 이 게역부터 모녀 허느네.  
103013 @ 음.  
103013 #1 보리낭불에라도 보깡. 지들케, 옛날엔 비 오민 지들케 물리지덜 못 허난 게역 허젠 허민 지들케 잘 물령 놔 뒫당.  
103013 @ 지들케렌 헐 거?  
103013 #1 어. 지들케.  
103013 @ 지들케 어떤 거 잘 물령 놔뒫당?  
103013 #1 보리낭이고, 낭은 줄바로 셔사게. 경허고 집 뜯어난 줄께 거튼 것도 다 스몫. 이 집 일어나민 줄께 이 초집덜이라부난.  
103013 @ 음.  
103013 #1 그런 것도 잘 해당 낫당 허고.  
103013 @ 음.  
103013 #1 헤나세.  
103013 @ 경 지들케 물러가지고 그거?  
103013 #1 보깡. 보깡 그레에 곶아세게.  
103013 @ 음.  
103013 #1 그것에 곶양 이젠 체로 쳐. 게역 칸 먹어낫저.  
103013 @ 게역 칸 먹어.  
103013 #1 무신 사탕이 셔샤. 이젠 설탕 그루덜 놔근에 다 햄주만은 그뎌 소금

낱 게역 허여도 어디 십디가 해서.  
 103013 @ 하하. 소금 낱 게역 해연?  
 103013 #1 소금게 근은 맞아야 먹을 거 아니. 물은 카도.  
 103013 @ 예, 예. 게난 소금 낱 게역 헛던 거예. 게민 보리 보까가지민 글민 게역이 되는 거라예?  
 103013 #1 으, 으.  
 103013 @ 그.  
 103013 #1 보리밥에 대강 옛날은 마농지 허고 자리젓이 반찬이랏주.  
 103013 @ 음.  
 103013 #1 자리, 자리 사례 이디 오민이 스몫 사둔 아니민 자리 못 상 젓 못 헌덴 해나세.  
 103013 @ 음.  
 103013 #1 막 줄 짓영 사민 종챇 사름. 그걸로만 반찬. 이젠 시장도 가고 어디 가도 허엿주만은 산간 사름이고 다 자리 사례 오민.  
 103013 @ 그 이제 우리.  
 103013 #1 권리 엇이민 자리도 못 사.  
 103014 @ 못 사. 저기 보리 장만해나민 보리 껍질 이실 거 아니, 보리 껍질. 보리 껍데기. 보리 곶아나민 그걸 뭇렌 곶읍니까?  
 103014 #1 보리썰 그건 껍데긴 하지 안 헌다.  
 103014 @ 아, 하지 안 허여. 그거.  
 103014 #1 도새기 주주게. 도새기 양석.  
 103014 @ 보리 곶아난 그 껍질을 뭇렌 곶읍니까? 그냥 보리 껍데기?  
 103014 #1 으게, 보리, 보리체게.  
 103014 @ 예, 보리체. 건 도새기 주는 거.  
 103014 #1 으, 도새기.  
 103014 @ 게민 보리쩍은?  
 103014 #1 보리쩍은 보리낭 헨 불 슴고.  
 103014 @ 그거 보리낭.  
 103014 #1 보릿대, 보릿대엔 이젠 햅주 보리쩍. 보리쩍으로 보리낭이엔 허주게. 보리낭으로 밥 허고. 건 큰 집이 불 까움이주게.  
 103014 @ 예, 불까움 되는 거예. 예, 예.  
 103014 #1 조 험난 건 이제 소 맥이고. 조대. 감저 험난 거 소 맥이고. 새꼴.  
 103014 @ 음.  
 103014 #1 테 닳은 거 팔윳나민 막 앓앙 테역 깎아. 경허영 들류왕 놀영 낫당 그건 새꼴이엔 허영 쉼 주곡.  
 103015 @ 쉼 주고예. 보리 농사 지으멍 삼춘 영 기억나는 거 잇수과? 보리 농사 지으멍 잇어불지 못 험 일? 그런 건 엇고. 예, 예. 이제는 조 농사 물어보쿠다

조예. 조농사 짓젠 허민 뭐 준비해야 될 것과? 아까 보리 농사 할 때는 걸름 준비 했잖아예?

### 조 농사

103016 #1 으. 조 할 때엔 그냥 좁씨만.

103016 @ 아, 좁씨만. 좁씨는 장만허영 놔 두는 거?

103016 #1 으, 잘리에 행 장만허영 놔 뒷당.

103016 @ 예, 어디 보관행 놔 둥니까?

103016 #1 그건 항에 놔 뒷든게, 옛날에사 항에 주로 헛주게.

103017 @ 주로예. 게민 조, 조 갈젠 허민 걸름은 따로?

103017 #1 걸름 따로 안 헌다 이디. 보리허영 거스름 허영 놔뒀단 이 마 넘으민 이 비 왕은 안 뒤주게. 마 넘어 절로 작데기 구름 흘렷 이제 마같이 허젠 허민 이제 조 블러. 조 갈양 좁씨 빼영 물로 이제 허멍 어려하랑 허멍 막 블리주게. 사람덜마다 다. 경헤영 블렷 이제 조가 요만씩 허민 좇은 딴 앓양 병탱이 풀고 허영 커 가는 냥 시불을 검질을 메여.

103021 @ 아이고, 보리는 혼불밖에 안 메신디.

103021 #1 경헤영 시불을 메사 흐뭇 드물듯 헤사 것이 올라강 고고리가 지랑지랑 훑주게.

103021 @ 그니까.

103021 #1 두루 뽑양 내불민 벨롱벨롱벨롱 헤영 고고리가 이추룩 헤부난 훑게.

103021 @ 시불 메는 거는 방 벌리젠 허는 거구나.

103021 #1 으, 방 벌렷게. 나룩거치 다 방 벌렷 메영 이제 구월 나민 구시월 나민 거 비여. 경헤영 호미로 다 고고리 툷아 오고.

103018 @ 아까 가는 건 언제렌 곶앗수과? 조 가는 거?

103018 #1 마 넘영 유월에.

103018 @ 유월.

103018 #1 오월 그뭇이, 마, 장마 넘어가민. 비 왕은 아이뒤고 장마 끝냥 마같이 허저.

103018 @ 으, 음.

103018 #1 구름이 양쪽으로 행 작데기 구름 흘리고 이제 마 끝난 생이여 허민 이제 조덜 강 블리주게.

103018 @ 게민 조 갈 때.

103018 #1 마엔 고구만 싱그고.

103019 @ 아, 마엔 고구마 싱그고. 조 갈 때 좁씨를 어떻 뿌릅니까?

103019 #1 좁씨 이추룩 헤영게. 차락차락.

103019 @ 뒤에 담양?

103019 #1 자리에 이디, 자루에 영 헤영 망탱이.

103019 @ 망텡이.  
103019 #1 망텡이 친 들앙.  
103019 @ 그거 씨 망텡이엔 글읍니까?  
103019 #1 씨 망텡이 즘질이 짜진 거.  
103019 @ 어.  
103019 #1 경 안허민 광목 잘리에 미녕 잘리에나 영 쥐영 뿌리고.  
103019 @ 으, 뿌리고. 씨 뿌려 낱 밧을 가는 것과?  
103019 #1 아니, 갈아 낱 뿌렁 이젠 쉼나 돌려 불러사. 갈아 낱, 갈아 낱 뿌려 사.  
103020 @ 조팏 불릴 때 쉼나 말 허는 디 그거 말앙 쉼가 뒤에 낱 같은 거 끄는 거 안 험니까?  
103020 #1 아니, 그건 안 허여.  
103020 @ 그런 안 허여. 그냥 밧로만 영 불르는 거라예.  
103020 #1 으, 으. 께 갈 때만 섬비질 허주게. 불리지 안 허는 거난.  
103020 @ 으. 섬비질 허고.  
103020 #1 산디 같은 거.  
103020 @ 산디 같은 거. 그 섬비 말고 조 밧 불릴 때 요런 거. 이진 돌로 만든 겨우다만은.  
103020 #1 이진 낱으로 현 거 이런 것도 셔 낱주만은 이런 거 허는 사름이 엇어 이던.  
103020 @ 아.  
103020 #1 쉼, 쉼로 톨로 듨상듨상.  
103020 @ 아, 이거 잇기 잇어낱구나.  
103020 #1 어.  
103020 @ 이거 뭐렌 곶아난지 알아지쿠과? 남테랑 곶아난? 낭테, 낭테?  
103020 #1 으, 낭테.  
103020 @ 낭테 잇어나신디 쓰지는 안 현 거다예.  
103020 #1 쓰지 안 허여.  
103022 @ 예, 예. 그 다음 그 조팏이는 무신 풀이 납니까?  
103022 #1 예?  
103022 @ 무신 풀이 납니까?  
103022 #1 제완지.  
103022 @ 제완지. 그거 주로?  
103022 #1 으.  
103022 @ 제완지말고는?  
103022 #1 제완지말고는 뭐 으름 풀게. 보쿨 거튼 거.  
103022 @ 보쿨 같은 것덜 나는 거예.

103022 #1 금각채.  
103022 @ 금각채?  
103022 #1 으, 금각채엔 현 풀 나주게.  
103023 @ 예, 예. 거난 이제 검질 방수 벌영 한 세불 멧수다예. 검질을 세 벌 메난, 아까 조 수확허는 건 구월 뉘사.  
103023 #1 조 비는 거 구, 시월에. 추울 때.  
103023 @ 추울 때  
103023 #1 으, 드세브름 터정 막 추울 때.  
103023 @ 이제 조 비는 거 글아줍서.  
103023 #1 게메 조 빌 때.  
103023 @ 조 빌 때 그대에 호미로 강.  
103023 #1 호미로 비영게 쪽허게 이처록 놔 강 이제 다 비민 조코고리덜 호미로 툐아.  
103023 @ 밧디서 그냥?  
103023 #1 밧디서.  
103023 @ 조 빈 거 묶지 안 행 그 자리에서.  
103023 #1 아니 묶영 집이 왕 허는 사름은 집이 왕 툐고 밧디서 툐는 사름은 밧디서 툐양 조찍 트로 고고리 트로 시꺼오주게. 집이서 허는 사름은 집이서 시꺼당 허고.  
103023 @ 예.  
103023 #1 집이서 거정 와근에 시꺼당 넣어둬서 허는 사름 싣고. 경 안허민 밧디서 툐양 밧디서 조찍 트로 그거 트로 행 시꺼오는 사름 싣고.  
103023 @ 그럼 어쨌든 조칙이든 그냥 조든 영 묶어야잖아. 집이서 허젠 허민?  
103023 #1 다 묶경. 이추록 묶영 놀민 빠멍 이젠 옛날 쉼.  
103023 @ 집이서 허는 사름 이만큼 행 묶영예.  
103023 #1 으.  
103023 @ 이거 묶젠 허민 께는 어떻습니까?  
103023 #1 띠?  
103023 @ 예, 띠.  
103023 #1 조찍으로.  
103023 @ 조찍으로 그냥 허는 거.  
103023 #1 으, 조칙 흥폼 멧폴 심어 걸로 영영.  
103023 @ 묶으는 거. 게민 께 장만 따로 안 헤영 그걸로, 지계로 허는 거다예.  
103023 #1 으, 으.  
103023 @ 경 묶영 집이 왕 툐아두민 조칙은 그냥 놀영 놔두는 거?  
103027 #1 어. 놀영 쉼 양식. 소 양식.  
103024 @ 어. 쉼 맥이는 거예. 조 툐앗수다 그럼.

103024 #1 거 뭇방에에 강 둥글여. 둥글영 까지민, 까지민 거 체로 다 청, 불령 경허연 이젠 지여당 놓주.

103024 @ 그럼 조도 텡굴일 때 물 영 쥐?

103024 #1 아니, 아니.

103024 @ 그건 물 안 쥐 가지고.

103024 #1 으, 으.

103024 @ 뭇방에에 강 두드리기도 허고 집이서 거 두드리기도 험니까?

103024 #1 어게. 도께로도 두드리고.

103024 @ 도께로도 두드리고 영 마께?

103024 #1 어. 마께로도.

103024 @ 거 무슨 마께렌 험니까?

103024 #1 텡드렁 마께.

103024 @ 텡드렁 마께로도 두드리고.

103024 #1 으, 얼멩이로 치고.

103024 @ 다 두드렁 줍썰 돼수다. 이제 줍썰도 장만헤야 텔 거 아니?

103024 #1 조, 조가 돼민 이젠 조도 방에에 강 짓는 사름 싯곡게. 것도 두불, 초 불 다 지고 글후제 클방에 나난에 헛주만은 옛날은 뭇방에서 지엿주기게.

103024 @ 으.

103024 #1 경허민 니 옛이, 거 조 하나씩 굴양 니 영 허주게. 경허난 니 옛이 잘 지어졌저. 경, 경허주.

103024 @ 으.

103024 #1 조도 모인 줍썰 싯고 허린 줍썰 싯고.

103024 @ 아, 줍썰 종류예.

103026 #1 모인 줍썰은 죽만 썩 먹는 거고 허린 건 밥에 낵 먹는 거고.

103025 @ 그민 아까 조코고리 톤은 것도 뭇방에에 강 장만허고.

103025 #1 어, 장만허여 두불 청. 두불 청.

103025 @ 이제 조가 돼난, 조가 돼난 조도.

103025 #1 조도 뭇방에에 옛날은 지영 경헤영 두불씩 헤영 니 옛이 헛주게. 멧 번씩.

103026 @ 줍썰 돼민 그거 가정 헤 먹는 건 뭐 뭐 헤 먹엇어?

103026 #1 밥, 밥에 낵 먹고게. 모인 줍썰은 죽 썩 먹곡게.

103026 @ 죽 썩는 건 모인 줍썰만 험니까?

103026 #1 으, 모인 줍썰. 허린 줍썰로 죽 못 쏜다.

103026 @ 무사 허린 줍썰은?

103026 #1 누게 아느냐게.

103026 @ 하하하.

103026 #1 옛날 콩죽에도 모인 줍썰 놔사 맛있고.

103026 @ 아, 콩죽에는 모인 좁쌀.  
103026 #1 모인 좁쌀이 노랑하고.  
103026 @ 예.  
103026 #1 이제 허린 건 김영하고 허난게.  
103026 @ 예. 밥에 낱 먹고 죽 썰 먹고 또 뭐 해?  
103026 #1 뭐 떡 해연 먹고 허린 좁쌀은.  
103026 @ 떡, 떡 해영 먹고. 무슨 떡?  
103026 #1 경하고 그걸로 오메기 허영이 술 내왔주 그걸로. 청주 맞지고.  
103026 @ 청주 맞지고. 청주 맞지는 거랑 오메기 술 허는 거랑 방법이 똑같  
니까?  
103026 #1 다 ㄴ쁘다. ㄴ따근에 술이 오래 해영 낱 놔두면 청주가 돼주게.  
103026 @ 아.  
103026 #1 두불, 술도 두불 해 놔사 허여. 초불 담아.  
103026 @ 예.  
103026 #1 해영 왈탕왈탕 허민 또, 또 담양.  
103026 @ 예.  
103026 #1 허여 놓민 오래 시민 그것이 짐 놀영 청주 맞고 그냥 술도 잘 익어  
사 맛좋아.  
103026 @ 게난, 조, 좁쌀.  
103026 #1 보리쌀 해여근에 곶양 누룩허영 놔 뒷당.  
103026 @ 그거 츄츄 곶아즙서. 우선은 좁쌀 가정 어떻 뭘 먼저 해?  
103026 #1 좁쌀 허영게 이젠.  
103026 @ ㄴ루 곶아?  
103026 #1 ㄴ루 해영 오메기떡 허영게.  
103026 @ 으, 으.  
103026 #1 떡 허영 이젠 찌여. 그 누룩 놓고 허영 찌영 술 해여 놓주게. 향아리  
에.  
103026 @ 향아리에.  
103026 #1 허린 좁쌀이라사 것도. 모인 좁쌀은 안 돼.  
103027 @ 아. 허린 좁쌀로예. 조칩은 어떻행.  
103027 #1 예?  
103027 @ 조칩.  
103027 #1 조칩은 쉼, 쉼, 소 양식. 감저줄이영.  
103027 @ 음.  
103027 #1 산디칩도 다 소. 보리낭대만 불 슴주.  
103027 @ 다 소 맥이는 거예. 조 농사 지으멍 기억나는 거? 엇고예. 이제는 콩  
도 짓어 봤수과, 콩 농사도.

### 콩 농사

- 103029 #1 콩 옛날덜은 콩 갈앙 비여.
- 103029 @ 음. 기민 준비허는 것부터 물어보쿠다예. 콩 농사 허젠 허민.
- 103029 #1 거 그냥.
- 103029 @ 그냥? 준비허는 거 엇어?
- 103032 #1 으. 콩씨 그냥 빼여.
- 103032 @ 밧 갈아 낱 빼는 것과?
- 103032 #1 갈기 전이 빼영 가는 거.
- 103032 @ 콩씨를 그냥 빼여 낱.
- 103032 #1 으, 빼여 낱 가는 거.
- 103030 @ 콩 가는 거는 언제과?
- 103030 #1 조 헐 때보담 흐뎡 모녀.
- 103030 @ 조가 아까?
- 103030 #1 보리 곧 비영 얼메 엇이민 보리그르에 콩 가는 거.
- 103030 @ 아, 보리그르에 콩 가는 것과?
- 103030 #1 으.
- 103030 @ 보리 아까 유월에 장만행예?
- 103030 #1 으, 양력 유월에게.
- 103030 @ 계민 그거 장만.
- 103030 #1 장만 해 뎡 콩 갈아.
- 103030 @ 콩 가는 건 아까 씨를 먼저 뿌렸수다예.
- 103030 #1 으.
- 103030 @ 경헨 장남 빌영.
- 103030 #1 갈아.
- 103030 @ 갈아.
- 103030 #1 감만 허민 뎡 거 그거. 검질이나 메고.
- 103030 @ 이걸 불르는 것도 엇고?
- 103030 #1 으.
- 103030 @ 꺾어주는 것도.
- 103030 #1 엇고.
- 103030 @ 아고, 편한 게.
- 103030 #1 으게.
- 103031 @ 걸름도 안 허는 거고예.
- 103031 #1 으, 안 허는 거고. 건 걸름을 경. 밧이 콩 갈아나민 흐뎡 존넨 허주 게. 겨민 걸름 매 절 현 밧은 비영 고랑더레 낱앙 밧 갈앙 놔 두민 좃냥 행 경허는 사름도 잇고.

103031 @ 으.

103036 #1 허여 떡젠을 허민 그냥 비영 장만을 허민 콩 두부도 허영 떡곡게.

103036 @ 으.

103036 #1 콩죽도 썩 먹고 곶양 국도 끌렁 먹고게.

103032 @ 콩씨는 어떻 뿌릅니까?

103032 #1 콩씨는 흐뎡 두물게게. 좃게 말양 방 벌영. 빼는 사름이 이처록 다 알양 빼여.

103032 @ 예, 알앗수다. 좃씨 뿌릴 때나.

103032 #1 좃씨 뿌렁은 흐뎡 좃진 씨니까 이레 나가도 좃게 나가지.

103032 @ 으.

103032 #1 쥌쥌헌 거난. 콩씨는 이렇게 뿌려도 훑은 거니까 잘 나가지 안 허니까 오무랑 허게 빼고. 다 빼기 마련이라. 이렇게.

103033 @ 음. 경헌 거. 이제 저기 콩밭도 검질은 메살 거 아니?

103033 #1 검질 메사주게.

103033 @ 검질 멧 번이나 맵니까?

103033 #1 콩밭은 흐 벌 메민.

103033 @ 아, 흐 벌 메민 끝.

103033 #1 으. 막 그것이 퍼정 그늘지민 검질이 잘 안 나주게.

103033 @ 아, 콩입이 영.

103033 #1 으, 다 더꺼져불언. 조검질 닭진 안 허주게.

103034 @ 콩밭디는 어떤 검질덜 나는 거라?

103034 #1 제완지 허곡게 꺾새나 다름 엇주게. 으름 검질은.

103034 @ 계난 으름 검질 이름 생각나는 거 다 곶아봅서.

103034 #1 제완지, 보콜, 금각체게.

103034 @ 그거 세 개뿐. 다른 검질은?

103034 #1 다른 검질은 벨로 엇어.

103035 @ 벨로 엇어예. 이제 익으민 콩도 비여살 거 아니예. 콩 비는 거 곶아줍서.

103035 #1 호미로게 것도 비여.

103035 @ 비여. 콩 빈덴 헉니까, 콩 꺾은덴 헉니까?

103035 #1 꺾은덴도 허곡 빈덴도 허곡 허주 호미난. 경혜영 이제 모당모당 농민 안아당 묶어. 묶영 시꺼당 마당에서 두드리주게. 도께로.

103035 @ 음, 도께로 두드리는 거?

103035 #1 두드렁 장만허영 이젠 물류왕 곶아당. 경 안허민 그레에 곶양 콩국도 끌렁 먹고.

103035 @ 이거는 물방에 안 가는 거?

103035 #1 아이 가는 거.

103035 @ 그냥 두드리민 콩 나오는 거난.  
 103035 #1 으, 다 들렁.  
 103035 @ 예. 도깨 안 두드렁 요것도 쉼나 몰 블르렌 안 험니까?  
 103035 #1 안 현다. 도깨로 두드리나 마께로 두드리나 두드려사만 헤.  
 103036 @ 기구나. 콩으로 험 수 있는 거 아까 뭐 헤 먹엇더라?  
 103036 #1 두부도 험 먹고.  
 103036 @ 두부렌 험수과 둬비렌 험수과?  
 103036 #1 둬비.  
 103036 @ 둬비 험 먹고.  
 103036 #1 죽도 썩 먹고.  
 103036 @ 죽도 썩 먹고.  
 103036 #1 장콩도 허고.  
 103036 @ 장콩 험지예, 장콩 메주 만드는 장콩 허고.  
 103036 #1 으.  
 103037 @ 아까 콩짬은 쉼 맥이고?  
 103037 #1 것도 쉼 맥이고. 콩깍지게. 콩깍지엔 현다 옛날. 콩깍지 안아당 쉼 주  
 라.  
 103037 @ 아. 콩짬이엔 안 험.  
 103037 #1 콩깍지엔 현다.  
 103037 @ 아까 보리는 보리낭?  
 103037 #1 으.  
 103037 @ 조는?  
 103037 #1 조낭.  
 103037 @ 조낭.  
 103037 #1 조짱.  
 103037 @ 콩은 콩깍지?  
 103037 #1 으, 콩깍지.  
 103037 @ 아이고 불르는 일름이 다 다르우다예. 보리낭 조짱 콩깍지. 아 경 트  
 나게 불렀구나.

### 밭벼 농사

103039 @ 산디 농사 물어보쿠다 산디. 산디 농사도 헤낫수과?  
 103039 #1 아니 허진 안 헤도 허는 건 봐 낫주.  
 103039 @ 예. 산디 농사 짓젠 허민 뭐 준비헤야 텔 거?  
 103039 #1 산디 농서도 씨만. 옛날은 비료 엇고 허난 씨만 빼여근에 갈아. 갈아  
 근에 이젠 ㄱ시락 신 거 아니가게.  
 103040 @ 우선은 언제 갑니까?

103040 #1 으름에 거 흐뎀 이르게.  
103040 @ 이르게. 그럼 아까 콩 갈 때?  
103040 #1 콩 갈 때 전이 봄 산디도 허고. 봄 산디 봄에 허고. 흰 이 삼월에 스  
오월러래, 삼월 그믐에.  
103040 @ 음. 게민 봄 산디도 잇고 ㄱ슬 산디도 잇고?  
103040 #1 건 늦은 산디 보리그루에 현 것ㄱ란 늦은 산디.  
103040 @ 아 그것도 잇고?  
103040 #1 보리 곧 비여 똥 현 것도 싣고 겨난 봄 산디 허젠 허주기게. 이 나룩  
은 이르게 허영 허젠 허민.  
103040 @ 게민 산디 갈 때는?  
103040 #1 그냥 씨만 빼영.  
103040 @ 씨 밧 갈기 전이?  
103040 #1 으, 갈기 전이 빼영 갈양 이 나룩허듯이 경혜영 냥. 이젠 물 쥐도 물  
아이 쥬, 물이 엇영불민 비 좃은 해엔 제대로 잘 해영 좋고 이건 시절에 메주기게.  
이제 ㄱ무는 해엔 고고리 올라오지도 못혜영 피지도 못 허여.  
103040 @ 아, 고고리 올라오지도 못 허영.  
103040 #1 산디는 비가 많이 온 해라사 좋주게.  
103040 @ 아, 기과?  
103040 #1 어. 나룩이나 마찬가지로.  
103040 @ 산디는 어쨌든 나룩이랑 달랑 물 엇인 디 사는 거잖아예.  
103040 #1 어, 어.  
103040 @ 경헌디도 비 많이?  
103040 #1 어, 비 많이 와사 좋아.  
103041 @ 으, 음. 산디씨 뿌리는 건 똑 같고예?  
103041 #1 으, 으.  
103042 @ 산디 밧에는 검질?  
103042 #1 검질 다 마찬가지로. 으름 검질은 다 ㄱ타.  
103042 @ 멧 번이나 멜 거? 산디 밧은?  
103043 #1 산디밧던 서너 번 메사주게.  
103043 @ 이건 서너 번 멜 거?  
103043 #1 으. 이파리가 콩 닳지 안 허영 이파리가 없는 거 영 올르는 거는 햇  
빛 받고 허민 검질이 즈주 나주게.  
103043 @ 으.  
103043 #1 이제 콩은 낭으로 딱 그늘쳐불민 검질이 잘 안 나고. 감제 검질도 혼  
불만 메민 다 영글어정 허민 벨로 감제 검질도 벨로 짓지 안 허는 디 조검질이 으  
라 번 메주게. 산디 검질이영.  
103043 @ 콩은 앞으로 영 더꺼지난.

103043 #1 으, 혼 번만 메도 돼는 디.

103045 @ 이제 검질도 다 메수다예. 산디도 비어사 걸 아니?

103045 #1 으, 호미로 비영 것도 나룩 홀트듯 홀타.

103045 @ 어쨌든 보리처럼 비영 영 널어 논 다음에.

103045 #1 어.

103045 @ 묶을 거?

103045 #1 어, 무꺼당 낱 홀타.

103045 @ 묶을 때는 이거 께는 어떻 헉니까?

103045 #1 께?

103045 @ 으, 묶으는 건?

103045 #1 묶으는 건 산디로도 묶을 수 싯주만은 이건 짝, 짝 놔 뒫다근에, 썰 비어 오난 옛날은 늘새이.

103045 @ 으.

103045 #1 경허당 무세미 멘들양 톡톡 헤영 온디 클, 쉼클 이추룩 세와진 클, 옛날 발돋양 영허민 보리 두드리듯 그레 또 홀타.

103045 @ 으.

103045 #1 경헤영 홀탕 그것도 두드리나 이제 허여사 나룩이 뒫여근에 방에에 지나 허는 거주게.

103045 @ 게난 어쨌든 산디는 비기 전에 새를 비어 오든 짝을.

103045 #1 으, 짝을 비어 오든 그건 묶어사.

103045 @ 미릇 준비는 헤야 뒫 거다예.

103045 #1 으, 준비 허느네.

103045 @ 밧디서 클 허는 거?

103045 #1 아니 집이 가져 온다 대강. 산딘 뒫 하지 안 허고 허난 쉼로 시꺼당.

103045 @ 쉼로 시꺼당 집이서.

103045 #1 으. 밧딘 허젠 허민 이제 거트민 품이 싯주만은 옛날은 멍석베끼 엇 어세계.

103045 @ 음.

103045 #1 그 멍석베끼 엇어비난 그 멍석을 밧디 시경 가지도 못 허고 헤부난, 마당도 흑 마당이주게게.

103045 @ 으.

103045 #1 경허난 이 흑 마당도 잘 달루민 뒫 길지 안 행이라도 홀타 논다만은 멍석 길양 다 홀투주게.

103045 @ 멍석 마당에 다 길양?

103045 #1 으. 거 나룩 거튼 거 조 거튼 거.

103045 @ 흑시 그거 타작헉 때 도께 허면 막 뒫잖아예?

103045 #1 으.

103045 @ 거 튀지 말렌 옆에 뭐 치는 것도 잇수과?  
103045 #1 아니 치는 거 엇어. 그런 거 썰영 득 쥐세게. 득 질루난 겨난 득 질  
튀세게. 옛날은 허주대경 득 질루민 스몫 강 왕 보민 게 득똥덜이영게 우리 옥은  
때도 막 싸 놓고 허민 우린 득 질루지 맙셴 헨 득 아이 질루고.  
103045 @ 음. 왜 득 질루민 계란도 먹곡 헐 건디?  
103045 #1 계란도 먹고 허여도게.  
103045 @ 으.  
103045 #1 보리낭도 박박 굶으멍 허고 경허여 낫저게.  
103045 @ 으.  
103045 #1 득덜이 막 허주대겨민 막 보리낭덜 좇어 먹젠 박박 허고 득 아이 질  
루는 사름이 엇주기게. 마당에 그거 장만해나민 그것덜이여 다 썰영 득덜도 주고  
느 말차라라도 계란 헤영 반찬도 헤영 먹곡 허젠. 슥양도 먹고. 경헛주게.  
103045 @ 계난 이제 산디 비여가지고 도께질 다 행 산디 장만 헛수다예.  
103045 #1 으.  
103045 @ 이것도 갈양 쓸 만들젠 허민.  
103045 #1 쓸 만들젠 허민게 나룩, 방에에 물방에에 짓던가.  
103045 @ 음.  
103045 #1 저 이 기계 엇인 뎌 물방에에 다 지엃주기게.  
103045 @ 음. 기민 아까 보리 물방에에 질 때는 물 뿌리멍 헛잖아예?  
103045 #1 으, 이견 산딘 물 안 뿌려.  
103045 @ 아, 보리만이구나.  
103045 #1 보리만.  
103045 @ 보리만예. 경 물방에에만 강 정 오민 이제 먹어지는 거?  
103045 #1 어게. 니만 엇이민게. 옛날은게.  
103045 @ 그 물방에 강 질 때 뭐가 켈 오래 걸립니까?  
103045 #1 보리가 켈 오래 걸리주게. 조도 오래 걸리고. 조도 니 하나 엇이 지  
젠 허민게.  
103045 @ 계민 지영 왕 불령 조는 또 지레 가고?  
103045 #1 또.  
103045 @ 두불 진텐 헤시난에. 니 엇이 허젠.  
103045 #1 니 허민 물방에 초불 행 왕 방에에 남방에에서도 실렁 먹고 경헤세.  
103045 @ 막 한 거 아니민예?  
103045 #1 으, 흠뻍씩이라도 보리도 경허고.  
103046 @ 산디썰로는 이제 뭐 행 먹을 것과?  
103046 #1 산디썰은게 나룩 튀게게 논 엇인 사름덜게 죽도 썩 먹고게 밥도 행  
먹곡게 건 일체.  
103046 @ 계난 산디 농사 식게 헤 먹젠 허민 흠뻍씩은 다 헤살 거 아니?

103046 #1 허여사주게.

103046 @ 밥, 곤밥 허젠 허민예?

103046 #1 사당도 허고.

103046 @ 아, 그때도 옛날에도 경.

103046 #1 게 어디 강 사나 어떻 헤사주게. 아무 걸 허나 나룩 안 허민 일도 허여 주민 주곡게. 품으로도 주고.

103047 @ 산디 홀타나민 그건 산디찍?

103047 #1 으, 찍은 췌 준다. 췌.

103047 @ 산디찍도 췌 줘니까?

103047 #1 아이고 췌 잘 먹나. 산디찍이 더 고시롱 허덴 더 먹어?

103047 @ 아, 기과?

103047 #1 어. 경허민 다 서경 누느네. 놀 때에. 가을에 다 가을 농사 해당 다 허여 올 거 아니가게. 거 조도 장만허고 산디도 장만허고 다 장만허민 찍은, 눈에 찍은 망텡이도 좇고 명석도 좇고 신도 삼양 신고. 경헌디 감제줄, 조찍, 산디찍, 새 꿀은 놀에 놀어둬서 췌 맥엇주게. 췌영 몰이영.

103047 @ 음, 놀어둬서. 기민 산디찍도 영 좇는 거 안 됩니까? 나룩찍이랑 트나?

103047 #1 트나주게. 터럭도 들고 고시락도 들고 경허난 망텡이 거튼 거 못 즐주게.

103047 @ 아, 요걸로는 망텡이 못 즐아?

103047 #1 으, 못 즐아. 눈에 나룩찍으로사 망텡이 즐고 신 삼고.

103047 @ 경 산디 농사 지으멍 뭐 별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엇고?

103047 #1 으게. 다 그거나. 옛날에 다 그거나.

### 고구마 농사

103049 @ 예. 이제는예 감저 농사 지으쿠다 감저 농사. 감저 농사 짓젠 허민 뭐 준비헤살 것과?

103049 #1 감제 농사 짓젠 허민이 이월 초열흘 고비에 감제 놀에 놀엇당, 놀은 시월에 허여당이 음력 시월에라민 상강 넘기 전이 이제 감젤 허여당 다 구텡이 팡 놀어. 경헤여근에 겨울에 청도 먹고 씨도 허는 디 이월 나민 이제 감저 멜 놔. 이제 방 벌영 감저 다 묻을 거 아니?

103049 @ 음.

103050 #1 경헤영 묻영 이젠 나민 거 굳 올리고 허엿당 이제 보리 비여 나민 마 와가민 이젠 그걸 요만씩 끈으멍 다 심어.

103052 @ 으.

103052 #1 경헤영 심영 이제 검질 나가민 마 끝나가민 고향으로 쟁기허영 그 검질 난 디 아이 메딩 다 같아. 고향, 매 고향에 경헤영 검질 메여근에 허영.

103052 @ 간다는 게 거기 밧을 갈아부는 거?

103052 #1 어. 심어 논 곶을 이제 쉼으로 갈아. 검질, 곶으로 밧 찢렁. 이거 영 이렁에 심으면 요 새에 검질 난 디 갈양 이레 허민 흑 올라가고 검질 허민 지들 라진 건 거민 영 허명도 잡아 텡겨 주곡 허영 헌디 시월나민 그걸 이제 갈아. 갈양 이제 저 감제줄 비영 들류왕 걸 이제 소 양식으로 가곡 감제로 이젠 빼다귀도 멘들 고.

103052 @ 으.

103052 #1 치영도 먹곡게 묻고. 경헛주. 내중엔 늘채 받으레 완에 전분 공장 헐 댐 풀앗주만은 옛날은 것도 받아가지고 안 헐세게.

103052 @ 음.

103052 #1 경허영 빼다귀 헝 들류왕 그거 부수왕 밥에 서경도 먹곡. 즈베기 허 영, ㄹ루 허영 감제 즈베기 허고 감제 떡도 허영 먹고.

103052 @ 음. 아까 고구마는 메 놓는 걸 이월? 메종이렌 헛수과 메렌 헛수과?

103052 #1 메종, 메종 놀 때.

103052 @ 그건 이월예?

103052 #1 이월에.

103052 @ 밧 갈양?

103052 #1 갈양 헐 때는 혼 유월.

103052 @ 메종 놀 때는 밧 안 갑니까? 밧 갈아사 헐 거 아니?

103052 #1 메종 놀 때는 경 아니 헐도. 가는 사름 갈아도 광이질 헝 일렁이라도 놓주기게.

103052 @ 아, 메종 놀 때는 밧 하영 허는 거 아니난?

103052 #1 하영 안 허는 따문에 광이로 라도 좇양. 밧 이 쉼 장남 신 사름덜은 지네냥으로 혼 고지라도 갈주만은.

103052 @ 예.

103052 #1 쉼 장남 엇인 사름덜은 쉼시랑으로 광이로 다 일렁.

103052 @ 이걸 광이렌 헐 거 쉼이렌 헐 거?

103052 #1 어 광이도 허고 쉼시랑으로도 일러지고.

103052 @ 예.

103052 #1 계난 쉼시랑으로 일르든 광이로 일르든 광이엔 헌다게.

103052 @ 광이렌 헐 거예.

103052 #1 으, 경허영 일러근에 감젯메 낫당 음력 이제 보리 다 허여 낱 오월 마 정 흐끔 날 좋고. 마 질 때도 날 좋고 안 허느냐게.

103052 @ 예, 예.

103052 #1 경허영 헐 때엔 이제 거 심어.

103052 @ 계난 심젠 허민 밧을 갈아살 거 아니?

103052 #1 갈아. 갈양 심어사주게.

103052 @ 계민 밧 혼 벌만 갈민 웰 거?

103052 #1 어, 혼번만 갈민.

103052 @ 갈양 여기 영 높은 거는 아까 이렇?

103052 #1 으, 이렇에 강제 싱그민 이제 고량에 검질을 나민 새로 갈아.

103052 @ 여기를 갈아 부는 거?

103052 #1 경혜영 갈민 검질 혼불을 멧자 대강 훌훌 좇이민 감저 어울어지민 언매 감저 검질이 안 허고 골 아이 갈양은 막 오래주게.

103052 @ 계민 골 갈아주는 건 검질.

103052 #1 검질 엇게.

103052 @ 매 주는 거고. 아까 메종 놀 때는 이거 올리는 걸 뭐 올린덴 헛수과?

103052 #1 올리질 안 허고 광이로 혜영 펜펜허게 허영 고지 넘게 허영 방 벌영 감절 문음만 허민.

103052 @ 곳 올린다는 건?

103052 #1 거 곳 올리젠 허민 낭 메종이 낭 이제 그것더레 검질, 감젓메 검질 메영 영 올려줘.

103052 @ 흑을 영 올리는 거.

103052 #1 어, 올려 줘.

103052 @ 곳 올린덴 허는 거?

103052 #1 어, 곳 올리는 거.

103052 @ 아, 곳 올리는 건 그거라예.

103052 #1 으.

103052 @ 경헨 검질은 밧 가는 걸로 메는 거고.

103052 #1 경허고 손으로도 메사주게 크민. 하나씩 현 거 좇어사주게.

103052 @ 계민 감자 놓젠 허민 메중 키운 줄을 끈영 오는 거 아니?

103052 #1 으, 그걸 이젠 곳 올령 허민 줄 막 어울려정 파지민 이젠 이걸 포기 허영 호미로 비여. 경허영 진 건 이파리 서너너개씩 허영 즐르고 즐른 건 그냥 심고. 경허여근에 심는 거.

103052 @ 심을 때민 밧 갈아나민 여기 손으로.

103052 #1 영 팡 감젓줄 이레 낱 이레 흑 더깁.

103052 @ 흑 더깁.

103052 #1 영 허주기게. 거 갈아 놓민 그 이렇을 영 허여사 감젓줄을, 감젓줄 영 헤 가든 감젓줄이 판나는 따문.

103052 @ 예.

103052 #1 영 파 낱 감젓줄 이레 낱 흑을 이레 낱 더꺼줘.

103052 @ 손으로 그건.

103052 #1 손으로.

103052 @ 아 툭툭 찢르기만 허는 거 아니?

103052 #1 아니고 이거 감제줄이민이 이건 이렇이민 영 흑 헤영 감제줄 이레 영 낱 흑 더꺼. 꼭 꼭 누르뜨멍.

103052 @ 아, 감제줄을 아예 흑에 물어부는 거?

103052 #1 어게.

103052 @ 아, 전 경 생각했수다. 감제줄 잇이민 한 부분만 올로 찢르는 거.

103052 #1 아니 아니. 경허민 그 감제줄 므디 므디가 허영 감제 드는 거주게.

103052 @ 아, 이디 아예 낱 이걸 물어부는 거?

103052 #1 어게. 경허난 영허영 낱 이 흑을 이레 영 더경 꼭 누르떠사 감제가 살주 경 안 허민 곶아벼.

103052 @ 아, 곶아부는 거구나.

103052 #1 으게. 경허영 그 뭇 이 끈 더캥이랑 잘 묻고 순 나는 건 냉겨근에 허민 일로 순 낱.

103052 @ 순 나는 거 냉기기도 허는구나예. 게나 고랑에 상 이랑에 감제줄을 놓는 거라예?

103052 #1 어게.

103053 @ 예, 예. 알아지쿠다 이제. 감제 밧디 검질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53 #1 감제밧디 검질은게 그 중정헌 다음에 하나씩 떨어진 거 시민 좁는 것은 좃어도 혼별만 메도 뒤주게.

103053 @ 아까 중정헌다는 게 무슨 말?

103053 #1 이 고랑 간다는 거주게.

103053 @ 아. 하하하. 고랑 가는 걸 중정한다고 헤?

103053 #1 으.

103055 @ 게민 감제 파는 거는 언제?

103055 #1 시월덜.

103055 @ 이제 감제 수확허젠 허민 뭇부터 헉니까?

103055 #1 줄 비어 놔사게.

103055 @ 줄, 호미로?

103055 #1 호미로 다 동글락 동글락 허게 밧 비여 낱.

103055 @ 예.

103055 #1 이젠 갈멍 간더레 그 줄을 너나 어떻 헤쓰나 허민 물류왕 건 쉼 거 저다 맥이곡.

103055 @ 아니 줄 비여낱 갈아불어?

103055 #1 감절 갈주게 쉼로게.

103055 @ 막 상처나지 안 헉니까?

103055 #1 아니. 쟁기로 갈민 지프게 갈앙 다 헤싸지민 좃음만 현다 좃으멍 이레 데끼곡 저레 데끼곡.

103055 @ 아, 곶갱이로 안 허고?

103055 #1 안 한다. 글쟁이로 어떻 허영 그 작산 거 글쟁이로.

103055 @ 아, 케민 쟁기로 갈아부는 거?

103055 #1 으.

103055 @ 경 좆엇수다. 감저줄은 몰리고.

103055 #1 감전 이제 씨 혈 건 해당 묻고 이제 겨울에 청 먹을 것도 허당 놓고.

103056 @ 예, 물론 허민 이제 뭘 만들어야 혈 거?

103056 #1 흑 구덩이 막 파. 조짚도 영 세웁고 헤영 감제 비와 농명 흑 그레 더 프명 허영 손 들어가게 고망 내왕 느람쥐 더끄고 주쟁이 더꺼라 옛날은.

103056 @ 음.

103057 #1 경허영 허고 이제 남은 건 빼따기 허영 글아당 이제 뿃앙 떡도 행 먹고 즈베기도 행 먹고. 글아낭 무격지 쫓지 안 허냐게. 글아나민게 다 안 부쉬진 거.

103057 103056 @ 음.

103057 #1 그건 밥에도 낱 먹고. 경헤라게.

103057 @ 여기 빼떼기렌 안 행 빼따기렌 헤난?

103057 #1 빼따기, 빼따기.

103057 @ 빼따기. 빼따기 만들 때는 영 칼로 썰어?

103057 #1 어게. 옛날은 칼로 썰엇주게. 저 중간엔 기계 낭 기계로 허영 절간 감저도 허고 헛주.

103057 @ 절간 감저렌 부를 거예?

103057 #1 으.

103057 @ 기계는 어떤 기계과 영 돌리민 뉘?

103057 #1 으, 돌리멍 허는 거. 영 앞이 영 늘 시 개 허고 영 들루민 울로 감저 들이치민 알로 착착착착 나왕 물류고 헛주만은 옛날은 경헌 것이 엇어난.

103057 @ 음.

103057 #1 옛날 하르방덜은.

103057 @ 기민 엇일 때는?

103057 #1 칼로 썰엇주게.

103057 @ 칼로 썬 거예. 예, 예. 경헌 빼떼기

103057 #1 경허고 하영 싱그지도 안헛주게. 그걸 빼따기 허꼭 하영 헤도 썰도 못 허고 혈 거난.

103057 @ 음.

103057 #1 조, 보리 이제 그런 것만 헛주게.

103057 @ 여기 뉘 감저 헤가지고 감저 공장에 풀고 그런 건 안 헤낫수과?

103057 #1 감제 공장에 풀꼭 허는 디 이건 오래질 안 헛주게. 막 옛날 하르방 덜은 경허고 중간엔 늘감저 허영 중간 감저로도 허고 늘채로 헤영 저 판포 공장에 도 강 풀고 그 숃년에 그 감저 똥을 다 사당 먹어서.

103057 @ 감저 똥이 뭐과?

103057 #1 절간 저 생채 풀민 전분 그루 나가명 밋밋 나왕 통에 반양 도새기 사당 맥이곡 해낫주게.

103057 @ 으.

103057 #1 그런 거 다 사당, 저 봉가당 먹는 사름은 먹어낫저.

103057 @ 아, 전분 가루 해가지고 찌꺼기. 계민 공장에 강 폰 건 얼만 안 똥 거 구나.

103057 #1 공장에 강 풀민게.

103057 @ 계니까 계니까 막 옛날에 삼춘 몇 살 때쯤 그런 감저 공장이.

103057 #1 우리 감저 공장은게 시집간 후제 생겼주게.

103057 @ 시집간 후제. 기지예.

103057 #1 그 전인.

103058 @ 감저줄은 아까.

103058 #1 췌.

103058 @ 췌 맥이는 데 물렁?

103058 #1 물렁, 흔 못씩 흔 못씩 무경 다 놀영 놔 뒷당. 비 맞추지 말앙 다 는 람취 허영 놀영 낫당 빠명 맥인다.

103058 @ 계민 집이 놀이 참 여러 개?

103058 #1 으라 개 허주기게. 조칩놀, 새풀놀, 이제 감제줄놀, 보리낭놀 스몯 이제 거트민 이집이 못 살주게. 이 놀 허젠 허민.

103058 @ 계난 출놀도 또 해야 헐 거 아니?

103058 #1 어?

103058 @ 출놀도 또 따로 만들어야 헐 거 아니?

103058 #1 출놀게 다 따로따로덜게. 조작조작 허명.

103058 @ 하하하.

103058 #1 지들케도 불 슴을 거 해당 데미곡게.

## 기타 농사

103060 @ 어. 지들케도 데미고. 집 널찍허게 놀 놀 자리덜이예. 이제 다른 농사 덜, 혹시 수박도 같아낫수과?

103060 #1 수박덜은 안 헛저 옛날. 이제난 수박, 춤웨 낡 먹엄주 춤웨, 수박 어 느절에.

103060 @ 먹을 거는 게도 심영?

103060 #1 아니 헛저 옛날은. 호박 그자. 국 끌렁 먹는 거 호박 주로 낫주이. 수박, 이거 수박, 웨 놓건 디가 이거 십 년 안내주게.

103060 @ 아, 그거밖에 안 똥?

103060 #1 이거 우리 세계에. 다 사명 먹고 그자 헛주. 집이서 농사 그 전인 안

헛저.

103060 @ 게니까 먹을 것만개?

103060 #1 먹을 것만도 흰 십 년쯤 뵈저.

103060 @ 아.

103060 #1 젊은 사름덜 헤영 메종 나난 헛주 아니 헤 봤저 이디.

103060 @ 아, 안 헤 봐서.

103061 #1 물웨나 허고 옛날은 물웨 허고 호박이나베끼. 대축부랭이 거튼 거.

103061 @ 물웨는 어떻 헤낫수과?

103061 #1 물웨는 싱그게 웨민 씨 행 놔뵈단게 씨로 싱경근에 으름에 냉국덜 행 먹고. 웬장에 밧디 가정강 적전도 먹곡 경허영 물웨 주로 헛주게.

103061 @ 씨로 싱그는 거라예?

103061 #1 으, 씨로 싱그는 거.

103061 @ 씨는 그냥 먹던 거 받아 낫당?

103061 #1 아니 익은 거 허영 받아들 낫당 물령 논다.

103062 @ 물렛당예. 고치는 어떻 헛수과?

103062 #1 고치도 기자 장독 안에이 먹을 만이 자리 웨나 먹을 땐 먹고게 멧낱 썩 심영 헛주 경 주로 안 헛저. 이거 고치 심건 디도 멧 년 안 뵈저 이거. 젊은 사름덜 심게 웨난 막. 나도 작년꺼지 심영 이제 아이 심엄저. 이젠 늙어변 허지 못헤 영.

103062 @ 옛날에 김치 헤 먹젠 허민 고치 집이서 싱거나지 안 허연, 흐끔은?

103062 #1 흐끔은 싱거낫주. 경 흐끔 허난 경 벌경게 놔사게.

103062 @ 아니지예.

103062 #1 아니주. 사당도 놓곡게. 우리도 옛날 저 시에 강 사단 먹엇저게. 저 체주시에 저, 저 그 집이 고치 좋넌 허여근에 그 서문통 시장 안에 강 우린 사단 먹엇주만은.

103062 @ 음.

103062 #1 할망덜이사 고치 벨로 고치 낱 먹어사게.

103062 @ 음.

103062 #1 젊은 사름덜이사.

103062 @ 집이서 헛 때는 씨 뿌린 거 메종 논 거?

103062 #1 고치 메종 낫당 싱그주기게.

103062 @ 지금은이지만 옛날에 먹을 때?

103062 #1 아니 이젠 메종 논 거 사당 싱검주만은 옛날은 고치씨 허영 메 낱 싱것저게.

103062 @ 이제는 메종을 아예 사당 허는 거고?

103062 #1 으, 사당 허는 거고. 이제사 춤웨고 수박이고 다 메종으로 험세. 오이 고 무시거고.

103062 @ 음.

103062 #1 나도 오이여, 수박이여, 가지여 다 메종으로 사당 서너 개씩이라도.

103062 @ 장에 강예?

103062 #1 으.

103063 @ 배추늑물은 어떻 해나신고예?

103063 #1 배추늑물 아이고 애야 옛날 배추 우린 배추라도 속 앓은 배추 허영 갈양 김치 허영 우린 별경케 허고 맛 좋게 허민 우리집이 아덜덜 친구덜은 난 아방도 학교 다니고 허난게.

103063 @ 아, 공무원이랏수과?

103063 #1 어. 경허민 김치 맛 좋게 험젠 우리집이 아덜덜 친구덜은 막 왕 나 옛인 때덜은 밥 왕 먹어난 아으덜은 김치 맛 좋게 허영 그디 가민 꿩기가 시나 어시나 짐치에 밥 먹어져라 헤도 다른 디사 경 허여져사게.

103063 @ 음.

103063 #1 경허여근에 초마귀나 영 고치도 아니 농곡게 약간 버물령 허곡. 침먹을 때거리덜도 이제난 허주 우리 아기덜 클 때사 혼엇이 헤사. 경허난 우린 그때도 배추 갈아근에 우리 아, 친정 아방이 막 입매 줄르는 따문.

103063 @ 음.

103063 #1 날 빌어당 김치도 담으레 허고.

103063 @ 삼춘이 요리를 잘 헛구나?

103063 #1 예, 예. 생성 다져근에 우리 친정아방은 그런 거 낡 짐치나베끼 안 먹어낫주게.

103063 @ 음, 음.

103063 #1 경허영 우리 아버지가 원체 입매 줄른 따문 우리 어머니도 삼시 우리 아바지 더운 밥 허고 헤나서.

103063 @ 배추 농사 지을 때 옛날에 씨 뿌령 헛 거?

103063 #1 아니. 으, 씨 뿌령.

103063 @ 으.

103063 #1 경허영 웨로, 웨로 세왕.

103063 @ 으.

103063 #1 경헤근에.

103063 @ 영 속 앓읍니까?

103063 #1 막 속 앓아낫주기게.

103063 @ 묶어주지 안 헤도?

103063 #1 묶어주지 안 헤도.

103063 @ 오.

103063 #1 반 속 앓아낫주게. 반 속.

103063 @ 반 속 앓아난예.

103063 #1 우리 이제도 메종 낱 주민 누물은 이녀대로 허영 먹어.  
103063 @ 아, 기과.  
103063 #1 험주게 매해. 누물 아이 사 받.  
103063 @ 안 사 받. 예. 그 무수능?  
103064 #1 무수도 같아.  
103064 @ 씨로?  
103064 #1 씨로. 줍아 낱.  
103064 @ 씨로 줍아 낱.  
103064 #1 딱 영 허민 무수 사이, 사이.  
103064 @ 예.  
103064 #1 험 만씩 줍아 낱.  
103064 @ 게민 우영빳디 무수랑 고치랑 ㄹ치 다 심어난 거 아니? 게민 배추랑 무수 싱글 때가 시기가 ㄹ트과?  
103064 #1 아니주기게. 이 고춘 음력으로 이월 초 열흘 고비에 메종 놀 고리레 행 싱그고.  
103064 @ 예.  
103064 #1 경헌디 이제 배추는 일후제 싱글 거주.  
103064 @ 일후제 싱글 거.  
103064 #1 어. 무수도.  
103064 @ 일후제가 언제라?  
103064 #1 구월, 구월 혼 십날 안에 심을 거라.  
103064 @ 무수도 그때예?  
103064 #1 으.  
103065 @ 지슬도 싱경 먹어낫수과?  
103065 #1 지슬도 싱거낫주기게.  
103065 @ 그것도 먹을 것만? 어떻 싱거?  
103065 #1 그것도 걸름허영 같아 낱 영 허여 낱 그것도 이철록 허영게.  
103065 @ 그 뭐를 놓는 거? 씨를?  
103065 #1 씨.  
103065 @ 감저를, 아니 지슬을?  
103065 #1 지슬을. 여름 지슬은 온채 놓고 겨울 지슬은 눈만 돌랑 놔도 돼여.  
103065 @ 아, 기과?  
103065 #1 으. 으름에 비 하영 온 때 으름 지슬은 벌르지 아니 허고.  
103065 @ 예.  
103065 #1 썩어빈다. 겨울에는 그 눈만 돌랑 비 엇는 때난 놔도 지실 들고 경 허는 거.  
103065 @ 썩어불카부텐 온채 안 놓는 거?

103065 #1 썩어벼.  
103066 @ 예, 예. 피 농사 지어 받, 피?  
103066 #1 아니, 안 헛저.  
103066 @ 안 해난예. 피밥도 안 먹어 보고?  
103066 #1 안 먹어 받.  
103067 @ 믰물 농사 어떻 허과?  
103067 #1 믰물도 이디레 안 허여.  
103067 @ 여기는 믰물도 안 허여.  
103067 #1 으, 믰물 잘 안 허여.  
103067 @ 계민 믰물쓸 어떻행 구행 와?  
103067 #1 믰물쓸은 상훼에 강, 어디 웃드를 강, 이젠 상훼 시난 상훼 해도 웃드르 믰물 신 디 강.  
103067 @ 바깥 오는 거?  
103067 #1 저 사오주기게.  
103067 @ 사 오는거예.  
103067 #1 믰물채도 시집가젠 허민 그 건퍼난 디 강 믰물채 사곡.  
103067 @ 으.  
103067 #1 믰물쓸도 사곡.  
103067 @ 믰물채는 무사 사는 것과?  
103067 #1 베개 시집갈 때 허젠 허민게 강 막 사 오주.  
103067 @ 예. 믰물쓸은 아멩해도 떡 허젠 허난예?  
103067 #1 떡도 허곡 먹곡 허젠 허민.  
103068 @ 혹시 이 동네 담배 갈아낫수과?  
103068 #1 담배 옛날 우리 아버지네도 갈안.  
103068 @ 아이구, 담배 갈아난?  
103068 #1 담배 갈앙 거 툷앙 다 예경 물 올라사. 경혜영 그늘에서 물랑 다 거 접 짓영 풀고 헨게 그때.  
103068 @ 계민 삼춘 막 어렸을 땐게예?  
103068 #1 으, 나 막 어린 때. 허는 거 봄만 헛주게. 경허민 그거 담배입 툷아당 물 올르민 그거 다 예경 느람쥐 예끼듯 예경 벳 안나는 디 이제 주랑주랑 걸영.  
103068 @ 으.  
103068 #1 경허영 물류와근예.  
103068 @ 물 올른다는 게 무슨 말?  
103068 #1 담배가 그 힘이 차야.  
103068 @ 아. 여리여리 안 행.  
103068 #1 으, 어리지 안 행 그 힘이 차사 그 이파리 뵙. 그거 보민 넓적넓적 허난.

103068 @ 기민 보민 지금 물 올라져신지 아닌지 알아질 거라예?  
 103068 #1 계, 알주גיע. 것이 이만이 담배 높으민 밑으로 툇앙 물 올른 건 툇앙 예킨다 찍으로.  
 103068 @ 예, 예.  
 103068 #1 경 예경 영 허영 다 옛날은 허여근에 풀아라.  
 103068 @ 아, 기구나 기구나.  
 103068 #1 경허민 칼로 그거 썰어근에 담배 피우는 하르방도 싯곡게.  
 103068 @ 툇린 거를?  
 103068 #1 툇린 거게.  
 103068 @ 툇린 거. 예.  
 103068 #1 경헤영 툇대에덜 거 낱 피우는 하르방은 피우고 이제 몰앙 먹는 사름은 몰앙덜도 먹고. 품도 허곡게. 그때는 담배 풀렌 행 담배 받아감도 행게.  
 103068 @ 저기 다른 디서 왕 담배 받아 가는 거?  
 103068 #1 으, 응.  
 103068 @ 알앗수다.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쉼 질르고 물 질러난 얘기를 물어 보쿠다. 쉼 질루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4001 #1 쉼 질루젠 허민 쉼출 시간에, 시간에 두 시간에 혼 번도 주곡. 물 맥이레 가고 물통에 옛날은. 수돗물 엇인 때난 물 질어당 떡곡 저 허드렛물 허는 디강 물 맥영 오고. 이제 솔통 이제 쉼 허영 육지레 수출힐 거로 부랭이덜, 솥쉼 허민 출 썰어 맥이곡 옛날도. 막 슬지게 신경쌍 허민 슬 막 묻으민 슬 값으로 행 풀고 경헤낫주게. 암쉼 이딘 암쉼 질루는 사름이 멧 엇어 이딘.  
 104001 @ 암쉼 알아주지 안 허여.  
 104001 #1 목장도 엇고 허난 새끼 내우민게 어떻 허당이나 암쉼 허주 다 솥쉼덜만 헤여 여긴.  
 104001 @ 아. 영 푼는 것도.  
 104001 #1 옷드리렌 암쉼 질좌도 해변가렌 솥쉼가 많아.  
 104001 @ 그러니까 푼는 것도 솥쉼 질룬 거라예?  
 104001 #1 으.  
 104001 @ 밧 가는 것도 부랭이 질뤄난 거 아니?  
 104001 #1 으, 부랭이 허고 암쉼도 밧 간다게.  
 104001 @ 암쉼도 밧 갈아마씨?

104001 #1 으, 암쇄도 허는디 거 송애기 허영 돈이사 별주만은 경현 사름덜은  
흐끔 뿃 현 사름이고 그자 농사나 짓고 쉼 빌레나 안 갈 사름은 부랭이.

104001 @ 으.

104001 #1 경허난 옛날 우리도 쉼 시난 쉼 엇인 장남 허영 우린 밧 갈아도렌  
헛주기계. 밧 갈 사름이 엇이난.

104001 @ 남자 삼춘은?

104001 #1 교직에 땡겨부난.

104001 @ 아, 직장 땡겨부난.

104001 #1 으. 우리 친정 아버지도 이녁냥으로 밧 갈고 늙어도. 경헤낫주.

104001 @ 경현 쉼 뿃 마리나 질뤄낫수과? 하영 질룰 때는?

104001 #1 부랭이 하나씩베끼 안 질룬다. 암쇄 허는 사름은 여러 개 허고. 새끼  
내왕 초랑초랑 울리 나고 내년 나고 허민 으라 개이고.

104001 @ 아, 부랭이 하나씩?

104001 #1 으.

104001 @ 아멩헤도 그 부랭인 밧갈쉼로 질룬 건계.

104001 #1 으, 밧갈쉼로계.

104002 @ 그럼 이 쉼 질룰 때 이 털 색깔에 따라 영 종류가 잇잖아예?

104002 #1 으.

104002 @ 예를 들면 노랑색?

104002 #1 노린새도 질루는 사름 잇고 검은 쉼도 질루는 사람도 잇고. 또 검은  
색에 흰 털, 흰 점 박아진 쉼도 잇고 헤낫주.

104002 @ 게민 그거 검은색에 흰 점 박이진 쉼 불르는 일름을 알아지쿠과?

104002 #1 속쉼 이 그츄록 으라가지 색 헤진 건.

104002 @ 아, 아. 게민 노랑쉼는?

104002 #1 황부랭이.

104002 @ 황부랭이. 검은쉼는?

104002 #1 검은쉼 그냥 검은쉼 그냥 허고. 노린건, 벌경현 건 황부랭이. 이제 그  
얼룩달룩 현 건 속쉼.

104002 @ 빨 모양에 따라도 이름덜이 이신가예?

104002 #1 아니. 그런 건 이름이 엇어.

104002 @ 빨모양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과?

104002 #1 영허영 오고라진 것도 잇고 굳장 영 세와진 것도 잇고 뿃 가지가. 흐  
끔 졸른 것도 잇고.

104002 @ 음.

104002 #1 질영 스뿃 현 것도 잇고 으라 가지주.

104002 @ 그럼 그런 거에 따랑 이름은?

104002 #1 그런 건 엇고계.

104002 @ 아, 엇고예. 거의 다 털색깔로 현 거다예.

104002 #1 으.

104003 @ 계민 쉼 영 질루민 집이서 그 쉼 뭐 헐 때 씩니까?

104003 #1 밧 갈 때 짐 시꺼올 때 경 허주게.

104003 @ 밧 갈 때 짐 시꺼올 때. 또 쉼 쓰는 일이 신가?

104003 #1 어?

104003 @ 돌방에 강도 쉼 씩니까?

104003 #1 어게, 돌방에도 옛날은 돌방에 지명도 허곡게. 경 엇인 사름은 쉼 빌 영 헤영 일도 해주고 경헌다.

104003 @ 늬의 쉼 빌령 행, 수눌영 일 허는구나. 또 밧 불릴 때도 씩니까?

104003 #1 옛날은이 이녁대로 농서 못 짓고 허난 밧 가는 장남 빌민 홀어멍덜 은 이건 우리 여저끼리난 곶암주만은 홀어멍신디 허영 다 아기도 낳고 딸도 봉그고 아덜도 봉가. 농서 혼디 지명은 뭐 홀어멍은 대개 경해서 옛날.

104003 @ 아, 장남 와 가지고 일 해주고.

104003 #1 일 헤 주당 보민게.

104003 @ 하하하. 일헤 주명 애기도 봉갓구나.

104003 #1 애기게. 딸도 봉그는 디 싯고 아덜도 봉그는 디 싯고.

104004 @ 하하하. 그 부랭이는 밧 갈젠 질들여야 헐 거 아니?

104004 #1 어게. 쉼 ᄇ르친다. 담 허여근에 곶냥 딸랑 그디 노 돌아메고 허영 이디 명에 싯왕 쉼 ᄇ르쳐사 밧 갈곡 허주기게.

104004 @ 계난 삼춘네는 부랭이를 밧 가는 부랭이를 상 왕 질룬 것과 아니면 새끼 내운 거를 질룬 것과?

104004 #1 아니 우리 부랭이 다 밧이영 ᄇ르쳐진 거 사당 우린 허주게.

104004 @ 아, ᄇ르쳐진 거.

104004 #1 어게, 우리 하르방도 시아방도 늬어빌고 어떻허여. ᄇ르치젠 허민 힘 들어. 새 송애기 ᄇ르치젠 허민.

104004 @ 계난 새 송애기 ᄇ르칠 때 늬 허는 건 본 거 아니예 ᄇ르치는 거예?

104004 #1 어게. 담 꾀영 경허곡게 담 조롭에 이 먹돌이라도 곶냥 딸라진 거 쉼 밧 같듯이 탁 노 허영 허곡 황황 허멍 지렁지렁 막 꾀영 땡기곡 허주.

104004 @ 계난 멧 설 쉼민 쉼를 질 들이기 시작합니까?

104004 #1 멧 살산디게 밧 갈만이 허민게.

104004 @ 밧 갈만이 허민.

104004 #1 으, 크민게. 경허민 ᄇ르칭.

104004 @ 그게 쉼 멧 설인지는 모르고?

104004 #1 혼 두 설, 세 살에 ᄇ리치는 거여.

104004 @ 두설, 세설 때?

104004 #1 으.

104004 @ ㄹ리치젠 허민 뭐부터 허여?

104004 #1 뭐 밧 가는 거게. 멩에 허영.

104004 @ 멩에 허영. 바로 밧디 가가지고 ㄹ리칩니까?

104004 #1 아니게. 이 돌 꺫영 텅기멍 ㄹ리쳐 놔사 허는 거주게. 주로 멩에 씩  
우고 돌 꺫영 지렁지렁 굳장헌 신장로로 텅기멍 ㄹ르쳐.

104004 @ 으.

104004 #1 경허영 낱 이제 밧디 강 장기 메왕 흐끔씩 흐끔씩 배왕 허는 거주게.

104004 @ 처음에는 이 동네에서 가르쳤구나.

104004 #1 으, 질레서.

104004 @ 질레서 돌 우이.

104004 #1 으, 돌 돌아메영. 이만이 현 돌 허영 그 꺫는 돌덜이 싯주기게. 멘들  
양 새송애기 ㄹ리치젠 허민 옛날 새송애기 ㄹ리치젠 허민 멩에 씩우고 그거에 저  
꺫영 텅겨나사 구루마도 메와지고 아이고.

104004 @ 음.

104004 #1 물도 옛날은 물도이 꺫 한 물은 오드락오드락 들러퀴멍 질메도 안  
지젠 헤낫저.

104004 @ 하하하.

104004 #1 옛날은이 차가 드물게 드물게 영 길 넓히지 안 현 때에 허민이 우리  
걸름 시경 가나 줄 시경 오젠 허민이 물은이 췌보다 물은 췌 경 안 허는디 물은 오  
들랑오들랑 들라퀴젠 헤, 뒷발허민 겁나.

104004 @ 음.

104004 #1 경허민 난 물 안 허영 췌 헤영 가젠 췌 행여 가젠.

104004 @ 음, 들라퀴카부덴. 하하하.

104004 #1 차 와가민 어디 골목더레 확 이경 강 세왓당 허곡. 이젠 차 하부난  
경 허젠 헤도 못 허주.

104004 @ 계난 물이 차 보멍 놀랜 건게게.

104004 #1 놀랜 거. 겁냥. 뒷발 오들랑 오들랑.

104004 @ 하하.

104004 #1 경 헤낫저.

104005 @ 예, 짐 시경 가젠 허민. 췌 질룰 때 췌도 나이가 잇잖아예?

104005 #1 으.

104005 @ 혼 설, 두 설 헐 때 그 나이 불러난 일름을 알아지쿠과? 혼 설 때 뭐  
렌 불르고?

104005 #1 아니 경 안 허여.

104005 @ 나릅, 사릅 허는 말 안 들어 봤수과?

104005 #1 건 어린 때 이건 멧 년 췌 거 허영 그출룩 듣주 그냥 멧 설이여, 풀  
젠 허민 이건 혼 열 두설 췌 난 거 닳다 허고. 이 송애기 어린 때가 사릅이여 무시

거여 허는 거주.

104005 @ 계난 계난 두설을 다간이엔 불르고?

104005 #1 난 몰르켜.

104007 @ 아, 하. 그건 모르고예, 나이는데. 그 췌에 짐 시끄젠 허민 우이 질메를 헐 거라예. 질메를 허면은 거기에 이름들은 알아지쿠과? 질메에 이 부분은 뭇렌 불르고 허는 이름들?

104007 #1 그냥 우린 질메엔만 헤 낫저 이딘.

104007 @ 질메엔만예.

104007 #1 짐 시경 허민 질메. 이제 영 두꺼운 거 허영 질메 소곱에 탁 더끄는 거, 더끄는 건 질메 등지게.

104007 @ 아, 질메 등지게.

104007 #1 경허영 그레 질메 지왕 저 짐 시끄고 허주게. 등 벗겨지카부덴 험빅 두꺼운 거 영 허영 옛날은.

104007 @ 예, 예.

104007 #1 경허영 등땡이레 것부터 모녀 나 낡 질메 우터레 썩와. 등 벗어지카부덴.

104007 @ 등 벗어지카부덴. 경행 질메에 앞에 부분을 뭇엔 불르도 뭇엿 부분은 뭇엔 불르고 그거는 일름이?

104007 #1 옛언.

104007 @ 옛언예.

104007 #1 질메 앞인 흐뎡 높으고 질메 뒤에 거는 흐뎡 느차와.

104007 @ 아, 기과.

104007 #1 어, 경헌디 질메에 아뎡이나 지왕은 짐 못 시끄주게.

104007 @ 어.

104007 #1 옛날 우리 지들커 허레 간디 우리 스춘 오라방이 질메 그뎡 오고 허고게 학교 허단 방학 허난.

104007 @ 일 허레 왔구나.

104007 #1 지들케 허레 갓주게. 저 막 우이 산간에. 경허영 이젠 시건 오젠 허난 췌가 못 전디고 걷지도 안 허고 헐 봐레 보난 아, 거꾸로 질메 지완게.

104007 @ 아.

104007 #1 계난 짐이 앞이 높아사 들러질 건디 된 허고 앞더레 박아지난 췌도 오죽 못 전더사게.

104007 @ 뒤를 못 들런 무거원에.

104007 #1 경허영 오단 짐 클런 질메 새로 헤영 와낫저.

104007 @ 아.

104007 #1 헐 충 모른 사름은 몰랑 경허영.

104007 @ 어느게 앞이고 된지?

104007 #1 으, 몰르주게.

104007 @ 계난 앞에가 좀 높구나.

104007 #1 으. 영 앞쪽에 노프게 허고 질메에 낭으로 다 공쟁이가 잇어.

104007 @ 음.

104007 #1 셋베 영 허영 그 공쟁이레 짐 시경 싹 훔팅 또 시경 또 이디 꿰고 경허여 낫저.

104007 @ 음. 앞에 배쪽으로 행 영 무끄는 거.

104007 #1 질메, 질메에 다 존등이 무끄주게. 배로 영 허고 끌랭이로 영 헌디 허영 저 허는디 짐 시끌 때에, 시끌 때에 이쳐록 헌 디 공쟁이가 잇어. 그 질메에. 경허민 이디 두어못 낳 그걸 확 텡경 시경 또 해뵤 또 이짜 시끄고 이짜 시끄곡 허 멩 짐을 시끄주게.

104007 @ 짐을 시끄는 거라예, 예. 그 밧 갈젠 허민 밧 갈젠 허민 썩난 거 뭐 씽니까?

104006 #1 쟁기.

104006 @ 쟁기. 쟁기힐 때 췌는 여기 뭐 먹지 말렌 썩우잖아예.

104006 #1 어, 망울.

104009 @ 망울도 썩우고예. 여기서 밧 갈 때는 여름에는 여기 데려왕 질릅니까? 아니면 저 목장에도 보내낫수과?

104009 #1 저 목장에 이딘 목장에 혼엇이 보내는 사름이 엇엇주게.

104009 @ 여름에?

104009 #1 여름에도 이디선 질루왕 이디. 툐 거튼 거 다 우터레 우리 하르방넨 옛날 부제허난 우터레, 콤 췌, 샳 췌.

104009 @ 응.

104009 #1 경허영 목장에 허엇당.

104009 @ 샳은 누구안테 주는 거라?

104009 #1 허여 주는, 봐 주는 사름.

104009 @ 아, 그냥 돌봐주는 사람.

104009 #1 으, 돌봐주는 사름.

104009 @ 거기에 샳을 주는 거.

104009 #1 샳 췌단에 쓰게 뵤민 와난디. 췌 하나씩 헌 사름덜은 그냥 집이서 으름에 낫전이 어디 강. 전이 거트민 이제 췌 먹영 들어올 거여 혼 열시 뵤 가민. 아 칙이 일찍 강. 경허여근에 저 어디 우린 바닷가 췌에 사난 바닷가 예염에도 강 메고 베꼈디 췌막엔 으름에 더웁 못 메주게. 영헌 더레도 베꼈디.

104009 @ 그럼 신창은 목장이 엇어낫수과, 동네 목장이?

104009 #1 목장이 어디 시니? 담 동글랑 동글락 헌 밧덜 벌어 먹을 거베긴 엇인디. 저 당물러레 강 올린다. 그렌 곳자왈러레.

104009 @ 아, 곳자왈러레.

104009 #1 어, 저 김녕더레 목장에 올리듯이.

104009 @ 예.

104009 #1 저 당물 저지러나베끼 경 널른 디 엇주게.

104009 @ 경 밧갈쉐 올릴 디 엇영 여름에도 여기?

104009 #1 으, 여기 현다게.

104009 @ 계난 삼춘도 쉼 질르명 영 물 맥이레도 가고 쉼 맥이레도 가고 헛수과?

104009 #1 아이고 물 맥이레 어린 때부터 쉼 맥영 오고 방학허민 아이고. 방에 쳐나민 강 내물아덩 오고. 이 믱을 베꼈더레 내물아덩 오민 어드레 쉼 그뻐 담덜 다고 허난. 경혜감시민 즈물아 가민 또 좇으레 가고.

104009 @ 으. 계민 어디 강 밧디 강 담양 놔두는 거 쉼?

104009 #1 저 케염질러레 놔 두민 질레여 것도 뜯어 먹고 경허당.

104009 @ 도망가볼지 안 험니까?

104009 #1 경 멀리 도망은 아이 가.

104009 @ 안 가? 묶어 두지 안 헤도?

104009 #1 응. 경허영 어디 강 좇아오주기게. 쉼덜끼리 허난게. 내물양 내불민 으름엔 쉼들끼리 선선헌 디도 강 사곡게 쉼도 더운난 어디 돌아나느냐. 이디서 헤 나난 어디 웨방더레 이디서 낭 이디서 현 쉼 어디레 가지 안 허여, 옛날.

104009 @ 계난 쉼도 집을 알아가지고 그 근처만 잇어났구나. 계난 삼춘도 학교 다녀 낫수과?

104009 #1 우리 국민학교 텅겼주게.

104009 @ 방학할 때 쉼맥이레 다니고?

104009 #1 일헛 때 스몯 결석허연, 우리 어명네 부제난 결석허연 허민 난 스몯 낯 빌영 제기 안 허영 날 빌영 험젠 허명 막 양작 헤낫주게.

### 말 기르기

104011 @ 하하. 물은 어뎡 질뤼낫수과, 물은?

104011 #1 물은 웃드리 우리 하르방네. 물은 이디서 못 질룬다. 대개 물 신 사 름덜은 목장더레 올리주.

104011 @ 목장더레 올렸던 거.

104011 #1 으름내냥 조 불러나민 뭇 헛 것이 엇주게 이디. 짐 시경 ㄱ슬들민 또 걸름이나 시끄젠 허민 허주. 경허난 목장에 올려.

104011 @ 목장에 올려, 예. 쉼은 혼 몇 살까지 키웁니까 쉼?

104011 #1 쉼은 늙어가민게 바깥 돈 더 쉼 넘겨줘근에 바깥 질루곡게.

104011 @ 바깥 길루고.

104011 #1 행실 나빠도 경허고.

104011 @ 밧갈쉐로 하는 거니까 말 안 들어가민 다른 쉼랑 바빠부는 거라?

104011 #1 으, 풀아뒤 다른 쉼로 사고.

104011 @ 계민 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들도 막 오래 길뤄?

104011 #1 아니. 우리 하르부지는 오래 질뤄라 들은. 옷드리 올렛단계 건 벨로 게 좋지 안 허여근에, 좋으나 굿이나 구별 안 허영 허는 거난.

104011 @ 으.

104011 #1 밧 불리 때 허고 짐 시꺼 올 때만 허는 거난 계난 목장에 올렛당 이 녀크 쓰게 웨민 강 내리와당.

104012 @ 내려당 허는 거. 아까 들 종류에도 아까 쉼 종류처럼 털 색깔에 따라?

104012 #1 백들, 흰 건 백들이엔 허고 우리 하르방넨 백들 하나 질루고. 등떼이 오그라진 것이 서서 저 무신거 모양으로. 옛날 기탄가 무신 거추룩. 경허난 그건 곱새들이렌 허고.

104012 @ 곱새들 예, 예. 등 휘여진 거.

104012 #1 으, 곱새들이엔 허고 경허명 질루난 몰르켜.

104012 @ 백들, 곱새들.

104012 #1 으.

104012 @ 청총마 그런 말 들어봤수과?

104012 #1 그런 말 난 못 들어보고.

104013 @ 못 들어 보고예. 들은 뭐 헐 때 써신고예?

104013 #1 조 허젠 허민 밧 불리젠 허민 몰아오곡게. 겨울, 저 시월 낭 걸름 시끄젠 허민 몰아오고. 경허주. 보리 이제 봄이 보리 비영 보리 시꺼 오젠 헤도 보리 시껏당 홀탕 불리젠 헤도 강 몰아오고.

104013 @ 불릴 때도 들 험니까?

104013 #1 아고 고고리 옛날 도께 테작 버치난 발로 불로와나서 들로.

104013 @ 아.

104013 #1 나도 경헤난 거 알아져. 들똥 쉼똥 싸민 좃으렌 허곡 고고리레 싸민.

104013 @ 아. 계난 홀타난 다음에 불리는 거 보리를. 그때도 몰로 불랏구나.

104013 #1 음. 그 작산 걸 어떻 도께 타작을 허느니.

104013 @ 으, 으.

104013 #1 우리 하르방네 하난산디 경헤라. 경허영 옛날 할망덜은 보리 홀트멍 홀텡 데껴불민 보릿낭에 고고리 싯지 안 허느냐게.

104013 @ 으.

104013 #1 경허민 할망덜은 그거게 놉 하나 빌영 그디 좃읍셴 허민 우리 하르방은 슷못 그거 일당 아니 난다 허명 확 안아 놀더레 들이쳐불고.

104013 @ 아.

104013 #1 경헤난 거 알아진다.

104013 @ 다 안 털어지난 그거 톨는다고.

104013 #1 그거 톨앗자 일콸베끼 아이 나온덴.  
104013 @ 으.  
104013 #1 일콸 허느니 확 제청 데껴볼주.  
104014 @ 하하하. 그럼 말도 나이가 이실 건디.  
104014 #1 말도 나이가 싯젠 허여.  
104014 @ 그럼 그거 불러난 이름 알아지쿠과?  
104014 #1 몰라, 몰라.

### 떡이

104016 @ 몰라예. 기민 쉼 질루고 물 질루젠 허민 떡이를 헤살 거 아니?  
104016 #1 떡인게 나 모녀 안 곶아냐. 새꿀.  
104016 @ 새꿀.  
104016 #1 조찹.  
104016 @ 조찹  
104016 #1 저 감제줄, 산디쩍.  
104016 @ 으.  
104016 #1 그건 주로게 쉼 맥이주게.  
104016 @ 게난 새꿀 여기 새꿀 뒤렌 부릅니까? 출이렌 부를 거 아니?  
104016 #1 새꿀이엔 헨다게.  
104016 @ 여기 그냥 새꿀이렌 헤?  
104016 #1 으.  
104016 @ 출이엔 안 불러?  
104017 #1 출이민 다 출이라비난게. 게민 새꿀 비레 감젠 허고. 이때 웨민 새꿀  
덜 다 비느네.  
104017 @ 아, 이제 새꿀 빌 때예.  
104017 #1 성허게덜 들류왕 스뭇 제기 비영 마 아이 친 때 허젠.  
104017 @ 예. 장만허는 거 곶아줍서 새꿀. 지금 비어가지고?  
104017 #1 지금 비영 메칠만 허민 다 묶어당 놀주기게.  
104017 @ 밧디 놀어?  
104017 #1 집이 허여당게. 쉼 질루젠 허민 매 시간에 흐루에 멧 번 빠당 줘살  
거 아니가?  
104017 @ 음.  
104016 #1 어내명. 새꿀 줘나민 조칩 주고 조칩 줘나민.  
104016 @ 막 번갈아 가명 주는구나.  
104016 #1 으.  
104016 @ 조칩 줘나민 콩찹 주고?  
104016 #1 어. 경헌디 우리 말제엔 따시 그 통, 쉼 슬지왕 슬통으로 풀젠은 허

민 그 다 작두로 출 썰어, 보리 곶이나 등개 ㄹ루 허끄멍 경혜영 맥이고 경허여낫 주.

104018 @ 출 비젠 허민 어떻 놉을 빌영 갈 것과, 집이 사름덜만 헐 것과?

104018 #1 놉도 빌영 가는 사름 잇고 집잇 사름만도.

104018 @ 게민 출은 뒤로 비여?

104018 #1 호미게.

104018 @ 다 일일이 영 손으로 잡앙?

104018 #1 으, 손 잡앙 이걸, 새꿀은 영도 아니 잡앙 이걸 땅 부침 가끄젠 허민 잘 익숙지 않은 사름은 못 허여.

104018 @ 음.

104018 #1 이 헤밀헤밀 헛 것사 얼마나 허느니. 게난 낫 허영 땅 부치멍 비영.

104018 @ 굽어내듯이.

104018 #1 물류와.

104018 @ 물류와. 게민 영 손으로 비영 뒤에 츠츠츠츠 놓민 뒸는 거라?

104018 #1 으. 크짱허게.

104018 @ 게민 묶어야 뉼 거잖아예?

104018 #1 으, 묶으주게.

104018 @ 메칠이나 영 물렛당 묶읍니까?

104018 #1 헛 사나나홀게. 사나나홀이민 이때에 막 몰르주게.

104018 @ 아. 게민 묶으젠 허민 께를 미리 준비합니까?

104018 #1 어게. 미룻 다 준비허여.

104018 @ 뒤로?

104018 #1 그 연헌 새도 비여당 허고 이제 저 짝도 허여당 허여.

104018 @ 짝도 비여당.

104018 #1 경헌디 새, 새꿀은 새 연헌 거 비여당.

104018 @ 미룻, 미룻.

104018 #1 미룻 다 영 허여근에.

104018 @ 놘 두는구나.

104018 #1 놘 두진 안 험도 그때 그때게. 즈물앙 강 낫 후제 무끄젠 허민 낫 전 만 데와도게 하영 데우주게.

104018 @ 그럼 여기서는 출 영 헛 건 지계로는 안 무릅니까? 그 출 가정 영영 영영 만들영?

104018 #1 출이 경 질어게 새꿀은. 다글다글 허주게.

104018 @ 아. 출 쫘아부난 게난 새 비여당.

104018 #1 으, 연헌 새.

104018 @ 미룻 만들영예.

104018 #1 으.

104018 @ 출 혼 단이, 혼 묶음이 어느 정도 험니까?  
104018 #1 요만이.  
104018 @ 그럼 혼 바리민 출은 몇 묶음 정도 험니까?  
104018 #1 시끄젠 허민 하영 시끄질 못 허여. 몽탕몽탕 허연.  
104018 @ 몇 못이나 시꺼점신고?  
104018 #1 혼 설남은 못 시꺼점신가.  
104018 @ 설남은 못?  
104018 #1 혼짝에 혼 열댓 개씩.  
104018 @ 열댓 개씩 양펜이?  
104018 #1 으.  
104018 @ 거기서 비영 묶영 영 모다 낫당.  
104018 #1 으, 다 혼 바리, 혼 바리 다 안아 놓느네.  
104018 @ 아, 혼 바리씩.  
104018 #1 이쪽 시끌 걸 이쪽더래 저쪽 시끌 건 저쪽더래 허영 이 가운데래 쉼  
나 몰이나 낱 이젠 이디서 쉼 심으렌 험 이디서 둘이 시주기게.  
104018 @ 아, 가운데 낱?  
104018 #1 어, 이디 사름은 이디 거 시끄고 그디 사름은 그디 거 허고 경허주.  
104018 @ 아. 시끌만씩 딱 딱 모드락 모드락 행 놔 뒷당.  
104018 #1 으, 다 바리 벌이느네.  
104018 @ 바리 벌령예.  
104018 #1 으.  
104018 @ 아 그걸 바리 벌인덴 험니까?  
104018 #1 으, 바리 벌이라 한다.  
104018 @ 어쨌든 이 쪽에 열다섯 못 정도 허큰게.  
104018 #1 계난 양쪽을 골짜사 짐도 시끄민 트라지지 안 허난 딱 혼쪽에 멧못  
허영 딱 바리 벌영.  
104019 @ 계민 이젠 영 쉼 행 집이 시꺼왔수다. 집이 시꺼 왕 어뎡 험 거?  
104019 #1 그거 풀영 이젠 놔 낱 거 다 시꺼오민 놀 놀주기게.  
104019 @ 음.  
104019 #1 뻥허게 조근조근 가운데레도 노명게 땀싸지지 안 허게 헤영 느람쥐  
더깁 주쟁이 썩왕.  
104019 @ 계민 느람쥐도 미리 다 만들양 놔 두는 거?  
104019 #1 계게. 줄 다 영 허영 지들르는 줄 허여 낱 그 줄 허영 출러레 낱끼기  
영 허영 줄.  
104019 @ 그럼 이디는 출놀을 동글랑 허게 만듭니까?  
104019 #1 으, 동글랑 허게덜 멘들아. 곱게덜 한다.  
104019 @ 아. 경험 쪽 느람쥐 허는 거라?

104019 #1 으, 경헨 주쟁이 더평 이젠, 거 집도 일지 안 허느냐?  
 104019 @ 예.  
 104019 #1 그 줄로 혼 으섯 밧디민 으섯 밧디 그걸로 벌경 그 영 동글락 현디  
 영 오민 그레 낭까길 노난 뒤 지들라사주게. 돌맹이 털어지고.  
 104019 @ 경헨 놔 두는 거. 경헨 놀 놀영 놔두고 새꼴을.  
 104019 #1 새꼴이고 조척이고 다 경헨다.  
 104019 @ 다 동글랑 허게.  
 104019 #1 어, 서경 놓는 사름 싯고 이제 질로지씩 놓는 사름 싯고.  
 104019 @ 아, 그것도 서경 누는 사름이 잇어?  
 104019 #1 서경 눈다게.  
 104018 @ 게민 꼴 베젠 허민 으라날 밧니까?  
 104018 #1 출 한 사름은 으라날 비고게, 게 밧 조그마한 사름은 이녁 것만씩 비  
 민 얼마 안 허고.  
 104018 @ 삼춘네는 쉼을 혼 마리 길른 거잖아예?  
 104018 #1 으, 우린 딱 혼 마리 질루고 우리 아버지넨 들 질황 우터레 올려. 올  
 려 불민.  
 104018 @ 예, 그 쉼 혼 마리 질룰 때 그 출은 한 몇 바리 정도 맥여집테가. 그  
 겨울 나젠 허민.  
 104018 #1 겨울 나젠 허민 우리 아버지넨 막 출을 하영 헤단 놓주게. 멧 바리가  
 아니고.  
 104018 @ 삼춘네는, 혼 마리 질룰 때는?  
 104018 #1 혼 마리 질룰 때라도 출은 넉넉히 하영 허여. 마꺼지 먹여 이 새꼴  
 나도록.  
 104018 @ 아, 겨울에 맥일 것만 허는 게 아니고 봄에도?  
 104018 #1 어게 봄 나도록게 맥여사주게. 아무 거라도.

### 멜감

104022 @ 정확히 멧 바리 돼는 지는 잘 모르고. 이제는, 이제는 지들커 허는 거  
 물어보쿠다. 지들커 허는 거.  
 104022 #1 어, 지들커.  
 104022 @ 지들커 헤난 거 종류 뭐 뭐 잇수과?  
 104022 #1 지들커 헤난 건 ㄱ실 기자 하늬브름만 탁 털어정 허민 솔썸 그느레.  
 절맹이 들고 노 들렁 강 굽영 막 멧 밧디 거 스몫 매우멍 행 묶어. 묶어근에 정 시  
 꺼오고.  
 104022 @ 으.  
 104022 #1 이제 이녁 소낭밧 신 사름은 알 거시려. 이 퍼렁헌 소낭 밑으로.  
 104022 @ 아, 소낭 가지를 영 자르는구나.

104022 #1 으, 경허영 시꺼다근에 데며 뒷당 불 습고.  
104022 @ 아.  
104022 #1 거 옛날이사 이처록 쓰레토 무시거 헤사게. 다 초가집이엿주. 경허민 그 집 일어낭 줄께, 줄께도 불 습고 또 새가 너미 하영, 으라 해 헤영 집이 오래, 집은 이만이 지붕이 그신새가 두껍주기게. 경허민 그거 더러 걷어.  
104022 @ 아랫거를?  
104022 #1 아니 우이, 베꼈디로 조근조근. 경헨 골로와근에 새로 일어 경허영 그런 것도 지들케 허고.  
104022 @ 지들케 허고.  
104022 #1 집 뜯어 부는 디 강 기신 새 강 도왕 묶어 오고. 경허난 집 뜯을 땀 이녁만씩 강 묶어오주게. 이녁 헐 거 이녁만씩.  
104022 @ 계난 집 뜯는 디 강 도와 주멍 그걸 얻어 오는 거구나.  
104022 #1 얻어 오는 거주.  
104023 @ 기민 그거 말고, 기신새 말고, 솔입 말고 쉼똥 똥똥도?  
104023 #1 쉼똥도 좇어당게 굴목도 진고 불도 습고 헛주기게.  
104023 @ 이 동네에서는 쉼똥 좇으레 어디 가낫수과?  
104023 #1 요 저 거세기 마트 싯주게 농협마트.  
104023 @ 예.  
104023 #1 그 우터레. 이제 저 솔러레게. 쉼 잘 땡기는더레. 그런 디 가근에 물 른 걸로 허고 젖은 건 골갱이로 툽툽 데쌍 놔뒀다근에 좇어오고.  
104023 @ 거기 똥쌍 놔 뒀당?  
104023 #1 어.  
104023 @ 누게 좇어 가불지 안 험니까?  
104023 #1 아니, 젖은 때는 누게 가져 가지 안 허주게. 물들만 헤가민 확 제기 강 허영.  
104023 @ 쉼똥 똥똥 좇은 거는 거의 굴목 진을 때 쓰는 거?  
104023 #1 저 낭불에 서경 불로도 허고, 저 우린 똥 좇으렌 아이 땡겨 받. 견디 저 우린 ㄴ시락 담아 놔뒀당게. 보리 허여난 ㄴ시락 담양 놔 뒀당 그 ㄴ시락으로 굴목 진엿주게.  
104023 @ 아, ㄴ시락으로. 겨난 쉼똥 말똥 좇으렌 많이 안 다녀낫구나.  
104023 #1 으.  
104023 @ 그 걸름허젠도 쉼똥 좇으레 간덴 험디다만은?  
104023 #1 우린 쉼 질루고 허난.  
104023 @ 그런 건 안 허고.  
104023 #1 쉼 질루민게 그 쉼 걸름도게 슷. 통시레 담아 낱도 허느네 걸름을.  
104023 @ 음.  
104023 #1 쉼 걸름 내영 데명 놔 뒀당 밧디도 시경 가고.

104024 @ 아까 술입 걷으레 가낫텐 헛잖아예?  
104024 #1 으.  
104024 @ 술입 걷으레 갈 때 뭐 가정 가낫수과?  
104024 #1 거 망아리, 짝으로 얹어진 큰 망아리에 노덜 가정 강, 글캥이 큰고  
경혜영 강 굽영 노로 묶영 시꺼왔주게.  
104024 @ 음, 망아리 대 가지고 그 위이?  
104024 #1 아니, 망아린 강 언주아당 혼 밧더레 메웁는 거고.  
104024 @ 예.  
104024 #1 집이 시꺼오는 거는 노 영 석줄 영 영 석줄 놓주게.  
104024 @ 노?  
104024 #1 으.  
104024 @ 노는 영 줄 꼬은 거 말허는 거?  
104024 #1 어. 경허영 이 술썸을 크짱허게 영 질게 놔. 경허영 가운디 것부떠  
묶으멍 양 바우 거 묶으멍 허영 글캥이로 막 잘 치멍 딱 허영 그걸 못으로 묶어오  
주게. 혼 짐 헐 내기.  
104024 @ 그럼 그렇게 묶은 거 여러 개 행 혼 짐을 만드는 거라?  
104024 #1 아니 아니. 혼 짐 하나 허게 묶어.  
104024 @ 그럼 크게.  
104024 #1 크게.  
104024 @ 예, 예. 그거 베로 정 읍니까?  
104024 #1 베로게.  
104024 @ 지겐 안 헤 보고?  
104024 #1 우린 이디 서촌은 지게 안 현다.  
104024 @ 지게 안 허영 베로 정 오는 거. 그 술입은 걷으레 가나신디 낭, 낭?  
104025 #1 고름낭도 해당 슴고 가시낭 거튼 거 비여. 호미, 나테로 다 후려 그  
런 거 허영 크게 두 못씩도 행 저 와.  
104025 @ 음. 고름낭이렌 헛수과?  
104025 #1 ㄹ립낭.  
104025 @ 그게 뭐과?  
104025 #1 그게 가시낭 거튼 거 현 것ㄹ라 ㄹ립낭이엔. ㄹ리어근에 허여오난 ㄹ  
립낭이렌 헤라 그때.  
104025 @ ㄹ리어 가지고 헤 오난.  
104025 # 1으, 가시낭덜.  
104025 @ 죽은 거 헤 온다는 말?  
104025 #1 아니 아니 산 거라도 끈어 가시 헤영 크짱크짱 것도 재영.  
104025 @ 으.  
104025 #1 경허영 두어못 헤영 저 오는 것ㄹ라 ㄹ립낭이렌 헤라 그때.

104025 @ ㄴ립냥. 아, 그런 걸 경 불러놔수과?

104025 #1 으.

104025 @ 겨난 가장 많이 헛엇던 거 솔입 걷어와난 거우다. 그거랑 ㄴ시락이랑 굴묵.

104025 #1 굴묵 진고.

104025 @ 불 숨고 헛던 거.

104025 #1 으.

104026 @ 혹시 집이서 솟도 구워 나고 해신가?

104026 #1 아이고 우린 솟 안 구워.

104026 @ 솟 안 구워 받?

104026 #1 솟 사당 때긴 해난.

104026 @ 솟 굽는 거 보긴 해놔수과?

104026 #1 안 봐 받.

104026 @ 화로 불 피울 때는 사단 썬난 거구나.

104026 #1 어.

### 사냥

104028 @ 예, 예. 이 동네 사냥 다니는 사람도 잇서나신가?

104028 #1 어?

104029 @ 사냥, 사냥. 사냥. 꿩 잡으레.

104029 #1 꿩 잡으레 옛날이사게 무신 꿩 잡으레 텅기느니?

104029 @ 먹을 거.

104029 #1 꿩 잡으레사게 중간에덜사 이제사게 허가 말앙덜게 사냥 텅기는 건 봤주게.

104029 @ 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었언?

104029 #1 옛날에 그런 총 어뎡 시니?

104029 @ 아니, 총말고 꿩코 낱 허고게.

104020 #1 꿩코 낱, 꿩코 낱 허는 것도 난 못 보고. 우리 출 그 옥레기 갈앙 쉼 맥이젠 옥레기 갈민 꿩독새기 나고 허민 그 독새기 아까원에 심어난 건 알아져.

104020 @ 하하하. 심어난 거. 근데 옥레기가 뭐과?

104020 #1 어?

104020 @ 옥레기?

104020 #1 옥레기.

104020 @ 으, 아까 옥레기 갈아놔던 허명.

104020 #1 옥레기렌 현 풀이 싯주게.

104020 @ 아, 풀?

104020 #1 으, 갈아 건 가는 거.

104020 @ 가는 거, 쉼 먹이젠?

104020 #1 쉼 맥이젠.

104020 @ 아, 쉼 맥이젠 풀 가는 거? 옥가귀?

104020 #1 옥가귀. 으름은 똑 콩 모양으로 생기고 출 막 번으멍.

104020 @ 아, 께처럼 길게 자라는 거?

104020 #1 아니, 영 줄 번어.

104020 @ 줄 번영.

104020 #1 이쁘게 저 보라색 꽃도 피고.

104020 @ 음.

104020 #1 경허민 그 옥괘기 갈앗당 어디 출 허레 못 가민 우리 아버지넨 그 옥가기 갈앗단 그것 강 비어 오라 행 쉼 맥이고.

104020 @ 쉼 맥영 키웠던 거구나. 그럼 칙처럼 번아 나가는 거?

104020 #1 으. 칙은 철록은 경 번지 안 해도 이디가 이썩은 번어.

104020 @ 아. 예, 예.

## 5. 바닷일

105001 @ 물질헤났지예?

105001 #1 으.

105001 @ 물질 막 하영 헤났수과?

105001 #1 무신게 혼 열 멧 설에부떠 배왓주게. 난 막 어린 때도 몸이 약허난 난 어머니랑 난 물 실려우난. 그뻘 고무옷도 엇인 때고게.

105001 105001 @ 엇인 때고.

105001 #1 경허난 힘 배우라 행 가민 속곳 입곡 얼영 영영 영영 테왁 들렁 사민 우리 어무니 물러레 자락허게 밀어비연.

105001 @ 아, 하하. 밀어불연.

105001 #1 거허연 물질허영 허민 얼연 난 숨도 안 들고 휘민 누게 혼 숨 해주민 나꼭 헤여난디.

105001 @ 계난 어무니가 물질 갈 때 ㄴ치 데령 간 거구나?

105001 #1 아니야니. 가명 가명 들양 가민 출령 빠져가민 우리 ㄴ이 상 아이 빠지젠 헤가민게 임제도 빠지명 자락 힘 배우렌 헤여났주گی게. 우리 어무닌 막 잘 행 앞마당 물질 헤 낫주گی게.

105001 @ 아. 상군이러신게.

105001 #1 경헤난디 임제만이 물질헐 딸 하나토 웃덴 허주게. 경헌디 저 거세기 물질을 허젠 허민 우리 어머니네 배 타, 배 탕 앞바당에 가근에 메역 조물양 오고 지픈 디 강.

105001 @ 아.

105001 #1 견디 우린 ㄱ이서만 헌 디 난 막 어난 우이, 옷빳디서 질 못전딘 일 이라도 웬 일이라도 옷빳디서 일허주 난 물에 강 물질 안 허켄 해낫주기에. 경허난 디 다 이딘 이젠 혼 열으답 설만 나가민 다 육지덜 가는 거라.

105001 @ 으.

105001 #1 겨난 이젠 우리 어머니네도 족은 어머니네 물질 가가난 보내여라게. 경허난 나 첫 해에 저 구녕포여 황개여 간디 오고팡 드러 울엇주게. 나 울멍.

105001 @ 집이 오고팡? 아니 한 번 물질 가민 거기 강 며칠이나 살아낫수과?

105001 #1 메칠이 아니라 멧 덜 살 거주게.

105001 @ 멧 덜 살 거?

105001 #1 이월덜에 가민게 혼 구월러레 음력 구월러레 팔월러레 돼도록 해 왓 주게.

105001 @ 계난 음력 이월에 강 음력 구월까지 거기서 살멍 물질을 헛던 거마 씨?

105001 #1 제기 오는 사름은 팔월 멧질 ㄱ리에 오고.

105001 @ 예, 예.

105001 #1 경허영 물질 허연 나 혼 삼년 가왓주게.

105001 @ 아, 기구나. 그민 그때 ㄱ치 갈 때.

105001 #1 바닷배로 가. 이디 앞바당에 저 배 허영 그것에 쓸 시꺼 주난 그 쓸 같고 행 가낫주게.

105001 @ 그럼 물질갈 때에 영 모집허는 사름이 있잖아예?

105001 #1 어, 잇어.

105001 @ 배 주인이 모집허과, 누게가 모집허는 것과?

105001 #1 아니 배 주인은 배를 빌어오고 이제 그 거세기 인술자가 잇주게. 인 술자가 다 모집허영 그 사름이 배 빌고 허영 우리 시꺼가주게.

105001 @ 몇 사름이나 ㄱ치 가낫수과, 거기 가게 돼민?

105001 #1 가게 돼민 인술잔 하영 허민 더 거 구전 먹고 더 좋주게.

105001 @ 으.

105001 #1 경허여도 혼 십 멧 명씩덜게.

105001 @ 십 멧 명씩?

105001 #1 어.

105001 @ ㄱ치 강 쓸덜 다 정 가시큰게.

105001 #1 다. 다 혼포대씩 먹을 것덜.

105001 @ 먹을 것덜예. 그디 강 ㄱ치.

105001 #1 그디 강 ㄱ치 다 쓸 돼영 내영 놔. 경 먹어 똥.

105001 @ 돼영 똑같이 내는 거?

105001 #1 어. 똑ㄱ치 내 놔사주.

105001 @ 겐 뭐 뭐 잡아놨수과?  
105001 #1 도박 같은 거.  
105001 @ 도박이 뭐라.  
105001 #1 도박계 우밧가사리 보단 휘썰 녀직녀직허영. 그 도박에 우밧가사리  
허고 전복 허고 미역 허고 경헛주게.  
105001 @ 거기 강 살 때 튼내 보민, 아침인 몇 시쯤에 일어낭?  
105001 #1 아침이 이디서철록 일어낭 물질어 오는 사름 조반허는 사름 허영.  
105001 @ 당번 정헛 헛구나.  
105001 #1 아이 젊은 사름덜 대개 해주기게.  
105001 @ 예.  
105001 #1 나이 든 사름 경 헤지느냐. 경헛 먹어정 물에질 가는 거주.  
105001 @ 물질 몇 시부터 가는 거라 게민.  
105001 #1 물질은 저 싸곡 들곡 일정 혼엇이 안 허난 안 허난게 경 인척도 안  
허고게. 바다가 우린 업 삼양 가는 거난 경헛 출렁 가근에.  
105001 @ 경헛 하루에 몇 시간 일허고 헛난 거는 알아지쿠과?  
105001 #1 그때는 고무웃 안 입어비난 두어 시간베끼 못 살아.  
105001 @ 으.  
105001 #1 이제는 네 시간씩 살아도 옛날은 두어 시간.  
105001 @ 여기서는 물질 가젠 허밀 출구덕에 불 슴을 것도 가정 가고.  
105001 #1 어게, 지들케 가정 거주게.  
105001 @ 지들케 가정 가고 헛낫잖아예. 그디서도 마찬가지로?  
105001 #1 그디서도게, 그디 낭 거튼 거 베에서도 불 츱고. 베에서도 불 츱아.  
105001 @ 베에서도?  
105001 #1 어.  
105001 @ 그디서도 지들커 가정 가신게예?  
105001 #1 육지사 슴 지들커 거주게.  
105001 @ 아, 기과? 게민 강 봉가지는 거 봉강 허고?  
105001 #1 으. ㄴ에 내령도게 불 츱고 메역 허민 퍼딩 ㄴ에 왕 허고.  
105001 @ 메역을 영 헛 왓잖아예. 게민 그길 거기서 물립니까?  
105001 #1 다 물리주기게. 오리 짓영 질게.  
105001 @ 오리 짓영 질게.  
105001 #1 으, 으. 이딘 웨낭썸 헛도 그딘 이 이 책 너베기만썸 두쩍게 그레 부  
쩍 부쩍 허멍.  
105001 @ 아, 그거 물류왕, 그거 풀젠 허민?  
105001 #1 풀젠 허민 멧 도레기에 혼 단. 열 도레기민 혼 단. 혼 단에 열메 헛  
영 다 사 거주게.  
105001 @ 그럼 혼 열 사람이 ㄴ치 갖잖아예.

105001 #1 ㄹ치 가민 어울영 허는 사름 싣고 질로지씩 허는 사름 싣고.  
105001 @ 질로지씩 허는 건, 자기만씩?  
105001 #1 어.  
105001 @ 아, 자기만 허는 디도 있고 ㄹ치 어울어정 허는 디도 있고.  
105001 #1 으.  
105001 @ 삼춘은 어떻 헤낫수과?  
105001 #1 난 우리 언니영 혼디 어울영 헛주.  
105001 @ 언니랑 혼디 가난?  
105001 #1 으.  
105001 @ 그럼 둘이 어울령 현 거?  
105001 #1 어. 또시 저 곤포 가는 해엔 혼디 간 사름덜 멧이 허고.  
105001 @ 쟈 어디 어디 가낫수과? 아까 구녕포 가나고?  
105001 #1 구녕폰 이모 사난에 구녕포도 간 저 대나리엔 현 디엔 현 디 강 메 역허고.  
105001 @ 예.  
105001 #1 우리 족은 어무니영 갈 때 저 황개.  
105001 @ 황개?  
105001 #1 어.  
105001 @ 황개가 어디 신고?  
105001 #1 양포 엠에.  
105001 @ 양포 엠에 황개.  
105001 #1 그디도 가 오고 저 거세기 고포도 가오고. 강원도 고포엔 현 디.  
105001 @ 아, 강원도에.  
105001 #1 으, 경헨 혼 삼년 얼럿주기게.  
105001 @ 계민 여기 강 혼 해, 여기 강 혼 해 경 갓엇던 거라?  
105001 #1 으.  
105001 @ 계민 메역을 행 물리면 이거 내가 품니까 아니면 사람 모아준 그 사 람 뭐엔 헐 거?  
105001 #1 인술자.  
105001 @ 으.  
105001 #1 아니 우리대로 풀아.  
105001 @ 제주도 돌아 왕 끷는 거?  
105001 #1 아니 그디서.  
105001 @ 그디서 끷는 거.  
105001 #1 경헨디 그 메역에 구전은 안 먹어.  
105001 @ 그럼 뭐에 구전을 먹어?  
105001 #1 생복허고 천초 도박.

105001 @ 천초, 도박. 천초가 우미 아니예?  
105001 #1 으.  
105001 @ 우미에 도박에.  
105001 #1 도박은 그 문드렁하고 넙질넙질 현 거.  
105001 @ 그것도 먹는 것과?  
105001 #1 건 우뭇가사리처럼 풀에 들어가는 거라.  
105001 @ 기지에. 전복, 우미, 도박 그건 구전 먹는 거. 그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건게 구전 먹젠 허민?  
105001 #1 건 딱 어협에서 받으민 딱 문서대로 행 구전 먹는 거주게. 풀지 안 허영.  
105001 @ 메역은 다 개인이 풀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금 같으면 수협 같은 데, 어협에서가 사들이는 거구나?  
105001 #1 으.  
105001 @ 경허명 구전을 먹었던 거구나예.  
105001 #1 으.  
105001 @ 생복이랑 천초랑 아까 도박?  
105001 #1 이제도 이디도 경허여.  
105001 @ 아.  
105001 #1 수협에서 우리 천초허민 멧 구부리 딱 허민 그것에서 수수료 다 내주게. 수협더래.  
105001 @ 수협더래 내는 거라? 계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메역허고 메역허고 또 뭐 잇수과?  
105001 #1 메역이나베끼 더 셔게.  
105001 @ 그것만?  
105001 #1 생복 거튼 것도 딱 텅 풀민 약간 약간 현 거 개인으로 영 뎡기명 인술자 아이 간 때는 허여도 인술자 이실 때는 못 허주게.  
105001 @ 계민 배삐 내는 거는 인술자가 다 알양 내는 거라?  
105001 #1 어게.  
105001 @ 경 한 번 가민 돈 벌이가 똬수과?  
105001 #1 아이고 난 초행 간에 흐뎡만 벌영 왓저게. 물질도 안 허고 드러 올멍게 스뭇 나 제주 드러다 줍서 허멍 드러 허여노난게.  
105001 @ 하하하.  
105001 #1 계난 그때 나 돈 흐뎡 허고 그뎡 시집가젠 허민 지쳇광목, 광목 혼통 상 와져실 거라.  
105001 @ 거난 물질간 건 시집가기 전인 거라?  
105001 #1 시집 간 후제 혼 번 가오고. 시집도 가던 해에 아기 안 뱃저 헨 가단 보난 그 배로 가멍 막 토허멍 나가 막 허난 수질헝시카부덴 나가 허단 보난 아기

선계.

105001 @ 아이고.

105001 #1 경허연 막 토허멍 허연 노난 그디 강 헤도 늙은 물질헤도 난 물질 메칠 못 허연게.

105001 @ 으.

105001 #1 막 휘 거튼 것만 기럽고이. 국도 안 허민 밥도 못 느려완게. 게난 웬 장 엇어 노난 우리 조께, 육촌 오라방 딸은 웬장 강 뉘 반찬 그슴에 강 바짜오민 삼춘 국 먹지 말아 나 따시 웬장 아이 강 바짜 오크라.

105001 @ 하하하.

105001 #1 허여난 거 이제 잊어불지 안 현다게.

105001 @ 경 애 가져신디 마청 왓수과?

105001 #1 경허영 멍질 그로에 왕게.

105001 @ 아고게. 그때도 돈은 좀 버슬어지고?

105001 #1 그때도 좀게. 이디서 나 아기 설엄젠 허난 이디서 우리집이 아방 돈 보내언.

105001 @ 아.

105001 #1 저 용돈 써연 들어오랜 경헤도 나가 아이 들어왔주게. 아이 들어오난 그 돈들 다 갈랑 용돈 써서 뉘 풀양 수입 엇인 때난 경허연에 씨엿단덜 다 날 주멍 했주.

105001 @ 음, 맞아. 돈 안 가정 가고 풀기 전이난

105001 #1 풀기 전이난게 난 가명싸라 아기 설어불고. 경허민 주인 할망은 늘메 역 썩 쉼앙 것에 무쳐근에 아이야 이거 먹어라 아이야 이거 먹어야 물질헌다 허 멩 쥘 먹어난 거 잊어불지 안 헤져.

105001 @ 아. 기가 뭐과?

105001 #1 기, 기. 쟁이 쟁이.

105001 @ 아, 쟁이.

105001 #1 으. 경헤난 거 이제 잊어불지 안 허여.

105001 @ 경행 그 애기 건강허게 낳수과?

105001 #1 건강허게 난 막 잘 크단에 돌 뉘난 오폭 가벤게.

105001 @ 아고.

105001 #1 저 김녕 우리집이 아방이 요 용수 학교 다니단 그 용수 학교 숙직날 라디오 잃어 먹어서. 그 옛날은 라디올 누게 들러가벤게.

105001 @ 음.

105001 #1 경허난 오폭 좌천 당허연 저 김녕을 보내베서게. 겨난게 김녕 가난 아방 간덴 아기 들양 가난이 그뎐 애월 우체국장도 그디 간 아덜 하나 잃엇고렌 경 허난 우리 가시난 서촌에서 가시난 아이고 이딘 도새기 잡앙, 돛 잡앙 온채 올령 제를 지내사 허는디 저 아기 못 질분덴 허연에 우리 도새기 허연에 경 제 지내영

아기 나명 킷젠 경허명 우리고라 경허렌 허난 나 아니 헤 본 거 경 헤지느냐게. 경 허영 그때 애가 막 곱닥허게 난 눈이영 쌍꺼플 허고 침 차에 들앙가가민 어느 사람 아이 안아 보는 사름 엇어라게. 경허연게 가변게. 이 뇌막염더레 돌앙.

105001 @ 아이고.

105001 #1 아이고 나 그 생각허민.

105001 @ 예, 예. 그 바닷일 바당에 간 허는 일들은, 아까 곱앗주만은 다시 혼 번 곱아줍서. 강 물질헤가지고 잡는 거? 물질헤영 잡는 거 메역도 잡고.

105001 #1 어게.

105001 @ 메역도 건져오고.

105001 #1 어디? 이제?

105001 @ 이제.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헐 때.

105001 #1 메역, 소라.

105001 @ 소라.

105001 #1 전복.

105001 @ 전복. 전복이렌 헛수과, 생복이렌 헛수과?

105001 #1 전복이엔 허주게.

105001 @ 전복이렌 허연. 으, 전복 잡고.

105001 #1 그거주게.

105001 @ 여기서 뭐 남저 어른.

105001 #1 성기.

105001 @ 성기도 허고예. 남자 어른들 강 바닷퀘기 안 나까 읍니까?

105001 #1 나까오주게.

105001 @ 어떤 것덜 나까와나신고?

105001 #1 생성도 나까오고 우력도 나끄고 이제 거 감은돔 그런 거.

105001 @ 그런 것도 나까오고예. 또 강 보말도 잡앙 올 거 아니?

105001 #1 보말도 잡주게.

105001 @ 보말도 잡고.

105001 #1 보말은 해녀덜 아이 잡나게.

105001 @ 누게가 잡아와?

105001 #1 그냥 강 잡는디 우리도 저 보말 어떻허당 흐루쫘 강 즈문다게.

105001 @ 계난 보말 잡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예. 다른 거 잡젠 허난?

105001 #1 계난 막 웨방 사름덜 우리 양식허는 디 왕 막 허민 우리 바당 지켜 염세계.

105001 @ 지킴서.

105001 #1 소라 거튼 거 막 헤여가곡게 양식장에 성기 즈물아 낱 막 허여가곡 헤라게. 계난 올리부턴 성기도 아이 즈물아 남저. 막 도둑맞안게.

105001 @ 아이고, 아이고.

105001 #1 나도 질로지만씩 해당 놓는디 올린 간 허젠 행 보난 문짝 해 가변.  
105001 @ 계난 아직도 바닷일을 험수과?  
105001 #1 나 바다일 험주게.  
105001 @ 물질도 허고?  
105001 #1 게, 물질 험주게.  
105001 @ 아이고.  
105001 #1 몰란? 나 천초 올리도 열 구부리 너미 헛저.  
105001 @ 열 구부리?  
105001 #1 으.  
105001 @ 열 구부리가 몇 키로나 되는 것과?  
105001 #1 저 삼십 키로짜리 열 개.  
105001 @ 아이고.  
105001 #1 열 개 허고 십팔 키로.  
105001 @ 물린 거.  
105001 #1 나도 젊은 사름보단 잘 해서.  
105001 @ 계난 계난 어린 때는 바닷일 못 헛던 허는 디 완전 상군인게.  
105001 #1 거는 고무옷 엇인 때난 얼인 못 헛주게. 고무옷 엇인 때 속곳바람이 난. 옷독지 오그라져 물에 들고장 안헤라게.  
105001 @ 추워가지고.  
105001 #1 고무옷 난 후제 후제사 이디션 허연게.  
105001 @ 아, 계민 그때 어릴 때 그.  
105001 #1 물질 안 허단에 아방 튜직 허여 갈 때사 나 물질허연.  
105001 @ 나중에사.  
105001 #1 으.  
105001 @ 그때 헤가지고는 막 상군 웬 거?  
105001 #1 아니 상군은, 이제도 상군은 아니주만은 우미 허는 딴 떨어지지 안 허영 중간 가주게. 이제도. 경헌디 이 구쟁기 거튼 거 소라 거튼 거 난 야픈 디만 허난 잘 못헌다게.  
105001 @ 음.  
105001 #1 경허고 돈 벌 땀 안 헤전게. 막 그때덜은 돈 벌어나서라.  
105001 @ 돈 벌엇지예.  
105001 #1 막 스몫 구쟁이덜토 하고 전복헛 땀 우리 안 헛주기게.  
105001 @ 음.  
105001 #1 아기 키우멍 농사도 짓고게. 아방 뒷바라지 허고 경헤지느냐.  
105001 @ 음.  
105001 #1 경 안 허단 아방 튜직허여 가사 험 시작허연.  
105001 @ 음, 경헛 이제 우미를 막 험구나 지금도.

105001 #1 올리 해엿주게.

105002 @ 예전에 듬북이나 감태 걸름허젠 막 해낫잖아예?

105002 #1 옛날 경헛주.

105002 @ 옛날에예.

105002 #1 우리도 감태 해단 나도 혼 밧너머 거 더꺼낫저.

105002 @ 무슨 밧디.

105002 #1 보리밧디.

105002 @ 계난 듬북이나 감태 작업을 헐 때 개인으로 헵니까 공동으로 헵니까?

105002 #1 개인이.

105002 @ 여기 개인이 헵니까?

105002 #1 으. 질로지만씩 부지런 헐 사름은 허곡 경 안 헐 사름은 안 허곡.

105002 @ 아.

105002 #1 막 박허게 악허게 허는 사름덜은 물에 들엉 몸 고주기덜 비영 다 통지에 시꺼다 놓고. 걸름허젠.

105002 @ 그거를 통쇄에 담아 놔?

105002 #1 으, 담아 낱 걸름도 허고.

105002 @ 걸름 허고.

105002 #1 경허여 낫주. 칠월덜 나민. 음력 칠월덜 나민 고주기 즈물아당 통지에 막 놓고 허여 낫주.

105002 @ 고주기는 뭐라?

105002 #1 몸이 고주기엔 헐 몸이 셔 낫주.

105002 @ 아, 몸 종류 중에?

105002 #1 으.

105002 @ 건 먹지는 못허고 그냥?

105002 #1 건 먹진 못허고 걸름으론 최고 고주기.

105002 @ 고주기. 삼춘도 그거 고주기도 해나고 감태도 해나고.

105002 #1 난 그런 건 안헛게.

105002 @ 뭐만 해난서 감태만?

105002 #1 감태 올른 거 좇영 밧디 놔 낫주게.

105002 @ 물에 들영은 안 허고?

105002 #1 안 허고게 우이 올른 것만. 바당 쉼나민 강 좇영 올령 해낫주.

105002 @ 계난 걸름 헐 것도 다 지만씩 지만씩.

105002 #1 어게. 부지런 헐 사름은 강 허고 실픈 사름은 안 허고.

105002 @ 삼춘은 헐 때 누게 남자 어른이랑 ㄴ치 갓수과?

105002 #1 아이고 난 나만 허주기게 누게?

105002 @ 아, 혼자만. 거 시꺼오젠 허민 다 정 온 거라?

105002 #1 아니. 다 그레 우터레 올령 들류왓당 그레 데멧당 흐루 구루마로라도

시꺼 가.

105002 @ 음. 계남 바닷가 그 근처에서 다 몰렸구나.

105002 #1 으.

105003 @ 물렁 시경 간 거예. 보말은 보말 잡을 때 어떻 잡아놔수과? 지금도 보말 먹을 거 흐끔씩 잡지예? 보말 잡젠 허민 어떻 잡읍니까?

105003 #1 어떻 잡아게. 물에 들엉 손으로 좇어당 테왁더레 놓주게.

105003 @ 막 돌 일르명 해?

105003 #1 아니 다 보말은 물 들어가민 나느네.

105003 @ 보말 잡을 때도 물에 들엉 잡는 거?

105003 #1 어, 어 들어 강.

105003 @ 물가에서는 안 해 보고?

105003 #1 물가에서?

105003 @ 으.

105003 #1 물 싸민?

105003 @ 예.

105003 #1 물 싸민 우리 해너는 잡지 못허게 허주게 믹음대로 바당에. 우리가 다 금지허고 다 돌레 텡기곡 허는 디 허여지느냐? 못 한다.

105003 @ 계민 물에 들엉?

105003 #1 물에 들엉 공동에서 허는 건 해도.

105003 @ 예.

105003 #1 옷밭딜로 이녁만 강 잡지 못 허여.

105003 @ 아, 기과. 물에 들엉 영영 감시민 보여 보말이?

105003 #1 물 막 들민 보말이 나주게. 싸민 물이, 사는 물엔 안 나고 물이 들어 올 때엔 그것이 나오주게.

105004 @ 보말 종류에도 영 일름이 있을 거 아니예?

105004 #1 어.

105004 @ 어떤 보말이 잇수과?

105004 #1 떡보말.

105004 @ 떡보말.

105004 #1 수두리보말.

105004 @ 수두리.

105004 #1 이제 곱생이.

105004 @ 곱생이.

105004 #1 으, 신데기. 경.

105004 @ 네 개 정도. 떡보말, 수두리 보말, 곱생이, 신데기. 또 생각나는 거 잇수과? 엇어?

105004 #1 메옹이.

105003 @ 메옹이. 하하하. 맞수다, 맞수다. 강이는 어떻 잡습니까?  
 105003 #1 강이도 우리도 못 내려가 강이 해녀덜은. 그 옷बाट디 혼 두물날 혼물 날러렌 거 바다에 물에질 안 허는 사름덜 강 잡아오주게. 물 안 썩 때난.  
 105003 @ 음.  
 105003 #1 경허영 잡아당 젓도 행 먹고. 삐정 죽도 썩 먹고.  
 105003 @ 삼춘은 강이 경 안 잡아났구나.  
 105003 #1 궁이 잡아 와도 난 궁이 죽거튼 거 냄새 낭 난 못 먹겠더라.  
 105003 @ 그 맛있는 거.  
 105003 #1 아이고.  
 105003 @ 뼈에도 좋덴 허고게.  
 105003 #1 으, 경해도 안 먹어뵈. 궁이 해당 덴뿌라 튀김 현 건 먹어져라.  
 105005 @ 음. 궁이렌 험니까 삼춘 궁이?  
 105005 #1 궁이.  
 105005 @ 궁이 경 행 먹고. 궁이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  
 105005 #1 춤궁이.  
 105005 @ 춤갱이.  
 105005 #1 지름콩이, 또 똥궁이.  
 105005 @ 으. 똥궁이, 하하.  
 105005 #1 돌팍궁이.  
 105005 @ 돌팍?  
 105005 #1 돌팍궁이. 막 겁죽 두더와근에 무크락현 거.  
 105006 @ 무크락현 거, 예. 그 그 옛날에 바당에 강 뭐 잡을 때 불 피왕 잡아난 거?  
 105006 #1 메록.  
 105006 @ 메록?  
 105006 #1 으, 낙지, 낙지 심으래.  
 105006 @ 낙지를 메록이렌 곶아?  
 105006 #1 으.  
 105006 @ 아, 낙지 심는 거?  
 105006 #1 으, 낙지 심는 거 메록 심으래 간덴 허주.  
 105006 @ 아, 하하.  
 105006 #1 이디션 메록이엔 헤난. 옛날 할망덜 곤는 거 들음만 헤도. 낙지엔 이 체사 표준어로 낙지엔 헛주 옛날은 메꾸럭. 메꾸럭 심으래 갓저.  
 105006 @ 메꾸럭, 아까 메록. 메록이엔도 허고 메꾸럭이엔도 허고?  
 105006 #1 으.  
 105006 @ 오, 메꾸럭 심으래 갓저 허는 거예. 게민 그거 말고 여기는 멜 들 때 담 같은 거.

105007 #1 원담.

105007 @ 원담. 신창도 원담 잇엇수과?

105007 #1 어게, 알가름. 이제도 요디 혼 밧딘 셔.

105007 @ 혼 밧딘 이셔?

105007 #1 으. 알가름은 다 헤쌍 데껴불고. 녁 자당 보민이 멜 들엇저 행 강 보민 사들덜 이만씩 현 거. 이말 허젠 허난 나 언지낙 사들 다 스몫 멜 거리젠 허난 사들 ㄱ지레 왕 허난 사들 엇영 헤져라.

105007 @ 언제 언제?

105007 #1 언치낙 꿈에.

105007 @ 언치낙 꿈에 하하하.

105007 #1 이말 거느리젠 허난.

105007 @ 계난 이말 거느리젠 현 거 맞수다게. 하하하.

105007 #1 경현디이.

105007 @ 예.

105007 #1 어엄 큰 거 허영 이처록 허영 이문간이나 어디나 영 돌아메 뒷당 멜 들엇저 허민 스몫 다덜 강 좁팍으로 거리곡이 허영 멜 빌레도 가고 옛날. 이젠 빌레 아이 가느네게.

105007 @ 예.

105007 #1 주젠도 안 허곡게.

105007 @ 무사 멜 빌레 가서. 잡으레 가민 텔 거 아니?

105007 #1 잡질 못허주게. 와작작 와작작 현 디 거리민 어디 멜 하나씩 저디 강 웃밧디 간 거 하나씩 줍는 거나베끼. 아이고 멜도 밧밧 멧 짐씩 저 올리멍 헤라.

105007 @ 아. 계난 여기 신창에 원담은 멧 개나 잇어나신고예?

105007 #1 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멧계원, 진원 경 셔낙주.

105007 @ 네 개.

105007 #1 으.

105007 @ 이제 남아 있는 건?

105007 #1 남아 있는 건 요디도 다 뵈 헤부난 이제 멧계원 허고 저디 드리 아래 진원베긴 엇어 이젠.

105007 @ 아, 두 개는 이신게예.

105007 #1 으.

105009 @ 그럼 그거 혼 번 글아줍서게. 멜 영 드는 게 언제쯤 멜이 듭니까?

105009 #1 봄 때에.

105009 @ 봄 때에. 음력 멧 월이라?

105009 #1 혼 정이월러게 ㄱ실엔 멜 잘 안 들어.

105009 @ ㄱ실엔 잘 들고 봄에 허면 정월? 정월?

105009 #1 정월, 정월엔 너미 열고. 혼 이삼월러레.

105009 @ 이삼월러레예. 게민 멜 들민 밤이 멜 들었수다 험니까?  
 105009 #1 어게. 멜이여, 멜이여 해낫주.  
 105009 @ 뭐 들렁, 삼춘은 뭐 들렁 가?  
 105009 #1 구덕더레게 스몫 줌팍 다, 이 채. 채도 가정 강 거리져.  
 105009 @ 으, 거리져.  
 105009 #1 거 다 가정덜 든꼭 헛주게.  
 105009 @ 아. 게민 남저덜은 큰 걸로 허영. 큰 사들.  
 105009 #1 어 그 사름 조름에 혼 사름이 줌팍 갖꼭 옛날은 가멩이도 가정 가더  
 라게.  
 105009 @ 으.  
 105009 #1 경허영 강 멧 가멩이 저 올렸저 현다 허고. 이제 경 안 현 사름은 질  
 구덕에덜 정 오고. 파닥파닥 시퍼렁현 거.  
 105009 @ 음.  
 105009 #1 이제 그런 멜덜 안 나.  
 105009 @ 막 맛 졸 거 님은디.  
 107020 #1 으, 누물 낱 끌리민 오죽. 옛날은이 복쟁이, 복어 복어가 이디 무사  
 경 하영 나까오느니. 켜 지영 풀레 다니는 할망덜이 게꿈이 부각부각 나게 질구덕  
 에 저.  
 107020 @ 아.  
 107020 #1 경허민이 경허민 그 복쟁이가이 보끄민 잘도 맛좋아 김치에.  
 107020 @ 아.  
 107020 #1 경허고 끌려도 맛좋아. 양에 허여 낱이 끌려도 맛좋고 현 거. 이젠  
 엇어게 그것이. 막 복쟁이가 잘도 하영 나낫저 이디. 경헌디 그 복쟁이가 실패 못  
 먹어 뵙 막 헛주게. 막 복쟁이가 이만씩.  
 107020 @ 그 복쟁이에 독 엇어 독?  
 107020 #1 복 엇다. 막 두드리고 피 쿵쿨허게 허는 디 무신 독.  
 107020 @ 안에 거 깨끗허게.  
 107020 #1 어게 경허민. 아이고 맛중메 미나리 헤다 놓고 양에 흐뭍 헤여 놓고  
 행 국 끌리민.  
 107020 @ 국 끌리민.  
 107020 #1 보까도 맛중고. 난 복쟁이만이 맛 존 퀘기가 엇음직 허여. 가죽도 맛  
 중고.  
 107020 @ 가죽도 맛중고.  
 107020 #1 견디 이젠 윈 그런 거 하나 먹어보젠 헤도 엇어. 강원돈 하영 그 테  
 레비에 보난 강원돈 하영 나는 디라라.  
 107020 @ 아.  
 107020 #1 게난 저 복쟁이 먹으레 강원도 가시민 중젠 난 해낫주게.

107020 @ 아이고 그 복쟁이 다 어디 가붙어신고게?

105010 #1 어디사 가신디 아. 복쟁이 어디 들어왔젠 허민이 요거 어디 판포 알  
가도 나끄더라덜.

105010 @ 아.

105010 #1 옛날.

105010 @ 옛날에.

105010 #1 옛날은 우리 아바지도 보제기 헐 때에 반찬 허켜 늬의 배에 혼 번  
붙영 갈칠 나끄미이 갈치가 이만씩 녀은 거 이 지레기씩 헐 거 스뭇 혼 질구덕씩  
나까 오더라. 그런 갈치가 맞좋아. 그땐 냉동도 옛곡이 풀레 와도 시 개 훑은 거 시  
개 얼메씩 허영 허민 상 지등 공장에 걸엇다근에.

105010 @ 하하하.

105010 #1 하하. 걸엇다근에 저 끌령덜 먹고 헤세. 경해도 경 누리지도 안 허고  
헤라 그땐. 이 아척이 풀레 오민게 그거 허영 낮에 끌리는 건게 냉장고 옛어도 허  
고. 남은 건 소금 허엇다근에 허곡.

105009 @ 예. 경 멜 들엇을 때 잡으레 간 사름덜은 잡앙 와지고 못 잡으레 간  
사름덜은.

105009 #1 흐끔씩 국거리나 빌어 오고. 흐끔씩 심어 오주게 좃영.

105009 @ 막 하영 잡아온 사름덜은 질구덕에영 뒤에영.

105009 #1 어.

105009 @ 하영 잡아 왔잖아.

105009 #1 하영 행 품도 허곡게. 집이 왕 줌도 허고 경 헤낫저.

105009 @ 어쨌든 그거 다 먹엇던 거라예.

105009 #1 다 먹엇주기에. 젓덜 허명이어.

105009 @ 젓덜 허명.

105009 #1 물류도 허고. 원 레기 반찬 옛곡 헐 때난 다 거 반찬으로덜게 멜 들  
엇저 허민게. 물류왕 갖가시덜 강 널고. 깨껏헤영 제기 물론 디덜.

105008 @ 게민 멜 잡젠 허난 원담은 잘 만들어정 잇어야 헐 거 아니과? 그거  
무너정 허민 그거 고치레도 가고, 동네사름덜 ㄴ치 가고 험니까?

105008 #1 아니 고치지 안 허여. 요번이도 막 따치 들언덜 심엇젠 헤라.

105008 @ 거기 원담예? 거 고치지 안 허영 그냥 내불어? 태풍 와나민.

105008 #1 아니 태풍 와나도 거 아이 현다.

105008 @ 어떻 안 허여?

105008 #1 어, 막 담으로 이만인 녀게 허영.

105008 @ 거기 원담에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가져?

105008 #1 어게.

105008 @ 경 하영 사름덜이 들어가집니까?

105008 #1 어게 레기 심으레 안에 널르주게 이 마당만이.

105008 @ 계민 누구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잇는 건 아니고?  
 105008 #1 경허진 안 허여. 큰 사들 가진 사름덜 스못 가운데레 사곡계. 못 헤영 체로 거릴 사름은 저 빌레레 가곡.  
 105010 @ 레기 나쁠 때는 뭐 뭐 들렁 가나신고예, 남자 어른덜. 낚시로 행 나끄젠 허민?  
 105010 #1 질구덕 새끼 친 들앙.  
 105010 @ 친 들앙.  
 105010 #1 밀쿠덕.  
 105010 @ 밀쿠덕이엔도 골아난?  
 105010 #1 으.  
 105010 @ 질구덕. 거기에 낚시대 놓고?  
 105010 #1 낚시대 놓곡덜 그 갈치 나끄는 줄이영 행장이영 낡. 옛날은 그 들렁이베끼 더 셔사게.  
 105010 @ 으.  
 105010 #1 그 질구덕 새끼 친 들앙 보제기 메영 땡기고.  
 105011 @ 거민 거기에 낚시줄 허고 낚시대 허젠 허민 낚시대야 대나무 끈영 갓주만은.  
 105011 #1 대나무 끈영 걸로 안 땡다.  
 105011 @ 그럼.  
 105011 #1 춤대, 춤대 허고 갈치 거튼 건 그냥 줄, 줄 잡앙 험세게.  
 105011 @ 그 줄은 어떻 구행 험신고? 사당?  
 105011 #1 줄은 삼사 험신지 거멍 허더라 거멍. 거멍 허영 흐뎡 슬져라. 갈치 나끄는 건.  
 105012 @ 거민 물에 들 때 해녀들도 물고기 잡아나지 안 헨?  
 105012 #1 어.  
 105012 @ 뭐 들렁 가?  
 105012 #1 옛날은 총 소살. 소살 멘들앙이 고무줄 헤영 짝 늘랑 영 헤영 착. 경 헤영 쏘아.  
 105012 @ 소살로? 삼춘도 경헨 뭔가 잡아낚수과?  
 105012 #1 아니. 이제도 소살 가정 드는 사름은 든다. 광어.  
 105012 @ 으.  
 105012 #1 그거 싯당 하나씩 봐지는 따문.  
 105012 @ 아이고 맞종켜.  
 105010 #1 으, 굴쟁이로도 쥘러 스못 멧 키로짜리 올리는 사름도 싯나.  
 105010 @ 굴쟁이로 그거 쥘렁?  
 105010 #1 탁 쥘렁 스못 안아.  
 105010 @ 복쟁이는 뭐로 잡아낚수과, 아까 막 복쟁이 하낫텐 헤신디?

105010 #1 복쟁이 거 같치 나끄듯이게 그 줄로게.  
105010 @ 아, 줄 내령 잡는 것과 복쟁이?  
105010 #1 으게.  
105013 @ 거리는 게 아니었구나. 고깃배덜 나가났지예. 남자어른덜?  
105013 #1 막 보자기덜 하났저.  
105013 @ 보자기덜예?  
105013 #1 으.  
105013 @ 그 고깃배를 부르는 일름이 잇어나신가? 모르고예. 계민 해녀들 물질 가면은 아까 잡았던 것덜은 골앗고 뭐 뭐 가져 갑니까 물질갈 때 여기서?  
105015 #1 비창.  
105015 @ 비창.  
105015 #1 상군덜은 가정 가도 우린 글쟁이베끼 아이 가져가.  
105015 @ 글쟁이만 가져 가? 비창 잇어?  
105015 #1 으.  
105015 @ 구덕에 뭐 담양 갈 것과? 영 질구덕에.  
105015 #1 우린 비니루에. 이젠 질구덕 잇어부난.  
105015 @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물질힐 때.  
105015 #1 옛날에 질구덕에 글쟁이 놓고 속곳, 눈이영 행장 낱 가주게. 경헌디 뽕들은 고무옷 잇인 때난 뽕똥은 잇어. 속곳 그냥 허고 허민 얼엇주게. 물적삼 입곡 게. 광목 수건 쓰곡게.  
105015 @ 계난 광목 수건 쓰고 물적삼 입곡.  
105015 #1 으, 경허난 오죽 얼것가게.  
105015 @ 계민 영 물에 들엇당 나오면은 갈아 입을 것도 가져 가고?  
105015 #1 으게. 입영 간 거 벗어덩 그 물옷 입으면 거 입을 거주게. 계난 이제 철록 뭐 목욕탕에서 헤와시냐. 그냥 입영 닥닥 털명 불 초와났주게.  
105015 @ 계니까 오래 잇지 못허고 두 시간 행 불 초왕 또 들고?  
105015 #1 으.  
105015 @ 불 초왕 또 들고?  
105015 #1 아니.  
105015 @ 멧 번?  
105015 #1 두 번.  
105015 @ 딱 두 번?  
105015 #1 으.  
105015 @ 한 번 들영 불 초왕 다시 한 번 들영?  
105015 #1 으.  
105015 @ 그걸로 끝?  
105015 #1 으.

105015 @ 물질가젠 허민 질구덕에 속곳 놓고 골갱이 놓고 행 가는 거예.

105015 #1 으, 눈도 이제 하꼬 눈하꼬에 눈 담고.

105015 @ 삼춘은 소살은 따로 안 챙겨신게예?

105015 #1 난 소살은 안 허연.

105015 @ 지들커도 그디에 담양 갈 거 아니?

105015 #1 어게. 줄께나 경안허민 못으로 무경 가정 가나. 불 초아사주게. 경안 허민 두 번 들 때엔 처음 혈 때 막 초아불민 두 번 들땐 막 지들커 족으카부덴 따 시 왕 혈 거 놔두라 놔두라 해놔주.

105015 @ 아.

105015 #1 겨고 두 번 들젠 허민이 그 입영 젓은 속곳 입젠 허민 또 추웁 뺏테 기 실렵고.

105016 @ 기민 옛날에 물질허는 거랑 지금 물질허는 거랑 트난 게 뭐가 잇수과? 우선은 고무옷 입는 거 잇고.

105016 #1 이제에 물질은 얼질 안 허난게. 오래발 신으민게 빨리 휘여도 지곡 계.

105016 @ 빨리 휘여도 지곡. 옛날에는 두 시간 두 시간 허영 거의 네 시간 정도 일을 헛었던 거잖아예? 지금은 얼마나 한 번 물에 들민 얼마나?

105016 #1 네 시간.

105016 @ 한 번 물에 들영 네 시간.

105016 #1 으.

105016 @ 경도 살아져?

105016 #1 으. 경험 남세. 네 시간 더 살진 안 허고 네 시간 안트로 날 때 짓고.

105016 @ 나왔당 또 들어가지 않지예?

105016 #1 아니.

105016 @ 그냥 네 시간 살양.

105016 #1 경허민 목욕탕에 왕 목욕허민 뜻뜻허게 물 데왕 놔 두민 그것덜 허영 스뭇 삼프로 머리덜 곱곡 이제사 호강이주기게.

105017 @ 그 속곳 같은 거는 다 이녁냥으로 멘들앗수과?

105017 #1 옛날 다 멘들안. 손으로 멘드는 사람, 미상행 멘드는 사람. 나 이제도 속곳을 툐랑 멘들충 알아지켜.

105017 @ 옛날 입어난 속곳은 엇고?

105017 #1 엇어. 거 이제.

105017 @ 아이고게. 하하하. 그거 잇이민 박물관 갈 건디.

105017 #1 우이 물적삼 다 들메기 들명.

105017 @ 들메기 들명 경 멘들아 난 거.

105017 #1 거 우리 어머니네 쟁기 거튼 거 도고리 거튼 거이 우리 오빠네 서울 살안 창고에 낱 나고 우리 말젓어멍 밧거리에 사난 우리 말젓어멍 다 풀아 먹어베

서라. 향아리덜이고. 거 경 험 것가. 동세 시아주방 아덜, 아이고 나 늘라만 곱암저.

105017 @ 아, 어떻게.

105017 #1 다 폴아벤. 우리 어머니넌이 친정에서도 부제고게 아덜 엇고 허난 물려도 우리 성할망도게 큰아덜이고 허난에야 오빠네 물려주난 저 시에 허단 저 서울 세무서로 글로 발령 난 가명 몬짜 이디 거 다 시켜왔주گی게. 경험 큰 창고로 하나 허연 놆 두난 몬짜.

105017 @ 엇어?

105017 #1 혼 번은 간 보난 아무것도 엇어게. 양 이디 향덜 다 어디 갖수과? 허난 저 거세기 동주 개영덕더레 강 다 데껴벙저. 아 무사 개영덕더레 강 데깁니까? 경허난에 몰르켜게. 허멍.

105017 @ 하하하.

105017 #1 야 데끼민 벌러진 향아리 곱이라도 실 거 아니가?

105017 @ 잇주마씨, 잇주마씨.

105017 #1 경헌디이 생거짓말을 허고이 아이고 말로 말라. 경험자 나 득튀보지도 안 허고이 득튀벙저 뭐 나오지도 안 험 거고 창피스러운 일 아니가 그거?

105017 @ 맞수다, 맞수다. 그럼 옛날에 속곳 입당 영 고무옷 나온 게 삼춘 멧살 때썸인 거 같으과?

105017 #1 속곳 입당, 혼 서른 댓에 고무옷이 나와실 거라.

105017 @ 서른댓에예. 게난 확실히 고무옷 입으난 물에 오래 살아진거라예.

105017 #1 난 처음에 고무옷, 늠덜 고무옷 입영 막 돈 벌엄젠 헤도 안 허당 아방 튜직허여 가난에 요디 최승희 각시가 언니 나영 벙허여, 벙허여 허영 이젠 혼디 천출 헌디이 옷을 맞추와네 이제 처음으로 입으난 경 여린 거 츠레도 몰란게. 영허영 입영이 영 허영 내리왕 베려보난 뭐 췌여전 이거 뵙이엔, 야 이거 뵙고 험 보난 옷 버령 췌여전게.

105017 @ 버려불언? 아이고.

105017 #1 게난 부찌민 뵙는 거라도 아이고 경허영 이젠 베설 가죽 다. 허난 이젠 그옷 입영이 뵙똥을 차난 뵙똥을 그걸 딱 맞추와사 험 거 아니가 조케, 저 작게 가정 가노난이 둥둥 트멍 내려가지 못허연게.

105017 @ 하하하.

105017 #1 경허연 혼착으로는 몸 심고 혼착으로만 천초 튼으난 얼멜 허느니? 경허난 어른덜은 그것도 모르고 지픈 디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난에.

105017 @ 가져게.

105017 #1 가져게. 경허난 이 좌올렝이 진 올렝이 이레 제기 오라 오라 헤도.

105017 @ 하하하.

105017 #1 겐 못 간 헤난디 그 뒷해부뵙 우리 타지 안 허쿠덴. 조케영 우리만 허주 할망덜 잘 험저, 못 험저 허고. 안 허쿠덴 허연 우리 질로지썸 허연 그해부뵙

질로지씩 허연 현 거 이제 거저 질로지씩 헛주게.

105017 @ 아. ㄴ치 안 행.

105017 #1 으, 질로지씩 허난 나도 천초 떨어지지 안 허영 헤 낫주게.

105017 @ 아.

105017 #1 열 구부리 안터레 헤 보진 안 허연.

105017 @ 어, 계난 하영 허는 거 아니 그거는?

105017 #1 으. 보통.

105018 @ 툃은 여기 툃도 작업헛니까?

105018 #1 어게. 툃은 전인 들류와.

105018 @ 이거 툃은 공동으로 허는 거 개인으로 허는 거?

105018 #1 공동으로.

105018 @ 공동으로. 작업허젠 허민 어떻게?

105018 #1 툃 허여근에 전인 공동으로 허영 물령 창고에 데명 다 그걸 담으멍 풀아주기게.

105018 @ 예.

105018 #1 경헌디 이젠 우리 신창은 물툃으로.

105018 @ 아, 안 물령?

105018 #1 안 물령. 저 공장에서가 왕. 이 신창 툃은 좋은 따문.

105018 @ 아, 기과 그럼 생으로?

105018 #1 생으로 허연 신창 건 받아 가.

105018 @ 아.

105018 #1 경허민 올린 막 물 조류 나빠부덴 툃 다 벗어지멍 다 오르라전게. 경 허영 헤도 혼 이틀 허난 다 허연게. 좋아던 툃이 경 미멍 파도 췌고 경허난. 흐루 현 것이 게도 혼 삼만오천 원씩 이틀 허영 칠만 원. 전이 멧 십만 원씩 갈라.

105018 @ 아.

105018 #1 툃이 좋아. 마당이 널러 놓고 허난.

105018 @ 아, 아. 계민 그거 수협에서 풀양 개인으로 나뵤구나.

105018 #1 으.

105018 @ 물리지 안 행. 계민 물리는 일은 안 헤도 뵤큰게.

105018 #1 간단허난 이것이 좋아. 다마네기 허단 멧 시간 강, 서너 시간 강 행 허민. 이젠 어촌계에서 그 땅을 매립헛주게. ㄴ새 그 우리 아덜이 어촌 계장을 혼 십년 험서. 일 잘 헤부난 막. 올리고 선거허난 서른 네표만 못 먹영 다 몰매 헛주 게.

105018 @ 대개 젊어보이던데 아드님이.

105018 #1 이제 췌 으섯인가, 멧인가 몰르켜.

105018 @ 아, 어촌계 일 험구나.

105018 #1 경허영 헌디 발이 널르고 뵤 사업 따 오는 것도 잘 따와.

105019 @ 아, 경협구나. 계민 우미는 개인이 허는 것과 공동으로 허는 것과?  
105019 #1 다 일지구, 이지구 삼지구 경협 나누주게. 경허민 일구역 이구역 삼구역 스구역 허영 나누는디 이젠 일구역 드는 사름, 이구역 드는 사름 허영 그 안에서 다 이젠 질로지씩.  
105019 @ 아, 일구역, 이구역 나누는 거는 저 뭐?  
105019 #1 돈 오천 원씩 내영 일지구역 들 사름은 일지구역 들고, 이지구역 들 사름은 이지구역 들고 경허영 이제 해경 헐 때는 다 천촌 지만씩.  
105019 @ 계민 일구역, 이구역은 바다를 영 나누는 거?  
105019 #1 어.  
105019 @ 계민 우미도 좋은 구역이 있고 안 좋은 구역이 있지 안 허여. 다 ㄱ타?  
105019 #1 다 우민 좋아 이디.  
105019 @ 아, 신창이 막 바다가 좋구나.  
105019 #1 아이고 천초 바당은 한림 수협에서 일등일 거여. 천초 육지사람도 신창 천촌 좋텐 허영 우리 거 시엿꿈으로 다 주느네. 이 낙찰 안 행이라도 시에 우미 최고 천초 값 나민 신창 건 최고로.  
105019 @ 아, 기구나, 기구나.  
105019 #1 으.  
105019 @ 구역만 나뉘 다 개인이 허는 거예?  
105019 #1 으. 나가 즈물민 풍중은 다 하나씩 있어야 돼여. 풍중 엇이는 못 허여. 나 늙어 노난 뜯어내는 건 잘 해도 지여 내치지 못 허주.  
105019 @ 풍중이 뭐과?  
105019 #1 이 천초 뜯으면 지여 땡기고 시꺼오고 허는 것이 풍중이주.  
105019 @ 계민 그거 누게가 험서. 아덜이?  
105019 #1 아덜도 허곡 높 빌영도 허고. 난 저 아덜 지난 험주 아덜 엇이민 못 허여.  
105019 @ 기지에. 그거 풍중이렌 허여, 그거 날라주는 사람?  
105019 #1 으. <중략>  
105019 @ 풍중?  
105019 #1 풍중. 풍중허레 갖저. 우미 풍중 가세.  
105020 @ 예. 계민 전복이랑 구쟁기는 그거는 개인으로 잡는 거?  
105020 #1 개인으로 다 잡주게. 개인으로 잡양 이제 조락에, 전복은 큰 거 치수 허여 금지기엔 전복 못 허주게. 경허영 그 치수 크민 이젠 금지기에 벗어남 산란기에 벗어난 땐 어촌계로 왕 풀고 이제 구제기도 매날 받아가지 안 허영 조락에 낱다 커 이녁만씩.  
105020 @ 으.  
105020 #1 경허민 한림 수협에서 뜨레오민 그땐 다 즐기 심영 이녁헌 거만씩

다 멧 키로 멧 키로 다 재영 다 풀아.

105020 @ 그거 잡아왕 먹기도 허고 허지예?

105020 #1 게게 먹으면 풀지 안 허고. 이녀 헨 거난.

105021 @ 전복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

105021 #1 수천복, 암천복.

105021 @ 수천복이랑 암천복 어떻게 트납니까?

105021 #1 수천복은 수롱허고 술이 두텁주게. 이 통이 지프고 이제 암천복은 넵 작허여 빼작. 우리추록 돌른 사름 모양으로.

105021 @ 빼작허고.

105021 #1 수천복은 술진 사람 모양으로. 이 겁녕 이디도 움팡허영.

105021 @ 게민 뭐가 맛종아?

105021 #1 수천복이 아멩헤도 술 하고 맛종주.

105021 @ 소라도 소라도?

105021 #1 소란.

105021 @ 구쟁기, 구쟁기.

105021 #1 구쟁긴 다 일체고. ㄹ에 어뎡 허당이. 먼 바당에 살 한 거보다 ㄹ에 서라도 으물 한 거 어디 그런 것이 싯나게. 그디 건 으물 하고 그런 것이 맛종주게.

105021 @ 아.

105021 #1 꺾테기 알팡허여도 으물도 하고 몽클몽클 헨 거. 먼 바당에 건 겁녕 만 닥살만 크고 두꺼웁고 구제기 질겨, 질겨.

105021 @ 구제기 질겨?

105021 #1 ㄹ의 거 훑은 것이 으물도 하곡게 부드러주게 부드러워.

105021 @ ㄹ에 경 훑은 것이 이십니까게? 다 잡아부난.

105021 #1 다 잡아도 어뎡 어뎡 잇나.

105021 @ 게민 요즘 바당에 씨 뿌립니까?

105021 #1 아니.

105021 @ 다 자연산이라?

105021 #1 다 자연산이주게.

107023 @ 옛날에 여기도 자리도 거리고 헤나신가?

107023 #1 아이고 자리 거령이 젓 담을 때 옛날에, 옛날 할망덜 자리 거리면 주로 자리젓 반찬베끼 더 이샤게. 웬장허고 자리젓, 마농지베끼 안 헛주게.

107023 @ 예.

107023 #1 멜 들민 멜젓 허고. 것이 기본이라 난디 이젠 저 자리 거령 들어왕 자릿배 들어왕 두 시쯤에 자릿배 들어온다 허민 자꾸 벨 들어오는 거 아이 들어오는 거 보주게. 경허영 들어와가민 구덕덜 배러레 데끼명 줄 사.

107023 @ 사젠?

107023 #1 사젠. 헛단에 이제 차로 픍난에. 나도 줍서 나도 줍서. 휘 행 먹젠덜.

다른 레기도 엇곡 허민게. 경혜영 가민 사둔님이엔 허영 사둔신딘 폴아주고 저쪽 사름은 사지도 못 허여. 경 줌체로 못 사나서.

107023 @ 어려운 거랏구나.

107023 #1 이젠 막 허영 사도. 자리젓도 두말씩 몇 말씩 헤나세.

107023 @ 삼춘네는 얼마나 답앗수과?

107023 #1 우린 아버지네 두어말꺼진 헤낫주.

107023 @ 두어말예. 자리젓을 영 답아 봅서. 자리젓 담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7023 #1 옛날은 자리젓이 그냥 영 짐작형여 버물여도 두경도 아이 더끄곡게 산도록 험 그늘진 초가집 막살이 헛간에 삼수세 바작바작 붙영 프리벥기지 못허는 거 허영 우이 더경 허난산디 국물이 밋밋 넘고 허여도 자리젓이 경 맛종안게 이젠 자리젓이 맛이 엇어.

107023 @ 무산고?

107023 #1 무사 경 헤신고. 옛날은 다른 반찬 엇이난 경 맛 셔신가. 구송헌 거 경 짜지도 안 허고 별경게 맛종는디 이젠 경 맛이 엇어.

107023 @ 그 자리젓 험 때 자리젓 담그젠 허민 자리 안 씻어? 씻지 안 허여?

107023 #1 사 온 거이 든물에 씻영은 맛 엇나.

107023 @ 그냥 그대로?

107023 #1 그냥.

107023 @ 그대로? 머리 두드리지도 안 허고?

107023 #1 머린 병으로 폭폭 두드리주게.

107023 @ 자리 만약 험 말 답는덴 허민 소금은 얼마나?

107023 #1 험 말 답는디 옛날 할망덜은 웨싱 험 웨 놓는덴 헤서.

107023 @ 웨싱 험 웨.

107023 #1 자리 녁웨민 소금도 웨싱 험 웨.

105023 @ 계민 사대일 비율로예. 계민 자리 거리레 가젠 허민 배가 잇잖아예.

105023 #1 풍선계. 사들로 이만헌 거 허영 사들질 허는 것도 다 뿡 자리 사레 가주게.

105023 @ 음.

105023 #1 둥글랑헌 어음허영 거러 놓고 허는 거 이 ㄱ에서도 옛날 봐지고 헤 낫주게. 이 앞 바당예. 계민 오닐 사들질 잘 허영 자리 사짐직 허다 허고.

105023 @ 하하하. 그런 배들이 하영 잇어낫수과?

105023 #1 험 대책 셔낫주게. 그 하르방덜 다 죽엇주게.

105024 @ 아이고 아이고. 계민 거기에 그 배에 일름이나 아까에 풍선에 곁은 배 말고 거기에 앞에 이름 뒤에 이름 그런 거 알아집니까?

105024 #1 그런 거 옛날 알아지느냐게. 몰라.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오늘은 옷 만들양 입어난 것덜 물어보쿠다. 옷ㄱ슴, 옷ㄱ슴에는 어떤 것덜이 있어났수과, 옛날에?

106001 #1 옛날은게 물웃도 잠녀질 허는 것도 광목, 미녕.

106001 @ 광목, 미녕. 계민 옷ㄱ슴에 미녕도 잇고 또?

106001 #1 베, 삼 모시.

106001 @ 또?

106001 #1 거 웨에 뭐.

106001 @ 시집갈 때 입어난 옷은?

106001 #1 시집갈 땐 우리 유동 그땐. 유동 치마. 시집 예식할 때 회양헌 유동 치마에 회양헌 양단 저고리.

106001 @ 으, 계민 멩지웃은 못 입어 봤수과?

106001 #1 우리 멩지웃은 못 입어 봤저. 옛날 할망덜이 멩지웃 혜영 시집갈 때 영 헛주. 우린 그 시대 벗어나난 유동, 양단, 비로도 치마. 물려주는 거.

106001 @ 그걸로 행 입어난예.

106001 #1 으.

### 명주

106002 @ 우선은 멩지, 멩지부터 물어보쿠다. 멩지실 만들젠 허민 어떻 만들어 마씨?

106002 #1 멩지실은 우리 이디 아이 멘들아도 저 육지서 멩질 혜영 그 뽕입에 그 뽕 버랭이 그거 멩영,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추룩 경혜여근에 멩지 허영 뽕 플 레오주게. 강원도 멩지.

106002 @ 계민 이쪽 동넨.

106002 #1 이디선 안 헛주기게.

106002 @ 안 헨?

106002 #1 강원도 멩지가 질 알아주주게.

106002 @ 저 남원이나 다른 딴 멩지 해난 디 이십디다.

106002 #1 겐디 이딴 멩진 안 헤 봤주게.

106002 @ 멩지 안 헤 판예. 계민 누에치고 영 허는 거 잘 모르쿠다예?

106002 #1 몰라, 몰라.

106002 @ 신창은 멩지 해난 사람은?

106002 #1 엇어.

106002 @ 어신 거예. 한경면 안에 조수나 그런 디도?

106002 #1 그런 디도 엇어.

## 무명

106007 @ 계민 미녕은 알아지지예?

106007 #1 으, 미녕. 멘네 갈앙.

106007 @ 멘네 갈앙.

106007 #1 멘네 갈앙 이제 블라. 무르에에 씨 털어지는 거 잘 괘랑. 이추룩 허영 블라. 저 블라. 이젠 태우는 디 강 경허영 태왕 저 대로 소게 영 헤영 낱 약간 약간 우리 떡, 떡국 빠는 것출룩 그만씩 허여. 경허영 다 낱 왕 이제 무르에에 이젠 이디 거세기 진 쉼허고 무르에 돌리멍 그걸 빵 영 허영 영 허곡 허영 그걸 멘들아. 실을 뽑아.

106007 @ 으.

106007 #1 경허영 이젠 그걸 다 웨로 뽑아 논 거 다 감아. 경허영 감앙 올 멧개 허영 이젠 미녕 메여 다.

106007 @ 으.

106007 #1 그 웨로 웨로 이제 그 우리 얼레기 머리추룩 고냥 모냥 그 실 뽑은 거 다 꿰여. 경허영 이젠 가시리나 구두리로 풀 쉼. 풀 쉼 솔로 맥이멍 이 밀엔 ㄱ시락 불 술앙 이젠 걸 빗지멍 이철룩 감으멍 허젠 허민 해원 바쁘주게 그날은.

106007 @ 음.

106007 #1 경허연 이젠 미녕을 차 그 다음에.

106007 @ 그럼.

106007 #1 이 다리 이철룩 허영 영 디물리고 놀 이레 허곡 허멍게. 영 허영 영 디물랑 또 영 허영 영 디물랑. 경허여근에 그거 경허민 그디서가 이 아래 거 우터레 강 또 영 딜이치민 영 허멍 그걸 짜지주기게. 경허영 미녕 짱 흐루 스무장 찻저. 흐 빌은 못 차고.

106007 @ 삼춘도 경 허영.

106007 #1 난 흐뎀 배움단 말안.

106007 @ 누게안티 배와서?

106007 #1 어무니신디.

106007 @ 친정어무니?

106007 #1 어무니넨 다 차주게. 집집마다 미녕. 경허고 옛날 물 들어.

106007 @ 예.

106031 #1 하도 이젠 그 회양헌 것만 허난 요영 허젠 허민 버뎀 타고 허난에이 붉은 물 들이고 노랑 물 들이고.

106031 @ 으.

106031 #1 쥐색 들이고 허영이 그거 실 멧 번씩. 요만씩 넘게 짜고 또 다른 색 깔도 그만씩 짜곡 행 색동 이불 모냥으로 경 허영 짱 그걸로 요 겁죽도 허곡.

106031 @ 아니 그럼 물 들일 때는 노랑색, 파랑색 그거 뭘로 물들입니까?

106031 #1 물레가 풀아. 옛날 물레 장시 와.  
106031 @ 아, 그 물 들이는 걸 물레렌 헐 거?  
106031 #1 어.  
106031 @ 아, 물레 장시 와.  
106031 #1 으, 장에 강 사단 물레 장시.  
106031 @ 예, 예.  
106031 #1 경허영 이디도 신창도 물레 장시 살아났저.  
106031 @ 어, 장에 풀레 다니는구나.  
106031 #1 으, 경허민 거 사단 들여근에 요 거튼 거 그런 거 허고. 또 쥐색이민  
쥐색만 허영 늘은 그냥 흰 거라도 꼬리는 거 허민 것도 고와.  
106031 @ 염색할 때, 그냥 물 들일 때에 어떻 물 들어나서?  
106031 #1 물을 영 카. 카근에 소금 흐뵂 놓고.  
106031 @ 다라이에 물 카는 거?  
106031 #1 아니 솟에.  
106031 @ 솟에.  
106031 #1 경허여근에 거 물 들이는 솟덜게 경허민 그거 이제 골로로 골로로  
적저.  
106031 @ 으.  
106031 #1 경허영 숲아.  
106031 @ 아, 골로로 골로로 적저가명.  
106031 #1 어, 뒤현다 어뵂다 허명 골로로 가게 허젠 허민 숲으명게 허영.  
106031 @ 계난 물 들일 때 솟에 낱 숲으는 거구나.  
106031 #1 어, 숲아. 이제도 숲아.  
106031 @ 아니, 우리 감물 들일 때 경 안 허지 안헉니까?  
106031 #1 건, 감물은.  
106031 @ 다른 거?  
106031 #1 감물은 그냥 허여근에 저 허민 자꾸 물만 적전 너는 거고.  
106031 @ 예.  
106031 #1 이건 숲아사게. 이제 이 몸뵂에 감물 색깔 이디 완구점에 강 사단 들  
이는 것도 숲아사.  
106031 @ 아, 물 사단 들이는 거는 다 솟에 낱 숲는 거구나?  
106031 #1 으, 다 숲는 거주.  
106031 @ 감물 얘기 나오난예 감물 들여난 것도 곶아줍서.  
106031 #1 감물은 감 흐뵂 쵸 물 올라가민 타당. 타당 이제, 이제 이제 저제 헤  
실 거라 으름에.  
106031 @ 읊.  
106031 #1 경허민 그거 방에툑에 다 뵂아. 뵂앙 이제 감 들일 것더레 막 놀리멍

허여근에 물 걱정 흔 번은 이쪽으로 넣고 흔 번은 이쪽으로 골로로 널곡 허멍.

106031 @ 음.

106031 #1 걸 벌경케 골로로 가게 허영.

106031 @ 그 감.

106031 #1 감 들인 옷은 빨아가민 검영 허주게. 옛날 할망덜은 빨지 안 행 입어 세계. 옛날 이 일허곡 허난 버무는 처레 몰르고 뜸 아이 부뜨게 허젠 그 감 들영. 경 으름에 매날 빨아지느냐게.

106031 @ 음.

106031 #1 물도, 수돗물도 옛곡 어디 쉼 맥이는 물에나 새 물에나 가사. 이 신 창은 물은 좋아났저 맛도 좋곡. 경허민 큰 새물, 죽은 새물. 큰 새물은 먹는 물, 죽은 새물은 구신 왕 다 빨래허는 물.

106031 @ 음. 계난 그것도 다 구분행 잇어났구나.

106031 #1 으, 이제도 구분행 셔.

106031 @ 그 물 나오는 디가 잇수과 아직도?

106031 #1 으.

106031 @ 물 나와?

106031 #1 으, 이제도 칼칼 나왔주.

106012 @ 아, 나 사진 찍영 가쿠다. 아까 멘네 하는 일을 물어봐신디 멘네 실 빠젠 허민 농사를 짓어살 거 아니?

106012 #1 농사 정계. 농사 정 멘네 갈양.

106012 @ 멘네 농사 가는 거 곶아줍서.

106012 #1 멘네 갈양.

106012 @ 언제 가는 거라?

106012 #1 봄에 게.

106012 @ 몇 월에?

106012 #1 보릿그루에 가는 건 이제 보리 허여낭 가는 건 흐꿈 늦텐 허고 이르 게 가는 건 흔 스월 초과일 2리에 가는 거.

106012 @ 예, 갈양.

106012 #1 갈양 이젠 그거 우 막고.

106012 @ 우 막는 게 뭐과?

106012 #1 너미 낭 나가민 우이로 툽 툽아.

106012 @ 아, 위로 막 크지 말렌 우 막고.

106012 #1 으, 영 가제기 벌령 멘네 피게.

106012 @ 예.

106012 #1 그처럼 허영 이젠 멘네 피민 타당 그거 다 각지 다듬양.

106012 @ 기민.

106012 #1 들류와.

106012 @ 사월 초파일날 멘네 갈앗잖아예?

106012 #1 어.

106012 @ 계민 멘네는 스까주거나 검질 메거나 안 허여?

106012 #1 검질 메레 가민게 낭 부뜬 것덜 스짜주기도 허주게. 경허영 으름에 검질 메여 낭 칠팔월 나가민 타. 팔월, 구월, 시월러래.

106012 @ 막 오래 키우는 건 아니다예. 금방인게.

106012 #1 으, 도레기 이만씩 허민 물락물락 헐 때 그 도레기도 먹어져. 경허영 이제 그거 피민, 헤양케 피민 멘네 이젠 각지 다 다듬으멍 허여당 바싹 물류와. 멘네.

106012 @ 그 멘네 탄 거를. 도레기차 탑니까, 아니면?

106012 #1 도레기체 타당 밤이 다듬젠 허민 도레기로 타당 집어서 다듬고.

106012 @ 으.

106012 #1 또 밧디서 흙치 다듬으멍 타는 사름도 싣고.

106012 @ 으.

106012 #1 경허여근에 이젠 다 물류왕 경허영 무르에 블라.

106012 @ 그 숨을 타가지고 그걸 다 물리는 거?

106012 #1 다. 잘 물려사주게. 무르에에 블리젠 헤도.

106012 @ 무르에에 블리젠 헤도. 도레기는 크기가 얼마큼씩 해?

106012 #1 요만씩 한다.

106012 @ 이거에 숨이 막 바삭하게 열려?

106012 #1 으, 거 피민게.

106012 @ 피민.

106012 #1 피민 것이 나왕 숨이 거랑거랑. 브름이나 불민 그랑그랑 베졌디도 허고, 나오고. 이것이 갑이 대여섯 갑이 벌리민게. 영 헛단 것이 영허영 벌렁. 계민 이새에 다 멘네.

106012 @ 아. 멘네, 툭 허게 거뒤내는 거라?

106012 #1 어, 어.

106012 @ 기민 멘네 농사는 얼마정도 짓어낫수과?

106012 #1 경 하영 안 허주게. 딸덜 시집 보내젠 허민 이불허여 주저 경허여근에 두어말지기, 서너말지기 기자. 혼말지기 경허여.

106012 @ 음.

106012 #1 하영 허민 손이 하영 가는 거라부난.

106012 @ 그거 타젠 허민예.

106012 #1 으.

106012 @ 계민 멘네로는 무슨 옷을 만들영 입엇수과?

106012 #1 미녕게. 미녕허영게 미녕적삼, 굴중의 그런 거 허영 감 들영 일헐 때 입는 거주게.

106012 @ 일혈 때 입는 거예.

106012 #1 어, 이불안도 헐다. 다 미녕으로 옛날 할망덜은. 우리 시대엔 광목으로 헛주만은 옛날 할망덜은 다 미녕으로 이불 안도 헐고.

106007 @ 미녕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

106007 #1 미녕에 거 굿새추룩 물 들영이나 안 허민 종륜 엇어.

106007 @ 혹시 닷새미녕 옷새미녕 허는 거 들어 봤수과?

106007 #1 어.

106007 @ 그건 뭐라?

106007 #1 그건 흐뎡 즘질게 허는 것 ㄱ란게 멧새 미녕이렌 헐고.

106007 @ 음.

106007 #1 훌게 허는 건 이젠 마찬가지로. 올이 더 하영 들주게. 겨민 거 차는 늘도 수경이 더 해주게. ㄱ늘게 허젠 허민.

106007 @ 그런 거에 따라 닷새미녕, 옷새미녕.

106007 #1 으, 으.

106007 @ 어느게, ㄱ는 게 닷새미녕이과, 훌은 게 닷새미녕이과?

106007 #1 저 ㄱ는 것이 그 으라 개 드는 것이 옷새미녕이주기게.

106007 @ 여러 개 드는 게. 토목, 토멩지 그런 건 안 들어보고?

106007 #1 그런 멩지 거튼 건 강원도에서만 우리도 시집 저 상 안네고 허여났저.

106007 @ 으. 그 광목은?

106007 #1 광목은 부산서 짜난. 방직에서 짜난 나왕 풀민 허엿주 여기서 짜도 안 허여.

106011 @ 흥세미녕이엔 현 거 들어 봤수과?

106011 #1 흥세 미녕은 아니.

106011 @ 그거 시집가젠 허민 흥세함.

106011 #1 아이고 함에 놓는 거주기게.

106011 @ 예.

106011 #1 그뎡 미녕이나 베나 경허여근에 낱 거져가는 거. 예장에 낱.

106011 @ 예장에 낱예?

106011 #1 으.

106011 @ 삼춘넌 뭐 낱 갖수과?

106011 #1 우린 그런 거 안 헐고 그냥 예장허영 하꼬에 담앙.

106011 @ 아, 예장만 헤가지고?

106011 #1 으.

106012 @ 아까 멘네 짜는 거 한 번 더 곶아줍서. 슝 타민 이제 슝 탕 거기서부터 작업허는 거.

106012 #1 작업 허는 거, 탕 멘네 무르에에게.

106012 @ 그 숨을 바로 멘네 무르에에.

106012 #1 그, 그 으. 멘네 허영 그 영 영 헤가민 썬 털어지멍 그거 나가주게. 경허영 그걸 와썩 잘 몰러.

106012 @ 으.

106012 #1 경허영 태우는 디 강 테와. 경허영 떡국 빠듯이 빠.

106012 @ 뉘를 떡국 빠듯이 빠수과?

106012 #1 그 실 빠젠 허민 요만헌 대막탱이에 그걸 낡 대륙대륙 영 영 헤가민 딱 그만씩 헤 가민 이제 그거 낡 무르레에서 실 빠. 경허영 미녕허는 거주게. 경허영 미녕 허는 거.

106012 @ 예. 실 빵 거 가정 아까 또 무르에에?

106012 #1 어. 실게 무르에에 영 또 그 바농대 닳은 거 허영 영 허영 영 놓고 허는 것이 썬주게. 거 썬 곳탱이로 졸졸졸졸 데와가민 영영영영 허영 나오민 막 허민 이철록 허멍 그레 감아 낡 다 이젠 다듬으멍 잇이멍 끈어지민 잇이멍 허영 미녕 멜 때 다웨영 도로기 멧 개 헤영 풀 블르멍 미녕 메영 짜는 거.

106012 @ 아, 도로기 멧 개 영 감양 낫당.

106012 #1 으, 다 감아야 허여.

106012 @ 게민 그것도 몰레, 무르레엔 험니까? 거기 낡 실 짜는 거?

106012 #1 으, 아니. 저 미녕 틀.

106012 @ 미녕 틀 예, 예.

106012 #1 예, 예. 영허민 이디 찍신 헤영 저디 허민 찰각 허민 탁 허고 영 허민 찰각 허고 허멍 그걸 짜는 거라.

106012 @ 예, 예. 나 여기 사진 잇수다.

106012 #1 그디 다 썬구나.

106012 @ 이젠 뉘 험 때 쓰는 거라?

106012 #1 그건 멘네 블르는 거.

106012 @ 이거 멘네 블르는 거.

106012 #1 어. 멘네 허영이 이거 영 허영 이거 들러가민 요 고향으로 멘네 허민 뒤론 멘네 나오고 앞으론 씨 이레 나오는 거.

106012 @ 기민 여기에 밭 블랑 아니면?

106012 #1 이거 깎양 앓아사게.

106012 @ 깎양 앓아사, 엉덩이로?

106012 #1 어.

106012 @ 여기 깎양 앓양 여기에 낡 이젠 영 영 돌리는 거라예?

106012 #1 어. 이거 이만이 허민 뒤터레 밀리멍 블라 낡 그거 담고 이 씨도 지름 뺨도 허고 옛날.

106012 @ 아, 멘네씨로?

106012 #1 멘네씨 지름도 빠레 가고 썬도 맥이고 뉘에 서경.

106012 @ 예.

106012 #1 경허주.

106012 @ 계민 이걸로는 뭐 해?

106012 #1 이걸 싸는 거 무르레. 이거 뵈레 보라.

106012 @ 이거 뵈레 보라. 하하하.

106012 #1 이거 영 헌 췌 시네게 이거.

106012 @ 음.

106012 #1 영허민이 이거 영영 헤여 가민 일로 영 잡아댕겨 이레 영 허곡 허민 이철록 실 감아정 영 허고.

106012 @ 음.

106012 #1 허민 이걸 하민 떼영 이젠 또 잇이멍 다 감양 메는 날은 그걸 다 풀 맥이멍 허는 거.

106012 @ 계민 이 이거 영 돌리멍?

106012 #1 이거 돌리멍 일로 실을 떡국 닭은 거 떡국칠록 빵 영 왕 꺾새 블라냥 물류왕 태와왕 이것에서 허는 거.

106012 @ 계민 이거 먼저.

106012 #1 어. 물류왕 태와당 이거.

106012 @ 아, 태와당 이거.

106012 #1 어. 태와 와사.

106012 @ 태우는 건 어디 강?

106012 #1 솜털 태우는 디 강.

106012 @ 거기가 따로 잇어. 집이서 못 허는 거?

106012 #1 못 허는 거.

106012 @ 아, 경행 여기 행 이제 실이 돼수다예?

106012 #1 어. 경허민 그걸 다 떡국칠록 다 허영 와사게 이디서 건 실 빠는 거.

106012 @ 음. 아이고 차는 건 없다. 이 다음에 다시 이거 가정 차는 거라예. 아, 이걸 아니구나.

106012 #1 이거 허민 이제 다음은 마당에 ㄱ시락 불 살랑 풀 맥영 이젠 그 차는 그 거시기 다 올리 이렇게 허민 이디서 풀 맥이멍 그 고양이 우리 얼레기 닭은 것에 꿩 그 살살 살살 허멍 이젠 물류왕 감아.

106012 @ 예.

106012 #1 경허영 이젠 새에 빼따지 요만씩 헌 거 다 노명 부뜨지 못허게.

106012 @ 음, 음.

106012 #1 노명 이철록 감양 이젠 짤 땀 짜는 거주게.

106012 @ 짤 땀 짜는 거. 이제 이거 다 해 놓민 그거 착착 허는 거.

106012 #1 으. 착착 허는 거주게. 이거 실 다 헌 다음엔 이젠 마당에 불 ㄱ시락 불 살르고 풀 췌 솔도 셔. 그, 그런 솔이 이젠 엇어.

106012 @ 으.

106012 #1 그걸로 적지명 삭삭 삭삭 허여가민 그것이 몰라가민 이제 저 조롭에 선 그거 납작하고 거 감는 것이 셔 이디.

106012 @ 음.

106012 #1 영 이딘 넓고 요딘 낭께기 행 이디도 넣으민 그거 맞게 감아.

106012 @ 영영 돌리명.

106012 #1 으. 돌리명 새에 대 요만씩 현 거 놓명 허영 짤 때는 그디 놔근에 이제.

106012 @ 아. 이제 짜는 거. 계난 완전 날력 부러사 허큰게 이거 허는 날은예?

106012 #1 아이고 이거 이거 메는 날이 질 날력 부러. 실 감는 건 시간 나는 양 원 건 허는 디 불름도 밤이도 허고 줌 아니 자는 땀 허는 디 메는 날은 해전. 땀이, 흐 두 사름만도 아이 웨여.

106012 @ 메는 게 뭐 허는 거 메는 거렌 험니까? 이거 허는 거?

106012 #1 아니게. 불 2시락 불 살랑 그 저 미녕 메는 거.

106012 @ 미녕 메는 거. 이거 현 다음에예?

106012 #1 으.

106012 @ 혹시 이거 일름덜은 알아지쿠과?

106012 #1 이거 불르는 무르에게.

106012 @ 이건 불르는 무르에.

106012 #1 어.

106012 @ 이거는?

106012 #1 이거는 싸는 무르에.

106012 @ 싸는 무르에.

106012 #1 싸는 거, 싸는 거엔 현다. 옛날 싸는 것이 아니고 싸는 거.

106012 @ 싸는 무르에.

106012 #1 어.

106012 @ 계민 불르는 무르에, 요것도 이름이 이실 거 아니?

106012 #1 아니, 아니. 이건 그냥 낄앙 앓는 거.

106012 @ 이건 낄앙 앓는 거. 이거는?

106012 #1 건 즈룩, 손 영영 돌르고. 요건 니 맞추명 나가사 이딜로 멘네씨 허 영 이레 나가.

106012 @ 톱니처럼 영영 맞추면서예.

106012 #1 으. 이건 저 무시거칠록 맞춰사주게. 맞아사주 이것도 넘어가민.

106012 @ 으, 나사처럼예.

106012 #1 으. 경허영 아니 넘어가민 그 에엄더레 돛지름 줄른 것도 흐뎀 불르고 헛주게.

106012 @ 아, 여기에.

106012 #1 어.  
106012 @ 계난 술술 술술.  
106012 #1 어, 넘어가게.  
106012 @ 아, 여기에 돛지름을 블라수과?  
106012 #1 으, 돛지름. 그때 옛날 미싱 지름 무시거 셔셔게.  
106012 @ 맞수다, 맞수다. 아, 돛지름으로 행 지름 해난.  
106012 #1 어.  
106012 @ 계민 이것도 이것도 이거 싸는 무르렌데 이거는 뭐렌 골앗수과?  
106012 #1 이견 그때 거 오꼳 잇어벤. 가래기, 가래기.  
106012 @ 예, 가래기. 계민 이 부분은?  
106012 #1 건 싸는 무르에게.  
106012 @ 이거 전체 싸는 무르에. 이견 그냥 손잡이렌 현 거고?  
106012 #1 으, 손잡이고 이견 가래기.

#### 모시

106013 @ 물레는 영 헛고 무르레는. 계민 모시는 어떻 헤신고, 모시는?  
106013 #1 모시는 이디서 아이 짜 봤주게.  
106013 @ 아, 이디서 안 짜 봐서.  
106013 #1 으, 베영 저 강원도서 허고 이딘 안 헤 받.  
106013 @ 베도 안 헤 본 거예.  
106013 #1 으. 삼벤 허젠 허민 그 삼수세 갈앙 잇이멍 거 누게가 허느니 이디.  
안 웬다. 계민 강원도 베가 쯤 종앙 강원도 베덜 사젠 현다게.  
106013 @ 계민 그 베장시덜은 영 가끔 들어 와났수과?  
106013 #1 으. 베 삼센도 행 들어오곡게. 허연.  
106014 @ 으. 베로는 어떤 옷 만들앙 입어신고예.  
106014 #1 사당 옛날은 양복헤세게. 하르방덜 살마다도 안 헤영 그냥 노 들이청  
훤히 봐진다.  
106014 @ 하하.  
106014 #1 베 중의적삼.  
106014 @ 베 중의적삼. 여름예?  
106014 #1 으. 그걸 주로 헛주게.  
106014 @ 주로. 모시도?  
106014 #1 모시도 그 중의적삼. 남자덜.  
106014 @ 남자들?  
106014 #1 으. 여저덜은 또시 저 모시 치메허고 적삼. 거 잘 살아사 경허주.  
106014 @ 아무나 못 해.  
106014 #1 아무나 거 하지 못현다게.

106014 @ 으.

106014 #1 먹기도 허영 승녕에 먹기도게 못허여근에 스몛. 조체 다 보깁 스몛  
감져 썰어 낱 범벅헛저 소문 나난디 공출게 드려 허영 받지라 허곡 허는 따문. 옛  
날은 밧 어쟁이 돌빌레도 다 혼 밧이라도 다 돌르멍.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헛서.

106014 @ 무슨.

106014 #1 에쟁이 돌른 거 혼 밧이라도 념의 일름에 선게.

106014 @ 무사?

102005 #1 건 공출헛 때난게 돌랑 건 갈아먹는 거 임의 아니로 헛 내벼난.

102005 @ 아. 기민 그거 우리 일름으로 잇이민 그 부분도 공출 받아가부난.

102005 #1 으. 경혜부난 다 돌르멍. 경허영 이녁 실경지만 올려근에 공출헛세.

102005 @ 그 공출을 언제 헛난 것과?

102005 #1 옛날게.

102005 @ 그 옛날 언제?

102005 #1 우리도, 혼 우리 으남은 설꺼지.

102005 @ 으남은 설꺼지.

102005 #1 열 설꺼진 헛서.

102005 @ 게난 그거 일본 사름덜 들어왕 이실 때라예?

102005 #1 으, 으.

102005 @ 게민 땅 요만큼 가지고 잇이민 여기서 난 거 얼마 내라 헛던 거예?

102005 #1 으. 경허난 에쟁이덜은 다 빼덩 실경지만 올령 헛나비난 이제 풀고  
살 때도 경허여비난 오꼳 이제 우리도 돌라전 이젠 하르방 일름에 셔.

102005 @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쿠다예.

102005 #1 으.

### 바느질

106022 @ 이제는 바농질 허는 거 물어보쿠다. 바농질 허젠 허민 뽀 뽀 잇어야  
뽀 거?

106022 #1 실허고 바농게. ㄴ세허고.

106022 @ 실, 바농, ㄴ세.

106022 #1 바농상지 허영.

106022 @ 바농상지 헛영.

106022 #1 영 허영 바구니 새끼나 아무 거라도 허영 들이쳐뽀서게. 그냥 미녕  
실.

106022 @ 으, 미녕실.

106022 #1 옛날 그 미녕실로 허영. 무신 웨실도 셔샤.

106022 @ 그 바농상지 새끼 바구니 헛난 거 그디 풀 블랑 쓰지 안 허고?

106022 #1 풀 블르는 사름은 풀 블르고 우린 그냥도 허고 헛주게.

106022 @ 아, 그냥도 허고. 바농상지 안에 뭐 뭐 잇어난지 혼 번 돌아봅서. 바농 잇고?

106022 #1 ㄴ세.

106022 @ ㄴ세.

106022 #1 실패.

106022 @ 거 뿐?

106022 #1 게 거주게 뭇허여.

106022 @ 옷 영 멘들앙 입젠 허민 자도 이서야 웰 거 아니?

106022 #1 으, 자.

106022 @ 또 뭐 이신고? 바농 막 무견예.

106022 #1 속돌. 속돌로 돌아낫저게.

106022 @ 그건 속돌로. 돌아난예. 게민 바농은 어디 찢렁 놔 둥니까?

106022 #1 실패에.

106022 @ 실패에? 바농찢레는 따로 안 만들어낫수과?

106022 #1 찢레도게 멘드는 사름은 멘들아도 그거 멘들 저르가 셔게. 바농 실패에 잘 찢르주게. 찢레덜토 멘들아.

106022 @ 아, 즐레도 멘들아예.

106022 #1 으. 머리털 소곱에 담앙.

106022 @ 하하.

106022 #1 곱게 허영.

106022 @ 바농에 머릿지름이 좋은 모양이라.

106022 #1 머리가게 바농질 헐 때도 영, 영 허민게 속속 잘 들어가주게. 경헌디 우리 어무니네도 멘들아.

106022 @ 으.

106022 #1 그거 허영 곱게. 이색 저색 낡 이만허게 허영 그디 머리털 제각 담야. 경허여근에 바농상지 바우에 돌아메주게.

106022 @ 음, 음.

106022 #1 돌아메영 찢렁.

106023 @ 찢렁. 바농찢렁 거기에예. 바농질 허젠 허민 바농질 방법도 여러 개 이실 거 아니? 듨성듨성 허는 것도 잇고.

106023 #1 호는 거, 감치는 거. 땡침허는 거 다 싯주게.

106023 @ 호는 게 어떤 것과?

106023 #1 호는 건 영영 허는 거고.

106023 @ 음.

106023 #1 땡침이엔 헨 거 뒷바농질 허영 또 뒷바농질 허곡 허영 미싱헨 거 철록 튼 잇이 헤 가는 거 땡침.

106023 @ 으, 땡침허는 거.

106023 #1 감치는 건 영, 영 감치는 거.  
 106023 @ 그거 말고 또?  
 106023 #1 단추 고냥게.  
 106023 @ 단추 고냥힐 때?  
 106023 #1 단추 고냥힐 때 영 허영 단추 고냥 허는 건 또 틀리게 허주게.  
 106023 @ 아, 단추 고냥힐 때는 또 틀리게.  
 106023 #1 으.  
 106023 @ 거난 집이서 어떤 옷을 이녁냥으로 만들앙 입어낫수과?  
 106023 #1 할망덜 굴중의게. 중의 적삼 다 손으로 멘들주 무신. 미녕으로 현 거.  
 경허영 감덜 들이곡 허주게. 그때 어디 미싱 서시냐?  
 106023 @ 삼춘도 경헤영 만들고?  
 106023 #1 난 옛날 속곳이나베끼 아니 멘들앗저. 우리 시대엔게 글후제 미싱 셴  
 헤나난.  
 106023 106023 @ 계난 속곳을 손으로 다 만드는 거?  
 106023 #1 손으로 다 덩침허멍 곱게 멘들주.  
 106023 @ 속곳 멘들 때 여기에 영.  
 106023 #1 돌메기.  
 106023 @ 돌메기.  
 106023 #1 돌메기도 다 짜. 물적삼도 다 멘들아근에 손으로 멘들앙.  
 106023 @ 으.  
 106023 #1 다 돌메기 허영 들앙 입주게.

### 옷 종류

106024 @ 돌메기 형여 들앙 입는 거예. 맞수다, 맞수다예. 남자덜 입어난 옷 중  
 류에는 뭐 잇수과? 남자 어른덜 입어난 옷에는?  
 106024 #1 옛날이사게 중의적삼게.  
 106024 @ 중의적삼.  
 106024 #1 두루막.  
 106024 @ 두루막. 또 어신가?  
 106024 #1 옛날은 대개 그추룩.  
 106024 @ 여자덜?  
 106024 #1 뺨스덜토 멘들앙 입는 하르방이 싯주 안 입영 노들이청 다니는 하르  
 방도 셔.  
 106024 @ 하하하.  
 106024 #1 나 아이 곶아냐. 먼 디서 보민 흥갈흥갈 봐지는 거 닐아.  
 106024 @ 하하하.  
 106024 #1 미녕은 몰라도 베는.

106024 @ 아, 베는. 훤히 비치난.  
106024 #1 비치난애.  
106025 @ 여저웃덜은 뭐가 이신고?  
106025 #1 여저, 여저웃도 마찬가지로. 그때애.  
106025 @ 차마, 저고리.  
106025 #1 차마, 저고리도 그 중간에사 스몫 나이론 곰보 옷덜이영 뵈이여 할망  
덜 우리 시어명네도 입엇주이 우리 허여단 안네난.  
106025 @ 으.  
106025 #1 안 입어 봤저.  
106025 @ 게난 차마 저고리 입고.  
106025 #1 옛날은 양털로 게실.  
106025 @ 게실?  
106025 #1 양털게 저 목장에 강 거 비영 양털 쌍 것도 허는 생이라. 게민 그런  
양털이나 그 게실 사당 쉐타나 짱 입저낫주게 무신. 할망덜게. 여자 할망덜은 그 세  
타 짱 입저낫저.  
106025 @ 그 세타 짱 입은 건.  
106025 #1 미녕실로도 미녕실 올 빵도 세타 짜고.  
106025 @ 거 겨울에 입을 거?  
106025 #1 겨울게게. 미녕실로도 우리 세타 짱 입어낫저. 물 들영.  
106025 @ 언제? 삼춘 시집간 후제지예?  
106025 #1 우리 어털 때.  
106025 @ 어털 때?  
106025 #1 우리 시집간 후젠 미녕실로 짜진 안 허고 시집가기 전이 장갑도 짜  
고 양말도 짜고.  
106025 @ 영 코 행 짜는 거?  
106025 #1 코 행 이제 우리 세타 짜듯이. 막 무늬 낱 물멍도 짜고. 경헤낫저 미  
녕실로.  
106025 @ 미녕실로예?  
106025 #1 세타도 짜고.  
106025 @ 아, 경도 행 입어 낫구나.  
106025 #1 어게. 경 무르에에 짠 거 멧 돌씩만 허민게. 감양 걸로 짜민 뉘주.  
106025 @ 여자웃에는 게난 치메 잇고 저고리 잇고.  
106025 #1 속곳 잇고 옛날.  
106025 @ 속곳 잇고.  
106025 #1 살마단 입을 충 몰라낫주게 옛날 할망덜. 속곳이 주로 입어낫주.  
106025 @ 또 여저덜도 중의 적삼 입어난 거 아니?  
106025 #1 중의적삼 굴중의.

106025 @ 굴중의.

106025 #1 이제 우리 핫바지 한쓰봉추룩 넓게 헤영 굴중의 입어났저.

106026 @ 아이덜 옷은 뭐가 잇어났수과?

106026 #1 아이덜 옷은게. 하하하. 일본 학생출룩 학교 텡길 때게 그 에리영 싯고 학교에 갈 때 그런 거 입고 우리도 아래 검영허게 물들영이 치메 흐꿈 주름 사게 허고 우인 적삼이나 입어났주기게.

106026 @ 아. 애기덜 웨 오줌 못 가릴 때?

106026 #1 어게 아래 멘들아 입저. 또꼬냥 영 테우고. 똥 부뜨지 못허게 엇날은 무신 기저기 셔사.

106026 @ 그럼.

106026 #1 현 옷으로 그 애기 구덕 눅질 때도 거. 나도 우리집이 큰아덜 혈 때 꺼진 할망네 거 니비웃덜 그런 거 다 곳안에 저 지성기 행 키와났저.

106026 @ 아.

106026 #1 글후제사 미녕 곳아근에이 헤양케 바렛단 나도 아기 기저귀 허엿주. 이젠 또시 저 거게기로 옷 소게 싸는 무시결로 다 이젠 허단 그 다음엔 다 종이 거 나오난게 무신 기저귀 빨암사게.

106026 @ 이젠 안 빨암주.

106026 #1 우린 숲으멍 다 헛저 애기덜 키울 때.

106026 @ 기저예, 기저귀덜.

106026 #1 나 큰 아덜 키울 때만 그런 거 행 글후젠 다 미녕허연 숲으멍 허고 가젯베 허영 글후제 허고 허난 글후젠 손지덜 클 때 가젯베 허연게 이젠 종이덜 다 허영 무신.

106026 @ 음.

106026 #1 돈만 ㄴ지민 췌안헛주게. ‘

106026 @ 돈만 가지민.

106026 #1 우리 오죽 못 전디게 살아사.

106027 @ 맞수다. 옷 만들젠 허민, 만들양 입젠 허민 굴중의라도 영 잘랑.

106027 #1 어게 다. 거 잘 멘드는 사름신디 몰라줍서 행도 허꼭 허느네. 경 아 무나 이녁냥으로 몰르지 못허여.

106027 @ 그럼 바느질은 내가 하더라도.

106027 #1 으.

106027 @ 자르는 건 잘허는 사름신디 몰라줍서 허는 거?

106027 #1 어. 굴중의나 이 남저 바지도 아무나 못 허주게. 영 낱 혼 번 눈치 현 사름은 허여도 경 안 현 사름은 다 몰라줍서 허영 몰라당.

106027 @ 겐 동네에 그런 사름덜이 잇어?

106027 #1 셔, 셔. 다 숨씨 신 사름덜이 싯주게.

106027 @ 계난 그디 강? 계난 본이 잇수과, 그런 굴중의 만드는데?

106027 #1 아니. 분이 엇어.  
106027 @ 분이 엇어.  
106027 #1 으. 엇어도게, 키 큰 사름은 어느만이 허고 다 자로 짐작허영.  
106027 @ 경허영 플라주는 거?  
106027 #1 어.  
106028 @ 우리 보선 영 신으민예 보선에 앞에 부분을 뒀렌 부릅니까?  
106028 #1 보선코.  
106028 @ 코. 여기는?  
106028 #1 목계. 보선목.  
106028 @ 보선목. 여기는?  
106028 #1 뒀치기.  
106028 @ 뒀치기. 여기는?  
106028 #1 건 몰르켜.  
106028 @ 남자덜 바지 입으면 명칭덜이 여기는?  
106028 #1 거기 영치, 여기 허리.  
106028 @ 허리. 여기는?  
106028 #1 다릿목.  
106028 @ 목?  
106028 #1 으, 다릿목.  
106028 @ 한복 입었을 때 다릿목 뒀로 메지예?  
106028 #1 으.  
106028 @ 이 메는 부분을 뒀렌 험니까?  
106028 #1 이디 다릿목계 뎡기로.  
106028 @ 뎡기로?  
106028 #1 어.  
106028 @ 저고리는 여저덜 치마 저고리는?  
106028 #1 치마 저고린 뒀?  
106028 @ 치마에는.  
106028 #1 허리.  
106028 @ 여기는?  
106028 #1 여기는 가심둘레 아이가. 품 허영 저고리 험 때가 가심둘레 헤영 품 허주 치마 험 뎡 이 허리.  
106028 @ 허리.  
106028 #1 허리가 질 맞게 허젠 허민 허릴.  
106028 @ 이젠 치마 저고리에.  
106028 #1 옛날은 치메도이 쫄르게 헤영 주름 앓정이 이 허릴 딱 맞아사 이디 허리로만 영 무경 옷 입는 따문. 저고리도 영 질게 할망덜허고.

106028 @ 아, 옛날에는 여기로 맞췄구나. 요즘 한복은 요기로?  
106028 #1 아니, 아니. 옛날 할망덜은 한복도 다 존등이 허영 이 저고릴 질게  
입어낫주기께.  
106028 @ 으. 게민 허리를 맞추는 거?  
106028 #1 어, 옛날은 이 우리 시대에 나사 이 저고리가 줄르게 입엇주, 할망덜  
막 질게 입엇저.  
106028 @ 아. 머리 맞추고. 여기는 치마폭이 뿔 거고?  
106028 #1 으, 치메폭.  
106028 @ 맨 밑에는 밑단?  
106028 #1 밑단, 어게. 이까지 이거 질지도 안 허게 흐뎡 영. 영 질게 안 현다.  
106028 @ 질게 안 혜영. 약간 무릅 밑으로 혜가지고.  
106028 #1 어.  
106028 @ 일허젠 허난.  
106028 #1 일허젠 허는 거 아니영 어디 가는 것도 경 질게 안 허더라.  
106028 @ 저고리에는 명칭이 이실 거 아니? 이 부분은?  
106028 #1 그 부분은 짓.  
106028 @ 짓.  
106028 #1 동전.  
106028 @ 동전. 짓에 동전 달 거예?  
106028 #1 어.  
106028 @ 여기는 질게 뭐가 잇는 거?  
106028 #1 고름.  
106028 @ 고름이 잇는 거예? 영 고름도 메젠 허민 앞에 가는 게 잇고 뒤에 가  
는 게 잇어예.  
106028 #1 어.  
106028 @ 앞에 가는 건?  
106028 #1 앞섭께.  
106028 @ 요거 뒤로 가는 건?  
106028 #1 계난께, 건 앞섭이엔만 혜라께. 뒷섭 안 허고.  
106028 @ 여기 앞섭이렌만 허는 거?  
106028 #1 어.  
106028 @ 여기 뒤에 이거 말고 영.  
106028 #1 건 등 실밥이엔 현다께. 등실밥 크쟁허게 허영 글로 중심 잡앙 벵허  
게 좇겡이렌 흐뎡 올라가듯 허곡 이딘 나오게 허연 도련 꺾영 멘드는 거주께.  
106028 @ 도련 꺾영 멘드는 거?  
106028 #1 어.  
106029 @ 단추에도 영 종류가 잇수과?

106029 #1 단추도 몇 가지 종류 잇주만은 거 알아져게.  
 106029 @ 옛날에는 이런 단추가 잇어나지 안 헨?  
 106029 #1 아니 혜영 헨 걸로 구쟁기 딱살로 멘들앙.  
 106029 @ 아, 구쟁기 딱살로 멘들앙.  
 106029 #1 경허영게 막 돌라난 거 막 데며져낫주게. 거 멘드는 디. 구쟁기 딱살, 전복 딱살로 단추 멘들아낫주게. 와이사쓰 단추도 다.  
 106029 @ 와이사쓰 단추도 다 그걸로 만들아난 거.  
 106029 #1 으, 그냥 두 개 허영.  
 106029 @ 아, 그런 것도 만드는 디가 잇어낫수과?  
 106029 #1 어, 셔난.  
 106029 @ 그민 그것도 잇고 또? 우리 속곳에는 뭐?  
 106029 #1 돌메기게.  
 106029 @ 돌메기.  
 106029 #1 돌메기 혜사주 돌메기 안 허민 거 자꾸 끈어지고 저 벌러도 지꼭 아 이 웬다.  
 106029 @ 벌러도 지고.  
 106029 #1 돌메기 건. 물적삼이고 무시거도 우리 바당에 드는 건 다 돌메기.

### 재단과 염색

106030 @ 음, 돌메기. 옷 만들 때 보면 물 들이는 것도 잇지만 바농질 허젠 허민 다리미질을 해야 헐 거 아니예?  
 106030 #1 그뎨이 즈룩 돋은 다리미에 슯 허여 잉경 담앙 어떻허당, 우리 할망 하르방이 일 헐 뎨 허여도 잘 나 텅기주게. 경허민 그거 허영 다령 헤낫주 아이롱 이 어디 시니.  
 106030 @ 아이롱?  
 106030 #1 아이롱은 중간에 우리 헐 때사 아이론이 나 낫주게. 슯불 살황 즈룩 심영 췌. 경허영 헛주.  
 106030 @ 거난 그 즈룩 심영 헤난 그거를 뭇렌 곶아낫수과?  
 106030 #1 다리미게.  
 106030 @ 다리미렌 헛수과, 다리웨렌 헛수과?  
 106030 #1 아니, 다리미.  
 106030 @ 다리미렌 헛수과?  
 106030 #1 이제 다시 윤디이 바농질 허여 낱 이거 실밥을 곱게 혜영 펜안허게 허젠 허민 화리에 불 살파. 그 윤디 구워뎨서 짹 누르뎨 오고리고 헛주게. 경허민 바농 호화난 거난 뭇이라도 폐와정 곱주기게.  
 106030 @ 음.  
 106030 #1 이제 짓 돌리젠 허여도 풀 허영 그레 맥영 그 윤디로 꼭 허게 누르

뜨고.

106030 @ 윤디 누르뜨젠 허민 윤디도 잇어야 허지만 그 밑에는?

106030 #1 윤디판이 셋주게. 널짜판 요만헌 거 허영 숨 다 싸. 경허영 기지 허영. 경허여근에 허엿주.

106030 @ 지금 다리미판 나오는 거추룩예?

106030 #1 으. 요 지레기보단 크다. 이만 헤영 소름허게 허영 영.

106030 @ 음.

106030 #1 경허영 멘들앙 특 공장에 걸엇당 바농질 헐 때는 내려 낱 윤디 허고.

106030 @ 윤디 허고.

106030 #1 윤디허고 그건 서사 바농질을 허주기에. 멩질에 하르방덜 입지젠 헤도 그 윤디판 허고 윤디가 셔야.

106030 @ 게민 불은?

106030 #1 화로에. 낭 잉경 허영. 그땐 슷도 풀아라. 옛날 슷 구웁. 게민 그 슷 흐뎡 놓곡 허민 해원이라도 가. 바농질 헐 때.

106030 @ 해원이라도 가? 그거 무슨 말이라?

106030 #1 흐루 해원.

106030 @ 아, 하하. 슷이 오래 가는 거, 그말. 게난 화리에 슷 낱 불 피워 낱 거기에 허멍 다림질 허는 거라예.

106030 #1 어게.

106030 @ 슷은 안 구워낱수과?

106030 #1 슷 우린 안 구워도 산간에서 구민 가멩이에 흔 가멩이 언뎡 허영 사더라 우리 아버지네.

106030 @ 아.

106030 #1 경허민 그걸로 겨울게 불 살황 언 날은 방에 앓앙 피우멍 담배도 피우고.

신발

106032 @ 화리. 이젠 신 물어보쿠다, 신. 신발 종류에는 옛날에 어떤 신발이 잇어낱수과?

106032 #1 검은 고무신게.

106032 @ 더 옛날에는?

106032 #1 나무로 판 남신도 싯고게. 짝세기 경헛주게.

106032 @ 짝세기로 만든 신도 싯고예.

106032 #1 어. 짝세기도 곱게 줄은 거 싯고. 이녁만씩 다 줄앙 신을 때난. 하르방덜 다 숨씨마다 다 틀리주게.

106032 @ 아, 잘허는 사람은.

106032 #1 콤콤헌 사름은 곱게 허곡 난 짝세기 삼앙 신으렌 허난 뒤치기 아판

난 찍세기 안 신어 받.

106032 @ 그럼 바로 고무신 신어서?

106032 #1 우린 고무신도 신고 그때 어평허영 운동화도.

106032 @ 애기 때, 어렸을 때?

106032 #1 아니, 옥양게.

106032 @ 어렸을 때는?

106032 #1 여렸을 땐 맨발에덜 뎅겻주게 무신.

106032 @ 하하하.

106032 #1 흔 서너 살꺼진 맨발에게.

106032 @ 으. 경허단 이제 신발 신을 때 뉘 가난.

106032 #1 츠츠츠츠 신도 나와 가고게.

106032 @ 게도 고무신 경 그때 신어시난 잘 살아신게.

106032 #1 예구, 우리 어머니넌 소문난 부제난게. 우리도 숭년에 늙은 영 헤도 그런 밥, 보리밥은 먹어도 다른 밥은 안 먹어 받. 피밥도 안 먹어 보고.

106033 @ 가족신은 안 신어나신가, 옛날에?

106033 #1 몰라게 가족신. 가족신 시집갈 때에이 가족신덜 그 새각시 신이 셔나 서.

106033 @ 으, 시집갈 때.

106033 #1 까망헌 거, 가족으로 멘든 거.

106033 @ 으, 가족으로 멘든 거.

106033 #1 거 옛날 보민 테레비에 보명 왕덜 신는 신 모양으로 가족으로라도 이디 영 물색 허고 바우들렁 새각시 신어났저.

106033 @ 예.

106033 #1 경허난 그건 물림 물림 허멍 오래 허옛저게.

106033 @ 게난 그거 말고는 그 이전에는 엇어난 거라예?

106033 #1 옛날 하르방덜 우리 동네 예염에 아랫 하르방 소가족으로 허영 모제도 멘들양 씨연 뎅기더라.

106033 @ 아이고 소가족으로?

106033 #1 으.

106033 @ 잘 사는 사람이라신게.

106033 #1 잘도 살앗주게.

106034 @ 저기 나막신 만드는 거 영 봐났수과?

106034 #1 아니.

106035 @ 찍신은?

106035 #1 찍신 만드는 건 봐났주게.

106035 @ 집이서덜 만드는 거?

106035 #1 집이서덜. 노덜 꼬는 거영.

106035 @ 어떻 만들디과?

106035 #1 찍신 노 ㄱ는 거 허영 이거 혼 니 가달인가 영 벌경, 니 가달인가 멧 가달에 벌경 이젠 망텡이 좃듯 그 창을 본 허여근에 이젠 즐야. 경허영 이젠 삭 등 기멍 허영 두치기 펜더레 또시 ㄱ늘게 또 짜. 경헤영 이디 코 꿰영 이레 허곡 이레 허곡.

106035 @ 아, 아, 경헤영 뒤에, 코, 코를 어디 끼워? 이 옆에?

106035 #1 이, 이 앞으로부터 시작은 허여이.

106035 @ 예, 예.

106035 #1 영허민 이레 이젠 영 놀 서너네 개 영 창 멘들 걸 흘려.

106035 @ 으, 으.

106035 #1 경허민 이제 찍으로 테우멍 이젠 이레 가멩이 짜듯이 짜. 경허영 짱 요꺼지 코 걸일 이만이 내우멍 이디도 다. 경허민 그 코 걸이러레 다 노허영 이레 영허고.

106035 @ 으.

106035 #1 이제 요딘 가민 이 창만 허영 일로 영허영 요 뒤치기엔 가민 영 거 뒤치기 두 가달에 념경 요디 코 펜 것더레 줄라 메영 신, 신 뒤라게.

106035 @ 삼춘 멘들아지쿠다게. 설명허는 거 보난.

106035 #1 아이 멘들기사게 눈치 신 사름이사게. 못 헐 건 뒤 시니.

106035 @ 게난 멘들아지크라. 경허민.

106035 #1 찍신 즈는 건 우리가 봤주게.

106035 @ 어렸을 때.

106035 #1 어린 때라도게. 날 우쳐 가민 하르방덜 찍신덜 삼젠게.

106035 @ 아, 날 우쳐가민?

106035 #1 으. 예펜 할망도 홀어멍덜은게 이녀 신을 거 곱진 안 헤도 다 짜라 게.

106035 @ 그냥 신을 것들은?

#1 으.

106036 @ 짚신에도 영 종류가 이신가?

106036 #1 곱게 험벅 서경 거 깝 멘드는 것도 싯곡게. 영헌 바우에 험벅 막 곱 게 오렝 거 영 영 허멍 요레 서경 비비멍, 비비멍 코 멘들앙.

106036 @ 험벅은 짚신이랑 ㄱ치 행 영 노 꼬는 거 아니면 험벅만 행?

106036 #1 아니. 짝, 짝에 서경.

106036 @ 서경?

106036 #1 어.

106036 @ 모양 낸 건게.

106036 #1 모양 낸 거. 곱게.

## 모자 등

106037 @ 모냥 낸 거예. 이제는 모자 물어보쿠다예. 모자에도 어떤 모자덜이 잇 어낫수과?

106037 #1 모잔 어떻헌 모자가 션디?

106037 @ 밧디 강 일허젠 허민 페랭이도 잇고?

106037 #1 페랭이 허꼭게. 페랭이나베끼 무시거 모자 시니? 페랭이도이 보릿낭 꼬트머리에 거 행 우리다 즐앙 썩엇저.

106037 @ 보릿낭으로?

106037 #1 보릿낭 꼭대기에 거 고고리 피영 꼭대기 진 거 툽툽 허영 곱게 다듬 영 그걸로 이젠 즐아.

106037 @ 으.

106037 #1 경허여근에 이젠 실로 주멍 페랭이 멘들아세.

106037 @ 그걸 실로 주멍?

106037 #1 어.

106037 @ 그거 페랭이도 잇어나고 왜 비 올때 썩난 것도 이서나지 안 헤? 비 올 때 페랭이 썩신가?

106037 #1 비 올 땐이 새로 헤영 축, 축 무시거엔 허느니. 거 일름이 뿔이여만 은? 초갱이엔 헤냐?

106037 @ 여기 쓰는 거?

106037 #1 어. 초갱이 쓰언덜 밧디 이제 우리 갓바 입듯이 영 쓰는 게 비 맞아도 알러레 다 내려가게 새로.

106037 @ 새로 멘든거라예.

106037 #1 으.

106037 @ 그걸 뿔엔 곱아?

106037 #1 초갱이 썩언

106037 @ 초갱이. 그럼 우에는 페랭이 쓴 거라, 갓 쓴 거라?

106037 #1 갓은 비 올 때 썩지느냐. 갓은 옛날이 정동으로 짜.

106037 @ 정동.

106037 #1 정동으로 짜근에 곱게 허영 옷드르 사름덜 자리 사레 왕 혼 헨 저 돛쟁이주제에 대풍 불어부난 다 불런덜 허멍 헤낫저.

106037 @ 하하하.

106037 #1 섹유 깡통에 자리 사레 왓당 돛쟁이주제에 대풍 불어비난 다 불런 일러떡영 가는 사름도 셔라.

106037 @ 갓 썩 왓당?

106037 #1 어.

106037 @ 돛쟁이주제는 바람 막 획 부는 걸 돛쟁이주제엔 허는 거고?

106037 #1 어.

106037 @ 그거에 날라 갖군아게.  
106037 #1 으.  
106040 @ 여기 갓 짜는 건 안 해놔지예?  
106040 #1 어?  
106040 @ 양태 짜는 건 안 해난?  
106040 #1 아니. 하르방덜 거멍헌 것도 쓰영 텅겨놔주게. 거멍헌 거 무신 이제 그 테레비에 보민 옛날게 요디 쫄랑허고 영 헌 모제. 경헌 갓덜은 윈 멘듬사 헤신 디 어떻사 헌디 썩언은 텅겨라.  
106040 @ 음.  
106040 #1 어드레 가젠 허민. 아멩이나 쓰질 안 허고. 일 헐 때 아니고 어드레 가젠이나 어떻 허민 그런 모제 썩고. 우리 아바지네 어드레 가젠 허민 그 나까오리 산디 그거 썩영 가고.  
106039 @ 그 여름에는 페랭이 썩주만은 겨울에 추우카부덴 썩난 모자덜은 잇수 과?  
106039 #1 겨난 그 나까오리가게, 허고 옛날은 그 저 규슈 허연 복기쯔기.  
106039 @ 규슈.  
106039 #1 복기쯔기 허연 언날은 거 밧디 갈 땐, 트멍에 무시거 허레 갈 땐 그 런 것도 썩는 사름도 셔 나셔.  
106039 @ 그거 만들영 집이셔?  
106039 #1 어, 만들영 쓰는 거주게.  
106039 @ 솜 낱 만든 거.  
106039 #1 어.  
106039 @ 규슈헐 때 썩난 거?  
106039 #1 어.  
106039 @ 규슈가 무슨 말이과?  
106039 #1 전쟁 일어날 때 규슈.  
106039 @ 공습허게 뉘면?  
106039 #1 으, 공습헐 때.  
106042 @ 계난 그런 것도 해나고. 총 모자, 탕건 같은 거, 망건 같은 건 이 동 네?  
106042 #1 이 동넨 안 허영 어디 저 성산 어디 저쪽더레 탕건 같은 건 멘들주.  
106042 @ 음.  
106042 #1 저 어디 표선 옆이나.  
106042 @ 예, 예.  
106042 #1 이런 디션 그런 거.  
106044 @ 예, 예. 아까 비 올 때 영 쓰는 거?  
106044 #1 초갱이.

106044 @ 초갱이?  
106044 #1 으.  
106044 @ 도롱이엔 안 허고?  
106044 #1 아니, 초갱이엔 헛주.  
106044 @ 초갱이렌 헤나서 이디는예?  
106044 #1 으.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옛날에 밥 헤 먹어난 거 국 헤 먹어난 물어볼건데 생각나는 거 얘기 헤 주시민 텔 거마씨.  
107001 #2 게 옛날이사 보리밥베끼 더 헝 먹어서.  
107001 @, #2 하하하.  
107001 #2 보리밥 그냥.  
107001 @ 밥의 종류가 옛날에, 보리밥?  
107001 #2 보리밥, 감제졸밥. 감제.  
107001 @ 예.  
107001 #2 저, 빼떼기 고구마 찻앙 쓸 엇인 사름 그거 밥.  
107001 @ 예.  
107001 #2 또 막 엇인 사름은 저 뭐고, 등게ㄹ루, 등게ㄹ루엔 현 거 그것도 막 먹엇주게.  
107001 @ 등게ㄹ루가 뭐과?  
107001 #2 보리에 속 껍데기.  
107001 @ 아.  
107001 #2 그거 허영 떡도 헤먹고 밥도 헤 먹어서. 옛날 막 못 사는 사름덜은. 우린 식구 엇이난 경 별로 안 헤 먹고 엇인 사름덜은 그게 등게밥 막 헝 먹고. 그 거 어디 웨국서 와실 거라. 그거 가멩이로 상 막 그 밥 헝 먹어. 보리밥은 이제 거 트민 완전 고급.  
107001 @ 고급. 또 뭐 조팍도 헤 먹고?  
107001 #2 조팍도, 게메 조팍, 보리밥은 고급.  
107001 @ 으.  
107001 #2 엇인 때 숭년에 그 등게밥 감저, 고구마 빼떼기 그 감저 허영 빼떼기 고구마 썰영 물류와 이제 그거 찻은 거 그거 밥도 하영 헤 먹엇주. 툃밥 다 헤 먹 곡게.  
107001 @ 으.

107001 #2 툇은 바다에 툇. 그거 등게 ㄱ루에 허영 엇인 사름은 벨밥 다 헤 먹 엇주 이제 침.

107008 @ 삼춘네 피밥도 헤 먹어낫수과?

107008 #2 핀 안 행 먹언.

107008 @ 아, 핀 안 행 먹언.

107011 #2 우린 벨로 등게밥 무신 밥 안 행 먹어나서. 막 그 뵈고 일본 사름덜 행 공출 받져볼 땐 쓸 막 그 엇이든 그 툇밥 허영 조사 오민 그거 뵈우고.

107011 @ 으.

107011 #2 툇밥 허영 등게 ㄱ루에 허영 그거 뵈우고 보리밥은 행 먹으미 곱져 볼고 막 헛주게. 보리밥은 고급이난.

107011 @ 고급이난 예. 그럼 쓸 종류에는 무슨 쓸, 무슨 쓸이 잇어낫수과?

107001 #2 그땐 줍쌀, 보리쌀베긴 더 엇주게.

107001 @ 뵈 ㄱ물쌀 엇어 ㄱ물쌀?

107001 #2 ㄱ물쌀 잇주게. ㄱ물쌀은 워낙 귀허여 그땐.

107001 @ 게난 이쪽에 ㄱ물은 농사를 잘 안 지엇구나.

107001 #2 아니, 헤난.

107001 @ 헤난.

107001 #2 이제가 안 허주 그땐 하영 허연.

107001 @ 아, 그땐 하영 허연.

107001 #2 그땐 하영 허연.

107001 @ 근데 무사 ㄱ물쌀이 귀헤서?

107001 #2 그건 제사 때베긴 안 쓰주게. 제사 때만 떡허영 ㄱ물떡도 제사에 허 고 이신 집이만 헤서. ㄱ물떡은 맛잇주게. 게난 흐뵈 이신 집이만 건 제사 때 허여. 경 안 행은 보리떡.

107001 @ 음.

107001 #2 엇인 집인 보리떡. ㄱ물떡은 거 흐뵈 이신 집이 즈떡이엔 허영 세미 떡 허고 인절미 허고. 건 흐뵈 고급스럽게 것도. 곤떡이엔 헨 것도 흐뵈 고급 스뵈 어려왕 그때사. 이제야 쓸이 혼헛주. 얼마나 쓸이 귀헤서게 그때는.

107003 @ 게민 보리밥 지어난 거 보리밥 지어난 거 곱아줍서. 보리밥 허젠 허 민 어떻힙니까?

107003 #2 방애에 지어, 뵈방애에 지주게.

107003 @ 뵈를? 보리 가정 강?

107003 #2 보리, 뵈방애에 쉼 메왕게 차경, 창, 차경으로 헤영 쉼 이레 영 매우 뵈게 혼 사름은 당그네로 올리고 혼 사름은 비차락으로 쓰고.

107003 @ 으.

107003 #1 경허영 이제 그거 지영, 두블 지영, 어떤 땐 그냥 다꿈도 허고 이 두 뵈도 다끄고. 그땐 이 방엇간이 엇이난. 경헨 물, 물에 버무려 거 지어, 저 방엇간.

이제 거트민 뿔고 물방에.

107003 @ 물방에.

107003 #2 물방에에 거 지어당 널영 물류와근에 또 그레에 곶앙, 그레에 곶민  
흐끔 헤뜨룩 허여 경허민 이젠 줌쌀은 줌쌀대로 행 줌쌀 죽도 썩 먹고 보리밥도 행  
먹고 헛주. 게난 보리밥은 흐끔 고급. 보리밥에 줌쌀 흐끔 서끈 건 흐끔 고급.

107003 @ 예.

107003 #2 막 어실 때 그거.

107003 @ 게민 보리밥 지을 때 어떻 지어?

107003 #2 장만 허영.

107003 @ 예.

107003 #2 게난 흐 번 씻으는 체 마는 체. 옛날은 물 엇고 헤 노난. 이제니까  
허주. 경허영 밥 불 습양 허주게.

107003 @ 불 습양?

107003 #2 불 습양 허영, 허여 가민 또 영 줌쌀 흐끔 농곡게. 줌쌀 낱 이젠 틈  
재왓당 이제 그거 행 떡곡. 자리도 이제는 저 무시것덜 잇이난 허주 조갱이 옛날은  
전복 겁죽.

107003 @ 예.

107003 #2 그것에 전복 겁죽에. 그거 이제 거트민 남비라. 전복 겁죽에 자리 허  
영 그것에 이 솟강알에.

107003 @ 예.

107003 #2 낭불에 영 헨 거 구웁 그거 완전 고급.

107003 @ 아, 그럼 그 전복 겁데기를 뭐렌 불러난 일름이 잇수과?

107003 #2 전복 겁데기 그거 거평, 거평 허지 안 허여.

107003 @ 거평, 거평예.

107003 #2 게난 그디 자리 낱 저 솟강알에 놔 두민 자리 보글보글 경허영 그거  
완전 고급.

107003 @ 고급인 거라.

107003 #2 고급이라. 아, 게난 우린 하르부지네가 자리 거려 나서. 경허민 우리  
그거 고급으로 자리 먹주. 자리도 이제난 허주 아무나 먹어서게. 자리도 완전 어려  
와.

107003 @ 으.

107003 #2 겨난 자리 거리레 가민 사돈 좃아낫주게. 자리 풀아주지 안 허영. 하  
도 자리만 사젠 허민게 어려우난게. 경허영 우리 계속 그거 쪽 솟강 아래 놔두민  
바글바글.

107004 @ 보리밥 말씀해 주셨고예, 반지기밥은 어떤 것과?

107004 #2 반지기게 곤쌀 흐끔 논 거 반지기주게.

107004 @ 게민 반지기 밥을 만들어 볶서. 어떻 만들어?

107004 #2 계난 보리밥 퀘민.  
107004 @ 으.  
107004 #2 바르르 켈 때 쓸 흐뎡 씻엉 노민 반지기밥이주게.  
107004 @ 아, 보리쌀에 곤쌀 들어간 게 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  
107004 @ 보리쌀에 좁쌀 들어가면?  
107004 #2 그건 반지기 아니고 곤쌀 들어간 거. 계난 반지기밥이 잔치 때 그 반지기밥 헛주게.  
107004 @ 잔치 때 반지기밥?  
107004 #2 잔치 때. 계난 처음 아침밥은 반지기밥 주고 또 그냥 정식으로 주는 건 그냥 막. 옛날은 밥 사발 이만큼 현 것에 수북하게 거러. 경해도 다 먹어. 하하. 이제 현 세 그릇 허여야 현 그릇힐 거라.  
107004 @ 음.  
107004 #2 계난 아침인 그 반지기밥 허영 풋 놓고 허여.  
107004 @ 음. 풋도 놓고?  
107004 #2 풋 낱. 풋 놔근에. 다 옛날은 잔치 때 저 풋 난 밥해서.  
107004 @ 으.  
107004 #2 이제난 안 허주.  
107005 @ 곤밥은 어떻?  
107005 #2 곤밥은 이제 쌀밥이 곤밥.  
107005 @ 어떤 때 먹어져서 곤밥은?  
107005 #2 제서 때베긴 안 멋엇주. 제서 때, 멩질 때베긴.  
107005 @ 아.  
107005 #2 계도 그때 흐뎡씩 쥘. 현 숟가락씩. 하하하. 현 숟가락씩 주주게 이제 거치 사발ㄴ득 주카분덴. 영 쪼끔, 이제 거트민 영 현 움큼 허여근에. 계난 멧밥, 멧밥이렌 허엿주게 .  
107005 @ 멧밥?  
107005 #2 멧밥.  
107005 @ 계난.  
107005 #2 옛날은 잔치 때 새각시 밥 이제 영 헤영 가짓쟁이 큰 거 허영 주문 이제 아이덜은 창 무똥이 빈주렁허게 앓으면 그 밥 현 숟가락씩 더 줘. 손 영 내밀면 현 숟가락씩.  
107005 @ 누가 새각시가 주는 거라?  
107005 #2 아니. 그 들러리 온 사람이. 그 곤밥이 얼마나 귀혜사, 그 쌀밥이 얼마나 귀혜사 거 경 줘게. 계난 창 무똥에 밥 얻어 먹젠 막 모여앗앙.  
107005 @ 아.  
107005 #2 계민 이제 새각신 미안허난 현 숟가락 두 숟가락, 현 서너 숟가락만

흐뭇 떠 먹주게. 겐 그 밥 손덜 다 내밀명. 곤밥 얻어먹젠게.

107005 @ 곤밥 얻어 먹젠.

107005 #2 곤밥 흐쓸 얻어 먹젠.

107005 @ 계민 이디 곤밥 지어 먹젠 산디 농사 헛다예?

107005 #2 아니 우린 산디가 아니고 나룩 허연 용당이난.

107005 @ 아. 용당 바로 옆이 아니?

107005 #2 으. 그 고산 사이에 거의 다 논이라. 이제 농사 안 짓으난 헤도.

107005 @ 아.

107005 #2 다 논. 계난 우리도 이디 온 때꺼장 나룩 갈아난.

107005 @ 나룩 갈아난예?

107005 #2 나룩 갈아난디 이젠 다 풀밭 뒤연. 계난 우린 산디 안 허영 나룩 헤 먹연. 처음엔 그냥 덩병덩병 싱그단 이제 멘에서 줄로 싱그렌 허난 줄로 싱건. 계난 줄로 싱그민 막 좋는디 그때 옛날은 몰랑 아무디나 똑딱똑딱. 겐 멘에서 줄 짝 천 줄로 딱딱 꽃은 디만 싱그민 풀 메기 좋고 뒤. 경헨 검질 약 주고 헤가난 오꽃 설러불언.

107005 @ 음.

107005 #1 옛날은 막 손으로 메엿주게. 나룩, 나룩 갈은 손으로 막 멘디 그 무시거 마세토 나오단 무신 한테렌 헨 거 나오난 검질 엇어가난 나룩 설러불언.

107005 @ 그거 약 이름?

107005 #2 으.

107005 @ 그거 나와가난 나룩 설러불언. 계민 나룩 농서 지엇시민 곤밥 하영 먹어신게.

107005 #2 경헤도 그거 풀양 그걸로 돈 허주게 하영 먹을 거 어디 셔게.

107005 @ 아.

107005 #2 그자 운동회 때 멩질 때베긴 안 허주게. 쓸 먹지 안 허여.

107005 @ 으.

107005 #2 말째라가사 쓸 먹엇주.

107005 @ 말째라가사 쓸 먹엇주?

107005 #2 으, 흐쓸 이 쓸들이 혼헤 가사 먹엇주 안 먹어. 거 다 풀양 걸로 그 거 큰 돈이라. 거 풀고 거 바짜. 그때 시절에도 혼 가멩이 오륙만 원이고게. 이제가 막 헨턴 셈이라. 그때 흰 십 멩년, 십오 년 이십 년 전이도 오륙만 원 헤서 쓸. 나룩 정부에 바짜믄. 계난 그걸 풀주 먹어게.

107006 @ 예. 조팝에 대해 글아줍서, 조팝.

107006 #2 조팝은 그냥 줍설만 낱 그냥 찢어 낱 허주게, 보글보글.

107006 @ 보글보글.

107006 #2 으. 불 슴양게.

107006 @ 보글보글 허민 익는 거?

107006 #2 으. 조팍이 막 빨라. 보리밥은 케여 낱 한참 싯당 그 좁쌀 낱 또 허고 허는디 조팍은 금방 웨여. 쉬와, 쉬와.

107007 @ 풋밥은? 풋밥은 어떻 만듭니까?

107007 #2 풋밥은 풋만은 안 허주게.

107007 @ 풋만은 안 헤. 어떻게?

107007 #2 풋 숯양 보리밥에 허민 그거 완전 고급 것도.

107007 @ 고급. 계난 아까 잔치 때 풋밥 헛엇던 거 아니?

107007 #2 풋 숯아 낱 보리쌀에 허경 풋밥 허주게.

107007 @ 주로 잔치 때 헛니까?

107007 #2 잔치 때. 잔치 때 안 허영 풋밥 안 헤.

107007 @ 어.

107007 #2 겨난 잔치허젠 허민 풋 혼 말씩. 잔치헛 때 옛날은 쓸도 혼 석섬씩 두섬씩. 큰 맥에 허영 이젠 밥 맥에 퍼낫주게. 멩텅이. 맥 알아?

107007 @ 예. 맥 알아집니다. 산디쪽으로 영.

107007 #2 어, 것에 퍼 놔. 막 밥에 그 짝 다 부떠. 경해도 거 막 먹어. 경혜영 질구덕에도 푸고 질구덕만 다 아이 웨난. 쓸은 질구덕에 씻어 놓고.

107007 @ 겨난 쓸.

107007 #2 쓸 석섬, 두섬 먹어.

107007 @ 손님이 많아부난 아니?

107007 #2 아니, 밥을 하영 먹어 받아가고. 아기덜 돌아왕 받아가고 먹고.

107007 @ 으.

107007 #2 이제 반도 안 헛주 손님이. 이제가 손님, 저 친목이니 뭐니 웨방서니 뭐 오주, 옛날에사. 동네 사름허고 친족베끼 안 와. 경해도 하영 먹어. 밥사발이 이제 시곱, 니곱 먹으난게.

107008 @ 피밥은, 피밥?

107008 #2 핀 잘 안 허여.

107008 @ 으.

107008 #2 뭐고, 저 대죽밥은 허여도 피밥은 안 헤봤주.

107001 @ 아, 대죽밥이 잇어낫수과?

107001 #2 대죽쫄 대죽. 이거 대죽 닳아, 이거.

107001 @ 예.

107001 #2 나 이거 쥘게. 이거 대죽 아닌가?

107001 @ 수수, 수수.

107001 #2 으, 계난 대주 닳안게 나.

107001 @ 요즘은 건강식으로 이거 막.

107001 #2 계난 우리 마농 험시난 농촌지도소서 왓ㄴ렌 허명 이거 네 개 저, 좁쌀 하나.

107001 @ 으.

107001 #2 지장쫄 하나 이거 두 개 담아진 거 가방 하나 쥘게.

107001 @ 으.

107001 #2 마농 이떡냥으로 쫄랑 그거 재어 빵. 멧 키로 나느니 그거 재여 빵.

107001 @ 아. 평당에 얼마나 남신가?

107001 #2 으. 그거 재레. 여자 서이 와신가.

107001 @ 예.

107001 #2 경헨 이거, 이거 대죽쫄 닐아.

107001 @ 대죽밥은 헹 먹어난 거 아니 삼춘?

107001 #2 옛날 대죽밥 헹 먹주게.

107001 @ 대죽밥은 어떻 만들앗수과 그럼?

107001 #2 대죽밥도 그냥 조팍 허듯 허민 뉘여.

107001 @ 조팍 허듯. 그럼 대죽쫄도 금방 익어?

107001 #2 금방 익어.

107001 @ 대죽쫄 장만은 어떻 험니까?

107001 #2 옛날은 다 남방에게.

107001 @ 예.

107001 #2 남방에 뺏고. 대죽쫄은 돌방에 갈 거 엇고 남방에.

107001 @ 많지 안 허난예?

107001 #2 으. 남방에. 남방에 우리도 셔나서. 남방에 돌방에 신 집도 짓고 남방에 신 집도 짓고. 게민 그거.

107001 @ 그거 다 일일이.

107001 #2 으게. 너이도 짓고 서이도, 시콜방에. 시콜방에, 네콜방엔 잘 짓는 사람.

107001 @ 예.

107001 #2 시콜방엔 기자 보통. 저디가 흔 번 허민 나 흔 번 다 맞춰.

107001 @ 예, 맞춰사 허난예.

107001 #2 이어사 이어사 허멍 그 소리에 맞추멍게. 소리에 맞창.

107001 @ 아.

107001 #2 제기 허젠 허민 둘이가 마주침 안 뉘 거난게, 요만헌 구멍이난게 딱 구멍만 찍어야 뉘 거난.

107001 @ 그럼 그 대죽 남방에 지민 이런 쫄이 나옵니까?

107001 #2 나와, 나와. 영 저 뉘고, 이런 디 그렛방석 허연 아까 곶은 저 전북 겁죽으로 홀터.

107001 @ 전북 겁데기로 홀터.

107001 #2 으.

107001 @ 대죽쫄.

107001 #2 그런 것도 홀트고 찻망으로도 홀트고.  
107001 @ 찻망으로도 홀트고. 아, 클로 안 험니까?  
107001 #2 클로 안 해. 저 나룩은 클로 하여도. 대죽살은 클로 못하여. 묵싹해부  
난.  
107001 @ 아, 기.  
107001 #2 케난 찻망, 찻망에 영 자락자락 홀터져. 거 뒛고 콩밭에 낫당, 콩밭데  
낫당 그거 끈어 왓주게.  
107001 @ 으.  
107001 #2 케난 그거 무슨 대죽이엔 허멍 먹는 대죽이엔 허멍 허고. 비자락 멘  
드는 대죽은 빗대죽. 그건 이제 이제 쓸대죽 헛주게.  
107001 @ 으.  
107001 #2 쓸대죽은 허영 조갱이로도 영 굵으고 주로 저 뒛고 찻망. 찻망으로  
자락 자락 헐 겨주.  
107001 @ 으. 조갱이는 뭐라?  
107001 #2 아까 전복 겁죽 조갱이.  
107001 @ 그 전복 꺾질을 거평이렌도 허고?  
107001 #2 으, 조갱이엔도 허고.  
107001 @ 조갱이엔도 허고. 어떤 때 거평이엔 허고 어떤 때 조갱이엔 해?  
107001 #2 거평은, 할망덜은 거평이엔 잘 해.  
107001 @ 예.  
107001 #2 으, 조갱이, 조갱인 흐뎡 그냥 사름덜이 조갱이엔 잘 끈고.  
107001 @ 아, 조갱이.  
107001 #2 조갱이 흐뎡 죽은 거 거평은 큰 거.  
107001 @ 음.  
107001 #2 큰 건 거평. 옛날은 조갱이 막 컷주게.  
107001 @ 예.  
107001 #2 케난 그디 자리 보강 먹엇주. 케난 그 고망 잇지 안 허냐, 전복 고망  
에 영 뒛으로 막앙.  
107001 @ 뒛로 막앗수과?  
107001 #2 험벅으로 막아.  
107001 @ 국물 세지 말게?  
107001 #2 어. 겐 거 보까 먹어서. 바글바글 헨 보까 먹언. 막 거평에 거 맛잇덴  
허멍 해낫주.  
107001 @ 음.  
107001 #2 반찬이, 큰 반찬 그거. 옛날에 마농지도 고급 반찬. 뒛 반찬이 일절  
이제 거치 이거니 저거니 반찬이 이서게. 마농지 허고 몹치. 몹치허고 마농지.  
107001 @ 반찬은 이땅 물어보쿠다예. 이 대죽밥은 맛 좋앗수과?

107001 #2 맛 좋주게, 맛 셔. 떡도 맛 셔.  
107001 @ 떡도 맛 셔?  
107001 #2 으.  
107009 @ 감저밥도 헤낫수과?  
107009 #2 케난 그거 아까 감저쫄, 감저쫄.  
107009 @ 감저쫄?  
107009 #2 고구마, 빼떼기 들류왕.  
107009 @ 예.  
107009 #2 뽕앙 요만씩 허게 현 것이 감저쫄.  
107009 @ 으.  
107009 #2 케난 그거 보리쫄에 막 하영 놔. 감저밥.  
107009 @ 아, 빼떼기 가루 내당.  
107009 #2 가루는 수제비 행 먹고 수제비 빼당 훑은 거는 거 이제 밥에 낱 먹어.  
107009 @ 아, 밥에 낱 먹어?  
107009 #2 으. 그 가루는 수제비 행 먹고. 감저 수제빈 주로 하영 행 먹고 케난 요만씩 현 건 쫄에 낱 밥 허민 검영 헤도 맛셔.  
107009 @ 그런 거 말고 감저를 잘랑 찌당 거기에 밥 좁쌀 놓든.  
107009 #2 건 이제사 경 먹엇주. 옛날에 경 안 허여.  
107009 @ 아.  
107009 #2 이제가 이제 우리 육지 간 때 경헌게. 육지서 경허영 먹언게. 아니 거 막 맛셔. 빼떼기 감저 빼떼기 헤영 강녕이 가루 낱 먹고 육지서도 허고 이디서 경 허영 솥아 먹은디. 옛날엔 감저밥, 우리 이몬 쫄 문딱 허연 신랑 저 일본 보내는 차비 허난 매날매날 감저밥만 행 먹어서. 감저 쫄밥만.  
107009 @ 으.  
107009 #2 난 스몫 영양실조 걸렘텐 허명. 그 감저 빼떼기 아메도 보리밥만 못 허주게.  
107009 @ 빼떼긴 옛날서부터 만들엇다예?  
107009 #2 으. 옛날에 빼떼기 하영 만들엇주.  
107009 @ 옛날에 기계 나기 전에는 거 칼로 다 썰엇수과?  
107009 #2 아니, 영 손으로 돌리는 기계.  
107009 @ 손으로 돌리는 기계. 납작납작허게 썰어지는 거예?  
107009 #2 그 찰찰허게 경허단 그 다음에 그 막 크게 허연 뒷고 이 정운기에 메왕 달달달. 그거 허민 혼 시간 얼마씩 그거 썰어 쥘. 막 그거 썰기 쉬와게.  
107009 @ 손으로 돌리는 게 삼춘 어린 때도 잇어낫수과?  
107009 #2 잇어난.  
107009 @ 아, 손으로 돌리는 거 잇어난.

107009 #2 으, 거 정부에서 줘서게. 우리집이 아덜이 이제 오십여섯인가 큰아덜이 겨난 벌벌 기여 강 그거 영 허어부난 가족 마땅 벗겨져변.

107009 @ 누가?

107009 #2 우리집 아덜이. 이제 오십여섯인디 두 설 때쯤 돼여실 거라. 겨난 우리 썰단 놔똥 영 허느네 허난 감저 담는디 기여 강 그 늘에 강 딱 헤여부난 이디 문딱 벗겨전게. 지냥으로 허연. 그 늘신디 강 헤부난 지냥으로 돌린 거라. 우린 감저덜 좇어 놓단 보난.

107009 @ 음.

107009 #2 오십여섯 오십여섯 맞아 우리 큰아덜. 경헨 겁죽 마땅 벗어져서. 게난 그 전이도 잇어나서.

107009 @ 으. 게난 그 전이도 잇어났구나.

107009 #2 으. 잇어난.

107009 @ 그 기계 잇기 전에 칼로 썰어 본 기억도 잇수과?

107009 #2 칼론 안 썰언 주로. 아니, 저 밤이 거튼 때 저 칼로 썰주게. 밤이 거튼 때 칼로 썰어. 칼로 썰영 잘 아니 몰라.

107009 @ 으, 두꺼웁.

107009 #2 두터와부난. 기계로 썰어났주. 그 기계 엇인 사람은 빌어단도 허고. 이 저 면에서 얼마씩 헨 거 줘서 우리 생각에.

107009 @ 그 기계를 나눠 줘.

107009 #2 엇인 사람은 엇어. 겐 빌어단도 허고. 경 허단 이제 우리 결혼허영 흐뎡 뉘 때 그 모다 메왕 경운기, 경운기에 영 행 그거로 거 두 개, 그런 기계가 두 개 메왕 막 썰언.

107009 @ 으.

107009 #2 게난 사람 힘으로 안 들영 막 쉬왔주게. 게난 흔 시간에 그때 얼마씩 허영. 막 영업허는 사람이 셔.

107009 @ 경헨 맞디서 그냥 몰렸수과 그걸?

107009 #2 아이 처음엔 맞디 물리우질 안 허고 지어당 나왔디 강 널영 몰령 불리젠 허난 막 힘들어났저. 말젠 다 맞디 그자 땅에 썰어놨.

107009 @ 하하하.

107009 #2 게난 머리가 츄츄츄츄. 그뎨 멍청허고.

107009 @ 으. 게도 출맞디 넌 게 굵지 안 허여?

107009 #2 고와도 그 출 불리젠 허민 상당히 힘들어.

107009 @ 묻은 거?

107009 #2 출게, 출. 그거 이제 글쟁이로 굵을 거 아니?

107009 @ 예.

107009 #2 게민 거 불러야지. 맞디 넌 건 그냥 좇이민 돼여. 맞디 넌 건 그냥. 비 온덴 허민 밤이 좇고. 아이고 옛날 삶이야 이제 삶으로 생각허든 완전.

107009 @ 예. 케민 그 감저 빼떼기도 글젠 허민 뒤편에 글앗수과?  
107009 #2 그, 그거. 아, ㄴ는 건 똥방에게.  
107009 @ 똥방에?  
107009 #2 으, 똥방에.  
107009 @ 빼떼기를 똥방에에 강 글야?  
107009 #2 으, 똥방에 강 쫓아.  
107009 @ 케민 그거 ㄴ루게 뉘여.  
107009 #2 어게. 또 허여 낱 치꼭게.  
107009 @ 으. 청 ㄴ루는 즈베기 헝 먹고?  
107009 #2 으, 겨난 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으라가지주. 게  
난 대거름체로 치영 즈베기 허영 먹주.  
107010 @ 으, 음. 무팍도 헤 먹어났수과?  
107010 #2 무팍 허주. 무팍도 허고 우리 무 허연 저 밀카루에 그거 막, 그거 제  
서 때도 그거 큰 뉘 허여서.  
107010 @ 그거 어떻 헤?  
107010 #2 무 썰영 밀가루 약간만 무청 찌른 막 맛 셔. 떡.  
107010 @ 아.  
107010 #2 거 친떡으로 우이 시루추룩 허영. 겐 제사집이 그것도 허영 놔 낫주  
게. 이제난 허지 옛날에 다 제서허민 줘서.  
107010 @ 친떡 안 헤 가지고.  
107010 #2 케메 그 친떡이 무, 무허영 침떡,  
107010 @ 아.  
107010 #2 좁쌀 침떡은 어렵고 그 늣뻘 막 하영 썰어 낱 밀가루 흐꿈만 부짱  
허민 거 막 맛셔. 경허민 그거 삼메떡 줘도 막 맛잇젠 허여. 거 무떡.  
107010 @ 무떡. 밥은, 밥은. 밥은 어떻 헤? 무 낱 밥은?  
107010 #2 무 낱 밥은 그추룩 허영 어떤 사람이나 헤 먹주, 무 낱 밥은 잘, 잘  
안 헤 먹어.  
107010 @ 잘 안 헤 먹고?  
107010 #2 으.  
107010 @ 옛날에 무 말고 옛날에 밧디 강 캐는 거, 못?  
107010 #2 드룻늣물.  
107010 @ 드룻늣물 말고 뿌리 캐는 못도 잇어나지 안 헛수과?  
107010 #2 엇어난.  
107010 @ 엇어난?  
107010 #2 엇어나서. 드룻늣물은 캐레 뎡겨난. 드룻늣물 썩마농.  
107010 @ 으.  
107010 #2 견디 이젠 드룻늣물 종류가 잘 엇어. 늣물 엇어난 거 해당 먹주게.

보리왔디 강 막 캐곡.

107011 @ 툃, 툃밥은 어떻 헛수과? 툃밥?

107011 #2 툃밥은게 거 바당에.

107011 @ 툃밥이엔 헛수과, 툃밥이엔 헛수과?

107011 #2 툃밥, 툃밥.

107011 @ 바당에 강.

107011 #2 바당에 해당 숲양 그거 물 컷당 그거 즘질즘질 밥에 썰어놓민 밥이 해주게. 게난 늘와 먹젠. 게난 우리도 제국시대엔 그 보리밥 헤 먹젠 허믄, 공출 바찌렌 헌다 허믄 곱지곡 그 툃밥 허영 마루 허경 그거 허영 영 행 먹엄ㄴ렌 헛주.

107011 @ 아.

107011 #2 공출 막 바찌. 만일 쫄, 보리 열 가마니 해당 열 가마니 바찌불민 엇지 안 허여. 겨난 이제 막 잣담 광도 묻고 어디 강 땅 광도 묻어서 그 쫄.

107011 @ 보리쫄을?

107011 #2 보리 곱져불어.

107011 @ 으.

107011 #2 겐 엇덴 허연게 겨가믄 그 툃밥허영 뵈왔주. 우리 영 행 먹엄ㄴ렌, 쫄 엇영 영 행 먹엄ㄴ렌.

107011 @ 아.

107011 #2 그 등게ㄴ루에 툃허영 낱. 아니 경허영 먹는 사름이 하서. 옛날에.

107011 @ 으, 으.

107011 #2 게 우리도 그거 툃밥 역불로, 조사 왓저 허민 하영 헤저.

107011 @ 툃밥은 툃 숲아난 다음에 물 쟁 놔뵈당.

107011 #2 물 쟁 놔 뵈당 썰영.

107011 @ 썰영 밥은 쫄이랑 마치 놓는 거 아니면 밥 다 뵈 가민 놓는 거?

107011 #2 마치 낱 허여. 아이 거의 등게 마루에 헤서.

107011 @ 보리썰 가루 안 허고?

107011 #2 보리썰 겹데기 벗어진 게 등게 마루.

107011 @ 등게 마루.

107011 #2 아이 그 등게 마루가 어디 웨국사 산디 막 가멩이로 와.

107011 @ 으. 가멩이로 들어온 거는 한참 후제 아니?

107011 #2 장서허레 막 들어와게. 우리 혼 열 멧 설쫄 뵈 뵈가 그때가 막 들어왕 허연 그걸로 등게 마루 밥 허연 먹은 사름 막 하.

107011 #2 막 그뵈 쫄이 어려완. 비료가 엇어부난게.

107011 @ 예.

107011 #2 비료가이 다 할당으로 쫄 비료 엇어주게. 비료 엇이난 땅에 강 춤물 쫄어당 이제 오쫄. 오쫄이 막 고급 걸름이라. 오쫄항에 그 춤물을 낱 썩여 거 밧디 가져가서.

107011 @ 아니 오줌항에 찰물 넣는다고 해도 그거 썩습니까?  
107011 #2 경허민 걸어. 그거 걸어.  
107011 @ 그거 걸어마씨?  
107011 #2 바닷물 질어당 찰물 오줌항에 놔. 오줌도 흐뎀 낳. 그거 이젠 밧디 질어당 보리왔디 줘.  
107011 @ 어.  
107011 #2 경허민 그거. 비료가 엇어부난.  
107011 @ 오줌 늘리젠.  
107011 #2 오줌 늘루젠. 몸 해당 더끄고. 게난 몸 해당 더끈딘 흐뎀 보리가 나고 그건 현디. 경 안 허민 보리가 비어 먹지 못허게 쫄르고.  
107011 @ 음.  
107011 #2 경허사 흐뎀 쏘이. 경허난 쏘이 어려와.  
107012 @ 패밥도 헤 먹어 봤수과?  
107012 #2 패밥 헤 먹언.  
107012 @ 패밥은 어떻 험니까?  
107012 #2 패밥 패 해당 물룣.  
107012 @ 으, 물룣.  
107012 #2 물룣 막 숲양게. 엇인 사름덜은 경허영.  
107012 @ 패는 바당에서 헤 오는 거 아니?  
107012 #2 으.  
107012 @ 물룣은?  
107012 #2 물룣은 밧디. 이제 엇어.  
107012 @ 그지예. 그 물룣이 밧디 뿌리 캐는 거예?  
107012 #2 으. 엇어 이젠 물룣.  
107012 @ 물룣이랑 패랑 ㄱ치 낳 허는 거 밥을?  
107012 #2 으. 아, 경허영 저 항아리에 막 숲아.  
107012 @ 뭘?  
107012 #2 그 물룣을. 막 돌아 경허민. 거 엇인 사름덜이 그거 물룣 숲양 먹주게. 게난 경허난 그거 이제 잇는 집이 강 물룣 혼 양철 가정 가민 쏘 양철 가져 가고. 게난 우리도 저 오쟁이네 누구네 물룣 그거 막 숲양 으져왕 우리 사당 막 할망 ㄱ라 사도렌 행 먹어나서게. 돌아 막 들코름 현게.  
107012 @ 아.  
107012 #1 겐디 막 하영 먹으민 목 아파. 목 아파. 게난 거 패 놔사 사락사락 허연 물룣 우려진 물에 들주게.  
107012 @ 그럼 이 패밥은 패만 낳 허는 게 아니고 물룣이랑.  
107012 #2 물룣에 패. 그거. ‘  
107012 @ 쏘은 무슨 쏘?

107012 #2 쓸 아이 놔 그 물릇에 꽤에 낳 솥앙 그거. 경헨 막 저, 그 물릇만 못 먹으난 흥곰 쓸 신 집이 물릇덜 솥아 으저 가. 겐 쓸 혼 사발 빌어와. 바짜. 우리도 용당 살 때 오생이네가 죽장 물릇 솥앙 으저와. 경, 경 쓸 바꾸레. 겐 바판 먹어나 서게. 우리냥으로 솥진 안 허고.

107012 @ 음.

107012 #2 게난 옛인 사름 물릇 솥앙 먹엇주게. 게난 그거 신 집이 강 쓸도 바 짜당 먹고. 팬, 막 이제도 하 팬. 겐디 물릇은 엇어. 물릇은 옛날에 밧디 막 하난 요 만씩 현 거.

107012 @ 음.

107012 #2 솥으민 막 들크름 현 게 옛추록 돌아.

107012 @ 으. 게난 그거 오래 솥아야 현덴 험디다.

107012 #2 그거 오래 솥아.

107012 @ 예.

107012 #2 게난 향아리에 마 담양 막 씻영 향아리에 막 담양 흑으로 막 데견에 솥앙 먹어. 솥디 안 솥앙.

107012 @ 기.

107012 #2 솥으는 사라덜이.

107012 @ 무사 독 빠지렌 허는 거?

107012 #2 몰라. 어떻사 헤신디. 우리 어린 때. 우리 혼 열댓살 때 물릇 주로 솥 앙 먹엇주게.

107012 @ 음.

107012 #2 게난 우리 용당서도 서너집이만 물릇 솥안게.

107012 @ 으.

107012 #2 우리 안 솥아 보고 겐 솥으는 디 간 보믄 그 향아리에 꽤 놓고 물릇 놓고 허영 흑 막 데겨근에 이 알로 불 떼여. 솥앙, 흥루, 혼 이틀 솥으는 거 답아.

107012 @ 으.

107012 #2 경허영 이제 식으민 이제 그거 들크름 현 게 이제 거트민 배추 달린 거 거치 벌경허고 맛 셔.

107012 @ 음.

107012 #2 맞은 셔. 게난 이제 우리 막 할망ㄹ라 쓸 주민 물릇 바짜당 먹켄 허 명이. 헤나서.

107013 @ 예. 밥 헤시난 이제 국 물어보쿠다. 국. 국에 종류에는 뭐 잇수과?

107013 #2 국이사 옛날에사 호박국베끼 더 잇어샤.

107013 @ 호박국.

107013 #2 호박입국.

107013 @ 호박입국. 느물국? 송키국?

107013 #2 저 늬삐도 잘 엇어 옛날에.

107013 @ 예.

107013 #2 늪빼 이녀만씩 같지 안 허영 조수 가사 건 사와.

107013 @ 아.

107013 #2 늪빼 갈 충 몰라.

107013 @ 몰라.

107013 #2 갈 충 몰라. 우리 조수 강 늪빼 사례 강 그 입사구리도 막 짓고 어떻 허당 요만헌 거 하나 봉그고. 쉼로 시경도 오곡 경허영 이제 물어 놔둬서 먹언. 늪 빼 갈 충 몰란게. 배춘 해도.

107013 @ 아. 배추 녹물은 해도.

107013 #2 배추 속 배추도 아니고 그냥 퍼대기 배추.

107013 @ 퍼대기 배추.

107013 #2 퍼대기 배추 허영.

107013 @ 계민 국 종류는 아까 호박입국.

107013 #2 메역국.

107013 @ 메역국. 그거뿐?

107013 #2 으.

107014 @ 그럼 하나씩 물어보쿠다. 녹물국은 어떻 끝렸수과?

107014 #2 그거 배추국계.

107014 @ 배추국이 녹물국이라?

107014 #2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107014 @ 국 끌려봅서. 어떻 끌립니까? 지금말고 옛날에 어떻 끝렸수과?

107014 #2 그냥 이제나 마찬가지로 그자 불 슴양게 끌리당 웬장 일어 낡.

107014 @ 물 끓어 가면은 웬장 놓는 거?

107014 #2 으, 계민 녹물탕 웬장 놔. 이제 거치 뭐 메르치 놓고 다시다 놓고 해 게 옛날에사. 경해도 맞셔.

107014 @ 맞셔?

107014 #2 담은 장이난 맞셔. 담은 장이난 맞셔. 계난 그저 녹물국, 녹물 퍼대기.

107014 @ 으.

107014 #2 드룻녹물 그거 케당 허곡. 녹물 가는 걸 몰른 거라. 이젠 속 앓는 녹물 잘 돼는디 옛날은, 늪빼도 문달문달 잘 돼도 옛날 녹물 가는 걸 몰란.

107014 @ 음.

107014 #2 조수 아이 가민 늪빼라는 건, 이 가인으로 안 같아서 이 해변은. 가는 걸 몰라부난.

107014 @ 음.

107014 #2 경험. 우리 어린 때 죽장 조수 강만 사당 먹언. 늪빼는 경험 영 구텡 이 팡 짝 낡 이제 늪빼 문영.

107014 @ 계민 그런 감저 묻는 거랑.  
107014 #2 으.  
107014 @ 마찬가지로다예.  
107014 #2 경 꺼꼴로 낱 놔둬서 하나씩 빠당 먹언. 끌렁 먹엇주게.  
107014 @ 아. 감저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행.  
107014 #2 영 구텡이 파민 바우로 짝 낱 이레 늠뻬 낱, 늠뻬 꺼꼴로 다 세왕 순  
나지 못허게.  
107014 @ 아, 거꼴로 세왕.  
107014 #2 으. 경헝 행 먹언. 메역은 우리 다 풀젠. 메역은 낭 짓엉 다 풀아 옛  
날은 메역 경 므음대로 먹지 안 허여. 돈 받젠. 이젠 메역이 썩어 빠진디 안 먹는다  
그때 돈 받젠 메역도 다, 침 메역 경 막 빨안 먹어시카부덴.  
107015 @ 음, 저기 콩누물은 안, 안 질랏수과?  
107015 #2 콩누물은 제사허젠 허민게.  
107015 107015 @ 그림 콩누물국은 안 끌려 먹언?  
107015 #2 안 끌려 먹언 제서헝 때만 먹주 안 먹어.  
107015 @ 콩누물국 따로 안 먹엇구나.  
107015 #2 으, 제서 때만. 제서 때만 그자 혼 사발 물 웃젼. 옛날은 콩누물 상  
먹지 안 허영 다 이녁냥으로 제서허젠 허민 낱 먹어서. 아니 건 막 쉬와. 영 아래  
저 짝 슬앙.  
107015 @ 으.  
107015 #2 짝 슬앙 험벅 길앙 그 짝 슨 거 낱 콩 물 웃저당 그레 낱 물 주민  
막 빨리 커게.  
107015 @ 짝 슬아가지고?  
107015 #2 으.  
107015 @ 거 무사 짝 스는 거?  
107015 #2 짝 슬앙 그 험벅에 낱 그 짝 슨 불치에 낱 허민 콩누물 막 빨리 커.  
107015 @ 거기도 거름 주는 것과? 하하하.  
107015 #2 몰라, 경헝 키와난 우리 어틸 땐.  
107015 @ 아, 기과?  
107015 #2 어린 때 아닌 옥은 때, 요 멧 년 전이꺼장 경헝 키완.  
107015 @ 아, 짝 슬앙.  
107015 #2 빨리 커.  
107016 @ 콩나물. 무국, 무국은?  
107016 #2 무국은 늠뻬국이주게.  
107016 @ 예, 예. 늠뻬국은 어떻 끌럼수과?  
107016 #2 늠뻬 국도 기자 웅장. 주로 늠뻬국은 장물.  
107016 @ 장물?

107016 #2 장물. 장물 낱 끌러. 늬삐국은. 이젠 간장 안 현디 옛날엔 다 간장 담으난게.

107016 @ 으.

107016 #2 맞셔, 맞셔. 메역국도 거의 간장 낱 끌리고.

107016 @ 예.

107016 #2 늬물국만 웬장 낱 끌리주.

107016 @ 오, 오. 간장 낱.

107016 #2 간장 낱 끌러.

107017 @ 콩국 끌러보십서.

107017 #2 콩국은 기자 콩ㄹ루 카. 물 끌영 레가른 비왓당 소금 흐뵂 집어 넣고. 옛날은 소금 안 집어 난. 것도 간장 난.

107017 @ 음.

107017 #2 경헨 끌러. 이제난 계란 낱, 콩국 끌릴 때 계란 카 낱주 옛날에사 경계란 카 낱서게. 다 ㄹ레에 곤 콩 허영 그냥 콩국. 콩국도 완전 고급, 콩죽도 고급 옛날엔. 이제, 이제로 생각허믄.

107017 @ 아, 콩국 끌릴 땐 소금으로 간 헛구나?

107017 #2 아니. 간장으로, 옛날은 간장으로. 이젠, 이젠 소금으로 간 허는디 옛날은 간장으로 간 허여.

107018 @ 아까 호박입국 하영 끌영 먹엇덴 헤신디 호박입국은 어땡?

107018 #2 호박입국은 옛날은 보리쌀 ㄹ루게. 이젠 밀가룬디.

107018 @ 어.

107018 #2 옛날은 보리쌀 ㄹ레에 달달 곶앙게. 게 맞셔.

107018 @ 물 끌으민 뉘부터 낱?

107018 #2 물 끌으민 호박입 낱 그 다음 ㄹ루, ㄹ루 칸 거 낱.

107018 @ 웬장이나 소금은 안 놓고?

107018 #2 아, 옛날엔 간장.

107018 @ 간장?

107018 #2 이제난 소금 놓주 옛날은 죽장 간장, 웬장 국 끌릴 때 놓주.

107018 @ 국 끌일 때 웬장 놓는 건 아까 늬물국밖에 없잖아?

107018 #2 늬물국만 낱. 이 무국, 메역국은 다 간장 낱 끌러 옛날은.

107018 @ 간장이엔 곶아수와 삼춘 장물이렌?

107018 #2 장물게. 옛날은 장물. 이제가 간장이엔 허주.

107018 @ 기지에.

107018 #2 이제가 간장이주, 옛날은 장물이주게. 장물 계난 큰항으로 콩 닷말씩 솥앗주게우리도. 닷말 솥앙 허영 큰항으로 하나 간장 빼여 노명. 계난 이제난 하간 거 이거 장물 사당 먹엄주 옛날은 사단 먹어서게 다 간장으로 떡곡. 그 간장이 고기 반찬이라.

107018 @ 간장이 고기 반찬이라.

107018 #2 으, 으. 밧디 갈 때도 웬장 혼 통 아정 강 웬장죽만. 웬장에 새우리 썰어 논 거 거 큰. 그자 거베긴 안 아정 가주. 반찬 아정 가.

107018 @ 맞수다.

107018 #2 마농지. 잘 아정 가사 마농지에 몹치.

107018 @ 몹치.

107018 #2 몹치.

107019 @ 몹치 이땅 물어보쿠다예. 몹국은 어떻 끝립니까, 몹국.

107019 #2 몹국은 그냥 몹 빨앙.

107019 @ 예.

107019 #2 그 웨지고기 거튼 거 빼 끌여 낱 거 햄주게. 이제 믱물궤루니 뵈이니 답아도게 옛날에사 경 믱물궤루 셔서게. 이젠 믱물궤루 주로 낱. 견디 옛날은 기자 그거 낱 보리궤루 놓고, 놓고 그자 닥치는 낱 낱. 밀카루도 놓고 헛주. 이젠 주로 믱물궤루 낱. 잔치침이.

107019 @ 으. 그 몹국도 옛날에 집이서 보통 끌려 먹고 헤낫수과?

107019 #2 아이 잔치 때만게. 잔치 전날.

107019 @ 전날?

107019 #2 으, 그 몹국 혼 사발씩 먹어. 그거 잔치 전날 헛주게. 집이서사 어떻 경 끌려 먹어게. 옛날에사 얼마나 못 살아시카부덴.

107019 @ 음. 잔치 때 고기 삶아난 물 잇이난?

107019 #2 그거, 그거주. 이제 다 빌와 붙어도 그거로 끓엿주게.

107019 @ 그거에예?

107019 #2 으, 그거 물이 수돗물이 잇이난 물 허벅으로 지어 오른 그 물 지어 온 사람도 그거 고기 삶아난 물에 몹국 끓영 혼 사발씩 쥘.

107019 @ 음.

107019 #2 물 져 온 사람만 그거 몹국 허영 보리밥 행 쥘. 전날은 보리밥 허여 풋 낱.

107019 @ 으, 풋 낱?

107019 #2 으, 보리밥 허영 거 물 질어 온 사람 몹국 끓영 쥘. 이젠 고기 삶아난 물 안 먹는다 옛날은 막 맛있게 잘 먹엇주.

107019 @ 으.

107019 #2 케고 삼메떡도 빌어가고게. 할망덜신디도 으져가고.

107019 @ 몹도 케당 몹국 헤 먹젠 보관?

107019 #2 막 몹이 옛날엔 잘도 하.

107019 @ 예.

107019 #2 이젠 몹이 잇인다. 옛날은 혼 짐씩 강 헤여 왓주게. 근디 이젠 무사 잇어게 편쥘.

107019 @ 그거 이젠 국 해먹젠 일부러 다 물렁 놔 뒀구나?

107055 #2 으, 물렁 놔 뒀당 빨앙. 게민 그거 장 담으민 장에 낡 놔뒀당 이젠 또 웬장에 묻영 놔 두고. 큰 반찬이주게.

107055 @ 몀을 웬장에 묻영 놔 뒀?

107055 #2 으. 그거 막 맞셔. 경 걸 장물에 묻엇당 이제 장 갈를 땀 건정 또 웬장 소곱에 물어. 경헨 놔 두민 막 맞셔.

107055 @ 으. 경 몀 장아찌가 뒀는 건게?

107055 #2 으, 장아찌 뒀영. 겐 밧디 갈 때 그거 으정 가주게. 그거 놓 빈 때나 으정 가주 이넉만.

107055 @ 그 몀은 웬장에 담앙 놔 두민 그 웬장도 먹어지는 거 아니?

107055 #2 으게. 웬장 먹곡 영 혼착으로 걸어뒀 그 몀 덩어리 영 행 찢렁 놔 주는 거.

107055 @ 아, 경헨 몀 장아찌 만드는 거구나.

107055 #2 맞셔 거. 이제도 시민 먹어짐직 허여. 이젠 몀이 엇어, 엇어. 이 픈는 몀덜은 민지락 헨 게 맛이 엇어. 저 옛날 몀은 막 사락사락 맛 좋아. 이젠 몀이 나 질 안 허여 몀딱 오염 뒀연.

107055 @ 예, 예.

107019 #2 이제 이 몀국 끌리는 몀은 맛있지 안 허여.

107020 @ 예, 예. 그리고 뒀는 어떻 험니까, 그 저 바닷케기 가져가지고도 바닷케기 가정도 국 끓이잖아예. 바닷케기. 바닷케기 뒀로 국 끌려났수과?

107020 #2 메역이나게 늣뻘 낡 끌리민 거 고급이주게.

107020 @ 게, 무슨 생선 낡?

107020 #2 옛날에 주로 갈치. 갈치 한 옛날은.

107020 @ 아, 아.

107020 #2 갈치, 이젠 갈치가 엇어도 옛날엔 갈치가, 갈치, 벤자리 막 하.

107020 @ 벤자리?

107020 #2 으. 벤자리도 하고 불락도 하곡게.

107020 @ 어. 식게 때도 바닷케기로 헨 거 아니? 옥돔도 헤난?

107020 #2 옥돔은 완전 고급으로 끌리고 주로 벤자리도 끌리고.

107020 @ 예.

107020 #2 경헨주 옥돔은 기자 게영국이나 어찌당 첩 끌리주. 게난 메역 아니민 늣뻘.

107020 @ 으, 메역 아이민 늣뻘?

107020 #2 으.

107020 @ 게민 갈치국 끓일 때도 메역 헤났수과?

107020 #2 갈치국, 갈치국은 제사 때 안 끌려.

107020 @ 으, 먹을 걸로.

107020 #2 먹을 걸로. 기자 건 호박 낱 깔리주 이제 거치.

107022 @ 냉국은 어떻 헛수와 냉국?

107022 #2 냉국은 웬장 낱게.

107022 @ 으, 웬장. 냉국 만들어 봅서.

107022 #2 냉국은 웬장 농곡게 그자 초 농곡 허민 웬장이주. 이젠 침 꿔나 흐끔 낱게.

107022 @ 음.

107022 #2 경허른 기자 꿔주기게. 이제 거치 얼음 농곡 뿔허고 허여. 옛날에서 얼음이 어디 싹고 씨릉헌 물이 어디 셔.

107022 @ 예.

107022 #2 기자 질어단 물 평당평당. 아이고 쥬 어려운 건 물 우린.

107022 @ 아.

107022 #2 잘도 물 어려와. 우리 요 싹흥동 살아갈 때 성골왔다.

107022 @ 예.

107022 #2 물이 무사 경 어려와. 침 완전 이젠 자락자락 싹어도 침 물 어려와. 난 쥬 물허고 지들케 어려와.

107022 @ 아, 물허고 지들케.

107022 #2 어. 물허고 지들케 완전 어려와나서.

107021 @ 아. 메역국 꿔여 보싹서, 메역국.

107021 #2 메역국도 기자 메역 기자 영 팔팔 끌어가민 뽕앙 들이침 그자 장물 낱 깔려 우린.

107021 @ 음.

107021 #2 옛날은 다 장물 낱.

107021 @ 음.

107021 #2 이젠 소금이여 뿔이여 헤도.

107023 @ 성계국도 꿔여 먹어낱수과?

107023 #2 성계국도. 아, 옛날은 성계국 엇어. 옛날은 성계 엇어난.

107023 @ 엇어난?

107023 #2 으. 하나씩 싹 거 해당 숲앙 먹주이 이추록 성계 하지 안 허여.

107023 @ 예.

107023 #2 완전 이젠 고급으로 성계도 하고 우미도 하고.

107023 @ 으.

107023 #2 옛날 답지 안 허영 우미 성긴 갑자기 나와서. 옛날은 우미도 쥬금 구 덕으로 하나 허영 메영 흐끔 풀고 성기도 해당 숲앙 그냥 싹영 먹은 디 이젠 완전. 이 성기국은 이제가 끌렛주 옛날은 성계국 안 끌련.

107023 @ 음. 이제 끌리는 거 어떻 끌립니까, 성계국?

107023 #2 성기 우린 기자 무우허고 양과 쥬 낱 숲당 건져 뿔 성기 낱 그자 조

개 다시다.

107023 @ 음.

107023 #2 조개 다시다 낱 소금 낱 끌리민 돼여.

107023 @ 메역은 언제 놔?

107023 #2 메역은 그자 그 성기 놓고 메역 놓고.

107023 @ 성기 놓고 메역 놓고예.

107023 #2 으.

107023 @ 저기 보말국도 끓여 먹습니까?

107023 #2 보말국도 끌렁 먹주게. 보말은 주로 죽이 맞셔.

107023 @ 아, 죽이 맞셔.

107023 #2 으. 죽이 맞셔.

107023 @ 예, 예. 죽 끌리는 건 이땅 물어보고예. 보말국부터 끌려 보십서.

107023 #2 보말도 그자 그자 무르춰여 놔근에.

107023 @ 어?

107023 #2 보말 무르춰여. 무르춰여 그자 메역.

107023 @ 무르춰여? 보말을?

107023 #2 그 똥 무르춰사.

107023 @ 아, 물러지게?

107023 #2 으, 무르춰사.

107023 @ 우선은 보말 삶아낭 그 보말 다 낼 거 아니?

107023 #2 내영 그거 이젠 무르춰영게 그 깍을 문딱 무르춰어살 거 아니. 죽 쏘 때도 무르춰야 돼고.

107023 @ 음.

107023 #2 국 끌릴 때도 무르춰어야 돼고. 경허영 무르춰영 끌려. 경헤영 메역 놓고 헤영 끌리민 돼주.

107023 @ 으, 무르춰영 메역 놓고 행 끌리는 거. 예. 녁패국도 끌려났수과?

107023 #2 녁피?

107023 @ 녁패국, 패국?

107023 #2 패국이 아니고 녁피.

107023 @ 녁피.

107023 #2 녁핀 그 패가 녁피가 돼여.

107023 @ 예, 예.

107023 #2 패가 녁피가 돼영 그거 맞셔. 그거 솥양.

107023 @ 녁피도, 녁피도 오래 솥아야 되는 거 아니예?

107023 #2 아니, 오래 안 솥아도. 거 웬장 낱 끌리민 맞셔.

107023 @ 아.

107023 #2 겐디 이젠 녁피가 엇어 잘. 옛날엔 녁피 메렌 혼 십이월 덜만 나민

막 물찌마다 갖주게. 그거 스퀴양 허민 물자기 맞셔. 그거 끌러. 녀피국 웅장 낱 끌리민 잘도 맞셔. 바룻듬북내 난덴 허멍 풀풀헌 게 맞신는디 이젠. 메역췌도 맛엇고 것도 맛엇고. 옛날 닻지 안 허여.

107023 @ 계민 녀피국 끌릴 때도 물 끌어가민 녀피를 놓는 거라?

107023 #2 아니 녀피 스퀴양.

107023 @ 예.

107023 #2 건 끌어가지 안 헌 때 놔도 뵤여. 스퀴는 거 그레 낱. 녀피 스퀴앗당.

107023 @ 예. 가시리국은 어떻헤마씨?

107023 #2 가시리국은 안 헵 먹어 받. 가시리 범벅은 헵 먹는 사름덜 잇어나서.

107023 @ 예.

107023 #2 가시리 헵 범벅 헵 먹는다 우린 가시린 국 안 끌렁 먹어 받.

107023 @ 아, 국 안 끌렁 먹어 받. 프레국은?

107023 #2 프레국은 웅장 낱.

107023 @ 프레국 웅장 낱?

107023 #2 으, 으. 프레도 엇언, 엇언 이젠.

107023 @ 프레 지금 없주마씨.

107023 #2 으. 옛날은 프레국. 강 글쟁이로 박박 굽엿. 그 조쟁이 겁죽으로 굽엿.

107023 @ 으, 조쟁이 겁죽으로.

107023 #2 굽엿 이제 체에 영영 모살 일어덩.

107023 @ 조쟁이 완전 잘 췌수다예, 아까 뵤 헵 때도 쓰고 그거에도 쓰고예.

107023 #2 계난 족쟁이 막 그 프레 굽으젠 허주게.

107023 @ 예, 예.

107023 #2 멘들글락헌 돌에 박박 굽으민 하영 나와.

107023 @ 그 뵤도 헤 먹어낫수과, 물훤?

107023 #2 물웁게 이제도 물웁 냉국 헤 먹어.

107023 @ 옛날에도 물훤 뵤 낱 물훤 만들양 먹어서?

107023 #2 그냥 웅장 낱게. 옛날은 물웁가 주로 으름에.

107023 @ 아니 아니. 그, 그 웅장 낱 냉국도 끌러 먹지만 물훤 허젠 허민 생선을, 생선을?

107023 #2 생선은 옛날은 물훤 생선이 엇엿주. 웁, 웁, 주로 웁 냉국이주게. 물웁, 물웁 냉국.

107023 @ 아.,

107023 #2 물웁 이녁만씩 갈아 옛날에. 막 우영에 갈양 탕 엇인 집인 주고 그거 물웁 냉국. 이제나 씨 빵 그거 허고 겁죽 벳기곡 옛날은 그냥 겁죽도 안 벳경 다.

107023 @ 그거 말고 생선 놔가지고 물훤은 안 헤 먹엇수과?

107023 #2 자리, 자리훤베긴 안 허여.

107023 @ 자리뿔밖에.  
107023 #2 으, 자리뿔.  
107023 @ 자리뿔뿔.  
107023 #2 으, 자리뿔뿔 워낙 고급. 자리뿔뿔 어찌다가 혼 번 행 먹주. 이젠 죽  
장 행 먹어도 옛날은 자리뿔뿔 잘 안 헤 먹어. 옛언, 옛언.  
107023 @ 자리뿔뿔가 옛언?  
107023 #2 옛언.  
107023 @ 자리가 옛언?  
107023 #2 자리가 이추록 플레 안 다니주. 다 축항에 강 사 와사만 뿔주게. 걸  
영 뿔기곡 허난 축항에 영 사례 못 가주게. 차가 셔 뿔가 셔.  
107023 @ 음.  
107023 #2 겨난 자리뿔뿔 워낙 고급.  
107023 @ 고급.  
107023 #2 견디 뿔뿔. 웨, 이제 거트민 오이말고 뿔뿔 잇잖어.  
107023 @ 예, 예.  
107023 #2 그 뿔뿔 그자 콩뿔디도 허고 그냥 뿔디도 허영 그거 여름엔 그거 큰  
반찬. 그냥 뿔장 짝영 먹으나 국 행 먹으나 여름엔 주로 뿔뿔 냉국이라.  
107023 @ 으. 저기, 자리뿔뿔 만들어 보십서.  
107023 #2 자리뿔뿔게 기자 식초 놓고 뿔장 놓고.  
107023 @ 우선 자리를 손질 헤살 거 아니?  
107023 #2 으, 으. 비닐 다 거시리고 요뿔뿔기 떼고.  
107023 @ 요뿔뿔기가 뿔라?  
107023 #2 그 뿔게.  
107023 @ 아, 뿔.  
107023 #2 옛날은 거 안 뿔디 이젠 다 떼여. 옛날은 비닐만 거시령 그냥 헤나  
셔.  
107023 @ 아.  
107023 #2 켄디 이젠 ㄹ세로 다 ㄹ양 이젠.  
107023 @ 아, 그 지느러미?  
107023 #2 으. 지느러미 옛날은. 이젠 ㄹ세로 다 ㄹ아부는디 옛날은 그냥 헛주  
기게.  
107023 @ 아.  
107023 #2 그냥 데쟁이만 닥닥 ㄹ아근에 그냥 썰영 헤난디 이젠 다 요뿔뿔기  
그 지느러미 ㄹ양.  
107023 107023 @ 으.  
107023 #2 ㄹ양 다 허여.  
107023 @ 으. ㄹ양 다 허여예?

107023 #2 으.

### 죽류

107024 @ 이번엔 죽 물어보쿠다, 죽. 죽 끌리는 거예.

107024 #2 죽은 콩죽베끼 옛날에사 더 해서게.

107024 @ 곤죽.

107024 #2 곤죽은 흰죽게.

107024 @ 흰죽예. 또 믰물죽은도 잇어난 거 아니?

107024 #2 믰물죽은 아픈 때 믰물죽 행.

107024 @ 우선은 죽 종류가 아까 콩죽.

107024 #2 풋죽.

107024 @ 풋죽.

107024 #2 믰물죽. 흰죽은 그, 그냥 쓸만 낵 쑤는 흰죽.

107024 @ 으, 으. 흰죽이렌 곱앗수과, 곤죽이렌 곱앗수과?

107024 #2 흰죽. 옛날 할망덜 곤죽.

107024 @ 곤죽예.

107024 #2 흰죽은 흐뽀, 흐뽀 사투리 부짱, 침 사투리 안 쓴 게 흰죽이고 옛날 할망덜은 곤죽.

107024 @ 예, 기민.

107024 #2 곤죽, 곤밥.

107025 @ 곤죽, 곤밥. 곤죽 어떻 끌렛수과?

107025 #2 곤죽 기자 쓸 씻어 낵 그냥. 옛날엔 그냥 끌렛주게. 불 솜양.

107025 @ 불 솜양. 겐 물 끌러가민 쓸만 놓는 거라?

107025 #2 아니, 물 안 끌릴 때 놔 그자. 풀어지게.

107025 @ 아, 젓으멍예?

107025 #2 으.

107026 @ 조축 끌러줍서. 조축.

107026 #2 조축은 저 모인줍셀이 셔. 끌리는 모인줍셀이 셔.

107026 @ 예.

107026 #2 밥 행 먹는 거 말고. 밥 행 먹는 거 말고. 게난 옛날은 히린조 같고 모인조 같앗주게. 히린조는 밥에 낵 먹고 모인조는 주로 죽 썩 먹어.

107026 @ 아, 떡 헤 먹는 건?

107026 #2 떡 헤 먹는 건 히린 줍셀로 행 먹어야 돼고.

107026 @ 예.

107026 #2 게난 콩죽에도 모인줍셀만 낵 죽 썩사 돼고.

107026 @ 예.

107026 #2 이 곤셀 낵 죽 썩서게 옛날에사. 모인 줍셀에 그 저 콩꺾루 낵 썩주

계. 이젠 모인 쥐 엿어. 옛날에 원 모인조.

107026 @ 아, 모인조는 죽 썬 먹는 거구나.

107026 #2 모인조 노랑헌 모인조 죽 썬 먹는 모인조가 잇엇주.

107026 @ 예.

107026 #2 계난 모인좁쌀 낱 흰죽도 썬 먹고 곤살이 어디 서. 원 침 아픈 사람이나 곤살은 모인조 낱 죽 썬 먹주.

107026 @ 계민 허린조는 밥이랑 떡 해 먹고?

107026 #2 으. 모인조는 죽 썬 먹는 거.

107026 @ 모인조는 죽 썬 먹고예.

107026 #2 으, 죽 썬 모인조도 하영 같아. 옛날은 엿이난 죽 썬, 죽을 하영 먹 엿주게게. 밥을 경 먹어져서게. 식구 한 사름은. 옛날은 애기덜 하영 놔 놓난 식군 하지 먹을 건 엿지. 이제 거치 비료 주민 쏘이 해주만은 옛날은 비료 안 주난 쏘이 얼마 엿주게.

107027 @ 음. 풋죽은 어땡 끝립니까?

107027 #2 풋죽은 풋 삶아 낱게 쏘 흐뎡 노민 돼고게.

107027 @ 풋 삶아 낱 뭐 두드리지 안 허여?

107027 #2 안 두드려사 맞서 우린.

107027 @ 아.

107027 #2 흐뎡 꺾이 씹는 맛이 잇어. 육지는 삭 행 걸렁 썬는 디 이디는 그냥.

107027 @ 계도 두드리진 안 헉니까?

107027 #2 우린 안 두드렷 그냥.

107027 @ 그럼 알맹이 그대로 죽 해?

107027 #2 아니, 문짝 삶으민 영, 그자 국자로나 바가치로나 영 허민 거의 다 부서져. 경헤영 쏘 낱 썬.

107027 @ 아. 그냥 따로 거렁냉 영영 다지지 앓고 문짝 삶으민 국자로 영.

107027 #2 으. 경헤영 흐뎡 씹는 맛이 잇엇주.

107028 @ 아까 콩죽은 어땡 끝려?

107028 #2 콩죽은 물 끌어가든.

107028 @ 예.

107028 #2 옛날은 쏘 씻영 짜 내영 콩꺾루영 쏘이영 허경 놔 나서. 이젠 쏘이영 꺾루영 따로 놓는다.

107028 @ 예.

107028 #2 옛날은 좁쌀에 콩꺾루에 허경 물 꿩여 가민 그냥 들이췌주게.

107028 @ 아, 쏘도 안 씻영?

107028 #2 으. 이제나 저 시칭 낱주 옛날이사 콩꺾루에 그냥 허췌주. 경허영 감저 등탁등탁 쏘어 낱. 감저도 겁죽 안 벳겨 옛날은.

107028 @ 콩죽에는 콩꺾루 허고 좁쌀도 들어가고 감저도 들어가고?

107028 #2 으, 감제에. 콩ㄱ루 그냥 콩ㄱ루에 좁쌀에 허경 그냥 물 끌어가민 썩 비왕 이제 또 레여 가문 감저 들이쳐.

107028 @ 으.

107028 #2 감저 씻영. 겁죽 이제난 다 뱃겨도 옛날은 겁죽채. 게도 엇영 못 먹 엇주.

107028 @ 아.

107028 #2 경헨 기자 이 곳텅이나 그창 놓주.

107029 @ 예. 믱물축은 어땡 험니까, 믱물축.

107029 #2 믱물축은 믱물ㄱ루 낱 아픈 사름 믱물축 씻주게. 념기지 못 허는 사 름.

107029 @ 믱물축은 믱물ㄱ루로 헛수과?

107029 #2 아니. 쌀, 쌀, 쌀.

107029 @ 믱물쌀이지예, 기지예.

107029 107029 #2 쌀로. 그 아픈 사름만 믱물축. 아광 뭐 못 내리우는 사름. 민 지락허난. 완전 거 고급으로.

107029 @ 으.

107029 #2 아무나 썩 먹어보질, 그냥 일반 사름은 안 썩 먹어. 옛날은, 이제 돈 이 흔허고 뭐이든지 사당 먹젠 허믄 현디 옛날은 돈을 쓰지 못 허주게. 거 상 먹질 못허난.

107029 @ 음.

107029 #2 게난 믱물축 아무나 먹어서게. 아픈 사름이나 먹주.

107030 @ 녹디죽도 헤 먹어 볍디가?

107030 #2 으, 녹디죽은 녹디 숲양.

107030 @ 예, 만들어 볍서.

107030 #2 숲으민 풋 거치.

107030 @ 아, 풋 거치.

107030 #2 음. 녹디죽은 풋 거치 기자 녹디 숲아 낱 쓸에 ㄱ치 노민.

107030 @ 그때 쓸은 다 좁쌀?

107030 #2 다 좁쌀. 옛날은 죽 썩 먹는 거 곤쌀론 안 썩 먹언. 이제난. ‘

107030 @ 으.

107030 #2 그 모인좁쌀이 이제 엇어. 그 죽 썩 먹는 좁쌀이. 우리 결혼허연 멧 년 아이덜 난 때꺼장도 거의 그 조축 썩 먹엇주게. 좁쌀로 썩 먹은디 침 이제 쓸이 흔허영 밥을 안 먹어 노난 다 쓸이 밀려 남아돌아.

107030 @ 으.

107030 #2 옛날은 쓸이. 우리도 나륙 흔 멧 가마니 헤도 안 먹어서. 다 풀아. 보 리밥 먹주.

107030 @ 으.

107030 #2 그 쌀을 안 먹어. 쌀 흰 사십가맹이씩 나룩해도 안 먹어서. 이녀 햅  
꼼 기자 큰일 때나 먹주.

107030 @ 음.

107030 #2 운동회 때, 운동회 때나 곤밥 허고 멩질 때 곤밥 허고. 기자 제서 때  
곤밥 허주. 다 그냥 보리밥만 먹고 그 나룩은 다 바찌. 폴아.

107031 @ 득죽도 끌려 먹지 안 햅수과예, 득죽.

107031 #2 득죽은 이제나 저제나 마찬가지로.

107031 @ 예, 끌려보십서.

107031 #2 우선 득 숲아 낱 쌀 낱게.

107031 @ 고기는 건져 먹지 안 허고?

107031 #2 건정 그냥 먹곡게. 옛날은 득 흰 므리 허민 멧이 먹엇주게. 유월 스  
무날 잡아 먹어. 질루나.

107031 @ 집이서 질뤼난 거예?

107031 #2 질루난. 아이 맞셔.

107031 @ 맞셔.

107031 #2 으, 이제 거 닻지 안 허여.

107031 #2 경허난 그거 허영 햅꼼씩 햅 가달씩 허고 그 죽 썩 이제 햅 사발씩  
먹주게.

107031 @ 고기도 햅꼼 슬고기 찢어 놓고예.

107031 #2 으, 유월 스무날만 썩 먹주게.

107031 @ 오늘, 오늘 아니과?

107031 #2 넘어 간.

107031 @ 넘어 간. 하하.

107031 #2 유월 스무말만 득 질루다근에 잡앙 스몫 그거 큰 보약으로.

107031 @ 맞수다. 득 잡젠 허민 득은 어떻 잡아낫수과?

107031 #2 영 푹 꺾으민 꺾어져.

107031 @ 움직이는 걸 그냥? 목을?

107031 #2 영 등 팡을 푹 꺾어.

107031 @ 등팡을?

107031 #2 으, 경헤영 물 풀풀 끌렁, 물 풀풀 끌이민 이젠 둘리 다리 잡앙. 경허  
민 이제 그 터력이 팍팍 빠기 좋아. 옛날은.

107031 @ 아.

107031 #2 경헨 햅주.

107031 @ 하하하.

107031 #2 돼지 잡을 땐, 찍으로나 보리냥으로.

107031 @ 그실리고예?

107031 #2 그실려근에 이젠 칼로 박박 긁으고.

107031 @ 예.

107031 #2 옛날은 돛술도 그거 다 메영 풀아서. 김영헌 거.

107031 @ 그거 뭐 헤레 풀아?

107031 #2 옛날은 붓 멘들암젠 허멍 막 돛술 비싼난.

107031 @ 아.

107031 #2 이 머리도 막 비싸고. 돛술도 비쌉 그거 문딱 메여.

107031 @ 아, 돛술도 그거.

107031 #2 그거 메영 풀고 그 이룬디 벳데기 거 못 메는 것만 허주. 이룬 디 등 떼기 거 메지는 건 다 메영 풀아. 경혜영 요만이 현 거 얼마. 막 돈 하영 쥐서 옛날은.

107032 @ 아. 혹시 쟁죽도 꿩영 먹어났수과?

107032 #2 쟁죽이 뭐라?

107032 @ 갱이죽.

107032 #2 으게.

107032 @ 갱이죽.

107032 #2 맞준다.

107032 @ 갱이죽이렌 헛수과?

107032 #2 으게. 거 뺏앙 물 쪽 딸라 낵. 이제도 썬.

107032 @ 예.

107032 #2 막 풀풀헌 게 맞شنا.

107032 @ 만들어 봅서 어떻 만듭니까?

107032 #2 그 갱이 뺏앙 그 물.

107032 @ 갱이 그냥 산 채로 뺏아?

107032 #2 으. 뺏앙 물 허여 낵. 막 이제도 맞좋아 경허민.

107032 @ 죽인 다음에 뺏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107032 #2 둥둥 뺏아.

107032 @ 게민 체에 물 내렁 그 국물.

107032 #2 아니 영 딸라근에 죽 끌리민 막 듬박듬박 맞좋아.

107032 @ 어.

107032 #2 갱이죽 먹으민 때 산덴 헤가지고 막 고급. 맛 맞서 이제도.

107033 @ 예, 예. 이거 말고 다른 죽도 헤 먹어났수과?

107033 #2 옛날엔 그거 허영 웬보멸죽, 웬보멸 뺏앙.

107033 @ 웬보멸이 뭐과?

107033 #2 이젠 그 저 뵁뵁 몰아진 거, 거 육지선 풀아. 영 길쭉헌 거 똑 그차 덩 육지선 그거. 이디선 거 안 푼디 육지선 그거헿 푼디 그거 뺏앙 그거 죽 썬 먹어.

107033 @ 아, 웬보멸이렌 헤?

107033 #2 으. 웬보덜이엔 헤. 육진 그거 다세기. 육진 다세기엔 험실 거라.  
 107033 @ 그거 행 그것도.  
 107033 #2 죽 썩 먹어. 우린 안 헤 먹어 본디 거 우리 뺏앙 쉼만 죽 썩 줘난.  
 107033 @ 또 뭐 호박죽 같은 건 안 헤 먹었수과?  
 107033 #2 이제사 호박죽 행 먹엄주 옛날사 호박죽 행 먹어서게. 험 충 몰랐주.  
 107033 @ 아.  
 107033 #2 옛날은 호박국만 끌려 먹었주 죽 안 썩 먹언. ‘  
 107033 @ 요즘 호박죽 어떻 끌림수과 삼춘?  
 107033 #2 껍죽, 껍죽 싹 벗겨뵤 저 스투아 찹쌀 낱도 쭈고 찹쌀가루 낱도 쭈고.  
 107033 @ 아. 스투아 막 문대경?  
 107033 #2 으, 옛날은 호박죽 쭈는 거 몰란 이거 우리 이제사 썩 먹으면. 호박죽 그런 거 뵤허고 험 정신도 엇고게 옛날은.  
 107033 @ 예. 혹시 꿩죽 같은 것도 헤 먹어봄디가?  
 107033 #2 꿩은 기자 스투아근에 죽 거 썩 먹언. 이제난 안 먹은디 옛날은 낱바디 약 놓민 꿩이 막 죽어. 우리 미깡뵤 험 때. 경혜영 그거 내장만 뵤 먹으면. 이제거 트민 큰일나.  
 107033 @ 약 논 바디 꿩?  
 107033 #2 꿩 그 \*\*\*\*엔 험 거 낱 죽으면 그 내장만 빼뵤 그거 막 먹었주게.  
 107033 @ 아고 삼춘.  
 107033 #2 이제, 이제 거트믄 죽을 거엔 험 거여, 죽을 거.  
 107033 @ 으, 이제 거트민 안 먹지예?  
 107033 #2 안 먹주. 약 먹은 거엔. 건디 내장 빼 불민 어떻 안 험텐 다 먹어서 우린.  
 107033 @ 아.  
 107033 #2 거 막 낱 바디 죽어. 경허민 그거 봉가당 죽 썩 먹었주. 큰일 나 이제 거트민.  
 107033 @ 아고. 게민 그 꿩죽도 득죽 끓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107033 #2 건디 꿩은 득죽 뵤지 안 허영 에려와. 고기가 엇고 이 맛이 엇어.  
 107033 @ 아, 맛이 엇어. 또 다른 죽 잇어낱수과? 그죽말고 끌려 먹어난 죽.  
 107033 #2 엇어.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엇어예. 범벅 종류는 뭐가 잇수과?  
 107034 #2 범벅은 므물범벅, 감저범벅게. 그 감저ㄹ루험.  
 107034 @ 므물범벅, 감저범벅예. 므물범벅은 어떻 만들었수과?  
 107034 #2 므물범벅도 그 감제, 감제 썰영 듄박듄박 허영 보글보글 막 끌어갈 때 ㄹ루 낱 허민 막 맞셔. 므물범벅. 그냥 므물만 험 게 아니고.

107034 @ 믫물이랑 감저를 ㄹ치?

107034 #2 감저는 썰영 송당송당 낱 감저 슻아져가른 이제 ㄹ루 낱. 감저 거의 슻아져 갈 때 경헨 데기민 막 맞셔.

107034 @ 음.

107034 #2 경헨 소금만 흐뵀뵀 놓고 헨 허민 맞셔. 밀카루 닻지 안 허영 믫물뵀뵀은 맞셔.

107034 @ 또 다른 뵀뵀은?

107034 #2 감저뵀뵀게. 그 감저 ㄹ루허영.

107034 @ 감저ㄹ루 헤영 어뵀?

107034 #2 그거 뵀뵀허영.

107034 @ 게민 감저ㄹ루에도 감저 슻당 감저 ㄹ루를 또 놓는 거?

107035 #2 감저 ㄹ베기도 그냥 감저 조베기 영 헿 그냥 다 줍아. 감저 ㄹ베기 영 헿 ㄹ베기 헿 먹주게. 주로 감저 ㄹ베기 하영 헿 먹엇주게 옛날은.

107035 @ ㄹ베기 종류는 감저ㄹ베기도 잇고 또?

107035 #2 보리 ㄹ베기게.

107035 @ 보리 ㄹ베기.

107035 #2 믫물, 믫물ㄹ루ㄹ베긴 엿고게 옛날은. 어려와.

107035 @ 여기는 엿구나예. 저 동쪽 강 들을 때는 거기는 다 믫물ㄹ베기우다.

107035 #2 으, 전디 믫물ㄹ베기 옛날은 잘 안 허여. 거의 보리 ㄹ베기, 감저 ㄹ베기 헿 먹엇주.

107035 @ 아, 여기는?

107035 #2 으.

107035 @ 감저 ㄹ베기, 보리 ㄹ베기.

107035 #2 아니 믫물 ㄹ베기는 워낙 침 고급으로 뜯어 낱 하영 헿 먹엇주게.

107036 @ 음. 저기 ㄹ베기도 잇었고 칼국수도 따로 잇엇수과?

107036 #2 으. 칼국순 밀영게.

107036 @ 밀영. 게민 그건 무슨 ㄹ루로?

107036 #2 옛날은 주로 무시거 밀ㄹ루 흐뵀뵀 허쵸. 보리ㄹ루에 밀ㄹ루 허쵸 칼국수 헤 먹엇주게.

107036 @ 으.

107036 #2 칼국수. 게난 주로 ㄹ베기가 하영 헿 먹엇주 칼국순 잘. 보리ㄹ루라사, 보리ㄹ루 칼국순 잘 안 뵀뵀게 밀카루라사 잘 뵀는디 게난 주로 ㄹ베기 헿 먹언. ㄹ베기.

107036 @ ㄹ베기 헿 먹언예.

107036 #2 우리 어린 때 ㄹ베기가 하영 헿 먹주 칼국수는 잘 안 헤 먹언.

107036 @ 예, 예. 보리ㄹ베기 그 다음 감저ㄹ베기예? 조베기 헤 먹엇엇던 거. 김치 물어보쿠다 김치. 김치 만들어난 거?

## 김치

107047 #2 김치사 이제추록 해서게. 옛날은이 그 아까 퍼데기 녹물 캐당 바닷물에 강 망사리에 담아 딱 돌 지들황 컷당 고치ㄴ루도 엇어. 고치ㄴ루 흐끔 놓고 알아져 우리 어린 때. 흔 열 댓 헐 때 콩이 콩 보깡 곱앙 그거 고치ㄴ루에 허경 그 퍼데기에 버물엿 먹어.

107047 @ 아.

107047 #2 경허단 우리 이 퍼데기 속 배추 김치 현 때가 오래지 안 해서. 우리 결혼헐 땀이 우리 결혼헐 당시엔 그 새각시 상에 놀 거엔 헐 그거 배추 멧 폐기 사당 고치ㄴ루에 낱 흐끔 허고 그 폐데기 이 바닷물에 강 소금 안 낱 그거 딱 지들황 놔두민 거 다 죽어. 경허민 씻엿 그냥.

107047 @ 거 지들황 놔 두는 건 얼마나 지들황 놔 둥니까?

107047 #2 흔 이사흘 지들황 놔 두민 그거 몸 죽어실 거라이 생각에. 우리 어린 때 생각에.

107047 @ 소금 절이는 거 대신에 그거 지들르는 거 아니?

107047 #2 으, 바닷물에 강. 퍼데기 녹물이난 잘 죽은 거라.

107047 @ 그거 행구진 안 해.

107047 #2 게난 바닷물에서 그냥.

107047 @ 아. 아예 지들랐던 거 그냥 바닷물에서 행귀당.

107047 #2 으, 으. 경허연. 겐디 이젠 바닷물 쪼금 질어당 소금 좀 낱 허믄 그 속 배추도 작 죽으는디 옛날은 퍼데기 녹물이랏주게. 게난 퍼데기 녹물 망사리에 담양 강 돌 딱 지들라서.

107047 @ 음.

107047 #2 경허민 그거 김치가 이제. 막 항에 흐끔 우리 옥은 후제, 살림 살안 우리 결혼헌 후제 후제에 속 배추 김치 이추록 고치ㄴ루 놓멍 해 먹엇주 우리 어렸을 때 그추록 행 먹어서.

107037 @ 게난 김치 종류가 베랑 엇엇다예?

107037 #2 으, 주로 그 퍼데기 짐치, 늬삐 짐치 경헛주게.

107037 @ 으.

107037 #2 드룻녹물 짐치도 다 행 먹언. 이제 거트민 썩 먹지도 안 헐 거여. 녹물이 엇이난 보리밭디 강. 저 드룻녹물이엔 현 거 보리밭디 가믄 막 칼칼 쓴 녹물. 그거 캐당 소금물에 절엿 바닷물 질어당 절여근에. 소금도 어려완게.

107037 @ 음.

107047 #2 소금밭 허영 허는 따문. 게난 바닷물 질어당 해서.

@ 그때 고치는 고치ㄴ루 허젠 허믄 고치는 어땡?

107047 #2 고치가 엇어. 멘네 밧디나 하나씩 놔. 멘네 밧디 하나씩 낱 타. 이제 난 이추록 막 하는다.

107047 @ 예.

107047 #2 거 멘네 왔디 거 타당 벋디 들령 헤영 뽏앙 방에툑에 뽏앙 헤여.

107047 @ 삼춘네 집이서 멘네도 키와수과?

107047 #2 멘네 키우주게.

107047 @ 그 멘네 키왔던 얘기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107047 #2 멘네 왔디 고치씨 하나씩 데끼든 빨강게 잘 익어. 게민 그거 타당 헛주게. 그냥 싱금도 헛주만은. 주로 멘네 왔디 게 잘 익어.

107047 @ 그거 타당 그거 들령?

107047 #2 게난 이제거치 이런 클에 물리고 헤서게. 이런 벋디 썰에 조롱조롱 돌아뻬주게. 그 영 이런 신 딜로 실에 꿩영 영 널븐 잘 몰라.

107047 @ 아. ㄴ는 것도 다 집이서 곱고?

107047 #2 곱아나서게 뽏앗주.

107047 @ 뽏아서.

107047 #2 돌로. 돌혹 허영 뽏안.

107047 @ 돌혹에?

107047 #2 으. 뽏앗주. ㄴ는 기계가 어디 서 그뻬.

107047 @ 예.

107047 #2 ㄴ는 기계가 엇주게.

107047 @ 게민 김치 허젠 허민 재료가 뉘뉘 잇어났수과?

107047 #2 그뻬 기자 마농. 마농도 이제 님지 안 허영 어려왔주.

107047 @ 어려왔주예. 마농 흐뻬م 허고.

107047 #2 마농 허고 꿩. 고급이라사 꿩 놓고.

107047 @ 꿩 놓고. 고춧ㄴ루 허고?

107047 #2 으.

107047 @ 물에 절인 배추 허고예?

107047 #2 으, 기자 이제 거치 이거 뉘 허지 안 허여. 뻬춧 국물이나 쫓뻬 놓고.

107047 @ 아, 뻬춧 국물은 님구나.

107047 #2 으, 뻬춧 국물 쫓뻬 놓고 이제 거치 뉘 배 곱아 놓고 무신.

107047 @ 뻬춧 국물은 것갈 얘기 허는 거지예?

107047 #2 뻬춧, 뻬춧 놔. 이제 거치 액것이 아니고 옛날에 뻬춧게. 뻬춧 그냥 그레 놔.

107039 @ 그럼 아까 배추 김치 님그는 건, 만드는 건 경 곱앗고. 지금 열무 님치렌 헛 거 잇어났수과?

107039 #2 열무 그뻬 엇언.

107039 @ 그뻬 엇언예? 열무 님친 언제뻬 헤 먹어진 것과? 김치렌 곱앗수과 님치렌 곱앗수과?

107039 #2 김치, 김치.

107039 @ 열무 김치 언제 행 먹어졌수과?  
 107039 #2 열무 김치 몰라게. 어린 때 안 해 먹어진 거 다행이다.  
 107039 @ 예.  
 107039 #2 이제 옥, 우리 큰 후에야 열무가 잇었주. 그땐 열무 갈 지도 안 헐.  
 늬삐도 안 갈아나세게.  
 107039 @ 음.  
 107039 #2 퍼테기 녹물만 갈앙 그자 국 끌려 먹는 거 주로 캐당 했주.  
 107040 @ 물집치는 헤진 거 아니?  
 107040 #2 으, 물집친 행 먹언 그때도.  
 107040 @ 물집친 어떻 해 먹엇수과?  
 107040 #2 그때 물집친이 보리밥, 밥 바글바글 켈 때 그 물 뜰랑.  
 107040 @ 으.  
 107040 #2 저 녹물 썰영 소금 톡 줘야 낱 이제 그 보리밥 켈 물 낱 뚜껑 탁 더  
 쟁 놔 두민 누렇게 잘 익영 맞셔.  
 107040 @ 뜨거운 물 그 보리밥 켈 거?  
 107040 #2 으. 경 안 허영 그 보리쌀 시쳐난 물도 풀풀 끌영 그 김치레 농민 잘  
 돼여. 켈 맞셔.  
 107040 @ 우리 이제 쌀 씻어난 물로 국 끓이 듯이우다예?  
 107040 #2 으, 그거 그거 낱 뚜껑 탁 더 쟁 놔 두민 흐뎡 녹물이 누렇게 잘 익  
 어.  
 107040 @ 양념은 뭐 해 거기에.  
 107040 #2 아무 것도 아니 기자 소금 집어 낱.  
 107040 @ 소금 집어 낱.  
 107040 #2 케민 새콤달콤 허여. 말쑈 익어가민.  
 107040 @ 아.  
 107040 #2 케민 맞셔.  
 107041 @ 동지 김치도 해냈수과?  
 107041 #2 동지 김치 동지 곧작 곧작 살 때 그거 허민 동지 김치가 맞셔. 켈디  
 이제덜은 동지 김치도 안 해 먹어.  
 107041 @ 동지가 뭐라?  
 107041 #2 녹물게 쫓 올라올 때.  
 107041 @ 올라올 때. 그거 뜯어가지고예?  
 107041 #2 으, 아니 그거 그냥 캐여 동지 영 쪽 동 올라올 때, 거 동지 김치.  
 107042 @ 늬삐김치는 어떻 험니까?  
 107042 #2 늬삐 그자 늬삐 썰영, 문탁문탁 썰영 기자. 침 쪽파나 흐뎡 놓고 기  
 자 고춧가루만 버물영 그자 험주게.  
 107042 @ 소금에 안 절입니까?

107042 #2 소금에 절영게. 뉴수가에 절영.  
107042 @ 아, 뉴수가.  
107042 #2 뉴수가 조금 넣고 소금 넣고 행 절여. 경허민 아삭아삭 허여.  
107042 @ 아, 절일 때 뉴수가를 넣는 거?  
107042 #2 케민 아삭아삭 허여.  
107042 @ 소금 넣고.  
107042 #2 이젠 아무 김치도 안 먹어. 옛날 아이덜 신 때 행 먹었주. 김치를 안 먹어 이젠.  
107043 @ 패마농 김치마씨?  
107043 #2 패마농 김치 멜젓 넣고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자.  
107043 @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107043 #2 경만 행 먹어.  
107043 @ 패마농도 절입니까?  
107043 #2 안 절여서. 절이민 질겨 패마농 김치.  
107043 @ 아, 절이민 질긴 거?  
107043 #2 으, 안 절여서. 패마농 김치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젓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침, 다시다나 흥뽀 노나 안 노나 해도 그자 설탕이나 약간 낡 막 버물여도 싹 죽어.  
107043 @ 으.  
107043 #2 경혜사 허주 패마농 김치 절이민 질경 못 먹어.  
107044 @ 음. 꿩마농김치?  
107044 #2 꿩마농도 경혜서.  
107044 @ 마찬가지로 젓갈이랑?  
107044 #2 젓갈이랑 고춧가루랑 기자.  
107045 @ 갯늬물 김치?  
107045 #2 갯늬물 김치도 그추록 그냥 늬물 김치 거치. 갯늬물 김치 익으면 맛 서.  
107045 @ 그것도 바닷가에 강 절영 오는 거?  
107045 #2 옛날엔 경했주. 이젠 경 안 해도.  
107045 @ 예, 예.  
107045 #2 이젠 갯늬물 김치덜을 안 허여.  
107045 @ 경해도 김장 할 때 그거 좀 서끄지 안 됩니까?  
107045 #2 으, 서경.  
107045 @ 예, 서경예.  
107045 #2 작년꺼장은 돌산갯 허영 막 허여난. 돌산갯 김치.  
107045 @ 돌산갯 김치.  
107045 #2 돌산갯 갈양 김치 해난디 작년부턴 안 허멘, 이젠 올린 안 허멘. 잘

안 먹은 아이덜이. 아이 맛 짓기 더 맞셔.

107045 @ 게니까. 익으민예.

107045 #2 으, 익으민 맞셔. 시지도 안 허여. 여름나도 경해도 아이 먹으난 이젠 안 허멘.

107046 @ 새우리 짐치도 해낫수과?

107046 #2 새우리 짐치도 쪽과 짐치 거치.

107046 @ 쪽과 짐치 거치. 소금 안 절엿당 그냥?

107046 #2 으, 소금 안 절엿 그냥. 소금 절이민 안 웨여.

107046 @ 소금 절이민 안 웨여.

### 젓갈

107048 #2 젓갈은 뭐 담가낫수과?

107048 @ 옛날은 멜게. 멜, 멜컷.

107050 #2 멜컷. 이젠 액젓인디 옛날은 주로 멜젓. 아이 멜 날 때 나도 작년, 재작년이 담양 작년까지 먹언. 겐디 이젠 멜이 안 나 이디. 멜 담으민이 그게 맞셔 액젓보단.

107050 @ 아.

107050 #2 겐 그거 싹 솥양 저 웨 소쿠리에 싹 걸렁 삼다수 병에 질엿 놔 두든 김치 헐 때 놓른 더 맞셔.

107050 @ 아, 미리 준비를 헤 놓는구나.

107050 #2 그거 흔 말에 이만 원 재재작년인 헤서.

107050 @ 예.

107050 #2 겐 나 말가웃 산 왕 그냥 허른 막 맞셔. 허른 쪽과 짐치도 맛있고 그런 것도 맛있고.

107048 @ 젓갈은 담아 볍서. 젓은 멜컷만 담안? 자리젓은 안 담안?

107048 #2 자리젓도 담고.

107049 @ 우선예, 멜컷, 아니 자리젓 담으는 것부터 헤 줍서. 자리젓 어떻 담읍니까, 담젠 허민?

107049 #2 자리젓 기자 영 땡 기자 자리가 사키로면 소금 일키로. 전인 일키로 놔 난디 이젠 일키로 못 놔사 웬게. 구백. 경허민 막 맞셔. 영 똑똑똑 더가리만 못 앙.

107049 @ 안 씻어, 상 온 거?

107049 #2 으, 안 씻어.

107049 @ 더가리만 못아?

107049 #2 으.

107049 @ 그냥 뭐 헤?

107049 #2 그자 소금만. 소금만 그자 사키로면.

107049 @ 자리가?

107049 #2 자리가 사키로면 소금은 일 키로 놔 난디 이젠 일 키로가 좀 짜. 흰 구백 그람만 놓난 딱 맞안게.

107049 @ 아.

107049 #2 멜컷은 사대일로 놓난 딱 돼고.

107049 @ 아, 사대일로 놔가지고. 거 항에만 담아 불민 되는 거과?

107049 #2 으.

107049 @ 항에 담양 뭐 안 썬워?

107049 #2 무사 안 썬워게.

107049 @ 뭐로 썬웁니까?

107049 #2 광목 험벅게. 험벅 허영 식초나 식용류 불라야 버랭이 안 들주.

107049 @ 어디에, 천에?

107049 #2 광목 험벅에.

107049 @ 아하. 식초나 식용류.

107049 #2 으, 고무줄로 딱 무경 그 우에 식초 그 험벅에 불르민 벌레 안 궤여. 장항에도 경혜사 돼여.

107049 @ 장항에도마씨?

107049 #2 게민 벌레, 버랭이 안 궤여. 버랭이 막 궤는디. 식초 해도 돼는디 식용류가 쥘. 식초는 문딱 늘어나불민 얼마 엇영 안 돼고.

107049 @ 으.

107049 #2 식용류 그 험벅에 무치든 프리가 안 궤여.

107049 @ 아, 신기하다. 기구나. 보통 험 때 자리 사키로 헤낫수과?

107049 #2 으, 으. 사키로.

107049 @ 항아리 몇 개나?

107049 #2 아이고 거 쪼마난 거 하나.

107049 @ 사키로 해야 쪼그만 험 거 하나?

107049 #2 한 말, 한 말썬이난게.

107049 @ 머리 두드려가지고?

107049 #2 머리 두들지 안 허민 고린내 나가지고 안 돼여.

107050 @ 음. 멜컷을 만들어 줘서. 멜컷.

107050 #2 멜컷도 그냥. 멜컷은 두드리지 안 허여. 그냥 삭삭삭.

107050 @ 멜컷은 두드리지 안 허여.

107050 #2 자리는 벅테기 두드려야 돼고, 벅테기, 테강이 두드려야 돼고 멜은 그냥 삭삭. 멜컷은 그자 사대일만 허민 딱 돼여.

107050 @ 아, 사대일만.

107050 #2 으. 맞셔. 그냥 사대일만 허민.

107050 @ 게민 사당 소금만 뿌리면 멜컷 되는구나.

107050 #2 으, 사대일 그자.  
107050 @ 씻지도 안 허고?  
107050 #2 으게. 씻지 안 허여.  
107051 @ 예. 혹시 아감젓 같은 거 만들어놔수과? 아가미젓?  
107051 #2 거 안 만들어난. 사단만 먹주. 아가미가 어디 이서게. 옛날 고등어 아가미는 저 빌어단 담아놔주만은.  
107051 @ 고등어?  
107051 #2 으, 고등어. 저 한림 강 빌어단 담아난디 이제는 엇어. 담안 먹어난디 이제는 그게 엇어.  
107052 @ 음. 게젓은 어뎡 허과, 게젓?  
107052 #2 게젓은 그자 논만 허믄 뉘여.  
107052 @ 뉘?  
107052 #2 저 간장 허고 마늘만 허믄.  
107052 @ 간장이랑 마늘만 허면.  
107052 #2 으, 맞셔.  
107052 @ 게, 게 그냥 살아 있는 거에?  
107052 #2 우리 이디 존존헌 거 잡아 온 거.  
107052 @ 예.  
107052 #2 거 경허영 허민 맞셔. 나 쪽 그것에만 먹주. 저번에 강 흐뎡 잡아단.  
107052 @ 하하.  
107052 #2 요샌 김치 냉장고에 놔 뉘단. 겐 큰아덜네 요만헌 걸로 하나 가져 가불고 죽은 아덜 이걸로 하나 아져 가불고. 저디 두 개 이실 거라.  
107052 @ 양념을 별로 안 허는구나.  
107052 #2 고춧가루 쪼금 놓고 저 깨도 쪼금 놓고 허여. 경허영 그자 간장만 비왕.  
107052 @ 간장만 비왕예.  
107052 #2 것도 툯툯 뉘앙.  
107052 @ 툯툯 뉘앙.  
107052 #2 으, 툯툯 뉘앙.  
107054 @ 저기 출레가 뉘과, 출레?  
107054 #2 반찬이 출레주.  
107054 @ 게민 출레에는 어떤 반찬덜이 잇어?  
107054 #2 다 이거 출레. 옛날엔 출레엔 헛주게. 반찬이 출레.  
107054 @ 기민 김치도 출레렌 허여?  
107054 #2 옛날엔 자리젓, 멜젓 헌 것이라 출레렌 헛주게. 할망 사투리가 출레. 출레 잇어사 밥 먹주기.  
107054 @ 아.

107054 #2 우리 어린 땀 우린 안 골아난디 할망덜이 출레. 출레 출려사 먹주게. 출레 엇이 떡어져. 경. 반찬이 출레.

### 장아찌와 회

107055 @ 반찬이 출레. 예, 예. 마농지. 마농지시엔 골앗수와 마농지엔?

107055 #2 마농지, 마농지.

107055 @ 마농지 종류가 뭐 잇수과?

107055 #2 거 장아찌게.

107055 @ 이 뿌리도 허고 대도 허고?

107055 #2 으.

107055 @ 게민 이 뿌리도 마농지. 이 대 닳은 것도 마농지?

107055 #2 으. 장아찌, 장아찌.

107055 @ 장아찌.

107055 #2 저 마농지는, 뿌리는 장아찌고 대는 마농지주게.

107055 @ 아, 대를 지렌 허고 뿌리는 장아찌렌 헤?

107056 #2 으. 장아찌. 건 깐 거 장아찌 담으민 돼여. 옛날은 장물에만 담고 것도. 으, 옛날에는 장물에만 그자 마농지 담앗주게 우리 어린 땀.

107056 @ 예.

107056 #2 겐디 이젠 딱 사과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이제 저 무시거 설탕 하나 경허영 삼대일 허민 딱 좋아?

107056 @ 거 끓영 아니면?

107056 #2 끓영. 끓영 식형.

107056 @ 거기 그냥 비우민 돼는 거예.

107056 #2 으.

107056 @ 게민 옛날에 지 담글 때는 장물 안 끓엇수과?

107056 #2 장물 끝연. 옛날은 장물만 끓연. 아무 뭐 안 나. 겐 짬짬혜사 일 년 내냥 먹주게. 겐디 이젠 그 사과 식초가 들어가니까 안 짜.

107056 @ 으.

107056 #2 옛날은 식초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짜야 돼고 이제는 사과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싱거와도 어땡 안 허여.

107056 @ 그거 낱 끓영 그냥 담아불민 돼는 거?

107056 #2 으. 식형, 식형.

107057 @ 예. 그 회 종류도 잇어났수과? 예를 들면 새끼회, 자리회?

107057 #2 새끼회 돼지 새끼.

107057 @ 그거 먹어난마씨?

107057 #2 으.

107057 @ 어떤 게 돼지 새끼회과?

107057 #2 돼지 그 배속에 이신 거 독독 뺏앙게.  
107057 @ 추렴헌 거라예?  
107057 #2 배, 새끼뻔 돼지 잡으면 새끼가 열 개 으둡 개 잇주게. 게민 혼 봉다리, 혼 봉다리씩 풀아. 게민 그거 독독독독 뭏아 낱 확. 아픈 사람 거 먹으면 속 괜찮덴 해서. @ 아.  
107057 #2 웬장 놓고 식초 낱.  
107057 @ 아. 추렴 헐 때 그거 그 추렴허는 디서 푸는구나?  
107057 #2 으. 아, 저 동문 시장 가든 막 풀아 거.  
107057 @ 지금도 험니까?  
107057 #2 막 풀아 거. 지금도 풀아.  
107057 @ 지금도?  
107057 #2 이디도 이 무슨 식당 그디 새끼훤 풀암실 곁. 아, 나도 옛날 부산선 막 싸. 돼지새끼가. 괜 부산서 막 사와나서. 사단 이디 왕 풀아나서.  
107057 @ 부산은 무사 왔다 갔다 헛수과?  
107057 #2 장서 허멍.  
107057 @ 무슨 장서마씨?  
107057 #2 다 하간 거 장서 다 헐. 야채 장서. 아까도 거 마늘 실렁 오켄 헤세.  
107057 @ 아, 그런 장사덜. 게민 강 오래 살고 헐 거 아니엿잖아?  
107057 #2 혼 일주일. 혼 삼일.  
107057 @ 여기 거 상 강?  
107057 #2 그레 가고 거기 것도 이레 사 오고.  
107057 @ 사 오고.  
107057 #2 경 멧 번 가 완.  
107057 @ 아. 자리훤는마씨?  
107057 #2 자리훤 아간 근대로 그자 물 놓고 웬장 놓민 뉘여.  
107057 @ 거의 자리훤 물훤로 먹엇지예, 옛날에?  
107057 #2 으.  
107057 @ 방어훤 같은 것도 먹엇수과?  
107057 #2 아니 건 그자 사시미로 멧 먹엇주.  
107057 @ 게니까 사시미. 것도 옛날에도 잇어난?  
107057 #2 엇어.  
107057 @ 옛날에 바다궤기 이렇게 사시미 헤 먹어난 게 뭐가 잇수과?  
107057 #2 옛날에 사시미 이 준다니엔 헐 거만 잇엇주.  
107057 @ 아. 준다니?  
107057 #2 이젠 엇어 준다니. 겁죽 사락사락 헐 거.  
107057 @ 음, 준다니 잇어나고.  
107057 #2 준다니 비께.

107057 @ 비께.  
 107057 #2 비께 맞셔. 켄디 엇어 엇어. 비께 준다니 그거가 쏘아단 먹었주게.  
 107057 @ 비께는 막 큰 거 아니?  
 107057 #2 으, 사름 물민 막.  
 107057 @ 게니까 상어 지금예?  
 107057 #2 상어가 아니고 이거 틀려.  
 107057 @ 틀려.  
 107057 #2 어, 얼룩달룩 현 게. 비께 상어보단 막 족아.  
 107057 @ 아, 족아. 게민 휘 헤 먹는 건?  
 107057 #2 비께 이녁냥으로 찢러당.  
 107058 @ 예. 그 계절마다 반찬이 조금 토나잖아예? 봄에는 무슨 반찬 헤 먹었 수과?  
 107058 #2 반찬 엇어. 그자 그거, 그거주 그냥.  
 107058 @ 그거, 그거?  
 107058 #2 으.  
 107058 @ 여름에는 뭐 물혜 먹었을 거고?  
 107058 #2 저 아까 웨 갈양 그거로 주로 먹었주.  
 107058 @ 먹고. 가을에는?  
 107058 #2 가을에 뭐 먹을 거 서게. 그자 그거. 게나제나 국 흐나베긴 더 먹어.  
 107058 @ 하하하. 메역 날 때는 메역 먹어실 거고?  
 107058 #2 메역도 풀젠 경 잘 안 먹어.  
 107058 @ 여긴 봄에 고사리 먹고 안 헛수과?  
 107058 #2 고사리 꺼꺼당 고사리 보강 먹어.  
 107058 @ 고사리 보강 먹고.  
 107058 #2 그 꿩마농도 해당 먹고. 테왕 그거 웬장에 찍엉 먹고.  
 107058 @ 웬장에 찍엉 먹고 경헛던 거.  
 107058 #2 으.

###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무슨 장 담가놨수과 옛날에?  
 107059 #2 옛날엔 콩 슴앙.  
 107059 @ 으.  
 107059 #2 콩이 어려우난 보리, 보리 등게그루도 놓고 보리졸도 놓고 그거 찢어. 저 거시기 불량 놔 뒷당 이제 돌아메영. 옛날은 돌아메지 안 허영 막 뒷에 놔 나서. 영 구덕에 사이사이 새 낱, 새 낱.  
 107059 @ 그 장을 언제 담그는 것과?  
 107059 #2 한 동지덜, 시월 말. 첨 십이월 말.

107059 @ 십이월 말에.

107059 #2 으. 십이월 말 거의. 십이월, 동지덜에 거의 솟고 시월에도 솟고 시월 말이라도 솟고. 콩 솟앙 혼 들쭈 잇어야 몰르주게. 겐 혼 덜 잇엉 몰르믄 이제 그거 답아.

107059 @ 계난 콩 솟는 거서부터 담는 것까지 츠츠 영 글아줍서. 시월에?

107059 #2 계난 시월 말에서 동짓덜 혼 보름 사이에 솟아. 경혜영 선덜 보름에서 정월 나기 전이 제주돈 답아. 육지는 정월 념엉 담는디 제주 정월 상달이엔 허명 안 답아. 동지덜 말에서 선덜. 그 장 담는 날도 뵙 답주게.

107059 @ 날 뵙 답지예?

107059 #2 으. 날 뵙.

107059 @ 계민 무슨 날은 뵙고 무슨 날은 안 뵙는 거라?

107059 #2 이녁 헤치 엇인 때.

107059 @ 집이 식구덜 다?

107059 #2 아니 게 식구 다도 그 장 먹는 사름 식구 엇인 때도 기주만은 쉼날은 니치름 흘친텐 안 담고.

107059 @ 으.

107059 #2 저 베염날 무신 날 안 담고. 쥐날도 안 담고. 저 무시거 토끼날 저 득날, 저 뵙고 므날 그런 때 질 잘 담아. 므날, 므날, 토끼날, 득날이 제일 장. 솟는 것도 마찬가지로. 답음도 마찬가지로 이녁 식구덜 엇인 때 답음도 경허고.

107059 @ 답음도 경허고예.

107059 #2 장도 저 소금 애경 쫄물 질어당 됴아서.

107059 @ 소금 애끼젠.

107059 #2 쫄물 질어다근에 소름 혼 얼마사 애끼신디사 몰른디 생각이.

107062 @ 예. 우선은 메주 솟는 것부터 물어보쿠다예. 시월, 음력 시월에서.

107062 #2 시월 혼 십오일 후에 아무 때라도 날 보멍 솟주.

107062 @ 삼춘은 얼마나 솟아났수과?

107062 #2 혼 닷말, 옷말 솟안. 혼 식구가 보통 혼 말 솟주게.

107062 @ 혼 사람에 혼 말.

107062 #2 으.

107062 @ 아.

107062 #2 경헌디 아기덜 어려도 그때 막 일 놉 빌엉 허는 따문 보통 닷말 옷말 솟아.

107062 @ 예, 닷말, 옷말 솟는 거라예. 계민 솟은?

107062 #2 큰솟게 두어솟도 솟고 서너솟도 솟꼭 허여. 계난 아침 혼 세 시 네 시 뵙 때, 저녁이 물 쟁 놉 뵙당 솟고 또 건져뵙 또 솟고. 솟 두 개로.

107062 @ 솟 두 개로. 계난 멧 번씩 솟아야 뵙여.

107062 #2 계난 혼 세 솟 솟을 때도 잇고 네 솟 솟을 때도 잇고. 보통 혼 말 익

주게. 흔 말 더 익어 옛날 솟덜은.

107062 @ 으.

107062 #2 큰솟덜은. 게난 큰 솟 헐 땀 한 서너 솟 숲고 보통 세 솟, 네 솟 숲 아.

107062 @ 그 콩 숲젠 허민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07062 #2 오래 걸려. 흔 서너 시간 더 걸려. 물 쟁 놔두민 흐끔 빨르긴 헤도. 흔 서너네 시간 걸려.

107062 @ 숲젠 허민 그 콩도 씻영 그 솟더레 언주는 거?

107062 #2 어, 씻영. 물 컷당 씻으멍 그레 낱.

107062 @ 물은 얼마나 놔?

107062 #2 아니, 물 커 난 건 얼마 안 들어 갈 건디 물 안 커난 건 하영 들어가. 또 숲음도 오래고. 쟁 숲양 건저덩 옛날은 방에톡에도 뽏고 허당 중간에부턴 마다리에 담양 발락발락 잘 블라서.

107062 @ 음.

107062 #2 건디 옛날은 걸 몰랑 다 뽏아서. 남방에.

107062 @ 아, 남방에에 낱 뽏은 거?

107062 #2 뽏안. 우리 어린 땀 주로 뽏당 우리 결혼헌 후에 마다리에 담양. 그 옛날엔 마다리도 엇엇주게.

107062 @ 엇엇지예.

107062 #2 마다리 엇이난 기자 뽏은디 그 마다리 이젠, 이 보리 픈는 마다리 거에 바락바락 블르민 민 블라져.

107062 @ 으.

107062 #2 겐 그거 영 영 허영 뽏고 정지 구석에 새 놓멍 사이 사이. 새 사이 사이 놓멍 그거 튀왕. 이 돌아메는 건 흐끔 말째라가사 돌아메연.

107062 @ 아, 옛날엔 돌아메지 안 헛구나.

107062 #2 돌아메지 안 허연 옛날엔. 우리 어린 땀 안 돌아멩 막 곰생이 피곡 허는디 말째라가난 짝에 헤영 돌아메민 곰생이 덜 피여.

107062 @ 게민 그거 물리는 건 어디 낱 몰렛수과?

107062 #2 그냥 정지 구석에서 물리왕 또 이젠 흐끔 지릿험젠 허민 이추록 날 좋은 때 물리왕 또 뽏 허고. 쟁허민 너미 지릿헐 땀 문 베렝이 케고 경헌디.

107062 @ 아니 정짓 구석에서 그 메주 막 한 거를 다 몰려져?

107062 #2 으. 톱왕, 톱왕.

107062 @ 으.

107062 #2 옛날은 창고덜도 엇고게. 집이 삼칸집 얼마나 집이 널러서게, 쯤금 헛주. 이제가 창고도 크고 집도 컷주. 옛날엔 말도 못허게 좁아.

107062 @ 예.

107062 #2 돌아멜 데도 즐바로 엇고 이제만이. 보통 삼간집. 스간집은 워낙 잘

사는 사름덜.

107062 @ 계민 콩 솥앙 메주 만들앗수다예. 경헌 다음 띄우는 거?

107062 #2 으, 띄와.

107062 @ 경헌 띄완 곰팡이 편. 이젠 어떻 헐 거.

107061 #2 겐 씻어. 씻엉 이젠 장항더레 소금부터 곱아. 소금부터 이제 영 뭐 구덕이나 옛날엔 대구덕에 낵 물 자락자락 비우민 작 소금이 녹주게.

107061 @ 으.

107061 #2 경허민 흐루 곱아앗으믄 소금 막 펼 하. 펼 하믄 그 펼은 혜영. 이 항에 헛당 저 항더레 우이 건.

107061 @ 펼이 뭐과?

107061 #2 소금에 펼 잇잖아. 저 흑게 이제 ㄹ트민.

107061 @ 흑?

107061 #2 으, 소금बाट디 거난 펼 흑. 계난 그거 이제 이 항에 허믄 저 항 더레 딸랑. 오늘 허믄 뒷날 보믄 그 펼이 짝 ㄹ라 앓아 잇어. 찌뜨레기덜.

107061 @ 아직 메주 넣기 전에?

107061 #2 으.

107061 @ 소금물 만드는 과정예?

107061 #2 으.

107061 @ 이 항에 헛당 그거 갈아앗으민 비워?

107061 #2 저 짝 항더레 거 낵 이 짝 항더레.

107061 @ 경헌, 경헌 이젠 다른 항에 물 비앗수다.

107061 #2 경헌 이제 메주 들이칠 거주.

107061 @ 그 씻은 거예?

107061 #2 으, 씻은 거 들이치믄 짜냐 싱겨우냐 현 건 보통 현 허벅에 대승 석 돼. 옛날은 다 돼로 대영 놔서 소금을.

107061 @ 으.

107061 #2 허벅 저 물이 현 다섯 허벅. 옛날 허벅으로 다섯 허벅. 옛날 다 질어 다 놓지 안 허여. 촛 물이든 둔 물이든. 경허믄 다섯 허벅 허믄 현 허벅에 석 돼씩 굴민 딱 맞아.

107061 @ 음.

107061 #2 계란도 영 띄와보주만은 계란 띄우는 거보단 딱 현 허벅에 석 돼.

107061 @ 석 돼.

107061 #2 경혜영 장 담는 거주게.

107061 @ 경허민 거기에 메주 덩어리는 몇 개나 들어갑니까? ㄹ득허게?

107061 #2 건 세여보지 안 허고 이제 영 헐 만씩 짐작허영. 보통 계난 우리 현 현 섬씩 큰항 두 개 담아서.

107061 @ 아.

107061 #2 육깃항 큰 걸로 두 개. 이제 거트른 멧 년을 먹주 그거. 게나마나 장베긴 안 허난게.

107061 @ 예.

107061 #2 장 허고 장물베긴 안 허난. 그계 일 년내낭 그계 반찬이난.

107061 @ 아. 경헨 그거 이제 어떻힙니까? 담으민. 두경 단아?

107061 #2 두경 안 단아 옛날은. 비 올 때만 단아. 게난 옛날은 비 오민 더경뵤. 이제는 더끄는 두경 잇지 안 허여.

107061 @ 예, 예.

107061 #2 겐디 옛날은 그계 잇어 노난. 더끄민 곱뽡이 피영 안 뵤여.

107061 @ 아.

107061 #2 곱뽡이 피영 안 뵤난 올앗당 비 왁젠 허민 돌아왕, 장항 더끄레 돌아왕 더끄주게. 경 안 허민 곱뽡이 피영게.

107061 @ 음.

107061 #2 이젠, 이젠 막 좋아. 더경 내 부는 두경이 잇어 이젠. 그디 옛날은 뵤고 항 두경 더끄른 침 저 장테 더끄른 안 뵤주게. 곱뽡이 평.

107061 @ 경허민 담강 얼마나 이십니까 이제?

107061 #2 혼 석덜 반. 보통. 갈를 때가 석덜 반, 석덜 경허여. 경 안 허민 장물 별경 안 허여.

107061 @ 게민 석덜 잇이민 먹어짐직 허다 허는 건 영 찍영 먹어 뵤 아는 거?

107061 #2 색깔도 별경허여. 보통 석덜 뵤 가른 장물이 별경허여. 경허민 메주만 꺼내 뵤 짜끄레기 영 체로 바쳐 장물은 장물만 혼 항, 뵤장은 뵤장만 혼 항이민 혼 항, 두 항이민 두 항 허주.

107061 @ 이제 거기 잇엇던 거 메주만 건져 내는 거?

107061 #2 건져 내영 소금 뵤 짜어.

107061 @ 다시?

107061 #2 또 소금 뵤 짜어.

107061 @ 아, 소금 또 놓니까?

107061 #2 또 뵤 짜어. 버랭이 일카부덴.

107061 @ 아. 게민 거기는 소금 얼마나 뵤?

107061 #2 한 보통 댓말 헌 디 소금 혼 줍팍썸 뵤주. 혼 줍팍 더 뵤.

107061 @ 게난 막 하영은 아니다예?

107061 #2 음. 경 뵤. 경 놓지 안 허른 막 버랭이 켜덴 허명. 경헨 영 우이도 또 소금 더끄꼭.

107061 @ 맨 우에.

107061 #2 맨 우에 소금 더경 이제 보따리 차메고.

107061 @ 그민 그것만 건져 내민 간장은 간장대로 뵤 두는 거라? 다른 데 걸러 내는 거?

107061 #2 걸러 내영계 체로 바침 또 따른 데 걸러 내영. 숭으는 사름도 잇어도 우린 안 숭아 받 숭으민 맛엇넨 허영.

107061 @ 아, 간장을 다시?

107061 #2 끓여. 끓이든 곰뽕이 안 퍼. 경허고 지픈 맛도 내고 허는디 우린 끓여 보지 안 허연. 끓이는 사름덜 잇어.

107061 @ 끓이는 사름덜 잇어예.

107061 #2 게문 싱겨우른 이제 장 고리엇저, 무신 군내났저. 거 그 집 아이 웨젠 허난 장 고렷저. 하하.

107061 @ 장 안 웨민

107061 #2 그 집이 곳인 일 나젠 장 고렷저 허멍.

107061 @ 음.

107061 #2 켄디 그계 아니 싱겨우난. 싱겨우민 진짜 고려.

107061 @ 음.

107061 #2 장이 싱겁지 안 허민 고릴 리가 엇주게.

107061 @ 맞지, 그지예.

107061 #2 옛 사름 말이 그거주.

107061 @ 계난 석 달 지나민 먹어지는 거난 봄 나사 먹는 거라예?

107061 #2 막 엇인 집이 식구 한 집이덜이 스몫 새장 드러 먹고게. 벌거롱만 해도 먹고. 뻬당 먹는 집은 묵은 장 먹주게. 계난 묵은 장 새 장 옛날은.

107061 @ 장 만들 때 왜 장 고리는 일 잇고 장 망치는 일 잇이난?

107061 #2 게메 계난 그 소금이 두루 논 거라.

107061 @ 계난, 계난 옛날에는 그거 소금 덜 논 거렌 생각 안 하잖아예.

107061 #2 계난 나 아까 안 골아냐, 그 집이 곳인 일 당허젠.

107063 @ 계난 장, 메주 숭을 때나 장 담글 때 금기 해야 웨는 일이 잇지 안 허과?

107063 #2 비리, 비리지 안 허영계.

107063 @ 몸 비리지 안 허영?

107063 #2 이제 멘스, 멘스 안 오고 영장밧디 안 보고게. 영장밧디 안 가고. 피 흐뵂 나도 안 허고.

107063 @ 아, 기과.

107063 #2 피 나른 이제 비런 그 메주 버랭이 켄덴게.

107063 @ 아.

107063 #2 버랭이 켄여. 첫째 멘스 오른 안 허여.

107063 @ 안 해?

107063 #2 거 버랭이 켄여. 버랭이 켄덴 허멍. 아이 경헌디 버랭이 잘 켄여. 메주에서 줌이 잘 일어 어떻허멍. 흐뵂 지릿허민 버랭이 켄 거 닳아.

107063 @ 아.

107063 #2 계란 영 돌아멘 걸 보든 일절 버랭이 안 퀘는디 옛날 아래 틀 때 버랭이 잘 퀘여서. 계란 지룻허면서 버랭이 퀘는 거라.

107063 @ 버랭이 퀘 가난 우이 돌아메기덜 시작헐구나.

107063 #2 돌아메민 안 퀘여.

107063 @ 안 퀘여예?

107063 #2 으.

107063 @ 계민 삼춘도 돌아메난 거 아니예?

107063 #2 쪽 돌아멧주.

107063 @ 이걸 어떻 험니까? 돌아메젠 허민 준비를 해야 될 거.

107063 #2 찍게.

107063 @ 찍.

107063 #2 찍 난에 영 무경 그자 혼 멧 가락으로 행, 두 개 보통 두 개 담으민 웨여 찍 하나에.

107063 @ 으.

107063 #2 보통 두 개 헤영 네 개 행 돌아메여. 저기 돌아메난 거 있어. 저 보 일라실에.

107063 @ 메주 돌아멘 거 잇어마씨?

107063 #2 아니 돌아메여 난 그.

107063 @ 아.

107063 #2 보일라실에 저기 돌아메여.

107063 @ 사진 찍영 가젠 헤신디 아니구나.

107063 #2 겨울에베끼 메지 못 허주. 여름 땀 안 웨여 베랭이 쟁. 메준 얼어사.

107060 @ 예. 계란 고추장은 여기 안 담아놔수과?

107060 #2 무사 안 담아게. 고추장 담주.

107060 @ 고추장은 어떻 답으니까? 만드는 거?

107060 #2 우린 고추장 그 물엿, 물엿 사당 물엿 놓고 저 뿔고 메줏가루 영 물엿 팔팔 끓고 그 메줏가루영 그거영 허터 낱 그 다음 고춧가루 허경.

107060 @ 아.

107060 #2 웬장에도 담는디, 그 고추장 담는 웬장.

107060 @ 메줏가루가 뭐?

107060 #2 메주 그 아까 허는 장 담는 메주 가루.

107060 @ 예.

107060 #2 그 거에 밀 퀘운 거에 저 장에 풀아. 그거 해당 물엿 팔팔 끓여. 그 물엿을 이제 물러레 낱 끓이든 그 메줏가루로 아까 그 장 담는 그루 삭 곤 것이 잇주게.

107060 @ 장 담는 그루를 따로 끓양 봐 됩니까?

107060 #2 끓양 봐 뒤. 이 시장에 풀아.

107060 @ 아니 옛날에는?

107060 #2 옛날에는 그냥 뭇 허영, 밥 허영, 찰밥이나 쌀밥이나 허영 헛주게.

107060 @ 예.

107060 #2 이, 이젠 다 메줏가루 퇴왕 팔아.

107060 @ 아.

107060 #2 이젠 우리 먹을 일이, 고추장 먹어지지 안 허난 안 담아. 그 전인 우리 고추장 쪽 담안. 담안 먹언. 경헌디 이제는 고추장 막 먹질 안 허여. 나이도 들고 일도 엇고.

107060 @ 예, 일도 엇고예.

107060 #2 일도 엇고. 전이 일 하영 헐 땀 고추장 두어근, 서너근씩 담아도 흔해에 다 먹어. 그 냉국도 허곡 헌디 이젠 고추장 저 우리 집이 살아난 아시가 이신디, 우리 돌아당 사는 그 아시가 보낸 거 흔 삼 년 동안 먹엄서 이거. 그거 지금도 쪼끔 이신디 오래난 검은게.

107060 @ 음.

107060 #2 계난 우리 담양 먹어난게. 계난 저 메주 띄운 거, 나 메누리네도 경허연 담아쥬.

107060 @ 음.

107060 #2 메주 띄운 거 사단 큰메누리허고 셋메누리 영 헐 담양 먹으라 상 먹젠 허믄 비싸고. 두 근 반씩 곱안 허난 아이고 실피 먹고 오래 먹어점수다. 맛있고 허난.

107060 @ 음.

107060 #2 계난 이젠 지네냥으로 험신고라.

107060 @ 계난 고추장을 오래 전서부터 담앗수과?

107060 #2 으, 우린 쪽 담양 먹언. 우린 저 육지 갈 때 서울서 고춧가루를 갈아완 경헤영 담앗주게.

107060 @ 예.

107060 #2 경허영 이딧 사름덜 고추장 잘 안 담아서.

107060 @ 기지예, 제주도 사름덜.

107060 #2 제주도 사름덜 고추장 안 담아. 우린 육지 갈 때 서울에서 고춧가루 썬주게. 이젠 제주도도 썬디 옛날은 육지가 싸.

107060 @ 예.

107060 #2 경헌 그거 헝 왕. 일허젠 허믄 고추장 담아서.

107060 @ 일헌다는 게 뭐? 뇽 빌영 일허젠 허난?

107060 #2 뇽 빌영 일허젠 허난.

107060 @ 삼춘네 무슨 일을 헤난?

107060 #2 뭐 갈양 장서헤젠 허난 막 뇽을 하영 썬주게.

107060 @ 뭐 갈양?

107060 #2 마농, 뭐 양배추 다 허연.

107060 @ 아, 완전 상인질 헤낫구나.

107060 #2 으. 경허난 그거 인부덜 어떤 때 십 명 이십 명 빌믄 이제는 다 식당 밥 먹어도 옛날 다 행 먹였주게 게난.

107060 @ 행 먹였지예? 삼춘 대로 다 음식덜 허멍 그 인부덜 먹인 거라예?

107060 #2 으. 아이고 국 허고 밥이라. 경해도 경헨 먹였주. 게난 고추장 많이 답아서 우린.

107060 @ 인부 빌령 그 만약 그 작업도, 영 싱그는 작업도 허고?

107060 #2 우린 그런 건 아니고. 념의 거 산.

107060 @ 념의 거 상 혈 때도 인부가 필요합니까?

107060 #2 아니게 그거 사면은 그거 캐젠게.

107060 @ 아, 수확혈 때?

107060 #2 으.

107060 @ 다 자란 거 상 그거 켈 때 념 빌어가지고 헛엇던 거?

107060 #2 으. 마농도 패마농도 상 이제 그거 뽑양 이제 다듬양 풀아야 돼지. 저 쪽과도 사민 이제는 까는디 옛날엔 까진 안 해서. 그거 뽑젠 허민 다 뽑양 이만 썩 무경야지. 마다리 푸대, 짝으로 무꺼 옛날은.

107060 @ 으.

107060 #2 짝으로 무경 허지. 마늘도 무경 짝으로 무경 행 마다리 담양 부산 서울 보냈주게.

107060 @ 아.

107060 #2 게난 우리 고추장은 하영 담양 먹언.

## 떡류

107064 @ 게난예. 그런 거 때문에. 저기 이제 떡 허는 거 물어보쿠다예, 떡 허는 거예. 식게 멩질도 헤난 거 아니?

107064 #2 으. 그땐 친떡 허고 기주떡 허곡게. 여름에 기주떡.

107064 @ 떡 종류가 뭐 잇어? 친떡, 기주떡 또?

107064 #2 세미떡.

107064 @ 세미떡.

107064 #2 인절미.

107064 @ 인절미.

107064 #2 곤떡.

107064 @ 곤떡.

107064 #2 송편.

107064 @ 송편. 막 옛날에도 송편이렌 곱아난 여기?

107064 #2 막 옛날엔 송편 잘 안 헨 옛날은. 보통 세미떡 허고 곤떡 허여.

107064 @ 아, 세미떡 허고 곤떡.  
107064 #2 겨울엔 그것게. 이제 으름엔 침떡 허고 기증펜.  
107064 @ 어.  
107064 #2 저, 저 침떡이 아니고 기증펜 허고 저 뿔고 기주떡.  
107064 @ 으.  
107064 #2 기주떡은 니귀반득헌 건 인절민. 반착 끈은 건, 동글락허게 헨 반착 끈은 건 세미. 경헛주.  
107064 @ 이제 떡 만드는 거 하나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107065 #2 침떡은, 침떡이렌 헛수과, 친떡이렌 헛수과?  
107065 @ 침떡예. 침떡도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  
107065 #2 게, 좁쌀 침떡도 잇고게. 그 밀꺾루 허영 거 뿔고, 학 곤젠 허난 저 뿔 감제도 놓고 무우도 낱 그런 침떡도 잇고.  
107065 @ 어, 또? 곤침떡도 잇고?  
107065 #2 곤침떡은 지펜. 제펜.  
107065 @ 제펜.  
107065 #2 제펜. 제펜 또 좁쌀 반착 곤쌀 반착 헌 건 반제펜.  
107065 @ 반제펜.  
107065 #2 으, 반제펜.  
107065 @ 게민 그런 거?  
107065 #2 반제펜은 사돈이나 주고.  
107065 @ 아.  
107065 #2 사돈덜 이제 영 온 때 영장이고 뿔고 사돈신딘 반제펜 끈어 낱 주고. 또 제사 때 옛날엔 사돈침이도 다 줘서.  
107065 @ 음.  
107065 #2 메뉴리 우리가 허여 오문 메뉴리 어떻네 집이 그 떡 네 빈 낱 보낼 때 반제펜 하나, 제펜 하나 침떡 두 개, 적갈 경 낱 보내여.  
107065 @ 그럼 그걸로 만든 거는 침떡이렌 안 헤?  
107065 #2 뿔?  
107065 @ 침떡이렌 굳는 건 오로지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렌 헤마씨? 조로 만든 것만 침떡이렌 헛니까?  
107065 #2 으. 치난 침떡.  
107065 @ 치난 침떡. 모양은 ㄱ튼디 재료가 조로 만드난 침떡이렌 허고 저기 솔로 만든 건.  
107065 #2 건.  
107065 @ 제펜?  
107065 #2 제펜.  
107065 @ 아.

107065 #2 반착 현 건 반제펜.

107065 @ 반제펜이렌 헐 거라예. 계민 이제 침떡을, 조침떡부터 한 번 만들어 보게. 침떡부터 만들어 보게. 침떡 만들젠 허민 어떻 험니까? 이제 ㄱ루를?

107065 #2 ㄱ루를 이제 옛날은 소상 때엔 물방에에 뺏고.

107065 @ ㄱ루 하영 헐 거난.

107065 #2 제사 때엔, 경헐 사름덜이 왕 다 쳐 줘. 저 제사 때엔 남방에에 뺏아. 남방에에 뺏아당 이제 감저, 감저 막 하영 낱. 저 쓸 부뜨나마나 허영 이제 혼 줘 타 낱 펜펜허게 허영 풋쉬나 저 콩, 콩 ㄱ루나 이제 녹뒤 삶은 거나 헤영 영 낱 또 혼 줘 탕 낱 허영 그 시리에 경헐 장작불 슴앙 허민 이제 보난 불을 두루 슴앙 서 는디 옛날은 혼 착이 자꾸 설어.

107065 @ 하하.

107065 #2 경허민 여자덜 일로 정지로 못 멩기게 해서.

107065 @ 침떡 설카부덴?

107065 #2 선덴.

107065 @ 예, 예.

107065 #2 겨고 문 딱 더경. 겨난 원인이 불을 딱, 브름은 옛날 세고 허민 계민 이짜 안 익고 이짜 익고 허는 거라.

107065 @ 음.

107065 #2 계난 원인은 장작불을 줄바로 안 가면 그 원인이라. 계난 우리가 딱 가스불에 헝 보민 그런 태가 었어. 그 다음엔 계난 원인이 그거라.

107065 @ 장작불이 다 골고루 안 가는 거라예.

107065 #2 골고루 안 가니까 계난 이짜에 브름 발른 짝엔 푸는체 세움도 허고 물 질어 와도 이제 그레 들어오지 못허여. 여자덜 들어오민 떡 선덴. 아기덜도 못 들어와. 정짓문 딱 중강.

107065 @ 아고 여름에 식게 헤 먹젠 허민 힘들쿠다예?

107065 #2 딱 문 증가야 돼여. 그거 들어.

107065 @ 아이고.

107065 #2 들어오민 이제 떡 선덴. 떡 선덴 허멍 헌디 그게 아니 원인이.

107065 @ 아. 기민 왜 아까 침떡 만들 때 조를 남방에에 곱앗잖아예. ㄱ루 만들 앙 막 체로 칭 그 ㄱ루를 바로 그 떡 시리에 놓는 거?

107065 #2 아니.

107065 @ 어떻?

107065 #2 그거 막 밀어야 돼여.

107065 @ 예, 예.

107065 #2 밀어야 질겨.

107065 @ 예, 예. 뭐에? 물 낱 미는 거?

107065 #2 물 낱. 물 흐끔 낱 밀영 감저에 그 좁쌀 떡만 안 허여 거의 감저, 고

구마.

107065 @ 예.

107065 #2 고구마 썰어 놔. 이제는 겹죽 뱃기주만은 옛날은 고구마 겹죽 안 뱃  
견.

107065 @ 감저예. 그냥 썰영?

107065 #2 썰영. 그거 놔근에 이제 ㄱ루 부뜸만 허게 해영 헛주.

107065 @ 막 민다는 거는 우리 즈베기 만들 때처럼 반죽허는 건 아니지예?

107065 #2 그추룩 ㄱ루 밀어야 질겨, 질기주게.

107065 @ 그럼 그, 그 민 즈베기 반죽에 감저를 넣는 거?

107065 #2 아니. 막 즈베기 반죽 거치 질진 안 허고 그냥 흐뎡 보실보실해도 약  
간 물 낱 막 밀어야 돼여.

107065 @ 예.

107065 #2 저, 제웬도 막 밀어야 잘 돼여.

107065 @ 아.

107065 #2 이젠 기계에 막 돌리난 헌디 밀어야 잘 돼여.

107065 @ 예.

107065 #2 밀지 안 허믄 안 돼여.

107065 @ 경헝 이제 솟, 솟은 어떤?

107065 #2 솟은 쉼솟게.

107065 @ 쉼솟. 거기 시루떡 치젠 허민 뭐 갖다 놀 거?

107065 #2 시루떡 허영 그 시리에 허영 요 바우엔 ㄱ루로 부쩌야주게.

107065 @ 어.

107065 #2 떡광 시리 사이.

107065 @ 으, 떡 ㄱ루로 쪽 부짱 짐 안 세계예?

107065 #2 으. 쟁 짐 나가민 대 막뎡이로 꼭 허게 찢렁 이제 시릿구멍에 한 가  
운데, 윗이 거 다 찢러지민 글로 짐 솟아.

107065 @ 음.

107065 #2 대막뎡이 이제 찢르는 게, 영 찢러 보젠 허믄.

107065 @ 익어신가 안 익어신가 보는 거 아니?

107065 #2 으. 경헝 영 나오믄 대막뎡이에 ㄱ루가 부뜨민 설고 떡 찢어진 거 보  
믄 안 선 거 알 거 아니.

107065 @ 음.

107065 #2 경허믄 이제 안 허믄 들러앗점저 무신거 가달 냄기멍 들어와부난 헛  
저 허명덜 막 헛주.

107065 @ 아이고 시루떡 찢명 막 싸윳구나게.

107065 #2 아이고 잘도. 어떤 집인 잘 익는디 어떤 집인 경 허연게. 원 이제 잇  
어불지 안 허여. 우리 사춘 시누이네 저 성굴왓 사는디 헤도 헤도 경 떡이 설어. 겐

두리리명 웨 부치명 헌디 원인이 우리가 헤 보난 딱 불 골이 안 살믄 원인게.

107065 @ 음.

107065 #2 나가 정험을 헤 보니까. 불이 아니 가믄 이짜은 안 익는 거 사실 아니게. 경헌디 할망덜 그게 아니라.

107065 @ 게민 조침떡은 경허는 거우다예. 게민 반절펜 만들젠 허민 그루 놀 때 어떻 놓니까?

107065 #2 게난 반, 흔 줍팍 놀 거민 줍썰그루 반 줍팍 낱 그 다음 곤썰 그루 반 줍팍 낱 그 다음 쉬 놔.

107065 @ 경 반 펜펜허게 경 놔져?

107065 #2 아니 낱 손으로 짝 흔 번 썰어.

107065 @ 예.

107065 #2 또 그 다음 곤썰 낱 손으로 썰어근에 쉬 영영. 경허민 뉘주.

107065 @ 아. 그거 놓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107065 #2 아니 어떻 안 허여 기자. 줍팍으로 거러낱 영 허믄 다 뉘여.

107065 @ 아, 다 뉘여. 경헤연 반절펜 허는 거.

107065 #2 게난 사돈칩이난 어디 보내젠 허믄 반제펜. 또 옛날은 그 소상 허젠 허믄 공정이엔 현 게 있어. 그 공정 이제 고기 썬 사름 이런 상제 옷 만든 사름 그 공정 주젠 허믄 반제펜은 들어가야 뉘.

107065 @ 옛날에 고기 썬는 사름, 옷 만드는 사름.

107065 #2 반제펜, 이제 청객. 이제 거트민 이레 앓읍서 저레 앓읍서 허는 청객.

107065 @ 청객? 그런 것도?

107065 #2 으, 청객. 이제도 이디 읍서, 이 방더레 갑서 안 헤여게.

107065 @ 예, 예.

107065 #2 그거 청객.

107065 @ 그 사름안테도.

107065 #2 공정을 줘야 뉘여.

107065 @ 공정을? 그 사름덜을 어떻 험니까? 그 산 보고 일 현 사름덜은?

107065 #2 그건 정시. 건 돈으로 줘.

107065 @ 그거는 돈으로.

107065 #2 건 돈으로.

107066 @ 시루떡은 경헝 만들엇고, 아니 제펜은 경헝 만들엇고 송펜은 어떻 만듭니까?

107066 #2 송펜은 썰 그냥 남방에에 뵈앙게, 뵈앙 물 꿩왕 찌영.

107066 @ 음.

107066 #2 물 꿩왕 찌영 이젠 달왕 이젠. 송펜은 이제, 송펜은 이 중간에 낱주 옛날엔 안 낱주게. 옛날엔 보통 송펜 안 헤영 곤떡, 동글랑 곤떡.

107066 @ 음.

107073 #2 게고 반착 곤떡 경헨.

107073 @ 곤떡은 영 본으로 찍어 내는 거 아니?

107073 #2 으, 으. 저 뗏고 저 크라스, 크라스로 딱 찍으난. 옛날엔 주로 손으로 만들어 곤떡을.

107073 @ 아, 떡본으로 찍지 안 허고.

107073 #2 아니, 손으로 만들앗주.

107073 @ 옛날에 떡본 같은 거 무늬 있는 거 있지 안 험니까?

107073 #2 거 육지에는 이신디 제주돈 잘 엇어. 아이 저 남군도 있어. 겐디 이 서쪽은 우리 쪽은 엇어.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

107073 @ 아, 손으로 만들어?

107073 #2 어, 이제 다 밀영 닥닥 찍는디 우린 다 손으로 곤떡. 우리 제서헨 때 꺼장 거의 다 손으로 만들어.

107073 @ 음.

107073 #2 손으로 주로 만들어. 겐 손으로 만든 게 질김도 허곡게 달좌정.

107073 @ 달좌져예. 게민 송편은.

107073 #2 이제야 송편이 낱주 옛날은 송편이.

107073 @ 옛날에 송편, 송편을 곤떡이렌은 안 불러낫수과?

107073 #2 안 불러. 곤떡은 멘작헨 거 곤떡이주게.

107073 @ 아.

107073 #2 멘작헨 거 곤떡, 영 멘작헨 동글랑 헨 거 곤떡. 또 그거 반착 허민 반 세미.

107073 @ 음, 반세미예.

107073 #2 쉬 담으민 세미.

107073 @ 예.

107073 #2 그건 쉬 담아진 건 세미. 반착 헨 거.

107073 @ 예. 저기 믱물궤루로 헤가지고 동글락 허게 지정 거기에 늬뻬 썰영.

107067 #2 건 빈, 빈.

107067 @ 빙. 여긴 빈이렌 불러난예?

107067 #2 으.

107067 @ 빈은 어떻 만들앗수과, 만드는 거 곶아줍서.

107067 #2 빈은 기자 믱물 곶아당 옛날, 이제는 계란 놓고 지름 놓고 다 헤도 옛날엔 경 안 헤연.

107067 @ 음.

107067 #2 기자 믱물궤루만 칸 헛주. 옛날엔 믱물궤루 흐뵤 카고 밀카루 그레 쪼금 낱 캥 그자 저 몰앙. 파가 옛날엔 벨로 파도 엇어서게.

107067 @ 음.

107067 #2 무 썰영 그자 콩늬물 하나씩 서경 허영 그자. 다 솟두경이 지젓주 엇

날엔. 솥뚜껑이 불 살랑 지전.

107067 @ 음.

107067 #2 건디 이거 이제야 후라이팬 나난 첩 전기후라이팬이여, 그냥 후라이팬이여 좋주 옛날은 솥뚜껑이에서 지정 영 무 썰영 데왕 저 쪽과 놓고 행 무쳤주게. 이젠 완전 저 빈도 고급이라 옛날로 생각허믄.

107067 @ 음.

107067 #2 다 참지름 놓고 저 계란 풀어놓고 하간 거 놓고. 거 칼 때도 참지름 놓고 현디 옛날 우리 동지덜 열흘루날 제사 이제 아덜네 줏주만은 그 제서에 게나 제나 빈 흔 말 푸끄메.

107067 @ 아.

107067 #2 흔 말 푸끄고 이제 저 묵 흔 돼 쓰고.

107067 @ 으.

107067 #2 경헨 먹은디 그때 그 참기름 경 안 놔서.

107067 @ 영 블를 땀 뭇로 블라?

107067 #2 블를 땀 저 늣뻘.

107067 @ 늣뻘로 허영 지름은?

107067 #2 지름은 저 뭇고, 학 근젠 허난. 유채 지름게.

107067 @ 아, 그때 유채 지름으로.

107067 #2 유채 지름 허고 도새기, 돼지.

107067 @ 기름?

107067 #2 기름 허영. 주로 돼지 기름. 돼지 기름 영 블름도 허고.

107067 @ 돼지 기름이야 추렴 헤나사 있는 거고?

107067 #2 게난 헤단 다 걸영 놔 뒤. 걸영도 놔 두고 졸랑도 놔 두고.

107067 @ 아, 졸랑도 놔 두고.

107067 #2 으, 소금 낱 졸랑 단지에 담양 놔 두민 어땡 안 허여. 경헨 영 접시에 떠 낱 호박, 호박 꼭데기 잇잖아. 그걸로 영 행도 블르고. 무우도 블르고.

107067 @ 무우도 블르고.

107067 #2 여름에 호박 껍데기, 겨울에 무우.

107067 @ 아하하. 여름에 호박 꼭데기.

107067 #2 여기, 여기 꼭데기 허영 거 그거 적저당 영영. 무 꼭데기 허민 그걸로 영 적저당 영영 블랑 솥뚜껑이레.

107067 @ 으.

107067 #2 이젠 하간 거 다 놓고.

107067 @ 이젠 참지름 블르잖아예?

107067 #2 아니, 식용유.

107067 @ 아, 식용유 험니까? 그거 블르는 거?

107067 #2 으, 식용유. 이젠 다 식용유.

107067 @ 아, 기과.

107067 #2 불리는 건 다 식용유 허고 목 칼 때는 춤지름 낱, 찹 찹 므물ㄱ루 칼 때는.

107067 @ 아, 아.

107067 #2 다 식용유 불람주.

107068 @ 상웨떡도 만들어놨수과?

107068 #2 삼메떡은게 보리쌀 곶아당.

107068 @ 아, 여긴 삼메떡?

107068 #2 으.

107068 @ 삼메떡예. 보리쌀 곶아당.

107068 #2 보리쌀 곶아당 이제 밥, 보리밥 허영, 옛날은 쌀밥이 서서게. 보리밥 허영 누룩 그레 낱 놔 뒤당 혼 사흘 혼 삼일, 사일 웨민 그거 퀘주게.

107068 @ 으.

107068 #2 게민 그거 걸렁 떡 찌영 경험 낱 헛주게. 삼메떡. 원 그거 여름엔 거 무시겄고 세미떡 그것이 엇어, 므물세미떡 그런 것이 엇고 삼메떡, 삼메떡을 헛주게.

107068 @ 보리ㄱ루로 헤낫수과?

107068 #2 옛날 보리ㄱ루베끼 더 셔게.

107068 @ 밀, 밀?

107068 #2 밀 엇어서.

107068 @ 엇어서?

107068 #2 우리 헛 땀 주로 보리쌀 곶아당. 제사 헛 때. 밀, 이추룩 밀가루 난 지가 경 오래 웨서게.

107068 @ 그래도 옛날에도 육이오 전쟁 끝나고 나서 푼는 거 들어오지 안 헛수과?

107068 #2 아니, 어려와서.

107068 @ 어려와서. 게난 보리ㄱ루로.

107068 #2 주로 보리ㄱ루로 헛주. 보리 삼메떡. 막 맛좋아 경해도.

107068 @ 보리삼메떡예. 막걸리 놓고?

107068 #2 아니 막걸리가 아니고 기주를 허여.

107068 @ 기주를예. 기주헛 놓고.

107068 #2 누룩 허영게. 누룩을 겨울 웨면 막 하영 헛주게 슷.

107068 @ 식게 헤 먹젠 허난.

107068 #2 으. 식게 누룩 허영 술 허영 좁쌀 허영, 좁쌀 서말 너말 술 허영 삼미 사름 다 맥엇주게. 이제, 이제보단 옛날이 인심이 좋아서.

107068 @ 하하하.

107068 #2 동네 다 맥여. 우리 성굴왓, 신흥동이렌 허는 디 살아난디 동네 족으

난 동네 사름 다 막걸리 먹는 사름 왕 혼 사발 먹고. 청주 혼 잔, 막걸리 혼 사발  
젓주게.

107068 @ 음.

107068 #2 떡도 다 난 놓고. 이제난 안 내 놓주.

107069 @ 계민 제사에 허젠 허민 아까 떡들 뭐 뭐 제사에 올려난?

107069 #2 주로 침떡.

107069 @ 침떡 올리고.

107069 #2 그 여름엔 저 기주떡.

107069 @ 기주떡 올리고.

107069 #2 곤떡 올리고.

107069 @ 거뿐?

107069 #2 과일도 이제난 해도 옛날은 사과 배베긴 안 올렛주게.

107069 @ 아니 영 올리는 떡들이 잇수께. 예를 들민 침떡 밑에 놓고 우에 뭐  
놓고, 뭐 놓고.

107069 #2 우에 세미 놓고 곤떡 놓고 거뿐.

107075 @ 우에 지름떡 같은 거 안 올립니까?

107075 #2 그 지름떡도 이제사. 옛날에사 해서게.

107075 @ 아, 옛날엔 안 헨. 계민 이거 세 종류라. 올릴 때?

107075 #2 으, 으. 이제난, 이제가 전이 잇주 옛날사 전이 셔서게.

107075 @ 아니 다른 동네 갈 때는 다섯 종류를 올린덴 험디다.

107075 #2 아니 과일은 다섯 종류 올리는 디 잇고 세 종류 올리는 디 잇고.

107075 @ 떡을, 떡을 영?

107075 #2 아니.

107075 @ 아니?

107069 #2 이제도 보통 그자 침떡 올령 세미, 인절미 올령 곤떡 올려. 곤떡이나  
송편이나 올려.

107069 @ 곤떡이나 송편이나 올려예?

107069 #2 으, 이제도 경허여. 과일은 세 종류 올리는 사름 잇고 다섯 종류 올  
리는 사름 잇고.

107069 @ 음.

107069 #2 워낙 밋 허민 일곱 종류 올리는 사름, 대추 밤 들어가는 사름은 일곱  
종류 올리고. 옛날은 과일도 세 종류게 딱.

107069 @ 세 종류예?

107069 #2 으. 세 종류, 종류 출려서 그자 사과, 배만 올리고 사과만 올리고 헌  
때도 셋주. 이제난 적갈도 세 종류 멧 종류. 옛날은 돼지 적갈 하나라 딱.

107069 @ 음.

107069 #2 그 소고기 적갈, 무신 적갈이 엇어주게. 꿩만 꿩, 생선 구는 건 떨

어지지 안 혜영 구워서. 생선이든 우럭이든 아무 거라도. 굽는 건 허는 디 이젠 적  
같도 세 가지 뭐 굽는 것도, 전도 옛날이사 전이 어디 서. 전 허는 게 어느 저름에.

107069 @ 음.

107069 #2 우리 헐, 우리도 혼 반쯤 뵈 후에야 전 해서. 이 살림 살 때 처음 헐  
때 전 안 허연. 이젠 전덜 허고 해도.

107069 @ 제사에 세 종류 올렸잖아?

107069 #2 으.

107070 @ 장례식 할 때는?

107070 #2 장례식 할 때는.

107070 @ 영장헐 때는 떡 뭐 뭐 해서?

107070 #2 거 영장헐 때도 경 올려. 옛날엔.

107070 @ 마찬가지로?

107070 #2 이제도 거의 다 경 올려.

107070 @ 세 종류예. 예, 예. 인절민 어떻 만들어놨수과?

107070 #2 네귀반듯 허게. 영 영.

107072 @ 인절미 만들어 봅서. 어떻?

107072 #2 밀어.

107072 @ 뭘, 쌀가루?

107072 #2 으, 쌀가루. 그 저 뭐 므물꺾루나 뭤로. 그거 허민 니귀 반듯허민 인  
절미주게.

107072 @ 음. 뜨거운 물로 반죽합니까?

107072 #2 뜨거운 물로 해서. 근쌀꺾루 인절미나 저 뭤고 므물쌀 꺾루 인절미나  
다 영 칼로 짹 끈영 네모 나민 인절미.

107072 @ 아, 네모 나민 인절미라.

107072 #2 으. 네귀 반듯허게. 저 삼미떡도 네모난 건 거 인절미로 올리고.

107072 @ 음.

107072 #2 반착현 건 세미로도 올리고 헛주게.

107073 @ 솔변, 절변은 어떤 것과

107073 #2 그거게 곤떡.

107073 @ 음.

107073 #2 저 세미, 인절미꺾라 솔변, 절변 헛주게.

107073 @ 세미, 인절미꺾라.

107073 #2 저 남군은 솔변, 절변이엔 안 곶아? 이딘 허여도. 이딘 곤떡 힌디. 남  
군은 솔변, 절변.

107073 @ 아, 솔변, 절변.

107073 #2 으. 경 안 곶아냐 남군은?

107073 @ 예.

107073 #2 이딘 안 고아. 이디는 세미떡, 곤떡이고.  
107073 @ 아, 세미떡, 곤떡이고.  
107073 #2 으, 그거 남군은 솔변, 절변.  
107073 @ 으, 곤떡이고.  
107073 #2 으, 이딘 곤떡이고 남군, 저 서귀포 착더렌 솔변, 절변. 우리도 저 대  
정 허난 거 솔변, 절변이엔 헨게.  
107073 @ 계난. 계난. 세 종류만 올리는 건 이 동네는 웃기떡이 엇어낫수다예?  
107075 #2 웃기떡이 뭐라?  
107075 @ 지름떡 같은 거, 맨 우에 올리는 거를 웃기떡이렌 안 험니까?  
107075 #2 안 허여난.  
107075 @ 웃기떡 안 현 거예.  
107075 #2 안 현디 포리엔 현 건 잘 헤나서.  
107075 @ 포따리가 뭐과?  
107075 #2 계란 낱 동글락허게 파 하나 놓고 고사리 놓고 현 거 포따리.  
107075 @ 그걸 포따리렌 헤난?  
107075 #2 으, 그건, 그건 쌍 가는 거렌 허멍 포따리. 그건 적갈 우이 놔.  
107075 @ 적갈 우이 놔?  
107075 #2 으, 적갈 우이 놔.  
107075 @ 돼지 적, 소고기 적.  
107075 #2 이젠 헤도 옛날은 돼지 적갈만 헛주게.  
107075 @ 돼지 적갈예.  
107075 #2 이제는 세 가지 적갈 험주만은 옛날에사 돼지 적갈 하나주 어디 소  
고기가 잇어게. 어찌다가 추렴이나 허민 헛주.  
107075 @ 음.  
107075 #2 옛날은 소고기 적갈 허민 돼지 적갈 안 허고 딱 하나 헤서 하나.  
107075 @ 하나.  
107075 #2 두 가지 안 허여. 이젠 딱 세 가지 안 헤여게.  
107076 @ 계난 웃기떡을 여긴 안 헛구나. 삼춘 당에 다녀낫수과?  
107076 #2 당에 난 안 다녀난디 어린 때 어무니 혼디 딱라 다녀난 건 알아지크  
라.  
107076 @ 어무니가 당에 다닐 때 뭐 험 갑디가?  
107076 #2 밥 허고 국제.  
107076 @ 떡은 안 허고?  
107076 #2 으, 안 허여. 어떻헌 뎀 허여도 떡은 안 허여. 겐디 저 국 끌렁 그레  
고기 낱 국 끌렁 밥 이제 혼 사발 거리고. 혼 사발사 거려신디 세 사발사 거려신디  
몰라. 멧 번 가와난 건 알아져.  
107076 @ 여기 당떡 안 헤 낫구나.

107076 #2 아니, 떡 헤난 건 몰라. 나 생각에. 경헌디 당에 어무니 손 심영 가난 건 알아져.

107077 @ 음. 굿떡도 안 헤나숫과, 굿 안 헤낫수과, 굿?

107077 #2 굿떡은게 영 동글랑허게 허는 거.

107077 @ 그거 뭐렌 굴아낫수과?

107077 #2 다대게. 다대.

107077 @ 다대에. 그 다대 만들어봅서 다대. 어떻 만들어?

107077 #2 다대도 그 곤떡 만들듯 크게게. 크게 동글랑허게 영 혼 사발만인 허여. 동글랑허게. 겐 그거 다대. 다대 멧 개씩 허영, 혼 밧디 혼 댓개씩 올려. 막 하영 허여. 어떤 때 혼말에치씩, 두뉘치씩. 제사보다 더 하영 허여.

107077 @ 아까 곤떡 만드는 거나 다대 만드는 거나 반죽은 다 ㄴ튼 거예?

107077 #2 으.

107077 @ ㄴ루에 뜨거운 물 낱 막 반죽예?

107077 #2 으, 반죽 헤영 영 다대는 커 돌레 거치. 돌레.

107077 @ 게난 돌레랑 다대랑 뭐가 틀립니까?

107077 #2 돌레떡이 다대엔. 굿 험 뎀 다대엔 허고 돌레떡은 옛날에 영장밧디 그거.

107077 @ 예.

107077 #2 이제 거트민 돈 행 가는디 중간에 또 쓸 행 가나진 안 헤?

107077 @ 예.

107077 #2 켤당덜이. 켤디 옛날은 거 돌레떡 행 강 이제 ㄴ딘 친족은 멧 손, 먼 친척은 멧 손. 건 우리 어릴 때.

107077 @ 어릴 때.

107077 #2 으, 건 영장밧디 그 떡을 행 가서 거 부주로.

107077 @ 게민 떡 하나가 혼 손이 되는 거?

107077 #2 아니. 두 개씩 두 개씩 헤영 멧 개 쥐영 혼 손, 두 손사 헤신디 몰라. 게나 멧 손 헤 강 이제 그걸 모두왕 상뉘꾼이고 간 사람을 멕여. 떡 헤 간 걸로.

107077 @ 음.

107077 #2 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107077 @ 음 부주 대신에.

107077 #2 부주로 그냥 ㄴ든 켤당 어느 켤당은 멧 손, 어느 켤당 멧 손 다 적엇 주게. 경허당 그 다음 우리 흥꿈 옥을 때 쓸 이제 곤솔은 두 뉘, ㄴ딘 켤당은 혼 말.

107077 @ 음.

107077 #2 보리솔은 혼 말. 경헤영 부주 헤여 와. 경헌디 그 영장밧디 돌레 헤가. 좁쌀에 돌레로. 이만큼, 이만큼 크게.

107077 @ 게민 다대랑 돌레는 똑같은 거?

107077 #2 비슷하여.

107077 @ 비슷하여? 재료도 똑같고?

107077 #2 아니, 저 거의 굵 허는 딴 곤썰 떡.

107077 @ 아.

107077 #2 저 영장밭딘 좁썰떡.

107077 @ 여기 ㅁ물ㄱ루는 돌레떡 안 만듭니까?

107077 #2 ㅁ물ㄱ루는 어려워.

107077 @ 아, 어려우난.

107077 #2 좁썰로 거의 돌레, 돌레떡이라. 돌레떡, 오메기떡.

107066 @ 계민예, 우리 아까 침떡은 시루에 놔근에 쳐 내는 거잖아예. 근데 곤떡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로 반죽행 만들엉 썬 냐니까, 솥아냅니까?

107066 #2 솥아냄도 허고 식용류 불랑 썬 냐도 허고.

107066 @ 계민 뭐는 썬 내어?

107066 #2 저 그냥 영 포따리 깎앙.

107066 @ 예, 포따리 깎앙.

107066 #2 포따리 깎앙 솟디 영 고망 뜯아진 것에. 옛날엔 췌망 낱 헛주게. 이젠 저런 고망 뜯라진 거 이신디 옛날은 췌망 낱 또 낱끼기 영영 걸쳐 힘벅 깎앙 경헨 쳐넛주게.

107066 @ 계민 쳐 낸 거랑 솥아 낸 거랑?

107066 #2 쳐 내야 헤싸지지 안 헤영. 솥아낸 건 잘 못 솥으민 꺼꺼져불어.

107066 @ 삼춘은 주로 쳐 넛수과?

107066 #2 으, 솥아 낸 게 헤영은 현디 쳐 내야 몽글락 허게 잘 뒤어.

107066 @ 송편도?

107066 #2 으, 송편도 썬야 잘 뒤고 솥으민. 아니 송편은 헤싸지진 안 헤도 썬야 쫄깃쫄깃도 허고.

107066 @ 음.

107066 #2 주로 썬야 좋아.

107066 @ 췌망 놔가지고, 거기에 낱 가지들 낱 뒤 깎앙 그 우이 올려 놓는 거 구나예?

107066 #2 낱끼기 영 영 낱 거기에 새나 뒤 낱 이제 힘벅 낱. 그냥 또 힘벅 안 놔도 새 놓민 어떻 안 헤어. 새 낱도 허고 솔입, 솔입 낱도 허고.

107066 @ 기지예. 솔입 낱 허민 향도 나고.

107066 #2 으, 솔입 낱도 허고 경허민. 힘벅도 어려우난게 옛날은. 힘벅도 요 직전이도 어려왕 스뭇 빌어오고 헛주게. 이젠 드러 데껴불어도.

107078 @ 계민 아까 곱은 떡말고도 집어서 만들어 먹어난 떡이 잇수과?

107078 #2 엇어. 벨로.

소와 고물

107079 @ 떡 만들젠 허민 안에 쉬 넣어야 돼잖아예.

107079 #2 으, 게난 풋쉬나 콩쉬나. 콩은 보까, 글아.

107079 @ 예.

107079 #2 경헨 콩쉬나. 풋 시민 존디 풋 엇이민 콩. 보깡 글앙 그거 이제 벨로  
풋 쉬만이 맛 엇어도.

107079 @ 으.

107079 #2 풋 엇이민 경헨주게.

107079 @ 풋은 어떻게?

107079 #2 풋은 슣앙.

107079 @ 슣앙.

107079 #2 슣앙 그냥 흐끔 방에에 영영 영영 뽕앙 경혜영 허꺼 놓고. 저 녹뒤도  
경 혜 놓고. 주고 녹뒤, 풋이 주장이주.

107079 @ 주장이라예. 콩은 보까 낱 글앙 쉬로 췌던 거고 나머지는?

107079 #2 슣앙.

107079 @ 슣앙예. 뭐 사탕가루나 뿌려?

107079 #2 사탕이 어디 셔게. 사탕이 어디 이제난 사탕이 췌주 옛날에사 사탕  
저 죽젠 헤도 엇엇주. 우리 아덜 이제 오십설. 그때 우유도 엇어서. 우유도 저 이시  
돌에 강 저 이시돌 성당에 강 타당, 막 덩어리 진 거 타당 이제 저 남비에 슣아근  
에 바글바글 불, 불 슣앙 헤 췌주.

107079 @ 아, 이시돌까지 우유 사례 가난?

107079 #2 아니, 아니 저 어디고 이젠 저 한림 병원 헤난 거 그 병원이 이시돌  
병원이라서 옛날. 저 천주교, 천주교 앞이 병원이.

107079 @ 예.

107079 #2 그디 이시돌 병원, 이시돌 병원 행 그 병원에 가든 그거 우유를 어떻  
행 타 와 나서 그거 우유 헤영 맥여났주. 우리 아덜 오십 서인디. 우유 이제 거치  
폴지 안 허여 그뻐.

107079 @ 기지예.

107079 #2 게난 우유.

107079 @ 무사 젓 안 나왕 그거 우유 사당 먹여난?

107079 #2 으, 경헨 어떻게 엇이난.

107079 @ 엇이난예. 경헨 먹여난예.

107079 #2 으.

107080 @ 게난 안에 넣는 건 쉬잖아예. 우에 더프는 건 뭐렌 험니까? 그것도  
쉬렌 헤?

107080 #2 아니 게난 쉬로 더뽑주게.

107080 @ 그거 다 쉬?

107080 #2 쉬, 쉬.  
 107080 @ 우에 허는 것도 쉬.  
 107080 #2 쉬.  
 107080 @ 송편 속에 놓는 것도?  
 107080 #2 쉬.  
 107081 @ 떡 만들명 영 재미난 일, 아니면 친떡 치명 삼춘도 영 잘 안 뉘난 적  
 었어.  
 107081 #2 잘 안 뉘 거 베랑 었고, 우린 혼 었이 설지 안 허여. 경 벨로 설지  
 안 허여.  
 107081 @ 아이구, 잘 만들어나신게.  
 107081 #2 겐디 우리 큰 시누인 하도 서난 막 두드리고 우리 큰 시어명, 신 뵈  
 고 찍신.  
 107081 @ 으.  
 107081 #2 찍신으로 두드리명.  
 107081 @ 잘 못 헛텐.  
 107081 #2 이 조상 뭐 어떻허고 험난 기억이 잇어. 하하하. 게도 우린 경 설어  
 보지 안 허연.  
 107081 @ 아, 설어 보지 안 허연.  
 107081 #2 게난 나만 이제 생각허민 그 원인이 불 두루 습양 원인인디 녀의 탓  
 을.  
 107081 @ 식게 멩질을 멧 번이나 험낫수과?  
 107081 #2 우린 두 번.  
 107081 @ 아, 벨로 안 험신게.  
 107081 #2 우리 시아버니네가 사형제고 또 우리 집이 하르방네도 삼 형제니까,  
 갈르니까 옷대 제사가 많지 안 허주게.  
 107081 @ 아, 많지 않으니까? 멧 살 때부터 알앙 말앙?  
 107081 #2 스물 여섯.  
 107081 @ 그때서부터 떡을 험 거라?  
 107081 #2 으. 스물 여섯에부터 식게 험주게. 혼 번. 그뻐 혼 번. 저 거세기 동  
 것덜 열 하루가 제삿날. 그 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강 시아버지 제사.  
 107081 @ 음.  
 107081 #2 시아버지 제사 허기 전이 옷대 제사 험 낵. 칠 월 스무 이튿날. 그거  
 지제 험덩 시아부지 제사.

### 별식

107082 @ 그 여기 옛날에는 장날이나 잔치 때 수웨 같은 것도 험 낵어예.  
 107082 #2 으.

107082 @ 사단 안 쓰고 집에서예. 수워 만들젠 허민 어떻 해낫수과?  
107082 #2 이젠 해도 옛날엔 그냥 보통 보리쌀 곶아당 헛주게.  
107082 @ 여긴 믰물ㄱ루를 안 헛구나.  
107082 #2 으, 겐디 이젠 다 저 믰물ㄱ루 사단 허여. 우리 옛날엔 보리쌀 ㄱ루 허여.  
107082 @ 보리쌀 ㄱ루. 만들어 밥서. 이제 순대 허젠 허난?  
107082 #2 보리쌀 ㄱ루에 이제 그 \*\* 거튼 거 흐뎡 찍어 낵.  
107082 @ 뉘, 뉘 찍어 낵?  
107082 #2 그 돼지 내장. 내장 좀 찍어 놓민 맛이 싣고 아이 찍어 놓민 맛 엇고.  
107082 @ 으.  
107082 #2 그거 북북이나 내장 같은 거 흐뎡 찍어 놔근에 담앗주게 옛날은. 보리쌀 곶아당 옛날은.  
107082 @ 예.  
107082 #2 겐디 이젠 믰물ㄱ루. 이젠 믰물ㄱ루 곶아당 저 찰쌀 밥 혜영, 찰쌀 밥 혜영 이젠 그 피에 허경 헛주게. 옛날은 보리쌀ㄱ루게 믰말이 어려와.  
107082 @ 내장을 막 잘 싣어야 될 거 아니?  
107082 #2 으.  
107082 @ 돼지, 도새기 추렴 혜나민. 거기에 양념 뉘 따로 안 헛니까? 보리쌀 ㄱ루만.  
107082 #2 아니, 아니. 옛날엔 경 현디 이젠 양념덜 스뎡 쪽과도 놓고 마늘도 놓고 다 헛주게. 스뎡 설탕도 놓고.  
107082 @ 계난 지금 경 허는 거라예. 옛날에는 경 양념을 안 혜 봐서예.  
107082 #2 옛날엔 경, 그자 소금만 집어 낵주게.  
107082 @ 소금만 집어 놓고예.  
107082 #2 으, 돼지 고기 슴을 때도 소금만 집어 놓고 현디 이젠 웬장이여 생강이여 마늘이여 스뎡 벨 거 다 소주여 다 놓는다 옛날에 그런 게 엇어.  
107082 @ 음.  
107082 #2 옛날 살기가 경 이거니 저거니 재료가 엇어.  
107082 @ 음. 경허난 집엿 삼춘네도 뉘 식게 때라도 수에 만들어 봐낵수과?  
107082 #2 식게 때 아니고 뉘 허당 만들주게. 경허영 현 때. 집들이도, 아들네 집들이도 허젠 허민 저 수에 만들어당 주고.  
107082 @ 아, 삼춘이 직접 만들어당 주고 집들이 헛 때?  
107082 #2 으. 큰아덜이고 싣아덜이고. 작은아덜네만 사단 헛주 다 집들이 헛 때 나가 만들아다 쉼. 돼지 잡으난.  
107082 @ 아. 요리를 잘 혜 낵구나.  
107082 #2 잘 허진 안 해도 그자 헛. 널르니까, 이디가 널르니까 기자 헛 가져

갖주.

107083 @ 둠비는 어떻 헤낫수과, 둠비?

107083 #2 둠빈 우리도 잘 헤 보진 안 허여. 저 우리 이모 시이모넨 헤라만은 우린 안 허여 받. 이디 둠비덜 잘 안 헤나서.

107083 @ 게민 잔치 때 둠비 안 나와? 옛날에 잔치 때 뭐 뭐 나왔낫수과?

107083 #2 기자 순대 허고 켜기 석 점 허고 순대 하나. 하영 주는 디 경허고 족 게 주는 딴 켜기 두 점, 순대 하나. 목.

107084 @ 목?

107084 #2 목은 전이엔 허명 목 하나.

107084 @ 목은 무슨 목? 뭐로 만든 거?

107084 #2 그자 믱물궤루 행 요만이 썬 거 하나.

107084 @ 음.

107084 #2 이 중간엔 또 우리 아들덜 결혼헐 땐 전덜 막 지저도 우린 딱 순대 하나 켜기 두 점. 하영 준 딴 석 점. 경 켜낫주게. 목 하나. 겐 쟁반에 낱 그자 밥, 밥에 그거에 켜. 밥 허고 국 허고 김치 딱 허고. 이제 거치 췌여 무시거여 벨 거 다 헤서게 옛날엔. 안 헤여, 안 헤여.

107083 @ 둠비 만들어지쿠과?

107083 #2 못 허여, 못 허여 둠비 우린.

107083 @ 아, 둠비 못 허여. 게민 믱물 목, 만들어 봅서 믱물 목.

107084 #2 믱물목이사게 영 믱물궤루 카 낱 영 쭈루룩 허게 올롭지랑 허민 웨여 영 헤 보든. 쭈루룩 허게 올롭지랑 허민 발탁발탁 헐 때꺼장만 쭈민 웨고 경 안 쭈른 안 웨여. 발탁발탁 헤가민 딱 끼우민 웨여. 막 알롭게 캉.

107084 @ 겐 솟디 낱.

107084 #2 막 젓어사. 계속 풀이 빠지도록 젓어사.

107084 @ 음, 젓어가민 이게 단단해지민.

107084 #2 단단허민 빌썩빌썩 켜민 딱 끼우민 웨여. 경헐 양철더레 비우민. 경헐 믱물목은 우리도 잘 쭈난.

107085 @ 믱물목 허고 청목은 어떻게?

107085 #2 청목은 믱물 채.

107085 @ 믱물썰.

107085 #2 믱물썰을 이제 잘리에 낱 막 물 옷정 그 물 나온 거 청목 헤영허주 게. 깨끗허여. 겐 그 물로 쭈민 청목게.

107085 @ 그냥 쭈는 건 마찬가지로.

107085 #2 으, 마찬가지로. 게난 믱물, 청목은 그냥 믱물로 궤루로 아니고 그 잘리에 낱 막 물 옷젓당 허는 거라. 막 문질르민 그거 헤싸정 그 궤루 썰 뜬물 거치 나 오든 그거 쭈른 청목.

107085 @ 음.

107085 #2 옛날에 잔치 때 청목 헤사 잘 허는 집이엔 헤. 청목도 혼 점씩 주고.  
107085 @ 계민 뭐가 편합니까? 청목 허는 게 편합니까?  
107085 #2 목 썬는 게 편하주.  
107085 @ 그냥 목 썬는 게예.  
107085 #2 목이사 이녁 그루 허영 확 카민 돼주. 청목 거 짜젠 허민 얼마나 힘 들어.  
107085 @ 음. 식게 헐 때 그냥 목 해낫수과, 청목 해낫수과?  
107085 #2 그냥 목. 목 혼 돼 허든 막 하. 혼 돼 허민 실피 친촉덜 먹고. 우린 친촉이 많아. 겐 먹고 첨 흐끔 누게 줌도 허고 헛주.  
107085 @ 음.  
107085 #2 영 큰 조그마한 다라에 혼 반 다라이에.  
107085 @ 거 혼 돼.  
107085 #2 으, 혼 돼 허민 막 하. 이제 거트미 막 실피 이젠 안 허여. 메뉴리덜 주난 안 허여.  
107085 @ 예, 안 허여예. 두부 사당 허는 거 아니예?  
107085 #2 으, 두부 사당. 재작년이 혼 번 혼 돼 저 하르방 제사에 썩 간. 저 말 췌메누리 헐 때에.  
107085 @ 예. 여기서 직접 썩 갖구나.  
107085 #2 으, 나가 목을 썩 으져 간.  
107086 @ 저기 게역 만들어 보십서.  
107086 #2 게역은 보리 보깁. 옛날은 솟두껍이 보깁주.  
107086 @ 솟두껍이.  
107086 #2 솟두껍이에 보깁 그레에 곶앙게. 소금 낱 그냥 곶앙.  
107086 @ 음.  
107086 #2 곶아근에 체로 청 줌진 건 허고 훑은 건 무격지. 무격진 먹으면 술각 술각.  
107086 @ 그 무격지, 우엿것도 먹엇수과?  
107086 #2 게. 술각술각. 무격지, 무격지 허멍. 겐 옛날엔 그거 주로 반찬이 그 거. 저 보리밥에 버물영 먹고. 설탕이 아니고 사카린게. 사카린 낱. 이젠 그 사카린 이 엿어.  
107086 @ 사카린은 폭는 거?  
107086 #2 으. 사카린이엔 허는 게 흐끔만 놔도 막 드는 게 있어.  
107086 @ 음.  
107086 #2 사카린 낱 그 게역을 헛주게.  
107086 @ 기민.  
107086 #2 그 다음 유수가가 나왔주.  
107086 @ 아, 유수가가 나중에 나온 거?

107086 #2 아, 계난 저 옛날은 보리 보깡 향에 탁 듭강 소상 때나 영장 때나 보리 보끈 거 막 시커멍, 오차엔 허멍 그거 사까린 낱 그거 혼 잔씩 주민 이제 거트민 음료수라.

107086 @ 아, 물.

107086 #2 으. 보리 보까 가지고 거기 사까린을 넣은 거라예. 거 보리 보끈 거행 보리차. 겐 거 사까린 낱. 겐이 이젠 사까린 엇어. 계난 계역도 사까린 낱 헛주게.

107087 @ 집이서 비 오는 날 지지미도 부쳐 먹고 헛수과?

107087 #2 게. 지지민 기자. 주로 기자 지지미도 그냥. 이젠 밀가루 잇고 옛날은 보리쌀 ㄱ루 헤영 제사 때도 헤 먹는 사름 하곡게. 어린 때, 우리 어렸을 땐.

107087 @ 아, 보리가루로도 지지민 부쳐?

107087 #2 으. 글후에게 이 밀가루 낫주.

107087 @ 계민 지지미에 뭐 낱, 뭐 낱 안에?

107087 #2 주로 이 안엔 뭐 기자, 뭐 확 곤젠 허난, 저 새우리. 새우리나 놓주.

107087 @ 새우리, 새우리 낱 지지미 헤 먹는 거.

107087 #2 새우리나 계란이나 낱.

107088 @ 오메기술을 만들어 봅서, 오메기술.

107088 #2 오메기술은게 남방에에 좁쌀 물 컷당 남방에에 뽕앙 이젠 또 굿새 거치 물 끓영 짜여. 영 영 영 영 고망 딸라지게 멘들앙.

107088 @ 뽕을 고망 딸라지게 멘들앙.

107088 #2 그 오메기떡이 고망 딸라져사 웰, 웰 헛 거 아니. 영 동글락 허민 영 영 영 영 췌영게.

107088 @ 좁쌀을 곱앙 와 그걸 반죽 허는 거?

107088 #2 반죽 허영.

107088 @ 뜨거운 물 낱?

107088 #2 으.

107088 @ 계민.

107088 #2 반죽허영 영 영 멘들 때 경허민 고망을 딸라사주게.

107088 @ 여기 고망을 딸라?

107088 #2 경허영 이젠 이 아래 대.

107088 @ 예.

107088 #2 대입이나 새나 허영 영 솟 아래 늘지 못 허게 끌앙. 겐 그 오메기 들이청 물 팔팔 끌어가른. 경 영 들루멍 허당 발탁발탁 막 헤영 익은 거 거트민 그 웨로 확 허민 또 뽕짜정게.

107088 @ 으.

107088 #2 경허민 이제 건져내영 흐끔 식으민 이제 누룩 낱 짜여.

107088 @ 그것만 건져 내는 거, 오메기만?

107088 #2 오메기만. 아니 그 물도 봐야 돼 식으민.

107088 @ 물도 낱?

107088 #2 으, 식으민.

107088 @ 예.

107088 #2 경허민 이제 누룩 서경. 어 떼불라 헐 때 말앙 약간 식을 때 누룩 낱  
찌영 경헐 청주 드큰 앓으민 청준 글라 앓으민 청주 그건 이제 거트민 아주 경주  
고급이라.

107088 @ 음.

107088 #2 건 뭐 현 사름덜이나 주고. 아래 건 막걸리.

107088 @ 게민 뭐에 걸려내야 허지 안 헤. 그 오메기 술 헐 때?

107088 #2 술 다 익으민게. 아이 걸려낼 것도 벨로 엇어. 체, 경해도 바튀 체로.

107088 @ 솟디 낱 그렇게 삶은 거 그대로 가는 거?

107088 #2 어게. 경혜영 찌.

107088 @ 이거 안 씹니까? 이 고소리.

#2 고소리 건 술 다끄는 거주.

107088 @ 아, 다끝 때 쓰고.

107088 #2 막걸리사 그 고소리로 헤게.

107088 @ 아, 아.

107088 #2 이거 고소리술은 오메기로 안 허여.

107088 @ 아, 오메기로 안 헤.

107088 #2 오메기로 안 행, 우리 어무니도 우리 동생 이제 살아시민 육십아홉,  
아니 칠십아홉이로구나 그때 대학 허젠 허난 고소리술 잘도 다까.

107088 @ 아.

107088 #2 그 감저 그루 거튼 거 보리 거튼 거 막 허여뜩헌 거 허영 그런 술을  
허여. 경허여근에 허곡.

107088 @ 게민 오메기술은 그냥 솟디만 경헐 누룩 낱.

107088 #2 막걸리, 막걸린 오메기술로 허고 저 고소리술 허는 건 그냥 저 밥,  
보리 초불만 진 거 허영 찌어. 찌영 누룩 허경 담양 봐 뒷당도 허고 감저쫄도 낱  
허곡 허영 찌영 이제 이 장태 이레 놓는 거라. 이 장태가 이레.

107088 @ 잠깐만예. 이 장태가 어디 들어가?

107088 #2 이레게 이레.

107088 @ 이게 여기 들어갈 거 예.

107088 #2 으, 여기 들어장 여기에 또 물을 봐.

107088 @ 으, 물 봐.

107088 #2 물 낱 이제 요 펄은 이레 바투고 이디 솟 바우렌 영 행 또 떡 그루  
허영 부짱. 겐 일로 도록도록 털어정. 겐 또 물 혼 번 곱아.

107088 @ 여기에 뭐가 들어 잇수과 지금?

107088 #2 이거 아무 것도 안 든 거 이레 놓든.  
107088 @ 으.  
107088 #2 또 이레 물을 놔야 돼. 이 장태에.  
107088 @ 예, 예.  
107088 #2 겐 그 물이 뜨거우민 혼 번 물 끓고 또 두 번 물 뜨거우민 물을 끓  
아.  
107088 @ 예.  
107088 #2 겐 세 번 끓민 다 돼여. 술 나 잘 다까나서.  
107088 @ 계민 여기에서 올라 오는 거?  
107088 #2 으, 이 솟디서 더운 짐이 일로 빠지는 거라.  
107088 @ 일로 빠지는 거.  
107088 #2 우리 아주망네 집 이 고소리 실 거라. 우리 어머니 혜난 거.  
107088 @ 아, 잇수과?  
107088 #2 어, 몰라.  
107088 @ 거 어디 강 사진 찍영 와도 텔 거?  
107088 #2 서사라.  
107088 @ 아, 서사라.  
107088 #2 서사라 우리 아지망네 집이 으져당 저 꽃밭디 놔선게 몰라 폴아먹어  
신디 어떻혜신디. 우리 어무니 혜난 거.  
107088 @ 예, 예.  
107088 #2 나도 술 잘 다까서. 조랍고 술 다끄렌 허믄 그 이제 오래빈.  
107088 @ 아까 그 고소리 헐 때 밑에는 뭐 들어가는 거?  
107088 #2 그 밑으로 보리, 보리, 보리쌀 치영. 보리쌀 청.  
107088 @ 예.  
107088 #2 누룩에 서경 이젠 향에 담양.  
107088 @ 여기 담양 놔 두는 거?  
107088 #2 아니, 아니. 향에 담앗당 이제 솟에 놓는 거라. 퀘영 익으믄.  
107088 @ 예.  
107088 #2 술이 익으믄 이제 솟에 낡 이거 우터레 앓정.  
107088 @ 계민 이 안에는 아무 것도 아니?  
107088 #2 아무 것도 엇나.  
107088 @ 계민 여기 물만 들어가는 거?  
107088 #2 솟에, 솟에 그 술을 놔야주게.  
107088 @ 계민 그 술이 영 영 올라가면서.  
107088 #2 짐, 짐.  
107088 @ 짐이 올라강 여기에서 똑 떨어지는 거라?  
107088 #2 으. 계난 이건 이레 낡. 계난 이것엔 아무 것도 엇어 이 고망만 딸라

정.

107088 @ 이 밑에 구멍이 낭 잇수과?

107088 #2 으, 낫주게. 나난.

107088 @ 아.

107088 #2 난난. 이거 이꺼장 일로 이레 다 구멍 뜰라졌주. 이컨 이레 놓믄 이디 이디 영 이 바우로 블라사.

107088 @ 게민 이디 뚜정은 닫아릅니까?

107088 #2 아니. 이거 이거 이레 낱.

107088 @ 이것만 이레 낱.

107088 #2 이레 물을 놔야 돼여.

107088 @ 아. 여기 물을 놓는 거.

107088 #2 물이 혼 번 뜨거우믄 혼 번 곱고 두 번 곱고 시 번 곱민 이제 다 뿔젠. 겐디 시 번차 난 건 술이 심심허고 처음 떨어진, 물 곱 땀 술이 독허고.

107088 @ 아.

107088 #2 겐 허꺼. 경헨 이제 게난 솟디 술을 놔야주.

107088 @ 솟디 술을 낱 여기는.

107088 #2 아무것도 안 놔.

107088 @ 음, 짐. 떨어지는 거.

107088 #2 짐, 짐. 게난 잘 뿔믄 거 저 우리 허벽 열두 뿔 드는 허벽으로 저 자구네 우리 이모 사난 뱃사름덜안티 막 그거 이모그라 폴아드렌 행 잘 찌어나서. 오래비 그때 대학 공부 시키젠 허난. 그땐 대학교 허는 사름이 엇어서.

107088 @ 예.

107088 #2 경허난 우리 오누이뿐인디 우리 어무니 그 술 다끄명 대학교 다 시켜서.

107088 @ 아이고.

107088 #2 겐 세무소에 잇어난. 과장이라낫주.

107088 @ 아.

107088 #2 이제 살아시믄 일혼아홉, 일혼아홉인디 돌아가불언. 나보다 밑엔디. 두 설 밑엔디.

107088 @ 게난 어무니 술 다끄는 거 옆에서 보멍.

107088 #2 아니, 보질 안 허고 우리그라 죽장 불 습양 그거 다끄렌 허여. 어무니 뜬 일 허고. 게믄 우리 그 물도 곱고 다끄곡 헛주기게.

107088 @ 아.

107088 #2 게난 물 막 물이 뜨거왕 짐 나오민 그 물 퍼덩 뜬 물 놓고. 식은 물. 겐 시 번 놔. 시 번 곱민 다 뿔엇젠 허영 설러불어.

107088 @ 음, 예, 예. 오메기술은 영?

107088 #2 오메기술은 건 막걸리.

107088 @ 막걸리 영 향아리에 담양 놔두민.  
107088 #2 으, 켜 청주허고 막걸리 먹고.  
107088 @ 예, 예.  
107088 #2 이 고소리술은 막 저 보리허영 막 지저분 헐 거라도 돼여.  
107088 @ 게민 오메기 청주는 우에 게?  
107088 #2 우에 거 막 글라 앓앙 헐 거 청주.  
107088 @ 청주가.  
107088 #2 아래 거 탁탁헐 건 막걸리.  
107088 @ 막걸리.  
107088 #2 막걸리 걸러. 청주는 그냥 허고 막걸린 걸렁 체로 바청.  
107088 @ 게민 우리가 오메기술이렌 허는 건 청주랑 그걸 다 오메기 술이렌 허는 거?  
107088 #2 청주는 청주로.  
107088 @ 불르고 그 막걸리를 오메기 술이렌 허는 거?  
107088 #2 으.  
107088 @ 좁쌀로 헐 허는 거?  
107088 #2 좁쌀 헐 건 오메기술, 이 다끄는 건 고소리술은 그냥 보리쌀도 놓고 우리 어무니네 그때 감제.  
107088 @ 예.  
107088 #2 감제쌀로 막 밥 헤 난게.  
107088 @ 아.  
107088 #2 켜 감제 허영 그거 술에 막 허고. 경헐 다까 그 고소리술.  
107088 @ 음.  
107088 #2 그땐이 술이 잘 엇어 옛날은.  
107088 @ 기지예.  
107088 #2 아라꾸루, 아라꾸루엔 헐 것이 잇어서.  
107088 @ 아라꾸루가 뭐과?  
107088 #2 이제 ㄱ트민 이 저 술 원론 생이라.  
107088 @ 아.  
107088 #2 그거 허영 이제 혼 돼민 녀 돼 늘루왕 그거 풀곡덜 허고게.  
107088 @ 게민 이 원료 낱 여기에 물 낱?  
107088 #2 으.  
107088 @ 물 낱.  
107088 #2 게난 술을 푼는 디가 잘 엇어. 게난 이거 이추록 고소리술 다끄고. 이거 술 막 조사해 가꼭 허여.  
107088 @ 그니까 이렇게 몰래, 이거 몰래 만들영 푼는 거지예?  
107088 #2 아니, 이걸 어 몰래게. 몰래.

107088 @ 몰래.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

107088 #2 들키면 안 돼여, 옛날에.

107088 @ 예.

107088 #2 아니, 겐디 그 제국시대에만 경 단속허연. 그 다음엔 안 허고.

107088 @ 아, 그 다음은 안 허고.

107088 #2 제국시대엔 쓸이 엇인디 그 술을 만들게 해서게.

107088 @ 아.

107088 #2 게난 막 곱정 헛주게.

107088 @ 음.

107088 #2 쓸도 곱지는디 술은 허게 허여.

107088 @ 그니까.

107088 #2 술 풀레는 이 동네에만 땡겨낫수과 아니민 다른 데도 나가낫수과, 술 풀레?

107088 #2 아니 우린 저 주로 자구내, 고산 아래 자구내주게. 자구내 우리 이모 네신디 저 가문 이모네 그디 배 사름덜안티 풀아.

107088 @ 음, 술 풀레 멀리 다니진 안 헤신게.

107088 #2 음, 다니진 안 허연.

107089 @ 다니진 안 허고. 쉼다리는 어떻 만듭니까?

107089 #2 쉼다린 그냥 밥 쉼 거게.

107089 @ 밥 쉼 거. 그니까.

107089 #2 밥 쉼 거. 이제도 쉼다린 행 먹어.

107090 @ 누룩을 만드는 걸 알아야큰게. 누룩. 누룩을 만들젠 허민 어떻 험니까? 누룩 만들어 봅서. 이제야 사당 허지만 옛날에?

107090 #2 누룩은게 저 보리쌀.

107090 @ 예.

107090 #2 영 곤 거나 영 흐끔 즈쓸이나 허영 물 영 쪼끔 쪼끔 췌 질만이 수제비 허게 말고 약간 질게 허영 챗망이나 저 양철에 낵 딱 블라. 딱 블르민 제깍허지 안 허여게.

107090 @ 음.

107090 #2 겐 영 놔 뒷당, 챗망에 현 건 그냥 놔 두고 양철에 현 건 비우고.

107090 @ 으.

107090 #2 겐 이제 영 뒛고, 구덕이나 뒛에 영 찍이고 새고 꿀양, 꿀양 놔두민 그게 틀 거 아니?

107090 @ 싹이 난다는 거?

107090 #2 아니 아니 터.

107090 @ 터.

107090 #2 터. 곱쟁이 피민 그게 돼주게. 옛날이사 다 누룩 허엿주게.

107090 @ 계난  
107090 #2 누룩 헤사힐 거 아니. 식게 때도 멩질 때도.  
107090 @ 으.  
107090 #2 계난 팔월 나민 누룩 뒤여.  
107090 @ 누룩 얼마나 만들어났수과?  
107090 #2 누룩 만들앙 거 들류젠 허민 거 오래 걸려. 계난 노랑헌 곰팡이 피민 아이고 누룩 이거 잘 뒤져 허고. 거멍헌 곰팡이 피민 아이고 너미 지룻 텃구나. 잘 만들언 누룩. 누룩 술 잘 허연 나도. 아, 잘 만들어서.  
107090 @ 일 힐 때도 인부 맥이젠 허난 그때도 허고?  
107090 #2 인부는 술은 안 맥여도 하르방이 그거, 그것만 먹으난.  
107090 @ 하하.  
107090 #2 술을 매날 먹어. 계난 줍셀 혼 섬씩 보통 일년에 줍셀 혼 섬 술 헤서.  
107090 @ 얼마나 똤니까 그럼. 술 놓은 항 크기가 잊지 안 험니까?  
107090 #2 그건 혼 세 번, 네 번 허여. 겐 이제 저 스월덜 낭 유채꽃 아이 가분 때민 여름 내낭 먹어도 안 쉰덴 허멍 그때 또 혼 항아리 행 놔 뒤당 여름 내낭 먹고 경헛주게. 겨울엔 겨울 내낭 먹고.  
107090 @ 왜 항도 그 부피에 따라 불르는 일름이 잊지 안 허우과?  
107090 #2 으게. 혼 \*\* 말 드는 거.  
107090 @ 그거는 똤렌 불러난?  
107090 #2 큰항, 죽은항. 망데기.  
107090 @ 아.  
107090 #2 망데긴 술은 망데기로 아이 담아. 항을 담앗주.  
107090 @ 음.  
107090 #2 그거 계민 두 항.  
107090 @ 으, 아이고.  
107090 #2 저 체사힐 때 보통 두 항. 이 고소리술 힐 때 우리 어무니넨 큰항 두 개씩 허고. 그 고소리술 담그는 거.  
107090 @ 계민 풀 때는 어떻게 풀아. 이 죽은 항에 담앙?  
107090 #2 아니 계난 옛날 똤병게.  
107090 @ 똤병.  
107090 #2 사홉들이, 이홉들이. 경헛주게.  
107090 @ 으, 사홉들이, 이홉들이.  
107090 #2 으, 똤병. 계난 저 이제 저 소상침이도 이젠 돈 행 가주 조문힐 때 소상이고 영장이고 옛날은 술 혼 똤 행 가서.  
107090 @ 으.  
107090 #2 술 혼 똤 행도 가고 또 밥에 국에 행도 가고. 거 부주로.

107090 @ 밥에 국에도.

107090 #2 으, 거 부주로. 우리 어린 땀. 밥, 밥 혼 그릇, 국 혼 그릇 행 강 이 상제도 혼 그릇, 저 상제도 혼 그릇. 이제 거트민 이디 봉투 주고 저디 봉투 주고.

107090 @ 음.

107090 #2 경해서 옛날에. 술도 행 강 이 상제도 주고 저 상제도 주고 술도. 거 부주.

107090 @ 부주로 술 행 강.

107090 #2 게난 돈 부주 현 때가 우리 결혼헌 후제 돈 부주 해서.

107090 @ 음.

107090 #2 우리 결혼헌 후제 돈 부주해서.

107090 @ 음.

107090 #2 우리 결혼헌 때도 다 쓸부주했주. 우리 큰아덜 풀 때도 이젠 씬으섯 가 큰아덜이 겐디 쓸 절반 들어완. 그때도 쓸

107090 @ 음.

107090 #2 저 돈으로 그때 오천 원, 삼천 원 헛주기계. 경헌디 쓸 혼 말 헤여온 건 하영. 쓸로 거의 부주 행 완.

107090 @ 음.

107090 #2 게난 혼 육십년 전이는 쓸 부주. 거 육십, 오십으섯이난 그때도 거의 쓸 부주가 거의 받았주게. 오십으섯 텔 때에도 우리 큰아덜 풀 때.

107090 @ 큰아덜 풀 때예.

107090 #2 게난 이제난 돈 부주 싹 허주, 옛날은 다 쓸 부주, 술 부주. 우리 어렸을 땐 다 술 부주.

107091 @ 아. 그 저기 옛도 만들어났수과?

107091 #2 옛은 골게.

107091 @ 골?

107091 #2 보리, 보리 물 웃젓당 그거 영 뒷에 구덕이나 뒷에 영 뇌 두민 싹이 나지 안 허여.

107091 @ 예.

107091 #2 그 싹 요만씩 나른 들류왓당 그거 발 싹 털어덩 골양게. 겐 이제 조팝, 옛날에 조팝 허영. 이젠 쓸밥 헤영, 흰 쓸밥 허민 저 조팝만인 안 헨게.

107091 @ 으.

107091 #2 겐 그거 옛기름 낱 혼 대여섯 시간 허민, 아침에 허민 오후 혼 두어 시 돼민 돼고, 영 먹어 보민 들코름 허민 짱게, 짱.

107091 @ 뭇 짜?

107091 #2 그 좁쌀이영 그 누룩, 침 그 골꺾루영 짜. 이제 딸리민 돼주게.

107091 @ 물을 짜?

107091 #2 으.

107091 @ 물이 납니까?

107091 #2 물에, 그 막 물 뇌근에 그 좁쌀이영 골고루 영 막 허끄지 안 허여게. 허경 뇌두민 부구락허게 흐끔 영 들코름 허민 이제, 흐 대여섯 시간 잇이민 골고루 캉. 저 이제 이거 텃구나 헤영 이제 걸렁게. 체를 바투든가 소쿠리를 바투든가 다마 네기 조락으로 걸르든가 짹 짹, 이제 딸렁. 옛날은 돼지고기 낱 주로 옛 헛주게.

107091 @ 아. 돼지고기.

107091 #2 돼지고기 놓고 주로 득 잡양도 옛 허고 득세기, 계란도 낱 옛 허고.

107091 @ 아, 계란도 낱.

107091 #2 계란 낱 허민 맛 좋아.

107091 @ 득세기 깡, 솥양 깡?

107091 #2 깡. 아니 솥지 안 허영 그냥 깡 거 이제 풀어 낱.

107091 @ 아, 풀어 낱?

107091 #2 으. 마늘 낱, 이제 배 아픈 사름은 마늘 낱 옛 행 먹고. 돼지고기 낱 옛 행 먹고. 우리 손지 이제 한 시 돼민 오켄 헛게. 그 손지 이제 돼지고기 낱 옛 헤 놓난 허여뜨허여뜨 허난 웬장 막 맛있젠 허멍.

107091 @ 으, 웬장?

107091 #2 옛인 증은 몰르고.

107091 @ 으.

107091 #2 웬장이 어떻 영 맛있냐고. 하하하.

107091 @ 웬장인 줄 알고 맛있텐?

107091 #2 웬장이 막 맞셔, 할무니. 흐 다섯 살쯤. 웬장, 거멍허난 이거 웬장으로 안 생이라.

107091 @ 아.

107091 #2 웬장밥 맞셔, 또 웬장밥 헤 쥐, 웬장밥 헤 쥐 헤낫주게.

107091 @ 아.

107091 #2 할머니 보레 한 시 돼민 갈게요 아까 전화 와선게.

107091 @ 어디, 어디 살암수과?

107091 #2 한림.

107091 @ 한림 살멍. 게도 보러 자꾸 왁구나예?

107091 #2 아니 게난 바쁘난. 게난 요샌 방학허난 흐끔 한걸헛 생이라.

107091 @ 음.

107091 #2 학교 저 뭐 방학허난.

107091 @ 게민 옛 만들엇던 건 돼지고기 옛, 그 다음.

107091 #2 득옛.

107091 @ 득옛. 그 두 종류.

107091 #2 으, 주로 우린 경 헤난.

107091 @ 꿩옛은 안 헤낫수과?

107091 #2 꿩엿은 안 허고.  
107091 @ 안 해보고예. 예, 예.  
107091 #2 꿩엿도 마찬가지로, 허는 건 마찬가지로.  
107091 @ 음. 그거 말고 삼촌이 특별히 만들었 먹어낸 음식덜이 뭐가 잇수과?  
107091 #2 뭐 엿어 벨로.  
107091 @ 음식 잘 해난 거 닻으우나. 이런 것도 다 담강 먹고.  
107091 #2 아이 옛날엔 거의 다 허영 먹었주게.  
107091 @ 예. 인부덜 밧디 갈 때 밥 행 먹이젠 허민 반찬은 뭐 행 먹었수과?  
107091 #2 반찬은 뭐 해서게, 옛날이사 기자 주로 마농지주. 반찬 벨로 안 허여  
이제 닻지 안 허영.  
107091 @ 아.  
107091 #2 옛날엔 기자 김치, 마농지. 김치, 마농지 많이 헛주. 아니 우리 인부  
덜 들 땀 김친 허연. 김치, 마농진 허연. 김치, 마농지 주로 헛주. 꿩지고기니 뵈이  
니 이제사 꿩지고기도 흔허지 옛날은 흔허지 안 허연 꿩지고기도.  
107092 @ 계난 옛날 먹엇던 음식 중에 지금 막 그럽고 현 건 엿수과 삼촌.  
107092 #2 엿어.  
107092 @ 무사게 옛날 먹어낸 거 영 먹고 싶다 허는 거?  
107092 #2 벨로.  
107092 @ 아.  
107092 #2 옛날에 뭐게 이제로 생각허민 이제가 맛잇주 벨로 뵈 현 거 엿어.  
107092 @ 바닷래기도 잡아당 먹어나고?  
107092 #2 사당게. 옛날엔 이제 닻지 안 허영 래기가 핫주게. 생성이고 복쟁이  
고 슷. 복쟁이가 저 낙지 잡양 가른 흔 구덕씩 바짜와난 옛날은.  
107092 @ 낙지 잡양 강?  
107092 #2 낙지 잇잖여. 그 복쟁이덜 낙지 잡양 가민 니꺽허주게.  
107092 @ 예.  
107092 #2 계난 거 낙지 잡양 가른 복쟁이 흔 구덕씩 줘. 낙지 멧 무리사 줘신  
지. 이제 복쟁이가 엿인디 이제 실프게 하영 물어.  
107092 @ 계문 그 복쟁이는 낚시로 나끄는 것과, 거리는 것과?  
107092 #2 낚시로 나까.  
107092 @ 낙지는 어떻 잡아서?  
107092 #2 낙지는 옛날은 저 뵈고, 장작. 장작이엔 현 건 소냥 ㄴ는 ㄴ는 이만  
씩 깨영도 허고 그신새.  
107092 @ 음.  
107092 #2 초가집 그 튼은 거 허영 무경. 겐 그걸로 무경 갖주게.  
107092 @ 밤이?  
107092 #2 밤이.

107092 @ 낙지를 여기서 뭐렌 불리낫수과 옛날에는?  
 107092 #2 이제, 이제, 옛날도 낙지.  
 107092 @ 아까 뭐렌 이름 들어신디. 옛날에 낙지렌 불리난?  
 107092 #2 옛날에 낙지렌 불릿주.  
 107092 @ 예, 예. 경헨.  
 107092 #2 낙지 그거 경 왕대, 왕대에 지름 담양 칩으로 왕대 고냥에 막양, 걸레로 막으나 허영 경헨 그자. 건 고급.  
 107092 @ 예.  
 107092 #2 경헨도 잡고 헛주. 옛날엔 낙지 막 하. 가른 혼 서른 개씩 스무 개씩 씹어.  
 107092 @ 밤이 강?  
 107092 #2 으, 밤이 강. 경허른 그거 막 복쟁이 하영 바파당 먹어.  
 107092 @ 그거 바파 주는구나.  
 107092 #2 으.  
 107092 @ 애들 아픈 때 뭐 행 먹여난 건 엇수과?  
 107092 #2 아이덜 아픈 때, 아이고 옛날에사 드리쌍 내불민 어느 즈를에. 하하.  
 107092 @ 하하. 드리쌍 내불어.  
 107092 #2 아파신디 말아신디 첨. 곶양 몰르주.  
 107092 @ 게도 남자 어른 아팠을 때 뭐 행 멕엇을 거 아니?  
 107092 #2 아니, 하르방도 벨로 아프지, 하영 아파사 꿰죽이주게. 하하.  
 107092 @ 하하.  
 107092 #2 하영 아파사 꿰죽베끼 더. 꿰죽 생성죽.  
 107092 @ 게민 아플 때 옛날에 뭐 전복죽 멕이고 그런 것도 아니였구나.  
 107092 #2 으, 생선, 아니 아파보지도 안 헛주만은 꿰죽, 생성죽. 기자 주로 꿰죽 생성죽이주.  
 107092 @ 이 마을에 특별헌 음식 같은 것도 엇수과? 신창, 친정에서 헤 먹어난 거라도.  
 107092 #2 아이, 신창이든 용당이든 특별히 더 행 먹는 게 엇주게.  
 107092 @ 예.

## 8. 주생활

108001 @ 집 짓어 난 것덜 물어보쿠다. 집 짓어난 경험이 잇수과?  
 108001 #2 우리 저 뭐 과수원 짓을 때만 짓언. 과수원에 창고 짓이멍 그때 개백허고 또 요 신흥동 집 또 새로 수리헛주게 그때.  
 108001 @ 게른 원래 초가집 짓을 때 어떻 험난지 알아지쿠과? 집 짓젠 허민?

108001 #2 초가집이사게 다 지동 세와 낡 이젠 다 더경 담 다왕. 담 단 다음 이젠 흑질 해야 될 거 아니게.

108001 @ 계민 가장 먼저.

108001 #2 이런 딴 저 뺏고, 대.

108001 @ 으.

108001 #2 대 허영 예끼나, 예경, 노로 이런 디 이거 이거 다 대로 예껴, 경헨 블라 이런 디.

108001 @ 으.

108001 #2 대, 대로 예경 이거 개백 허영 멘드글랑 블랑. 초벌 개백은 두루 허영 그 다음 두불 개백은 멘드글락 허게 허주게.

108001 @ 으.

108001 #2 경허영 초불 개백, 두불 개백. 경허난 초불 개백은 보리낭 낡 허고 두불 개백은 ㄹ시락, ㄹ시락 낡 허여. 그 개백 할 때.

108001 @ 으. 개백허는 거 말양 집 짓는 쪽 한 번 돌아줍서.

108001 #2 담부터 다와사주게.

108001 @ 담부터 어디에?

108001 #2 이런 바우에 담 다와야 할 거 아니.

108001 @ 지동 세우는 게 먼저라, 담 다우는 게 먼저라?

108001 #2 아니, 담 다와낭 지동 세와. 담 다와낭.

108001 @ 밑에는 뭐 놓고?

108001 #2 에이, 옛날은 밑에 뭐 안 허여. 겨난 이거게 이거 스몫 아래 흑이 다 락다락 허고. 정진 흐끔 메왕 정지도. 정지도 흑 정지주게. 경헨주게 마리 아래도 흑이고.

108001 @ 마리 아래로 흑이고.

108001 #2 으, 이젠 세멘 허는디.

108001 @ 계민 담 다와낭 지동 세와?

108001 #2 지동 세와, 지동도 네 밧디 세와 낡 이제 거 서리 결정. 이거 이제 상양이엔 현 거 허여. 상양은 이거 포 그거 베, 베 허영 득잡양 베에 무경 상양 험젠 허민 그 상양에 강 독 더가리 툽 그차 계민 그 켜당덜은 다 돈. 이제 거트민 만원이주만은 그때 천 원, 이천 원 다 돈 그 베에 감양 올려.

108001 @ 으.

108001 #2 켜 그건 목시 직시로.

108001 @ 음. 산양식, 산양식 허는 게 그것과?

108001 #2 으게. 산양식 이 집 지동에 허영, 득 그 베에 득 무경 쪽 끄영 산양 꼭대기에 강 탁허게 이제 도치로 득 야개기 끄차.

108001 @ 음.

108001 #2 켜 털어져. 켜 그 다음에 돈 다 그 봉투로 올려야 돼여. 경허여 산양

할 때.

108001 @ 예. 케민 그거 다 헤난 다음에.

108001 #2 경혜영 그 산양식 허영, 그 목시가 그거 산양 현 다음 그 다음 존 서리 걸치주게.

108001 @ 존 서리.

108001 #2 존 서리.

108001 @ 서리, 서리.

108001 #2 서리 걸쳐 논 다음 이제 그 서리 우이도 이제 뭐, 옛날은 숨부기엔 현 걸로 허고 존 걸로 새 아이 새게 해나서게. 겐 그레 또 이제 흑 놔. 그 지붕 우이도 흑 낱 이제 새 더꺼야주게.

108001 @ 으.

108001 #2 경헨 또 안틸로 개백허고 그 우이로도 개백 허고 케난 서리 우리 숨부게기, 숨부게기나 대나 허영 이거 놔사 이거 흑 놀 거 아니게.

108001 @ 예.

108001 #2 경허영 놔. 옛날은.

108001 @ 아, 숨부기 허당.

108001 #2 바닷가에 숨부게기엔 허는 것이 있어.

108001 @ 바닷가마씨.

108001 #2 바닷가에 숨부게기엔 현 거 옛날엔 그 걸로 구덕도 다 즐아서.

108001 @ 아, 그거 풀이과?

#2 낭거치 번어가명 있어.

@ 아, 낭 거치 번어가는 거.

108001 #2 그걸로나 대로나 허영 영 서리 우이 놔사 이제 흑 놓은 거 아니. 흑 낱 이제 그 무시거 집 일 거주게.

108001 @ 삼춘은 집 짓어난 경험어 과수원 허고.

108001 #2 과수원.

108001 @ 또 아까 신흥리?

108001 #2 신흥린 저 초가집 이제 그 저 그거 짓으멍 고쳐주게.

108001 @ 과수원 짓으멍 고친 거?

108001 #2 으. 겐 풀아불어.

108001 @ 으, 경헨 거.

108001 #2 초가집이랏주게.

108001 @ 초가집.

108001 #2 초가집 헤끄만헌 거. 구들 하나 부엌 요만이 헌 거. 침 정지에 구덕 새끼 요만이 하나 마루 하나. 마루도 이추룩 길죽길죽 헌 거라게 네귀반득 네귀반득 헌 마루 허영 옛날 쓰레박으로 저 쓸지 안 허영 마루 고망더레 다 디밀어.

108001 @ 하하하. 알아지쿠다 니귀반득, 니귀반득.

108001 #2 아니, 이제도 요디 경헌 마루 있어.

108001 @ 아, 아직도.

108001 #2 그 마리 있어.

108001 @ 그, 그 신흥리 집은 언제까지 살아난 거?

108001 #2 우리가 그거 오십, 오십아홉에. 아니 서른아홉 때 저기 풀아실 거라. 서른아홉 때 풀양 용당 강 살안에 용당서 칠십 날 때 질 들어가부난 이디 왔주게.

108002 @ 아. 집 종류에는 뭐, 뭐가 잇수과? 집 종류?

108002 #2 초가집 쓰레뜨집. 옛날에사 초가집베끼 더 셔게.

108002 @ 초가집예?

108002 #2 짝으로도 일고 새로도 일고.

108002 @ 초가집 지붕 짝으로도 일어?

108002 #2 새 엇인 사름 짝으로도 일엇주게.

108002 @ 짝 금방 썩어불지 안 허여.

108002 #2 경해도. 저 육지도 다 짝으로 일언게.

108002 @ 아.

108002 #2 이딘 새로 일어도. 육진 거의 다 짝으로 일어.

108002 @ 옛날엔 거의 초가집이라서예. 초가집이렌 곱앗수과 초집이렌 곱앗수과?

108002 #2 초집, 초집.

108002 @ 초집이라서예. 지에집 엇어났수과?

108002 #2 지에집 어찌다가 저 용당은 하나 잇어났어.

108002 @ 이 신창으?

108002 #2 신창도 몰라, 잘 엇어실 거라. 아, 요 첩 맞아 다새미 하르방네 집. 요 멧 년 전이사. 차부 엠에. 다새미 하르방 지와집 잇어난.

108002 @ 뭇 하르방?

108002 #2 달샘이 하르방.

108002 @ 아, 달샘이 하르방.

108002 #2 그디 기와집이라난. 이제 그거 내리와덩 이제 저 쓰레트, 양철 올렁 우리 사촌 시아주방네 살아.

108002 @ 으.

108002 #2 그 기와 싹 내리와덩.

108002 @ 기와렌 헛수과, 지에렌 헛수과?

108002 #2 지에, 지에.

108002 @ 옛날에 지에렌 헨예.

108002 #2 아니 기와집, 기와집 헛주.

108002 @ 기와집이렌 헨?

108002 #2 으, 기와집이렌 헤나서.

108002 @ 기민 집채에도 영 종류가 있을 거 아니? 예를 들면 삼칸집도 있을 거고?

108002 #2 삼칸집, 스칸집.

108002 @ 스칸집도 있고. 두칸집도 이십니까?

108002 #2 계계. 건 이단막살이.

108002 @ 무슨 막살이?

108002 #2 이단 막살이.

108002 @ 이단 막살이. 이거는 두 칸 집이고?

108002 #2 으, 이단 막살이. 삼칸집은 마리, 부엌, 구들 경허민 삼칸집. 스칸집은 구들이 두 개.

108002 @ 음. 스칸집은 구들이 두 개.

108002 #2 으.

108002 @ 계민 이거는 삼칸집이 뭐쿠다예?

108002 #2 으, 삼칸집. 아니 계난 옛날은 이거 방 막 으라개가 아니고 이거 이디 부엌 허민 이거 마리 허민 이거 구들 경허민 이제 삼칸집.

108002 @ 예.

108002 #2 스칸집은 이디 이거 부엌 허고 이거 마루 허고 이디 구들 허영 구들에 또 저쪽에 부엌 허민 이제 스칸집.

108002 @ 스칸집 허고.

108002 #2 계난 청방 있고 청방에, 청방 반착 구들 반착 허고 허여낫주.

108002 @ 청방이 뭐 허는 디라.

108002 #2 청방은 영 구들 반착 허는 이디 청방이라.

108002 @ 계민 그디서 주로 뭐 헉니까, 청방에서?

108002 #2 뵈은 안 해도 거.

108002 @ 청방 옆이가 정지가 뵈 거?

108002 #2 으, 정지. 계난 마리 넘어 이거, 이거 허민 이거 구들 허민 이건 청방 행 또 저디 부엌 헷주게.

108002 @ 으. 부엌도 옛날엔 정지렌 곁아서예?

108002 #2 정지주게.

108002 @ 예, 계난 옛날말로 곁아줍서.

108002 #2 정지. 정지주게.

108004 @ 계민 삼칸집 짓젠 허민 아까, 삼칸집 짓젠 허민 아까 곁아난 건디 한번 쪽 허게 다시 한번 곁아줍서. 삼칸집 짓는 과정을?

108004 #2 계, 그자 서리 담 다 낳.

108004 @ 으.

108004 #2 또 이제 지등 세왕, 지등 세왕 이제 그 상냥 허영, 상냥 득 데강이 끈친 건 이제 그 뵈고 이 지등 아래 문꼭계.

108004 @ 물어?

108004 #2 물어게. 경허고 또 그 친축덜이나 그 주인은 돈 봉투 허영 올리믄, 돈 이제 거트믄 돈 만 원, 이만 원 행 올리믄 그걸로 이제 목수덜 수건 상 쓰곡 헛 주게. 옛날엔.

108003 @ 으, 그 우리 집에 삼칸집 허민 삼칸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거리도 있고 밧거리도 있잖아.

108003 #2 밧거리도 잇이는 집 잇고 어시는 집 엇고. 옛날엔 잘 엇어.

108003 @ 잘 엇어.

108003 #2 ㄴ시락막 잇주게. 췌막 잇고, 췌 질루난.

108003 @ 으.

108003 #2 췌막, ㄴ시락막. ㄴ시락막은 ㄴ시락 낱, 보리 장만헤난 ㄴ시락.

108003 @ 예, 예.

108003 #2 그걸로 굴묵 진어살 거 아니?

108003 @ 예.

108003 #2 겨난 그 ㄴ시락막, 췌막.

108003 @ 아, 밧거리 따로 안 텨.

108003 #2 아니 밧거리 이신 디도 잇고게.

108003 @ 예.

108003 #2 이신 디도 잇고 엇인 디도 잇고 경허난 주로 옛날엔 밧거리 이신 집은 벨로 하지 안 헛주게. ㄴ시락막, 췌막은 잇어도.

108003 @ 그거 혹시 목커리엔 현 것도 잇어났수과?

108003 #2 모커린게 밧거리엔도 허고 모커리엔도 허여. 경허난 영 바로 앓으민 밧거래, 모커린 영 옆더래 앓으민 모커리.

108005 @ 집 짓을 때 저기 주춧돌을 놓니까?

108005 #2 주춧돌 놔사 지둥 세울 거 아니게.

108005 @ 게민 지둥 밑에는 들어가는 게 주춧돌이라.

108005 #2 주춧돌게.

108005 @ 예. 들보는 뭐과, 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108005 #2 거, 대들보엔 헨 게 산양 그거.

108005 @ 산양이엔 현 게?

108005 #2 이 우이 거.

108005 @ 길쭉허게?

108005 #2 으, 그거 대들보.

108005 @ 대들보. 도리는 어느 거.

108005 #2 도리는 다 도리도리 뭐 허난 도리. 니귀에 도리고.

108005 @ 서리는?

108005 #2 서리는 이제, 이젠 다 이런 거 허영 걸쳐. 쪽 돌아가명 대들보 걸쳐

그거 해 논 다음은 서린 쪽 걸쳐야 될 거 아니? 경 서리 걸친 다음은 대로 이제 예  
경 대로나 숨부게기로 예경 우이 깎양 또 그 우이 흑 놔.

108005 @ 으.

108005 #2 경혜영 그 우이 또 그 초가집 더꺼야주게.

108006 @ 개위는 어디과, 개위?

108006 #2 개위가 뭇이라?

108006 @ 몰라? 그럼 천아반은?

108006 #2 천아반은게 이게 천아반 아니게.

108006 @ 어느 거?

108006 #2 이거 이거 천아반게.

108006 @ 우에 바로가?

108006 #2 으, 천아반.

108006 @ 이걸 천아반이렌 허는 거.

108006 #2 이 이불 노는 딴 백장게.

108006 @ 이불 놓는 딴 백장예.

108006 #2 굴묵 질는 딴 굴묵.

108006 @ 예.

108006 #2 천아반. 이거 천아반 아니. 이젠 천장이주만은 옛날은 천아반게.

108006 @ 예, 그디를 천아반이렌 헐 거. 어, 간테기는 어디라?

108006 #2 간테기 몰라.

108006 @ 산자나 웨는?

108006 #2 산제가 뭇이라? 아, 산제. 저 집 짓을 때 산제 허는 거?

108006 @ 예.

108006 #2 으게 집 짓을 때 산제 해사주게. 집 짓기 전에. 집 짓기 전에 산제  
해 낡 집 짓어. 토신제 산제 해 낡 집 짓어.

108006 @ 제사 얘기헐 때 그거말고. 고대레 허는 부분이 잇수과?

108004 #2 집 짓기 전이 땅안티 토신제, 산제 허여.

108004 @ 제사를 지내고 나서?

108004 #2 제사말고. 제사말고 땅신디 이제 우리 집 짓을 거다 곤는 거 산제.

108004 @ 음.

108004 #2 산제, 산제는 저 산에 강 허는 거 산제 이 저 집 짓을 때 허는 건 토  
신제 토신제. 토신제 헐 땀 이 밥도 고기도 생체로 다 올림실 거라.

108004 @ 경헐 여기에 서리덜 다 헤가지고 흑 불르젠 허민 흑을 막 여껴야 헐  
거잖아예?

108004 #2 으, 계난 웨로 블라.

108004 @ 흑은 미릿, 미릿 헤 오는 거?

108004 #2 흑은 해당 그레 마당에서, 마당에 흑 막 놔. 그레 보리낭 놔. 동네 사

름덜 물 질어당 비우민 그레 쉼로 불르멍 쉼시렁으로 영영 뉘씨고. 쉼시렁으로 뉘싸. 동네 사름덜이 다 개백질도 허고 헛주기게.

108004 @ 개백질도 허고.

108004 #2 물도 동네 사름덜이 질어다 줘야 허는 거고. 다 수눌어 가멍 허는 거니까.

108004 @ 게민 동네 사름덜이 모영 허는 날은 그거 개백허는 날이과?

108004 #2 으, 개백 허여사주.

108004 @ 동네에서 다 와.

108004 #2 동네에서 삼미들이 다 왕 허여, 삼미 사름덜. 게난 개백 허는 날 무신 불 일 잇어도 그거 혼디 해주젠 안 가주게. 이제 거트민 잔치 때 심부름 해주젠 안 가는 식으로.

108004 @ 으.

108004 #2 경해야 뉘여. 경 안 허민 어떻헨 허여. 경허고 그거 그 쉼스렁으로 흑 불른 것덜 또 뉘싸냥 불르고 그냥 불르고 헤사. 게난 영 날라다 주는 사름 싣고. 그때사 뉘 어디 바가쓰 뉘 셔게. 가맹이테기 낭께기 영 행 들러당 그거 불라주고. 가맹이 허른 낭 영 노른 가맹이레 낭 너이가 들러. 침 둘이가 들러. 저쪽에 낭께기 두 개 들르고 이쪽에 두 개 들르고 으져가민 또 불르고 불르고 헤 줏주게. 겐 혼 사름은 영영 행 주고 혼 사름은 착 불르고 허멍.

108004 @ 사름 막 하난 밖에 영 불르는 사람 그거 불르는 사람.

108004 #2 날르는 사름 헤사주.

108004 @ 불르는 사름.

108004 108004 #2 경 날라주고 게난 으라이 헤야주. 겨난 그 흑 일 때도 새로 막 불라야 허고 그거 흑을 불라야 문작헨 거 아니.

108004 @ 예.

108004 #2 경헨 처음은 보리냥 낭 허영. 매뜨글락 허게 허젠 헨 댄 ㄱ스락 낭 허여. 경 안 허민 또 보리냥을 작두로 썰엿을 허던가. 경허영 헤낫주게.

108004 @ 아, 보리냥 썰엿?

108004 #2 으, 썰어근에 줌진 줌진 허게 헤사 매뜨글랑 허게. 그 보리냥이나 안 노민 잘 안 부떠. 경해야 잘 부뜨주.

108004 @ 흑은 어디 강 헤 왓수과?

108004 #2 그뎨 흑이 하. 이디 저디. 이제사 흑덜이 어렵주. 막 내분 디덜 밧덜 도게 그 에엿에도 막 하고.

108004 @ 게민 늬의 밧디 강?

108004 #2 아니.

108004 @ 늬의 밧은 아니고 질레에 영 파는 디덜이 잇어나서. 다.

108004 #2 밧덜 이제덜은 허멍 뉘허멍 다 흑 파멍 헤부난 헤도. 막 질레 거 파멍 헤당 헤부난 헤도. 팔월 나민 이런 디 고망 뉘라진 디 중이 고망덜 다 흑 파당

막았주게. 멩질 때 웨민 그거 허젠.

108004 @ 계민 흑 영 불를 때 지붕에도 불라야 헐 거 아니?

108004 #2 계난 그 곳새 서리 그 숨부게기나 대나 낡 예꺼근에 그 우에 지붕에 흑 불라야주게. 겐 또 안터레도 불르고. 맨뜨글락허게.

108004 @ 계민 그게 사람이 다 올려.

108004 #2 게 올려사주.

108004 @ 아.

108004 #2 계난 그때 그거 허영 사다리, 사다리. 낭으로 영 영 사다리 허영 그 거 허영 올라가. 그거 허영 지게로도 정도 올라가고 그추룩도 헝 올라가고. 그레 막 올렛주게.

108004 @ 음.

108004 #2 사다리 낡.

108004 @ 그 흑 바를 때 다 손으로 헛수과 아니면?

108004 #2 손으로게. 손으로 허영 저 두불 개백만 저 뭇고 췌손. 췌손으로 헛주.

108004 @ 그때.

108004 #2 이제 닳지 안 허영 옛날이야 다 손으로 허주.

108004 @ 그 췌손은 옛날에 췌손이 나와나서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서?

108004 #2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잇고 췌손도 잇어서 옛날도.

108004 @ 췌손도 잇어서.

108004 #2 췌손, 개백헐 때 저 나무로 멘든 췌손도 하영 써.

108004 @ 나무로 멘든 췌손이렌 험니까?

108004 #2 겐디 이 저 췌멘 헐 때 다 췌손으로 허고 나무로 멘든 췌손덜이 핫 주게.

108004 @ 걸 낭손이렌은 안 불럿수과?

108004 #2 어. 낭손이사 낭손이고 췌손은 췌손이고.

108004 @ 췌손은 췌손예. 이 밑에는 뭇 받탕 안 험?

108004 #2 널짜게 영 허영.

108004 @ 널짜예.

108004 #2 영 헐 때 영 올리는 거.

108004 @ 으, 그거 영 거렁. 방에, 이제 방 들어가보쿠다. 방에는?

108004 #2 남방에 허고.

108007 @ 아니 아니 방에말고 방, 구들, 구들. 구들에 구들이 멧 개 이서?

108007 #2 보통 하나주게. 옛날에 삼칸집.

108007 @ 아, 삼칸집이 하나.

108007 #2 스칸집은 두 개.

108007 @ 두 개.

108007 #2 스칸집 흥 동네 두 집, 시 집이나베끼 잇어서. 다 삼칸집, 이간막살

이. 경해도 아기 일곱 개 으둑 개 다 혼 집이 살았주게.

108007 @ 하하하.

108007 #2 혼 집이 살안.

108007 @ 예.

108007 #2 일고 으둑 식구가 이불 혼털메기덜 다 살았주. 게난 이 이불짓에 때가 빈질빈질 해난 생각나. 우리도 옛날.

108007 @ 아.

108007 #2 우이 옷짓도 동전에도 스뭇 빈질빈질 거멍허여. 빨렐 안 허니까게.

108007 @ 예.

108007 #2 물이 엇언게, 물이. 이제난 물이 영 혼허주 옛날에 골른 물 질어당 먹고 헛주.

108007 @ 게민 사칸집이렌 허민 방이 두 개난 하나는 큰구들이렌 허고?

108007 #2 으.

108007 @ 다른 거는?

108007 #2 이짜은 무신 온돌방이엔 허멍, 거의 스칸집은 거의 다 그뻬이 구들 때여서.

108007 @ 예.

108007 #2 이 큰 구들은 이제 굴목 진고 스칸집은 솥 걸영. 솥 걸영 이제 불 슝 으민 딱뚝허여.

108007 @ 아, 족은 방은, 족은 구들은?

108007 #2 으, 게난 그런 집이 우리 성골왓도 하나 잇고 용당도 저 누게네 집이 하나 잇어나서. 게난 우리도 애기 들양 그 순자 어멍네 집이 그디만 놀레 가나서. 딱뚝헌 집이.

108007 @ 큰 구들은 역불로 굴목 진어나고.

108007 #2 굴목 진어야 웨고.

108007 @ 여기는?

108007 #2 솥 걸영. 저 솥 거는 사름이 경 아무나 엇영게. 그 구들 노는 사름이. 경허난 그디 밥 해나민 딱뚝허여.

108007 @ 으.

108007 #2 게난 스칸집 신 집은 혼 동네 혼나 두 개.

108007 @ 음.

108007 #2 성골왓도 이젠 진순자 어멍네 집이. 진순자가 나보단 혼 두 설쭈 아래라. 게난 우리 큰 아덜네 난 때 그디만 들양 가났어. 얼영게. 딱뚝허영. 흐뭇 켜당 이고 허난 그디 가민 딱뚝허영.

108007 @ 방에는 뭐 잇수과? 구들 안에는. 저디 막 옷덜 담아 놓는 거?

108007 #2 웨게.

108007 @ 웨 잇엇고예.

108007 #2 궤, 보로하꼬, 보리짱.  
108007 @ 아니 백장도 이실 거 아니?  
108007 #2 백장에 궤 낫주게. 백장에 궤 놓고 이불 놓고.  
108007 @ 백장 우이 궤 놓고 이불 놓고.  
108007 #2 으, 경허여.  
108007 @ 여기 불 때면 굴뚝 진으면 딱뚝헌 디를?  
108007 #2 아랫목.  
108007 @ 좀 썰렁헌 디는, 위쪽은?  
108007 #2 맞자리.  
108007 @ 맞자리렌 헤?  
108007 #2 안자리, 맞자리.  
108007 @ 윗목이렌도 헐 것과?  
108007 #2 계난 육지레 어디레 아랫목 헌디 이딘 안자리 맞자리.  
108007 @ 안자리 맞자리 얘기헐 거, 예.  
108007 #2 이제사 아랫목 우잇목 허고.  
108007 @ 저기 시렁도 잇어낫수과, 시렁. 방에?  
108007 #2 시렁이 뚫이라?  
108007 @ 시렁. 영 선반허영.  
108007 #2 방에. 방에덜 경허는 집은 가끔 잇어.  
108007 @ 시렁도 잇고예.  
108007 #2 부엌에가 시렁 잘 잇어. 영 보민. 방에 잘 엇고.  
108007 @ 아, 방엔 잘 엇고?  
108007 #2 으, 부엌에, 부엌에.  
108007 @ 구들보다는 정지에예?  
108007 #2 으, 정지에 잘 잇어. 막 사발덜도 어프고 허여.  
108008 @ 예. 여기는 뭐렌 곶을 것과 여기는?  
108008 #2 마리개, 마리.  
108008 @ 마리렌 곶앗던 거예. 옛날에는 이런 나무 마리가 아니라서예?  
108008 #2 게, 니귀반득. 흑 마rido 하고게.  
108008 @ 흑 마rido 허고.  
108008 #2 게, 저 낭 논 마rido 것도 잘 치레헌 거. 흑 마리 헌 집이 하.  
108008 @ 아, 낭 마리에는 아까 네모난 마리, 그걸 널마리엔 험니까?  
108008 #2 널마리.  
108008 @ 허고. 추우난 거기에 뭐 설치헤낫지예, 불 쪼이는 거?  
108008 #2 화리게, 화리.  
108008 @ 화리말고 마리에 영 끼워진 거.  
108008 #2 엇어. 화리나베끼.

108008 @ 부섭 엿어났수과?  
108008 #2 저 불 습는 디 섯사 부섭이주 그거 담아당 화리에 낯주.  
108008 @ 아니, 봉덕, 봉덕.  
108008 #2 엿어.  
108008 @ 엿어?  
108008 #2 화리, 화리주 옛날사.  
108008 @ 봉덕 이신 집 엿어나서?  
108008 #2 으, 화리에, 화리에.  
108008 @ 화리에? 아니 다른 디 가난 마리에 돌 아예 끼워정 잇엇덴 험디다게.  
108008 #2 겐디 우린 엿어, 이렌 엿어나서.  
108008 @ 엿어나서예. 게민 마리에 백장도 잇어났수과?  
108008 #2 마리에 엿고 구들에 백장이 잇주, 마리에사 백장 서게.  
108008 @ 아니면 살레, 뭐 넣는 거>?  
108008 #2 부엌에 살레 잇고.  
108008 @ 게민 마리에 뭐 아무것도 없네.  
108008 #2 마리에 창고가 엿이난 보리허민 마리에 짝각 데며.  
108008 @ 음.  
108008 #2 보리 거튼 거 뭐. 게민 쥬 사람 하영 텅겨.  
108009 @ 고평은?  
108009 #2 고평은 안방게.  
108009 @ 안방 옆이?  
108009 #2 안방이엔 허여, 고평이.  
108009 @ 아, 고평이 안방이엔 허여.  
108009 #2 으.  
108009 @ 게민 큰구들 옆이 고평이 잇을 거?  
108009 #2 으, 큰구들 옆이 고평. 다 삼간잡인 큰구들에 영 쪼락허게 그자 방  
구들 놓고 경헨 고평, 안방.  
108009 @ 겐 안방에는 뭐 보관헤났수과?  
108009 #2 쓸게, 쓸.  
108009 @ 쓸.  
108009 #2 쓸 하간 쓸 허영 다 항에 행 놔 똥. 팔월 나미 보리 허영 문딱 그거  
져 무시거 지여, 보리썰 지여. 혼 멧 항 놔 뒤야 먹어. 팔월달에 항으로. 이제 거트  
른 하나토 안 먹을 건디. 혼 멧 섬씩 지영, 팔월에 지영 보리 그 항마다 그득허게  
냥 종이 잘 엿이난 이런 아무 종이라도 허영 더경 놔똥. 경헤민 좀 안 일어, 팔월에  
져야.  
108009 @ 아, 팔월에 져야.  
108009 #2 팔월 행 겨울내냥 먹어서 그 보리썰.

108009 @ 예.

108009 #2 보리 다, 보리 지기 전이 이 마리레 놓고.

108009 @ 예.

108009 #2 마리레 놓고 지민 이제 안방에 향에 담주게.

@ 아, 아, 경헨 먹어난 거. 게민 그 안방에 보민 거기도 조그만 허게 영 뭐가 잇 수과? 공기 통허렌 만들어 논 거?

108009 #2 그 고망 요만인 딸라.

108009 @ 예, 그걸 뭐렌 불러낫수과?

108009 #2 뭇이엔 불르는 건 몰라, 그건.

108009 @ 창곰이엔 안 해난?

108009 #2 으, 창곰계, 창곰.

108009 @ 예, 창곰 딸랑예.

108009 #2 요만이 그자 문도 안 들고 요만인 딸랑 내불어. 저 돌 하나만이 요만 이 창곰 딸랑.

108009 @ 예.

108009 #2 두 개 딸르는 디도 잇고 하나 딸르는 디도 잇어.

108009 @ 무사 딸르는 거?

108009 #2 캄캄허난게. 옛날엔 전기도 엇고 허난게.

108009 @ 계난 거기 창곰 딸라냥 해난 거예. 경허난 거기 창곰 딸랑 빛 들어오 게 헛엇던 거라예.

108009 #2 경혜사 흐뵂 베통혜영 베테질 거 아니.

108009 @ 베통허게.

108009 #2 전기 엇일 때난. 불 쌍 갈 수도 엇고. 계난 영 저레 하나 들고 요 옆 이 하나 들고.

108010 @ 이젠 정지에 가 보쿠다예. 정지에는 뭐가 잇어낫수과?

108010 #2 살레베긴 더 셔게. 살레허고 솟허고 물향허곡게. 물 질어당 향에 놔 사 혈 거난.

108010 @ 예. 게민 솟은 멧 개나 잇어낫수과?

108010 #2 보통 네 개.

108010 @ 보통 네 개.

108010 #2 보통 네 개, 세 개. 막 엇인 할망. 할망덜이나 사는 디 두 개 허지 보통 큰솟, 중, 말솟, 다도테기.

108010 @ 음.

108010 #2 큰말치.

108010 @ 큰말치, 말치.

108010 #2 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

108010 #2 질 죽은 건 다도테기.  
108010 @ 아, 젤 죽은 게 다도테기?  
108010 #2 으, 말치는 이제 흐뎀 큰 거.  
108010 @ 큰 거. 말치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08010 #2 그 말치가 이제 거트민 쌀 흐 석 돼썸 들어.  
108010 @ 큰말치는?  
108010 #2 큰말치도 흐 흐 말썸 들고.  
108010 @ 흐 말썸 들고?  
108010 #2 이제 콩 슴젠 허민 큰숫 잇고게.  
108010 @ 어.  
108010 #2 콩도 슴고 그 오메기떡 헤영 술도 허고 허젠 허민 큰 숫디 헤야 돼.  
108010 @ 그거 우리 말치렌 행 흐말떼기 두말떼기렌은 안 헤낫수나.  
108010 #2 말치, 다도테기.  
108010 @ 다도테기는 얼마나 들어가.  
108010 #2 다도테기는 이제 거트민 쌀 한 돼.  
108010 @ 아, 쌀 한 돼 들어가.  
108010 #2 게민 다도테기에 국 끌리고.  
108010 @ 게민 세 번째 크기는 뭐렌 불러난? 큰말치, 말치?  
108010 #2 게난 큰숫, 큰숫 말치, 다도테기.  
108010 @ 큰숫, 말치 요건 뭐렌 불러나서?  
108010 #2 그자 경해도 큰숫, 말치, 다도테기 경만 불런.  
108010 @ 아, 경만 불러난.  
108010 #2 주로 세 개 신 집, 두 개 신 집. 흐뎀 하영 허민 거의 네 개 걸어진 집도 하고. 거의 부갓집인 네 개.  
108010 @ 네 개.  
108010 #2 으, 보통 세 개. 막 할망덜이나 두 개.  
108010 @ 영 네 개 있다치민 요건 아까 국 끌렷잖아예?  
108010 #2 으. 아, 게난 질 죽은 것이 반찬허여. 다도테기는.  
108010 @ 반찬허여. 이거는?  
108010 #2 국 끌리곡게.  
108010 @ 이거 국 끌리고. 이거는 밥 허고?  
108010 #2 으, 큰 건 콩이나 슴고 그런 하간 떡 ㄴ튼 것도 치고 영 오메기떡 같은 것도 허고. 큰 숫은 잘 안 쓰고.  
108010 @ 잘 안 쓰고예. 물항도 막 커낫수과?  
108010 #2 물항도 두 개씩도 놓고. 지세향, 검은 물항이엔 허주게. 검은 물항 그것에 놓민 물 시원허영 검은 물항에만 낵 먹고. 겐 흐덜에 흐 번이나 물항 씻고. 물이 막 찌끄레기 일어. 그디 물 질어당 먹어.

108010 @ 물 질레는 어떻 가나서?  
108010 #2 허벅게. 허벅 허영 구덕에 영 대로 여끈 거 해당 지영 영 비우민 뉘 주기게.  
108010 @ 그 대로 여끈 걸 뉘렌 불러낫수과?  
108010 #2 물구덕.  
108010 @ 물구덕 안에 허벅을?  
108010 #2 담아 낵 그 또 물 찰랑찰랑 안 허게 다쟁이 막앙.  
108010 @ 음.  
108010 #2 다쟁이, 다쟁이도 짝으로 헵 뵙뵙 허게 막으민 찰랑찰랑 안 해주게.  
108010 @ 그거 다쟁이렌 헵?  
108010 #2 다쟁이.  
108010 @ 계난 다쟁이로 막앙.  
108010 #2 계난 어털 때는 다쟁이 막고 옥앙 뉘 헵 때 허벅은 잘 헵지 안 허여. 겐디 어린 때 다쟁이 안 막앙 뉘 막 헵어. 찰랑찰랑. 어떻사 잘 못사 걸어져신디.  
108010 @ 물 질레는 맨날 갔다와야 허는 거?  
108010 #2 아이고 흐루 뉘 번 질어 와살 거 아니게.  
108010 @ 흐루에?  
108010 #2 으, 그거 그 물 그걸로 다 침 졸은 안 씻엇주만은 밥 허고 국 허고 떡곡 반찬 허곡 뉘, 침 뉘 시침도 허곡 허난게 하영, 물 하영 쓰주.  
108010 @ 음.  
108010 #2 빨래 거튼 거 그자 곳은 물에 강 허고 먹는 물은 이제 뜨로 허고.  
108010 @ 음. 솟도 영 언지젠 허난 뉘 우이 허는 거라? 여기 돌?“  
108010 #2 여기 삼덕게.  
108010 @ 삼덕.  
108010 #2 덕 세 개 헤영게. 요디 하나, 요디 하나, 요디 하나.  
108010 @ 거 솟덕예?  
108010 #2 으, 솟덕.  
108010 @ 계난 세 개 잇이난 삼덕이렌 부른 거?  
108010 #2 삼덕, 으.  
108010 @ 겐 그 우이 언지는 거예?  
108010 #2 으. 계난 이제 그추룩 헤 가단 우리 좀 옥은 후에, 결혼 헵 후에덜은 거의 결영.  
108010 @ 으.  
108010 #2 우리 어린 때덜은 영 헤영 다 부채 영 내밀고 헤영 헵디 우리 결혼 헵 후에 거의 멘드글락허게 블랑근에.  
108010 @ 시멘트 블랑?  
108010 #2 아니, 흑.

108010 @ 흑 불량?  
108010 #2 으.  
108010 @ 아.  
108010 #2 겐디 우리 어린 때는 불리지 안 행 그냥 삼덕만 앓져근에 불치 그냥 팡팡 내치명 경혜근에. 우리 결혼헌 후에 그거 영 짝 허영 다 걸영 솟덜 걸영 온돌방 허고. 우리 결혼헌 후엔 온돌방을 허고. 경허기 전에 삼덕 앓정.  
108010 @ 불치를 어디로 내뺐니까?  
108010 #2 불치 그냥 영 내뺐엇주게.  
108010 @ 뒤로예?  
108010 #2 으. 경헌디 거 솟 건 땀 이젠 갈레죽으로 헨 이런 디 통 멘들앙 놔 뒀당 밧디 강 그거 비료라. 불치가 비료.  
108010 @ 불치도 솟 걸엇을 때는 정지에 모다 낚?  
108010 #2 정지에 영 몽텅이 행 한 켜더레 모되 놔.  
108010 @ 불치막 따로 엇어낫수과?  
108010 #2 불치막 경 혜져게. 요런 디 싯당 모다지른 밧디 강 이제 허꺼불엇주.  
108010 @ 예.  
108010 #2 ㄴ시락막은 셔도 불치막은 잘 엇어.  
108010 @ 아, ㄴ시락막은 잇어도.  
108010 #2 ㄴ시락막은 거의 다 잇어.  
108010 @ 아.  
108010 #2 잇어야 돼주게, ㄴ시락막은.  
108010 @ 게민 살레에는 뭐 잇어낫수과?  
108010 #2 살레사 국사밭, 밥사밭, 양철게. 주로 양철. 죽은 양철에만 거렁 먹으난. 거의 죽을 하영 썩 먹엇주 옛날엔.  
108010 @ 죽 썩 양철에.  
108010 #2 아니 우리 어릴 때 남박세기.  
108010 @ 남박세기 잇어낫지예.  
108010 #2 으. 남박세기에 먹엇주 어릴 땐. 혼 우리 열일곱 으덱까지는 남박세기에 먹엇어. 그 다음 양철이 나왔주. 남박세기에 먹언.  
108010 @ 저기 출레덜 그냥 살레 안에 놔 두기도 허고?  
108010 #2 그냥 살레 안에베끼 더 놔게. 어디 냉장고 잇어?  
108010 @ 숟가락은 어디에 보관헷수과?  
108010 #2 숟가락은 쟈, 쟈통. 저 대로 예긴 쟈통도 잇고 대, 대 영 파른 그 대통에 혜영 영 살레에 걸영 놔 뒀주게. 경헨 숟가락 그레 놔.  
108010 @ 예. 숟가락 그디 놔. 저기 정지 밖에 나오면 바로 쳇방 아까? 무슨 방?  
108010 #2 쳇방.

108011 @ 청방예. 그거 청방이렌 불럿수다. 예. 여기 문 보면, 이거 문이라예. 이걸 뉘렌 불럿수과?

108011 #2 문입쟁이게.

108011 @ 문입쟁이. 이 부분을 문입쟁이렌?

108011 #2 문입쟁이.

108011 @ 계민 여기는?

108011 #2 지방.

108011 @ 지방. 문설추가 어디라?

108011 #2 설춘 몰라 나.

108012 @ 아, 잠깐만예. 계민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이런 문이지만은 옛날엔 다른 문이잖아예.

108012 #2 창문게. 창문, 대문.

108012 @ 창문, 대문.

108012 #2 대문은 낭으로 혜영 영 더끄는 거.

108011 @ 여기 창문에 문 잠그젠 허민 영 걸치는?

108011 #2 돌쳐귀게.

108011 @ 돌쳐귀.

108011 #2 돌쳐귀랏주게, 창문엔게.

108011 @ 예. 그 돌쳐귀라도 영 걸치는 거 있고.

108011 #2 아니 영 허영 영 꿰는 거 돌쳐귀.

108011 @ 예. 그것도 수톨쳐귀, 암톨쳐귀 잇어났수과?

108011 #2 이걸 수컷, 이걸 암컷게.

108011 @ 예.

108011 #2 영 찢르는 거 수컷게.

108011 @ 영 걸치는 게 아니고 영 찢르는 거니까?

108011 #2 으.

108011 @ 경 불럿던 거구나.

108011 #2 이젠 엇어 돌쳐귀.

108011 @ 이젠 엇어.

108011 #2 이젠 다 무신 식으로 뉘여부난.

108011 @ 이거 전체를 문입쟁이렌 헐 거.

108011 #2 입쟁이, 문입쟁이. 저 이런 건 지방이고.

108011 @ 지방이고 우에는 뉘렌 곱아.

108011 #2 거 이것도 지방게.

108011 @ 우에도 지방?

108011 #2 으.

108011 @ 여기 혹시 이 앞애가 대문이엇잖아?

108011 #2 으.

108013 @ 대문 옆에 또 작은 문이 있어났수과?

108013 #2 엇어. 저 남군만 잇어?

108013 @ 아, 그거 호령창이렌 부르는 거예.

108013 #2 남군, 남군은 잇어.

108013 @ 여긴 엇어예?

108013 #2 여긴 엇어. 남군은 잇어. 이 호령창. 옛날은 이 뵈고 첩에 난 애긴 호령창으로만 행 대문으론 텅기지 못허게 헛저 해난 거 알아져. 이렌 엇어. 이 남군이 그런 거 막 따주아.

108013 @ 그런 거 막 따지는 데가 남군인 거?

108013 #2 으, 남군이라.

108013 @ 예.

108013 #2 남군은 호령창. 게난 첩에 아긴 대문으로 못 텅기게 헛주게. 거 기억 헤져.

108014 @ 굴목은 어느 쪽으로 낭 잇수과?

108014 #2 굴목은 이거. 구둘 저펜이게.

108014 @ 저펜이.

108014 #2 이거 방에도 쫄막 이만이 행 막 굽영 들어가고 스못 침. 애기 벨 때 그디 강 굴목에 앓지도 못 허여. 임신헌 때.

108014 @ 좁아가지고.

108014 #2 좁아. 하하. 오그령 굴목 진젠 허민 내 팡팡 나고. 보리낭 아정 강 ㄱ시락 그레 들물양 그디 불치 걷어 내딩 ㄱ시락 디물양 또 불 흐뵈 부찌사 그 ㄱ시락더레 부뜨주게. 스못 ㄱ시락 죽어지게 내 팡팡 먹고. 이제 사름 거트민 기절 초풍 헛 거여. 하하하.

108014 @ 하하하.

108014 #2 스못 숨이 다 끈어져근에 죽주 이제사. 옛날이난 헛주.

108014 @ 게난 굴목 진젠 허민 ㄱ시락이 잇어야 헛 거고.

108014 #2 ㄱ시락, 쉼똥 좇어당, 쉼똥 똥똥 좇어당. 그거 허뜨민 잘 부뜨고 따시고.

108014 @ 아.

108014 #2 쉼똥이나. ㄱ시락은 금방 부떠불고.

108014 @ 음.

108014 #2 게난 쉼똥 좇으레 막 텅겨주게.

108014 @ 굴목 진젠예.

108014 #2 으.

108014 @ 그 옛날 초집일 때 비 오는 거 막젠 아니면 햇빛 가리젠?

108015 #2 풍체계.

108015 @ 풍채 세워서예.

108015 #2 으. 풍채. 양철 풍채 세운 집은 어찌다가 좋은 집이고. 저기 다 찍으로, 침 새로 예경 낭으로 영 혜영. 겐 영 바튀게. 이디 바투고 이디 바투고 한 가운데 하나 바투고. 이디 돌아메고.

108015 @ 세 개를 바툰 거라.

108015 #2 으, 돌아메고.

108015 @ 겐 비 올 때는 내리고?

108015 #2 으, 갱허여. 아이 내리는 디도 하고 막 발 헌 딘 내리우고 풍채. 풍채는 거의 다 해야 돼. 경 안 허민 창문에 막 비 빼영 안 돼. 창문더레 비 빼영 와작작, 와작작.

108015 @ 그 풍채도 종류가 있어났수과? 영 돌아메진 것도 있고 영 세우는 것도 있고.

108015 #2 으, 세우는 건 이제 그것ㄴ라 뿃이렌 헛저만은 오꽃 나도 있어붙어져. 그거 우리 하르부지넨 그거 헤나서, 세와.

108015 @ 세와.

108015 #2 그거 뿃이엔사 헤신디 있어붙어져.

108015 @ 뿃렌 헤신고? 그거 세우는 풍채를 타작할 때도 옛날에 세우고 뿃 헤났수과.

108015 #2 으, 게난 창문에 그거 세와 우리 하르부지넨.

108015 @ 예.

108015 #2 풍채해도 막 그거 세와. 그거 세와나서 하르부지넨.

108016 @ 예. 저기 물팡도 있어났지예?

108016 #2 물팡은 허벅 부리젠 물팡 헤났주.

108016 @ 어느 쪽에 물팡을 놓니까?

108016 #2 이 곧 이 정짓문 이엄에.

108016 @ 정짓문 엠에.

108016 #2 으, 돌 녀작헌 거 영 혜영게 그거 허민 물팡게. 물팡에 허벅 부렁 놔 뒤사주, 어디레 부렁 놔 뒤.

108016 @ 게난 물 질어 가젠 허민 아까 대구덕예?

108016 #2 게난 거 강 왕 비와난 거 물팡에 놔 뒤사주. 경혜사 지영 갈 거 아 니?

108016 @ 예.

108016 #2 물팡에.

108016 @ 우리 어려서부터 물 지엇잖아. 어릴 때 애기들은?

108016 #2 대베기.

108016 @ 대베기.

108016 #2 대베기도 흐꼬만 대베기 있고 큰 대베기 있고. 질 처음엔 두벵들이로

질당 막 어릴 땐 이 일고으뜸설 날 땐 두벵들이로 질엉, 그 다음 대베기로 질엉, 그 다음 허벅으로 질엉.

108016 @ 아이고.

108016 #2 혼 일곱설 으뜸설은 다 대베기로 물 날랏주게.

108016 @ 음.

108016 #2 이제 아이덜은 고급이난.

108016 @ 계난 그 물 날르는 거 생각이나 헤질 거라?

108016 #2 계난 그 날라 오명 허단 파삭 벌러불고.

108016 @ 아, 벌러불고.

108016 #2 견디 우리 결혼허고 허연, 아마 나가 혼 서른설썸부턴 고무 허벅 나가 시작허연.

108016 @ 아.

108016 #2 그전인 사기 허벅인디. 나 부산 간 고무 허벅 사단 막 폴아낫주게. 고무 허벅.

108016 @ 플라스틱말고?

108016 #2 고무, 이 플라스틱으로.

108016 @ 플라스틱예?

108016 #2 으.

108016 @ 깨지지 안 허는 거예?

108016 #2 으, 그거 나난 그게 막 좋아. 벌러지지도 안 허고.

108016 @ 계난 그거 낭도 막 물 질어낫수과?

108016 #2 질엇주게.

108016 @ 수도 안 생견?

108016 #2 수도 생겨도게 가인 집이 수도 생겨서게 공동으로 어찌다. 박정희 대통령 헐 때사 공동 수도가 잇엇주게.

108016 @ 아.

108016 #2 그 전에사 수도가 잇어서게.

108016 @ 아, 수도 옛이난.

108016 #2 다 시에레도 그땐 수도가 엇어서 옛날엔. 이디만 아니고.

108016 @ 계난 삼춘도 물허벅 막 하영 벌러수과?

108016 #2 벌러주게. 어릴 때사 안 벌러.

108016 @ 하하하.

108016 #2 물 비우당 잘 벌러져. 물 비우당 민질락허믄. 계난 영 그 대베기 부리영 영 얼그는 것이 잇어 영 베말고. 경허영 잘 허영 허믄 허고 경 안 허믄 민질락 헤영 항더레 털어짐도 허고 부리 탁 허민 어뎡허영 잘 안 허민 그때 벌러곡. 눈 올 때 잘 벌러곡.

108016 @ 눈 올 때.

108016 #2 으, 닝끼리정 어뎡 허멍.

108016 @ 닝끼렁?

108016 #2 으.

108017 @ 삼춘네 집은 올레가 셔 낫수과?

108017 #2 올레 셔.

108017 @ 예.

108017 #2 다 올레, 옛날은 검질 메곡 오죽 올레가 질어게 이제 님지 안 허영.

108017 @ 그지예.

108017 #2 올레 행 직낭 허주게.

108017 @ 뭐 헤나서?

108017 #2 직낭. 직낭 두 개 시 개 헤영 직낭 걸쳐사 웰 거 아니. 췌 들어오곡 게. 직낭 걸쳐민 사름 옛인 집이고 직낭 올라지민 사람 신 집이고.

108017 @ 사람 신 집이고.

108017 #2 으. 직낭 옛날 직낭.

108017 @ 으, 그거 허고. 저기 문간채도 잇어나수과?

108018 #2 으, 흐꿈 뭐 현 딘 문간채도 잇주게.

108018 @ 문간채는 어떤 역할 헤낫수과?

108018 #2 건 흐꿈게 잘 사는 집인게 문간채 헤영 흐꿈 종도 살고.

108018 @ 부리는 사람.

108018 #2 으, 머슴덜도 살고 허주게.

108019 @ 머슴덜도 살고. 그 다음 놀들 잇어낫잖아예. 놀 지난 번에 막 하영 만 들어나서예?

108019 #2 뭐?

108019 @ 놀, 놀. 집이 놀.

108019 #2 다, 보리낭이고 문딱 놀어사주게. 보리낭도 놀어야 웨, 조쩍도 놀어야 웨 새꿀도 놀고 감저쩍도 놀지. 다 놀어야지게.

108019 @ 게난 놀이 흔 네 개.

108019 #2 으. 게난 주로 보리낭 놀 걸로 불 때영 밥 허주게.

108019 @ 보리낭 눈 걸로.

108019 #2 으, 췌 멕이젠 허믄 또 조쩍은 조쩍으로 놀고 새꿀은 새꿀만 놀고. 감저줄은 감저줄만 놀고.

108019 @ 음.

108019 #2 놀이 멧 개씩 놀어. 게난 놀왓이 잘 헤사.

108019 @ 놀왓이.

108019 #2 으, 놀왓이 널러사주.

108020 @ 통시는?

108020 #2 통지는 도새기 질루는 디.

108020 @ 도새기 질루는 디. 게민 도새기 질루는 디는 도새기 비 맞지 말렌 뭐 해주고?

108020 #2 집계.

108020 @ 집.

108020 #2 돌로 허영 그 도새기 집이 거의 보리낭 늘어.

108020 @ 아, 아. 도새기 집 우이.

108020 #2 도새기 집은 영 저 뵈고 넓짜헌 돌 허영 돌 우이 보리낭 막 늘어. 어느 집이든 도새기 집인 보리낭 늘어.

108020 @ 아, 도새기 집 우이 보리낭 늘어.

108020 #2 출늘은 따로 누는디 보리낭은 거의 도새기 집 우이 늘어.

108020 @ 아. 게민 도새기 먹이 주는 건 뭐렌 곱아.

108020 #2 뚫도고리.

108020 @ 거, 뭘로 만드는 거?

108020 #2 돌로게.

108020 @ 돌로 만드는 거.

108020 #2 으, 돌로 다. 느나 옛인 돌로 다.

108020 @ 게민 먹이는 것, 것 줍니까?

108020 #2 거, 보리, 보리, 보리채 좁쌀, 조 불려난 조채 그거 주주게. 보리채, 조채 경헨 이제 물 질어당 항에 그 조채, 보리채 캥 놔뵈당 이제 박세기로 걸어줘.

108020 @ 아, 항에 캥 놔뵈당.

108020 #2 게고 잔치집이 스몫 그 뜯물 이제 살 씻어난 뜯물 스몫 허민 아이고 도새기 주젠 스몫 싸우명덜 빌어와. 뜯물도 빌어와. 도새기 주젠. 이제 거트민 물 부영헌 거 무시거 허라만은.

108020 @ 도새기 것 주젠.

108020 #2 것 주젠. 흥끔 풀풀헌 거 주젠.

108021 @ 통시허민 우리 응가허는 부분 똥 누젠 허민 뭘 놓잖아예.

108021 #2 지들항게.

108021 @ 뭘 지들항?

108021 #2 영 두 개 논 것ㄹ라 지들항이렌 허주.

108021 @ 지들항이엔 헐 거. 거 돌로 놓기도 허고 나무로 놓기도 험니까?

108021 #2 돌로 놔. 육지는 낭으로 놔도 제주도는 다 돌로 놔.

108021 @ 다 돌로 놔.

108021 #2 제주도는 돌이 한 디난 다 돌로.

108021 @ 게민 나가 올라강 볼 일 보니까 옆에서 보이니까 보지 말렌 여기 뭐 도 쌓고 험니까, 돌 옆에?

108021 #2 이쪽엔 터져도 이쪽은 다 막아젓주기에. 영 다 담 다정.

108021 @ 담 다정. 영 보이지 말렌예.

108021 #2 으.

108021 @ 도새기 키우는 디 도새기 도망 강, 튀어 넘어.

108021 #2 답 다. 답 다살 거 아니.

108021 @ 으.

108021 #2 도망가지 못하게 답 다민 아이 돌아나주게.

108021 @ 아이 돌아나. 도새기 영 질루는디 도망가거나 헤 본 적도 었고?

108021 #2 으, 답 다.

108021 @ 답 다왕예. 옛날에는, 지금은 영 휴지덜 나오니까 휴지로.

108021 #2 보리낭게 옛날은 보리낭으로 쓸언.

108021 @ 하하하.

108021 #2 보리낭으로 쓸단 우리 아주버니가 선생 해서.

108021 @ 예.

108021 #2 경허난 그 시험지 종이.

108021 @ 시험지 종이.

108021 #2 으, 그거 갖다 주밈 그거 벨 거로 쓸엇저.

108021 @ 아.

108021 #2 그때 신문도 었주게, 옛날은 휴지 난 지 오래지 안헛주. 이거 휴지로 쓴 지.

108021 @ 예.

108021 #2 멧 년 웨신가. 휴지 난 지가. 신문도 었어서 그뻐. 신문이 어디셔. 우리 그 시험지 종이 앳다주밈 벨 거 많이 허고. 책, 책 써난 것도.

108021 @ 옛날에 경헌 후제 월력 나오난, 일력 나오난.

108021 #2 일력도 나온 지 오래지 안 해서. 옛날에 일력 었어서 잘.

108021 @ 예.

108021 #2 일력 잘 었어. 그 웨장짜리 줘세계. 일력 저추록 떼는 것이 아니고 웨장, 웨장짜리에 열 두달.

108021 @ 아, 한 장에 다.

108021 #2 으, 열 두덜 요만씩, 요만씩 요디가 한달치, 요디가 한달치 헤근에 경헌 거 우리 결혼헌 당시에 그런 달력도 잘 어찌다가 었어. 경헌 글후에가 잇어주.

108021 @ 글후에가.

108021 #2 이제야 농협이여 어디여 막 기관마다 달력이 하주 달력이 어디셔게.

108022 @ 음. 헛간도 잇어났수과?

108022 #2 헛간이게.

108022 @ 아까 ㅁ시락?

108022 #2 으, ㅁ시락막 허고 또 헛간에 히여뜯헌 거 느람쥐 거튼 거 데민 그 헛간게.

108022 @ 예.

108022 #2 쉼막에, 쉼막 반착헨도 그 헛간 허고 쉼막도 허고. ㄴ시락막 반착은 ㄴ시락 허고 반착은 헛간도 허고 헛주게. 헛간이 이제 거트민 창고주게만은 옛날은 초가집이 영허영. 담도, 헛간엔 문도 잘 엮어.

108022 @ 문 엮어?

108022 #2 으, 문 엮어 곳새 그 뒹고 품채말고 그 뒹고 새로 예경 그 낭 허여근에 그레 영 헛당 올앗닥 허멍.

108022 @ 그거 뒹지? 거 생각 안 남수다예.

108022 #2 아이 나도 뒹이엔 곱아난 거 잊어불언 생각을 안 남저.

108022 @ 계난 그거 타작 헛 때도 허고 뒹 헛 때 ㄴ는 걸로도 써낫수과, 그거?

108022 #2 으?

108022 @ 바닥에 ㄴ는 걸로도 써낫수과?

108022 #2 아니, 바닥에 ㄴ는 건 명석.

108022 @ ㄴ는 건 명석이고, 예.

108022 #2 명석 끝앗당.

108022 @ 예.

108022 #2 ㄴ렛방석은 불림질 허는 거, 명석은 저 날레 너는 거.

108023 @ 날레 너는 거예. 그 쉼막에는 쉼 하나 질뤄난 거고?

108023 #2 으. 쉼 하나도 질루고 말째 돼가난 두 개 세 개도 질루고 헛주게.

108023 @ 삼춘네도 두 개 세 개 질뤄 보고.

108023 #2 으, 두 개 시 개 질뤄. 우리 세 개 질환.

108023 @ 음. 그럼 거기에 쉼막에도 거기 쉼 것 주젠 허민 출 주젠 허민.

108023 #2 처음엔 출만 주단 말젠 낭, 낭 영 허영 낭 쉼 것 주는 거 멘들앙 허당 그 다음 이제 세 개 질루 땀 그 다음 세멘 허영 이제 쫄쫄허게 허영 이제 그레 쉼출 썰영 이제 흐뎡 솥앙도 주고.

108023 @ 아, 세멘 헤 논 거 한참 후제사예?

108023 #2 으, 그건 흐 우리 거의 흐 오십대 땀에.

108023 @ 그럼 그 전에는 쉼 출 주젠 거기 뒹 갖다 논 거 뎡도고리추룩?

108023 #2 으, 낭으로 멘들앙.

108023 @ 낭으로 멘들앙예.

108023 #2 낭으로 멘들앙 그거 솥앙 주곡. 죽도 썬근에 그레 주곡 그레 허곡.

108023 @ 음.

108023 #2 솥아근에 출 솥앙 이제 뒹 허경도 주곡 막 헛주게.

108024 @ 음. 항들은 어디 뒹낫수과, 항들은?

108024 #2 항들은 주로 안방에 뒹서.

108024 @ 안방에 놓고 간장 땀장?

108024 #2 건 장, 장황 이, 이젠 저런 옥상인디 그땀 이런 장독이 있어.

108024 @ 장독이 있어예, 어디에 있어?

108024 #2 마당 흔착 구석에.

108024 @ 저기 정지랑 가까운 디?

108024 #2 아니 영 마당에 흔착 구석에 영 혜영 햇빛 발른더레 장독혜영. 아래 그뎨 세뎨 엇이난 보뎨딱지도 꿀곡 자갈도 꿀곡 경혜영 그디 장독 허영 영 동글락 현 돌 뉘작현 거 허영 장항 높도 허고 경헛주게. 경 다.

108024 @ 장항예.

108024 #2 이젠 옥상덜 이신디 옛날에사 옥상이 잇어게.

108024 @ 장항허민 거기에 항덜을 막 하영 갓다 놔낫수과?

108024 #2 아니 흔 너뎨 개.

108024 @ 너뎨 개. 장물항?

108024 #2 장물항, 웬장, 우에 마농지 뉘 그냥 똥 거 허영 그레 낫주게. 게난 막 하진 안 허고.

108024 @ 자리젓 뉘쳐도 거기에?

108024 #2 아니, 거긴 뉘 나. 자리젓 뉘쳐은 흥뎨 그늘진 디 놔사.

108025 @ 그늘진 디 놔사. 예. 그 옛날에 우리 물 엇이난 수도가 엇이난 그 물 질어오기도 헛주만은 집이서 비 올 때 물 받아나지도 안 헛수과?

108025 #2 게 빗물 받앙 쓰주게.

108025 @ 예.

108025 #2 빗물 받앙 써. 게난 초가집 현 사람들은 잘 못 받는데 또 그 초가집 이 양철 풍채 현 사름은 막 잘 받아난. 경허단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이 아덜덜이 흔 열 살썰 헛 때 쓰레뜨 올렛주게. 그 박정희 대통령 헛 때 그 쓰레뜨 삼만 원씩 주난 것에 얼마 부짱 쓰레뜨 초가집 걷어된 허난 이젠 물뎨크레 뉘들아서 게난 이제 지붕에서 받는 거 물뎨크레 받앙 그거 먹엇주게.

108025 @ 그거 말고 옛날에 집이 큰 낭 잇이민 낭에서 떨어지는 물 받젠?

108025 #2 낭에서, 낭은 잘 엇고 그자 그 초가집에선 빗물을 못 받으는디 그 쓰레뜨 올릴 뉘 그 빗물을 잘 받아져부난게. 게난 바우에 영 허영 이제 그거 막 항디 레 받아 놓고 뉘 허고.

108025 @ 낭에 춤 메지는 안 헤낫구나, 춤?

108025 #2 춤이 뉘라?

108025 @ 노끈 꼬아가지고 낭에 항 받아가지고 그물 질어오고는?

108025 #2 경은 안 헛.

###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경은 안 헛예. 춤 물은 안 받아난예. 이제는 우리 초가 지붕 이는 거 물어보쿠다예. 초가 지붕, 지붕.

108026 #2 으.

108026 @ 지붕을 영 바꿔야 뉘 거 아니?

108026 #2 일 때?  
108026 @ 일 때.  
108026 #2 일 땀 줄 낳게.  
108026 @ 그거를 매년 헵니까 아니면?  
108026 #2 이 년에 흔 번.  
108026 @ 이 년에 흔 번. 예, 그거 메젠 허민 어쨌든 이 년에 흔 번 허젠 허민 준비해야 될 거 아니?  
108026 #2 집 이는 사름 빌어사. 아무나 못허여.  
108026 @ 계난 미리, 미리.  
108026 #2 아니 줄은 미리 낫당, 줄은 아무나 웬만허민 노는디 집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108026 @ 음.  
108026 #2 흔 동네 흔 두 서너 사름. 게나 그때 돈으로 헝끔씩 얼마 쥐실 거라.  
108027 @ 계난 새를 비영 와야 헐 거 아니과?  
108027 #2 뭐?  
108027 @ 집 일젠 허민 새를 미릿.  
108027 #2 미릿 비영 흔 시월달에 비엿당 놔뒀당.  
108027 @ 예.  
108027 #2 이제 줄 노는 건 각단.  
108027 @ 각단.  
108027 #2 또 집 이는 건 새.  
108027 @ 으.  
108027 #2 새, 진 건 새. 쫓른 건 각단.  
108027 @ 각단.  
108027 #2 계난 각단으론 줄 놓고 새론 일고.  
108027 @ 그 지붕 초가 지붕 한 삼칸집이 지붕을 일젠 허민 새랑 각단이랑 얼마 정도 들어놨수과?  
108027 #2 몰라 얼마 들어난 건 나 생각에 몰르고 흔 마흔 못쫓 들어신가 흔 오십 못 들어신가.  
108027 @ 아, 정확한 모르고예?  
108027 #2 으. 막 우리 저디 멩이눈 남승이꺼장 걸영 흔 세 시, 네 시에 나강 그꺼장 걸어 강 행 와. 멩이눈 우이 남승이엔 현디 강.  
108027 @ 멩이눈이 어디라?  
108027 #2 저 저지 넘어간 디 멩이동. 멩이동도 넘어간 디 이디서 걸영 강 그거 굿디 강 거 행 와서. 경헐 지영 흔 네, 다섯 못.  
108027 @ 네, 다섯 못.  
108027 #2 그거 오죽 머냐. 이제 거트민 그디 걸영 가고 걸영 와질 거냐?

108027 @ 예.

108027 #2 그거. 계난 아침 혼 두 시, 세 시에 걸어가.

108027 @ 예.

108027 #2 걸어장 이제 그거 비영 이제 비영 왕 해낫주게.

108027 @ 계난 이 근처에서는 빌 디가 었고?

108027 #2 이 근처에서도 비는디 모지레난 경허연.

108027 @ 음.

108027 #2 모지레고 그거 보충허레 막 그 새왓 었인 사름덜은 그디 강 비어 와 나고 저 당모오름에도 강 흐끔 비여 와나고.

108027 @ 당모오름?

108027 #2 으, 이디 저지.

108027 @ 예.

108027 #2 저지 오름에 그딘 쫄른 거베긴 었고.

108027 @ 여기 신창은, 여기는 오름이 었수과, 신창은?

108027 #2 오름이 었주게.

108027 @ 아, 오름이 었이난 저지까지 강.

108027 #2 저지 오름엔 쫄르고 그 남승이 오름엔 가민 질어.

108027 @ 남승이?

108027 #2 으, 남승이 오름이엔 허명 우리 저 멩이눈 우이도, 멩이눈에서 더 오 름 강 그디까지 강 헤 와나서.

108027 @ 아, 남승이 오름 강.

108027 #2 경혜영 그거 지영 우리 어무니네영 허영 지여정 막 와나서. 멧 사름 이 잣다 와.

108027 @ 그민 이제 집줄 놓아야 헐 거 아니예. 집줄은 아무나 놔?

108027 #2 아니, 집줄 허민 놔난 사름은 다 놔. 계난.

108028 @ 뭐가 있어야 뽕니까, 집줄 놓젠 허민?

108029 #2 호랭이게.

108029 @ 호랭이 었고 뒤에 허는 거는?

108029 #2 또 거 무신 뒤.

108029 @ 뒤치기?

108029 #2 으, 뒤치기 호랭이게.

108029 @ 뒤치기 호랭이. 집줄 놓는 거 한 번 헤 봅서. 어떻 놓니까?

108029 #2 아, 계난 이거 영 영 영 영 이디서 각단 허영 혼 사름이 놔 주민 또 혼 사름이 그 호랭이로 꺾어 가야 헐 거 아니.

108028 @ 예.

108028 #2 이레 다 꼽앗당 이제 두 개 두 개 부짱 이제 혼 사름은 이레 영 헤 영 두 개 두 개 부짱 가야주게.

108028 @ 그 집줄 놓젠 허민 일헐 때 사람이 멧 사람?  
108028 #2 네 사람 들어야주게.  
108028 @ 네 사람 들어야.  
108028 #2 이디서 혼 사람 허여야지.  
108028 @ 예.  
108028 #2 이거 혼 사람 영 허여야지. 또 저디 들이 호렝이 또 거 줄 들이 해야 예껴지지. 게난 처음 헤 갈 때는 들이 허여 가고 말째 부짚 때도 너이 허여사. 천상 너이 허여. 집 하나 허젠 허민 너이나 해야 집 하나어치 헤져.  
108028 @ 음.  
108028 #2 겐 두 시, 혼 세 시, 네 시꺼장. 집 시작해야. 우리도 전이 헤 보민.  
108028 @ 게민 그것도 놓 빌어사큰게.  
108028 #2 놓 빌영.  
108028 @ 놓 빌영.  
108028 #2 놓 빌영도 허고 수눌영도 허고.  
108028 @ 수눌영도 허고예.  
108028 #2 옛날에. 놓 빌영 그거 허저 저거 허저 옛날엔 스몫. 침 이젠 맨날 놀레 뎅겨도. 침 부지런헛주, 겨울에 거 콩 숲저 하간 거 허저, 멘네 블르저 얼마나 바빠 옛날에사.  
108028 @ 아.  
108028 #2 놀레 갈 저르가 엇어.  
108028 @ 예. 게민 그 집줄도 진 줄이 잇고 짝른 줄 잇지 안 헤.  
108028 #2 으, 진 줄은 이거 지봉 지레기가 진 줄. 이 ㄱ루 허는 건 짝른 줄.  
108028 @ 음.  
108028 #2 ㄱ루 허는 거 짝른 줄.  
108028 @ 것도 어뎡 대충 다 맞게 장만을 헉니까?  
108028 #2 처음에 노끈으로 맞춰 뵙 줄을 놔 감주게.  
108028 @ 아, 맞춰 뵙 대강?  
108028 #2 게난 마당에, 주로 마당에서. 마당이 보통 질어. 겐 마당 질지 안 헉 사람은 어디 저 질레 거튼 디, 골목에. 옛날 차도 하지 안 허고 허난게 질레 강도 놓고. 주로 마당에서 놓민 딱 맞아.  
108028 @ 음. 대략 맞춰, 집줄 이 정도민 뵙켜 허민.  
108028 #2 음. 게난 진 줄로 맞춰 그 지레기로 허영 고쟁이 꼽앙 이제 영 처음 혼 번씩 영 웨가달 헉 걸 다 꼽아 놔. 거 호렝이에 거를 낭께기에 꼽아 놓고 꼽아 놓고 허영 이제 또 두 개 부짚 때도 이제 그거. 게난 저쪽에서 들이가 허고 혼 사람 일로 영헤 가고 혼 사람 뒤에서 호렝이 치고 경헤야주게.  
108028 @ 음, 호렝이 치고예. 그 집줄 놓은 거 지봉 무끝 때 초가집 앞에 묶는 데가 있잖아예?

108028 #2 무슨?

108030 @ 지붕 아래, 지붕 아래. 집줄을 어디에 무릅니까?

108030 #2 그디 서리에게, 집 서리에.

108030 @ 집 서리?

108030 #2 아니고 그 줄 메는 디가 바우에 쪽.

108030 @ 바우에 쪽 허게예?

108030 #2 으, 대를 허영 놔 뒤. 저 ㄱ는 낭 허영 쪽 그거.

108030 @ 으, ㄱ는 낭 허여 대나무 허여.

108030 #2 아니 저 낭, 낭으로 쪽.

108030 @ 게민 그거를 뭐렌 부르는 것과?

108030 #2 집 서리 아래.

108030 @ 거 거왕이렌 불리?

108030 #2 거왕, 거왕.

108030 @ 멩두렌 불리 거왕이렌 불리.

108030 #2 거왕, 거왕.

108030 @ 거왕예. 아, 거왕 허는 낭은 따로 엇고.

108030 #2 으, 소낭.

108030 @ 소낭.

108030 #2 으, 게난 그거 멩 년에 흔 번씩 삭으민 새로 곁고 헨게.

108030 @ 음.

108030 #2 게난 그레 다 헤사주. 겨난 이 서리에 그거 또 이걸 헤야 텔 거 아  
니.

108030 @ 예.

108030 #2 서리레 쪽 바우 돌아가멍.

108030 @ 예, 거왕 헤 가지고 쪽 돌리멍 허는 거라예?

108030 #2 게난 거 흔 삼, 사년에 흔 번씩 거 혈민 또 삭으민 새로 허곡 헛주  
게. 것이 흐뵈 ㄱ노롱 허난.

108032 @ 예. 집줄 쓰당 남으민 뭐 헉니까?

108032 #2 방석게, 줄방석.

108032 @ 하하.

108032 #2 그거 헤사 정지 깰양 앓앗주게.

108032 @ 예. 정지에 깰양 앓는 거. 줄방석예.

108032 #2 줄방석 깰양 앓당 글후엔 또 낭 방석 멘들양 앓아. 낭방석. 낭방석은  
어쩐 집이나 허고 거의 다 그 줄 메난 걸로 헿 동글락허게 줄방석. 줄방석 헿 앓앗  
주기게.

108032 @ 예.

108032 #2 정지에서 줄방석 헿 다 밥 먹으난게.

108032 @ 정지에서 줄방석 행.

108032 #2 줄방석 행 밥 먹었주. 옛날에 상 흐뎀 중간 뉘가사 상도 낡 밥 먹었주. 아래 먹었주.

108032 @ 아래 먹은 거라.

108032 #2 으, 아래 줄방석 깔앙 아래 먹었주. 그냥 아래 낡.

연장

108033 @ 예. 집 짓을 때 연장은 뭐 썼수과?

108033 #2 그 주로 대패덜 쓰곡게. 짓사 남자덜 쓰는 거난 잘. 자귀.

108033 @ 자귀, 대패.

108033 #2 으, 끝.

108033 @ 끝.

108033 #2 끝게.

108033 @ 낡 자르젠 허민?

108034 #2 자르는 건 톱게.

108034 @ 톱.

108034 #2 톱.

108034 @ 톱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

108034 #2 둘이가 허는 건, 옛날은 둘이가 다 찢주게. 큰톱허영 둘이 잡아텅겨. 그디서 잡아텅기민 이디서 잡아텅기고.

108034 @ 예.

108034 #2 큰톱 잇고 그냥 톱 잇고.

108034 @ 계민 둘이 잡앙 영 텅기는 톱 일름이 딱로 엇어?

108034 #2 여사, 여사 허명 막 소리허명 불러낯주게.

108034 @ 그 톱 이름, 불르는 명칭?

108034 #2 몰라 건.

108034 @ 몰라. 그냥 영 영 영 영 소리허명예?

108034 #2 으. 머치민 소리가 나왔주게. 머치민. 힘들민 그게 소리가 나와사 뉘 거 아니.

108034 @ 예, 힘들민.

108034 #2 으.

108034 @ 예.

108034 #2 걸름도 볼름 때 밧도 볼름 때 힘들민 다 소리가 나오는 거라.

108035 @ 예. 톱은 낡 자를 때 쓰고 대패는 뭐 헐 때 쓰는 것과?

108035 #2 건 깎을 때 민드글락 허게 깎을 때게.

108035 @ 깎을 때. 못 뽑이는 뭐과?

108036 #2 건 못 뽑는 거게. 못빼기, 못빼기.

108036 @ 못빼기?  
108036 #2 못빼기.  
108036 @ 못빼기렌 불러난 거.  
108038 #2 못빼기, 먹통. 먹통은게, 이제 먹물 놔근에게 실 헤영 영영 감양 굳짜 허게 허는 것ㄴ라 먹통, 먹통이엔 헛구나.  
108038 @ 집 지을 때?  
108038 #2 으, 먹통해사 줄 딱 맞춰서. 이젠 줄자로 작 작 허는디 옛날엔 먹통으로 헛주게.  
108038 @ 계민 먹통도 잇고 먹줄도 잇어났수과?  
108038 #2 잇주게. 그 먹통에 줄이 잇어.  
108038 @ 예.  
108038 #2 실.  
108038 @ 실이 잇어?  
108038 #2 으. 계난 그 실 죽 잡아댕겨 굳짜허게 헐 거 아니. 영 통강통강 잡아댕기는디 먹물이 짝 굿어지믄. 또 영 영 허믄 감아지고 허주.  
108038 @ 감아지고예.  
108038 #2 그디 먹물 놓민 그 실에 문영 탁 뒤난 짝 그 선을 허여사 맞추앙.  
108036 @ 계민 아까 대패에도 종류가 잇어났수과?  
108036 #2 으게. 그냥 홈 파는 대패 잇고 넙작헌 대패 잇고.  
108036 @ 넙작헌 대패 잇고. 두 개예.  
108036 #2 으.  
108035 @ 못빼기도 못 박는 부분도 잇고.  
108035 #2 으게.  
108035 @ 못 박는 부분도 잇고예. 그거 불르는 일름은 따로 엇고?  
108035 #2 으, 못빼기만 허주.  
108035 @ 못빼기만 허고. 거린장이란 말도 들어봤수과?  
108035 #2 장 거린 거?  
108035 @ 거린장.  
108035 #2 장 거리민 거린장게.  
108035 @ 아니 아니. 못빼기를 거린장이렌?  
108035 #2 아니.  
108035 @ 그건 안 헤난. 그냥 못빼기렌만.  
108035 #2 으.  
108037 @ 자는 엇어났수과, 자?  
108037 #2 으?  
108037 @ 자, 잣대?  
108037 #2 잣대게 옷 허는 잣대 말고?

108037 @ 집 짓을 때도.  
 108037 #2 집 짓을 땀 그 먹물로 자 헛게. 또 영 오그라진 대, 잣대가 있어서.  
 108037 @ 예. 오그라진. 영 굽은 거예?  
 108037 #2 으. 그거나베긴. 이젠 줄자 이신디 그땀 오그라진 자.  
 108037 @ 음. 케민 이 오그라진 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엇엇수과?  
 108037 #2 몰라 그냥 오그라진 자땀 자때, 자때만 헤나난.  
 108039 @ 자때, 자때만 헤나고. 예. 그 다음 흑손 아까 췌손?  
 108039 #2 췌손, 낭손.  
 108039 @ 예. 낭손 쓰단 췌손 나중에 썼던 거고.  
 108039 #2 으.  
 108039 @ 이거도 잇어낫잖아예. 췌손 쓸 때.  
 108039 #2 건 낭, 낭 판데기 허영게.  
 108039 @ 불르는 이름을 엇어낫서?  
 108039 #2 판데기.  
 108039 @ 낭판데기렌.  
 108039 #2 으, 낭 판데기.

## 9. 신앙

109001 @ 이 동네는 당달이 별로 엇수과?  
 109001 #2 할망당 잇어.  
 109001 @ 할망당 잇어?  
 109001 #2 잇어나서. 거머들 알.  
 109001 @ 뭐, 뭐? 검어들락?  
 109001 #2 요, 요디 거머들 알이엔 허명 할망당 잇어난.  
 109001 @ 으.  
 109001 #2 용당도 골세왓이엔 현 디 할망당 잇고. 겐디 이젠 안 허여.  
 109001 @ 이젠 안 허여.  
 109001 #2 저 고산은 이제 집 짓언 험선게.  
 109001 @ 예. 우리 집에도 신이 잇덴 허잖아예.  
 109001 #2 이렌 잘 안 현 디 베염 모시는 던 거의 다 안방에 모셔낫주게. 경허고 이제 뵈고 토신제엔 허명 이제 정월 나민 토신제 허고 헤나서.  
 109001 @ 정월 낭 제 지내는 거 그거 안택이렌 험니까?  
 109001 #2 계난 그거 저 산제엔 허명. 건 아무 집이나 안 허고 어떤 집이덜 헤낫주게.  
 109001 @ 예.

109001 #2 토신제 지냄저 산제 지냄저. 정월 나민 날 받아근에 스몓 몸도 깨껏 허게 허고 헤난.

109001 @ 아.

109001 #2 케난 그거 이제 거트민 베염 모시는 거라.

109001 @ 아, 아니 안방에 모시는 게 베염 모시는 거 아니?

109001 #2 케난 그거 그 우리 우리 안 헌디 우리 이모네가 자구네에 살명 모션. 케난 우리 어무니 신 때 아이고 저거 무신 도체비 모셔근에 스몓 용왕 모셔근에 잘 안 허민 망허여, 망허여 헌 디 이모네 막 잘 살아나서 옛날.

109001 @ 음.

109001 #2 그때 우리 초가집 혈 때 양철집 허고 살아난디 경허영 첨 잘 안 허여산디 메누리에 왕 삭 망허여 먹언. 우리 어무니가 시상에 우리 이모라 아이고 구신 잘 못 모시든 이제 망허여, 망허여. 우리 이모신디 막 헤나서.

109001 @ 음.

109001 #2 경헨게 첨 탁 잘 살단 망허연게.

109001 @ 음.

109001 #2 우리 이모네, 이모네 이모 동서네 막 옛날 잘 살양 다 망허영. 안방 모셔난 사람. 우린 거 몰른디 우린 안 허난 우리 어무니넨 안 허난. 우리 어무닌 막 이모신디 너네 토신, 거 저 안방에 신 잘 못 모시민 망허여. 말제 잘 안 허민 망허여 헤난게 첨 망허연. 아닌게 아니라.

109001 @ 음.

109001 #2 겐나 그 모시는 건 우린 몰라게.

109001 @ 아, 모릅니까?

109001 #2 이모넨 경 모셔 경 어머니 오민 이모신디 막 허여근에 토신 잘 아이 모시민 말제 망헌다, 망헌다 헨게 아닌게 아니라, 메누리덜 헤여 온 후제 싹 망허여, 우리 이모네가.

109003 @ 저기 식게 혈 때 문전 험니까? 삼춘네?

109003 #2 으, 문전 허여 우리. 문전.

109003 @ 제사 혈 때 무사 문전을 허는 것과?

109003 #2 문전 앞이게 이거, 이거 오닐 제사 지냄구나 행 경.

109003 @ 예.

109003 #2 케난 문전이 먼저.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올려뵈 제사상 올리주게.

109003 @ 음.

109003 #2 겐 또 문전상 내리왕 또 제사 허고.

109003 @ 문전상 내려뵈 제사허고예?

109003 #2 으, 멩질 때도 경허여.

109003 @ 케난 문전 안 허는 디도 잇는 거 아니?

109003 #2 거 이 성당 허는 사름은 안 허여.

109003 @ 제사는 해도 식계는 해도.  
109003 #2 으, 안 하여. 거의 다 안 하여.  
109003 @ 계난 아멘해도 문전이 여기 집 신안테 영 올리는 거잖아예?  
109003 #2 으, 으.  
109004 @ 조왕은 뭐과 조왕은?  
109004 #2 조왕은 정지에게. 조왕제.  
109004 @ 아, 조왕제는 정제에.  
109004 #2 계난 곳 혈 때 조왕제 올리고 다 문전제 올리고 경hem주.  
109004 @ 계민 삼춘넌 조왕제 hem수과?  
109004 #2 안 하여.  
109003 @ 문전제만 허는 거?  
109003 #2 문전제만. 아 조왕제는 곳 혈 때는 조왕 올려.  
109003 @ 식계 혈 때 식계 혈 때?  
109003 #2 식계 혈 때 안 헤.  
109003 @ 식계 때는 안 허고.  
109003 #2 법당에는 그런 조왕단 잇고 침 그런 산신당 그런 당. 저 법당에는 조왕단이 잇어.  
109003 @ 음.  
109003 #2 식계 때는 막 하영 헤사 문전제 허고 제사상 올리고 절반 이제 문전제덜 안 hem실 거라. 우리, 우리 집안에 다 하여. 문전제. 계난 문전제 상부터 올려. 저 제사상 말앙.  
109003 @ 우리는데 저 고평제를 지내낫거든마씨.  
109003 #2 계난 그 고평제가 옛날은 뭐 신 모섬젠 허멍 우리 이모네도 헤낫주게. 우린 안 헤난.  
109005 @ 계난 그 고평제가 칠성제가 돼는 거라?  
109005 #2 으, 칠성제.  
109005 @ 우리는 부엌신안테, 정지신안테 주는 거렌 어무니가 고평에 제를 험디다. 부엌에서 안 허고, 정지에서 안 허고.  
109005 #2 저 동촌도 다 경하여.  
109005 @ 예, 동촌. 우리가 동쪽이거든예.  
109005 #2 으, 나도 물론디 김녕 우리 아는 할망이 막 친헌 할망이 잇어.  
109005 @ 예, 예.  
109005 #2 계난 그 고평제 허고 또 베꼈디도 느람쥐 썩워낱 쓸 때번 데겸 ㄱ렌 허곡게. 우리 결혼헌 후에도. 쓸 거렁 아침 저녁 밥 혈 때마다 그레 멧 방울 거려던진덴.  
109005 @ 예.  
109005 #2 경험게.

109005 @ 계남 여기는 안방에서 제 지내는 건 칠성제 모시는 거고.  
 109005 #2 칠성제.  
 109005 @ 조왕제는 그냥 정지에서 허는 거구나예.  
 109005 #2 으.  
 109002 @ 성주가 뭐과? 성주?  
 109002 #2 성준 집 짓엉 성주게.  
 109002 @ 집 짓엉 성주.  
 109002 #2 으, 집 짓엉. 저 성주 헤나난 히여뜩 히여뜩. 저거 성주풀이 탁탁 부친 거. 저 히여뜩히여뜩 헨 거.  
 109002 @ 아, 저 하양헨 거.  
 109002 #2 으, 성주 헨 때 부친 거.  
 109002 @ 계민 집 짓을 때 보면 아까 산양, 상양식?  
 109002 #2 으, 상양 허고 집 짓기 전인 토신제 허고.  
 109002 @ 계민 집 짓기 전이 토신제 허고 상양 올리멍 상양제 허고.  
 109002 #2 집은 다 짓엉 이제 이사허영 살 땐 이제, 이젠 저 뺏고 성주허영. 성주 안 허민 이제 제사 먹으레 못 온덴.  
 109002 @ 아. 아니 성주는 집 거즘 뵈 땐 허는 게 아니고.  
 109002 #2 다 짓엉, 다 짓엉 이사 왕.  
 109002 @ 이사 왕.  
 109002 #2 계남 성주 안 헨 집이 제사 허든 그 귀신이 생각을 못 헨덴.  
 109002 @ 아.  
 109002 #2 경허여. 견디 이젠 젊은 사름덜 경 험서게. 젊은 사름덜 경 안 허여.  
 109002 @ 아. 계남 성주를 다 헤사 뵈 헨 거구나.  
 109002 #2 성주 헤사 그 제사를 허든 곳을 헤도 덕이 잇고 제사도 성주 안 헨 주민 구신이 못 먹어 간덴 헤낫주.  
 109002 @ 계남 이 동네도 옛날은 당에 다니고.  
 109002 #2 우리 어렸을 땐 다 다녔주 이 동네도. 견디 이젠, 이젠 안 다녀. 당에 다니는 사름 엇어.  
 109001 @ 예, 삼춘은 어떻 헤낫수과? 당에 다녀낫수과?  
 109001 #2 아니, 난 어릴 때 그자 헨 열다섯 미만에 어무니영 따랑 다녀난 건 알아져. 나만 안 다녀 보고.  
 109001 @ 아, 삼춘만은 안 다녀 보고.  
 109001 #2 으.  
 109001 @ 계민 당에 가젠 허민, 지난 번에 물어 봐나신디 뭐 가정 가난.  
 109001 #2 꿩기 굵고 꿩기 낱 국 끌리고. 옛날 쪼그만헨 볼락 새끼 하나 낱 국 끌리고 밥 허영 엇고.  
 109001 @ 예.

109001 #2 경허영 허고 종이 멧 장 엇고. 이제 입어난 옷 어정 강 이제 녀 나민 녀 들이고. 종이 멧 장 산 간 건 몰라.

109001 @ 지전, 지전.

109001 #2 으, 지전 앓고 돈도 얼마 앓고.

109001 @ 으.

109001 #2 경헨 심방아피 그거 주고. 경허고 헤나서. 경헨 기억, 혼 열서너 살썰 텅겨나져신가. 혼 두서너 번 가와난 기억은 잇어.

109001 @ 계난 돌레떡 안 행 갓구나.

109001 #2 돌레떡 안 행 가.

109001 @ 대신 밥, 국.

109001 #2 으.

109001 @ 으.

109001 #2 돌레떡은 안 행 가.

109001 @ 여기 동네에 곳 허고 경허는 사름이 잇어낫수과?

109001 #2 이 동네 잘 엇고 두모 잇고 용당 잇어나고.

109001 @ 원래 그 심방이, 곳 허는 심방이 잇어나고.

109001 #2 으, 신창은 엇어난.

109001 @ 신창은 엇어나고.

109001 #2 저 두모 변 심방 잇어나고. 이제 용당은 심방덜 장춘이영 누게영 잇 어난디 다 죽어불고. 이제 고산은 잇어.

109001 @ 고산은 잇고.

109001 #2 고산은 혼 두어 사름 잇어.

109001 @ 계난 여기는 옛날부터 막 저기 성당덜 일찍 생기난.

109001 #2 경해도 곳 허는 사름 잇어.

109001 @ 곳 허는 사름이 잇어난. 어떤 때 곳 헤신고예?

109001 #2 아광도 곳 허고 이 성주에도 곳 헤야 뵈고.

109001 @ 삼춘은 곳 헤 봤수과?

109001 #2 멧 번 허연 나도.

109001 @ 언제 헤난?

109001 #2 셋아덜 아판, 셋아덜이 이제 오십셋이주게. 그때 열아홉 설 때 막 아 팡. 경허난 어디 강 들으난 교통사고 난 축산이엔 허여. 월령 강 들으난. 겐 이제 가이가 교통사고, 차 곧 사 왕 교통사고 내 와서. 계난 그 사름이 강씨라 그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겐 그 사람 빌어진 현디 막 점점 아이가 다 죽어가.

109001 @ 음.

109001 #2 겐 한국병원에 이제 그뻐ن 자가용이 별로 셔게. 겐 우리 스춘네 화물 차로 시경 강 입원허난 점점 더 죽어가고 주사 이디 검사 허젠 물 빼젠 허난 생전 주사기가 안 들어가. 막 오그라져 불고. 막 똥도 싸고 열아홉이난 흐끔 체면을 흘려

야 혈 처렌디 옷 맨딱 벗어 불고 막 두린 사름 웨연. 겐 이제 멧 밧디 강 점을 헤서. 겐디 그 교통사고 난 저 축산일 멧 밧디 곶아. 게난 그때 야이 차에 친 사름은 남잔디 이제 여축산이난 아이 뜨나구나 현디 저 시에 터미널 엠에 박보살이엔 현딘 가난 금숙이가 누구여, 금숙이 상에 빌어주라 허는데. 금숙인 우리 윽이 아이 옥순이 성님 딸이라.

109001 @ 음.

109001 #2 교통사고 난. 금숙이 당에 빌어주라 허는데 이제 그 금숙이 상에 이제, 웨원 허영 동문시장 강 옷 사고 옷 혼 별 낭 비난 혼 일주일 밥 안 먹단 딱 굿안 현 땀 집이 들안 와도 밥 먹어. 겐 이제 그 굿 허난 흐뎡 나시른 현디 혼 쪽이 절어붙어서. 발도 절고 손도 절고 툭툭. 이젠 완전 동냥바치가 웨연. 혼 쪽이 싹 쓸런게.

109001 @ 음.

109001 #2 일년내낭 뭐 침 맞으디 들양 땡기고 하간 디 다. 경허여도 이젠 안 웨영 또 어디 강 들으난, 혼 착은 풀린디 혼 착이 안 풀렷젠.

109001 @ 음.

109001 #2 겐 또 굿헤야 웨덴 허여. 또 이제 그때 굿 허젠 허난 또 그때 박 보살안티 가난 그때 삼백만 원 도렌. 그때 삼백만 원이민 막 커게.

109001 @ 큰 돈이주, 밧 사주.

109001 #2 또 우리 친족빨 웨는 사름이 굿 허는 사름이 잇이난 그디 강 들으난 아이고 조케 걱정 말아. 육십만 원만 쥐 헐. 겐 육십만 원 쥘 굿 허난 이제 살아난. 결혼헐 잘 살아.

109001 @ 멀쩡헤마씨?

109001 #2 멀쩡허여 이제. 게고 이제 또 우리 손지 하나가 한림 이제 베이징, 베이징 학원, 중국어 학원 한림 잇어. 그거 우리 아덜네라게. 메누리라.

109001 @ 음.

109001 #2 저 중국어 학원 허는데 그디 손지 하나가 이제 스무 설철인가 열아홉 설철인가 몰라 가이가 오꼳 장애자 웨연. 가이가 나난 막, 산부인과에서 나난 이상허여 아이가. 경헐 이제 막 허단, 아멩헤도 이상허다 헐 오당 병원에 들렷 오젠 허난 노동질이엔 허멍 이제 병원에 안 받아쥘게. 응급으로 헤시민 어떻헐 건디.

109001 @ 으.

109001 #2 이제 집이 왕 또 혼 사흘 셴 머리 문 곱져도 아멩헤도 울지도 안 허고 그 영 먹지도 안 허고 이상허다. 겐 사흘 시난 오렌 헐 가난 아무 충도 안 허여. 아이고 아멩헤도 안 웨켄 저 한라의료원에 가난 아이 막 탈수 웨고 뭐 헛젠 허난 한라의료원 혼 일주일 시난 아이고 아멩헤도 안웨크메 이젠 서울 가렌 허난 삼성의료원 가서게. 경허난 아덜허고 나허고, 메누리 학원 막 바쁘고 허난 나가 들양 갖주게. 간 혼 스무날 중환자실에 난 놔두난 막 보호자만 보내렌 허연. 이제 또 아멩헤도 보호자만 보내렌 험저 헐 아덜네 학원, 아덜도 그땐 학원 허고 메누리도 학원

행 막 바빴주게.

109001 @ 으.

109001 #2 계난 허난 메누리가 강 흔 열흘 사난 이젠 저 육개월 잇이민 죽는, 빼가 녹는 병이난 들양 가렌 험수다 허연. 아이고 이젠 아멩해도 생각허난 어디 강 들어보카 허연 그 박 보살신디 또 가서. 아 이제 백오십만 원만 주민 이제 살리켄 허는 거라. 계난 성주를 안 해서 집 짓영. 성주를 안 허난 성주 백오십만 원 쥬 헛지, 백오십만 원 쥬 곳 헛지.

109001 @ 이 집 짓영 성주를 안 헛 거?

109001 #2 아니 저 아덜네가.

109001 @ 아덜네가.

109001 #2 경험 성주혜연 또 이제 그 아기상 빌어쥬 허난 삼백만 원 들영 곳 두 번 해서. 다시랑 곳 허지 말양 침 맞치렌 헛디 이제 저 열아홉이라게. 그 삼성의 료원에선 빼가 녹는 병이난 죽넨 헛디 박보살은 자기네 자신 허고 백오십만 원 주민 살리켄 허난 아 이제 그 말 들으난 곳. 침 계난 곳 허지 말아붙어시믄 저 장애 자 안 허민, 이제 메누리 어디 가젠 허믄 가이 따문에 못 헛 때가 이서.

109001 @ 음.

109001 #2 겐 이제 걸어텅건. 막 돌아텅건.

109001 @ 그 병 다 낫은 거?

109001 #2 아니 거 장애자 쥬게.

109001 @ 아, 장애는 가져신디 게도 몸 활동허는딘 이상 엇인 거?

109001 #2 걸어텅기고, 아니 계난 장애자로 이제 그냥.

109001 @ 아.

109001 #2 걸어텅기고 엄마, 아빠, 밥, 배 고파. 돈이엔도 잘 못 곤고 헤도. 겐디 막 너무 똥똥허연 운동을 안 헤 노난.

109001 @ 아, 운동을 안 헤 노난.

109001 #2 그땐 빼가 엇언 그냥 멜랑멜랑. 계난 삼성의료원서 빼가 다 녹는 병 이난 죽넨 허고 한 육 개월동안 우유도 못 빨아. 계난 툭 툭 툭 툭 두드리민 그 우 유 털어지민 먹고 허연.

109001 @ 계난 경 헛 건 어렸을 때구나?

109001 #2 곧 난 때게.

109001 @ 곧 난 때.

109001 #2 경헛디 그 삼성의료원에선 곧 죽넨 허고 빼 녹는 병이난 그 박보살 은 자기 돈 백오십만 원 주민 살려쥬켄. 겐 살안 이제 텅기는 거라.

109001 @ 아이고 마음 고생 막 하영 헛수다게 삼춘.

109001 #2 그 셋아덜 곳 두 번 허영 경 살리고 그 손지도.

109001 @ 예.

109001 #2 계난 어떤 땐 아이고 곳 안 해서믄 야이 엇잇이믄 헛디. 영강 중앙

허난 아이고 뜬 아덜덜보단 대홍이, 이름이 대홍이라. 대홍이 사랑헌텐 허멍 막 엉강은 좋아. 우리신디도 오믄 영 다 안양 뽀뽀 해 두고 가게.

109001 @ 아.

109001 #2 겐 장애인 뉘연. 굿 멧 번 허연 멧 번.

109001 @ 멧 번 헛구나. 경해도 셋아덜은 그때 교통 사고 낫을 때 씌운 거 뉘가예? 셋아덜 아까?

109001 #2 셋아덜. 셋아덜은 죽은 아이가 교통 사고로 죽은 아이게.

109001 @ 예.

109001 #2 경허난 그 아이 들련.

109001 @ 들린 거예?

109001 #2 들련. 경허영 굿 혼 번 허난 살아난디 혼 착이 짝 쓸련.

109001 @ 으.

109001 #2 경허난 저디 뉘 험디 서귀포 무신, 무신 철학관이여 화북 뉘 고찌는 디여 스몛 하귀여 멧 밧디 뉘겨 보고 다 헤도, 침도 맞고 헤도 안 뉘여. 항상 톨락 톨락 허고 기억력도 엇어.

109001 @ 예.

109001 #2 경헨 또 어디 강 들으난 혼 착은 풀린디 혼 착은 안 풀렘젠 허연 또 굿 허연 이젠 편짱허여. 결혼허연 잘 살아.

109001 @ 아이고.

109001 #2 열아홉에 경허연.

109001 @ 경헌 일도 잇수다예?

109001 #2 으, 게난 침 미신도 엇텐도 못 허고.

109001 @ 못 허고예. 못 허큰게 경해나민.

109001 #2 싯젠도 못 허고 허여.

109001 @ 예. 금숙이안티 빌렌 현 게 그 금숙이가?

109001 #2 금숙이엔 현 아이가 교통사고 난 죽언게.

109001 @ 아.

109001 #2 게난 혼 밧디 금숙이 상에 빌어주라 딱 금숙이 이름까지 곱안게. 겐 디 그 금숙이엔 현 아이가 멧 아이 고생을 시켄. 저 양자 아덜도 경허여.

109001 @ 예.

109001 #2 신우 딸도 들련 스몛 얼떡언.

109001 @ 게민 이 동네 사름덜을 경?

109001 #2 으, 용당이주게 용당. 용당인디 멧 사름을 못 살게 곱어 경. 경헨 범당에 혼 앓지고 허난 글후젠 일 엇어. 그때 험 때 멧 사름 고생헨 가이 따문. 우리 집이 아덜도 경허고 침 혼 이 년 동안 고생허연. 혼 뉘 생각을 아니 난. 친구 전화도 누게 전화 멧 번 멧 번. 느네 친구 나가 어떻 아느니? 뉘헤도 윈 기억이 안 나.

109001 @ 으.

109001 #2 계난 털럭털럭 그자 벙신 웨연 영 혼 착 다리도 털럭 손도 털럭 허난 완전히 이견 반병신이라. 겐 두 번 굿 허난 살아난. 겐 잘 살아.

109001 @ 아이고 소망했수다. 진짜 구신 엇텐 못 허큰게.

109001 #2 계난 굿 멧 번 현 줄 아나.

109001 @ 굿 멧 번 현 거라.

## 10. 세시풍속

### 1월

110001 @ 오늘은 세시풍속이우다. 정월에는 음력으로예, 정월달에는 정월멧질이 잇엇잖아예?

110001 #2 으.

110001 @ 정월 멧질에 해난 거. 사월달에는 사월 초과일이 잇잖아예?

110001 #2 으.

110001 @ 그때 뭐 하는가 허는 거우다. 하나씩 물어보쿠다.

110001 #2 여긴 동촌 닙지 안 허영 초과일날 뭐 안 허여.

110001 @ 뭐 허진 안 허여. 우선은 정월달부터 물어보쿠다. 정월달에 멧질이 뭐과?

110001 #2 정월 멧질게 조상덜 허영 멧질 헤사할 거 아니게.

110001 @ 예, 겐 뭐 준비헤?

110001 #2 옛날이사 기자 묵베긴 더 헤서게 묵허고 떡허고.

110001 @ 음.

110001 #2 젓갈도 돼지고기 하나만.

110001 @ 젓갈 돼지고기 하나만.

110001 #2 으. 사과도 어떻허당 사과 하나. 이제그치 뭐 멧 종 멧 종 안 허여.

110001 @ 음. 게민 정월 멧질은 제를 지낼 거를 전날 준비허는 거?

110001 #2 으, 전날 헤야주.

110001 @ 정월 멧질 때민 제 지내고 요즘은 떡국도?

110001 #2 이젠 떡국 허고 옛날은 떡국 안 허고.

110001 @ 예.

110001 #2 육지는 허는디 이딘 안 허여. 이제도 안 허여 그냥 먹젠 허주.

110001 @ 아.

110001 #2 육진 떡국으로만 멧질 허여.

110001 @ 떡국으로만예.

110001 #2 으, 우리 육지 강 보난. 여기는 국 허고 밥 그자 떡 허고.

110001 @ 떡은 어떤 떡?

110001 #2 침떡 저 잘 흐뎡 뉼 허믄 그 제펜 올리고 경 안 허민 반제펜. 줍썰 반 곤썰 반 혜영 반 제펜 허고 ㅁ뎡 정월엔 ㅁ뎡로 세미떡 허고 곤떡은 이제 쏘로 허영 곤떡 허고.

110001 @ 예.

110001 #2 게난 곤떡은 동글랑 곤떡.

110001 @ 예.

110001 #2 세미떡은 쉬 담아근에 ㅁ뎡ㄱ루 혜근에 거의 정월은 ㅁ뎡떡 혜여. 경헨 인절미도 ㅁ뎡 인절미 허고 세미도 ㅁ뎡 인절미. 곤떡만, 이제 우이 더끄는 건 동글랑 곤떡.

110001 @ 음.

110001 #2 손으로 멘들아.

110001 @ 경헨 떡 허고 적은 돼지고기 적예?

110001 #2 응, 돼지고기 적 그자 이제 끝지 안 허영 그자 전이 돼지고기. 이제는 소고기 적 혜도 옛날은 어떻 허당 추렴허믄 허는디 안 허민 돼지고기.

110001 @ 저기 바당케기는?

110001 #2 바당케긴 생선이든 불락이든 구웁 올려사.

110001 @ 구웁 올려사.

110001 #2 솟강 아래서 쾡 올렛주게.

110001 @ 게민 우리 정월멩질날에는 어른덜안티 세배도?

110001 #2 세배혜야주게.

110001 @ 체를 먼저 지넵니까, 세배를?

110001 #2 아니 세배를 말쑤 혜주게. 제 지내야.

110001 @ 다 지내영. 옛날에 우리 제주돈, 지금이야 다 이녀만씩 집이서 혜 떡 주만은.

110001 #2 옛날은 다 과세 다니고 헛주.

110001 @ 과세 뎡기고 멩질도 ㅁ치 혜 먹어난 거 아니?

110001 #2 게. 이 집안이야 다 ㅁ치 혜 먹주. 경허고 저 이 삼미에 늙은 할망신디 다 과세 뎡기고 또 상 논 디도 과세 뎡기고.

110001 @ 음.

110001 #2 상 논 디도 술 흐 병 혜영 가고 그냥도 가고. 남자덜은 그냥 가고 여자덜은 상 논 디 술 흐 병 행 가.

110001 @ 음.

110001 #2 과세.

110001 @ 과세 가는 거.

110001 #2 이젠 과세 안 가.

110001 @ 경헨 이 동네 정월 멩질 뉼면 막 행사 혜난 거는 엇수과?

110001 #2 엇어, 엇어.

110001 @ 결궁 같은 거?

110002 #2 결궁은 저 뭣고 정월보름날게. 보름날 혜영 결궁처럼 혜영 돈 빌어.

110002 @ 예.

110002 #2 결궁처럼 혜영 흐뭇 잘 사는 집이 강 막 절허고 허민 이제 돈 흐뭇  
 쟁. 게민 그거 해당 뭣 행 먹고게. 정월 보름날게.

110002 @ 정월보름날. 게민 정월보름날은 뭣 허는 날이과? 이날도.

110002 #2 아니 원래 멍질인디 제주도는 안 허여.

110002 @ 제주도 안 허여.

110002 #2 게고 또 정월 멍질 념영 날 반양 옛날은 저 토신제엔 현 거 제 지내  
 는 집이 있어서. 겐디 아무 집이 안 허고 그자 허는 집이. 이제 거트민 베염, 베염  
 아피 그거 모시는 거 토신제, 토신제 허멍 허여난서.

110002 @ 그건.

110002 #2 경허영 거 목욕도 깨끗허게 허고 이 사름도 집이 비린 사름 못 허게  
 허곡. 그릇도 다 씻영 얼영 양에왔다 놔 뒷당 그릇이 깨끗이 씻영 멍심허영 겐 그  
 거 산제 허여. 정월, 정월달 허영 날 반양 무신 날 좋은 날 반양.

110005 @ 그게 안택 아니마씨, 안택?

110005 #2 게난 저 토신제, 토신제 허여.

110005 @ 아, 토신제렌 헤낫수과 그 정월달에. 그 토신제는 무사 허는 거라?

110005 #2 몰라게. 경, 경 토신제 우리 어린 때 허여. 겐 꺾질 메영 놔뒤 사름  
 못 들어오게. 집이.

110005 @ 예, 예.

110005 #2 나쁜 사름 못 들어오게. 게난 꺾질 메지민 아무나 못 들어오주게. 웨  
 슝끼 꼬양 영 무경 놔 두민 그레 부정헌 사름, 멘스 온 사름이나 이제 거트민 비린  
 사름 못 오게 허는 거라.

110005 @ 음.

110005 #2 경헛당 날 반양 허여. 정월멍질 곧 념으민 경허여. 우리 흐뭇 옥을  
 때꺼장 그거 해서.

110005 @ 음.

110005 #2 경허단 이젠 안 허주.

110003 @ 정월달에예. 방사렌 현 거 알아지쿠과 방사?

110003 #2 건 몰르고.

110003 @ 액막이?

110003 #2 액막인게 저 무시거게. 정월 나민 액막이 허주, 굿텐 허민.

110003 @ 굿텐 허민.

110003 #2 으, 액막이 헤.

110003 @ 그거는 누게 빌어당 하는 거?

110003 #2 빌어단 허여.

110003 @ 계민 그게 굿 허는 것과?  
110003 #2 굿 허는 것도 싣고 그냥 이녁냥으로도 영 마리에 낱 문전에 비는 사  
름도 잇주만은 주로 빌어당 허여.  
110003 @ 음. 액막이.  
110003 #2 액막이.  
110004 @ 예. 포제는 안 해낫수과?  
110004 #2 포젠 저 동산에 강 허주기에. 이디 거트민 저 소낭 동산. 성굴왓디도  
짓동산이엔 현 디가 거 포제 동산이라. 이제도 포제 동산이엔 허여.  
110004 @ 아, 그 동산 포제 지내나부난 포제 동산이렌.  
110004 #2 으, 이제도.  
110004 @ 마을에서 포제를 허젠 허민 어떤 준비를 험니까? 쪽 혼 번 곶아줍서.  
110004 #2 떡이고 사과영 다 허영 강.  
110004 @ 당일날?  
110004 #2 아니.  
110004 @ 메칠 험니까?  
110004 #2 아니 당일 허긴 허는디 것도 포제 지내는 사름은 막 깨끗이 허여사.  
110004 @ 예.  
110004 #2 그 부부 간에 뭇도 안 허고 접촉도 안 허고 방 갈랑 늣곡 목욕도 깨  
끗이 허고 이제 그 포제 음식 준비허는 사름도 막 정성들영 비린 거 안 보고 행 포  
제 지내엇주게.  
110004 @ 예.  
110004 #2 경 우리 막 어릴 때 포제덜 헤난.  
110004 @ 음.  
110004 #2 성굴왓디 이제 포젯동산 그 누게 영근이네 거 포젯동산이렌 곶아 이  
제도.  
110004 @ 계민 포제는 이제 개인, 개인이 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허는 거잖  
아예?  
110004 #2 으, 마을에서.  
110004 @ 그럼 마을에서 제를 지내젠 허면 그 제 지내는 제관이렌 험니까?  
110004 #2 제관계.  
110004 @ 그런 사람덜은 어떻 뭐 험니까?  
110004 #2 동네에서 흐끔 깨끗허고 뭐 현 사름으로.  
110004 @ 예.  
110004 #2 경현 사름 허영 헤난. 우리 성굴왓디 살 때 우리 큰시아버지가 헤실  
거라. 우리 아는 건 생각이. 우리 큰시아버지가 포제 지낼 때 헤난 거 닐아.  
110004 @ 포제 지낼 때?  
110004 #2 음.

110004 @ 그럼 그런 사름덜은 며칠 그디 강 지내명?  
 110004 #2 막 그, 아니 집이서 허여도 깨끗하게 허여사.  
 110004 @ 음.  
 110004 #2 그디 강 안 해도. 그딘 영 잣담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 그 육지서거치 웬막이 아니고.  
 110004 @ 예.  
 110004 #2 잣담 다진 디 강 제 지내고 이제도 그 포젯동산 몰라 멜라부어신가. 옛날 우리 성골왓 산 땐 그 포젯동산, 포젯동산 헤난.  
 110005 @ 포제 동산이렌 허고예, 안택이 뭐과, 안택?  
 110005 #2 안택은 뭇인고? 몰라.  
 110005 @ 몰라예? 저기 정월달에 보리밭 볏기를 험니까?  
 110005 #2 옛날은게 뭇고 확 곤젠 허난.  
 110005 @ 음.  
 110005 #2 눈 오민 저 빛이 들러져 노난 불랏주게. 다 불르지 안 현디 눈 하영 올 땐 블라.  
 110005 @ 음. 눈 하영 오민.  
 110005 #2 음 그것이 들러전 빛이.  
 110007 @ 예. 아까 걸궁 한덴 허잖아예?  
 110007 #2 으, 걸궁. 이제 거트민 그 꼬갈덜 쓰고 곳 두드리명 대양 치명 텡경 강 절허명 헤영 강 빌어 왕게.  
 110007 @ 게민 그거는 아까 정월 대보름날 허는 거?  
 110007 #2 으, 경헨 강 돈 빌어와.  
 110007 @ 돈 빌어왕 그 돈으로 뭇 험 거라?  
 110007 #2 이제 거트민 뭇 사 먹는 거. 그때사 벨로 사 먹을 거 시라만은 장난으로 막덜 허고 경허영 놀아.  
 110007 @ 그럼 동네 사름덜이 다?  
 110007 #2 으, 거자 같이 허영, 남자 여자 ㄱ치 허영 스뭇 뭇 현 사름. 우리 어렸을 때 걸궁 허여.  
 110007 @ 게민 걸궁 험 때 집집마다 방문허는 것과?  
 110007 #2 아니 흐뭇 못사는 집인 안 가고 흐뭇 돈 줄 집이.  
 110007 @ 하하하.  
 110007 #2 돈 줄 집이 강 허고. 못사는 디 가민 돈 줘게, 돈 줄 집이. 흐뭇 영 다문 뭇 훈이라도 줄 집. 이제 거트민 뭇, 이제 체육대회 허젠 허민 돈 빌레 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주게. 이제 체육대회 허젠 허민 이런 점빵 같은 디 강 안 빌어 오 멘게.  
 110007 @ 음.  
 110007 #2 그거 식이라. 옛날은 그냥은 드렌 못 헤.

110008 @ 정월달에는 입춘이 잇수다예, 절기상으로 입춘이?  
 110008 #2 으.  
 110008 @ 입춘이 뭐과?  
 110008 #2 입춘은 옛날엔, 이젠 해도 물허벅 정 물 질레도 못 가게 허고 늬의집 이도 못 가게 허곡. 나들이 안 해서. 돈도 일절 안 쓰고 옛날은.  
 110008 @ 음.  
 110008 #2 그날 못 먹으면 안 웬덴 행, 그날은 곤밥 행 먹어. 그날, 그날 잘 먹어야 해. 육허지도 말고 짹지도 말고. 물허벅 진 사람 봐지믄 제수 엇덴 헨 벌러불어나서.  
 110008 @ 아이고 경 허는 것과?  
 110008 #2 으, 물허벅 지민. 겐 일절 물허벅 정 못 땡겨.  
 110008 @ 입춘 때?  
 110008 #2 으, 일도 안 허여 그날은.  
 110008 @ 예, 입춘날은?  
 110008 #2 이젠 뭐 하간 거 땡기고 돈 쓰고 그거 필요가 어신디 우리 어린 땡 꼬닥 돈도 못 쓰게 허고.  
 110008 @ 계민 집에만 잇었던 거?  
 110008 #2 집에만 잇주게. 늬의집이 가민 큰일나.  
 110008 @ 남자는 어떻 안 헛수게.  
 110008 #2 으, 으. 남자도 늬의집 못 가.  
 110008 @ 이 입춘 시기에 농사는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08 #2 엇인디 옛날은 입춘 곳도 다 해서.  
 110008 @ 입춘 곳을?  
 110008 #2 으, 입춘 곳도 허고.  
 110008 @ 입춘 곳은 개인으로 허는 거 아니면?  
 110008 #2 아니, 동네에서.  
 110008 @ 동네에서.  
 110008 #2 으. 입춘 곳도 막, 막 옛날에 입춘 곳을.  
 110008 @ 정월달에 우수란 게 잇수다, 우수. 절기상으로 우수. 이 우수날에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08 #2 안 허여.  
 110008 @ 농사 지을 때 관련 뵈 거?  
 110008 #2 엇어.

**2월**

110009 @ 예, 예. 이제 이월달 넘어가쿠다. 이월달 뵈면 이때 영등달이렌 헛디 다예.

110009 #2 으, 영등 할망 왁젠 허멍 빨래도 안 행 널곡게.  
 110009 @ 기간이 언제부터과? 영등 할망 들어오는 건?  
 110009 #2 저, 거세기 정월 그문날부터 들어온덴 허여. 겐 일주일 동안 해서 옛날에.  
 110009 @ 여기에.  
 110009 #2 으, 일주일 동안 빨래 안 헤영 널언. 빨래를 베껴 강 널어도 이 안에 널민 구데기 인덴 허멍 허고.  
 110009 @ 예.  
 110009 #2 영등 때 밧디 검질도 안 메고.  
 110009 @ 영등 때 검질 안 메고?  
 110009 #2 으, 검질 메민 보릿밭 들러진덴 허멍.  
 110009 @ 아.  
 110009 #2 겐디 이젠 그거 엇어. 미신이주.  
 110009 @ 게민 이 영등은 어디서 들어 왕 어디로 나간덴 험니까?  
 110009 #2 소섬으로 들어온덴 헤나서.  
 110009 @ 예.  
 110009 #2 소섬으로 들어왕 나간덴 허멍.  
 110009 @ 어디로 나가, 나갈 땐?  
 110009 #2 소섬으로 들어왕 어디로 나감젠만 헤낫주게.  
 110009 @ 예, 경헛던 거예.  
 110009 #2 빨래 안 허고 뭐 비료 거튼 것도 안 쥐. 영등 땐.  
 110009 @ 게민 이 마을에서 영등 때썸 뭐 제 지내거나?  
 110009 #2 아니 제 지재진 안 허여. 제 지내는 거 동촌더렌 현 디 이딘 안 지낸 디 영등 때 그건 일절 안 허여. 우리도 우리 옛날 장서허른 마늘 같은 거 그거 장서 허는 거는 뽑아 와도 일절 검질 메레 안 땡겨.  
 110010 @ 예, 이월덜은 경칩이 이서나신디.  
 110010 #2 으.  
 110010 @ 경칩 때는 뭐 농사나 관련웬 그런 거는?  
 110010 #2 으, 그런 거는 엇고 뭐. 경칩에 무신 개구리도 깬덴 허여도 안 허여.  
 110010 @ 뭐 엇고 춘분 때는마씨?  
 110010 #2 뭐 춘분이 넘어야, 넘어야 헐 거 아니게. 농사 짓는 거는.  
 110010 @ 아, 춘분이 넘어사.  
 110010 #2 으, 넘어사 호박도 심고 뿔도 심거서.  
 110010 @ 음.  
 110010 #2 옛날은.

### 3월

110011 @ 음. 계민 삼월달 가쿠다예. 옛날에 삼월달에 한식 멩질 헤낫수과, 삼월달에?

110011 #2 이레, 저 동촌만 허영 이레 안 헤.

110011 @ 한식 멩절 안 헤?

110011 #2 으, 이레 안 헤. 동촌 허고 이디 허고 한참 틀려. 우리가 다녀 보든.

110012 @ 음, 음. 그든 삼월달에 청명날은 뭐 허는 날이과?

110012 #2 청명날은게 거 무시거 헌덴 허멍 막 구신이 다 올라가분덴 안 허여.

110012 @ 예.

110012 #2 구신 올라가분덴 허멍 산에 강 풀도 비고 하간 뭇도 허고 헛주게.

110012 @ 청명날에예?

110012 #2 으. 산에 비석도 세우고 영장도 일렁 묻는 사름은 청명날만 일렁 묻고.

110012 @ 계민 청명날 허는 건 날 안 봐도 웨는 거?

110012 #2 으. 한식과 청명은 날 안 봐근에 다 구신이 올라가부난.

110012 @ 계민 한식 멩질 때도 뭐 헵니까, 경 산소 보고 헵니까?

110012 #2 아니. 이렌 안 허여, 안 허여.

110012 @ 으, 청명날 산소 보고 허는 거구나.

110012 #2 이제도 그때는 소행이 풀 거튼 거 산에 강 검질 캐는 사름은 허여.

110012 @ 음. 곡우 때는 뭐 허는 것과?

110012 #2 것도 몰르고.

#### 4월

110013 @ 곡우 몰르고예. 계민 사월달 감수다예. 사월초과일은 뭐 헤낫수과, 뭐 허는 날이과?

110013 #2 건 절에 다니는 사름 웨엔 뭐가 안 허고. 절에 다니는 사름은 그자 초과일 날은게 기자 부처님 탄생헌 날이엔 뭐 허는 디. 절에 안 다니는 사름은 그게 뭐.

110013 @ 삼춘 절에 다넘수게.

110013 #2 으, 계난 초과일 날은 절에 첨 부처님 뭐 헌 날이난 멩심헨 다니는디 절에 안 다니는 사름은 거 아무날도 아닌 거엔 생각헐 거라. 몰라도.

110013 @ 삼춘은 이날은 꼭 절에?

110013 #2 꼭 가.

110013 @ 강 뭐 올리고 그런 거 이서?

110013 #2 불전이사 그날 아니여도 올려야 당연히.

110013 @ 으.

110013 #2 당연히 올리고 그날 등 들고게.

110013 @ 으, 등 들고 예, 예.

110013 #2 등 식구마다 다 이름 썩 허영 이름 쓴 종이 이런 거 현 거 슬아볼주게. 뜯영. 뭐 촛불이 불리든 뭐 허고 무신 눈물 나민 뭐 허고 해도 다 마찬가지로.

110013 @ 예.

110013 #2 이젠 거의 다 연등으로 허고. 연등 허영 다 전기로 싸 부난 그게 엇연.

110013 @ 아, 촛불 켜 때는 불 안 부텅 꺼져볼민 뭐 허난.

110013 #2 아니, 그게 펄득펄득 허민 무신 또 촛불에서 눈물 떨어지민 눈물 날 일 잇저, 또 등이 어땡허민 옛날은 카불민 이제 무신 무신 나쁘다 현디 이젠 거의 연등이엔 현 게 연꽃으로 만들앙 다 전기로 허여 전기로.

110013 @ 예.

110013 #2 전기로 일름 썩 그날만 이제 쫓다 끼왔다 헤노난 그거 엇어. 아니 이제도 그 주름 등에 초로 싸사게. 그건 만 원인가 허여. 그 연등은 삼만 원인가 허고.

110013 @ 왜 초과일날 갓난 애기 잇이민 이날 뭐 험니게?

110013 #2 머리 깎아줘사주게.

110013 @ 머리 깎는 거예. 케민 다른 거는 허는 거 엇고?

110013 #2 엇고. 이젠 머리 안 깎아. 옛날에 다 깎아서 느나 엇어.

110013 @ 으.

110013 #2 으, 여자 남자 엇이 깎아 옛날은.

110013 @ 그날 머리, 무사 초과일날 머리 깎아?

110013 #2 경혜사 좋넨 허명.

110013 @ 좋넨 허명예.

110013 #2 우리 아이덜 날 때도 다 초과일날 머리 깎아서. 이제 죽은 아덜이 마흔 으섯가. 마흔일곱 닳다. 마흔일곱이고 큰아덜은 쉰으섯인디 다 머리 깎아서 그때 그때 생각엔 사십년 전에.

110014 @ 예. 사월덜에 입하가 잇수다예. 절기상으로 입하 때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14 #2 산디 거튼 거나베긴 안 헐 거라. 옛날엔 산디.

110014 @ 산디 가는 시기 이때가?

110014 #2 으, 으. 그때 산디.

110014 @ 산디 갈 때예?

110014 #2 으.

110014 @ 소만은?

110014 #2 그건 몰르고.

## 5월

110015 @ 예. 오월덜 감수다. 단오 멩질 어땡 헤낫수과?

110015 #2 옛날은 단오멧질은 그자 이디 간단허게 행 먹는 사름은 해도 이디 경 팔월, 저 팔월 거친 안 허고게.

110015 @ 음.

110015 #2 그냥 침 밥만 해 먹는 집은 해 먹고 올리는 집이 올리고 경 막 허진 안 허고. 이 서쪽이 확실히 덜 허여.

110015 @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110015 #2 으, 동쪽으로 생각허믄. 육지는 절대 멧질 허여. 우리 육지 텅길 때. 육지는 단오멧질 막 크게 चल런 행게.

110015 @ 배랑 크게 여기는 안 해 낫구나예?

110015 #2 으, 크젠 안 해.

110015 @ 음식은 추석 चल릴 때난 마찬가지로?

110015 #2 으, 경헌디 육지에는 막 잘 चल런 행게.

110016 @ 망중 때는 뭐 헌덴?

110016 #2 거 망중은 보리고 뒤고 다 고부라진덴 허멍 허주게.

110016 @ 망중 때민 계민 이때 보리 수확 할 거?

110016 #2 으. 보리가 망중 땐 다 고부라지난 계난 망중 전이 비여야 돼여.

110016 @ 아, 보리를.

110016 #2 으, 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농도 망중 넘으면 뽑지 못 허여.

110016 @ 아.

110016 #2 망중이 바삭 삭아불어. 계난 보리도 경허고 망중 때 돼민 다 무신거 이 나룩.

110016 @ 예.

110016 #2 나룩도 망중 전이 싱그고 경헛주게.

110016 @ 예. 어쨌든 시기 상으로 망중은 농사할 때 중요허다예?

110016 #2 으, 망중이.

110016 @ 이 전에 보리 수확허고 나룩 싱그고.

110016 #2 으, 망중 때 막 싱거.

110016 @ 하지 때는?

110016 #2 하지 전이 감제고 콩이고 다. 가는 건 다 같아사.

110016 @ 아, 그럼 망중이랑 하지 사이에 다 허는 거?

110016 #2 으, 농사 믹쳐야. 하지 넘으면 잘 안 돼. 계난 나룩도 하지 넘으면 거리지 안 헌덴 허고. 감저도 하지 넘으면 싱그민, 옛날은 고구마 오죽 하영 싱거서 게. 켜 그거 하지 전이 싱그젠. 막 하지 전이만 헤사 농사, 콩이고 뒤고 다 하지 전이 같아사.

## 6월

110017 @ 유월덜 가쿠다. 유월덜에 닭, 독 잡아 먹는 날이 잇수다예?

110017 #2 유월스무날.

110017 @ 유월스무날. 이거 옛날에도 다 닭 잡아 먹었수과?

110017 #2 옛날에 이녁 집이 질황 그날은 멍심행 잡아 먹어서. 이제 닭지 안  
행.

110017 @ 아.

110017 #2 이녁 집이 질황. 칠낭 낵 먹고 스몯.

110017 @ 뭐, 뭐 낵 먹고?

110017 #2 칠낭이엔 현 거 이서. 칠 올르는 칠낭이.

110017 @ 예, 예.

110017 #2 그거 우영에 싱거. 우리도 잇어나서. 겐 잇인 집이 사름덜 왕 돈 열  
메 쥬 사가신디사 몰라. 요만씩 쫄라근에 그 낭계기에. 우리 하르부지 그걸 헤영 풀  
아신디 어떻헤신디 몰라도 그 칠 올른텐 허멍. 겐 우리 하르부지가 비영, 돈 받고  
어떻헌 건 물론 디 허레 와 나서. 빌레. 겐 빌어가신지 돈 쥬 사가신지 몰라.

110017 @ 아.

110017 #2 칠낭 낵 행 먹어사주 배 안 아픈덴.

110017 @ 아, 그거 낵야 배 안 아픈덴.

110017 #2 으.

110017 @ 칠낭 낵사. 그민 그거 삼춘네 식구가 멧, 멧 명?

110017 #2 우린 하지 안 허여. 우리 동생 하나허고 나허고 어무니고. 하르부지  
네도 하르부지 허고 고모, 고모 들, 우리 아버지뿐. 하르부지네도 식구 하지 안 허  
여.

110017 @ 경헨 득을 멧 마리 잡아나서?

110017 #2 우리 세 식구가 하나. 옛날은 하나.

110017 @ 예.

110017 #2 옛날 질루는 득은 커 이제 득보단.

110017 @ 크지예?

110017 #2 으, 겐 맛도 쫓고.

110017 @ 득 잡아 먹는 날.

110017 #2 이젯 득은 맛 잇어. 비실 비실.

110017 @ 이 동네도 개도 잡아 먹는 사름도 잇엇수과?

110017 #2 우리 하르부지, 침 우리 집이 하르방도 잘 잡아 먹어. 아, 우린 일절  
안 먹어지는데 우리 집이 하르방은 일년에 하나 두 개 안 먹영 살질 못 허여.

110017 @ 아.

110017 #2 게난 저 밧거리 강 딸령 다 비닐에 담양 김치냉장고에 담아 둬서 끓  
여 먹을 땐 임제만 끓여 먹어. 난 막 그게 냄새가 머리 아파게.

110017 @ 게민 당신대로 남자 어른이 끓여 먹는 거라?

110017 #2 아니, 게난 다 끓영 봉지에 담앗당 국 끓일 땐 담앗당 국 끓일 땐 이

제 조금, 조금. 꿩일 때 끌러 낡 다 비닐 봉지에 담양 놔 뒷당 덜멍 혼 봉지씩 딸러 먹어.

110017 @ 음.

110017 #2 막 그, 우리 머리 아파. 냄새가 곳어.

110018 @ 음. 삼복이 뭐과, 삼복?

110018 #2 삼복 더위게. 유월 스무날 넘으면 삼복 더위, 삼복 더위 허주기게.

110018 @ 예, 예. 삼복 더위렌 허는 거예. 유월스무날 넘으면 영 곤는 거과?

110018 #2 으, 으. 그때가 막 덥는 거 님아.

110018 @ 예.

110018 #2 겐 삼복 더위렌 허멍.

110019 @ 소서는 뭐과? 이때 뭐 허는 거 잇수과, 소서 때?

110019 #2 뭇은 안 허여. 소서 때 대서 때게 촉곡게 촉는 건 아니게.

110019 @ 더위, 더위.

110019 #2 더운 거. 경해도 뭇 허진 안 허여.

110019 @ 뭇 허진 안 허고예. 농서는 이때 다?

110019 #2 으, 하지 때 다 믈쳐사.

## 7월

110020 @ 칠월덜 감수다예. 칠석날이 뭐 허는 날이과?

110020 #2 그 저 견우 직녀 만나는 날 아니?

110020 @ 게민 이 칠석날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20 #2 엇어.

110020 @ 그런 건 엇어?

110020 #2 칠월 초하루날은 임금대왕 무신거 목 자친 날이엔 허멍 삼년 ㄱ물아도 칠월 초하루날은 비 혼 방울이라도 온덴 안 허연 옛날은.

110020 @ 음.

110020 #2 임금대왕 목 자친 날이난.

110020 @ 임금대왕 목 자친 날?

110020 #2 으, 경허난 그날은 삼 년 ㄱ물아도 비 온덴 헛주게.

110020 @ 아, 기과.

110020 #2 아니, 경허난 임금이 막 딸이 고난 딸 늡 주지 실평 딸을 탐내난 그 딸이 아부지신디 쉼막에 강 저 출을 먹어보렌 헛덴. 경허난 임금이 이젠 그디서 목 돌아전 죽으난 임금대왕 목 자친 날. 게난 눈물이, 게난 쉼가 눈물 나난 비 혼 방울이라도 온덴 허멍 헛주게. 게난 ㄱ물아가민 게난 칠월 초하루날 비 오카, 비 오카 허멍 헛주게.

110020 @ 음.

110020 #2 겐 ㄱ물아 가민 칠월 초하루날 비 와사 혈 건디 비 와사 혈 건디, 임

금대왕 목 자친 날은 비 와, 비 와 영 해나서. 우리 어릴 때.

110021 @ 백중날은 뭐?

110021 #2 백중은게 그 저 그냥 사름덜은 몰른디 저 우리 절에선 목림이 어명을 죽으난, 이 시님덜 매 때마다 그거 강의 허연.

110021 @ 음.

110021 #2 막 어명 못 받 허난 백 가지 음식을 허연 저 기도를 들이민 그 어명을 봐지켄 헛젠. 게난 백 가지 음식을 출련 기도를 드리난 그 어명이 보연 죽은 어명이. 게난 백중이엔.

110021 @ 그게 백중이렌마씨? 절간에서 곶아준 거?

110021 #2 으. 절간에 시님이 경 곶아.

110021 @ 허허.

110021 #2 게난 그 목림 종제엔 현 사름이 어명 산 때는 효도를 못 헌디 죽으난 막 생각난 막 첨 스님, 부처님아피 기도를 드리명 우리 어머님 흔 번만 보게 해줍셴 허난, 그게 소원이건 백 가지 음식을 출령 기도를 드리렌. 경허난 이제 백 가지 음식을 출련 기도, 게난 이제 우리 절에 그날 죽은 고온아피 우리도 그냥 불공을 허여. 그, 그 뜻으로.

110021 @ 음.

110021 #2 겐 다라니 슬고.

110021 @ 게난 백중 때도 절간은 감구나예.

110021 #2 으, 그때 그때 크게 허여. 고온 앓진 사름은. 고온 안 앓지민 필요엇고.

110021 @ 예.

110021 #2 게난 죽은 사름아피. 그 뜻으로 우리도 이제, 다 다라니엔 현 건 이제 저싱 돈 슬아줘.

110021 @ 이 백중제 때 특별히 마을에서는 뭐 허는 거 엇수과?

110021 #2 마을엔 엇고. 절에선, 게난 스님이 설범 혈 때 경 곶아. 게난 그 어머니가 나타난 보염젠.

110021 @ 쉼 질루는 사름 뭐 제 지내는 것도 엇고 동네에서?

110021 #2 으.

110023 @ 게민 백중날 물 맞으레덜 가잖아예?

110023 #2 더위 깨렌.

110023 @ 예?

110023 #2 더위 깨렌. 옛날엔 막 땀두데기 나.

110023 @ 예.

110023 #2 땀두데기 난디 저 어디 영 아래.

110023 @ 예.

110023 #2 고산 영 아래만 강 물 맞아사 땀두데기 저 땀두데기 기여 든덴 허멍

물 맞았주게.

110023 @ 영 아래에?

110023 #2 으.

110023 @ 거기 물 맞는 디가 잇는 거?

110023 #2 그디 물 맞는 디가 있어.

110023 @ 예.

110023 #2 저 한경더레 가는 디. 그디 강 물 맞으면 뚝두테기 기여들어, 얼고. 계난 그거 더우 깨렌. 계난 그디 못 가민 우린 읍내물이엔 현 디가 이서.

110023 @ 예.

110023 #2 그디 강 이제 그 산물에 커 앓아. 경해야.

110023 @ 예.

110023 #2 옛날엔 검질 메난 이 뚝두테기 불나위 엇어 이디. 몸예. 켜 스못 어 느제랑 백중, 켜 계역 행 강 먹으멍.

110023 @ 하하하.

110023 #2 켜 그디 강 으정 강 강 먹으멍. 그날은 흐루 이제 우리 해수욕 가는 거라.

110023 @ 그날 딱예?

110023 #2 으, 해수욕, 해수욕 허고.

110023 @ 뚝띠 때문에 경 물 맞는 것과 신경통 때문에?

110023 #2 아니, 그게 아니고 막 더위 깨렌 맞아서. 막 뚝띠 나고.

110023 @ 더위 깨렌 험니까?

110023 #2 으, 더우 깨여. 더우 깨사주. 계난 뚝띠가 불나위 엇어. 이런 디 허민 ㄱ료왕 밤인 막 허고 막 옛날은 검질 메 나민 혼나게 나. 이제사 뚝띠 나게 뭐 일 험서게. 아침에 강 확 일 헤딩 놀곡 허난.

110023 @ 예.

110023 #2 아이고, 검질 벨 때 뚝띠 낭 우리도 죽어져. 계난 백중날 흐루 놀았 주게.

110022 @ 모래 찢질은 안 헤 낫수과?

110022 #2 으, 안 허연. 흐는 디도 엇고게.

110022 @ 아, 모래 찢질 허는 디가?

110022 #2 으, 저 함덕 가야 잇지 이디 엇지 안 허여.

110022 @ 예.

110023 #2 백중날은 물 맞으레 꼭 가.

110023 @ 물 맞으레는 고산 영 허고 또 다른 데?

110023 #2 아니 계난 이 읍내물이여 뭐 쉰계물이영 그 나는, 산물 나는 디 강 그디가 앓으면 것도 흐꿈 풀리주기게.

110023 @ 예.

110023 #2 계난 밥 쌍 강덜 막 먹고. 빨래도 그런, 다 그런 물에 강 헤 왓주게. 겐 그런 디 층층 널어. 이젠 다 세탁기 해도 옛날은 다 그런 물에 강 빨래 했주 이 런 디서 안 해서.

110023 @ 예. 이제 칠월덜 보난 절기상으로 입추 잇수다예? 입추 때 뭐 농사?

110023 #2 아니, 뭐 그런 거 안 하고.

110024 @ 처서 때는?

110024 #2 처서 때 저 백중, 처서엔 말만 하고 그자 뭐 허진 안 하고.

## 8월

110025 @ 아, 말만 하고예. 팔월덜 나민 이제 별초를 해야 할 거 아니?

110025 #2 으.

110025 @ 언제 험니까? 별초는?

110025 #2 옛날은 팔월 초하루 날만 하여.

110025 @ 그날 다 헤져.

110025 #2 계난 그날 다 못 험 사람 그 뒷내날. 이제는 일요일날 허는 디 그때 는 팔월 초하루날로 학교 방학도 다 해서.

110025 @ 별초 방학예?

110025 #2 건디 이젠.

110025 @ 우리도 별초 방학 해난 거 생각납수다.

110025 #2 경헌디 이젠 일요일날만. 경헌디 전인 이때 일요일덜 막 허는 디 올 린 더월 안 험신게덜.

110025 @ 지금 시기에덜예.

110025 #2 으, 이때덜 막 하여.

110025 @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험 거라예?

110025 #2 으, 우리도, 우리도 다음 주. 아니 우린 사일날 험 걸로 이제 험주게.

110025 @ 사일날.

110025 #2 으, 구월 사일날 우린 험 걸로. 게나제나 팔월 초하루날은 소분 험주 게. 계난.

110025 @ 소분이렌 험니까, 여기 소분?

110025 #2 소분, 소분.

110025 @ 소분 험 때는 이녁 집만 갈 거 아니잖아예?

110025 #2 옛날은 동고량차롱에 밥 쌍 갓주기게. 차롱에. 밥 쌍 가. 밥 쌍 가고 어떻 험 딘 이제 술도 하고 사과도 서너 개 상 가. 계난 잊어붙어지지 안 하여. 우 리 이제 큰아덜 오십으섯이라. 경허고 우리 말젼시어멍 딸은 윈 멧 설산디. 우리 집 이 아덜보단 혼 두 설 아랴들 거라. 못 좃안 허단 보난, 저 성굴왓 살 때 성제비꺼장 걸언 간. 혼 대으섯 살 난 때. 그 하르방네 아부지네 딱랑 그거 얻어먹젠. 애기 못 좃안 허단 보난 오꼴 질 이왕 하르방덜은 멀리 가불고 아부지넨 누게넨.

110025 @ 으.

110025 #2 겐 막 아이 못 좇안 허단 보난 그꺼장 딱라 강. 그거 얻어 먹영 혼디 가젠.

110025 @ 아, 경 딱라 가단 잃어분 거라?

110025 #2 아, 경헨 이제 그 성제비엔 현 디 가난 하르방덜 어느더레 가분 생몰른 생이라. 그 질로 갈 걸로 알앙 딱라 간덴.

110025 @ 예.

110025 #2 이제 생각허든 막 그때 침. 겐 그 사과 싸는 거 황 그 사과 먹젠 간 거 닐아. 하하하.

110025 @ 잃어불영 애 먹었구나 그거 좇젠 허난.

#2 으, 그때 생각허든. 게난 우리 말젯시어멍 딸허고 우리 집이 아덜허고 둘이가 덜 지네 아부지네 우리 집이 아덜도 우리 집 하르방네 갖주기게. 게난 딱라간 게 그꺼장 딱라간 거라. 이디에서 용당만이 허여 거리가. 그꺼장 딱라간. 아마 너다섯 설쭈 현 때라. 경 멀리 가서.

110025 @ 아고게. 그민 별초는 이녁 집만 허는 거 아니면 친척덜이 다 ㄴ치 허여?

110025 #2 다 ㄴ치 허여, ㄴ치. ㄴ치 허고 옛날엔 기계 엇이난 다 호미로 헛주 기계.

110025 @ 게난 하루에 다 못 헐 거 아니? 메칠 헤실 거 아니?

110025 #2 보통 이사홀 헛주기게.

110025 @ 이사홀예. 예, 예.

110025 #2 이 공일날만 허지 안 허고 옛날은 다 초허루, 초이틀, 초사홀 허여.

110025 @ 음.

110025 #2 경헌디 이젠 그믐날부터 시작허여.

110025 @ 음.

110025 #2 경헌디 이젠 아무 때나 기자. 공일날만 허는 거주게.

110026 @ 예. 팔월 멩질에 대해서 글아줍서, 팔월 멩질.

110026 #2 팔월 멩질이사 그자 옛날은 저 탕션 호박 탕쉬 헤서.

110026 @ 아.

110026 #2 호박 허연.

110026 @ 예.

110026 #2 겐죽도 안 벳기고 허영 그거 깨 농곡 행 탕쉬. 겐 고사리 두어 개 그 우터레 올리고.

110026 @ 예.

110026 #2 묵 이제 묵 썰영 이제 네 개 이제 그 고사리 우이 올리고 그건 젓가락이엔 허명. 이젠 호박 탕쉬 안 허지만은 옛날은 호박 탕쉬도.

110026 @ 고사리, 콩노물 대신?

110026 #2 아니 콩늬물도 흐뎡 하고 고사리도 탕쉬 하고. 고사리, 고사린 이제 늬물로 허는 디 옛날은 서너 개 그 호박 우터레 올려.

110026 @ 으.

110026 #2 고사리가 어려와신디사 원 어떻허난 경 서너 개만 올려신디 몰라. 이젠 막 고사리 밥으로 먹지 안 허여게. 반찬으로.

110026 @ 예.

110026 #2 겐디 옛날은 흐뎡 솥양 서너개 보글보글 헤영 호박 우터레 서너 개 걸청. 접시에 낱.

110026 @ 고사리 꺾으레 갈 저들이 엇엇주게.

110026 #2 아니, 옛날에가 이제 아니난 잇엇주만은 겐디 그 고사리 이제 ㄴ치경 반찬으로 허질 안 험 거라.

110026 @ 음. 팔월멩질에 허는 음식 더 특별헌 건 엇수과?

110026 #2 이 제주돈 그자 보리 삼메떡.

110026 @ 보리 삼메떡.

110026 #2 으, 보리 삼메떡허고 기자 보리로 기증헐 허고. 그뎨 제헐 그런 거 안 허연. 곤떡은 흐뎡헤영 그자 올리고. 경헐 헛주게.

110026 @ 삼메떡으로?

110026 #2 으.

110026 @ 팔월멩질도 다 먹으레 텅기고?

110026 #2 먹으레 텅기주게. 저 영 막걸리 허영도 텅기고. 옛날은 오렌지 주스렌 허명이 물감 노민 별경허게 오렌지 멘드는 게 이서. 겐 그것도 질영 텅기곡. 지주로.

110026 @ 아.

110026 #2 사홉들이 하나. 오죽 가난헤사 경헐 거냐?

110026 @ 그거, 저기 제주로 헿 그거 들렁 가고?

110026 #2 어, 친척집이 경헿 가. 오죽 가난헤야 그 오렌지주스 물 들인 거 그거, 이제사 ㄴ트민 데껴볼 거여. 먹으느냐? 것도 엇영 못 먹어.

110026 @ 그것도 들렁 가고?

110026 #2 으, 오죽이사 가난 헤사 경헐 거라. 생각허민.

110027 @ 예, 저기 절기가 팔월덜에 백로, 추분이 잇수다. 백로에 뭘 허는 거 잇수과?

110027 #2 엇어, 엇어.

110027 @ 추분 때는?

110027 #2 추분 때도 엇고.

## 9월

110028 @ 구월덜 가쿠다. 구월덜에 상강 이신게 상강?

110028 #2 으, 상강 전이 감저 다 갈아사게.

110028 @ 상강 전이 갈아서?

110028 #2 으, 씨 헐 거. 씨 안 헐 건 헐디 씨 헐 건 상강 전이 안 허믄 저 썩어. 상강 느리기 전이, 저 상강 그때 돼민 상강 느리고 헐텐 허멍 씨 헐 건 상강 전이 갈아덩 씨 허주게. 그거 말곤 뭐 별로 안 허고.

## 10월

110029 @ 음. 시월, 음력 시월에 절기가 입동 허고 소설이 잇수다. 입동?

110029 #2 계난 그 사이에 다 보리덜 갈아.

110029 @ 아, 입동,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

110029 #2 으, 보리 갈아.

110029 @ 보리 갈아. 그 수확 하는 건 언제 헐 것과?

110029 #2 수확헐 땐 그 무시것고 아까 곶은 저 저 무시거 전이.

110029 @ 상강 전이?

110029 #2 아니, 아니. 단오, 단오. 단오 말고 저 곤젠 허난 잊어불어졌저. 그 무시거 헐 때 나 마농이영 수확헤산텐 허멍 헐 거. 그 전이 안 허민 문 보리가 고구라져불영 못 비여게.

110029 @ 아니. 보리 고부라지는 건 그때주만은 웨 콩도 들이고 산디도 들이고.

110029 #2 산디는 가을에 허는 거고게.

110029 @ 게, 가을에 언제 산디를 들이는 것과?

110029 #2 거 팔월 멩질 넘으민 허주게.

110029 @ 아, 팔월 멩질 넘으민. 예, 예. 출도 언제?

110029 #2 출도 팔월 멩질 넘영 비고 팔월 멩질 흐뎡 전이도 두세 브름만 터지민 비여. 두세 브름은 하늬브름게.

110029 @ 예.

110029 #2 하늬브름 계난 두세 브름 나사만 출 빈덴 헛주게.

110029 @ 음. 하늬브름 나사. 예. 경허고.

110029 #2 팔월엔 출 빔이 일이라, 출 빔이. 옛날은, 이젠 다 곳 웬디 옛날은 그 게 다 출빔이랏주기에. 이젠 곳자왈 돼불언. 아이고 출 스뎡 그거 해당 쉼 허젠 허믄 출이 어려와.

110029 @ 소설 때도 뭐 허는 거 잇고예?

110029 #2 응.

## 11월

110030 @ 아까 입동이랑 소설 사이에 감저 놓는다는 거. 그 다음 십일월달 넘어 감수다예. 동지, 동지 풋죽이 뭐과?

110030 #2 동짓덜엔 게 풋죽 썩 먹어서 감기도 걸리지 안 허고 헐 거 아니?

110030 @ 감기 걸리지 말렌 풋죽 썩 먹는 거?  
110030 #2 풋죽 썩 다 케우려.  
110030 @ 어디에 케우려?  
110030 #2 이런 집덜 주위에 옛날엔.  
110030 @ 아, 풋죽 케우려?  
110030 #2 으, 옛날엔 케우려.  
110030 @ 고뿔 들어오지 말렌?  
110030 #2 어. 이젠 그냥 먹는다 옛날엔 케우려.  
110030 @ 아. 케우려. 풋죽 끓여 볶서, 어떻 끓였수과?  
110030 #2 풋 솥양게 풋 솥양 그자 그 새알은 아무나 안 해 놓고게. 이제나 새 알 놓주, 옛날은 그자 풋죽, 풋 솥양 그자 쓸 낱 씻주.  
110030 @ 으.  
110030 #2 겐 이제 우선 거렁 사발에 거렁 대문, 대문 밖에 멧 숟가락 케우려 뒤사 먹어. 경 안헨 그 전에 안 거려 먹어서 우리 어린 때.  
110030 @ 예. 안 거려 먹는 거.  
110030 #2 든침 케우려 뒤사.  
110031 @ 예. 납평날이라는 거 알아지쿠과?  
110031 #2 으, 옛 다끄는 날.  
110031 @ 옛 다끄는 날?  
110031 #2 으, 납평날은 옛 다끄는 날.  
110031 @ 이날 옛 다까야 뤼?  
110031 #2 으.  
110031 @ 무사?  
110031 #2 몰라.  
110031 @ 하하하.  
110031 #2 어떤 일인디 납평날만 옛 다까.  
110031 @ 아.  
110031 #2 납평날은 독 잡양도 허고 뤼지고기 낱도, 옛 다끄는 날게.  
110031 @ 아, 이날이 옛 다끄는 날이라?  
110031 #2 으. 옛날은 옛 잘 다까서. 이젠 안 다까도. 무사, 으. 납평날 거의 옛 다까.  
110031 @ 삼춘은 무슨 옛을 다까낫수과?  
110031 #2 우린 뤼지고기 옛이 잘 다까.  
110031 @ 으.  
110031 #2 뤼지고기 앞다리 허영 그거 저 궤에 갈 때 노민 그거 막 뤼 허여. 게 난 우리 손지 아이고 그 뤼지고기 허여뚱허여뚱 허난 뤼장 막 맛있저. 하하하.  
110031 @ 아, 지난 번에 곶아난 거예. 예, 예.

110031 #2 아, 웬장 막 맛있저 헤낫주게.

110031 @ 예, 예.

110031 #2 히여뜩 히여뜩 허난.

110032 @ 십일월달에 절기상으로 대설이 잇수다 이때 뭐 허는 거 엇고?

110032 #2 으, 허는 건 엇고. 이 눈 온덴 험뿐.

110032 @ 예. 동짓날 풋죽 먹는 거고예?

110032 #2 으.

## 12월

110033 @ 십이월달 가쿠다. 친구간이 옛날부터 잇어낫수과?

110033 #2 구신이 올라 가분덴게.

110033 @ 올라가는 날.

110033 #2 계난 이사허고 영장 묻고.

110033 @ 친구간에?

110033 #2 이사허고 영장도 그날 묻고. 그때 묻고게. 그때 신이 다 올라가부난.

110033 @ 예.

110033 #2 집도 고찌는 거 그때 고찌고.

110033 @ 영장 묻는다는 건 이전 허는 거?

110033 #2 이전 허는 거 거의 허고 이 집 고찌는 것도 그때 허여. 이사도 그때 허고.

110033 @ 이사를 가게 뉘면 이사 갈 집은 어떻 구허는 거라 옛날에?

110033 #2 옛날에사 거의 영 빌영을 안 살고 다 상 살고 뉘 짓영 살곡 헛주게. 계난 이 집이 살당 저 집이 가게 뉘면 이사험 뿐.

110033 @ 빌영 살거나는 안 헛던 거?

110033 #2 으, 옛날은 벨로 경 그자락. 맞거리에 빌영 사는 사름은 허고 이 그 냥 집 엇인 사름덜 맞거리에 다 빌영 살주게.

110033 @ 음.

110033 #2 경혜연. 다 모커리건 맞거리건 빌영 살아.

110034 @ 모커리건 맞거리건 빌영 살젠 허면 어디 강 빌어야 뉘 지 물으러 다 녀야 헛 거 아니?

110034 #2 저 무시거 정시신디게 옛날은. 이젠 철학관인디 옛날엔 정시, 정시. 동더레 가느냐 서러레 가느냐 막은 막.

110034 @ 집이 어느 집이 비여신 지를 모르잖아?

110034 #2 그거 복덕방 엇어. 그거 소문 들영 헛주.

110034 @ 소문 들영. 저 집이 비엇저 허는 소문을 들어지민.

110034 #2 으, 경허고 정시 강 동더레 가민 좋을 거, 서러레 막아시냐 뉘 헤시 냐 들영 오고 경헛주게.

110035 @ 저 이사 갈 때 뭐부터 가정 갑니까?  
110035 #2 솥계. 솥허고 요강.  
110035 @ 아, 요강도 가정 가.  
110035 #2 으, 옛날에 오줌 단지.  
110035 @ 예.  
110035 #2 그거 솥 안에 낵 가. 시집 갈 때도 요강 단지에 쓸 흐뎡뎡 놓고 성냥곽  
놓고 실 놓고 행 가고. 가메에.  
110035 @ 가메에.  
110035 #2 어.  
110035 @ 그건 들렁 가는 거 신부가?  
110035 #2 아, 게메 가메에 낵 가. 우리 어린 때. 아니 우린 경 안 헛주만은.  
110035 @ 예.  
110035 #2 요강이사 으정 갖주만은 우리 어린 때 보믄 그게 풍속이라. 실에 쓸  
놓곡 성냥 놓곡 요강 단지 거쳐가는 게.  
110035 @ 음.  
110035 #2 아니 우리도 요강 단지 허영 갖주만은 그 쓸은 낵 가낵어. 쓸 놓고.  
경헌디 가메에, 우리 갈 땀 추럭. 자가용이 아니라 추럭 탕 갖주기게. 가메 타지 안  
허고.  
110035 @ 추럭 탕 간.  
110035 #2 추럭 탄.  
110036 @ 옛날에도 그럼 영 이사가면 우리 집들이렌 허잖아예?  
110036 #2 안 허여.  
110036 @ 안 헨?  
110036 #2 으, 집들이.  
110036 @ 옛날엔 집알이렌 헛수과?  
110036 #2 집들이 안 허여.  
110036 @ 안 허여예.  
110036 #2 으, 집들이 안 허여.  
110037 @ 게난 선물허는 것도 뭐 엇어나신게예?  
110037 #2 으, 집들이 안 허여.  
110038 @ 예. 소한, 대한 때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38 #2 뭣 허진 안 허여. 춤뎡 헌 뿐이주. 추워, 추워. 소한에 나간 사름 기  
다, 아이 들어오민 기다리지 말렌 헛주기게.  
110038 @ 아.  
110038 #2 죽어불엇젠 얼언.  
110038 @ 얼언예?  
110038 #2 으, 소한에 나강 대한에 아이 들어오믄 그 사름이 죽은 거라. 들어오

지 못허민.

110038 @ 어디 강 들어오지 못 허민?

110038 #2 어디 출장 가민 그뎨 걸언만 텅기난.

110038 @ 예.

110038 #2 소한에 나강 대한에 안 들어오민 이제 죽엇구나 생각해야 돼주.

110038 @ 아, 어디 웨방에 나가시민.

110038 #2 으, 추워부난 안 들어완. 추워부난.

110038 @ 예. 농사 다 지으난 소한 대한에 뭐 따로 헐 건 엇고예?

110038 #2 으, 헐 건 엇고.

110038 @ 예.

## 11. 놀이

111001 @ 어릴 때 놀아난 거 물어보쿠다. 어릴 때 놀아난 거.

111001 #2 오주메허고 공기허고게.

111001 @ 공기허고. 남자아이덜은?

111001 #2 그딘 뽕이치고. 뽕이치고. 남잔 그거 자떼기 허고.

111001 @ 자떼기 허고?

111001 #2 으.

111001 @ 자떼기렌 헛수과, 자치기렌 안 허고?

111001 #2 자치기, 자치기.

111001 @ 아.

111001 #2 자치기 허고 그 자전거 와 그거 행 영 췌, 췌 영 오그렁 졸졸졸졸 영 놀리는 것도 막 허여.

111001 @ 아, 예.

111001 #2 으.

111002 @ 그거 하나씩 물어보쿠다. 우선은 옛날리기서부터 물어보쿠다. 그냥 알아지는 것만 말씀해 주시민 텔 거예. 연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

111002 #2 청연, 개구리연계.

111002 @ 개구리연. 청연, 개구리연.

111002 #2 니귀 반득헌 건 청연.

111002 @ 으.

111002 #2 개구리연은 영 동글랑 허영 풀람지 돋은 건 개구리연.

111003 @ 으. 연 만들젠 허민 어떻 만들어?

111003 #2 대게, 대 달좌근에 창호지 허영 만들엇주게.

111003 @ 게민 대 잇어야 텔 거고 창호지 잇어야 텔 거고 풀 블르젠 허민?

111003 #2 풀 블라.

111003 @ 뭐, 필로 풀 블라.

111003 #2 옛날은 밀꺠루로 헛주게. 밀꺠루로. 경헨 밀꺠루 풀 헨 블라. 대에.

111003 @ 예. 대에 블랑 창호지 붙이는 거라.

111003 #2 으, 창호지 붙여.

111004 @ 실은 어떻 헛수과?

111004 #2 실은 연술이렌 허멍 그때도 셔 흐뎡 질긴 거. 흐뎡 질기게 헨 연술 허영.

111004 @ 게민 그런 건 사당?

111004 #2 사당 해실 거라.

111004 @ 예. 저 개미, 글리라는 거 알아지쿠과? 저 연줄에 유리 막 부형 연줄 에 맥여난 거. 연싸움 허젠.

111004 #2 건 몰라.

111005 @ 몰라예. 예, 예. 연싸움도 해 나고예.

111005 #2 연싸움덜 허주기게. 허영덜 실로 영 엷어정 저디 연이영 이디 연이영 엷어 잡아헨경 실 줄 그차저분 것이 진 거 아니?

111005 @ 예. 삼춘도 영 연날리기 해 보고?

111005 #2 아니, 우린 아니. 남자덜이 허주.

111005 @ 거의 남자덜이?

111005 #2 으.

111005 @ 연날리기 허면 어디 보리밭디 강?

111005 #2 보리밭디 강 허주, 동산에.

111005 @ 동산에?

111005 #2 으, 높은 동산에 강 허주. 동산 보리밭디 잘 허여.

111005 @ 게민 보리밭 불르렌 애들 들어 보내는 거?

111005 #2 으, 보리밭 블라도 욱허지 안 허여. 그냥 이제 꺠치 칸 하지 안 허주 만은 밧디 강 해야 널렁 잘 올라가주.

111007 @ 음. 쪽기차기?

111007 #2 쪽기차기도 하영 허고.

111007 @ 예. 쪽기는 어떻 만듭니까?

111007 #2 그 창호지 허연게 막 꺠얏 이디 돈 담앙. 돈이나 뭐 떼깅헨 걸 담아야 이디 두글락헨 거 아니. 겐 실로 뵁뵁 텡여. 무껍 멘들앗주. 꺠새로 족족 꺠야.

111007 @ 어디를 꺠야?

111007 #2 이거 종이를, 창호지. 창호지 쪽기는 질기는데 그냥 그런 종이로는 비삭비삭 다 꺠꺼져.

111007 @ 음. 비니루로 안 헛수과, 비닐?

111007 #2 비니루가 그때 셔서게?

111007 @ 아.

111007 #2 비니루가 어디 서게.

111007 @ 비닐 엇이난. 험벽은?

111007 #2 험벽은 안 헤 받 거의 창호지주.

111008 @ 창호지로, 예, 예. 쪽기차기에도 어떻 종류가 잇수과? 한 발로 차민?

111008 #2 한 발로 차난 이쪽 차난 이쪽 차고 허는 사름이 많아.

111008 @ 아,

111008 #2 경허는 거 잘 차는 사름은.

111008 @ 잘 차는 사름덜은예?

111008 #2 으.

111009 @ 기민 쪽기차기 허민 어떻 허민 이기는 거라?

111009 #2 그거 숫자 하영 현 사름이 이기주게. 멧 개, 멧 개 하나 둘 세영게.

111009 @ 예. 하영 찬 사름이 이기는 거. 삼춘 쪽기차기도 안 헤 봤수과?

111009 #2 으, 안 헤 받.

111013 @ 자치기는 어떻 험니까?

111013 #2 자치기는 그거 탁 막탱이 데경 또 그 막탱이로 탁 두드리민 그레 튀여가. 그 막탱이 켜 그거 멀리 나가민 이견.

111013 @ 멀리 나가민.

111013 #2 건 남자덜이 헛주마는 허는 거 봄만 헛주게.

111012 @ 아, 마찬가지로. 자치기도. 게민 이 자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예?

111012 #2 낭게기 그자 요만이 현 낭게기. 경 헨 허민 둘이가 허민 이 낭게기 데끼민 이 낭게기로 탁 두드려, 탁 받아. 두드리멍 흐끔 영 될 때. 경허민 저레 멀리 강 이기주게.

111015 @ 몰탈락은?

111015 #2 몰탈락은 이거 영 사름이 얹어질 거 아니. 경헨 사름이 와랑와랑 왕 그 등떼기레 탁 타니까 몰탈락게.

111015 @ 게민 몰탈락은 췌 나뉘 험사큰게.

111015 #2 췌 나뉘 허는 거주게. 췌 그거 멧 사름이 올라. 우리 다섯이 허민 다섯이, 다섯 사람 굽을 거 아니? 게민 그 다섯 사름이 다 올라. 그게 빨리 멜라져불민 지는 거주게.

111015 @ 멜라져 불민 밑에 사름이 지는 거?

111015 #2 어게. 게민 또 굽어야 돼여.

111015 @ 또 굽어야 돼. 게민 밑에 사름이 멜라지지 안 헛수다.

111015 #2 안 험도 또 경험도 못 타. 못 타도, 올라타지도 못 허여 혼 사름이 경허여도 지는 거. 췌 다섯 사름 다 올라가야 돼지.

111015 @ 아, 타는 쪽에서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 다 올라가민 그 다음에는?

111015 #2 다 올라강 멜라지지 안 험야 멜라져 불민 지는 거. 아, 게난 그 굽은

사름은 안 멜라지는데 올른 사름이 어떻허연 발이 알려레 내려와.

111015 @ 예.

111015 #2 내려왕 영 건드려 불민 지는 거.

111016 @ 몰타기에도 종류가 이서낫수과?

111016 #2 종류가 잇어나도 몰라.

111016 @ 몰탈락은 여자 아이덜이?

111016 #2 여자가 하영 헛주, 남자덜은 안 허여.

111016 @ 여자가 하영 허여?

111016 #2 으, 여자가 몰탈락허주.

111020 @ 다마치긴 어떻 해낫수과?

111020 #2 다마치긴 그 구실계. 구실행 영 행 맞춰. 건 남저덜이 허여, 여자덜은 안 허고.

111020 @ 다마는 어디 셔?

111020 #2 폴아, 폴아. 그거 멧 개에 얼마. 우리 아덜네가 주로 다마치길 하영 헛주게.

111020 @ 계난 삼춘네 아덜 때는 헛고 삼춘네 때는?

111020 #2 안 허여, 우리 때는 안 허여.

111020 @ 아, 그때는 엇고.

111020 #2 으, 우리 때는 엇엇고, 우리 아덜네는 다마가, 그 유리 다마가 잇엇고.

111021 @ 계민 다마치기에도 뭐 구멍치기 원치기 백치기?

111021 #2 우리 저 다마치길 안 허고 저, 우리, 우리 어린 때 남저덜은 영 구덩이, 땅에 구덩이 팡.

111021 @ 으.

111001 #2 돈 데경 그 고망에 들어간 사름이 이경 그 돈 따 먹어서.

111001 @ 아. 구멍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멍치기.

111001 #2 으, 이디서 허민 영 저만이, 요만이 구멍을 팡 그 구멍에 돈을 들어 가민 먹고 또 돈이 이디 낙, 낙 혜도 이제 지고. 거 먹어 불고.

111001 @ 음.

111001 #2 우리, 우리 때는 거 다마치기가 엇언, 그 다마가. 계난 그런 돈치기덜 잘 헛주게.

111001 @ 그거 돈치기렌 헛수과?

111001 #2 으게, 엽전덜 돈치기게, 엽전 일원, 일원짜리덜.

111001 @ 예.

111001 #2 그런 것덜 돈치기 헛주게.

111028 @ 뺏지치기는?

111028 #2 뺏지치기도 우리 집이 아덜네 대가 허고 우리, 우리 때는 안 허고.

111028 @ 뺏지치기는 어떻 허는 거라?  
111028 #2 거 뺏고. 골런 겁데기 헤단 막 두뺏게 멘들양 그 뺏지치기덜 헛구나  
계. 떼기치기덜 떼기, 우리 어릴 때 떼기치기덜 잘 허고. 떼기렌 현 건 ㄱ새로 영  
동그락 허게 ㄱ아.  
111028 @ 떼기는 어떻 만들아?  
111028 #2 ㄱ양, 골런 겁데기 ㄱ양 동글락 허게 허민 그거 영 탁혜영 데싸지민  
먹을 거 아니.  
111028 @ 데싸지민 이기는 거. 떼기치기헨 헤서예?  
111028 #2 으, 떼기치기.  
111028 @ 뺏장치기는 영 만들영 허는 거고예?  
111028 #2 으.  
111028 @ 여자덜도 떼기치기?  
111028 #2 안 허여.  
111032 @ 거의 남저덜 허는 거예. 곱을락은?  
111032 #2 곱은제긴 잘 허고.  
111032 @ 아, 여긴 곱은제기렌 험신게.  
111032 #2 으, 곱은제기.  
111032 @ 곱은제기는 잘 허고.  
111032 #2 으, 그 곱은제기는 남자 여자 엇이 잘 허여. 남자덜도 허고 여자덜도  
헤나서.  
111033 @ 누게가 술래를 허는 거?  
111033 #2 진 사람이 술래를 헤야지.  
111033 @ 뤼 행 진 사람이?  
111033 #2 영 곱아근에 문침 좇아내는 사람이 질 거 아니?  
111033 @ 아. 곱을락 헨에 주로 어디 곱아낫수과?  
111033 #2 막 이런 놀 트름, 출놀 트멍. 주로 굴묵 거튼 디.  
111034 @ 하하. 굴묵 같은 디고 곱고.  
111034 #2 으, 출놀 트멍, 어디 담 에염 ㄱ튼 디 강 곱아사주게.  
111034 @ 아, 출놀 트멍에도 가고.  
111035 #2 출놀이 하영 누난, 출놀 보리낭놀. 그 소곱에 기여 들어볼민 못 좇지.  
111035 @ 못 좇아. 뤼 재미난 일 엇어낫수과 곱을락 허멍?  
111035 #2 아니 누게 확 이거 영 헤 낱 와랑와랑 돌아왕 이녁이 문침 그 지둥  
에 문침 눈 곱아난디 이녁이 문저 와사 텔 거 아니.  
111035 @ 예.  
111035 #2 경혜영 다 헛주게.  
111035 @ 계난 삼춘 곱을락 허멍 어디 강 줌 들어볼거나 허지는 안 허고?  
111035 #2 아니. 그자락 줌 들게 오래진 안 허고. 경허고 우린 줌이 엇어. 어린

때고 이제고 경 줘 많이 자질 안 허여.

111035 @ 예. 이진 뭐과 여자 아이덜 실 가정 영?

111036 #2 실똥쓸락 아니?

111036 @ 예, 실똥쓸락. 계민 실은 어뎡 준비허는 것과?

111036 #2 실은 바농 옷 허는 실 허영 준비 허영.

111036 @ 바농 옷 허는 실.

111036 #2 그뎡게 프는 실들 싯주만은 미녕실도 멘들앙도 해서. 실덜, 실덜. 프는 실덜도 허고 실 가름에 허영.

111037 @ 계민 손가락을 영 끼우는 거라?

111037 #2 영 끼왕 영 허영 허민 영 허영 아기 구덕 무신. 잊어불어졌저. 퍼렁 현 건 아기 구덕, 무신 구덕 허명 해 난다.

111037 @ 아, 계민 영 실 만들어진 거 보멍 그걸 보멍 아, 요건 애기 구덕 요 건.

111037 #2 으, 그거 하나 생각남저.

111037 @ 그런 이름을 붙여난?

111037 #2 으, 경허명 똥싸낫주기게.

111037 @ 계민 이 손가락을 넣는 거렌 무슨 손가락이엔 불러난 건 엇고.

111037 #2 으, 그냥 이디 허영 영 혜영 똥쌍 실. 경혜영 하나도 범벅지지 안 게. 둘이가 허민 잘 똥서. 계속, 계속 똥싸.

111037 @ 이렇게예.

111037 #2 으, 하나도 엇어지지 안 허게 잘 똥싸나서 우리도. 아니 요 중간에도 우리 손지덜 막 베와주고 데싸나서 허렌 허영.

111037 @ 손지랑 실똥쓸락도 헤 보고.

111037 #2 으, 으.

111041 @ 이거는 여자덜 헤난 거고. 공기는, 공기치기는?

111041 #2 공기 돌 똥앙게.

111041 @ 돌 똥앙.

111041 #2 돌 똥앙 다섯 개 혜영. 돌 둥글락허게 요만이, 요만이 똥앙. 겐 영 솧덕 앓지문, 솧덕 잘 앓져져사 이길 거난.

111041 @ 솧덕 앓진다는 게 무슨 말이과?

111041 #2 이거 영 공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레 영 하나 앓당 그 우터레 특 노민 잘 안, 돌 솧덕 앓져져. 겐 이겨.

111041 @ 아, 우터레 잘 올렁 엇져노민 그거 솧덕 앓지는 거렌 헤.

111041 #2 겐 그거 이겨.

111044 @ 예. 혹시 곤질, 꼬녀라는 놀이도 잊어났수과?

111044 #2 건 몰라.

111044 @ 모르고예.

111049 #2 사그마치는 뭐과?

111049 @ 사그마치는게 돌 허영 방 찰락 혈 때 사금마치도 허고. 저 장테, 장테 벌러진 거 허영 영 허영 방찰락 혈 때 그걸로, 이레 강 차고 저 방에 강 차고.

111049 @ 방찰락이 뭐?

111049 #2 방개 영 그렁, 그렁 사그마치로 방찰락 헤사주게.

111049 @ 음, 겐 넘어가는 거 그거를?

111049 #2 아니 게난 영 굿어진 디 이거 저, 저레 하나 차고 또 그 다음 하나 차고 겐 이레 영 돌아와지민 방 찰락게.

111049 @ 아, 그걸 방찰락이렌 허는 거라. 겐 그때 쓰는 게 사그마치과?

111049 #2 으, 사그마치로 행 방찰락 헤. 떡대, 떡대도 허고.

111049 @ 떡대 떡대는 뭐과?

111049 #2 떡대렌도 허고 방찰락 사그마치로 허민 사그마치렌 허고. 떡대로 헤 연도 방찰락 헛주게.

111050 @ 음. 땅따먹기는 어떻 험니까?

111050 #2 땅따먹긴 자로 헤영도 땅따먹고. 잣대치기. 건 남자덜이 주로 허고.

111050 @ 예.

111050 #2 우린 그 떡대로 허영 방찰락 헛주게. 영 옛날은 다 세멘질이 아니고 흑, 흑이난게. 흑에 쪽쪽 굿어. 굿영 영 이 방에 가고 저 방에 가고 돌아와사주게.

111050 @ 예. 게민 이거 다 나 방이 되는 거라?

111050 #2 아니 게난 그 떡대로 저레 차 가고 저레 차 가고. 그 그릇에 허지 말 앙 다 창 이꺼지 오민 이겨질 거주.

111050 @ 다 창 오민. 게난 방찰락이엔 허는 거과?

111050 #2 으.

111050 @ 영 여기 사그마치 낱 툄락툄락 허멍 거 밀리멍?

111050 #2 으, 게난 영 그릇 굿어진 디 영 그릇 굿어진 디, 이 그릇에서 이 그릇에, 그릇에 가문 지고.

111050 @ 예.

111050 #2 그릇 넘어강 요디 강 또 저디 강. 방이 네 개 닳다. 네 개 허영 또 이꺼장 돌아오민 이겨지고.

111050 @ 으. 돌아와지민 이기는 거.

111050 #2 으, 그 그릇에 가민 지여, 떨어져부는 거. 건 못 차주게.

111053 @ 웃놀이 허젠 허민. 웃놀이렌 헤난 옛날에도?

111053 #2 으, 옛날에도 웃놀이.

111053 @ 녁둥베기렌 안 헤난?

111053 #2 녁둥베기엔도 허고 웃놀이엔도 허고.

111053 @ 녁둥베기 허젠 허민 이 웃을 준비헤야 혈 거 아니과예?

111054 #2 그 폭냥 주로 끈차당게 네 개 만들앙.

111054 @ 폭낭.  
111054 #2 주로 폭낭 잘 끊어 와나서.  
111055 @ 예. 종이영 옷판은 어떻 만들고? 옷판, 그림 그려야 될 거?  
111055 #2 그림 종이에 아니고 다 명석에 그렸주게.  
111055 @ 명석 위에?  
111055 #2 다 명석에 그려서.  
111055 @ 뭐로 그려?  
111055 #2 솟으로 그려서게.  
111055 @ 그런 다음에, 옷판을예?  
111055 #2 으. 솟으로 그리고 이런 디 놓는 건 낭게기도 놓고 돌맹이도 놓고.  
111057 @ 어떻허민 이기는 것과?  
111057 #2 아이 옷은 나 잘 몰라.  
111057 @ 어쨌든 옷놀이는 남자 어른덜이?  
111057 #2 으, 남저덜 허난.  
111059 @ 뺑이치기는?  
111059 #2 뺑이치기는 낭게기 깎앙 요 아래 못 하나 박앙. 닥, 옛날은 닥낭이  
첫주게. 닥낭 겹죽허영. 닥낭 겹죽으로 뺑경 헛주게. 요샌 무스것사 험시 몰라도.  
111059 @ 음.  
111061 #2 닥낭 겹데기 헤영 짝 뺑긴 거 이 문둥에 돌아멩 걸로 치민 잘 쳐 옛  
날은.  
111061 @ 음.  
111061 #2 닥낭 겹죽으로 다 이 짚신 이 뒤에도 감고. 이젠 귀찮여 저 닥낭이.  
111061 @ 무사?  
111061 #2 막 밧디 더껴정게. 아니 행 가부난. 그때 그런 신 삼고 하간 거 허난  
끈어가부난 엇인디 이제 그게 막 슬젠 늙언. 나도 요 여름에고 강 끈은디 막 밧디  
래 들어왕 귀찮여.  
111061 @ 예.  
111061 #2 그때 심어논 거 내부난 이제 막 늙으는 거 아니. 그때 옛날엔 거 쫄  
락쫄락 나올 때 다 끈어당 거 겹죽을 쓴 디 이제 내부난 그게 늙어 스몯.  
111061 @ 어떤 게 닥낭이과?  
111061 #2 닥낭이, 영 이파리 까릿까릿 헨 게 이서게. 게난 그 겹죽이 막 잘 벗  
어져 옛날은 경헌디 이제 그게 막 늙으난 그추룩도 안 헨. 옛날엔 굳짜 나올 땐 짝  
뺑경, 신, 신도 이런 뒤추기에도 감고 삼는 디도 삼고 그런 뺑이치기도 허는디 아이  
고 이젠 그게 안 끈어노난 막 크는 게 귀찬허게 막 커노난.  
111061@ 닥낭 가정 그걸로 헤난 거예?  
111061 #2 으.  
111064 @ 뺑이 싸움은 어떻 허는 거라.

111064 #2 썩이게 저디 거영 이디 거영 치영게 드리 뉘불민 지는 거 아니게.  
 111064 @ 드리 누는 사름이 지는 거예.  
 111064 #2 으.  
 111066 @ 아까 자전거 바퀴로 허는 건 굴렁썰?  
 111066 #2 으.  
 111066 @ 굴렁썰는 자전거 바퀴 봉가당, 낭 봉가당?  
 111066 #2 아니, 대막텅이에 썰, 철 썰 영 헤영 죽 돌아가 그건.  
 111069 @ 깡통차기도 헤낫수과?  
 111069 #2 으, 깡통 허영덜 차는 사름덜 셔 낫주게.  
 111069 @ 빈 깡통 차는 거예?  
 111069 #2 으.  
 111072 @ 그 다음 뽕이치기?  
 111072 #2 뽕이치긴 이거 뽕이 허영 영 탁 허민 이디 영 헤질 거 아니. 게민 그 뽕.  
 111072 @ 예.  
 111072 #2 뽕 빠당 ㅋ짱허게 이디 건들지 안 허영 디물아사주게.  
 111072 @ 아, 하하하. 아, 건들지 안 허영 드물어사 이기는 거?  
 111072 #2 이것이 니가 짝 노민 이디가 고망 나. 고망 나 난디 코짱, 이거 하영 디물민 하영 이거 따 먹을 거주게. 미를 빠당.  
 111072 @ 예.  
 111072 #2 옛날은 그 미를 막 빠당 먹엇주게. 이젠 내불엄주만은. 이젠 안 먹어.  
 111072 @ 안 먹어.  
 111072 #2 게난 옛날엔 미 빠당 뽕이치기 허영 그거 저 따 먹엇주게.  
 111072 @ 으.  
 111072 #2 겐 보리고고리도 그슬영 먹고 그거 뽕이치기도 허고. 바당에 강 물에 들레, 그 물 안 싹 뽕 그 뽕이치기 보리고고리 기슬영 먹고 막 헛주게. 미 빠, 미 빠젠 인척 가 물에 들레.  
 111072 @ 아.  
 111072 #2 가멍, 가멍 이제 새왓디 들영 미 빵 벨라 먹젠 이젠 인척.  
 111072 @ 아, 물에 인척 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새왓디 강 미 빵?  
 111072 #2 으, 새왓디 강 미 빵 벨라 먹어, 미 벨라 먹어.  
 111075 @ 예. 고무줄 놀이는 어떻 헤낫수과?  
 111075 #2 고무줄 놀인 고무줄 저디 신가, 이디 신가? 막 제국시덴 간고노. 무 시거 허멍 현디 이젠 다 잊어불언.  
 111075 @ 으, 노래 부르멍.  
 111075 #2 으.  
 111075 @ 노래 부르멍 막 튀멍?

111075 #2 으, 튀멍 헤난디. 겐 영 헤영 오그림도 허고 그냥 이레 가곡 저레 감도 허고 또 영 헤영 영도 허곡 헤낫주기게.

111075 @ 줄이 점점 올라가기도 허고?

111075 #2 으, 으. 경헤난디.

111078 @ 베떨락은?

111078 111078 #2 베떨락은 베 치민 베떨락이곡게.

111078 @ 이것도 혼자도 허고 ㄱ치도 허고?

111078 #2 아니 ㄱ치 주로 허여.

111080 @ 그네도 허여 낫수과?

111080 #2 그네 주로 허주.

111080 @ 예.

111080 #2 거 일이 그자 베 돌아메영 폭낭에. 앓앙.

111082 @ 예. 한다리인다리는 어떤 것과?

111082 #2 영 거이 한다리인다리 허멍 못 헌 사름은 이거 하나 즘재와. 겐 또 이제 영 허영 어떻 허멍 인다리겐다리, 잊어먹엇저.

111082 @ 겐 다리 여러 개를 영 낳?

111082 #2 으, 이 사이레 이 사이레 뺨어 낳.

111082 @ 예.

111082 #2 인다리겐다리 무신 다리렌 허여 낳 이제 그거 손 마지막 간 사람은 지여 이거 오그려야 돼여. 잊어먹어졌저.

111082 @ 예.

111083 #2 인다리겐다리 뿃이엔 헤져신디 것도 안 헤부나난 잊어붙어졌저. 불르지 못허켜 이제 불르렌 허믄.

111083 @ 예.

111083 #2 인다리겐다리 뿃이엔 헌디 잊어먹어전 못 글으켜.

111001 @ 게민 이거 말고도 막 놀아난 거 뭐 잇수과?

111001 #2 오주메, 오주메 허여.

111001 @ 아, 오주메 허멍.

111001 #2 으, 험벽에 요만씩 허영 모살 담앙 그 오주메.

111001 @ 게민 오주메도 여자 남자 다 구분없이 허여.

111001 #2 아니, 여자가 허여, 여자가.

111001 @ 또 다른 건 엇주과?

111001 #2 으, 오주메 기자, 주녕이 발락, 강강술래 것베긴 안 헛주게.

111001 @ 주녕이 발락은 아까? 누으면 거기 걸영 이자가는 거지예.

111001 #2 으.

111001 @ 예, 예. 그걸 주녕이 발락?

111001 #2 으, 주녕이 발락. 주녕이 발락 잘 허주. 뿃 타는 것거치 사람이 짝 굽

으민 이쪽 손 심고, 저쪽 손 심영 쪽 굵은 사람 우이 걸어오는 건 주녕이 발락.  
111001 @ 예.

## 12. 통과 의례

### 출생

112001 @ 자식이 몇이과?

112001 #1 나 아기 네 개 낳주게.

112001 @ 네 개예.

112001 #1 아덜만 네 개 낳 시 개. 처음 하나 난 아덜은 죽어벳주게 옛날에.

112001 @ 다 키와 가지고?

112001 #1 그 하나 첫 애기는 돛 돌아왕 죽고게 뇌수막염으로.

112001 @ 으.

112001 #1 경헨 죽어불고. 이제 남은 것덜은 다 결혼시키고, 다 장계 보내고 현 후에 아덜 성제 나고 현 후에 아덜 돌아가 불언.

112001 @ 아덜 성제 난 후제?

112001 #1 저 아덜 저편쪽에 아덜 낳고. 이 현 우와게 입언에 앞에 앓진 아덜. 두 번째 아덜.

112001 @ 아, 사고로?

112001 #1 으?

112001 @ 사고로?

112001 #1 아이고 아판 병으로.

112001 @ 병으로.

112001 #1 간 수치 막 높은 걸 그 무신 약 달령 먹으멍 수치 안 올람젠 허단 보난 병을 키완. 서울꺼지 가난 수술허젠 허난 그 간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허멍 죽젠 허난 못 헨게.

112001 @ 아.

112001 #1 겨난 그 아덜로 나 다 늙엇주.

112001 @ 아이고, 아파부난.

112001 #1 아판계. 곧 죽어 가멍, 경 무사 죽영 가는 시꺼지 다 아느니. 난 멧 시에 노형 성당으로만 갈 겨우텐. 그땐 이 저 거세기 무신 절이렌 헤라. 스월에 성 당에서 아구 제기 곧젠 허난 잊어불엇저.

112001 @ 아,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언제 돌아가실 거렌 곤는 거?

112001 #1 으, 다 곧고 다 오랜 헨 다 마지막으로 다 울고 다 악수허고 조케도 저것덜 다 불령. 군인 간 아덜도 다 오랜 허연. 부지런히 살렌 허멍.

112001 @ 으.

112001 #1 저 앞에 앉은 아덜 미국 놈 님은 아이주게. 경허영 군인 가난 열심히 살렌.

112001 @ 아이고, 가슴 아팠수다.

112001 #1 가심만 아프냐게, 아이구.

112001 @ 계난 옛날에 삼춘이 영 애기 가졌을 때 그 때에 애기 잘 크렌 태교 같은 거 있어났수과? 배 속에 잇일 때?

112001 #1 아니, 이딘이 이 저 미신이라고 안 허여. 동촌더레 님지 안 허영. 저 우리 물질 가민 표선이레 동촌 사름덜 그 강원도 가도 물색 험벽 다 허고.

112001 @ 으.

112001 #1 다 허영 그.

112001 @ 물색 험벽 허는 게 무사 허는 거라?

112001 #1 거 누게 아느냐게. 거 동촌 사름덜이. 그 물색 험벽이 아맹해도 그 마귀에 부뜨는 거인 생이라.

112001 @ 아.

112001 #1 물색 험벽 행 강 다 놓고 다 질허고 허멍 다 헤라게.

112001 @ 아니, 그거 말고 애기 갖었을 때 태교 같은 건 안 헤봤수과?

112001 #1 아무 것도 우린 안 허연.

112002 @ 예, 예. 그민 애기 갖으민 배 불러오면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예?

112002 #1 경헌디 이제는 다 배웁고 다 허니까.

112002 @ 예.

112002 #1 이제 아홉 덜허고 며칠 시민 이제 날 거다 허고 계산을 딱 허지만은 옛날은 열 달만이 나는 거엔만 헛주 경 그런 거 아니 행 헤낫주게.

112002 @ 예.

112002 #1 경허민 날 덜 웨민게 아기 때 맞추민 다 준비 행 놔 뒤사주게.

112002 @ 뭘 준비행 놔 둡니까?

112002 #1 아기 기저귀 델 거여. 아이구, 옛날 보리낭 망탱이에 담양 아기 해산 허민 어디 무신 산부인과 가나시냐? 산부인과도 엇엇주.

112002 @ 아.

112003 #1 아기 내우는 할망 돌아당 앓지고 망탱이에 보릿낭 담양당 아깃방석 아기 낭 털어져 나민 그거 베똥줄 즐라뎡 끈영 그 망탱이에 담양 경허영 그 망탱이 사흘 동안 베엇당 그거 어디레 강 물러레 강 데끼나 어디 강 스나허주게.

112003 @ 사흘 동안 베엇당?

112003 #1 어, 아기 몸 곰, 아기 밥 헤영 먹는 날사.

112003 @ 아.

112003 #1 경헤라.

112003 @ 예. 머리 대고 베엇당? 어뎡허영?

112003 #1 영 직산허영계 등이영 머리맛디 망텡이에 보리낭 헤영.  
 112003 @ 으, 으.  
 112003 #1 흐뎡 일어낭 앓은 뎨 영 직산헤영 늑도 허곡계.  
 112003 @ 아, 경 헛당 나중예 버리는 거?  
 112003 #1 으, 경헤라계. 우린 헤여봐샤?  
 112003 @ 아.  
 112002 #1 아래도 보리낭 끌고.  
 112002 @ 아래 깔고.  
 112002 #1 우리 두 번채 난 아덜 날 뎨 보리낭도 아니 끌고 고산 강, 아방 교직  
 으로 신 때난 그디 강 경 나난 윈 그거 뉘 끌 어간이 엇어. 경 허연예 낱고. 이 큰  
 거 난 때 이 보리낭 허연 헛주기계.  
 112002 @ 집이서?  
 112002 #1 집이서 허주 어디 강?  
 112002 @ 예, 집이서예.  
 112002 #1 아기 내우는 할망 돌아당.  
 112002 @ 으. 기민 기저귀 감 준비허고예, 지성귀 헛 거 준비허고 보리낭 깔 거  
 준비허고.  
 112002 #1 아기 구덕은 낭 흐뎡 싯당 허여 오주기계.  
 112002 @ 음.  
 112002 #1 늑 녹지던 거 빌어도 왕 임시 허고. 그 구덕은 매시 사샤?  
 112002 @ 음. 얻어 오는 거?  
 112002 #1 으.  
 112002 @ 애기 날 때 봐 주는 할망은 동네예 십니까? 받아 주는 할망은?  
 112002 #1 받아 주는 할망, 내우는 할망덜은 셔 트멍예. 우리 시할망도 내와나  
 고 요디 순일이 어떻네 해 셔. 경험 삼양계 혼.  
 112002 @ 기민 밧디 강 일허당 아프민 오는 거?  
 112002 #1 아과 가민 와사주기계.  
 112002 @ 와사주. 게민 물 꿰우멍?  
 112002 #1 으?  
 112002 @ 물도 꿰우고?  
 112002 #1 무사 물 꿰와?  
 112002 @ 애기 나민 시쳐야 뉘 거 아니?  
 112002 #1 아기 물 저 거세기, 난 후제 헤도 허주계.  
 112002 @ 난 후제라도.  
 112002 #1 지성귀 싯당.  
 112002 @ 아, 바로 나민 지성귀 싯 놆 뉘당?  
 112002 #1 으, 어느제 아기 날 줄 알앙 물 꿰웁느니? 아기 낱사 물 데우라, 물

데우라 허영. 물 꿩지 안 허영 미지그랑이 데우는 거난.

112002 @ 으.

112002 #1 보리낭불, 솔썩불에 데웁주게.

112002 @ 계난 큰아덜 날 때 얘기를 쭉 헤줍서. 어뎡 행 큰 아덜 낳수과? 그냥 집이 잇일 때 베 아판?

112002 #1 우리 큰아덜 날 뎡이 유월 열흘날 난디 도망간 건 원 건 세지 말고.

112002 @ 예, 예.

112002 #1 낳젠 허난이 아, 오월, 오월 스무닷새쯤에 막 베 아판게. 아 겐 그때 나지카부덴 막 헌디 강제 싱그레도 안 갖주게.

112002 @ 예.

112002 #1 베 아판 아기 나지카부덴.

112002 @ 예.

112002 #1 아, 경해도 나 원 아길 오래 벨 안 맞춘디 아이 그날도 아이 난. 경혜영 혼 열흘 잇단 유월 열흘날사 아깃베 맞췄 나저라게.

112002 @ 으.

112002 #1 그 아기 낳젠 해도 경 허는 생이라이. 베가 잇당. 아기 자리사 움직여신디.

112002 @ 으.

112002 #1 경 허영 낳저게.

112002 @ 계난 열흘 동안 일 안 헛구나.

112002 #1 아니, 일은 물도 질어오고 헛주기게. 널 조킵질 메레 가젠 물 허영 항 다 ㄱ득이고 그, 그 강제 싱그는 날 혼 이틀만 아파. 똑 췌병 모양으로.

112002 @ 하하.

112002 #1 난 막 미안해낳저 우리 시아방네. 췌병거치 경 안 허냐?

112002 @ 예.

112002 #1 일 때에만 아판 글후젠 아프지 안 허영 메칠은게 허여 나난.

112002 @ 겐 아침이 낳수과 저녁이 낳수과?

112002 #1 밤이.

112002 @ 밤이. 막 오래 아판?

112002 #1 난 경 오래 안 아픈디. 췌 얘기도 제기 쉽게 낳나난 오랜 안 아파. 늙은 일주일이여 사흘이여 메칠이여 허여도 난 췌 아기도 아침이 어뎡 일어남 시치령이 열고 어뎡 추운 기 난, 그날 겨울이난 누웠단에 즈물아 가난 즈낙 허젠 가난 우리 시어명도 흐뎡 알아신 ㄱ라 “저, 강 누라. 나 즈낙 험시켜, 험시켜.” 해도 즈낙 혼디 행 먹영 완 밤이 열흘 시쯤에 나주게.

112002 @ 으.

112002 #1 아기 안 낳 보난 몰란이.

112002 @ 으.

112002 #1 탁 곳인물이 탁 알로 나오난 아기 나왓시카부텐 겁난게 나.

112002 @ 예.

112002 #1 경혜영 그때사 아방ㄴ라도 아이고 아기 나짐직 허텐 허여사 그때사 시어멍신디도 곶앗주게.

112002 @ 으.

112002 #1 계난 아기 낳젠 허민 그 물이 므녀 나사 아기 남이 쉽넨. 경 곶아라. 경혜영 나주기게.

112002 @ 경혜영 그 곳인물 나온 후제 흐끔 잇이난 나주기게.

112002 #1 나주게.

112002 @ 경허난 곳인물 나온 후제야 방에 보리낭 곶고?

112002 #1 어게. 출럿주게.

112002 @ 출린 거라예. 경헨 이제 내우는 사람 불르레 가곡.

112002 #1 음.

112003 @ 그민 그 얘기 나면 그 테랑 텃줄?

112003 #1 으, 그 멩텅이에 답앗당.

112003 @ 그거 누가, 누가 잘라?

112003 #1 거게 아기 내우는 할망.

112003 @ 할망이. 경헨 그거 멩텅이에 답앗당?

112003 #1 으. 보리낭이영 행 답앗당 머리 금는 날은 앓아베라게.

112003 @ 기민 얘기 나면 바로 찢기는 게 아니고, 아니, 머리 금지는 날 따로 잇수과?

112003 #1 삼일, 삼일 만이, 아니 그 매날이라도 삼일은 뉘민 밥 허영 다 오락 혜영 맥이고 아기 앞 헛젠 허여.

112003 @ 누게안티 밥 맥이는 거?

112003 #1 이 동네 사름이라도 오민게 먹으랑도 허곡게 아기 앞 혜근에 거저 와서라도 허고 경 헤라 우리.

112003 @ 아기 앞 허영?

112003 #1 어.

112003 @ 아기 앞 허다는 게 무슨 말?

112003 #1 아기 낭 삼일만이난 아기 머리, 몸 금지는 날이난 밥 허영 맥으렌 행 먹엇ㄴ랑도 허고 영 늙은 할망. 그뎨 쓸빳 허여사. 밥도 삼일만이 쓸밥 허민 오랜만 이게 이젠 흔헛주만은 왕 먹으랑도 허고 헛주게.

112003 @ 잔치 현 건게예?

112003 #1 잔친, 크게 안 허곡게. 영 삼 이웃게.

112003 @ 예. 계난 얘기 태어났덴 축하헤 주렌 허난 동네 사름안테도 밥 주고 현 건게.

112003 #1 으.

112003 @ 아, 그때까지 보관헛당. 데껴부는 건 어디 강 데껴부는 거, 텃줄?

112003 #1 텃줄 데낄 땀이, 바당에.

112003 @ 으.

112003 #1 옛날은 그 조막단지에도 담아근에 얽엉 거져 갓당 데끼고 겁녕도, 이 전복 그땐 훑은 전복 거 마주얽엉도 허곡 그땐 깡통이 어려와났저게게.

112003 @ 예.

112003 #1 경허난 그 깡통 신 사름덜은 깡통에도 담양 데껴붙고 경 안 허민 슬 아빌고. 그 보리낭불덜이영. 다 헤영 슬아붙고.

112003 @ 데껴.

112003 #1 어디 강 팡 묻어붙고 경 헤라.

112003 @ 으. 데껴부는 건 바당 강 데껴부는 거?

112003 #1 어디사 강 데끼신디. 어, 데끼는 건 바당물에 강 데껴라.

112003 @ 스는 건 어디 강 슬암서.

112003 #1 어디 터진 방세에 강.

112003 @ 슬아 붙고 경 헛구나. 그때 텃줄이렌 안 헛지예, 그걸 뒀렌 불러났수 과?

112003 #1 으?

112003 @ 그걸 텃줄이렌 안 허고?

112003 #1 아깃방석.

112003 @ 아깃방석이렌 이름 불렀엇던 거?

112003 #1 으. 아기 앓아난 거난.

112003 @ 예.

112003 #1 아깃방석, 아깃방석 헛주. 이제난 텃줄 헛주, 베똥줄, 베똥줄 허고.

112003 @ 베똥줄, 베똥줄 허고 아깃방석 허고예?

112003 #1 으.

112004 @ 예. 그 애기 나 나면 음식 헤 주잖아예, 산모안티 뭐 먹으렌.

112004 #1 으.

112004 @ 어떤 음식?

112004 #1 메역국게.

112004 @ 메역. 뭐 낵 메역국 헛니까?

112004 #1 놀래기 사당 놐 뒷당 놀래기 국도 해주곡게.

112004 @ 놀래기?

112004 #1 으, 들리지 안 현 거게. 나까온 레기 허영 놐 뒷당.

112004 @ 그 바당레기 이름 뭐?

112004 #1 생성 거튼 거게, 돛 거튼 거. 끌렁 먹는 종류 허여당 낏당게.

112004 @ 음.

112004 #1 장죽이라도 메역죽 끌렁 줏주게 주로.  
 112004 @ 주로. 믱물즈베기는 안 헛수과?  
 112004 #1 믱물즈베기 메역죽에 끈어 낱 허여 주곡. 우리 시어멍넨 옛 허여, 옛 허영 즐랏다근에 가망케 즐랏당 칭주, 술 허영 칭주 허곡이 그 옛에 믱물궤루에 카. 빼 아프지 말랑. 캉근에 시접으로 하나씩 줘라.  
 112004 @ 아, 믱물궤루에 옛 만들앙?  
 112004 #1 아니, 믱물궤루에 옛 만든 거 거려 놓고 믱물궤루 놓고 칭주 술 낱 첫영.  
 112004 @ 어.  
 112004 #1 경허영 먹으민 것이 드근허영 시장기도 안 나고 경 헤영 피 배도 삭 아지곡 헤라. 매번 아기 난 때 거 헤 줘라.  
 112004 @ 시어머니가?  
 112004 #1 어.  
 112004 @ 아이고.  
 112004 #1 우리 어머니네도 친정어머니네도 메누리 아기 난 때 경 허는 것도 잇고.  
 112004 @ 음.  
 112004 #1 옛날은 제서 때에도 옛 즐랑 그 떡 찍어 먹으렌 우리 어머니넨 그뎨 옛날 부제곡 허어나난. 옛 즐랑 떡에도 내여 놔낫저.  
 112005 @ 애기 목욕은 아까 삼일 후제사 시키는 거?  
 112005 #1 아니 난 때에 그 궤난 거 멘들멘들헌 거영 하루 혼 번씩 시치주기게.  
 112005 @ 음.  
 112005 #1 경허영 시쳐도 사흘 뉘민 머리, 몸 곱는 날이엔 헌다.  
 112005 @ 으.  
 112005 #1 이 아기 어멍이 그날은 숙 숲앙 아기도 몸 곱고 우리도 다 몸 곱아. 겨난 아기 머리, 몸 곱는 날이여.  
 112005 @ 음. 아기 머리, 몸 곱는 날?  
 112005 #1 으.  
 112005 @ 기구나예. 케민 아기 몸 곱질 때는 뉘 여기 막 벗겨 내야 할 거 아 니?  
 112005 #1 숙 숲은 걸로 북북 허게게 다 뉘경. 그 옛날 우리 아기 날 뎨 그 궤루분.  
 112005 @ 궤루분.  
 112005 #1 영 즈금탱이에도 블라주고.  
 112005 @ 큰아이 날 때도 그거 잇어낫수과?  
 112005 #1 거 셔난.  
 112005 @ 아, 궤루분 블라주고, 예.

112005 #1 어.

112006 @ 애기 나면 입히는 옷 잇잖아예?

112006 #1 으, 베.

112006 @ 베, 베로 만든 거.

112006 #1 베로 멘든 거.

112006 @ 그거 뭐렌 불러낫수과?

112006 #1 거 잇어벧저.

112006 @ 붓뎃옷, 붓적삼?

112006 #1 붓창.

112006 @ 붓뎃창옷?

112006 #1 어, 붓뎃창옷.

112006 @ 거 뭐로 만들어난?

112006 #1 베로, 베로.

112006 @ 무사 그거 베로 만들앙 입져신고예?

112006 #1 슬그랑이게 그 뿃허렌 베로로만 헤라 그뎃. 미녕도 안 허고, 광목도 안 허고.

112006 @ 계난 그거 여름에만?

112006 #1 아니, 겨울에도 거 입져.

112006 @ 겨울에도.

112006 #1 어, 태어나민 그자 거 붓뎃창옷 입져.

112006 @ 거 삼춘냥으로 만들어낫수과?

112006 #1 늬의 거 빌어당도 입지곡 이녕냥으로 멘들앙도 입지곡. 난, 난 입지긴 헤도 어떻 나 멘들진 안 허여.

112006 @ 아, 멘들진 안 허연.

112006 #1 으.

112006 @ 언영 와신게.

112006 #1 어떻사 우리 어무니네 허연 헤신디. 그때사 췧 애기라 두렁청 허곡게.

112006 @ 하하.

112006 #1 부끄럼만 허고이 그거 저거 경험이 셔사게.

112006 @ 뭐가 부끄러워?

112006 #1 하하, 옛날은 시집가는 것도 부끄러왔저.

112006 @ 하하하. 아, 계난 애기 난 것도 부끄러워?

112006 #1 부끄럼주기게.

112006 @ 아고게. 장헌 거주게. 아, 옛날에는.

112006 #1 시집강, 장계강 혼디 걸젠 헤도 우린 걸지 못허게 행 나 와랑와랑 들 앙 앞이 강 걸곡 헛저 느시. 걸지도 안 허젠 허연. 누게 받젠 허멍.

112006 @ ㄴ찌 견젠 안 허여. 하하.

112006 #1 이제 사름덜 거추룩 경 바라져봐사게.

112007 @ 음. 맞아예. 애기 크멍 아프지 말렌 할망상 같은 거 험니까? 할망상?

112007 #1 옛날 할망상 낫주기게.

112007 @ 으. 할망상 놓는다는 게 어디 놓는다는 거?

112007 #1 구들 구석에 상 출렁, 자리 출렁 할망상 놔근에 절 허고.

112007 @ 언제?

112007 #1 초일뤼, 초사흘. 혼 덜에 혼 번 허는 사름 싯곡 어떻 허당이나 허주 경 매번은 안 헌다게.

112007 @ 그럼 애기 태어난 후제 아니면?

112007 #1 태어난 후제게. 키우멍.

112007 @ 키우멍. 애기나 아프곡 헤 가민 겐 멧 설꺼지 그런 거 험니까?

112007 #1 돛이나 넘어가민 안 허여.

112007 @ 아.

112007 #1 돛 전이.

112007 @ 게민 그 사이에 아팡.

112007 #1 으, 허카부덴.

112007 @ 보내부는 아이들이 옛날에.

112007 #1 으, 오죽 하사게. 옛날에사. 침이나 농곡 그자 할망상 놓고 기웁환.

112007 @ 으.

112007 #1 이 아기 약 멕이는 약은 그자 기웁환. 경헤라, 우리도 허여 보민.

112007 @ 겐 삼춘도 할망상 영 놔 보고 헛수과?

112007 #1 으, 나도 놔 받. 애기덜 키울 때.

112007 @ 할망상에 뭐 올립니까?

112007 #1 쟈시에 밥 허영 거리곡게 물 농곡 쓸 농곡게 아무 것도 안 허여. 경 허영 빌어줘.

112007 @ 아.

112007 #1 경허영 그 밥도 물러레 줍아 놓고 쓸도 줍아 낭 데경 앓아붙고. 어쨌 든 그뎨 성당도 영 안 험 때. 글후제 막 성당이 컷주게.

112007 @ 게난 그 상, 할망상 찰렁 그 방에 ㄴ만히 놔 두는 거 아니예? 올렛당 치윳당 허는 거?

112007 #1 오게. 올려냥 다 앓아비는 거.

112008 @ 예. 애기 나면 머리가 잇잖아예. 머리 좀 난 상태로 나오잖아예, 그 머리를 뒤편 험니까?

112008 #1 그냥 머리엔 허주게.

112008 @ 그냥 머리. 베넛머리, 베속엿머리 그런 거 안 헤?

112008 #1 베속엿머린 허다근에 스윌 초파일 뉘나마나 깎앗주게게.

112008 @ 으, 사월초파일.

112008 #1 으, 베속엿머린 그자 경허영 스월초파일날을 곳아사게.

112008 @ 애기덜예?

112008 #1 으, 경혜사 머리 좋나.

112008 @ 머리 곱게 난다는 애기지예?

112008 #1 으, 으.

112009 @ 옛날에 그 천연두나 홍역 헤 가지고 애들 많이?

112009 #1 하영 죽엇주기에.

112009 @ 아팠잖아예? 그민 그거 오민 어떻 헤낫수과?

112009 #1 점례 본 다음이 주일 막 허주게 아기 앞에서 뭐 곧지도 말고 경행 점례 봐근에 막 하영 죽곡 현다.

112009 @ 점례 본다는게 무슨 말?

112009 #1 할망이.

112009 @ 예.

112009 #1 그 점례 보민게 아이 좋앙게. 아니 존 것ㄴ라 점례 본덴, 할망이 승 본다.

112009 @ 승 본다.

112009 # 으. 승 본다 경혜.

112009 @ 겐 아이덜 홍역 행 막 열 나고 험시민 그 점례를 보는 거?

112009 # 아관계, 잘 못 어명이라고 앞서서 무신 말 곶으민게 그 허곡게. 그 구 실 혈 때이 도새기나 어디 잔치헌 때 현 것도 아이 뵈우젠 현다게. 그런 거 보민 경 현덴 허영. 구실 혈 때 현 건 막질 못 현덴.

112009 @ 아, 그거 보민 안 되는 거?

112009 #1 으. 막 구실 혈 땀 막 정성이 하주게.

112009 @ 그거 아픈는 거 구실 현덴 험니까?

112009 #1 어, 홍역.

112009 @ 홍역.

112009 #1 어. 구실이엔도 홍역이엔도 허고. 옛날은 구실이엔 헤낫주기에 할망 덜은. 죽은구실 큰구실.

112009 @ 아, 그 홍역을 구실이엔 헛던 거라예?

112009 #1 으.

112009 @ 구실. 죽은구실, 큰구실?

112009 #1 으. 큰구실은 막 엷고 차단허고 허는 것이 큰구실 본치나고. 이 죽은 구실은 그냥 낭근에게, 제기 허주게. 큰구실은 허민 차단헤영 물도 다 저다주곡, 사 름 금지허곡.

112009 @ 차단헌다는 게 집이 사름덜 밖에?

112009 #1 금허는 거.

112009 @ 안 나가는 거?

112009 #1 으, 밖에 나가지 못 하게 하여. 뜯 디 전립헌텐.

112009 @ 전립한다고, 전염한다고?

112009 #1 으.

112009 @ 계민 동네 사름덜이 물도 쳐다 주고.

112009 #1 으, 저 도터레 낡 내불민 들러당.

112009 @ 아, 그럼 큰구실 허민 완전 큰 병인게예?

112009 #1 예구, 양지에 막 본치. 우리 시아방도 큰구실에 허영 양지 스못 다  
줍아지명 눈이영 다 벨라진 하르방.

112009 @ 아.

112009 #1 고운 얼굴이 엇어 그 흥역 허영 뤼게 허여 나민.

112009 @ 계민 삼춘네 아이들은 경 안 해낫수과?

112009 #1 우린. 글후젠게 예방 접종덜도 허고 허난 글후젠 아니 해 봤주기게.

112009 @ 으.

112009 #1 옛날 우리 험 때 큰구실, 누게네 집이 큰구실 험저 현다 허여 낫저  
게. 우리보단 험 예실곱 설 난 아으덜도 다 엇고 해낫주게.

112009 @ 으, 게니까 삼춘보단 우에예?

112009 #1 아래, 아래.

112009 @ 아래도 그거 나 가지고.

112009 #1 옛날 할망덜은 흥역이엔 벨로 안 헛주기게. 큰구실, 족은구실.

112009 @ 으.

112009 #1 저 동촌더렌 어떻사 헤신디 몰라도. “아이고 연옥이네 집인이 큰구실  
험젠 험세.” 경 곶으멍. 흥역이엔 현 건 이제 표준어로 말허는 거주기게.

112009 @ 표준어지예?

112009 #1 어. 경헌디 큰구실 족은구실은 옛날 할망덜이 내려오는 말.

112009 @ 음. 그거 풋터지는벙이렌은 안 곶아낫구나.

112009 #1 으.

112009 @ 그냥 큰구실, 족은구실예.

112009 #1 으.

112009 @ 삼춘네 성제는 몇이과? 아이덜 말고 형제.

112009 #1 성제간?

112009 @ 어, 어.

112009 #1 우리 시성제에 오빠 하나.

112009 @ 그럼 그 형제간에서도 이거 안 걸려난마씨?

112009 #1 으.

112009 @ 그민 여기.

112009 #1 큰구실, 족은구실도 다 걸리는 거 아니.

112009 @ 다 걸리는 거 아니예. 이거 할 때 금기해야 허는 거?

112009 #1 그 집일 못 가.

112009 @ 어디 못 가.

112009 #1 그 집일 차단헤영 땡기지 못 허게 허영 전렴한다.

112009 @ 그니까 이 집안에서는 뭐 금해야 되는 거 잇수과? 예를들면 무슨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112009 #1 아니, 그런 거.

112010 @ 그런 건 엇고예. 출산헤 가지고 애기 낳을 때 금해야 되는 거 잇수과?

112010 #1 아니.

112010 @ 그런 거 엇어.

112010 #1 아니, 사름은 비린 사름 오지 못 허게 금허영. 정성허는 사름은 금줄 메고.

112010 @ 금줄 메고예. 저기 금줄은 저기 노?

112010 #1 노 허영 웨 노 꼬양.

112010 @ 웨 노 꼬고 금줄 메고예, 예.

## 혼례

112011 이제는 결혼식 물어보쿠다예, 혼례식. 옛날에 구식 결혼식 어떻 헤낫수과? 옛날 잔치, 삼춘 잔치헐 때 생각해 보민?

112011 #1 돛 잡곡게.

112011 @ 예.

112011 #1 돛 잡곡게, 오늘 널 잔치헐 거민 오늘 다 돛 잡고들 다 전지 지지고 다 헛당게. 잔치날은 새시방부터 새각시침이 와, 들러리 허고. 우시엔 헤라 들러리엔 안 허고. 우시덜 남자영 여자영 왕 이젠 새시방 상 받고 다 헤 나민 예장 받지고 헤나민 새각시 모성 가낫주기게. 가메 탄 나도 갖저, 가메 탄.

112011 @ 가메 탄 간 거. 하하하. 삼춘은 두모인 거고.

112011 #1 으, 경허난에 아방은 저 우리도 영 가까운 디난 걸영가렌. 난 걸영은 죽어도 아이 가켄 헛주게. 겨난 난 가메 탄 오고 아방은 걸언 오고.

112011 @ 아. 그냥, 그냥 걸어 갈 수 있는 길인디?

112011 #1 으.

112012 @ 하하하. 옛날에 그 결혼을 허젠 허민 누게가 영 중매를 설 거 아니과예? 게민 어떻 그렇게 이 사름이영 결혼허켜 허는 게 정해지는 것과? 거 쪽 한 번 굴아주민?

112012 #1 난 아느냐게.

112012 @ 아.

112012 #1 그 중매허는 하르방이게 그 저 신랑 아버지가 어디 메누리 허고 시

프다 허영.

112012 @ 예.

112012 #1 계난 중매 성 흐끔 말해 줘서 허민 그 하르방이 신부집이 왕게. 신부 아방신디 여쭙주게. 경허민 므음에 시민 주곡. 옛날은 이 새각시 므음대로 못 해서. 부모가 가라 허민 가야 허고.

112012 @ 예.

112012 #1 경허난 그칠룩 허영 나도 막 부끄럽고게 시집 아이만 가젠 막 허여도 우리 아버지가 흐못. 이 집 시집 아이 가민 나 딸로 취급도 안 허켄 막 허여.

112012 @ 으.

112012 #1 우리 어무니도 흐끔 반대 헛주기게. 우리 아버지 흐못 이기지 못허연. 우리 어무니도.

112012 @ 으, 으.

112012 #1 겨난 혈 수 엇이 나도 시집 갖주기게.

112012 @ 삼춘 무사 시집 안 가젠 헨?

112012 #1 그뻐 어떻사난 산디이.

112012 @ 으.

112012 #1 우리 하르방, 시아방도 복복 얽은 하르방이고 허난이 그 하르방만 봐 가민이.

112012 @ 무서왕?

112012 #1 아니만 가켄 막 헨.

112012 @ 아, 저기 신랑을 본 게 아니고.

112012 #1 하르방, 하르방.

112012 @ 하르방 봐 가지고.

112012 #1 시아방.

112012 @ 시아방. 무사 시아방이 무서왔수과?

112012 #1 막 줘가지고 큰구실 허연게.

112012 @ 아.

112012 #1 딱 등여지곡 허난 흐끔 저 므스운 하르방 왁저 헤가민 막 돌아나곡. 막 줘야빌곡 하르방, 아이덜.

112012 @ 아, 계난

112012 #1 우리 시아방은 저 우리 셋아덜 푸더전 흐끔 옹옹 허고 실게 허주기게. 계난 등뻐이에 돌 지들봐 된 간 하르방이라 독험도 허고.

112012 @ 하하하.

112012 #1 겨난 나도 아이만 가켄해도.

112012 @ 그냥 간 거?

112012 #1 가난 또 무사 아긴 똑 베여지느니?

112012 @ 가난 바로 얘기 생겼수과?

112012 #1 아니, 흥끔 오래 싯단 헤도게. 그 해에 아긴 싯주기게. 아고, 아고.

112012 @ 계난 어쨌든 그 결혼헐 때는 저쪽 시택 어른이 와 가지고 중매를 섭서 허는 겨우다예?

112012 #1 으, 새각시 그 집더레 강 중매 험, 말헤 줍서 허민 새각시 집이서 이제 막음에 시민 허고 엇이민 말고 경허영 중매를 헤낫주게.

112012 @ 음.

112012 #1 남저칩이서가 헤 도렌 헤사게.

112012 @ 남저칩이서 헤 도렌 헤사예?

112012 #1 어.

112013 @ 예. 거 흑시 막펜지렌 현 거 알아지쿠과?

112013 #1 으, 막펜지엔 현 거 날짜 잡앙 거저 가는 날.

112013 @ 어디서 날짜 잡앙?

112013 #1 남자가. 남저칩이서가.

112013 @ 예.

112013 #1 이젠 어디 강 들으민 무신 헤치에 무신 거 놓민 공합이 맞인 거 안 맞인 거, 경허영 공합 맞앙 좋덴 허민 이젠 그 새각시칩이 그 보아난 거 거세기 허곡 허영 술이영 허영 거저 가는 겨주게 술이영.

112013 @ 으. 계민 날짜 잡앙 가져 가는 게 막편지가 되는 거? 결혼 날짜?

112013 #1 아니.

112013 @ 아니, 그럼?

112013 #1 건 영허영 종수다 허영 막펜지 거저 강 이젠 저 택일 안 허영 잔치 택일 헐 때사 막펜지고 이건 이철록 허영 종수다 허영 거저갈 때가 기주기게.

112013 @ 계난 저 신랑 난 날 놓고 신분 난 날 낱 들이 영 종수다 허는?

112013 #1 공합 맞앙 이젠 종안 이제 우리 허쿠다 허연 가져가주게.

112013 @ 아, 그게 막펜지인 거예?

112013 #1 으, 막펜지 가져 강.

112014 @ 이바지는 어떻 헤낫수과, 이바지?

112014 #1 이바진 저 저 결혼헐 때에 결혼허젠 허민 그뎨 또 의논허는 겨주기게. 쓸도 아이 받을 사름은, 쓸 시꺼 가나세게. 새각시칩이. 계민 쓸 흥끔 사는 사름은 이녀 아기 풀멍 쓸 아이 받으켄 허고, 우리도 쓸 아이 받았주기게.

112014 @ 계민 쓸은 신랑칩이서?

112014 #1 신랑칩이서가 다 거저가주기게.

112014 @ 신부안티?

112014 #1 신부네 집이.

112014 @ 그 잔치 헤 먹으렌?

112014 #1 어. 쓸 혼 섬 가져 갖저 현다 스물말 거저 왓저 현다덜 막 그때 헤낫주기게.

112014 @ 예.

112014 #1 경허민 이제 신부네 집이 시켜갖주기계.

112014 @ 으.

112014 #1 도새기도 시켜 가는 딴 듯 혼 마리 행.

112014 @ 으. 켜 그 이바지가 잔치 해 먹으려펠 행 보내는 거구나?

112014 #1 으.

112014 @ 신랑칩이서가 신부칩더래.

112014 #1 으. 저 막펜지는 이제 그 궁합이 좋다 허영 거쳐 가는 거고.

112014 @ 으.

112014 #1 경허는 거.

112014 @ 게민 막펜지는?

112014 #1 막펜지는.

112014 @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112014 #1 으.

112014 @ 이바지도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112014 #1 으게.

112014 @ 으, 가져가는 거예? 게난 옛날에는 쫄이영 도새기 꿰기영.

112014 #1 으.

112014 @ 잔치해 먹을 거?

112014 #1 으.

112015 @ 삼춘 결혼할 때 혼수는 어떻 해 왔수과, 혼수는?

112015 #1 출렁 오는 거?

112015 @ 으, 출렁 오는 거. 하하.

112015 #1 나 이불 다섯 채 허고.

112015 @ 이불 다섯 채 허고, 예?

112015 #1 화루 허고.

112015 @ 화루.

112015 #1 찬장 허고. 그땐 찬장 안 헐 때난 찬장은 헐 왔주기계. 글후제.

112015 @ 으.

112015 #1 찬장 허고 꿰 허고.

112015 @ 꿰 몇 개? 하나?

112015 #1 꿰 하나 우린.

112015 @ 으.

112015 #1 그때. 글후제 혼 바리씩 헐낫주게. 점점 더 출렁.

112015 @ 예.

112015 #1 난 꿰 하나 허고. 이제 나 시집갈 때 헐난 꿰기 저디 시주기계.

112015 @ 아이구 이땅 사진 짝으쿠다. 또?

112015 #1 저 거세기. 그거, 그거.

112015 @ 저 멍지는 뭐 안 담양 오고? 저기 저기 미녕은, 저 옷 헤 입을 미녕?

112015 #1 그건 저 새집, 새서방칩이서 올 때에 이제 저 아기 지성귀 허랑 뒀 놓듯이 건 새서방칩이서 가져 오는 거, 예장 올 때.

112015 @ 아, 예장 올 때 새서방칩이서.

112015 #1 으. 빈 예장 아니 와근에 미녕 혼 빌을 놓나 베 혼 빌을 놓나.

112015 @ 예.

112015 #1 아기 기저권 그때 나도 안 현 때고 경허난 글후젠 그 아기, 나 건 아 깃 지성귀 허랑 그 저 무시겨 놔 낫주גיע. 시렁목.

112015 @ 시렁목. 게난 흥세미녕이렌 허는 게 신랑칩이서 신부칩으로?

112015 #1 어.

112015 @ 예장 올 때.

112015 #1 예장 올 때 ㄹ정 오는 거.

112015 @ 가정 오는 거. 흥세함에 넣어 가지고?

112015 #1 어, 어.

112015 @ 그거 흥세미녕이렌 헤낫구나?

112015 #1 으.

112015 @ 삼춘네는 이불 다섯 채랑 찬장이랑 퀘랑.

112015 #1 화루랑.

112015 @ 화루랑.

112015 #1 이불, 이불상이영. 이불상이엔 헛주גיע. 영 교제상칠룩현 상에 이불 개영 옛날은 놔 낫주גיע.

112015 @ 예.

112015 #1 경허난 그 이불상이 셔 낫주גיע.

112015 @ 아, 이불상.

112015 #1 거기 우에 이불을 올려 낫던 거?

112015 @ 아, 그거영. 게도 삼춘 이것 저것 막 하영 행 갖수다.

112015 #1 하영 헛젠 헤낫주גיע.

112015 @ 옛날에예. 아고. 다른 어른덜 말 들어 보민 뒀 헛덴 현 거 옛인다.

112015 #1 이불 다섯 채 출린 사름이 질 잘 출려실 거여 그때. 경 안 허민 시 채씩도 허곡.

112015 @ 으.

112015 #1 옛날은게 방도 딱시지 안 허고 새 소게덜 헤여근에 시집갈 때나베끼 더 헤사게. 옛인 집인 묵은 소게도 허영 다 보내고 허여.

112016 @ 으, 기구나. 그민 예장이 뭐과 예장, 아까?

112016 #1 예장게. 이제 남저칩이서 여저 돌아가젠 허민 아무 거세기 무슨 고씨 무시것에 허영 이름 다 씨영 경허여근에 이 저, 그런 돌아가는 거.

112016 @ 음.

112016 #1 그런 그 예장이 셔게. 도장 딱 놓고.

112016 @ 계민 그건 언제 가정 가는 거?

112016 #1 결혼하는 날 ㄹ정 가사 새각시 내치주게.

112016 @ 계난 우리, 우리 남자 삼춘은 걸영 왓주만은 다른 디 멀리 가젠 허민  
 들 탕 가지 안 험니까?

112016 #1 들 탕 갓주게.

112016 @ 그거 열어 빵 여자칩이서가, 어른들이 그거 열어 빵.

112016 #1 을양 글자, 우리 진침이 저 모슬포 시집가는 아으, 진자라도 성이 틀  
 러비난 거 새로 씨영 오렌 헨에 우리 허난 어디 강 새로 씨영 왕 들영 돌아갓저.

112016 @ 으.

112016 #1 그런 거 보는 거주기게.

112016 @ 계난 그런 거 보는 거. 삼춘 시집갈 때는 뭐 틀린 거 잇어났수과?

112016 #1 우린게 즈꺏디고 허난게. 그거 틀려게.

112016 @ 하하하.

112016 #1 이딘 멀고 모실포고 허난 무신 진자 처렐 몰라.

112016 @ 예.

112016 #1 우린 나라 진잔디 무신 진자로 헨 헤비난 우리 족은아방 이건 틀린  
 성이엔 경헤여근에 안 헛주기게.

112016 @ 그거 보멍 글자 틀린 거 잇이민 이거 아니여.

112016 #1 으, 으. 경허는 거주기게.

112016 @ 다시, 다시 썩 오라.

112016 #1 경허영 돌령 새로 씨어 오라 허고 막 까다로와 낮어.

112016 @ 예.

112016 #1 새서방 올레서부터 느람쥐 폐왕 들어왕. 하하.

112016 @ 하하하. 계민 삼춘은 그런 거 잘 못 쓰고 헨 거 잇어났수다예?

112016 #1 어게.

112017 @ 예. 이제 가문잔치 곶아줍서. 가문잔치. 잔치 헤 먹젠 허민 가문잔치  
 를 허는 거잖아예. 어떤 음식 허고, 언제 허고, 사름덜 누게가 오고.

112017 #1 가문잔치엔 헨 거 다른 디션 몰라도 이제 결혼 다 허여 낱, 경허여  
 낱 시집이서 올 때에 또 새각시 칩이서 밥 허영 가문잔치 허는 거주게.

112017 @ 지금 가문잔치는 결혼식 전날 가문잔치렌 허잖아예?

112017 #1 건.

112017 @ 아니?

112017 #1 아니고 우린 가문잔치엔, 우리 옛날 할망덜은 가문잔치 허여 먹엇덴  
 허라. 하민, 시집이 어제 시집이서 결혼허여 그디 밤 장.

112017 @ 예.

112017 #1 이젠 혼수 시집이서 비루도 치메, 양단 저고리 물린 거 다 이젠 그 시누이, 새각시 시누이나 누계 시민 보따리에 쌍 새각시영 혼디 가주기게 친정에.

112017 @ 으.

112017 #1 그때에 강 허민 새각시 오민 새시방 밥도 허영 주곡 정식으로, 가문 잔치엔 허는 거주게. 켄당덜 다 오랑 허영.

112017 @ 으.

112017 #1 어제 잔치해나난 속고 새각시 완에. 경허민 저 고기영 다 낱 거져 오주기게. 저 새시방칩이서.

112017 @ 으.

112017 #1 뒷넷날 오명 그 옷 기지영.

112017 @ 으.

112017 #1 경허민 그걸로 잔치허영 가문잔치험젠 허주.

112017 @ 아, 게민 고기 가져 오는 게, 쓸이영 고기 가져 오는 게 아까 이바지?

112017 #1 저 잔치 뒷넷날 이바지, 그 물려온 거영 ㄱ찌 거져 오명 잔치허는 거.

112017 @ 아, 기민.

112017 #1 켄당덜도 그때 광목 대자 주는 사름, 벤베루 치메 기지 주는 사름게 으라가지주게. 옥경목 대자씩 주는 할망덜도 싯곡게. 게민 그거 언매나 물려와신 보레 오고덜 허민게 그걸로 퀘기 반도 노명 밥 허영덜 먹는 게 가문잔치.

112017 @ 으, 여자쪽 집이서 잔치허는 게.

112017 #1 어.

112017 @ 기민 가문잔치날 먹을 거 음식은 뭐, 뭐 험니까?

112017 #1 뭇 해 옛날이사.

112017 @ 밥 허곡.

112017 #1 밥 허곡게.

112017 @ 밥은 어떤 밥?

112017 #1 곤밥게.

112017 @ 곤밥. 게민 손님덜도 다 곤밥?

112017 #1 어게. 손님 경 하영 안 온다게. 왓자 이녀 집안이고 삼 이웃덜게, 기주게.

112017 @ 곤밥 허고 또, 반찬?

112017 #1 돼지고기 허곡게.

112017 @ 으.

112017 #1 그 잔치에 먹던 김치 허고 무시 거 허민 돼는 거주기게.

112017 @ 게민 여자칩이서는 결혼허기 전에 동네 사름덜 헿 잔치하고 결혼헌 다음날 다시 가문잔치 하는 거?

112017 #1 으, 으.

112017 @ 이 가문잔치 때는 이바지 가져온 거로?  
112017 #1 오게.  
112017 @ 아.  
112017 #1 몰르켜 동춘더레 어떻사 허는디 우리 세젠 그추룩 헤라.  
112017 @ 아, 계민 밥은 곤밥 허고.  
112017 #1 어.  
112017 @ 국은 뭐 끓였수과, 가문잔치에?  
112017 #1 국은 뭇사 끌러신디게 퀘기사 낱 끌러신디 뭇사 낱 끌러신디.  
112017 @ 아.  
112017 #1 국 허고게.  
112017 @ 국 허고 반찬은?  
112017 #1 밥 허고게.  
112017 @ 밥 허고 반찬은 아까 똬지고지 나오고.  
112017 #1 나오고 김치 거뜬 거게.  
112017 @ 김치 거튼 거 나오고, 으. 뭐 떡이나 그런 건 안 허고?  
112017 #1 으, 옛날 잔치 때 떡은 안 헛저.  
112017 @ 예, 예.  
112017 #1 덴뿌라엔 허여 봐야 계란 헤근에게 후라이 허영 놓고 똬 솥양도 놓  
곡 주로 헛주기게.  
112017 @ 계민 가문잔치 때 친척덜 올 거잖아예.  
112017 #1 어.  
112017 @ 계민 친척덜은 와 가지고 부주, 부지 헛니까?  
112017 #1 잔치에 부주 허민 걸로 꾸이주.  
112017 @ 잔치에 부주를 허니까?  
112017 #1 어.  
112017 @ 계민.  
112017 #1 이견 시집이서 뭇, 뭇 물러오고 영 현 새시방이영 왕 속앗젠 허는 대  
력으로 가문잔치를 허는 거라.  
112017 @ 아, 그렇구나.  
112017 #1 그 퀘당덜이영.  
112017 @ 기민, 잔치 때를 물어보쿠다. 결혼식 허기 전에 여자침이서 잔치헛 때  
그때 밥은 뭐 헤?  
112017 #1 밥은게, 옛날은 보리쌀에 곤쌀에 섞은 밥도 싣고.  
112017 @ 음.  
112017 #1 건 이제 아침이 조반 정식으로 안 행, 정식은 쌀밥만 허영 늬 맥일  
때 맥이는 건 이제 손님덜이영 그찌 떡곡 퀘당덜 집이서 아침 조반 밥으로 먹을 땐  
통보리쌀에 곤쌀 섞은 밥 헤영 먹주기게.

112017 @ 으.

112017 #1 경헨 댁이고.

112017 @ 으, 댁이고. 국은?

112017 #1 원 국은 그때 뵈사 헨디 나 아는 말가.

112017 @ 으.

112017 #1 하여튼 국도게 무신 듯 숲아난 국물에서 국은 헨디 하여튼 국.

112017 @ 밥에 풋 안 서끄고마씨?

112017 #1 풋 서경게.

112017 @ 으.

112017 #1 풋 낱 허민 몽울몽울 맛종아라 그뻐. 쓸밥에도 다 풋 낱 벌경게 허고 잔치밥에. 흰 밥은 안 헤 뵈저기게.

112017 @ 보리쌀 섞영 허기도 허고?

112017 #1 으, 맨밥에.

112017 @ 맨밥에. 풋 낱 게민 반찬은 꿩기 나올 거고.

112017 #1 으.

112017 @ 짐치 나올 거고.

112017 #1 겨난 망텡이에 밥도 허영 다 푸주기게. 이제 칠륙 경 제기 허여져사 게.

112017 @ 으.

112017 #1 게민 망텡이 곱게 즐은 망텡이 허여근에 그것더레 밥 허명 다 푸멍 헛당 거리멍.

112017 @ 으.

112017 #1 어떤 때 영 대 고쟁이에 뵈고기 두 점도 허영 풋주앙도 주곡 종이에 쌍도 주곡 허영 오는 냥 밥 먹엿주게.

112020 @ 오는 냥. 게민 오는 사름덜은 부주 헛 거 아니과예?

112020 #1 으, 부주 헛주게.

112020 @ 그뻐 어떻 부주 헛수과? 돈은 엇일 거고?

112020 #1 쓸 부주게.

112020 @ 쓸. 쓸 얼마나 가정 읍니까?

112020 #1 아이고 쓸 그때사 경, 췌당은 말찬 부주 허고 경 안 허민 두 뵈게.

112020 @ 아, 말찬 부주렌 허민 혼 말.

112020 #1 으, 혼 말.

112020 @ 혼 말 허고 두 뵈. 곤쌀 헛수과, 보리쌀 헛수과?

112020 #1 그때 곤쌀 헛주기게. 보리쌀 허는 사름도 싣고게. 그거 사름 생활에 따라. 돈 부주엔 헛 거 엇고.

112020 @ 으. 경허민 그때는 어췌든 친척덜도 왔지만 동네 사름덜도 다 왕 먹 영 갔을 거 아니?

112020 #1 으. 경허난 쓸 언매 들어왔저 헤 간다. 부주 언매 들어왔다 경 현다.

112020 @ 경현 결혼식, 남자 집이 강 결혼식 행 여기 왕 가문잔치 할 땐 친척  
덜 막 오는 거?

112020 #1 으.

112018 @ 우리 결혼할 때 우시가 뭐과? 우시?

112018 #1 들러리 이제 거트민.

112018 @ 들러리. 누게가 가는 거라?

112018 #1 저, 건 여저 집이, 남저 집이?

112018 @ 여저 집이 들러리를 먼저 골아줍서.

112018 #1 여저 집이도 새각시 이젠 미장원, 화장허는 사름이 주로 헛주만은 그  
땐 화장허는 사름도 엇곡계.

112018 @ 으.

112018 #1 경허민 그 우시가 치메각도 들러주곡계 혼디 영 허영 가는 것이 우  
시.

112018 @ 예.

112018 #1 남전 또시 사돈 상객으로 허영 가고.

112018 @ 예.

112018 #1 경허여.

112018 @ 계민 우시는 멧 명이나 가는 것과?

112018 #1 새시방집이선 날 들레 둘이 왔어라. 여자, 여자 둘.

112018 @ 여자 둘.

112018 #1 남저도 둘이 와신디사.

112018 @ 새각시 집이서는?

112018 #1 새각시 집이선 우리, 우리 올케 허고. 여자 집이서도 둘 갖어.

112018 @ 둘.

112018 #1 둘 가고 사둔이엔 행 상객으로 가고.

112018 @ 계민 우시는 누게가 허는 거? 가까운 친척?

112018 #1 으. 스춘 시민 스춘도 가고. 올케 시민 올케도 가고. 갈 만헌 사름으  
로계.

112018 @ 으.

112018 #1 저 상제 들어도 아이 가고.

112018 @ 으.

112018 #1 상복 입으민 못 간덴.

112018 @ 못 간덴.

112018 #1 아니 허고. 경 허여 가민게 갈 만헌 사름으로 뽑앙. 딱 지정은 안 헤  
도. 집안에서 걸리지 안 헤영 영영 할 만헌 사름으로 보내고.

112018 @ 으.

112018 #1 경험 보내라.

112019 @ 대반은 뭐과?

112019 #1 이디 옛날은 대반 앓아도이 우리 험 때도 대반 앓는 사름은 앓고 아  
이 앓는 사름은 안 앓은디 저 대정은 가난 대반 앓아라게.

112019 @ 으.

112019 #1 견디 이디도 대반, 우리 시집갈 때도 앓는 사름은 앓아서.

112019 @ 으.

112019 #1 잘 살고 아기영. 대반 앓젠 해도 구 곳은 사름이 앓는 거라.

112019 @ 구 곳은 사름이 뭐과?

112019 #1 하간 것이 다 구 곳춰져.

112019 @ 아, 구가 갖춰지다?

112019 #1 어.

112019 @ 예.

112019 #1 아기도 뭇 허고 팔자 존 사름게.

112019 @ 으.

112019 #1 남편도 싣고.

112019 @ 계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견본 보일 수 있는 사름덜인게.

112019 #1 으.

112019 @ 잘 살명 자리 잡앙 있는 사름.

112019 #1 으. 그것ㄴ라 대반.

112019 @ 대반예. 구 갖췄덴 허는 거예?

112019 #1 으.

112019 @ 중방은 뭐과?

112019 #1 아이, 중반이엔 현 건 엇고. 중방은 사우 순위 이제 저 새시방 와 가  
민 강 이꺼 오는 거.

112019 @ 하하.

112019 #1 중방 들라 허주게.

112019 @ 으.

112019 #1 경허민 사우 순위 그 동서 차례 뵈 거 아니?

112019 @ 예.

112019 #1 경허민 강 중방 허고.

112019 @ 신랑이 새각시 데리러 갈 때.

112019 #1 어. 새시방, 새시방 올레에 왕.

112019 @ 예.

112019 #1 어느 만이 오민 이젠 예장 다 봐난 다음이 중방, 강 이꺼 오는 것이.

112019 @ 아. 그민 그게.

112019 #1 중방이엔 허주게.

112019 @ 사위?  
112019 #1 사위가 허는 거.  
112019 @ 윗사위가 잇이민 사위가?  
112019 #1 으, 이녁이 밀해주게. 밀에 장계갈 때 사우 아무, 스춘이라도 사우가 손 강 이껴 와낫주게.  
112019 @ 아, 사춘이라도, 사춘 사위라도?  
112019 #1 어.  
112019 @ 예, 예.  
112019 #1 그계 증방일 거.  
112021 @ 혹시 암참개라는 말 들어 봤수과?  
112021 #1 하하.  
112021 @ 암참개.  
112021 #1 옛날 암참개엔 허민이.  
112021 @ 으.  
112021 #1 새시방 아니 가도 돌아오는 것ㄴ라 암참개엔 헌덴.  
112021 @ 새시방 무사 아니 가?  
112021 #1 새시방도 가지 못 헐 형편이 뤄민.  
112021 @ 예.  
112021 #1 우리 웨삼춘네도 잔치 막 허는디 우리 웨하르방 죽어비난 계난 새시방 가지 못헤영 그냥 암참개로 돌아왔젠 헌다.  
112021 @ 아.  
112021 #1 날 다 받아 낱  
112021 @ 아, 날 다 받아 잔치날인디 상이 나 불엇구나.  
112021 #1 으.  
112021 @ 그럴 때 암참개.  
112021 #1 경 돌아와.  
112021 @ 예.  
112021 #1 새시방이 못 갈 형편이 뤄 때 암참개로 돌아오는 거주게.  
112021 @ 계난 신부칩이 강 데러올 때 새시방이 못 가면 암참개렌.  
112021 #1 으.  
112021 @ 막 날 잡아신디 저기 새시방이 육지 군인 가가지고 못 들어왕예. 잔치날 못 들영 와 헐 때도 암참개렌 허쿠다예.  
112021 #1 게 경허주게.  
112022 @ 그걸 암참개렌 헐 거구나. 예, 예. 그럼 혹시 삼춘 주변에서 저기 결혼 못 행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사람끼리 영 짝지여 가지고 결혼시켜 주는 경우도 잇어낫수과?  
112022 #1 아니 요번, 요 어느제도 허엿주게. 저 우리 켤당네도.

112022 @ 예, 어떻게?

112022 #1 짧은 아이덜인디 이디 경허는 디가 셔. 경해도 좋지 안 헌텐 허여.

112022 @ 좋지 안 헌텐 허여.

112022 #1 저 신흥동도 우리보단 우이 사름의 아덜허고 시에서 새각시 허연에 죽영, 그 죽은 혼설 허는다.

112022 @ 으.

112022 #1 그 새각시칩이서 막 시집간 거칠록 이불도 허여오고 막 허연 해도 잘 아이 뵈젠 허여. 언제 살아보고랑 그 죽영 혼서허영 혼디 강 살카이. 이디 우리 조케네도 우리 육촌 오라방네도 딸 백혈병으로 죽엇주게. 대학교 다 허고 헤 난. 경 허연에 오래비 수술헤연 와도 다 좋앗단 어떻헨 감기칠록 헤연이 오꼳 죽언게.

112022 @ 으.

112022 #1 경허난 가이영 이제 저 용수 저 웨아덜, 웨아덜 그디도 아판 죽고 허 난 그디도 죽은 혼서 헤서. 혼디 간 문언.

112022 @ 으.

112022 #1 쌍묘로 혼디 강 묻고 식게 혼디 허고. 결혼헌 식으로 다 허연.

112022 @ 그럼 그런 거 죽은 혼서 헐 때도 영 날 보고 헉니까?

112022 #1 날 보양 다 허주기게.

112022 @ 크게 잔치 같은 건 안 헐 거고예.

112022 #1 으.

112022 @ 집이서만.

112022 #1 으.

112022 @ 종종 잇구나예.

112022 #1 으.

112022 @ 죽은 혼서렌 부르는 거예. 죽은 혼서.

112022 #1 으.

112023 @ 영 결혼허젠 허면 금기해야 뵈는 거 잇수과?

112023 #1 아니 이젠 그런 금지 그런 건 엇어.

112023 @ 뤼 날짜 전이는 무신 어디.

112023 #1 아니 영장 난 디나 안 가민게.

112023 @ 영장 난 디 안 가민예.

112023 #1 으.

112023 @ 다른 금기는 엇인 거예?

112023 #1 으.

## 상례

112024 @ 이제는 어른 돌아가셨을 때 여쭙보쿠다예. 영 집이 잇인 어른 돌아가신 건 어떻 확인헉니까?

112024 #1 집이서 죽는 사름이 해주게. 받아 앓앙.

112024 @ 예.

112024 #1 죽을 때에는 다 틀려.

112024 @ 응.

112024 #1 영 아광 막 허당이라도 죽젠 허민 천장 뺑 죽는 사름 싣고. 그냥 눈  
곰양 죽는 사름 싣고. 멧 가지주게.

112024 @ 으.

112024 #1 경허민게 죽은 거 알앙. 나도 우리 시아방이 우리 집이 아방은 하귀  
교육 받으레 가고. 아척이 조반행 먹영. 조반은 ㄱ치 먹엇주게. 이제 우리 시아방  
은 칠월 초이틀날이난 그때 싱거, 마농을 싱글 때라.

112024 @ 예.

112024 #1 겨난 우리 저 중학교 올레 살 때난 이 스투트 올리난 막 돌맹이덜이  
하난 나 마농 싱거도 돌맹이 흔 펜더레 좇어 난에 그뻐 그 자갈도 어려왕이 어디  
질 따끄레 허민 자갈 좇으레 오랑 허주게. 경허난 그걸 좇영 놔 뒷당 경혈 때에  
지여가젠 이젠 글체 가지레 나왕 보난 우리 하르방이 저 혈압 서난 생이라게.

112024 @ 으.

112024 #1 혈압 신디 술 먹영게. 술 먹고 조반 먹언에 화장실에 간 오단 문입쟁  
이 전이 영혜영 니치름 질질 혜영 죽어가멘게.

112024 @ 으.

112024 #1 아이고 경허난 나 그 앞집이 삼춘신디 강 우리 하르방 다 죽엄수다  
제기 읍서, 제기 읍서 행 밧거리레 요 거져단 안거리레 들러 놓명 헛서.

112024 @ 아.

112024 #1 경혜영 오꼳 돌아간.

112024 @ 아. 경헨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숨 안 쉬엄구나 허는 거를 어떻 확  
인해, 여기 만져봐?

112024 #1 다게 틀리다게. 사름이 죽으면.

112024 @ 으. 코로 뭐 안 나왔구나?

112024 #1 어게. 옛날은.

112024 @ 예.

112024 #1 으.

112025 @경 돌아가시면 이제 장 치르젠 허면은 장례를 치르젠 허면은 복부르기  
엔 허는 게 잇수과, 복부르기?

112025 #1 몰라.

112025 @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112025 #1 아니, 그런 건 몰라.

112025 @ 몰라, 예. 이젠 돌아가성 장례 치를 거예.

112025 #1 돌아가민이 매장허는 사름 빌어당 곱게 다 목욕시경 옷 입지곡 다

허영 이제 관 목쉬, 이제 장애인덜 허당 저 관 짠 거 다 헤 왓주만은 옛날 다 이녁 대로 허영 놔 뒤. 푸는 디 옛이난.

112025 @ 예.

112025 #1 개판도 허영 놔 두고 널도 허영 놔 두고 흐뎀 사는 사름덜은. 경허민 이녁이 나이 들어가민 널도 허영 놔두고 개판도 행 놔 두민 이제 그 목쉬 돌아당 개판이영 그 저 들여놀 판이영 다 짜고, 이제 매장 곱게 허영 들여 낱 헤여낫주게.

112025 @ 으, 다 이녁냥으로.

112025 #1 어.

112025 @ 판을 짱 놔 두는구나예.

112025 #1 어.

112026 @ 그민 물어야 할 장지?

112026 #1 장진 정시허영 강 다 뺑. 이제 고동 묘지 허영 조근조근 이녁 밧디만 헛주만은 다 잘 살아보젠 다 흐뎀 좋은 딜로만 허영 정시허영 다 땅 봐.

112026 @ 으.

112026 #1 땅 봐근에 늪의 밧디 강, 좋은 딴 강 또 산터 값 주멍. 경허영 영장을 헛주게.

112026 @ 정시 데령 강?

112026 #1 으.

112026 @ 정시 뭐 들령 갑니까? 그때?

112026 #1 놓는 그 무시 것이 다 싣주게.

112026 @ 영 행 방향 가리키는 거예?

112026 #1 으.

112026 @ 그거 들령강예?

112026 #1 어.

112028 @ 수의, 돌아가시면은 옷 입어야 헐 거 아니, 상복?

112028 #1 상복 허젠 허민 여저덜은 다 상복덜 물르멍 두건 줍으멍 막 허민 사둔칩어서 죽덜 썬 오주게. 경허민 그 널 허는 날.

112028 @ 으.

112028 #1 경허민 그 죽 흔 사발씩 먹고 다.

112031 @ 무슨 죽 썬 와?

112031 #1 풋죽게.

112031 @ 풋죽예.

112031 #1 으. 비림 삭아지우크라.

112031 @ 비림 삭아지우크라?

112031 #1 으.

112031 @ 그게 뭐?

112031 #1 흐뎀게 장 난디 거세기 헐 건 풋으로 흐뎀이. 이 풋이 질 그런 거 허

는 디 씨는 거 아니가게.

112031 @ 예, 귀신 뭐 할 때.

112031 #1 어. 겨난 풋 낱 죽 썰.

112031 @ 예.

112031 #1 이제도 이디 널 허는 날은 풋 낱 죽 썰.

112031 @ 널 허는 날이 뭐 허는 날?

112031 #1 관, 관 짱 들여 놓는 날.

112031 @ 아. 관 짱 그 안에?

112031 #1 으, 들여 낱 못 딱딱 박는 날이 관 짜는 날 풋죽 썰 먹는 날. 이제 이디도 경허여. 성당에서도 경허여.

112031 @ 아, 널 허는 날.

112031 #1 으.

112031 @ 게민 그날 동네 어른덜이 저기 친척덜이.

112031 #1 다 간다.

112028 @ 상북도 허고 허는 거라.

112028 #1 경헌디 이젠 다.

112028 @ 미리.

112028 #1 미리, 다 사단계.

112028 @ 사당.

112028 #1 불령. 관이고 뒷이고 불르난게. 관 허는 날은 불령 들여놀 때 풋죽덜 이영 썰.

112028 @ 썰 먹는 거?

112028 #1 사둔네 집이서 이젠 멀영 안 허민 본주에서 풋 상 죽 썰 먹나게. 경 허민 본주, 저 사둔덜은 물론 거, 저 라면 거튼 거 우동 거튼 거 놓앙 테와.

112028 @ 하하 요즘은. 수의는 어떻 장만해놨수과?

112028 #1 수의?

112028 @ 예.

112028 #1 쉬윈 옷?

112028 @ 옷. 돌아가신 분 입는 옷을 뒷렌 곱습니까?

112028 #1 저 거세기, 장옷게.

112028 @ 장옷.

112028 #1 으.

112028 @ 그 장옷은 어떻 마련해놨수과?

112028 #1 다 이녁대로 허영 놔 두주. 옛날 멩지, 베로게.

112028 @ 예. 미룻 경 만들영 놔 두는 거라예?

112028 #1 으.

112028 @ 게민 상북도 만들양 놔 두는 거는 아니잖아?

112028 #1 상복은게 그날사 멘든다게.  
112028 @ 계민 천은 그냥 사단?  
112028 #1 으.  
112028 @ 베 사단, 미녕 사단?  
112028 #1 으, 아니 미녕은 안 허고 베.  
112028 @ 그 여저덜 광목 치마?  
112028 #1 광목 치만 사단. 베 신 사름은 베차마.  
112029 @ 으. 베치마 허고. 그 장례식 헐 때 영 상제들 짚는 거 있잖아예. 걸  
뛰렌 험니까?  
112029 #1 건 저 거세기.  
112029 @ 짚동? 상장?  
112029 #1 아니 짚동은 영 짚으로 허영 묶영 요 지러기 허영.  
112029 @ 예.  
112029 #1 읍이 낱 절허고 저, 방장대.  
112029 @ 예, 방장대. 방장대예. 어무니 돌아가셨을 때랑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냥이 트나잖아?  
112029 #1 트나.  
112029 @ 예. 무슨 냥으로 험니까?  
112029 #1 아방 죽은 땐 대. 무디 무디 허고 이제 할망 죽을 땐 막 좇이 허난  
무신 냥이렌 헤라 것ㄴ라.  
112029 @ 가시냥?  
112029 #1 가시냥이라도 막 좇은 거.  
112029 @ 계니까 가시 막 도도도도 난 거.  
112029 #1 하여튼 무신 냥이렌 헤라.  
112029 @ 먹쿠실냥?  
112029 #1 아니 먹쿠실냥 아니?  
112029 @ 가시 막 난 거예?  
112029 #1 어떻게 것산디. 그 무신 냥이렌 헤라.  
112029 @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112029 #1 대. 어떻 허당 혼 번씩 무디 무디 허는 거난 방장대 대로 허고.  
112029 @ 예.  
112029 #1 어무니 돌아가민 매번 생각나난 그 아메도 가시라도 좇게 돌아진 거  
무신, 무신 냥이렌 헤라만은 것ㄴ라.  
112029 @ 으.  
112029 #1 틀려.  
112029 @ 무신 냥이였더라 예. 짚동은?  
112029 #1 짚동은 건 아방 죽으나 어떻 죽으나 짚동은 뭐.

112029 @ 건 무사 만드는 거라?  
112029 #1 건 모르켜.  
112029 @ 어쨌든 방장대는 영 지프는 거고예?  
112029 #1 어. 짬동은 율이 놓는 거, 거.  
112030 @ 예. 두건 옛날에 다 만들양 나눠줘놨잖아예? 멧 촌까지 두건을 줘 낫 수과?  
112030 #1 켤당개, 켤당 얼마 하지 안 헌딘 켤당이민 다 주엇주만은.  
112030 @ 예.  
112030 #1 이젠 친목이여 뵈이여, 중간엔 막 하영 주고 오는 사름 다 주고 허여 낫주만은 이젠 경도 안 허여.  
112030 @ 예.  
112030 #1 두건 필요엇인디 헐 필요가 엇주게.  
112030 @ 예.  
112030 #1 게난 하영 안 허여.  
112030 @ 복치메는?  
112030 #1 복치메는게 스춘덜토 주고 이제 조카덜토 주고.  
112030 @ 이제 스춘이랑 조카예.  
112030 #1 으, 누님, 누님 그런 디 주고.  
112030 @ 게민 지금이야 다 불령 쓰주만은.  
112030 #1 옛날은이.  
112030 @ 으.  
112030 #1 우리 할머니네 돌아간 때 딱 베치메도 오는 냥 헤 주저 허민 허난 아덜, 큰아덜에 맡이로 하나.  
112030 @ 으.  
112030 #1 죽은 아덜에도 맡이로 하나. 아기 하나에 베치메 하나씩만 쥐난 생이라.  
112030 @ 으.  
112030 #1 딸덜.  
112030 @ 예.  
112030 #1 겨난 난 우리 스춘덜이영은 나가 우주게.  
112030 @ 예.  
112030 #1 게난 우리 언니 베치메 주귀렌 나를 베치메 아이 줘.  
112030 @ 하하.  
112030 #1 날보단 아랫 아시덜, 스춘덜은 다 베치메 주고. 게난 나도 요망겨난 생이라.  
112030 @ 예.  
112030 #1 우리, 우리 어무니신디 난 똑 ㄱ튼 할망이고 난 무사 베치메 안 줘수

겐. 다 준디 허난.

112030 @ 하하.

112030 #1 아이고 나 쫓아, 나 나가 허여주마. 저 다 죽은 아방네 아기도 하나, 우리도 하나난 느네 성 헤여주고.

112030 @ 예.

112030 #1 이제 다 하나씩 허여 주난 는 안 헤 주난 나가 헤 주켜, 헤 주켜 나 달래난 거 알아지크라.

112030 @ 하하하.

112030 #1 막 기분이 팍 나빠고.

112030 @ 하하하. 게난 그거 기억남수과?

112030 #1 기억나주게.

112030 @ 삼춘 그거 몇 살 때?

112030 #1 시집 아이 갈 때, 어린 때나.

112030 @ 어릴 때. 다 주는디 스춘도 다 받아신디.

112030 #1 날보단 아래라도 다 준디게 나만 아이 쥐 보라.

112030 @ 예.

112030 #1 ㄱ튼 연령이고 혼 설 날보단 알이주기게 다. 경허연.

112030 @ 그거 지금이야 다 주문허는 거지만은 옛날엔 그 두건이랑 복치메 다 만들어실 거 아니예?

112030 #1 으.

112030 @ 집이서들. 그거 뭐 저기 상제옷 멘들 때 ㄱ치?

112030 #1 으, ㄱ치 다.

112030 @ 누게가 멘듭니까, 동네 사름덜이 만드는 거?

112030 #1 으.

112030 @ 동네 다 영장 낫젠 허민덜.

112030 #1 으, 영장 낫젠 허면덜 왕예?

112031 @ 그 팻, 팻죽은 그 어느날 먹는 거라?

112031 #1 널 허는 날. 관 허는 날.

112031 @ 널 허는 날 먹는 거 팻죽은.

112031 #1 으, 으.

112031 @ 사둔칩이서 행 오는 거.

112031 #1 어.

112032 @ 성복제가 뭐과, 성복제?

112032 #1 성복젠게 저 성복제 지내어사게 영장, 그것이 성복제 지냄젠 허주게. 관 허영 다 들여냥.

112032 @ 예.

112032 #1 경허여근에 제 지내는 거주기게. 성복제.

112032 @ 기민 성복제가 아까 널 허는 날 아까 성복제를 지내는 거라?  
112032 #1 어.  
112032 @ 관이영 다.  
112032 #1 다 혜영 낱 허는 것이 성복제.  
112032 @ 그게 성복제. 널 허는 날예?  
112032 #1 으.  
112032 @ 계민 이날 풋죽 먹는 거네?  
112032 #1 어게. 그날 풋죽 먹영 즈낙인 제 지낸다게.  
112033 @ 제 지내는 거고예. 그리고 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는 널 묻으면 오널 즈낙이.  
112033 @ 오널 즈낙이.  
112033 #1 건 딸이, 옛날은 딸이 출려낫주기게. 큰딸.  
112033 @ 아, 일포제는 손딸이 출리는 거?  
112033 #1 어.  
112033 @ 계민 그날 먹는 거는 다 큰딸이 내는 거?  
112033 #1 아니, 즈낙제 헐 때.  
112033 @ 아, 즈낙제 헐 때.  
112033 #1 으, 제 지낼 때 떡이여 메여 이제 허영.  
112033 @ 돌아가시민 영 장례 지낼 때 제를 몇 번이나 허는 것과?  
112033 #1 제 이던이 다 성당덜 믿언 다 허여비난이.  
112033 @ 지금 말양 삼춘 옛날에, 시아부지 돌아가실 때 어떻, 몇 번이나 헐 수과?  
112033 #1 저, 이 일포젠 건 묻는날 아니난 경허고 이레 저 옛날 나아가젠 허민 다 제 지낼 다 절허영 동안 허영 나가고. 이제 그 영장 물을 디가 놀 때에 따시 상 낱 이제 허곡 이젠 묻으레 가젠 동안 허영 가젠 허민 다 잔 들이고 다 허영 간 묻은 다음에 이젠 다 절허고 경헤낫주기게.  
112033 @ 으, 으.  
112033 #1 겨난 이디서 나아가젠 허민 제 혼 번.  
112033 @ 돌아가셨을 때부터 먼저 세 보게마씨.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허는 건 아까 성복제가 제일 먼저?  
112033 #1 어, 어.  
112033 @ 그 다음?  
112033 #1 그 다음은 뒷넷날은게 그냥 제 일포날도 제는 헐사. 성복제 허는 날은게.  
112033 @ 예, 일포날도.  
112033 #1 계난 삼시게.  
112033 @ 삼시 제 허는 거예?

112033 #1 으, 으.

112033 @ 예. 일포날 삼시 제 허고. 오늘 문을 거민?

112033 #1 그 아척이 나가명 이제 잔 드리고 제 허영 이제 나가.

112033 @ 으.

112033 #1 또시 영장बाट 강 농민, 농민 이젠 저 제 드러.

112033 @ 으.

112033 #1 그디 강 낱 제 드러 낱 이제 저 동간 허영 묻으러 갈 때, 아이 건 아  
니 믿는 식으로라.

112033 @ 으.

112033 #1 경허여근에 제 드령 물어난 다음에 또 제 허영 오는 거주기게.

112033 @ 아. 물어난 다음에 또 제 드리는 거.

112033 #1 으, 상 다 마무리 허영 이젠 우린 감수다 허영 제 드령 오는 거.

112033 @ 게민 일포제는 하는 삼시 허는, 세 번 허는 거잖아예?

112033 #1 어, 그날은 먹어, 우리 밥 먹듯이 삼시.

112033 @ 그민 성복제는 한 번만 허는 거고.

112033 #1 으.

112025 @ 그 돌아가셨을 때 왜 혼이 날아가니까 지붕에 올라 성복제 허기 전에  
혼 불러오는.

112025 #1 그건 널 허는 날 혼 불르는 거주기게.

112025 @ 널 허는 날예. 지붕 올라강 읍서, 읍서 허는?

112025 #1 이제 경 안 허여.

112025 @ 안 헤.

112025 #1 옛날이 경 헛주.

112025 @ 그니까 옛날에, 옛날에?

112025 #1 옛날은 경 혼 불러 낫저게.

112025 @ 예. 올라가 가지고예?

112025 #1 아니.

112025 @ 어디서?

112025 #1 그냥 저 방에서라도 그 영장 신 디서라도.

112034 @ 아, 영장 신 디서. 옛날에 그럼 지금 말고 옛날에 부조랑 조문은 어떻  
헤낫수과? 부조는?

112034 #1 부조는게 고적썰게. 고적썰 두 뒹씩.

112034 @ 뭐가 고적썰이라?

112034 #1 고적 허는 켤당마씨 그 고적썰이렌 현 것이 저 영장 때 헤 가는 것  
이 고적이엔 허주게.

112034 @ 아, 영장 때 헤 가는 게 고적이라.

112034 #1 으, 고적썰 허는 사름덜 다 온다게.

112034 @ 그건 친척인 거예?

112034 #1 으, 친척.

112034 @ 웬당예.

112034 #1 쓸 두 돼게.

112034 @ 쓸 두 돼.

112034 #1 겨난이 옛날은, 이젠 영장을 허나 잔치를 허나 허여도 돈 벌엄저 허지만은 옛날은 빗이라낫주기에.

112034 @ 으.

112034 #1 그 쓸 두 돼씩 받은 걸로 영장 쳐지느냐? 못 쳐.

112034 @ 으.

112034 #1 건 어림도 엇주게. 경허난 우리 시아방도 이제 우리 시누이가 전이 빗 쥐도 우리 시어명이 오꼴 이디서 죽엇주게. 이디 집, 이 방에서. 죽으명은 우리 시누이 물질 가불고 볼레섬 요디 빗이 두 개 시난 하나랑 느네 강제 메나 놓고 하나랑 이제 느네 시누이 주라 허난. 이제 우리 시아방 왔을 때 어머님 영 허영 험디 텐 허난 하르방이 욱을 허멍 들러퀴는 거라.

112034 @ 으.

112034 #1 나 아덜덜 다 이디 셔시민 아덜 하나에 빗 하나토 아이 텔 건디 한 원리 빗 주민 말지 으, 이 볼레섬알와 거느림젠. 볼레섬은 이제 나 죽으민 초상 빗 이고 이제 쉼 이제 질루는 건 느네명 죽으민 이제 초상 빗으로 험베끼 어디 돈 시넨.

112034 @ 으.

112034 #1 이젠 경허난 이젠 저 우리 시누인 그 빗을 주카부텐 저디서 메타기 허여 난 ㄱ시락 담으명 강제 이제 욱지서 와서메 강 벌도 못 허고 강제 싱경 약값 이나 허렌 이젠 경 허난, 우린 시누인 날 영 줌으로 줌수과, 그냥 임시로 줌수과 허난, 나 임시로 너 욱지서 오난 이제 가도 벌이 못 허난 그거 허영 약값이나 허렌 험젠 나 임시로, 저 물려줄 빗 어느 것곤 허멍.

112034 @ 음.

112034 #1 야단헌 게 막 싸왓주기에.

112034 @ 으.

112034 #1 당그네로 불치 담으명덜, 싸와도 난 나 빗 아니고 임제가 주기로 허민 주곡 실프민 말곡.

112034 @ 하하하. 그지예.

112034 #1 신경 안 썬. 난 방 청소허고 그자 집잇일 허멍 허난. 경허난 이제 우리 시누이 버버직직 허멍 이젠 영장은 돈 빗이주게.

112034 @ 으.

112034 #1 그뻘 대소상 험 때난이 우린 우등 허멍 다 손님덜 맥엇주게.

112034 @ 으.

112034 #1 게난 우등 험젠 허민 옛날엔 우등 벨미로 알앗주게. 막 손님이 하 노난. 빵떡 이제 보름떡 행 궁글굴글 낡 ㄱ는대바구리에 재영 땡길 때라 떡 혼 열 몇 개쯤 들영 오꼭 허난. 떡은 이만이 허여도게 그거 무신 빗 물어져사게.

112034 @ 으, 으.

112034 #1 게난 쉼 폴양 빗 물명 헛주게.

112034 @ 으.

112034 #1 경허고 저 하도 밧 아이 준덴 헤가난 우리 집잇 아방 폴아벤게. 시아 방 죽으난. 이 우글랑 우글랑 현 소리 듣고 싶지 안 허덴.

112034 @ 으.

112034 #1 풀지 안 험 밧 풀앗주게. 하도 저거 들라퀴 부난.

112034 @ 저기.

112034 #1 시누이.

112034 @ 시누이가.

112034 #1 경헤낫저.

112034 @ 아.

112034 #1 게난 쓸 두 돼. 초상에.

112034 @ 초상에.

112034 #1 대소상 험 땡 브름빵 혼 돌레기. 부주가.

112034 @ 그 보름빵이 상웨떡 애기허는 거?

112034 #1 어.

112034 @ 보리크로루?

112034 #1 아니.

112034 @ 뭐로 만들언?

112034 #1 밀카루로 만들더라 그디서도.

112034 @ 상웨떡 한 바구니.

112034 #1 경허난 그디서도 막 이 손님도 금지 헤낫저게.

112034 @ 무사.

112034 #1 막 그거 낭비허고 허난 조용히 허라.

112034 @ 아. 그건 조금 지낭 아니?

112034 #1 전이게 전이.

112034 @ 한 칠십 년대.

112034 #1 어.

112034 @ 아이덜 클 때예?

112034 #1 어.

112034 @ 예, 예.

112034 #1 경허난에 금지 허민 그땐 \*\*담으로덜 념경 들어오명 헤낫어.

112034 @ 하하하. 금지허니까.

112034 #1 방탕시럽게 허영 먹지 말앙 조용히 식계칠룩 헤영 먹으라 허여낫주 기계.

112034 @ 으, 으.

112034 #1 하도 저 숭년 뒤편게 하도 허여가난게. 경해가민 아메도 빗이 더 나 주게.

112034 @ 으. 계난 쓸 두 뒤편 받고.

112034 #1 우리 잔치혈 때도 마찬가지로.

112034 @ 으.

112034 #1 이젠 돈 부주 나고, 우리 집이 큰아덜 풀 때까지 이젠 쓸 부주 해서. 경허난 우리 부인회에서덜토 쓸을 허지 말앙 돈으로 닦은 열매, 그 쓸 들어온 거 풀젠 허민 깎앙 풀꼭게.

112034 @ 으.

112034 #1 경허난 닦은 돈 적게라도 돈으로 허는 것이 어떻허나 헨 경허영 우리 집이 셋아덜 풀 때부터 돈 삼천 원씩 언매씩 허영 와났저.

112034 @ 예. 겐나 먹으려는 동네 사름이영 친척이영 다 올 거고?

112034 #1 으.

112035 @ 올 거고예, 예. 부주는 그거로 허는 거라예. 저기 토신제가 뭐과 토신제?

112035 #1 토신젠 땅에, 땅에나 이디 영 이디 들어감수다 허는 것이라 토신제 험젠.

112035 @ 그니까 저기 산에 강 물을 때도 관 물을 때도 토신제 험 거?

112035 #1 묻으는 날 붉아올 때 토신제부떠 강 모녀 험다.

112035 @ 아.

112035 #1 매경, 늑신디 매경.

112035 @ 아, 매경예.

112035 #1 어. 경헌디 이젠 우린 큰 비석 허멍 흠치 지 지내부난 토신젠 안 험 다게. 번거로왕.

112035 @ 지금은 안 허는 거잖아예.

112035 #1 안 허고. 그뎨 툇 토신제 늑 빌영. 콤 주꼭 허영.

112035 @ 아, 콤 주고.

112035 #1 으, 콤 쥐.

112035 @ 그거는 산일 허는 사름안티 콤 준 거 아니?

112035 #1 어. 돈 쥬 매끼느네.

112035 @ 예.

112035 #1 영, 영 허영 출릴 거영. 영 행 헤줍서 허영.

112036 @ 상여꾼은 어떻 험니까? 늑 빡니까, 동네 사름덜이 험니까, 영 멍 가는 거?

112036 #1 옛날은 동네 사름덜 메영 강 동네 사름덜이 물어 줏주게.  
112036 @ 으, 동네 사름덜이예.  
112036 #1 우리 집이 아방도 학교 가당이라도, 일요일날 들 때 허고 영장 상에 허영 뚜러멜 때 노래 잘 허난 학교 가기 전이라도 그 노래 불러 저레 모셔다 똥 학교 감이라도.  
112036 @ 아, 노래 잘 헛수과, 남자 어른이?  
112036 #1 으.  
112036 @ 그거 상여말고 향여, 상에? 뭐 멘덴 해?  
112036 #1 하여튼 상에 멘덴 허주게.  
112036 @ 으. 그거 멜 때 노래 불르멍예?  
112036 #1 으. 췌 번 영장 들를 때도 그 글이 잇는 생이라고.  
112036 @ 예.  
112036 #1 허민 “야” 허영 헐 때도 그 우리 집잇 아방이 뵈이엔 헤영 불르민 이젠 “영차” 허멍 메여.  
112036 @ 아, 처음에 시작할 때?  
112036 #1 으.  
112037 @ 계민 집이서 장지까지 어떻 옮겨가는 거라?  
112037 #1 너미 멀민이 이디서 저 성당 앞까지 행상 허여 가민 차로.  
112037 @ 차로 가고. 거 옛날에는 차 엇어 낫잖아예?  
112037 #1 어.  
112037 @ 옛날에?  
112037 #1 옛날.  
112037 @ 시아버님 물을 때 어떻 헤낫수과?  
112037 #1 그딘 우리 브딘 디난 그냥 메여갓주기에.  
112037 @ 메여가고.  
112037 #1 용당, 이디서 용당이난.  
112037 @ 용당이민 바로 여기 아니?  
112037 #1 으.  
112037 @ 용당도 용당리가 따로 분리뵈수과 아니민 신창 안에?  
112037 #1 아니, 용당 딱로 분리뵈주게.  
112037 @ 신흥동은 신창 아니?  
112037 #1 으?  
112037 @ 신흥동?  
112037 #1 신흥동은 신창. 글로 저렌 용당.  
112037 @ 아, 신흥동은 신창이고.  
112037 #1 으.  
112037 @ 멀리 간 적은 엇수과, 멀리 간 적?

112037 #1 아니.

112037 @ 멀리 간 적은 엇고. 다른 사람덜 멀리 가게 댜민 어떻 해났어?

112037 #1 그뎨 어떻사 행 가신디 저 거웁이여 어디여 갈 뎨 잘 모르켜 나.

112037 @ 아.

112037 #1 우리 막 어린 때고 해여비난.

112037 @ 예.

112037 #1 몇 번 행상 해여 갓젠은 허주기게. 행상꾼덜.

112037 @ 예.

112037 #1 어 내명 해여갓젠은 허여.

112037 @ 예. 어 내명 허여갓저.

112037 #1 으, 혼 번에 못 허난게 쉬명.

112038 @ 바꾸명예, 예. 봉분은 어떻 만들어났수과 옛날에?

112038 #1 옛날은 막 크게 해 낫주만은 이젠 영 족게 험주게.

112038 @ 옛날에 보면 봉분 허젠 허민?

112038 #1 막게 무신 거 지명.

112038 @ 으.

112038 #1 방엿귀 닳은 걸로게 무시거 봉토 저.

112038 @ 어.

112038 #1 봉토 지명 막 노래허명이 헛주게.

112038 @ 흙들은 거기 있는 흙으로.

112038 #1 흑.

112038 @ 그걸로.

112038 #1 흑 엇이민 어디 강 시꺼오고 허여 와사주게.

112038 @ 봉분 크게 만들젠 허민예.

112038 #1 으.

112038 @ 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면 시꺼오꼭 테도?

112038 #1 어?

112038 @ 썩을 거, 썩을 거?

112038 #1 테도 어디 강 떼영 낫당. 이젠 폭난 허주 옛날은 사람 멧 사람이 강 테 떠당 그레 놓라 현다 다 놓 빌영.

112038 @ 으.

112038 #1 놔 뒷당 그레 영장 묻으멍 그거 낵.

112038 @ 미리 헤다가.

112038 #1 미룻 해당 낵.

112039 @ 예. 미룻 해당예. 혹시 호충이렌 현 거 알아지쿠과? 호충, 소피?

112039 #1 몰라.

112039 @ 그 영장 밧디서 왜 영장 밧디까지 가지만은 관 놓는 거나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 사름이 잇수과?

112039 #1 저 멧 설 난 사름 보지 말렌 현 사름이 싯넨.

112039 @ 멧 살 허민 보지 말렌 허는 거?

112039 #1 으, 경허민 그 연세에 무신 떠 보지 말라 허민 안 봐.

112039 @ 어쨌든 영장 밧디 가더라도?

112039 #1 으. 들어놀 때 뭇 혈 때.

112040 @ 예, 보지 말렌 허는 그런 사름 있는 거예. 이제 장밧디 가도 음식덜 주고 혈 거 아니예. 뭇 줘니까, 옛날에.

112040 #1 옛날에 장밧디 가도게 우리 이제 허듯이게 밥 낭푼이에 거렁게.

112040 @ 으.

112040 #1 이젠 저 식당으로덜 허곡, 경 안허민 낭푼이에 거렁 두망두망 놓민 게.

112040 @ 으, 그건 삼춘 시집 강 애기 키울 때이고 삼춘 어렸을 때?

112040 #1 어렸을 때도 그철록 헛주기에.

112040 @ 어렸을 때도 경헛수과?

112040 #1 으.

112040 @ 믱물쫄 아니민 보리썰로 만든 떡 돌리는?

112040 #1 떡도 돌리곡게.

112040 @ 예.

112040 #1 밥도 먹곡 헛주기에.

112040 @ 떡도 돌리고. 그 떡 이름 뭇렌 곺아난?

112040 #1 저 둘레떡, 둘레떡.

112040 @ 예, 둘레떡 돌리고예.

112040 #1 어.

112040 @ 밥도 돌리고.

112040 #1 으.

112041 @ 그, 그 왜 그 무덤 만들 때 무덤 다 말아 가지고 하는 사름이 잇잖아 예?

112041 #1 이젠 허여도 옛날은 말앙 안 헛저.

112041 @ 다 말앙 안 헛어?

112041 #1 골꾼.

112041 @ 골꾼, 그니까.

112041 #1 동네에서 골꾼덜이 강 헛주.

112041 @ 골꾼이 뭇가 골꾼이과?

112041 #1 동네 사름게. 그 골에.

112041 @ 아, 그 흔 동네 사름덜?

112041 #1 어.

112041 @ 계민 그걸 골꾼이엔 험니까?  
112041 #1 어, 골꾼 그 골에서.  
112041 @ 계민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뭐 주는 거 잊수과?  
112041 #1 다 돌아가명 허는 거난 주지는 안 해.  
112041 @ 아, 주지는 안 해?  
112041 #1 어.  
112041 @ 뭐 공적이렌 해가지고 떡 더 돌리고?  
112041 #1 아이, 그철록, 상두꾼덜은 우대해 줏주게.  
112041 @ 상두꾼덜 우대해주고.  
112041 #1 우대해 줏주.  
112041 @ 계민 떡 더 주고 해난?  
112041 #1 잘 낫게라도 잘 허주기게.  
112041 @ 예.  
112041 #1 담배 날 땐 담배 사 주고 수건 주곡게.  
112041 @ 예, 저기 상두꾼덜에게 헛던 거.  
112041 #1 으.  
112041 @ 다 끝낭 왔수다. 이제 집에 오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상식 해야 될 거 아니? 옛날엔예? 매 번, 어떻게 올려낫수과?  
112042 #1 삼시 허는 사름은 삼시 헛주기게.  
112042 @ 계민 집에 여기, 삼춘넌 어디 상 차려낫수과, 상시 헛 때?  
112042 #1 우리, 우리 저 중학교 올레 살 때에 이런 뒷방에.  
112042 @ 뒷방에. 그냥 상 출렁 내 불어?  
112042 #1 상 낱 놔 뒤사주. 펥풍허곡게.  
112042 @ 어.  
112042 #1 삼 년 뒤투도록.  
112042 @ 예.  
112042 #1 색일 츠허루, 보름 허고.  
112042 @ 색일 츠허루, 보름 허고.  
112042 #1 아이고 옛날 불 습양 다 묵 지정 해낫저 나도. 우리 시어멍 죽은 때에.  
112042 @ 시어멍 죽은 때에.  
112042 #1 어. 나 시아망도 오 년 들양 살아시네.  
112042 @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  
112042 #1 므녀 돌아간. 암 걸런.  
112042 @ 아이고. 계민 그때.  
112042 #1 예순일곱에.  
112042 @ 아이고.

112042 #1 예순일곱이라도 막 늙더라. 우리 집이 아방이 막 막둥이난게.

112042 @ 막둥인디 삼촌이 모셨수과 시아버지?

112042 #1 다 일본덜 가 비난 우리 하나뿐께.

112042 @ 하하하. 옳어.

112042 #1 시누이 하난 구들락구들락, 아이고. 이제도.

112042 @ 아, 아까 밧 안 줬젠 허는 시누이.

112042 #1 소문난 시누이주.

112042 @ 흔 동네 살암수과?

112042 #1 저 한원리 시집 간 못 살안 완 흔제.

112042 @ 예.

112042 #1 딸도 남편이영 못 살앙 현디 딸은 막 잘 살암선게이 갑자기 어멍 사는 디 오랜만이 완, 우리 집이도 숨 흔 하꼬 사고헨 완 헨게이 감기 걸렝 헨게 그 어멍 사는 디 흐뎡 추워신ㄴ라 우리 득신 방에 왕 자렌 헛주기께. 나 보일라 들고 허크메 이레 오라 오라 헤도 아이고 오랜만인데 어멍이영 자쿠덴 허멍 헨게 급성폐렴더레 돌안께. 감기에 왕이 어멍 으시시 얼어신고라 안터레 들이싼. 똑 허는게 우리 시누이 흔 자 거리도 몰르고 저 체 걸언만 헨제. 저 우린 차 싯고 허난 우리집 이 왕 글아시민 저 큰 병원에 강 죽지 안 헐 거 아니?

112042 @ 아.

112042 #1 체 내레 어디 추럭 빌영 체 내레 어디 감젠 허영, 어멍허난 첸 뵈 먹 영 허여신고 허연.

112042 @ 아.

112042 #1 아이고 이젠, 늡 곧는 거 보난, 아이고 저 어른. 무식허주께 흐뎡 더더더 허멍. 체 건 걸, 침이 급성폐렴더레게 자개 돌아가는 거주께. 이십스 시간 급헌 건.

112042 @ 예.

112042 #1 현 걸 몰랐구넨 허연 이젠 저 병원에 그디 아덜덜도 오고 헛젠 헨 이젠 우리 곳새 우리 죽은아덜ㄴ라 걸라 가젠 헨 차 가가난 그디 좇긋디 딸은 양 간 베려보난 오꼳 죽어겐.

112042 @ 아이고.

112042 #1 죽언 이젠 난 영 걷언, 그 어멍은 도에 강 앓앙 말만 작작허고. 아이고 이디 죽으레 왔구나 허멍 허연에 나완 이제 우리 시누이ㄴ라 딸 죽엇수께. 이디 앓앙 연설헐 즈르가 어디 싯수과? 경허영 이제 허난 나 원장신디 들엇주께. 급성폐렴더레 돌안 갓수겐게 영허난 아이고 맞수덴.

112042 @ 음.

112042 #1 아이고, 경허연. 딸 그거 하나 신 것도 츠지 못 헨 이제 흔제만 이제 도우미 아주망 허고 이제 살암저.

112042 @ 으.

112042 #1 예배당만 막 열심히 믿었. 이제 죽으면 예배당더러 갈 걸로 행 돈도 막 내어 놓고 헛젠 헤라.

112042 @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할 거라. 상식 어떻게 낫수과 상식? 할망 돌아가셨을 때?

112042 #1 할망 상식 낫주기게.

112042 @ 매번 밥 헨?

112042 #1 그냥 이녀 먹는 거게.

112042 @ 으. 계민 아침이야 밥 먹을 때 올리지만은 밧디 강 일 헐 때 점심은 어떻게 헤?

112042 #1 점심은 난 놀 때 놓고 아이 놀 땐 아이 놔.

112042 @ 예.

112042 #1 아침 즈낙만.

112042 @ 아침 즈낙만.

112042 #1 밧디 강 혼자 몸에 그거 어느제. 이제난 오도마나 싯곡 차나 싯나 어떻게 헐 말고.

112042 @ 어.

112042 #1 집이 든 때 삼시 놓고.

112042 @ 으.

112042 #1 어디서 반 들어온 것도 놓고. 경허연.

112042 @ 경 헤난 거예. 삭망 땐 어떻게 헐수과?

112043 #1 삭망 때게. 츠 하루 보름게.

112043 @ 음식은 뭐 헤난 그때?

112043 #1 그때게 목 지정 꿩게, 짓갈 허곡 메 허곡 게영 허고 과일.

112043 @ 식게 헐 때처럼.

112043 #1 과일이나 올리고 기자 경헐저.

112043 @ 예.

112043 #1 콩늬물 사단.

112043 @ 삭망제 헐 때도 식게 헐 때랑 다른 건 아니다예, 음식?

112043 #1 어, 다르진 안 허여.

112043 @ 예.

112043 #1 흥꿈만 출령 그냥 멧 ㄱ지만 허민게 간단허게.

112043 @ 계민 그거 헐 때도 친척덜은 와?

112043 #1 브딘 친척은게 왕.

112043 @ 아침이예?

112043 #1 아척이.

112043 @ 아침이 제 지냉.

112043 #1 으.

112043 @ 기민 지금은 삭망제 허는 디가 잇인가?  
112043 #1 안 현다.  
112043 @ 삼춘 요 동네에서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삭망제를 헛수과?  
112043 #1 으.  
112043 @ 남자 어른 돌아가실 때는 안 헛잖아예?  
112043 #1 우리 안 헛게.  
112043 @ 예, 안 허고.  
112043 #1 아니 저 우리 시아방이고 우리 하르방도 난 초흐루날만 헛저. 보름날  
은 안 헤.  
112043 @ 안 하고 한 번?  
112043 #1 흔 델에 흔 번.  
112043 @ 게민 저기.  
112043 #1 들 넘어가는 처레나 알게.  
112043 @ 예.  
112043 #1 허렌 행 우리 시아방도 경 허고 우리 친정아방도 초흐를만 헤난.  
112043 @ 시어른 돌아가셨을 때 초하루만.  
112043 #1 으, 우리 친정아방도 돌아가도 초흐르만.  
112043 @ 누게가 먼저 돌아가셨수과?  
112043 #1 우리 친정아방이 모녀 돌아갓주.  
112043 @ 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 삼춘 몇 살 때 돌아가신 거?  
112043 #1 거 멧 살 때산지 알아지크라.  
112043 @ 아이덜, 큰아이라도? 한 이십 년 넘엇수과?  
112043 #1 이십 년 더 뵈주게.  
112043 @ 더 뵈 거예. 그때 초하루 현 거고.  
112043 #1 이제 저것덜도 장계 안 갈 때 허영 다 아기덜 난 디 이제 서른 잇이  
난 흔 오십 년이나 스십 년 거자 뵈주게.  
112043 @ 아. 그 정도 뵈 거예. 이 동네에서 그 이후에도 삭망제 허는 디 잇어  
신가?  
112043 #1 아니.  
112043 @ 엇어?  
112043 #1 이젠이 점점 이젠 초흐루덜 안 행 이젠 오는 날 산에서 지제해 빌고  
사진도 아이 낳 거러 불고 현다 이젠.  
112043 @ 게난예, 이젠 식게만 허는 거라예?  
112043 #1 으.  
112044 @ 소상, 대상 안 허고예.  
112044 #1 이제 그 물어 뵈 왕 즐고 무시 거도 다 지제 산으로덜 행 왕 안 현  
다.

112044 @ 예. 물어 똥 왕 즐고 하는 게 뭐?  
112044 #1 사흘 제 지내낫주게 옛날은게.  
112044 @ 아.  
112044 #1 아침이.  
112044 @ 물어 똥 왕.  
112044 #1 집이서.  
112044 @ 집이서 또 사흘을 제 지내는 거?  
112044 #1 어. 제 아침이. 경해난디 이젠이 다 영장뱃딜로 다 축해영 해 똥 왕 안 헌다 이젠.  
112044 @ 옛날에 소상 대상은 어떻 해낫수과?  
112044 #1 소상 대상게. 돛 잡곡게.  
112044 @ 으.  
112044 #1 허엿주게.  
112044 @ 으.  
112044 #1 소상 대상 허영게 그 브름떡딜 받곡게.  
112044 @ 부지로예?  
112044 #1 부지로. 우등 해영 맥이곡 우등 해영 떡곡게. 경허영. 우리 우등 해비 난 손님은 핫주기게. 옛날은 우등도 흐못 못 먹는 사름이 하 나지 안 해샤?  
112044 @ 예.  
112044 #1 우등이엔 허민. 아이고 물 질어다 낡 숲젠 허난 첨.  
112044 @ 게민 소상허젠 허민, 소상 대상 허젠 허민 옛날에는 그것도 날, 며칠 을 날력 부러난 거 아니예?  
112044 #1 게.  
112044 @ 삼일 헛수과?  
112044 #1 널 소상 해 먹젠 허민 오늘부터 흐못 돛 잡곡 물 길어 오곡게.  
112044 @ 으.  
112044 #1 허영 소상날 해영 뒷내날 그릇딜 다 정리허고. 며칠 걸려시게.  
112044 @ 며칠 걸린 거라.  
112044 #1 아이고. 우리 시아방 초이틀날 허연 다 비와, 비와 비난 조 싱그레 다 가 비난 설거지 뒷내날 우리 어무니 허고 우리 언니 허고 나 허고 서이만 해원 헛저.  
112044 @ 하하하.  
112044 #1 벳디 막 들류명.  
112044 @ 들류명.  
112044 #1 거 행 젓그릇 거져 가곡 허젠 허난.  
112044 @ 해원 헛어 셋이만. 셋이만 허젠 허난 해원 헛주게.  
112044 #1 허어나민 버치고 더운 때고 아이고.

112044 @ 예. 혹시 삼촌 토롱이런 현 거 알아지쿠과? 토롱이 뭐과?

112044 #1 묻지 못허영 임시 날도 아이 나고 상제 어디 강 아이 오꼭 허민 임시 밧디 예염이나 우영밧디라도 구텡이 파.

112044 @ 예.

112045 #1 놓아근에 느람쥐 더경 놔 뒷당 날 빵 강 묻는 게 토롱.

112045 @ 무사 처음에 묻지 못 허는 거, 날 안 나왕?

112045 #1 날 안 나왕 나쁘곡게. 이 임시 토롱만 허레 허는 사름도 싯곡. 어디 글 보민.

112045 @ 어.

112045 #1 경 허여고 상제나 어디서 안 오민 이젠 냉동실 어디 들어가민 메칠 싯이라도 허주만은.

112045 @ 예, 예.

112045 #1 놔 두지 못 허곡 허는 따문 토롱.

112045 @ 아.

112045 #1 우리 시어멍도 보리 한창일 때라 비난 상두꾼덜 바빵 영장 경 믅음 대로 헤 지느냐? 우리가 미안허영 토롱헛단 묻엇어.

112045 @ 아, 바쁜 시기라부난?

112045 #1 어, 일 허여 된 문언.

112045 @ 게민 토롱 허젠 해도 관에 놓는 거는 다 똑같이 성복제 지내고 다 허는 거? 아니면 그거 자체를 다 나중으로 허는 거?

112045 #1 아니 성복젠 다 관에 들여 놓는 거난게 다 허곡게.

112045 @ 허곡. 장지에 묻는 거만.

112045 #1 일포, 일포날 허영 강 묻는 거 뿐이주.

112045 @ 아, 성복제까지는 미리 다 그거 헐 때 행 토롱에 물어 낫당.

112045 #1 으, 으.

112045 @ 이제, 이제 장밧디 강 물을 때 뉘면.

112045 #1 어.

112045 @ 그 때 꺼냉 일포제 지내고?

112045 #1 꺼내지 안 해근에 일폰 지내영 거 묻는 날 꺼냉 강.

112045 @ 아.

112045 #1 묻는 거.

112045 @ 예, 예. 게난 날 안 나왕 허는 것도 있지만 바쁜 시기에.

112045 #1 어.

112045 @ 피해 가지고도 경 토롱을 헤낫구나예?

112045 #1 어게 이제 멩질날썸 죽곡, 떡 허는 날썸 죽으민 다 토롱헤세게. 누게 그 멩질덜 비리멍 그 영장 물어 주젠 허느냐. 비는 사름이 미안허난.

112045 @ 아.

112045 #1 양심이 씻지 안 허느냐게.

112045 @ 예, 예.

112045 #1 경혜비난 토롱 행.

112045 @ 토롱을 헛던 거라예. 옛날에도 영 장지에 강 묻어신디 누게 자손덜이 누구 아프거나 허면 영 물어 뵈여기 산자리가 좋지 안 허텐 허면 산을 옮겨낫잖아 예?

112045 #1 으.

112046 @ 이묘 해낫잖아예. 삼춘네도 그런 거?

112046 #1 아니, 우리 그런 건 안 해.

112046 @ 안 해낫쉬과? 게도 이묘허는 사름덜 잇어예?

112046 #1 오게. 씻나게.

112046 @ 예. 요즘은 간소화 허젠덜 다.

112046 #1 경허고 이젠이 다 소분도 혼 반디서 허젠 허주 경 이디 저디 땡기멍 얼떡어 놓난 다 혼 반더레 헤다 낡세게.

112046 @ 예, 요즘 허는 건 다 그런.

112046 #1 이제 혼 반더레 헤다 봐도 이젠 더 족게 이젠 슬아당 비석 하나씩만 도 허젠 험세덜.

112046 @ 으.

112046 #1 땅을 덜 츠지허영.

112046 @ 봉분도 안 만들고.

112046 #1 으.

112046 @ 그냥 평지에 행 비석 하나만예?

112046 #1 으, 경허는 디도 하곡.

112047 @ 예. 게난 영 다 끝낭 복은 언제 벗는 것과? 언제 복 벗엄젠 험니까 옛날에?

112047 #1 옛날에게 대상, 소상꺼지 허민게. 대상 허고 담제.

112047 @ 담제는 언제 허는 거라? 대상 끝낭?

112047 #1 대상 넘영, 옛날은 대상 넘영 백일만이 담제.

112047 @ 담제가 뭐과?

112047 #1 식계치룩 그 담제엔 허영 이젠 다 믱치는 걸로 허영.

112047 @ 아, 게민 그게 복 벗는 날인게.

112047 #1 으.

112047 @ 담제 허영. 대상 끝나.

112047 #1 담제 허여사. 게난 담제에 못 먹은 음식은 제서 때 헤도 못 먹넨 옛날 할망덜은. 게난 담제엔 떨어진 음식 엇이 다 허영 올리라. 그런.

112047 @ 아, 속담이 잇어?

112047 #1 으.

112047 @ 아, 떨어진 음식 엿이 다 행 담제에는 올리라는 거?

112047 #1 으.

112047 @ 계난 장례 치루고 나서 일 년 그 삭망제 계속 하당 그 일 년 후에 소상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년 지냥 대상 허고. 대상 끝냥 백 일 지냥.

112047 #1 담제.

112047 @ 담제 허고. 계민 이제 다 복 벗는 거예?

112047 #1 으.

112047 @ 끝나는 겨우다예.

112047 #1 대상에 복은 다 벗어도 담제엔 그처럼 허여사 복은 다 벗고 다 허는디 담제 제사칠록만 지내민.

112047 @ 계민 복 벗으면 그 입어난 상복도 불 태와 불고 헌덴 허지 안 험니까?

112047 #1 저 빨앙 놔 뒷당 서답허영 입곡 허연게.

112047 @ 으, 으.

112047 #1 옛날.

112047 @ 옛날은예.

112047 #1 으.

112047 @ 그 베도 귀허난.

112047 #1 오죽 귀허여. 어려운디.

### 제례

112049 @ 어려운디. 이제 식계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예. 식계 준비는 어떻 험니까?

112049 #1 식계 준비는 어떻허여게. 옛날이사 떡 다 이녁대로 허곡게. 떡침 엿영 맞추지 못 허고 허난 이녁대로 뉘나마나 헤사주게.

112049 @ 이녁대로 뉘나마나. 하하. 계민 떡 허젠 허민 쓸도 장만 허고.

112049 #1 어게.

112049 @ 물 쟁?

112049 #1 물 컷당 흐뭇 다게. 이젠 떡침도 생기난 허주 남방에 강 뵈아당, 곤떡 힐 거. 체로 치명 다 허여 오곡.

112049 @ 예.

112049 #1 좁쌀 허젠 허민 그것도 다 체로 치명 다 허영. 경허여근에 시리떡 허고 헛주게.

112050 @ 시리떡 허고예. 제물로는 뭐 뭐 준비헤낫수과, 식계 때?

112050 #1 식계 때에?

112050 @ 예, 제물 올릴 거?

112050 #1 제편 허고.

112050 @ 제편.  
112050 #1 반제편도 허고.  
112050 @ 반제편.  
112050 #1 침떡덜은, 조떡덜은 행 동네에 그자 누누명 먹젠 허난 거주.  
112050 @ 어, 어.  
112050 #1 겨고 곤떡 새미 인절미.  
112050 @ 예. 게민 제편이랑 침떡이랑 다른 것과?  
112050 #1 게. 침떡은 조침떡 조로 헌 거.  
112050 @ 조로 헌 거.  
112050 #1 건 아니 올린다게. 건 이녁 먹젠 허고.  
112050 @ 예.  
112050 #1 반제편 허고 제편 올리고.  
112050 @ 제편은?  
112050 #1 혜영헌 제편.  
112050 @ 쓸ㄱ루로 헌 거.  
112050 #1 이제 쓸ㄱ루 반, 좁쓸 ㄱ루 반 혜영 이제 징 낱 것도 헌다게.  
112050 @ 그건 반제편.  
112050 #1 으, 반제편 경 허영 허고. 새미 인절미. 옛날 송편은 안 허더라.  
112050 @ 아.  
112050 #1 등절비.  
112050 @ 등절비도 잇어난?  
112050 #1 어. 새미, 인절미 허고. 등절비 허고 우리 어무니넨 동글랑 떡.  
112050 @ 등절비 허고 동글랑 떡.  
112050 #1 어. 경허연 헨게.  
112054 @ 게민 젓상에 몇 가지를 올리는 거, 떡은, 떡 종류는?  
112054 #1 떡 종류는 몇 가지 안 헌다. 이녁 허여지는 대로.  
112054 @ 맨 밑에는 제편 놓고?  
112054 #1 제편, 반제편 농곡 그 다음은 제편 놔.  
112054 @ 반제편 놓고 우이 제편 놔?  
112054 #1 으. 경허영 그 다음 인절미 놓고.  
112054 @ 으.  
112054 #1 저 새미 놓고 등절비 놓고 곤떡 놔.  
112054 @ 곤떡 놔.  
112054 #1 우터래. 경허영 랍시 행 영 올리주.  
112054 @ 우 짭은 안 올립니까?  
112054 #1 으?  
112054 @ 우 짭?

112054 #1 우짜이엔 현 건 뭣고?  
112054 @ 웃기떡. 기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  
112054 #1 아이고 지름떡 옛날 지름떡 헤사게. 우리 시대에나 지름떡 했주.  
112054 @ 아.  
112054 #1 영 고달 허영 지름에 튀경, चुष셀로 현 거.  
112054 @ 예.  
112054 #1 견디 옛날 지름떡꺼지 허진 못 헛저게.  
112054 @ 그럼 옛날에는 웃기떡이렌 현 게 엇수과, 우짜이렌 현 거? 게민 맨  
우에 올라가는 게 곤떡이 올라가는 거?  
112054 #1 어, 어. 곤떡 올라가. 동글랑 현 거.  
112054 @ 동글랑 현 거, 곤떡?  
112054 #1 어 저 세계, 저 느네 세계광도 떡이 다 틀리느네.  
112054 @ 탄난게예.  
112054 #1 저 세계에 허는 건 곤떡도 딱 부쁜 것도, 오물락 오물락 다 부편도  
올리고.  
112054 @ 예.  
112054 #1 경 안 허여 우린.  
112054 @ 아.  
112054 #1 그런 떡 저런 떡 안 현다.  
112054 @ 게민 아까 침떡은 알아지고, 제펜은 알아지쿠다, 반제펜도 알아지고.  
새미떡은 어떤 게 새미떡?  
112054 #1 새미떡은 주전지 뚜경으로 텅 귀나게 영영 좁은 것ㄴ라 새미.  
112054 @ 귀 나게 좁은 게, 주전지 뚜경으로 좁으면 요렇게 꿩잖아예, 동글랑  
허게예.  
112054 #1 으, 동글랑 허게.  
112054 @ 좁양 영, 영.  
112054 #1 어.  
112054 @ 이게 새미?  
112054 #1 새미.  
112054 @ 안에 쉬 놓고?  
112054 #1 어, 쉬 놓고.  
112054 @ 쉬는 뭐 놓고?  
112054 #1 꿩도 흐뎡 놓곡게. 쉬에 따랑게. 녹뒤 쉬건 풋쉬건 아무거라도 낱.  
112054 @ 영 좁은 게 새미고?  
112054 #1 으.  
112054 @ 또?  
112054 #1 등절비엔 현 것도이.

112054 @ 예.

112054 #1 동글랑허게 허여 낵. 그 새미칠룩 헤도 이칠룩 헤영 권 엇어도 영 영  
 좁안 손으로 영 영 누르뜨는 것ㄴ라 등절비.

112054 @ 이렇게 주전자뚜껑으로 본 몇수다예?

112054 #1 으.

112054 @ 여기도 영 접는 거?

112054 #1 아니, 영. 영, 영 동글락허게 납질납질 허게 허는 거. 영 흐끔 허게  
 헨 영 헤라.

112054 @ 아, 그냥 저기 뜨지 앓고.

112054 #1 어, 뜨지 안 허여.

112054 @ 손으로?

112054 #1 손으로.

112054 @ 송펜 만들 듯이.

112054 #1 어, 어.

112054 @ 영영 동글리당.

112054 #1 어, 동글리당.

112054 @ 누르명 .

112054 #1 어.

112054 @ 누르뜨는 거예?

112054 #1 어.

112054 @ 그계, 그계.

112054 #1 영 영 좁앙 영 오그령 꼭 누르뜨는 것ㄴ라 등절비.

112054 @ 등절비. 또?

112054 #1 그 다음은 인절미.

112054 @ 인절미는 어뎡 만드는 거라?

112054 #1 니귀 반득헌 거.

112054 @ 반죽 허영 칼로 잘랑.

112054 #1 어.

112054 @ 니귀 반득허게 만든 거 인절미?

112054 #1 어. 그 다음은.

112054 @ 우에 뭐 묻히진 안 허고?

112054 #1 아니.

112054 @ 안 허고?

112054 #1 그 다음은 동글랑 현 거.

112054 @ 동글랑 현 거 뭐라?

112054 #1 곤떡.

112054 @ 곤떡. 곤떡은 그냥 본 뜨는 것과?

112054 #1 본 뜨는. 손으로 멘들아도, 멘듬도 허는 집인 허고 본 멩 허는 집인.  
112054 @ 동글랑 허게?  
112054 #1 으.  
112054 @ 게민 등절비랑 곤떡이랑 차이점이 뭐?  
112054 #1 송펜더레 등절비.  
112054 @ 어?  
112054 #1 송펜보단.  
112054 @ 으.  
112054 #1 멘들기 쉬웁곡 허난산디 우리 어무니넨 등절빌 허드라게.  
112054 @ 아, 등절비.  
112054 #1 송펜은 아니 허고.  
112054 @ 곤떡은?  
112054 #1 곤떡은 동글랑 현 거.  
112054 @ 동글랑 현 거. 등절비도 동글랑 허지 안 험니까?  
112054 #1 아니게.  
112054 @ 아니?  
112054 #1 건 영 동글랑 현 거더레 이제 쉬 낡.  
112054 @ 예.  
112054 #1 영 새미칠룩 더깁 그걸 영 흐뎡 주름치마칠룩 영 헤영 영 누르뜨는 거.  
112054 @ 아, 영 동글랑 현 거민.  
112054 #1 이거 영 동글랑 현 거민이 이레 쉬 낡.  
112054 @ 예.  
112054 #1 영 허영.  
112054 @ 예.  
112054 #1 이칠룩 영 줍앙 영 허영 흐뎡 영 오그려.  
112054 @ 예.  
112054 #1 영 허영, 영 허영 똑 여기 꼭 누르뜨는 거.  
112054 @ 아, 아. 이게.  
112054 #1 귀도 엇이.  
112054 @ 으.  
112054 #1 이걸, 이런 귀가 엇주게.  
112054 @ 으.  
112054 #1 영 허영 동글랑허게 허영 이디 낡 이젠 영영 영영 줍앙 이디 흐뎡 영 오그려.  
112054 @ 으. 귀 엇이 오그렁.  
112054 #1 영 흐뎡 오그렁 요딜 꼭 허게 누르뜨주게.

112054 @ 아.

112054 #1 요 손으로.

112054 @ 계민 이 등절비에는 쉬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하고?

112054 #1 아니 쉰 놔사.

112054 @ 쉰 놔사.

112054 #1 아이 놓지 못 한다.

112054 @ 새미떡에도 쉬 놔사?

112054 #1 으.

112054 @ 우에 끈떡은 그냥 동글랑 허게만 본 뜨고?

112054 #1 어, 본 땡 우터레 놔. 손으로 멘들던지.

112054 @ 예.

112054 #1 손으로 해 멘들앗주기계.

112054 @ 계민 나중에, 송편은 나중에 나온 것과?

112054 #1 으, 송편은 이 동촌더레 시러레 그자 허연게 이젠 다 송편덜 헨다게.

112054 @ 으.

112054 #1 옛날은 송편 허는 디 벨로 엷주기계.

112054 @ 으. 계난 순서가 영 뉘는 거라예? 저기 반제펜 낡, 제펜 낡 그리고 그  
우이 뉘 놀 거?

112054 #1 새미. 아니, 저 인절미.

112054 @ 인절미.

112054 #1 새미.

112054 @ 새미.

112054 #1 등절비.

112054 @ 등절비.

112054 #1 경헨 우이 끈떡.

112054 @ 우이 끈떡. 아, 계민 여섯가지 놓는 거우다예? 우쩍은 엷는 거고예?

112054 #1 으.

112054 @ 계민 식게 때 음식은 경 헛고.

112053 #1 묵 지정 궤곡계.

112053 @ 묵 지정, 묵은 무슨 묵?

112053 #1 보리썰 ㄱ루로 묵은 지젓주게. 옛날 밀궤를 서사?

112053 @ ㄱ궤묵 안 허고?

112053 #1 ㄱ궤이 이딘 어려와 낫저계.

112053 @ 어려와나난.

112053 #1 경허난에 이젠 걸 허영 녁 점씩 궤곡.

112053 @ 예.

112052 #1 적갈허고. 옛날은 적갈 무신 바닷고기나, 우리 아바지넨 그 붉은뎡

허여당 계영거리 허고 께곡 헤라만은 옛날은 물꾸럭 적갈도 안 허더라게.

112052 @ 아.

112052 #1 이 저 돼지고기나 허고 소고기나. 소고기 시민 허고 엇이민 돼지고기로만 허고.

112052 @ 돼지고기로만 허고?

112052 #1 으.

112052 @ 기민 우럭 허고예?

112052 #1 으.

112051 @ 콩지름은 어떻 해낫수과, 콩지름? 콩나물?

112051 #1 콩늬물 이녀대로 놓는 사름은 놓고.

112051 @ 예, 저기 시루에서 콩늬물 키와.

112051 #1 이 으름에 못 논 때 호박 보깡 탕쉬 허고.

112051 @ 아, 콩늬물 대신?

112051 #1 으, 호박 보깡.

112051 @ 저기 콩늬물 시루에서 흥뽀 키와 봅서. 시루에서 키우젠 허민 어떻헤 콩늬물덜.

112051 #1 콩늬물 물 웃젓단계.

112051 @ 예.

112051 #1 자꾸 쥐사주게. 뭐 더깁.

112051 @ 어디에 낳.

112051 #1 시루에서.

112051 @ 예.

112051 #1 시리에 새 깎아.

112051 @ 예.

112051 #1 콩늬물 그레 콩 물 웃진 거 낳.

112051 @ 으.

112051 #1 경허영 자꾸 아침 즈낙 낮이영 물 쥬 우인 뭐 더프주기계. 두꺼운 거.

112051 @ 두꺼운 거.

112051 #1 들르지 못 허게.

112051 @ 으.

112051 #1 경헨 자꾸 물만 주민 돼주기계.

112051 @ 며칠이나 키우민 먹을 만큼 큼니까?

112051 #1 듯인 때사 자게 크주만은.

112051 @ 으.

112051 #1 더운 땀, 침 이 언 땀 으라날 키와사주.

112051 @ 으라날.

112051 #1 물 두루 주민 발 막 으라 개로 나고.  
112051 @ 으.  
112051 #1 물을 막 즈주 주민 발 웨발로 허영 질게.  
112051 @ 하하하. 아, 물 자주 안 주민 여라 발 나는 것과?  
112051 #1 어게. 바짝허게 아래 나.  
112051 @ 겐 자기가 막 물 먹젠 발을 막 뺏는 거구나?  
112051 #1 어게, 경허난에 물 즈주 주민 굳짜허게. 푸는 콩늬물도 마찬가지로.  
112051 @ 아.  
112051 #1 물 자꾸 줘사.  
112051 @ 경헤야.  
112051 #1 하루 멧 번이라도 물은 줘사주게.  
112051 @ 음. 아까 콩늬물은 경허영 키우는 거예? 게민 한 일주일이면 먹을 만 큼 큼니까?  
112051 #1 아니, 흔 열흘.  
112051 @ 열흘.  
112051 #1 언 뎌 흔 보름.  
112052 @ 겐 고기는 아까 돼지고기라예.  
112052 #1 으.  
112052 @ 바닷고기랑예?  
112052 #1 으.  
112052 @ 바닷고기는 주로 뭐 헤낫수과?  
112052 #1 바닷고기도 적갈허는 건 적갈도 허고 돔 옛날은게.  
112052 @ 돔으로도 적갈 헤낫수과?  
112052 #1 으, 우리 요.  
112058 @ 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  
112058 #1 먼처 옛날은 막 큰돔덜 황돔 셔나세계.  
112058 @ 으.  
112058 #1 주낫 안 헐 때난.  
112058 @ 으.  
112058 #1 그런 거 나쁘민 그거 율 떼영.  
112058 @ 으.  
112058 #1 율이 건 적갈 허고. 데경인 게영 허고.  
112058 @ 게영 허고?  
112058 #1 으.  
112058 @ 갱국이 게영이과?  
112058 #1 으, 게영국 맛 좋메. 경 큰돔 헤영 끌리민.  
112058 @ 아, 머리는 게영 허고 옆에는 적허고.

112058 #1 으.

112052 @ 저기 께싸가지고 굽는 거는?

112052 #1 굽는 건 생성계.

112052 @ 그것도 생성으로, 옥돔으로 허는 거?

112052 #1 으. 생성 아니민 우럭도 허는 사름이 싣나계.

112052 @ 우럭도 허는 사름이 싣고.

<중략>

112052 @ 적은 계난 두 종류? 쉼고기 못 헐 때는?

112052 #1 으.

112052 @ 쉼지고기랑 바닷고기랑?

112052 #1 으.

112052 @ 두 종류 해도 됩니까? 홀수로 안 행?

112052 #1 아이고 옛날은게 홀수 무시거 험사계. 헐 가지만도 험주.

112052 @ 쉼지고기만도 허고예?

112052 #1 으, 쉼지고기만 주로 험주기계.

112052 @ 으, 쉼지고기에. 떡은 아까 여섯 종류였던 거? 여섯 종류 안 해도 웨는 거, 반제펜이랑 제펜은 그냥 험나로 봐도 텔 거지예?

112052 #1 으.

112055 @ 이거 다 못 채우난 놓는 거니까. 제펜 놓고 인절미 놓고 영 허는 거난. 과일은 뭐 험수과, 과일은?

112055 #1 옛날 과일이 뭐 셔시?

112055 @ 뭐 셋수과, 과일은?

112055 #1 몰라.

112055 @ 계도 하나는 올려실 거 아니?

112055 #1 사과계.

112055 @ 사과예.

112055 #1 옛날. 돌배 거튼 거 배.

112055 @ 돌배?

112055 #1 돌배.

112055 @ 돌배는 집이서.

112055 #1 육지서 경 이디 와샤.

112055 @ 으.돌배는 집이서 키우는 사름도 잇어난?

112055 #1 으, 셔난.

112056 @ 채소는 뭐 험수과?

112056 #1 콩늑물계. 겨울에 콩늑물, 으름에 호박 보깁 탕수로.

112056 @ 으. 호박 보깁 탕수험던 거예?

112056 #1 으, 콩늑물 푼는 디가 어디 시니 옛날에. 이녁대로 다 놓멍.

112056 @ 고사린 안 허고?  
112056 #1 고사리도 허고.  
112056 @ 두 개예? 시금친 안 헛수과?  
112056 #1 미나리나 어디 봐지민 미나리나.  
112056 @ 미나리 논에 강 어디 시민?  
112056 #1 으.  
112058 메나 쟁은 누게가 뜯니까?  
112058 #1 당허는냥 식게 임제도 잇꼭게. 그 무신 사름 뺑 허진 안 허여.  
112058 @ 메누리랑 시어머니가 잇이민 누게가 메 거리고.  
112058 #1 시어명네 메 거리주게.  
112058 @ 시어머니가.  
112058 #1 메누린 부름씨 허고.  
112058 @ 으, 부름씨 허고.  
112058 #1 흥끔 나이든 사름이 앓양 거리주게.  
112059 @ 으. 제사 지낼 때 헌관이 뭐과?  
112059 #1 어?  
112059 @ 제사 지내젠 허면 초헌관이 잇잖아예? 제 지낼 때 보면.  
112059 #1 건 남저덜. 제 지낼만 헌 사름덜 다 그디서 알양 남저덜이 누게 누게  
절 허고 누게랑 잔 허꼭 허라 다 행 한다.  
112059 @ 뻬 사름이 잇어야 뉘여?  
112059 #1 세 사름인가?  
112059 @ 세 사름? 절 허는 사름.  
112059 #1 어.  
112059 @ 술 따르는 사람.  
112059 #1 집사질 허는 사름.  
112059 @ 집사질 허는 사름?  
112059 #1 으.  
112059 @ 계민 초헌관은 누게가 허는 것과?  
112059 #1 으?  
112059 @ 초헌관?  
112059 #1 초헌관 그런 거 뉘산디 나 아느냐. 우린 다 허영만 내치민.  
112060 @ 으. 옛날에 파지는 뻬 시에 험니까?  
112060 #1 열 두어시 뉘사.  
112060 @ 열 두어시 뉘사.  
112060 #1 제게 안 허드라.  
112060 @ 아.  
112060 #1 흥뉘 우리 식게 먹으레 가민 즐아왕 흥뉘 그 뻬밥 흥 직 얻어 먹이

젠 그 돌아가민 흐뭇 좋아왕 일리젠 허민 흐뭇.

112060 @ 하하하. 아이덜 ㄹ치 가지고. 게민 열두 시 뉘사 허는 거난 전날 허는 거라. 당일 바로 뉘자마자.

112060 #1 이젠이 성당에 다니는 사름덜은 죽는 날 허는 따문 열 시만 뉘도 제서 파지 허고 다 허는디 옛날 죽은 하르방덜은 니일이 죽으면 오닐로 제설 헤비난.

112060 @ 예.

112060 #1 경헤비난 열흔 시가 넘어사 파지헌다.

112060 @ 열한 시가 넘어사.

112060 #1 으. 이제도 우리 옛날 그 성당 안 믿어 죽은 하르방 제서 험 댐 저 열 한흔 시 넘어사 헌다.

112060 @ 아.

112060 #1 이제도.

112060 @ 지금도예?

112060 #1 으, 우리 아덜네도.

112061 @ 문전제는 언제 지내는 것과?

112061 #1 문전젠 이디 성당에 다니는 사름덜은 문전제 안 헌다.

112061 @ 아, 안 헤여.

112061 #1 경허민 문전제 ㄹ녀 지내영 앓아베 뉘 식게 파지 험 거.

112061 @ 댐 먼저예?

112061 #1 으.

112061 @ 게민 문전제는 집이 있는 신안티 지내는 거, 아니면?

112061 #1 건, 건 ㄹ치 온 귀신덜 ㄹ녀 보내 뉘 제 지내는 생이라.

112061 @ 음. 그민 제사 먼저 험 문전제 험 거기 음식덜 조금씩.

112062 #1 다 톨앙 허영 상 지와 뉘사 제 파지 허여.

112062 @ 경 험 그 톨아 둔 건 어디 강 버립니까?

112062 #1 저 올레레.

112062 @ 올레레 뿌리는 거?

112062 #1 어, 저레 뿌렁 솔짜 비와불주게.

112062 @ 으. 게민 그걸 뉘렌 험니까, 음식 영 곁어 내는 거?

112062 #1 몰라 난 그건 잘.

112063 @ 그 막 식게 허단 지제 허잖아예. 지제는 몇 대에 허는 것과, 옛날에는?

112063 #1 스대 험 오대 채 지제 헤낫주게.

112063 @ 으.

112063 #1 경헌디 이젠이 이 옛날은 다 메우질, 어떻 허당이난 메우는디 이젠 다 펜안이덜 살젠게.

112063 @ 으.

112063 #1 다 하르방 식계레, 다 할망 식계덜은 메우는 생이라 이젠 언매 오래 지 안 해도.

112063 @ 으.

112063 #1 경허난 우리 시어멍네도 올리 시아버지, 우리만 혜점서라 영 보난.

112063 @ 으.

112063 #1 겨난 이제 시아버지 제서레 혼디 읍서헨 이번이 마지막으로 헛주게.

112063 @ 으.

112063 #1 경허민 이제 시아버지 식계에 흐루 허민 그자.

112063 @ 게민 삼춘네는 시아버지 식계까지만 험수과, 그 웃대에도 험수과?

112063 #1 웃대에 허단에이, 우린 죽은아덜이난게.

112063 @ 으.

112063 #1 죽은아덜에 죽은아덜이난.

112063 @ 아.

112063 #1 경헌디 우리 큰시아방 손지네도 부산 간 사난 성당 믿고 허난 남편 죽어불고 허난 다 지제 허여변. 우리 시하르방네. 그디서 허단.

112063 @ 예.

112063 #1 다 지제허고 우리 시어멍은 이제 우리 허단, 저 시할망은 우리 허단 새시어멍네가 시하르방 제설 허난 그레 메완에 이제 지제 헤 베실거라.

112063 @ 으, 그건 지제 허고. 삼춘네도 이제 제서 허는 거는 그거베끼 엇구나.

112063 #1 우리 시아방.

112063 @ 으.

112063 #1 시아방 시어멍 올리까진 헛주게. 겨난 이제 내년부턴 시아방만 흐루 에.

112063 @ 삼춘이 험수과 아덜이 험수과?

112063 #1 아덜네 허멘게. 나 이제 헤지느냐? 다 늙은디.

112063 @ 다 물련예?

112063 #1 아덜네 허 건디 오래웬. 하르방 산 때부터 다 쥐 부난.

112063 @ 아, 남자 어른 산 때부터.

112063 #1 으.

112064 @ 묘제는 언제 험니까, 묘제?

112064 #1 묘제는 우린 저 시에, 시에 고침이 아파토도 산 씻고 돈도 씻고 허난 그 디 묘지에 강 각 가지에서 다 돌아가명. 돈 시난 그 돈에서 강 젓그릇만 다 다 끄꼭 다 내치꼭 허민 그 문중에서가 다 돈을 내치명 뺨또로 맞추왕.

112064 @ 도시락.

112064 #1 도시락으로 맞추왕. 모젠 허고 이제 그 아래에 그 다음에 아래덜은 모제 안 허여. 이젠 제사 곳 헤 불민.

112064 @ 으.

112064 #1 우린, 우리 집안은.  
112064 @ 계난 삼촌넨.  
112064 #1 죽어도 귀향풀이도 허는 거 엇고 우린.  
112064 @ 삼촌네 고씨 집?  
112064 #1 으.  
112064 @ 으. 귀향풀이도 허는 거 엇고?  
112064 #1 으. 이딴 죽어도 귀향풀이 허는 디 엇어.  
112065 @ 저기 제사 해 먹젠 허민 뭐 금기 허거나 그런 거 잇수과?  
112065 #1 엇어.  
112065 @ 엇어. 제사 잇이민 어디 가지 말아야 허잖아, 비린 디, 영장난 디?  
112065 #1 어. 영장난 디, 제 볼 사름덜게. 떡 헐 사름덜게.  
112065 @ 으. 제 볼 사름덜, 떡 헐 사름덜 그런 디 가지 말아야 헐 거?  
112065 #1 으.  
112054 @ 제사 때 상웨떡은 안 해낫수과?  
112054 #1 어?  
112054 @ 상웨떡?  
112054 #1 삼메떡도 허연.  
112054 @ 여긴 삼메떡.  
112054 #1 삼메떡도 허연 올려낫저만은이 이젠 더운디 삼메떡 허젠 험사게.  
112054 @ 아.  
112054 #1 우린 삼메떡 행 올려낫주게.  
112054 @ 계민 삼메떡 올리젠 허민 순서가 어떻 뉘?  
112054 #1 새미 인절미게.  
112054 @ 계니까 제펜 먼저 올리고, 켈 때, 켈 때?  
112054 #1 켈 때 제펜 올리고 인절미 쪽 그 삼메떡으로 인절미 올리고.  
112054 @ 아, 인절미로 삼메떡으로 허는 거?  
112054 #1 어, 영 니귀 반듯허게 올려, 멘들주게.  
112054 @ 예.  
112054 #1 제서 때에. 그 다음엔 이제 주전지 두께로 멩 거 반 끈으민 새미 뉘 주게.  
112054 @ 으.  
112054 #1 경허민 그거 올리고. 경허영 글후젠 끈떡만 우터레 올리민 뉘는 거.  
112054 @ 등절비, 상웨떡 헐 때 등절미 안 올렛수과?  
112054 #1 등절비 안 허여, 여름 때곡게. 인절미만 올리고.  
112054 @ 으, 인절미만 올리고. 계난 인절미를 끈떡으로 할 때도 있고.  
112054 #1 으.  
112054 @ 끈썰로 헐 때도 잇고 상웨떡으로.

112054 #1 으, 삼메떡으로. 그 삼메떡 할 때는 빵 헤영이 막걸리 사단 넣고. 나도 삼메떡은 맛 좋게 헤냈저.

112054 @ 예.

112054 #1 막 소문 나났저게 떡. 떡 잘 찌민이, 밀꺠루떡 잘 찌민 손에도 안 부터 멘들 때에.

112054 @ 예.

112054 #1 겐 난 저디 가메솟 큰 거 앓전 헤 낫저만은 이젠 가메솟도 다 쥐빌고. 경해도 이제 떡 치는 걸로 허여근에 멘들민 막 맛 좋덴 허연근에 먹나만은, 나 더웁곡이.

112054 @ 으.

112054 #1 경 안 허민 멩질에라도 행 가민 메누리덜이라도 잘 먹주만은 나 실편 못 허켜.

112054 @ 하하. 게민 삼춘은 제웬 치명도 실패 안 허영 잘 쳐낫구나예?

112054 #1 글로루 제웬 쳐 낫주게.

112054 @ 으.

112054 #1 경허고 삼메떡도 곱게 잘 멘들아낫주게. 밀꺠루도 우리 두 푸대씩 제서에 헤 낫저. 제웬 허고 침떡 허영 느넌 동네에.

112054 @ 아.

112054 #1 저 중혹교 살 때난 그 동넌 다 느넌주게.

112054 @ 아.

112054 #1 경허민 삼메떡이 맛 좋덴 막 우리 스춘 아주방도 스못 나 현 삼메떡이엔 허민. 우리 죽은아바지도 우리 시아방 초이틀날 제서허영 삼메떡 거쳐가난 우리 죽은아방도 막 아판 할 때주게. 아이구 년 삼메떡도 맛 좋게 잘 허연 나 침 잘 먹었저 현 게 아이쿠 뒷내날 오꼳 죽어벤.

112054 @ 그 삼메떡을 현 번 만들어 보십서. 어떻 만들어낫수와 삼메떡?

112054 #1 삼메떡. 막걸리 사단이 냉장고에 놓지 말앙 베꼈디 낫당 이젠 그 막걸리 비와 넣고 물 흐끔 매지그랑이 데와. 데와근에 그것에 그 떡에 맞게 꺠루에 맞게 물 흐끔 넣고 우유, 우유 하나 사다 넣고.

112054 @ 으.

112054 #1 경허여근에 베이킹 파우더 흐끔 넣고 이제 설탕, 설탕 뇌근에 뿃 허건 뉴슈가라도 흐끔 낱 걸 근 맞게 소금 흐끔 농곡 행 짓어. 경허영 베이킹파우다 영허영 칸 영 놓민 그것이 게끔 북각허명 박삭 올라와.

112054 @ 으.

112054 #1 경허여사 떡 찌민 맛이 셔.

112054 @ 으.

112054 #1 잘 부경. 삼메떡 허영 아이 부끄민 맛 데강이가 엇주게.

112054 @ 으.

112054 #1 경허영 짜여근에 저 몰르듯 허게 말양 몰르듯 허게 짜영 낱 놔두민  
것이 박삭이 부끄주게.

112054 @ 밀가루 반죽행 부끄게 놔 두는 거 아니?

112054 #1 으, 계난 다라에 부경 우이 비니루 더경 뭐 담요라도 더경 놔 두민  
부각이 올라오민 그뎨 또 짜명 멘들아. 경허영 솟더레 낱 치민게 북삭북삭. 경허영.

112054 @ 예, 맛 좋구다.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가리
201002	데가리	데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총제비
201006	머리털	머리
201007	머리카락	머리꼴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짤르다
201010	빗[梳]	얼럭지
201011	얼레빗	얼럭지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딴머리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고시레기
201016	가마[旋毛]	상감
201017	쌍가마	쌍상감
201018	가르마	앞가르다
201019	이마	이맹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뺨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낫[面]	놋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얹찰
201032	뺨따귀	뺨얹찰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볼	뿔대
201035	볼따구니	볼데기
201036	볼거리	*
201037	광대뼈	볼뼈
201038	보조개	뽀자기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까만동자
201043	눈꺼풀	눈 우이 두께
201044	거적눈	눈 두께 늘어진 거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꺼멍허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데기
201053	눈초리	눈각
201054	사팔눈	사팔이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믄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콧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썰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임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리다
201075	말하다	말근다, 말허다
201076	입방아	늪의말
201077	허풍	건풍
201078	뇌다	자꾸 근다
201079	침[唾]	꿈
201080	삼키다[吞]	느리다
201081	가래침	개춤
201082	뱉다[吐]	바꾸다
201083	느침	느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지
201085	혀	세
201086	훤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발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막어금니
201095	옥니	오그라진 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으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주어리

201105	긷불	긷뵙
201106	긷구멍	긷고냥
201107	긷칭(고막)	긷창
201108	긷지	긷뵓
201109	긷이개	긷오개
201110	가는긷	ㄱ는긷
201111	긷밑	긷밑
201112	구레나룻	늑대쉬엄
201113	목	모가지
201114	긷다[顛]	훗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멕살	멕살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뒷데멩이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데멩이

**상체**

201121	어깨	어깨
201122	어깨뼈	어깨짱
201123	어긷죽지	웃둑지
201124	겨드랑이	긷격이
201125	팔	플
201126	팔뚝	플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플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둑슬
201131	팔꿈치	플꼭지
201132	팔목(=손목)	훗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웁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웁손짱이, 웁격이
201139	손등	손등멩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콍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심
201145	할퀴다	굽어불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숨통
201157	명자리	멍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몸살, 젓명얼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꼽
201167	옆구리	옴갈리
201168	갈비뼈	옴가릴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꺾렵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뎡이 물지치다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마루
201179	등뼈	등꽁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 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둥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엉치
201186	엉덩이뼈	엉둥이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허벅다리 좃쟁이
201195	가래똥	명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넙적다리
201200	무릎	독, 독무릅
201201	무릎뼈	독무릅꽁
201202	뼈다[櫪]	뼈다
201203	정강이	정강이
201204	정강뼈	정강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곰
201208	복사뼈	*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계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피들락허다
201215	발등	발등뎡이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즈글리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가락새
201223	까치눈	발눈
201224	티눈	슬 굳엇저
201225	고린내	꼬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북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죽은베설
201233	목숨	목심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애기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건지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아깃방석, 애기방석, 애기붓
202007	땃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묻이
202011	갓난아이	굿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눔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의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엿게
202018	엿저지	엿게
201019	품다	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그레기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내미리다
202026	지린내	오줌내
202027	마렵다	므롭다
202028	꾸지람	꾸지럼
202029	배냇저고리	붓땃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령이	베벨레기
202032	포대기	뚜데기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뚜데기
202038	띠	걸렁기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존메존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걸음바걸음바
202046	걸음마	걸음바
202047	걸리다	걸루다
202048	곤두박질	*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던데던데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청아고개
202054	흉내	슌내
202055	흉내질하다	슌내내다
202056	엄살	흠세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우쟁이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날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떼기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은작작,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뒤쓸락
202073	풍계문어	*
202074	줄넘기	베뿔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숙제끼기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기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심백하다
202087	제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넉등베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강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
202100	편벽하다	편백들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바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청연
202107	가오리연	개구리연
202108	연달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리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
--------	----	---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그네판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굴리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영개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걱대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게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조라움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미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틀고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헛쟁이 소리
202148	방귀	똥궤다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푸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례들다	슬러례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구실, 족은구실
202157	학질	학실
202158	천연두	큰구실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득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군버줌
202167	진버짐	츄버줌
202168	주근깨	프리째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깁이
202175	부스럼	허멸
202176	종기	종기, 허멸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멸발
202180	다대	허멸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고름물, 궂인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얹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두드레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청맹과니	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백이
202194	사팔뜨기	사팔이
202195	다래끼	개썸
202195-1		개썸
202195-2		둘럿
202196	언칭이	얼칭이, 청보
202197	외언칭이	웨얼칭이
202198	쌍언칭이	쌍얼칭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뜨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세다데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자자기
202207	곰배팔이	폴졸레기
202208	곰사등이	곰새
202209	절뚝발이	발틀레기
202210	얹은뱅이	얹은베기
202211	문둥이	문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두번채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2	큰아들	큰아덜
	둘째아들	셋아덜
	셋째아들	말젯아덜
	넷째아들	두번채말젯아덜
	다섯째아들	시번채말젯아덜
	막내아들	족은아덜

- 그 외에서 말젯아덜에서 나뉘서 ‘말젯아덜, 두번채말젯아덜, 시번채말젯아덜, 니번채말젯아덜, 다섯번채말젯아덜’로 부름

203013	친아들	이녁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이녁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에새끼
203026	맡이	믄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단아덜
203034	외딸	웨딸, 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굴루기
203036	다르다[異]	뜨나다, 딱나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가다
203038-2		양제 돌아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
203045	권당	퀘당
203045-1		그 집안 여러 성제
203045-2		
203046	얕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얕창개 데리러 가지 못함)	신랑 없이 결혼하는 거(부득이하게 신랑이 신부를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아머니	시아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큰아방, 셋아방, 족은아방
203055-1	삼촌	동네 웃어른
203056	아주버니	시아주방
203057	아주머니	시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이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
203063	병추기	뱅주쟁이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아덜에 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아주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빌은딸, 봉가온 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옷ㄴ슴
204002	꿍다	긋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명	웃새미녕
204011	생목	지켓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
204018	솜틀	솜클, 소게 태우는 기계
204019	솜틀집	소게 태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도레

204022	누에	누엣베랭이
204023	누에채반	차롱착
204024	번데기	버랭이
204025	고치	버랭이
204026	뽕잎	뽕입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낭
204029	오디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돌안반, 낭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 마계
204032	퍼다	페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게끔
204035	물거품	물게끔
204036	빨랫돌	광돌
204037	빨랫방망이	세답마계
204038	빨랫바구니	세답구덕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세답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세답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험걸	험벽
204047	찢다[裂]	베리다
204048	나부랭이	므르레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각치메
204055	옷고름	고름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섰	안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돌메기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누데기옷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뿔쟁이
204073	잠방이	반중의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띠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보선부리,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훗옷	훗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계

204086	얇다	을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겹죽, 이불안
204091	흙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슴
204097	흙청	훗겹데기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요겹죽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걱죽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페랭이	페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낭페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짚신, 짚세기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딴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트다	부르트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폰채, 선제
204128	미선	폰채,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므르다
204133	골무	손골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가름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절레, 바농졸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곶치다	감치다
204146	휘감치다	휘감치다
204147	채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무르에(불르는 무르에)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얹는 거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즈록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무르에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손잡이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래기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새 열레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푸끄다

205007	빠다[渴水]	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밭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식충이
205021	밥술	숟가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밥 얻어먹다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미음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늑물짐치
205051	무김치	늑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바기짐치
205055	갯김치	갯늑물짐치
205056	파김치	파짐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짐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개미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뎡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하다
205069	콩나물	콩늑물
205070	숙주나물	녹두믄물
205071	무나물	늑뻬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썬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독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푸십췌
205083	오이	*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게웨
205087	만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갈자귀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가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고레호박) 고레착만이 허다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제펜
205110	부스러기	브시레기
205111	송편	송펜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다대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우등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얕롭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기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엷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쓰다
205146	갑시다	목맥히다
205147	지짐이	지짐떡
205148	누름적	지지미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쩍
205154	불뚱	불찌게기
205155	부엌비	정짓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늦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시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채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다뚫테기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끌리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천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갈레
205177	군손	굴룬손
205178	군일	굴룬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개비

205184	성냥갑	성냥갑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
205188	부시쌈지	부시쌈지
205189	부시통	부시통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호룽, 각지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접싷불	줍시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칸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205204	불티	불끼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청동화리
205209	봉당	*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불대다
205213	부손	불순구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시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통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통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젓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젹시
205236	굽달이	굽돋음접시
205237	대접	국사발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깃물
205246	도시락	밥차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남비
205249	바가지	쿨락박세기
205250	박	쿨락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쿨락박세기
205253	쪽박	쿨락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밀	시리 고망 막는 거
205260	시룻번	시리 마개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낭도고리
205263	바구니	차룽
205264	소쿠리	대차룽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짓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늑슬다
205283	행주	상보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굽
205287	죽젓광이	베숙이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 증동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젓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들이뿔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풍로
205295	삼발이	시발취
205296	달이다	달이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홀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집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허먹다
206024	마구간	몰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지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춤지침
206028	맞서다[拮]	마주서다
206029	냄새	내음새
206030	맡다[臭]	맞추다
206031	울담	우잣담
206032	울안	우영팻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낭늘
206036	짚가리	짚늘
206036-1	출늘	출늘, 새꿀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늘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람쥐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예끄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바리개
206044	디딤돌	엇들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얇다	올롭다
206053	구들직장	방직이
206054	큰방	안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윗바람	우풍
206061	안방	챗방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빗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시렁
206072	헛대	훼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폴비
206075	폴비	폴비
206076	챗방	챗방
206077	광	안방, 고평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안방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결	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
206088	처맞기습	*

206089	낙숫물	지신물
206090	댓돌	엿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진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
206096	흙질	흑질, 개백
206097	이기다[沓]	흑질힐 거 불르다.
206098	산자(撒子)	서실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상지둥
206101	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
206105	용마루	상모루
206106	보	들포
206107	대들보	*
206108	반자틀	마리틀
206109	귀틀	*
206110	외(椶)	*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웃도리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흙박이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개문	여단이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좁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가라스 부짚 디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밀문
206127	여단이	열문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대문, 정짓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찌귀	돌처귀
206133	암틀찌귀	암틀처귀
206134	수틀찌귀	수틀처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문고리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쌍툽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ㄴ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장도리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명이
206158	대괘	대괘
206159	개탕대괘	흙백이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곶자	곶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
206166	흑손	흑손
206167	쇠흑손	쇄손
206168	나무흑손	낭손
206169	흑받기	*
206170	돌물레	뒤치기
206171-1		호랭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이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떼기	도르갱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데,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깃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뺏어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뺏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욕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잡대
207011	벧밥	*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애
207014	밭두둑	이렁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중전벧
207019	씨레	서울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손잡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서울레 지둥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굽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서울레 발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밀레
207021	팽이	광이
207022	곡팽이	못광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떼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콩계	섬비
207035	남태	낭서을레,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메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막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이제 그룹서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대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쿵
207048	비싸다	빗나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
207050	품앗이	수눔음
207051	삼태기	굴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낱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미베쟁이
207055	새끼	스뀌, 슴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친
207060	참바(바[索])	베
207061	짐바	질베
207062	질빵	짐패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댓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207067-3	한대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끈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작대기

207069 바지게

망울지게

207070 발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석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보리클

207076 벼훑이

나룩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나룩클

207078 타작하다

태작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심
207083	겨를	즈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이	쭈쟁이
207087	풀	출
207088	풀밭	출왓
207089	풀꾼	출비는 사름, 출놈
207090	풀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실르다
207092	마차	말구르마
207093	복두	*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그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말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대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죤팍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뉘
207112	되	뉘
207113	관되	관뉘
207114	사삿되	뉘약세기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목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멩이, 가망이
207122	꿏다[引]	꿏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썰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릿낭
207141	매끼        무께미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오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히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짖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벼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밧터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쌀
207163	밭벼짚	산디짖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멧돌짝	멧돌의 위아래 돌	ㄱ레짝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쪽	우착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쪽	알착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ㄱ레즈룩

207165	멧방석	ㄱ렛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멧돌	풀ㄱ레
207168	풀매	풀ㄱ레
207169	췌기	끌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시콜방에
207171-2		니콜방에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 특
207173	방앗간	방엿간
207174	븀비다	비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 ㄱ레
207178	방앗돌	물방에돌
207179	연자맷간	물방에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머을
207184	고르다[擇]	줍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지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지접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아쟁이
207198	완두	푸린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팥
207202	팥알	팥방울
207203	팥밥	팥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쾌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갯묵	지름주생이
207209	고소하다	고시롱허다
207210	메밀	므밀
207211	메밀밭	므밀밭
207212	나깨	는쟁이
207213	메밀껍질	므밀체
207214	메밀국수	므밀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므밀처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므밀칼국수
207217	메밀떡	므밀떡
207218	메밀묵	므밀묵
207219	무르다[軟]	질다
207220	고구마	감제
207221	절간고구마	감제빼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종	마농쫐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패마농빨리
207228	무	눔빼
207229	무청	츠마기 이파리
207230	시래기	시래기
207231	장다리무	츠마기 동지 세왓당 씨허주.
207232	열무	츠마기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당배추
207235	나물	눔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대죽부레기
207240-1	옥수수	대죽부레기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쌀대죽
207243	비목수수	빃대죽
207244	사탕수수	새당대죽
207245	수수짱	대죽낭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수, 잠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속곳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왕눈
207249-2		죽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족박/사들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뱃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배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줄	*
207274	닷	*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우

#### 기타

207285	이웃	올레칩
207286	더불다[與]	흔디 살다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꺾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올르다
207292	아랫마을	아랫동네
207293	마을가다	막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막실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점빵
207297	다녀오다	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
207313	풀무	*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망치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
207321	결다[編]	즐다
207322	사냥	사냥
207323	사냥개	사냥개
207324	사냥꾼	사냥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평잡이	평사냥
207327	코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갖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다섯 돼	닷 말
208005-6	(6/엿)	으섯 돼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너되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너되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되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개	일고으덟되	일고으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더아홉개	으더아홉되	으더아홉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발[單位] 발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40자
208014-2	명주	40자
208014-3	광목	60자
208014-4	베	20자~25자

208015 마지기(평) 흔말지기

208015-1 150평

208016 뭇 뭇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즐레

208019-1 동

208020 조짐 가지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꿀	서른 못
208021-6	띠	*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열말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못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 머리  
 208028-2 머리  
 208029 축 축  
 208030 꿩미 께미  
 208031 쌍(돼지) 쌍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산  
 208034 켈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봣데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속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신랑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보내다
209014	함	홍세,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槩]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난 디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제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구냥
209032	짚동	짚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가다
209035	뫼자리	몯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예
209040	보장(寶帳)	포장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디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뱃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소피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산역시
209053	마치다[終]	몯치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을제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툼물
209061	메	메뱃
209062	갱(羹)	게영국
209063	제육	적
209064	제편	제편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태우다
209070	몯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멩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결립	결궁
209076	금줄	검줄
209077	매다[結]	메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장구
209080	팽과리	꽤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멩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뜸
209085	추석	팔월멩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액택이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디, 장도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백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죽산이,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둡서니	그신새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코시
210021	고수레	코시레
210022	포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뜨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냇가	냇가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영장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돌жат, 돌머들
211016	갈림길	거림질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비크레기질
211019	벼랑길	거굽어진 디
211020	내리막길	비시러진 디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질, 동산질
211022	길가	질가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움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느룻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자빠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곶자왈
211038	성(城)	성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곶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쟁이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가시
211050	펄	펄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누
211053	파dot소리	눗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누가 지프다
211056	굼뉘	문등누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물찌,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211059-2	두무날	두물	
211059-3	서무날	서물	
211059-4	너무날	너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5일/30일(보름 여섯, 그림 여섯)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211059-10	열무날	열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211059-14	아끈췌기	한조금	
211059-15	췌기	조금	
211059-16	한조금		

211060 여

여

211061 콧(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즈낙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게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빋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ㄴ심
211083	초저녁	초즈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머리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햇머리
211099	무지개	상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븀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ㄴ실
211104	겨울	저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웃췌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댓새
211113	대엿새	대웃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돌
211119	선달	선덜
211120	올해	올해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
211127	따스하다	뜨뜻허다
211128	땡별	땡벧
211129	가을별	ㄱ실벧
211130	양지받이	벧브른디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양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돛궁이주제
211142	동풍	하늬브름
211143	남풍	셋브름
211144	서풍	마브름
211145	북풍	*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미
211149-2	가을장마	*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췌나기주제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허다
211156	도롱이	츄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슉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으남, 안개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벅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헤영ㅎ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웁
211185	옆	웁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웁짜
211191	오른쪽	늑단짜
211192	밑	밋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꺄
211199	가장자리	꺄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작허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솫췌  
 212005 침소                          속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득세기  
 212008 황소                          황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을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뺑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
212105-3	사룻(3)	사룻	*
212015-4	나룻(4)	*	*
212015-5	다듭(5)	*	*
212015-6	여듭(6)	*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룻(9)	*	*
212015-10	열룻/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똥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물
212023	수말	숫물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얼룩물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물
212031	고라말	ㄱ라물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등 굽어 주는 거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고삐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득
212048	비루먹다	득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코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고녕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진남득

212057	멀떠구니	장두
212058	산떡	멍터거리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독집
212061	달걀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새기 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지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 퀘기, 돛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치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식육점, 도새기 판매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지시랭이
212081-2	둘암말	지시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시랭이
212081-4	둘암개	지시랭이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웁장에 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데기
212096	장구벌레	장쿨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蠹]	이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훼충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돛보리
212105	콩바구미	풍두에기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두에기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뱅이
212117	민달팽이	집엇인들뱅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물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촉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
212126	귀뚜라미	귀뚜레미
212127	풍뎅이	*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무당베렝이
212130	쇠똥구리	쉐똥부리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줍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심방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산태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산태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일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독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꽁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옷, 베염홀
212162	용	미리, 용
212162-1	용띠	미리헤치, 용헤치
212163	도마뱀	득달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값다	굽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냥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지달이
212176-1		지달이 고냥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가죽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즌나비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꿀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꽁지	생이꼴랑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삿꾸기	삿국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올빼미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가메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둥	보멸(수두리보멸, 떡보멸, 신데기, 곱생이, 가마귀보 멸, 메옹이, 마타살, 웬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둥	*
212212	명주고둥	*
212213	눈알고둥	*
212214	밤고둥	*
212215	팽이고둥	*
212216	각시고둥	*
212217	두드럭고둥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츄베말
212223	거북손	베채기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췌군벗, 돛군벗, 즈네군벗, 할미군벗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구제기
212227-1		줏쿠제기, 문둥쿠제기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천복
212229	전복갑	겹녕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게	궁이 (츄궁이, 지름콩이, 놀콩이, 똥궁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주리
212241	말미잘	말미주리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똥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매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매꾸럭, 메록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카다
212261	생선(生鮮)	바당궤기
212262	미끼	니깍
212263	갯지렁이	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시대	낙시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시줄	낙시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아구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모살치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갈치새끼
212279	베도라치	벗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덤부지
212282	매통이	아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고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렁이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갯돔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구룻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이까
212299-1		부찌다, 나쁘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손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막쟁이
212316	수염상어	비끼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수어기, 돌고래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ㄱ랫
213002	갈대	ㄱ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품	미뻬쟁이, 어옥새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미뻬쟁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물모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산뒤제완지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가마기웨줄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츄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돛수웨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으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이가시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풀
213053	짜리	푸께
213054	땅짜리	밀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데쿨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왕모시풀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개삼동
213067	하늘타리	하늘누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돛수웨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213074	취덩굴	취줄, 꼭줄
213075	취뿌리	취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홍악줄
213084	인동	인동고장
213085	멸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고녕이쿨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들국화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발
213143	줄기	낭가지
213144	가지	낭가쟁이
213145	잎	낭입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진을커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갈콩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빨경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몽꾸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꽃낭, 사꾸라낭
213170	왕벗나무	왕벗꽃낭
213171	사옥	사옥이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낭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급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가마귀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웁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감은가시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긋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구낭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굴낭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간죽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름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참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생이폭낭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가메기빈독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숨부기낭
213246	불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겉죽
213251	깎다	가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여미탈
213255	명석딸기	아야머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보리탈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낭탈
213260	검은딸기	가막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개즈밤
213263	머루	멀미
213264	개머루	가메기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갯드렛낭
213272	보리수나무	불레낭
213273	보리수	불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깨볼레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자
213282	탱자나무	탱자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쫂락지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폴감
213288	칭미래덩굴	맹괘낭
213289	맹감	똥고리낭
213290	찐레나무	*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능금낭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에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괘
213310	미역쇠	메역쉐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괘래
213313	툇	툇
213314	괘	괘
213315	넓괘	넙괘
213316	지층이	주층
213317	다시마	*
213318	듬북	*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츄몐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
213325	진두발	진두바리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득고달
213328	풀가사리	가시리